

내고장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 ⑪

내고장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

용인문화원

발간사

예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문화유산이요,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유산이 소멸되어 가는 지금, 구비전승되는 민속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은 외국의 구비전승 민속과 비교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 민속의 우수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문학의 소재로 이용 발전시키는 일이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살찌우는 일이며 세계화인 것입니다.

특히 용인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의 속도가 빠르므로 우리 고유의 많은 민속이 그만큼 빨리 소멸되어 가고 있다며 저자는 우리 문화원을 찾아와 안타까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본인과 뜻을 같이하여 2년 전에 기획한 것이며, 저자는 내고장 용인을 위하여 2년 동안 마을 구석구석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무형으로 전승되는 민속 자료를 살살이 채록한 것을 우선 내고장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으로 엮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산재한 우리의 무형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서구문화의 횡포 앞에서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것보다는 남의 것을 선호하는 잠재의식 등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창달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문화유산을 정리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번의 작업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내고장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 이 내고장 문화 창달에 참고가 되며 21세기를 향한 용인 시민의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채록에 응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기간 자료 수집과 집필, 편집을 맡아주신 용인대학교 박종수교수님, 강현모선생님 그리고 용인대학교 부설 전통문화연구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6년 5월 일
용인문화원장 송 재 권

서 문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의 교명이 3년 전에 용인대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용인 지역에 무엇인가 공헌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오랜 궁리 끝에 필자의 전공과 관련하여 용인의 전통문화 유산을 살살이 수집하여 기록하는 작업이 용인 지역에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일환으로 <구비문학대계 용인편>, <경기도지>, <용인군지> 등의 민속편을 훑어보니 부분적인 조사였다.

특히 용인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의 속도가 빠르므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그만큼 빨리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간파할 수 없어 마음이 급해짐을 느꼈다. 용인의 옛 이름을 보면 백제시대에는 멸오(滅烏), 고려려시대에는 구성(駒城), 신라시대에는 거서(巨黍), 고려시대에는 용구(龍駒),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용인(龍仁)으로 불러 왔다. 이러한 지명의 변화와 순국열사 이한웅선생, 충정공·민영환선생, 고려충신 포은 정몽주선생의 묘가 있음은 그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용인은 산자수명하고 풍요로우며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 등을 볼 때, 전통문화 유산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옛 스승 성봉선생의 지도와 나손선생을 5년간 모시면서 보고 들은 경험으로, 용인 지역의 구비전승을 중심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용인의 동부지역부터 수집 정리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 원고가 쌓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책으로 출판하여 민속학 연구자와 용인 지역 주민들에게 읽혀 자긍심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필자

가 2년 전에 우연히 용인문화원을 들르게 되어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니 용인문화원에서 출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뜻을 같이한 용인문화원에 감사드리며 필자는 더욱 힘을 얻고 내고장 용인을 위하여 마을 구석구석을 발로 뛰게 되었다.

마침, 본교 국문학 강의를 맡은 강현모선생에게 이러한 사업을 얘기하니 남다른 관심을 갖게되어 이 작업을 추진하는데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었다. 강선생은 최래옥교수 밑에서 다년간 한국민속 현장의 필드워크를 통하여 한국민속학을 개척하였는데, 이번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책으로 출판해서 학계와 지역사회에 내놓게 되는 것이다. 거듭 감사를 드린다.

용인지역 민간에 구비전승되는 자료를 발굴하고 재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전승문화를 인식시키고 긍지를 갖도록 하자는 뜻에서 정리한 것이다. 조상전래의 전승문화를 재현하고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아쉬운 점은 지역적으로 선별해서 조사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필자는 용인 전 지역을 샅샅이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양이 방대하다보니 2개 면을 묶어서 동부지역으로 낼 수밖에 없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끝으로 이 책을 펴내기까지 열과 성을 쏟아주신 여러 분들과 특히 출판되도록 배려해주신 용인문화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96년 5월 일
용인대학교 鈞齋書室에서
著者 謹識

일러두기

1. 이 자료는 1995년 5월 13일 - 1995년 11월 20일 사이에 용인시 동부지역인 백암면과 원삼면 내의 전 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채록 정리한 것이다.
2. 개관은 읍지 군지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3. 보고서의 작성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기술방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4. 각 리마다 마을과 제보자에 대한 개관을 하였다.
5. 자료마다 일련번호, 테이프번호, 조사장소, 조사자, 제보자의 성명(나이, 성별) 조사날짜 등을 명시하였다.
6. 자료의 배열은 각 리별로 하여 번호를 붙였으며, 그 리별 배열은 면 소재를 중심으로 한쪽에서 원형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7.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내용을 일체 가감없이 그대로 활자화하였으며, 와음이나 방언도 그대로 채록하였다.(녹음불량은 기록 상태를 최대한으로 복원시켜 활자화시켰다.)
8. 자료의 본문에서 방언의 설명이나 상황과 분위기의 변화 등은 ()안에 부연 설명하고, 조사자나 청중의 개입은 []로 묶어 표기하였다.
9. 필요한 경우의 생략은 ... 로 표시하고, 테이프에서 채록할 수 없는 부분은 [청취불능]이라 표시하였다.
10. 용인 지역의 설화 개관이나 수록 자료의 구체적인 자료 분류는 용인군 전 지역이 조사를 마치고 발간할 때 붙이기로 한다.

목 차

I. 개 관

1. 용인시의 지역개관 1
2. 동부지역 조사개관 11

II. 백암면 설화

1. 백 암 리

[마을 개관] 23

[백암리 제보자]

[설 화]

1. 심봄순(89, 여) 할머니를 고려장 못하게 한 손자 25
2. 심봄순(89, 여) 쥐의 후손인 서씨 26
3. 심봄순(89, 여) 여우구슬을 삼키고 된 지관 29
4. 심봄순(89, 여) 호랑이 목의 비녀 빼주고 잘된 사람 31

5. 심봄순(89, 여) 흑부리 영감	33
6. 심봄순(89, 여) 사람으로 변한 여우	35
7. 심봄순(89, 여) 도섭(변신)한 여우	37
8. 김만순(80, 여) 개똥으로 시어머니 밥을 해준 며느리	39
9. 김만순(80, 여) 잘린 구렁이 원수 갚기	40
10. 김만순(80, 여) 아버지 선물을 어겨 망한 집안	42
11. 심봄순(89, 여) 논밭을 사야할 도깨비 돈	43
12. 박사문(77, 남) 적선지가 필유여경	47
13. 박사문(77, 남) 지가사의 대명사 손석우	58

2. 근 창 리

[마을 개관]	60
---------------	----

[근창리 제보자]

[설 화]

1. 윤희선(83, 남) 청백리 이원익 대감	64
2. 윤희선(83, 남) 스스로 죽음을 택한 오성대감	64
3. 신순범(89, 여) 수수대가 빨간 이유	66
4. 신순범(89, 여) 선관의 도움을 받은 여인	69
5. 신순범(89, 여) 상전을 골려먹은 유기장수	70
6. 윤복순(76, 여) 나쁜 계모(장화홍련전)	75
7. 채원만(67, 여) 부모에게 한만큼 당한 나쁜 아들	77
8. 이원남(66, 남) 비오는 날 나타난 도깨비	78
9. 이창순(70, 남) 삼천감자 동방삭의 최후	79
10. 정현우(40, 남) 말벌고개의 유래	80

11. 윤희선(83, 남) 호랑이 만난 사람	81
12. 남의순(82, 여)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83
13. 남의순(82, 여) 호랑이 잡은 소도둑	83
14. 박삼원(79, 남) 사람을 잡아먹다 배탈난 호랑이	84

3. 근삼리

[마을 개관]	86
---------------	----

[근삼리 제보자]

[설 화]

1. 강남순(80, 여) 독장수 순임금	88
2. 강남순(80, 여) 소금장수 딸의 지혜	89
3. 강점순(70, 여) 신령스러운 당산목	90
4. ? (? , 여) 수수께끼	91

[민 요]

1. 강남순(80, 여) 달아 달아 밝은 달아!	92
2. 강남순(80, 여) 푸른하늘 은하수	93
3. 강남순(80, 여) 아주까락 동백아	94
4. 강남순(80, 여) 참새가 적어도	94
5. 강남순(80, 여) 꿩지나 청칭나네	95
6. 강남순(80, 여) 세월 내월아 가지마라	96
7. 강남순(80, 여) 세월 내월 금같은 세상에	96
8. 강남순(80, 여) 나물 캐러 간다고	98
9. 강남순(80, 여) 뒷동산에 할미꽃은	99

10. 강점순(80, 여) 용감하고 빛나는...	100
11. 박정배부인(79, 여) 노랫가락	101
12. 박정배부인(79, 여) 달아 달아 밝은 달아	101

4. 용 천 리

[마을 개관]	103
---------	-----

[용천리 제보자]

[설 화]

1. 김영하(70, 여) 구렁덩덩 신선비	104
2. 김영하(70, 여) 벚단을 나르는 의좋은 형제	109
3. 김영하(70, 여) 할미꽃의 유래	110
4. 김영하(70, 여) 나무꾼과 선녀	111
5. 김영하(70, 여) 상원사 전설	118
6. 김영하(70, 여) 구박한 며느리를 죽인 개	120

5. 장 평 리

[마을개관]	122
--------	-----

[장평리 제보자]

[설 화]

1. 서순중(71, 여) 변신한 호랑이 물리친 어머니	124
2. 서순중(71, 여) 콩쥐팥쥐	125
3. 서순중(71, 여) 새가 된 여동생	128

4. 서순중(71, 여) 흥부와 놀부	129
5. 박재원(82, 남) 조비산에 있는 천하대지	130
6. 박재원(82, 남) 조천사가 있는 조비산	131
7. 서정순(49, 여) 수수대가 빨간 이유	132
8. 서정순(49, 여) 제사밥을 얻어먹고 가는 혼	137

6. 석천리

[마을 개관]	139
[석천리 제보자]	

[설 화]

1. 유 씨(60대, 남) 조비산의 유래	140
2. 유 씨(60대, 남) 서울이 못된 용인	141
3. ? (60대, 남) 암장하면 가뭄드는 조비산의 명당	142
4. ? (60대, 남) 과객이 자고가는 인정많은 덕운리	143

7. 고안리

[마을 개관]	145
[고안리 제보자]	

[설 화]

1. 조덕원(85, 남) 여름에 홍시를 구한 효자	147
2. 조덕원(85, 남) 동고자손과 울곡자손이 등돌린 이유	149
3. 조덕원(85, 남) 김해 김씨와 허씨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150

4. 조덕원(85, 남) 아들 묻으려는 효자(손순매아)	151
5. 김명재(70대, 남) 수수께끼 설화(계산법)	154

[민 요]

1. 조덕원(85, 남) 한 글	155
2. 조덕원(85, 남) 대한민국	157
3. 김명재(70대, 남) 모심기 노래	158

8. 백 봉 리

[마을 개관]	159
----------------------	-----

[백봉리 제보자]

[설 화]

1. 이규창(72, 남) 웬수골의 유래	164
2. 이규창(72, 남) 아곡마을의 유래	164
3. 이규창(72, 남) 백동마을의 유래	165
4. 이규창(72, 남)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묘자리	166
5. 최수협(70, 남) 반만 용이 된 조비산 무덤	167
6. 최수협(70, 남) 조비산의 유래와 그의 명당	168
7. 백선기(80, 남) 용을 승천시킨 통도사 스님	170
8. 고담가(?, 남) 성계 작대기의 유래	171
9. 인구태(?, 남) 만인적덕의 명당	174
10. 인구태(?, 남) 며느리 마음을 고친 재치있는 효자	178
11. 인구태(?, 남) 아들 버릇을 고친 며느리의 지혜	185
12. 제보자1(?, 남) 은혜깊은 사슴	190
13. 제보자1(?, 남) 흑부리 영감	192

14. 제보자1(?, 남) 은혜깊은 잉어	193
15. 제보자1(?, 남) 산삼 동자	194
16. 제보자2(60대, 남) 능말의 유래	196
17. 제보자2(60대, 남) 옥산리 열녀문	197

[민 요]

1. ? (?, 여) 새 타 령	198
2. 제보자2(60대, 남) 김매기 소리	198

9. 박 곡 리

[마을 개관]	200
---------------	-----

[박곡리 제보자]

[설 화]

1. 윤기현(?, 남) 오방낭골 유래(장자못 전설 잔형)	201
2. 할아버지(90, 남) 잘못 본 도깨비는	203
3. 할아버지(90, 남) 외가리 날아간 마을	204

[민 요]

1. 할아버지(90, 남) 모내기 노래	205
-----------------------------	-----

10. 근 곡 리

[마을 개관]	206
---------------	-----

[근곡리 제보자]

[설 화]

1. 이석규(60대, 남) 제사받지 못하는 호랑이혈	209
2. 김병준(74, 남) 무릉도원(신선 바둑두기)	210
3. 김병준(74, 남) 지명 유래	213
1) 마두 유래	213
2) 노동의 유래	213
4. 김병준(74, 남) 날마다 산소에 오가는 안창의 효자	214
5. 김병준(74, 남) 인장지덕 목장지해(人長之德 木長之害)	215
6. 김병준(74, 남) 도깨비의 장난	216
7. 김병준(74, 남) 조래미터의 유래	217
8. 김병준(74, 남) 어린 신랑 때문에 일어난 일화	219
9. 김병준(74, 남) 사명당이 스님된 이유	220
10. 박유순(61, 여) 도깨비 장난	220
11. 박유순(61, 여) 귀신에 놀란 일	221
12. 양세규(62, 남) 마두의 유래	222
13. 양세규(62, 남) 동네 여자들 바람나는 노구바우	223
14. 양세규(62, 남) 삼천갑자를 산 동방석	224
15. 최기복(62, 남) 찬물에 목욕해도 춥지 않은 제관	226
16. 최기복(62, 남) 돈이 사귀된 도깨비 터	227
17. 최기복(62, 남) 도깨비 터의 운수	229
18. 최기복(62, 남) 사귀가 된 금	234
19. 최기복(62, 남) 주인을 구한 소	237
20. 최기복(62, 남) 남의 구덩에 세운 채로 묻은 명당	238
21. 최기복(62, 남) 살아 움직이는 평판리 동자삼	240
1) 팔봉산의 유래	240
2) 임진왜란 때 춘천의 침입을 막은 노인	241

3) 동자삼	242
22. 최기복(62, 남) 진시황 못구한 불로초	245
23. ? (60대, 남) 마을에 얽힌 일화	247

11. 가 장 리

[마을 개관]	248
---------------	-----

[가창리 제보자]

[설 화]

1. 이종극(73, 남) 수정산의 지명 유래 1	250
2. 이종극(73, 남) 수정산의 팔명당	251
3. 이홍수(61, 남) 호랑이 쫓은 할아버지	252
4. 이홍수(61, 남) 수정산의 지명 유래 2	253
5. 이홍수(61, 남) 도깨비 이야기	254
6. 이홍수(61, 남) 호랑이가 도와준 사람	254
7. 이홍수(61, 남) 이십이 굴 전설	255
8. 이종극(73, 남) 도깨비에 홀린 사람	257
9. 이종극(73, 남) 놀이터 수정산	257
10. 이종극(73, 남) 이 고장의 짐승들	258
11. 이종극(73, 남) 신령스런 수정산	259
12. 이영세(61, 남) 이무기를 처치한 허저기 장사	260
13. 이영세(61, 남) 수정산의 바위 명칭	262
14. 이영세(61, 남) 소바위와 얽힌 전설	263
15. 이영세(61, 남) 이십이를 물리친 허저기	263
16. 이영세(61, 남) 수정산에 얽힌 바위전설	265

17. 이영세(61, 남) 바위에 오줌 싼 장수 269

12. 가 좌 리

[마을개관] 270

[가좌리 제보자]

[설 화]

1. 이기순(67, 여) 백일 정성으로 얻은 거북 아들 271
2. 김복화(76, 여) 수수대가 빨간 이유 273
3. ? (? , 남) 과거를 본 종의 아들 274

III. 원삼면 설화

1. 고 당 리

[마을 개관] 279

[고당리 제보자]

[설 화]

1. 김순분(66, 여) 도둑을 쫓는 사연 280
2. 김순분(66, 여) 바보 아내와 남편 281

3. 김순분(66, 여) 빗자루로 변한 도깨비	283
4. 김순분(66, 여) 수수대가 빨간 이유	284
5. 김순분(66, 여) 아버지를 되찾은 아들	286
6. 김순분(66, 여) 명당자리를 구한 내력	288
7. 김순분(66, 여) 자기 복대로 쓴 명당	289
8. 김순분(66, 여) 시주 잘 한 모자(김대성 일화)	291
9. 김순분(66, 여) 고려장 없어진 이유	292
10. 김순분(66, 여) 석수장에게 잘못된 이대장	293
11. 김순분(66, 여) 시아버지를 살린 며느리의 지혜	294
12. 김순분(66, 여) 지혜로 얻은 벼슬자리	295
13. 김순분(66, 여) 곡소리 안들은 상옷(원님의 지혜)	297
14. 김동근(69, 남) 아기장수를 처치한 이대장	298
15. 김동근(69, 남) 전국을 감사(監査)한 암행어사	300
16. 김동근(69, 남) 조자룡 유비 구하기(삼국지)	302
17. 김동근(69, 남) 이유관 장군 일화	303
18. 김동근(69, 남) 한국에 인물이 적은 이유	308
19. 김동근(69, 남) 임금의 따귀 치고 장원급제한 이진완	309
20. 김동근(69, 남) 이울곡과 나도 밤나무	313
21. 김동근(69, 남) 강감찬 장군 일화	316
1) 여우의 아들로 태어남	316
2) 염병을 물리친 강감찬	317
3) 까마귀 소리 알아들은 강감찬	318
22. 김동근(69, 남) 신라 초기의 박석김의 왕 계승	320
1) 박혁거세	320
2) 석탈해	322
3) 김알지	322

2. 문 촌 리

[마을개관] 324

[문촌리 제보자]

[설 화]

1. 이규남(82, 남) 문촌리의 지명 유래 326
 - 1) 돈곳을 잘못 지은 석화지 326
 - 2) 고초 마을의 유래 327
 - 3) 문촌 마을 유래 328
2. 김옥래(83, 여) 고된 시집살이 328
3. 김옥래(83, 여) 불행한 인연 329
4. 서정현(72, 남) 개막장을 지낸 오씨 집안 331
5. 서정현(72, 남) 호환 당한 순흥 안씨 332
6. 서정현(72, 남) 문촌리의 일화들 332
7. 서정현(72, 남) 빌려온 곡식에 옮겨온 업 334
8. 서정현(72, 남) 숙종대왕 일화(민비와 장희빈) 336
9. 서정현(72, 남) 제사에 허배하는 서출 340
10. 서정현(72, 남) 아기장사 전설 340
11. 서정현(72, 남) 힘이 장사인 오근영 341
12. 서정현(72, 남) 왕씨가 조상인 전씨 342

[민 요]

1. 서정현(72, 남) 노동요 343
2. 이규남(82, 남) 모심기 노래 345
3. 이규남 부인(?, 여) 자장가 345
4. 이규남(82, 남) 노랫가락 346

3. 학 일 리

[마을 개관] 347

[설 화]

1. ? (50대, 남) 오학사 일화(고초골의 유래) 348
2. ? (50대, 남) 호랑이 보다 힘이 센 진씨 348
3. 용식어머니(70대, 여) 아들을 얻은 늦수저의 태몽 349

[민 요]

1. ? (77, 여) 새로운 희망의 세상 350

4. 독 성 리

[마을개관] 351

[독성리 제보자]

[설 화]

1. 한봉수(71, 남) 적덕한 셋째 딸 353
2. 한봉수(71, 남) 아들의 죽을 운수를 넘겨준 스님 355
3. 윤충구(29, 남) 절터와 탁발승의 능력(지명 유래) 358
4. 윤충구(29, 남) 호랑이 물리친 사람 359
5. 윤충구(29, 남) 여우를 물리친 할머니 360
6. 윤충구(29, 남) 잡아먹으면 해로운 짐승 362
7. 윤충구(29, 남) 귀신을 이긴 여자 362
8. 윤충구(29, 남) 저승사자 물리치고 살아난 여인 363
9. 윤충구(29, 남) 관 잘못 다뤄 화를 입은 사람 364

10. 윤충구(29, 남) 용인지역의 6대 명당자리	366
11. 윤충구(29, 남) 물이 없어 수도가 못된 용인	367
12. 심효순(59, 여) 좌정고개 귀신 들은 집	368
13. 강점자(41, 여) 도읍지를 주장한 독성리 장수바위	370

5. 죽 능 리

[마을 개관]	372
---------------	-----

[죽능리 제보자]

[설 화]

1. 오수환(56, 남) 죽능리의 지명 유래	374
1) 능말의 유래	375
2) 죽능리의 유래	375
2. 오수환(56, 남) 소원을 이루어 주는 미륵코	376
3. 오수환(56, 남) 수도가 못된 구봉산	377
4. 오수환(56, 남) 지명 유래 '뒷밭'	378
5. 강분년(83, 여) 호환 당한 할머니	379
6. 강분년(83, 여) 도깨비 방망이	382
7. 이경순(64, 여) 은혜 깊은 호랑이	387
8. 이경순(64, 여) 꼬부랑 할머니	389
9. 이경순(64, 여) 십년 먹여 사귀 된 개의 원수갓기	389
10. 강분년(83, 여) 도깨비 쫓은 여인	391
11. 이경순(64, 여) 색시 훔쳐간 곰	393
12. 최현철(67, 남) 산신령을 알아본 겁이 많은 소	394
13. 이경순(64, 여) 본분을 중시하는 호랑이	397

14. 강분년(83, 여) 새끼 이쁘다면 좋아하는 호랑이	398
15. 이경순(64, 여) 원수 갚으러 들어온 고양이	400
16. 이경순(64, 여) 업구렁이 때려 벌받은 사람	401
17. 최현철(67, 남) 소원을 들어주는 움목	402
18. 이경순(64, 여) 움직이다 멈춘 쌍룡산	403

6. 목신리

[마을 개관]	405
---------------	-----

[목신리 제보자]

[설 화]

1. 박병철(78, 남) 참아서 명당 얻은 이교리	408
2. 박병철(78, 남) 덕을 쌓고 복받은 사람	413
3. 박병철(78, 남) 도깨비는 없다	421
4. 박병철(78, 남) '여자 열보다 나은 남자'의 유래	422
5. 박병철(78, 남) 효부를 밝혀낸 어사 박문수	425
6. 신영균(75, 남) '썸썸'이라 말한 어사를 구한 어린이	428

7. 두창리

[마을 개관]	432
---------------	-----

[두창리 제보자]

[설 화]

1. 이상운(64, 남) 용수의 샘과 마을 유래	435
2. 이상운(64, 남) 공합원단의 유래	437

3. 이상운(64, 남) 도깨비불을 물리친 사람	439
1) 도깨비불	439
2) 도깨비를 물리친 사람	440
4. 이상운(64, 남) 마을을 폐허시킨 처녀귀신과 도깨비	442
5. 이상운(64, 남) 핫땃거리	443
6. 이상운(64, 남) 금으로 만든 배틀(장자못 전설)	443
7. 이상운(64, 남) 서울되지 못한 두창리	445
1) 두창리의 유래	445
2) 서울이 되지 못한 구봉산	446
8. 김성식(42, 남) 사람을 데려가는 혼령	447
9. 박윤복(68, 남) 개똥으로 밥을 지은 며느리	448
10. 조동선(83, 남) 재치가 많은 이문헌	450

[민 요]

1. 이영한(72, 남) 배 틀 가	455
2. 이영한(72, 남) 청 년 가	456

8. 가 작 율 리

[마을 개관]	457
----------------------	------------

[가좌율리 제보자]

[설 화]

1. 김정선(72, 여) 천사가 된 호랑이	459
2. 박종례(69, 여) 신발 벗기는 도깨비	460
3. 최효임(65, 여) 돌아왔은 소바위	462

[민 요]

1. 박점례(86, 여) 모심기 노래 463

9. 미 평 리

[마을 개관] 464

[미평리 제보자]

[설 화]

1. 김 전(?, 여) 미룩에 잘못하여 벌 받은 일 465

10. 맹 리

[마을 개관] 471

[맹리 제보자]

[설 화]

1. 유복남(66, 여) 신령스런 100년 된 느티나무 473
2. 허 석(67, 남) 허씨 허균의 일화 475
3. 허 석(67, 남) 허적이 굴 유래 477

11. 좌 향 리

[마을 개관] 478

[좌향리 제보자]

[설 화]

1. 이희귀(64, 여) 곰나루 전설(유인애사)	482
2. 이희귀(64, 여) 큰 마누라 문둥병을 고쳐준 작은 마누라	485
3. 이희귀(64, 여) 정승딸을 데리고 산 머슴	487
4. 이원홍(80, 남) 기생 칩을 얻은 배추장수	493
5. 이상준(60, 여) 백다구 변한 여우	501
6. 이상준(60, 여) 정성 부족한 사람을 혼낸 산신령	504
7. 제보자1(76, 남) 도시보다 효자가 많은 산간 벽지	506
8. 제보자1(76, 남) 순박한 사람이 얻은 횡재(금과 산삼)	507
9. 제보자1(76, 남) 과거보러 간 선비	508
10. 제보자1(76, 남) 노숙할 때 무덤에서 자는 이유	511
11. 제보자1(76, 남) 대동강에서 자살하는 유곽의 여인들	512
12. 남기만(82, 남) 보은단골 유래	513
13. 남기만(82, 남) 박색의 처를 얻고 잘된 안동김씨	520
14. 남기만(82, 남) 욕심 부리다 벌 받은 상인	524
15. 김세호(84, 남) 어윤중 대감이 죽은 어비울	527
16. 김세호(84, 남) 수구리의 지명유래	530
17. 김세호(84, 남) 비상리의 지명유래	531
18. 제보자2(70대, 남) 은혜 깊은 노루	532
19. 제보자2(70대, 남) 효자가 얻은 산삼 동자	533

12. 사 암 리

[마을 개관]	535
----------------------	------------

[사암리 제보자]

[설 화]

1. 이정열(80, 남) 아버지를 살린 자식의 지혜 538
2. 임경택(65, 남) 제주 좋은 충각과 처녀 542
3. 구자춘(74, 남) 도깨비 이야기 1 544
4. 임경택(65, 남) 밤나무와 도깨비 불 545
5. 임경택(65, 남) 와우 정사 546
6. 이정열(80, 남) 소바위 546
7. 임경택(65, 남) 수정산 547
8. 이정열(80, 남) 도깨비 이야기 2 547
9. 박성철(60대, 남) 아버지를 살린 지혜로운 아들 549
10. 제보자2(60대, 남) 뱀조카를 알아본 허미수(허지기 전설) 553
11. 박성철(60대, 남) 똥을 먹은 오성대감 554
12. 박성철(60대, 남) 마마로 죽은 시신 속에 누웠던 오성 556
13. 제보자2(60대, 남) 오입한 한음을 구한 오성대감 557

[민 요]

1. 이진열(60대, 남) 창부타령 559

I . 개 관

1. 용인시의 지역개관

1) 자연적 배경

경기도 중앙에 위치한 용인시는 동쪽에 이천군·광주군, 남쪽에 안성군·평택군, 서쪽에 수원시·화성군·시흥군, 북쪽에 성남시·광주군과 접하여 광주산맥의 지맥에 구릉지대를 형성하는 산간 계곡의 지세로 주변의 인접 시군을 내려다 보는 형세를 이루고 있다.

교통은 서울과 충북지방을 연결하는 구한말 국도가 남북으로 중앙을 지나고, 수원과 원주를 잇는 국도, 용인시에서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를 잇는 국도, 용인시에서 안성읍을 잇는 국도가 있다. 그리고 1968년도 개통한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1972년에 개통된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를 관통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6개나 있어 명실공히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이자 요충지가 되고 있다. (협궤열차인 수여선(수원~여주)이 1973년에 폐선되었다.)

용인시의 면적은 총 592.05km²인데, 임야가 372.81km²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답이 155.09km²이고 기타 64.15km²이다.

지형은 광주산맥에 속하여 남북으로 달리는 네개의 산줄기에 의해서 본 시가 구분되고 있다. 서측 시흥군과의 경계지역에는 광교산(582m)·백운산(560m)·바라산·형제봉 등으로 이루어진 400m 이상의 남북 방향 산릉이 있으며, 이 산릉의 동쪽에도 남한산성에서 뻗어내리는 범화산·무푸레고개·성산(471m)·부아산(403m)·함봉산(306m) 등 또다른 산릉이 있다. 이는 구성면, 모현면, 포곡면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기흥읍과 용인시 그리고 이동면과 화성군 동탄면의 자연적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광주군 경안리 남측에서 정남방향으로 발달한 산릉에 태화산(645m)·노고봉((579m)·발이봉·정광산·형제봉·쌍령산 등의 산봉이 솟아 용인시의 동부지역을 크게 구분하고 있다. 이 산릉의 동측에는 수정산·굴봉산·정배산 등 비교적 고도가 낮은 산릉이 남북으로 달리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위구릉성 산지에 해당하며 산릉이 남북으로 발달하여 그 사이의 침식저지와 충적지들로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본 시의 지형을 보면, 동쪽과 서쪽 끝의 근처에는 주라기의 대보화강암, 구성면 일대에는 시대 미상의 각섬석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는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 단산속군에 속하는 편암이 나타난다.

주요 하천은 북류하여 한강으로 유입하는 금령천, 서남으로부터 분항만으로 유입하는 구흥천, 동남쪽으로 흘러 남한강으로 유입하는 청계천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장 서쪽의 저지는 한강지류인 탄천과 진위천의 지류인 (신)갈천이 있다.

용인시는 위도상 우리나라의 중간에 위치하여 기후 또한 중간적이다. 강수량은 달과 해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5~10월과 11~4월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우기로서 160mm이상 내려 1년 강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위도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철은

바다에서 고온다습한 계절풍이 불어 비가 많이 내리고, 이와 반대로 겨울에는 대륙에서 한랭건조한 계절풍이 불어 춥고 비나 눈이 적게 온다.

2) 인문사회적 배경

용인 지역은 서울에 근접한 곳이기에 빈객들이 빈번히 드나드는 고장이었으며, 따라서 인구의 변동도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갈천유역에는 광주에서 이주해 와서 정착한 갈천공 후손인 경주(갈래) 김씨가, 포나리에는 기묘사화때 조광조 일파로 몰려 사직당한 한양 조씨(조광조의 4촌인 조광자)가, 지곡리에는 역시 기묘사화로 파직되어 은거한 한산 이씨(이자)가 각각 정착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도록 동일 문종이 우세한 동족취락을 이루었다. 이런점으로 미루어 보아 갈천의 경주 김씨(15대), 보라리의 한양 조씨(14대), 지곡리의 한산 이씨(14대) 문종은 역참과는 별개로 토지경계에 바탕을 둔 동족취락을 형성시켰던 것이다.

용인시와 기흥읍 두 곳을 합친 주민수가 전체의 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용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용인시에 밀집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신흥도시로 발전하는 기흥읍의 경우는 타지방 사람들의 영입이 두드러지게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분당이 인접해 있고 단국대학교의 이전 등으로 볼때, 수지·구성면까지도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용인시의 총 인구는 1960년 106,689명, 1970년 94,834명, 1987년에는 169,960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농업 인구는 1960년 92,380명, 1970년 81,324명, 1987년에는 55,854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용인시 농가

호수는 1960년도 전업이 13,439호, 겸업이 802호, 총 13,441호 이던 것이 1970년도에 14,243호로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83년에 11,110호로 약 2,000여호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이를 호당 주민수로 파악해 보면, 1950년도에 호당 6.6명이었던 것이 1970년도에는 5.7명으로, 1983년도에는 다시 5.3명으로 떨어져 1960년에 비해 약 1.3명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농가호수가 농업인구와 더불어 현저하게 감소 현상을 보이는 것은 1960년대 이후 공업화정책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현상과 이농화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의 한 특징인 핵가족화의 경향이라고도 파악할 수 있다.

축산업은 일반 복합농업의 부업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그 규모가 대형화되어 기업형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가는 추세에 따라 육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축산업은 농가 소득증대의 역점사업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정부의 1, 2차 축산진흥 장기사업계획의 추진에 따라, 용인시는 서울과 인접한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여 영농사업을 비롯한 육류 공급사업에 중점을 둔 결과 이 분야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왔다.

용인지방의 광물은 금·고령토·납석·규석·장석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생산량이 소량에 불과하다. 1974년을 기준으로 생산되던 광물의 수량도 점차 감소하여 1981년 이후에는 고령토만 산출되고 있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왔던 용인의 광업이 자원의 고갈로 점차 폐광화 되었었다.

용인시 공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1980년대는 1970년대의 소비재공업에서 점차 생산재공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조업체는 종업원이 100명 이하의 업체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기업체 내지 중소기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종업원의 규모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체는 1980년 이후 4개가 되었다.

용인의 도자기 공업은 오래 전부터 발달하여 왔음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백자 요지가 1968년 용인시 이동면 서리에서 발견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백자 요지임이 판명되어 이미 9~10세기에 도자기 공업이 활발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대접은 10세기 경의 것으로 기형과 굽의 정리 등이 중국 오대의 전형적인 조주청자와 같은 형태이다. 이러한 기형은 10~11세기 전반기의 고려청자에 많이 있으며, 백자에도 산견되고 있다. 용인에서 번조된 백자는 고려청자와 상감청자 등에서 느낄 수 있는 세련되고 화려한 느낌을 맛볼 수 없는 조질백자이며 투박한 느낌을 준다. 용인에서 9~10세기 경부터 도자기의 생산은 양질의 고품토가 생산된데 기인한다.

용인의 시장경제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70년대 이후 축적되어 왔던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생활과 여가를 선용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용인은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자연농원·민속촌 등의 관광지를 유치하여 일약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지향의 시장경제가 활발히 발전하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정기시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일반 대형 상점이 증가하여 시장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상점의 증가는 정기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던 상품을 구매자가 원하는 어느 때라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원거리의 시장보다 가까운 상점에서 구입하는 데에도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에는 전통적인 5일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열리고 있으며, 우시장도 두 곳이 남아 있다.

우시장은 5일장이 열리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열리고 있는데, 용인시 김량장동 시장과 백암 우시장이 있다. 용인 우시장은 매월 5, 10, 15, 20, 25, 30일에 열리며 매장 평균 매매두수는 31두에 이른다. 백암 우

시장은 백암면 백암리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2, 198m²이다. 이곳은 매월 1, 6, 11, 16, 21, 26일에 열리고 거래가축은 소와 돼지이다.

식품접객업소는 주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관광차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자연농원에 인접한 용인시의 식품접객업소는 용인읍이 345개로 전체 1,084개 중에 32.92%를 점유하고 있으며, 민속촌과 인접한 기흥읍이 25.19%를 점유하고 있다. 또 환경위생업소로는 유흥업소가 증가하였는데, 명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대학교, 강남대학 등이 설립되어 학생들이 이용하는 업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인의 상업경제는 천마산 스키장, 남사면의 리조트, 자연농원, 민속촌 등의 관광지에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수입의 증대와 함께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의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시대 이전의 교육기관으로는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에 조선 초기에 창건한 용인향교, 일명 구성향교가 있다. 그리고 양지향교는 내사면 양지리에 있으며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향교로 근래에 중건되었다.

용인지역의 서원으로는 심곡서원과 총렬서원, 현촌서원이 있었다. 이 중에 한천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시 철거되었으며, 심곡서원은 문정공조광조를 제사지내는 서원으로 선조때 용인시 수지읍 상현동 현 위치에 설치되었다.

용인시는 일제시대에中等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었다. 국민학교를 마친 극소수의 학생들은 수원이나 서울 등지의 학교로 진학해야 하였다. 해방 이후 中等교육기관이 설립되었는데, 1946년 11월 사학인 태성중학이 용인면 남리에서 개교하였고, 그후 용인여중이 1947년에 문을 열었다. 이어서 6개의 中等교육기관이 각 지역주민의 교육열에 의해 1950년을 전후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초에는 전부 高等공민학교로 출발한 것이 특색이다. 1970년대 초까지 8개의 공립중학교가 설립·운영되어 오다

가 1970년대에 2개교가 증설되어 현재 10개교로 늘어났다.

고등학교는 1950년대에 2개교이던 것이 1960년대에 2개교, 1970년대에 1개교,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 2개교가 각각 증설되어 현재 7개교가 되었다.

용인은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45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경부 및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는 주변지역과의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용인은 서울의 위성도시적 기능을 갖기 시작하고, 대학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비교적 산지가 많은 이곳에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 3월에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가 기흥읍 서천동에서 개교를 하였고, 이어서 동년 7월에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가 역시 용인시 남동에서 문을 열었다. 용인대학교도 1985년 2월에 용인시 삼가동에서 문을 여는 등 그후 계속 대학이 설립되어 현재 8개 대학이 있다. 이들 대학은 서울에서 설립되어 오랫동안 발전되어 오다가 학교 전체가 이전하여 왔거나, 또는 분교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문화행사로는 용구문화제를 들 수 있다. 용구문화제는 고유 민속놀이를 계발 전승시키고, 용인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전통문화의 발전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 문화제 행사는 용인문화원 주관으로 1986년에 시작된 후, 해를 거듭할수록 대표적 문화축제 행사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

3) 역사적 배경

용인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부에 있으면서 민족의 젖줄인 한강과 중국과의 주요 교통로인 서해안에 가까이 위치하여 있고, 자연환경적으로 적합한 수량을 가진 하천과 비옥한 평야가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용인 지역은 선사시대의 유적·유물에 대한 고고학적인 학술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지리적인 중요성에 비해 현재 알려진 사실들은 미약한 실정이다.

용인지역은 선사시대 이래로 한강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역사시대로 들어오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오늘날까지 성격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정복국가의 성격을 지닌 삼국시대에는 한강유역의 점령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였다. 때문에 한강유역을 놓고 삼국간의 쟁탈전이 치열하였다. 한강유역은 처음에 백제가 건국하여 초기 백제의 근거지가 되었지만, 나중엔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뒤이어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하면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같은 점령국가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용인지역도 소속국가가 달라졌고 그 정치적 성격도 변화되어 갔다.

신라말부터 각 지방에서 대두하여 반독립적으로 지방분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던 호족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의 생성과 소멸의 역사가 바로 나말여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용인 부근지방에 죽산의 기훤과 박적조, 수원의 금비와 최승규, 광주외의 왕규 등과 함께 후일 용인이씨의 시조가 되는 이길권의 세력이 등장하였다.

용인의 발전은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여겨진다. 태조 6년에는 처인에도 현령을 두었는데, 부곡에서 현으로의 승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곡이란 고려시대의 지방의 말단 행정구역으로 <동국여지승람> 여주목 등신장조에 의하면, 신라 때 주군을 설치할 때에 그 전정호구가 현으로 부족한 곳에는 향을 두거나 혹은 부곡을 두어 각기 그 소재한 읍에 소속케 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부곡은 원래 신라시대에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곡의 시작은 전정호구가 모자란 곳, 심중산곡이나 해도 지역으로서 사람도 적게 살며 토지의 비옥도가 떨어졌던 곳으로서,

그 관할 읍이 통치하는데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생겼다. 그리하여 여타지역 — 같은 관할내 주·현 — 보다 공물의 수송 등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을 것으로, 그 공물의 수송에 드는 비용을 더 부담한다든가 하는 등의 차별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현재의 용인시는 문헌자료를 통해 볼 때, 용구현, 처인현, 양지현의 통폐합에 따라 그 변천을 거듭해 왔다. 그리고 죽산부의 일부 지역이 흡수되어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용구현은 고려 태조 23년(940)에 신라의 거서현을 개칭한 이름이다. 백제의 영토에 속해 있으면서 멸조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고구려 장수왕 63년(475)에 이곳을 점령하여 지배하였을 당시 군현제도의 개편에 따라 구성현이 된 것이다. 다시 신라가 용인지역을 점령하게 되어 경덕왕 16년(757)에 거서현으로 개칭되고, 한산주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조에 들어와서는 태조 23년(940)에 비로소 용구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현종 9년(1018)에 양광도 광주목의 속현이 되었다. 그리고 명종 2년(1172)에는 감무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가 뒤에 현령으로 승격시켰다. 이때 처음으로 용구지역이 독립된 현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조선조에 용인현과 양지현으로 나뉘어져 발전해 온 용인시는 정조 19년(1795)에는 경기좌도에 속하여 용인현령·양지현감이 각기 다스렸다. 그리고 고종 32년(1895) 4월 지방관제 개편 때 각기 현에서 군으로 개칭되고, 죽산군·이천군 등과 함께 충주부에 소속되었다가, 다시 경기도의 사등군으로 되었다. 고종 33년(1896) 23부제를 폐지하고 현행과 같은 13도의 지방행정구역으로 개편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용인군·양지군은 커다란 변동이 없었다.

1914년 3월 부·군·면을 폐합하여 전국을 97개군으로 개편할 때 용인군은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 이 당시 개편 이전의 용인군·양지군과 죽산군 일부지역인 원일면·원삼면·근일면·근이면·근삼면을

병합하였다. 죽산군에서 용인군으로 편입된 지역은 내사면·원삼면·외사면으로 되었다. 용인군의 소재지도 통합 이전의 양지군과 용인군의 중간 지역인 수여면 김량장리로 옮겨졌다. 그뒤 각 면내에서의 구역 조정이 있었으며, 1937년에 수여면이 용인면으로, 읍삼면이 구성면으로 개칭되었다.

1963년 1월 고삼면이 안성군으로 편입되어 용인군은 11개면으로 되었으며, 1979년 5월 1일 용인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 10개면이 되었고, 1983년 2월 15일 수지면의 하리와 이의리가 수원시로 편입되었는가 하면, 남사면 진목리의 월경부락이 평택군에 편입되고, 외사면 가좌리 일부가 원삼면 가재월리로 되었다. 그후 다시 가좌리가 외사면으로 편입되었다. 1985년 10월 1일 기흥면이 두번째 읍으로 승격되어 용인군은 2개읍 9개면으로 되었다.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되었으며, 수지면이 수지읍으로 되어, 1개시와 2개읍 그리고 외사면이 백암면으로, 내사면이 양지면으로 되었다. 그리고 용인시의 김량장리와 남리가 중앙동으로, 역북리와 삼가리가 역삼동으로, 유방리와 고림리가 유림동으로, 마평리와 운학리와 호리가 동부동으로 바뀌게 되어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상은 「용인군지」의 내용을 참조한 것임)

2. 동부지역 조사개관

1) 조사지역의 선정 배경

용인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본격적인 구비문학에 대한 조사는 1984년에 보고된 조희웅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용인군편(1-9)이 있고,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이인영(李仁寧)의 『내고장 옛이야기』와 용인군이 간행한 기존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실은 『용인군지』 구비문학 <설화>편이 있다.

이 중 조희웅의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비문학의 조사방법에 따르지 않았거나 기존의 자료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조희웅의 조사자료는 용인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화 82편 민요 26편 무가 19편만 채록되어 있다. 이번에 보고되는 용인 동부지역의 자료량을 보면 백암면(전 외사면)의 경우 설화 4편, 민요 3편과 원삼면의 설화 19편 민요 6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용인지역은 <생거진천 사거용인>라는 설화가 있듯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조사 보고된 자료의 양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용인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민속조사의 필요성을 느꼈다.

종합적인 민속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리적 환경(사회구조와 경제생활), 일생의례, 신앙과 민간의료, 세시와 놀이, 언어 전승(방언, 설화, 민요, 구비단문) 금석 기록문학, 현대의 변모 양상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4년 10월에 사전 계획을 세웠다.

용인시는 조사 당시에 2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현대화가 가장 심화된 지역부터 조사하려고 계획하였다. 처음 조사를 착수한 곳은 1995년 1월 25일 용인군 백암면 백암리였다.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 성과는 몇 가지 민속을 조사하는 데 만족하여야 했다. 위와 같은 중

합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녹취를 해야할 많은 조사보조원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남대와 한양대 무용과에 설강된 한국민속학 수강신청자를 조사보조원으로 투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래서 민속학 신청자들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에게 조사 방법과 요령을 수시로 가르쳤다. 그리고 집에서 동화책이나 민담집을 읽게 하고, 자신들이 조사하여야 할 부분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렇게 준비하여 처음 계획하였던 대로 용인 민속조사는 모든 리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즉 3-4명을 한 조으로 편성하여 1일 2개의 법정 리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담당자들은 자유롭게 마을 전체를 조사하거나 주어진 5만분의 1 지도상에 나타난 자연마을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능한 제보자를 얻어오게 하여 뒤에 추가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들 조사보조원의 활용은 교양강좌나 선택과목으로 설강된 것이므로, 하루 동안의 조사와 그들의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여 되도록 2-3인을 1조로 편성하여 구비문학 범주의 조사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를 이번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2) 조사일시와 개관

이번 조사에 임한 인원도 100여 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용인시 동부 지역을 조사한 일시와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조사는 한남대학교 한국민속학 신청자들이다. 이들은 1995년 5월 13일 오전 7시 29분 대전발 서울행 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와서, 다시 600번 좌석버스를 타고 용인 시외터미널에 10시까지 집합하였다.

간단한 조사요령과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선정해 준 지역으로 조별 이동하여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터미널로 되돌아 오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양지면(전 내사면)을 조사하였고, 일부만 원삼면과 백암면을 담당하였다. 백암면과 원삼면의 조사 내용을 조별로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국문 노연희(3), 김은정(1), 서지숙(1), 양선영(1) ---백암면 가좌리, 근곡리
 법학 이승규(2), 황성진(2), 한재현(2) 최성(2) ----원삼면 가좌월리, 미평리
 정의 이승훈(4), 고우진(4), 박경(철학1)-----원삼면 좌향리, 맹리

이중에서 국문과 조는 백암면 근곡리에서 4명이 함께 종합적인 조사를 하였는데, 설화 22개 등 여러 종류의 민속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의와 조는 맹리에서 세시 놀이 민속과 사회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법학과 조는 이날 조사하지 못하고 6월 10일에 민속과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구비문학 자료로는 가좌월리에서 민요 1, 미평리에서 설화 1편이 채록되었다.

두번째는 6월 10일의 한양대 안산 무용과 답사이다. 그 일정을 늦게 잡은 이유는 교생실습을 나가는 관계 때문이다. 이들은 10시까지 용인 시외터미널에 집합하도록 하여, 조사요령과 주의 사항을 간단하게 숙지시키고, 오후 5시까지 선정해준 마을에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였다.

이들의 담당지역과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권정임, 배정아, 이경은, 김남선	: 가창리, 백암리
박근희, 이연희, 송주원	: 고안리, 백봉리
양정민, 장정화	박고리, 근창리
김경순, 가혜정, 이은주	: 근삼리, 용천리

강지령, 박성민, 이유경, 유주희	· 석천리, 장평리
김윤희, 최보인, 전현미	· 학일리, 독성리
정호숙, 홍성욱, 윤덕환, 정현재,	· 사암리, 고당리
김경미, 유미소, 이미경, 임지현	· 학일리, 문촌리
엄상미, 장경호, 김동후, 이낙기	· 목신리, 죽능리(용인읍으로 변경)

위와같이 조별로 두 지역을 배정하였다. 앞 지역을 우선 조사하게 하고 시간이 남거나 조사 목표량에 미달하였을 때 조사할 지역으로 선정해 주었다. 또 조별 각 조사자에게는 다시 구비전승, 신앙과 민간의료, 일생의례와 세시 풍속, 사회구조와 경제전승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실제 담당지역에 가서는 3-4명이 함께 자료를 조사하다가 보니 세시풍속과 신앙과 일생의례, 사회구조 등의 조사에 치우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구비문학 조사의 성과를 중심으로 보면, 백암면 지역의 가창리 조사팀은 설화 3편을 조사하였고, 박곡리를 조사한 양정민 장정화는 설화 3편에 민요 1편, 근삼리를 조사한 김경순 가혜정 이은주는 민요 2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고안리와 백봉리를 조사한 박근희 이연희는 고안리에서 설화 5편과 민요 3편, 백봉리에서 설화 2편과 민요 1편을 조사하였다.

한편 원삼면 지역의 조사성과는 문촌리를 조사한 김경미 유미소 이미경 임지현은 민요 3편을 채록하였고, 학일리를 조사한 최보인 김윤희는 설화 3편에 민요 1편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사암리를 조사한 윤덕환 정현재는 설화 6편에 민요 1편을 채록하였다.

이상 한남대와 한양대 민속학 수강자들의 조사는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둔 성과가 미미한 것은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종합적인 조사를 하면서 언어전승보다는 제보자와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의례나 세시, 신앙 등의 민속이나 사회구조에 대한 조사에 치우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민속학 비전공자들이 조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중

합적인 조사방법보다 구체적인 분류의 소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조사계획을 언어전승의 구비문학으로 수정하였다.

그리하여 1995년 2학기에 한양대에 개설한 '한국고전문학의 전통'의 수강자로 백암면과 원삼면 지역을 추가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학기 초에 조사 방법과 요령을 습득하도록 숙지시키고, 설화를 많이 접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설화집을 읽어 레포트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런 사전 작업을 마치고 11월 11일에 현지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용인터미널에 도착하여 조사방법과 주의사항을 듣고 선정된 지역으로 출발하여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조사하도록 하였다.

각 조별 조사지역의 조사 상황을 개관하면, 오후 4시 40분까지 백암면 백암리를 조사한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은 경로당에서 설화 14편을 채록하였고, 근창리를 조사한 장미옥 김홍석도 노인정에서 설화 14편을, 근삼리를 조사한 김기웅 김영동 김현주는 근삼리 영곡마을의 강점순 댁에서 조사를 시작하여 설화 2편과 민요 9편을 조사하고, 이웃 양준마을을 찾아 갔으나 조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영곡마을 강점순씨 댁에 들러 설화와 민요 1편씩을 조사하고, 나오는 길목에서 수수께끼를 채록하였다.

그리고 백암면 남부지역의 조사로는, 용천리를 조사한 신소영 이정란 정희경이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이야기를 잘한다는 소개를 받아 제보자 댁에 가서 설화 6편을 수록하였고, 장평리를 조사한 박지영 정운선 이장희이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설화 8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석천리를 조사한 노대식과 변재환은 길가에서 유상원(?)의 후손이란 유씨로부터 설화에 대한 것과 함께 설화 2편을 수록하고, 마을의 집집을 돌아다녀 설화 2편을 추가로 수록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백봉리를 조사한 진선미와 최진성은 첫날 조사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설화 5편과 민요 1편을 수록하였다. 이들은 17일 다시 조사

를 하였는데, 이때 노인회관에서 10편의 설화를 추가하였다.

백암면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가창리 내창마을을 조사한 원용훈과 이 용현은 첫날에는 장날인데다 결혼식이 겹쳐 설화 2편을 채록한 데 그쳤다. 그래서 16일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첫날 만났던 제보자로부터 설화 12편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김유미와 허현정은 가좌리의 길가나 마을 어귀에서 설화 4편을 채록하였다.

한편 원삼면 지역을 조사한 개관을 보면, 중앙부에 해당하는 고당리를 조사한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은 제보자 댁을 방문하여 한 부부에게 22편의 설화를 채록하였다.

원삼면 서남부 지역의 조사로는, 정영희 최정미가 문촌리를 조사하였는데 두 제보자 댁을 방문하여 설화 3편을 수록하고, 석화마을 어귀에서 9편의 설화와 1편의 민요를 수집하였다. 오후 6시 50분까지 독성리를 조사한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은 노인정을 들러 설화 2편을, 마을에서는 2편 밖에 채록하지 못하고 해매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에 편승하면서 9편의 설화와 1편의 무당이 된 내력담을 듣고, 터미날에서 서울에 살며 용인에 자주 다니는 할아버지로부터 황진이에 대한 여러 삽화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채록하였다. 죽능리를 조사한 한재욱 이덕심은 제보자 오수환씨 댁에서 4편, 강분년씨 댁에서 2편, 이경순씨댁 비닐하우스에서 12편을 채록하였다. 목신리를 담당 한 현영국, 이상도 나유식은 목신 1리에서 설화 5편을 조사하고, 그리고 목신 4리로 옮겨 설화 1편을 수록하였다.

원삼면 북부지역의 조사로는 가좌월리를 조사한 김용이 신정연 전학수는 생안, 미평, 능안 마을을 전전공공하였지만 설화 3개를 채록하는데 그쳤다. 맹리를 맡은 김경희 민정심 신원형은 맹리의 노인이 계신 집을 가가호호 찾아다녔지만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노인들이 모여있다는 좌항리 좌전마을의 좌전약국에 들러 13편의 자료를 수록하였고, 다시 맹리로 돌아와서 3편의 설화를 채록하였다. 좌항리를 조사한 공운재 성

수진 송정민은 좌전마을 노인정에 들러 3편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다시 한 가게에 들러 설화 1편, 그리고 황골마을의 가게에서 설화 2편을 수록하였다.

한편 미평리를 맡았던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는 미평리에서 채록에 실패하고 마을 사람들이 소개하는 사암리로 조사지역을 변경하였다. 그래 사암리 노인회관을 찾아가서 설화 8편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20일에 조사한 두창리의 문선의 임태현은 용수마을에 있는 노인정에 들렀으나 아무도 없어, 나오는 도중에 경운기를 고치는 제보자를 만나 설화 7편을 채록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설화 2편을 추가 채록하였다. 그리고 주내마을에서 이문헌에 관한 이야기 1편을 수록하였다. 학일리를 조사한 이은철 조은 이준식은 3차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한 편도 채록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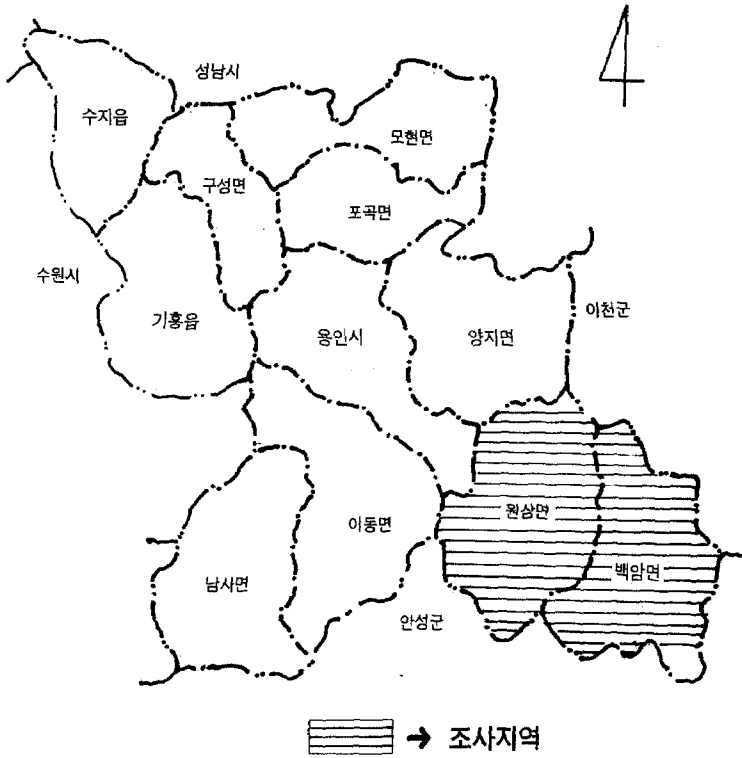
이상에서 하루의 조사원으로 활용한 과목의 실습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양의 자료를 수록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에 임하는 학생들의 열의와 노력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훌륭한 제보자를 계속적으로 조사하지 못한다는 점, 그들이 습득한 조사방법을 계속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자료를 발굴 조사하는 현장에 직접 뛰어든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3) 조사자료의 리별 개관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의 총수를 리별로 재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조사된 자료 중에 설화와 민요 등 구비문학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조사지역도 백암면 원삼면 지역으로 한정하여 수록하였다. 이번 조사 자료를 정리하면서 리별로 조사된 자료수의 편차가 심하고, 또한 백암면 옥산리에 대해 조사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생각한다.

설화 민요 제보자		주요 설화제보자(자료수)	
백암리	13	3	신봄순(8) 김만순(3) 박사문(2)
근창리	14	9	윤희선(3) 신순범(3) 남의순(2)
근삼리	3	12	3 강남순(2+9) 강점순(1+1) 박정배(0+2)
용천리	6	1	김영하(6)
장평리	8	3	서순중(4) 박재원(2) 서정순(49)
석천리	4	3	유 씨(2)
고안리	5	3	2 조덕원(4+2) 김명재(1+1)
백봉리	17	2	8 이규창(4) 제보자1(4) 인구태(3) 제보자2(2+1)
박곡리	3	1	2 90세 할아버지(2+1)
근곡리	23	6	김병준(8) 최기복(8) 양세규(3) 박유순(2)
가창리	17	3	이영세(6) 이종극(6) 이홍수(5)
가좌리	3	3	이기순, 김화복
면 계	116	18	46
고당리	23	2	김순분(13) 김동근(10)
문촌리	13	4	3 서정현(9+1) 김옥래(2) 이규남(1+2)
학일리	3	1	3 50대제보자(2)
독성리	14	4	윤충구(10) 한봉수(2)
죽능리	18	4	이경순(8) 강분년(4) 오수환(4) 초현철(2)
목신리	6	2	박명철(5)
두창리	10	2	5 이상운(7) 이영환(0+2)
기좌월리	3	1	4 김정선, 박종례
미평리	1	1	김전
맹 리	3	2	허석(2)
좌항리	19	7	제보자1(5) 남기만(3) 김세호(3) 이희귀 (3)
사암리	13	1	6 임경택(4) 이정열(3) 박성철(3)
면 계	126	9	43
총 계	242	27	89

조사지역을 지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 백

Ⅱ . 백암면 설화

1. 백 암 리
2. 근 장 리
3. 근 삼 리
4. 용 전 리
5. 장 평 리
6. 석 전 리
7. 고 안 리
8. 백 봉 리
9. 박 곡 리
10. 근 곡 리
11. 가 장 리
12. 가 작 리

여 백

1. 백 암 리

[마을 개관]

백암리,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1995. 7. 20, 11. 11.

백암리는 용인읍에서 동쪽으로 버스를 타고 20분 거리에 있는 교통이 편한 마을이다. 이곳은 원래 죽산군 근삼면으로, 배가미, 배개미, 배감동이라고 하여 노동리(老洞里)에 속한 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협동(峽洞)의 일부와 양지군 박곡면 기안리의 일부를 합쳐 백암리(白岩里)라 칭하며 용인군에 편입하여 외사면(현 백암면) 소재지가 되었다. 이곳의 이름은 원래는 백암이 아닌 배관(排觀)이었던 것 같다. 순조 때(1832)와 헌종 때(1842)의 읍지에는 배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899년의 <죽산읍지>에 보면 백암장터라고 되어 있다. 양 기록에는 이곳 장터에서 1일과 6일에 시장이 열렸다고 하였는데, 이곳 배관(백암)장터가 백암리로 불리어진 것이다.

[백암리 제보자 1]

심복순(89, 여)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1995. 11. 11.

조사자들은 백암리에 도착하여 노인회관을 찾아갔다. 노인회관에서는 위층을 할머니들이 사용하고 아래층을 할아버지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자들은 이층에 있는 할머니들이 있는 방을 먼저 방문하였다. 이곳에

서는 5-6명의 할머니들이 있어 조사자들의 방문 목적을 말하자 제보자가 협조적으로 나섰다. 삼등면이 고향인 제보자는 백암면 옥산리로 시집을 오셨다고 하는데, 친정과 시집에서 옛날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좋은 이야기는 다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능등적으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다른 제보자가 그만하자고 할 때 조사자들의 표정을 보고 드러누워 있다가 일어나 이야기를 하여 주는 애정도 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들은 옛날에 책에서 보기도 하고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학교를 다녔음을 말하였다.

제공자료: 설화 1~7, 11.

[백암리 제보자 2]

김만순(80, 여)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1995. 11. 11.

제보자는 심복순 할머니가 도깨비 애기와 귀신 애기가 많았다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옆에서 듣고 계시면서 조사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계셨다. 그래서 조사자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 하시면서도 도깨비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 다른 이야기라도 해달고 하자 제보자는 어릴 때 할머니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많이 기억 한다며 시작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8~10.

[백암리 제보자 3]

박사문(77, 남)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1995. 11. 11.

조사자들은 할머니들이 계시는 2층에서 조사를 마치고,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1층으로 내려왔더니 여덟분 정도가 앉아서 담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한 할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해 줄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조금 뒤에 노인회관으로 나오신 제보자를 주위에서 부추겨 세워주었다. 제보자는 처음에 어리둥절하다가 사정을 짐작한 다음에 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셨다.

제공자료 : 설화 12~13.

[백암리 설화 1] 백암T 1호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심복순(89, 여) 1995. 11. 11.

할머니를 고려장 못하게 한 손자

조사자들이 노인회관에 들러 조사온 목적을 말하고, 혹시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냐?'고 묻자 여러 할머니들이 '옛날에 많이들 하였지'라고 하였다. 그래서 '고려장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심복순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옛날에 나이가 많아지면 구덩이에, 시어머니를 구덩이를 파고 여기다 먹을 것을 많이 집어 넣고 저 고려장을 하러 가네여. 저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저 자식을 데려 갔다 말이여. 데리고 갔는데, (웃음) 데리고 가서 인저 저 어머니를 거기다 들어 앉히고 인자 그것만 다 먹으면 죽는 거여, 거기서. 게 인제 거기다 들어 앉히고, 인저 지계를 저 어머니 지고 갔던 지계를 지고 오니께, 그 아들이,

“아버지! 지계를 왜 내비뒀냐?”

지계를 응 내비리고 오니까. (청중 웃음) 내비리고 오니께,

“아버지! 아버지! 왜 지게는 왜 내버리고 가요?” 그래.

“그 내버리지 뭐하니, 그거 뭐하니?” 근께

“아, 잘 됐다 나도 아버지요,(일동 웃음) 잘 됐다가 아버지 갖다 고려장 건데 지게를 가지고 가야 한다.”

고. 손자가 지고 가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고려장 터가 있다고 지금. 우리 동네 고려장 터가 있는데, 이렇게 산에 보며는 이렇게 돌로 지붕을 멩기러 놓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고 아래 풀이 이렇게 (원을 그리며) 났대. 그 전에 들여다 보면 그것이 예전에 고려장. [청취 불능] 그렇게 오래.

나도 옛날 같으면 지금 갖다 고려장 했을 거 아냐. [청중 : 벌써 했지, 여태 있나?]

우리 한국에 부모가 살다가 돌아가면 장사 지내면 이렇게 그때 마련한거야, 그게. 그냥, 그 놈의 애가 잘했지.

“이래선 안되겠다.”

고. 그 때부터 응 저거 해가주고 고려장이 없었다. 그때에 고려장이 아주 없어졌어요, 인자. 후딱하면 산 것을 구덩이-나이 칠, 팔십만 넘으면 고려장을 했다. 예전에.

[백암리 설화 2] 백암T 1완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심복순(89, 여) 1995. 11. 11.

쥐의 후손인 서씨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잠시 생각하시다가 생각이 나셨는지 이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옛날에, 옛날에 한 사람이 그랬다.(웃음) 그냥 먹을 옷도 없고 굶어 죽겠지? 식구는 애들은 뭐한 줄을 모르고 놀부, 흥부. 이래 살 수가 없으니깐 그냥 애들을 각각 그냥,

“너희 각각 나가 빌어먹으라.”

고. 다 내쫓았어. 그래서 인자 한 아이가 어디로 가니깐, 요만한 호박이 울타리에 달렸더라. 똥-그란 호박이. 그래가주고 애가 그 호박을 따가주고 어디쯤 가니깐, 웬 할머니가,

“그게 뭐니?”

그러니깐,

“나도 몰라요.”

그러니깐. 누가 보고 그걸 호박이라고 그러더라. 그래 그 집에서 인제, “그러면 너 우리 집에서 불 때주고 얻어 먹고 우리가 먹여 줄게, 살려나?”

그러더라. 부잔데.

“그런다.”

고. 그냥 날-마다 개가 쇠죽을 씹 주고 별짓 다하고.

저거 보려는 꼭 생쥐 한 마리가 찌금한게 쇠죽을 이렇게 앉아서 쏟으려고 하면, 고 놈의 쥐가 남실남실 뭇 좀 먹으려고 돌아 땡기거던. 그래 그게 가여워서 그 놈의 애가 밥 먹을 적에 밥을 몰래 갖다가 부뚜막에 놓아 주면, 아 그냥 그 놈의 쥐가 그걸 먹고 엄청 컸어. 아 송아지 만치 컸다. 그걸 그냥 자꾸 저 먹을 적마다 떼어 놔가주고 갖다 놓으면 그 쥐하고 둘이 먹고. 나중엔 그냥 쥐가 컸는데 쥐를 인저,

“너 뭐를 먹어도 좋니?”

“나는 개죽도 좋다.”

그러더라, 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인저 사람이 키우는 거지, 그러니깐.(숨이 차서 크게 내쉬고는 목소리가 작아진다.)

“내가 죽었으니께, 죽을 좀 썬 쥐야겠다.”

고. 주인이 어디 가니 콩·팥을 많이 넣고 죽을 썬서 어느 산골에 갖다 놓고,

“너 사람한테 들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께 오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많이 갖다 뵈으니 이거 다 먹고, 먹을 수가 없거든 날 거라도 먹으라 글거던. 우리 오양간에 개를 와서 다래도 먹으라.”

이래고 내려왔다. 그래 이놈 다 컸는데 아 주인이 내쫓았다.

“나가라.”

고. 거 뭐 잘못하니께. 나가니께 그냥 굶어 죽었지? 그냥 쥐가 어디 가서 먹을 걸 그냥 갖다가 먹이고. 그 쥐가 신세를 갚더라. 옷도, 입을 옷을 갖다 입히고 그냥 맥이고. 그래서 쥐하고 사람하고 한 개체가 되더라. 거기서.

쥐가 새끼를 낳으면 사람같이 낳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거가 쥐 동네가 되었다. 그래서 그 쥐가 사람같이 말도 하고. 그냥 그러다가 오래 사니께 사람이 난 애들이 장사를 잘 지내웠지. 쥐. 그래가주고 그 사람 인자 동기들을 찾는거여. 사형제가 다 퍼져 나갔는데, 이놈의 동생들이 없으니께 없을 적에 찾을 수가 있어? 그 아들딸 난 애를 아무겐 성이 뭐고 아무겐 이름이 뭐고.

인제 그러니까 애들 삼촌이여. 쥐가 낳은게. 쥐하고 사람하고 낳은게. 근게 쥐가 암놈이고 사람은 숫놈이었다. 그런데 그먼 인제 찾아가주고서 먼저 가지고 오는 놈은 서가라고 짓고. 이름을 나중 가주 오는 놈은 박가라고 하고. 인제 쥐가 성이 서가래. 그래가주고 이 사람이 그 동네 서서방이 사는데,

“서서방-! 서서방-!”

하니께, 그냥 어서 쥐새끼가 떼로 몰려오더라. 쥐가. 맨 먼저 오는 놈은. “너는 서가다. 서가라 그래라. 누구는 뭐라 그래라.”

이래가주고, 그래 가주고 서가, 이 손이 접부 쥐라 쥐. 그래가주고 사 람이 돼 가주고 서씨가 됐대.

[조사자 : 소씨요?] 서. 서. '서서방-! 서서방-!' 하니께, 쥐가 그냥 한 방 모여들더래. 인저 그라고 인저 다 죽었겠지 뭐. 쥐도 죽고 늙은이 도 죽고. 그 손들이 죄 그냥. 서 그냥 서.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상한 일 이라고, 그냥 서씨를 위했다. 그게 별첨 별성으로. 나라에서도. 쥐가 저 기 여자 남자가 만나가지고 새끼를 쳤거던. 해서 자꾸 손이 퍼지니겐 그 령게, [청취 불능] 잘 되겠지.

집을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구 해가지고 농사 짓고, 그 쥐씨가 먹고 사는데 어떤 건 생기면, 쥐 반 사람 반 나오고, 어떤 건 그냥 사람 탈 쓰고 나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 동네 이름을 알았는데 잊어 버렸어. 그래서 서씨 동네래. 쥐는 서가라고 놀리잖아. 아는 사람들은, "쥐! 쥐!"

그래. [조사자 : 아, 서씨보고 '쥐, 쥐' 그래요?] 응.

[백암리 설화 3] 백암T 1앞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심복순(89, 여) 1995. 11. 11.

여우구슬을 삼키고 된 지관

제보자는 앞 이야기를 끝마치고서 망설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할머니 아시는 이야기가 더 있으면 해달라'고 조르자, 제보자는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시간을 두었다 가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아 인저 한 애는 고개를 넘어 학교를 다녔대. 예전에는 글방이지 학 교가 있어? 산등을 넘어서 글방을 다니는데, 아주 그냥 그 애가 글방에

갔다가 저녁 때 집에 올러면 예쁜 색시가 나와서 놀린다.

요고 요런 구슬을 하나 내 입에 넣었다, 네 입에 넣었다 가지고 놀리는데, 선생이 글을 가르치다 가만히 보면 정신도 좋던 사람이 딴 일도 하고 모랭이 틀리거든. 그러니겐 선생이 저 묻는거여.

“너 오늘 가는 길에 무슨 변고 일이 있지 않느냐? 너 하나도 속이지 말고 말을 해야 니가 살지, 너 선생님이라고 나를 속히면은 니가 못살고 죽는다. 그러니께 바른대로 하나 속히지 말고 말을 해라.”

그러니께, 개가 그러더래.

“선생님 저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때부터 기운이 죽어서 이래요.”

그러더라. 첫번엔 모르는데 이젠 점점 여우가 기운을 죽여가지고 잡아 먹을려고 그런거거든, 그게.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운이 없고 똑 고 시간에 오게 되면 이력하고 있다. 그 계집애가 파란 구슬을 제 입에다 넣었다 내 입에다 넣었다 깔깔거리고 웃고, 흘러내려 놓치면 졌다 그리고 이겼다 그러더라. 선생님이,

“너! 어찌 되었던 간에 내일은 또 갔다가 고 계집애가 구슬을 네 입에다 넣어 주면 하늘부터 쳐다보고 땅 내려다 보고 꿀떡 삼켜라.”

그러더라. 선생님이 ‘고것을 삼킬 적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 봐야지 땅을 내려다 보면 안되니께, 하늘 쳐다 보고 땅 내려다 보고 삼켜라.’ 이랬거든. 그랬더니 이놈이 하늘 보겠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땅만 쳐다보고 꿀떡 삼켰대.

“너 그래, 그거 삼킬 적에 어떻게 했냐?”

“내가 시키는대로 하는데, 아주 넘어가지 않아서 땅바닥을 짚고 땅바닥을 보고 삼켰습니다.”

그러더라.

“니가 하늘 일은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땅(하늘의 잘못)에서 하는 건 모르고, 땅 일은 죄 안다.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죄 안다.

그러니까 나 죽거든랑은 나 묻을 자리를 잘 한 번 봐서 나 묻을 자리를 써 나오.”

하며 운명을 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매꿔 다니며 지관 노릇을 했다. 지관이여, 지관. 지관 노릇을 하며 땡겨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잘 살다 죽더라.

그 애가 하늘 쳐다 보고 땅 내려다 보고 삼켰으면 하늘에서 되는 일도 다 알건데, 하늘에서 되는 일은 모르고 땅에서 되는 일만 다 알고 그랬다. 그래 여우는 고걸 뺏기고,

“캥, 캥. 나는 죽는다.”

그리고 데굴 데굴 구르다 죽더라. [조사자 : 구슬이 여우건가 보죠?]

[백암리 설화 4] 백암T 1와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심복순(89, 여) 1995. 11. 11.

호랑이 목의 비녀 빼주고 잘된 사람

조사자가 '여우 이야기를 좀 더 해달라'고 하자 옛날에 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술하였다. 심복순 할머니가 다시 '또 한 사람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웃으며, '좋은 얘기는 다 잊어 버렸어.'라고 말하면서 구술하였다.

옛날에 형제가 살았는데, 이쪽 고개는 자기가 살고 산 너머에 누이가 살고 그랬거든.(이상은 녹음기 고장으로 기록) 산 너머는 누이가 살고,

근데 누이가 살기가 어렵다. 그 고개를 넘어 갈려면 그냥 도둑놈이 많더라. 근게 총각 어머니가 호박을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다 돈을 넣어서 보따리에 쳐서 호박같이 해 가지고 누이네 집에 보내는겨. 근데 이놈 애가 호박을 메고 누이네 집에 가는데, 그냥 큰 호랭이가 아가리를 벌리고

잡아먹을 것 같이,

“하!”

이러거든.

“니가 나를 잡아 먹을려거든 얼른 턱씩 잡아 먹지. 왜 이렇게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의 간장을 녹이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더라.

“그래 아니면 뭐냐?”

그러니까, 아가리를 보니까 호랭이가 사람, 여자를 잡아 먹어서 비너가 목구멍에 가로로 걸렸더라. 그래서 인저,

“그래. 그걸 꺼내달란 말이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꼬덕 꼬덕 그러더라. 큰 호랭이, 대호가. 그래서 손을 뱉다 풀어서 주먹을 그 호랭이 아가리 속에 넣어서 비너를 그냥 잡아 뽑았다. 그랬더니 호랭이가 그냥 절을 하더라. 절을 하고 등어리를 대고 어디까지 가나 등어리에 지라 그러더라. 거긴,

“나 업으면 깊은 산중에 가서 나 잡아 먹을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럼, 날 좋은 구경시킬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맞다고 그러더라. 그 날이 침침한데 그 호랭이가 그 애를 싣고서 그냥 서울 대궐 안으로, 서울 어딜 자꾸 데리고 땡기며 귀경을 시키며 땡기더라. 등어리다 업고 땡기면서. 그래서,

“아후, 나는 날도 새고 글도 배울 사람이고 하니까, 나 집에 가게 나 좀 데려다고.”

하니까,

“너희네 집이 어디냐?”

고 그러더라.

“어디, 어디라.”

했더니. 너희네 집에다 갖다 놓고는 백배 두 발로 그냥 절을 하더라. 그래서 호랭이 귀경 잘하고, 호랭이한테 좋은 일 잘 하고 돈 갖다 누이 줘서 부자 맹글고 그러더라. 돈을 그냥 가지고 가면 도둑놈이 거기서 영낙없이, 도둑이 있기 때문에 여럿이 가도 도둑한테 잡히는 건데, 이러나 저러나 누이가 하도 어려우니까,

“죽으나 사나 가 본다.”

고. 갔더니 그렇게 됐다. 그러니 사람이 마음을 곱게 먹으면 하늘이 아는거여. 그래서 호랭일 만났지 뭐여. 그래 가지고 다시 잘 살더라. [조사자 : 좋은 얘기네요.]

[백암리 설화 5] 백암T 1왕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심복순(89, 여) 1995. 11. 11.

흑부리 영감

조사자가 할머니 공부할 때 한문책에 있었냐고 했더니 “아녀. 내 시집와서 첫 아들 낳고 그 애들 책에 있었어.”라고 하셨다.

옛날에 양쪽에 흑이 달린 사람이 그냥 가난하고 어렵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해가 저물었다. 보니까 예전에 산지랭이라는 집이 있잖여. 그걸 산지랭이라 하는데, 산에다 제사 지내는 데. 날은 저물고, “이런 쟈장. 집에 가도 밥은 못 먹을 거, 한 번 노래나 한바탕 하고 간다.”

고. 거기 빈 집에 들어가서 그냥 노래를 한바탕 부르고 휘파람을 뱉다 부니까, 밤중쯤 되니까 도깨비들이,

“은 나와라. 똑딱.”

“금 나와라. 똑딱.”

그냥 똑딱거리고 오더니 거서,

“아니, 여보!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오?”

그러더라. 그래,

“혹에서 나온다.”

고 그랬거든. 근데 ‘혹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혹을 내 돈을 많이 주께, 나한테 팔라.”

고 그러더라.

“나는 돈만 많이 준다 그러니까, 내 혹 떼어 가라.”

그랬더니 아주 돈을 한 덩이 갖다 주고, 돈을 가지고 와서 ‘가져 가라’ 그랬더니, 짊어지고 가지 못하게 돈을 가지고 왔다. 예전에는 엽전이 무 겁지 뭐. 그래 갖다 주더라.

그래서 그냥 이놈의 도깨비들이 가지고 가서 해 보니까 안되거든.(청 중 웃음) 그게 혹을 붙이고 노래를 해 불러고 하니 안되거든. ‘아! 이놈 속았다’고 말이여.

그 후에 또 그러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턱에 혹 달린 사람이. 그러니까,

“자네 어떻게 그렇게 혹을 감쪽같이 떼고 부자가 돼서 오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

“아이고, 내 나무하러 갔다가 아무데 산지 따라서 하도 처량하게 노래를 뱉다 부르고 휘파람을 부니까, 어떤 도깨비들이 와서 돈을 쥐서 잘 산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건데,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 거 하고 나니까,

“그냥 이놈 보라고. 이놈 또 왔다고. 아 이놈의 혹을 내가 갖다 감쪽 같이 떼 주었으니까, 혹을 도로 주자.”

고. 혹이 넷이 되더라. 원래 있는 혹하고. 그래 가주고 그 사람의 허 영심으로 혹을 붙여가지고.

“엉엉엉.”

울고 그랬다.

“아, 산에 가서 노래 하라길래 했더니, 아 자네 흑까지 넷을 붙여 줬다.”

고. 생전 흑가지고 그러더라. 그 흑 가지고 죽더라. 그, 애들 배우는 책에 있지. 애들 공부하는 책에 있어. 전에 1학년 책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르지 뭐. 그만해도 예전이지.

[백암리 설화 6] 백암T 1화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심복순(89, 여) 1995. 11. 11.

사람으로 변한 여우

앞 이야기를 마치고 좀 있다가 생각이 나셨는지 다시 구술을 시작하였다.

옛날에 한 사람은 큰, 딸 형제를 두었는데 홀애비여. 마누라가 없고 홀애비인데, 저 아버지가 일 나가면 밭에다가 해다 주고 그랬는데.

하루는 산에 눈이 하얗게 왔다.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없게. 이제 홀애비고 딸 형제랑 살고 그러니까, 에이 여그 뭐 토끼 잡는 차왜이, 꿩 잡는 차왜이 그런게 있거든.

“그러나 갖다 놓고서 꿩 사냥이나 한다.”

고. 꿩잡는 차왜이 해가지고 산기슭에 올라가니. 아주 밤달같이 이쁜 색시가 솔패기 밑에서 울고 앉았더라.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 눈이 기울었겠지, 거기서 여자가 막 울거든. 그래서 인저 그 남자가 생전에 예편네 딸 형제 낳고는 홀애비 됐으니, 예편네 구경을 못했었지. 그 쫓아가니게 참 예편네가 이쁘거든. 그래,

“아이고 여보슈, 부인! 왜 그렇게 우나 말이나 좀 물어 봅시다. 뭐때

매 우노?”

과부면 같이 살라 그랬거던. 아니나 달라. 그런데 아니라,
“옛그제께 영감이 죽어 장사 지낸지 오늘 사나흘 밖에 안됐다.”
고 그러더라.

“아, 그러면 자식이 있소?”

그러니께,

“자손은 누구, 나 한 몸뚱이요.”

그러더라.

“아 그럼, 난 흠애비고 딸 형제 밖에 없으니 날 따라가서 삼시다.”

그랬거든. 그런께 아, 아주 얼른 그냥 ‘그러자’ 그러더라. 그러자 아,
이 여편네가 아주 오더니 살림도 잘하고 영감 대접도 잘하고 그냥 그렇
게 잘하더라.

잘하는데 아 가래질. 학생들 가래질 알어? 논두렁 곁에 봄이면 그 논
두렁 싸매고서는 모심고 그러느라고 그걸 하는 거여. 그게 가래질이여,
가래질. 인제 가래질을 하는데 일꾼을 대여섯 얻어서 하는데, 그 둘째
딸이 논두렁에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새 어머니가 밥을 퍼는데 노란 요
만큼한 콩지가 한 대여섯 보이더라.

그래서 부지깽이로 요렇게 집어드니께 노란 콩지가 달렸는데, 그냥 기
가 맥히거든. 아무래도 저게 무슨 짐승인데 우리 아버지가 모르고 저걸
데리고 산다 싶어서 지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저년이 미쳤지. 여우가 봤는데, 내가 데리고 살면서 전체를 죄 봤
는데 그런 콩지가 어디 있느냐?”

아, 여우 도섭이라는 말이 그래 두고 하는 말이여, [조사자 ; 예? 여
우 도섭이요?] 아, 여우가 그래 도섭을 했지. 인제 사람으로 그랬는데,
그 여우가. 큰 딸이 제 동생더러,

“아버지 좋아 사는데, 너 왜 그런 소리를 해 가집고.”

그냥 여우가,

“나는 갈테야!”

하면서, ‘캥, 캥’ 하면서 그래가지고서 그 여우때때 인자 홀애비 면하고 살건데, 그 딸년때때 그냥 들켰지. 예전에 여우 도섭. 예전에 어른들이 애들 나무라면,

“여우가 도섭을 하네.”

그랬대. 그리고 야단을 하잖아.

[백암리 실화 7] 백암리 1완뒤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심복순(89, 여) 1995. 11. 11.

도섭(변신)한 여우

옆에 계신 할머니가 끝이 없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자, 제보자는 실제로 겪은 일이라며 말씀을 시작하셨다.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지여. 실제 내가 겪은 건데 내가 여기 용인 여기 옥산리는 시집이고, 개나리 삼등면이라는 데는 친정이며. 거기서 삼등면에서 커서 외사면으로 시집을 왔어. 내가 여기서 늙은 거여. 옥산리에서 늙었어.

해가 설핏한데 말이여. 예전에는 양반, 종이 있잖여. 우리 행랑 사람이. 근게 그때 내가 미칠려고 눈이 변했던건지 이상해여.(Tape 뒷면에 계속. 녹음 불량으로 기록.) 연분홍 저고리에 노랑치마를 입은 여자가,

“아씨, 어디 가세요?”

“우리 영감이 장에 나갔는데 안와서 마중 나왔다.”

그러니까,

“아씨, 떡 드세요.”

하면서 인절미를 함지박에 담아 주거든. 그래 내가,

“됐어.” 해도

“하나만 드세요.”

하며 주대. 그래 인제 내가 문득 보니, 얼굴이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
여. (이상은 기록) 이놈이 주는 거를, 그래서 그 인절미 주는 거를,

“혼자나 다 먹어.”(그러면서 사탕을 던지시면서 시범을 보이심.)

그러니 여우가,

“캉! 캉! ...”

그러며 큰 굴속으로 들어갔다.(할머니 두 분이 새로 오셔서 소란스러
움.) 그런 동네를 다 봤어. 내가 그래 컸거든. 그제 여우가 도섭을 한
것이다. [조사자 : 그럼 할머니! 여우 직접 보셨나요?] 그렇지. 그런게,
그러니까 여우가 ‘캉, 캉.’ 그럴 땐, 그 때는 여우여. 떡 갖고 올 때는 사
람이고. 먹으라 그냥 날더러.

“하나라도 잡춰 봐요?”

하면서. 나한테 들을 먹으라고. 고것만 내가 입어 넣었으면 죽은 거지
뭐. 아 그래서 내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왜? 날더러 이걸 먹으라 그래.”

하면서 집어 던졌어.(청중 웃음) 여우한테 가서, 여우 가슴팍에 탁 드
러 맞더라고. 아, 캉캉하는데,

“아이고, 나 살려라.”

그래. 그냥 집에 짓겠다고 마름이고 뭐고 식구가 뒤 들끓어서, 그냥
다 마중들을 나가서 보고 난리치고 그런 것도 겪었어. 그래. 예전엔 여
우가 도섭을 한 대.

[백암리 설화 8] 백암T 1뒤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김만순(80, 여) 1995. 11. 11.

개똥으로 시어머니 밥을 해준 며느리

심복순 할머니가 '예전에 도깨비 얘기와 귀신 얘기가 많았다'고 하며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하셨다. 조사자가 '도깨비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자 없다고 해서 '효부 이야기를 좀 해달라'더니 김만순 할머니가 '어릴 때 할머니께 들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옛날에 하도 어렵게 구엽게 자라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세상에 시어머니는 몸살이 나서 앓고. 해 즐겁게 세상 없더라.

머리를 잘라서 쌀을 팔아다가 연명을 하다가 그게 떨어지게는, 떨어지고 이제 밥을 매려 가니까 옛날에 왜 개가 날보리쌀을 멩석에 놓으면 먹잖아. 고걸 잔뜩 먹고 그 놈의 개가 밧고랑에 게워 났더라. 그게 썩도 앓고 고냥 있지. 썩지 앓고 그냥 있으니 그거를 바가치에다, 풀 뽑아가지고 담아 내버릴려고 바가치 가지고 간데다가 썰어 담아서 집에 가지고 와서 닭고 해서 밥을 했다. 밥을 해서,

“아이구! 이런 거를 우리 어머니 드리면 졸면스러워 어떡 하나?”

자기가 세 번을 떠 먹고, 먼저. 조의 받을까봐. [할머니1 : 그걸 먹어요?] [할머니2 : 먹지 그걸 안 먹어요? 예전엔 된장 아니라도.] 먼저 떠 먹고, 시어머니를 갖다가 바치면서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는, “잡수세요?”

지가 조의 받을까봐.

“엄니! 이거 잡수세요.” 하니께,

“아이구! 우젠 밥이냐?”

그라곤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데, 그 옆에서 며느리는 앉아서 울고. 그걸 몰르고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지, 노인네는. 된장찌개를 해서. 밧에서

비루, 비름이라고 나물이 있어. 비름 나물을 뜯어서 그걸 넣어서 데쳐서 된장에다가 건더기를 넣어서 그걸 반찬이라고 갖다 주니까. 그 소리 하나에 눈물이 나와.(제보자는 웃으며 얘기를 하다 말고 눈물을 글썽이신다.)
그걸 갖다가 바쳐서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살렸다.

[백암리 설화 9] 백암T 1뒤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김만순(80, 여) 1995. 11. 11.

잘린 구렁이 원수 갚기

앞의 이야기가 끝나고 잠시 시집살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였다. 옛날에는 시집을 와서 밥 많이 먹으면 배를 터뜨려 죽었다면서 김만순 할머니가 두번째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셨다.

한 집에는 또 여자가 만날 밥을 요만큼 떠가지고 온다. 밥을 해서 요만큼 떠가지고 오고,

“저 애는 자꾸 난 에미가 조거를 먹고 사나?”

남편 제가 자기도 나쁜 거를(양이 적다는 뜻이다.) 고거를 여자한테 덜어 놓고 덜어 놓고 그랬다. ‘더 먹으라’고. 여자 더 먹으라고. 젓 내 먹이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하루는 그랬다.

“아이구 여보! 오늘은 가래질을 할텐데 보리쌀이나 곱게 찼어서 밥을 해가지고.”

“얼마냐?”

그러니까,

‘시(셋) 카래 뽑으라’고 그러더라. 가래 하나에 싹씩 들고 두렁 밟는 사람 하나 들고 네 개 들어. 그러면은 세 카래면 얼마야? 아홉에 열을 들만 더해도 열 한 명인데. 인자 밥을 해서 방아 [청취 불능] 손가락은 피침에

다 넣고 밥을 해서 이고 가니께, 아 삼부재만 하더라. 아 이게 이고 가라고 애를 썼는데, 죽졌다고 이고 왔더니 자기네 식구 삼부재만 하더라. {칭취 불능} 뒤를 두렁을 밟아 가구 밟아 가구. 그런데 아이구 이를 내려 놓으니 부리나케 내려와서 밥광우리를 내려 주고선 내려 주고선 쉬니께,

“아, 여보! 아니 시 카래라더니, 우째 식구끼리만 하느냐?”

“거 일꾼 데려다, 이래 저래 다 뽀개 가지고선 못왔다고. 안 왔다.”

고. 그러고선 밥을 먹으라니까는, 아니 여자가 그 남은 밥을 자꾸 먹으라고 그러더라. 자꾸 먹으라고 그러더라. 자꾸 먹으라고. 그러고선,

“이고 오기도 무거웠었는데, 우리 다 먹자.”

고. 그래 인자 먹으니께, 지나가는 객꾼을 하나 불러서 맥이고선, 먹고선.

“여자가 밥을 그렇게 먹고 가서 살고 있나?”

하고. 남편네가 또 집에를 뒤쫓아 왔다. 뒤쫓아 오니까는 옛날에는 저기 부엌이 이렇게 짓지 않고 쪼을 엮어서 대 지고, 화장실도 그렇게 해서, 불이 잘 났지. 인자 와 보니까 밥광우리 내려놓고 콩을 볶더라. 콩을 먹으면 밥이 소화가 잘 되거던. 아 콩을 덜덜 볶으면서 ‘툭툭’ 튀는 콩은 주서 먹어가매. 배가 불르니 어떡해? 불을 때가매 탁 튀는 콩은 주서 먹어 가매.

“아! 저렇구나!”

그래가지고선 인저 며칠만에 가니께, 논두렁에 가래질을 해 었인 데에 딸기가 난 거 있잖아. 딸기 붙은게 한 낭구가 있어가지고서는 딸기가 주먹같은 게 빨갭게 익었더라. 그래 인저 그거를, 아 가래질 새로 해 었인 데 딸기 난게 이렇게 있어서, ‘잘 열었나?’ 하고는 밭에 갔다가 그거를 따 먹었다네. 따 먹고서 있는데, 거기 애기가 있더라.

애기가 있어가지고 아들 삼형제 인제 쌍둥이를 낳았다. 아들 삼형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래에 뱀, 거 구렁이가 그게 짝혀서 도막이 친거래. 게 구렁이 씹어가지고 거름이 돼가지고 딸기가 된거야. 딸기 남게(나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따 먹어가지고 태명(태몽)

을 인저 꿈을 꺾가지고는,

[조사자 : 그러면 딸기밭에 애기가 들어있는 건 태몽 꺾거네요?]

응. 꿈 꺾거지. 인제 그래가지고는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 아 이 아들을 한 몇 살씩 먹여 놓니께, 커가지고는 나가서 자다가 들락날락하더라. 들락날락 하더니,

“제들이 웬일인가?”

하고. 가만히 아버지가 보니까, 나가기만 하면 칼을 갈더라. 칼을 가지고는 뭘 할건가 세상에 보니까, 위는 아들인데 밑은 구렁이지. 뱀이 됐지. 그게 뱀이 인제 아들 삼형제가 다 뱀이 됐어. 구렁이가 됐어. 구렁이가 돼가지고 ‘이거를 어떡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는, 그 칼로 아버지를 칠라고 와서 울르더라. 울러가지고,

“너희도 우리를 잘랐으니께, 우리도 너희를 잘를 거다.”

하고. 구렁이가 셋이 쪽하고 셋바닥을 너불거리더라. [조사자 : 구렁이가요?] [청중 : 구렁이 아 아버지가 가래질 하다가 구렁이를 다쳤지. 다쳐가지고 그게 웬수 갓는거지.]

[백암리 설화 10] 백암 1뒤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김만순 (80, 여) 1995. 11. 11.

아버지 선몽을 어겨 망한 집안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이 떠올랐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도 집터를 다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선몽하기를,
“거 아무 우물가에는 기계를 대지 마라.”

꿈에 선몽을 그렇게 했더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땅을 파가지고 집터를 다듬어야 할텐데, 이거를 어떡하나?
아 꿈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선. 거기를 파가지고 흙을 퍼올려가지고 집터를 다듬었다. 집터를
다듬으니께는, 한 번 또 꿈에 선몽을 하기를,

“거기를 집터를 다듬지 말라고 했더니, 왜 집터를 다듬느냐?”

[조사자 : 꿈에서요?] 응. 거기를 밀고선,

“판테를 밀고선 그러곤 집을 지어라.”

꿈에서 선몽을 그러더래. 아버지가. 그래놓고 거기를 꿈을 새겨 듣지
않고는 그냥 제 고집대로 했다. 고집대로 그냥 기계로 밀고선. 도우저를
밀고선 그냥 하니까는 땅 속에서 ‘찍찍’ 소리가 나더라.

나서. 이 구렁이가 땅에서 삼 년, 물에서 삼 년, 그렇게 구 년을 묵어
야 용이 된다. 그래서 육 년을 묵어야 올라가면은 하늘에서 용이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기계를 가지고 한 번 쑥 해가지고서는 대가리가 나
오더라. 영 대가리가. 요만한게 귀가 달리고 그런 용대가리가 나오는데,
‘아우 이상하다.’ 하고는 뭇 통을 갖다놓고 거기다가 담고는 그거를,

“용이라고. 뱀이 용이 되었다고. 좋다.”

고들. 또 한 번을 하니까 도맥을 쳐서 나와서 그거를 해 먹었대. 그거
를 해 먹고서는, 그 사람들이 다 벼락을 맞았대. 하늘에서 내려온건데,
하늘로 올라갈건데. 아우 사람이 살자면 별 고생이 많고, 옛날에 고생한
일들은 얘기 못하고.

[백암리 설화 11] 백암리 1뒤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심복순(89, 여) 1995. 11. 11.

논밭을 사야할 도깨비 돈

조사자들이 '도깨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김만순 할머니는 그만하자고 하셨다. 이때 누워계시던 제보자가 일어나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도깨비가 벌여주는 돈은 땅을 사야지, 다른 일에 쓰면 거지가 된다.”
는 말이 있어.(이상은 기록) 땅을 사야지 다른데 쓰면 안돼. 그래 나중에 거지뱅이로 된다고. 도깨비가 자꾸 돈을 구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두고 저기 저금 하든지 뭐 우짜든지 하면 나중에 망해봐. 도깨비가.

우리 동네 한 사람은 그냥 이 서방네 일간데, 과수원네 일간데 그냥 그 돈가지고 밭 사고 뭐 사고 그랬거든. 이네가 그 돈 가지고 밭 사고 논 사고 그랬거든. 그 집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도깨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장 담글려고 장을 피놓은 것도 그냥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냥 죄 쏟아놓고, 방아 찧어서 해놓은 쌀도 흘랑 가져가버리고. 그래 그냥 그 땅은 못가져 가고 여기 여기 파보고 말어. 허 그 도깨비가 그러더라고.

그냥 저번에는 인저 처녀들 셋이. 인제 그러니까 내 친구가 있지 처녀 적에. 여름이면 우리 마루가 시원하니까, 저녁에 모여서 그 마루에서 죄다 모여 자거든. 그냥 자는데 한 색시 하나가 나가면 비단 이런 걸, 비단같은 것을 그냥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날더러 한 번은 그래. 나한테 그래.

“언니! 언니!”

“왜 그래?”

그러니까,

“아우! 아무개는 밤에 자다 어딜 나가면 비단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들어온다고. 돈도 그렇금 많이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 돈을 그냥 날더러 맡아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어찌까?”

“그런 거 맡아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게 뭔지 아냐?”

고. 그래 인제 내가 하도 그래서 잠을 안자고 지켰어. 밤 12시야. 꼭 12시가 되니까, 애들은 자는데 살며시 나가. 필경 '애인이 있겠지' 쫓아 나가니까, 우리 대문밖으로 사랑사랑 나가더니, 우리 뒷밭에 밤나무가 이렇게 아람드리 있어.

그러더니 거길 가더니, 내 눈에는 아무 것도 안보여. 도깨비가 안보이더라구. 괜히 그냥 중얼중얼 하더니, 어디서 돈보따리, 예전에는 엽전 돈이었어. 돈꾸러미에 뭐 이런 걸 그냥 자꾸 치마폭에다 담어. 담고 그리고는 밤나무 하고 입을 맞추고, 내가 보니까 그저 밤나무에다 가서 그냥 비벼대고. 거기에 도깨비가 붙은거지. 그러니까 내 눈에만 안보여.

아우, 그래서 '아주 이상하다' 싶어, 내가 남자들에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남자들이 밤에 지켰네. 밤에 남자들이 지키면 남자들 눈에도 안보이는데, 그 계집애만 가서 그 밤나무랑 그 지랄을 하고 있는거지. 그냥 그 계집애가. 인자 여러 사람 눈에 들켰지. 들켜서 이제 탄로가 나니까, 머리를 그냥 흘랑 뽑아가 그냥 하얗게 만들어 났어. 내가 실제로 보니까, 이 머리가 죄 뽑아가고 살만 남겨 놓아 뽀얗게. 그렇게 멍글어 났어. 하이고, 하나도 없이 그냥 머리털이 요만치도 없이.

[조사자 : 누가 뽑아 갔어요?] 도깨비가 뽑아 갔지. 인제 그 도깨비가 다 틀렸지. 이제 그 계집애랑 연애했려고 했는데 계집애가 들켜서, 여러 사람들한테 들켜서 그게 다 틀어지니까. 그런 것도 봤어. 세상에 머리가 이 무릎팍 같애. 대가리가. 이제 무섭대. 그냥. 그래 아는 사람 더러,

“도깨비를 뿔려면 어떻게 하느냐?”

니까, '말'이라고 하대. 도깨비는 말피를 제일 무서워 한다. 말피를 그렇게 무서워 한다. 동네에서 그렇게 짜고서는 그 밤나무에다 말피를 발라놓고, 그 계집애한테도 말피를 해놓고, 감쪽 같어. 그럼 눈에 안보인다, 그 계집애가. 그래서 그 계집애가 그 도깨비를 갖다 준다는 말은

안했거든. 여러 사람이 이상하니까 봤잖지. 봐가지고.

[조사자 : 그 뒤로 머리는 새로 났어요?] 머리아 나중엔 새까맣게 나오더라고. 이 아주 무릎팍이야, 무릎팍. 아주 징그럽대. 그래가지고 수건을 쓰고 그냥 어디 나가지고 못하고. 그 머리 날 때까지 꼭 그 수건 쓰고 살더라고. 아유 도깨비한테 홀리면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나중에 그렇게 해를 끼치더라고.

우리 일가 사람 하나는 남들이,

“그 집은 이상스럽게 부자가 되서 밭도 샀대. 저기 논도 샀다.”

그러더라. 그 집은 그걸 알거던. 여기 저기 땅을 자꾸 샀다. 근데 그냥 가만 저 도깨비 떡시루라고 해서 먼저 동네 사람들이랑 풀어먹고, 도깨비 먹고 우리 노나 먹고 그랬어. 그래야지. 도깨비 저거한다 소리는 안했는데. 그 딸이 보고선 그만 소문을 내놨지.

“우리 오빠는 도깨비가 돈을 갖다 준다.”

고. 돈 빚진 거 그냥 논, 빚진 거 감쪽같이 죄 뺏어가. 죄 뺏어가고 장 담글려고 큰 독에, 일꾼들도 두엇 되고 하니께 독에다가 그냥 장을 풀어놓고, 그 큰 백독을 깨뜨리고 소금물이 그냥 온 집안으로 편잡을 해 놓고 이랴. 그러게 망하게 그러더라고.

말피 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잡아가지고 논구녕 밭구녕 죄 끼었고, 집안에 어디 말피를-, 그집이 망아지 하나 잡아가지고 그러더라. 그래서 논밭 하나 까딱 없었어. 남 준 돈, 빚 준 거, 그 때는 뭐 이런 저금이 있어? 없는 사람이 빚을 얻어 먹는거지. 없는 사람이 빚 갖다 먹고. 아, 그런 것도 봤어.

지금은 도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병들면 무당집에 쫓아 갔잖아. 무당집에 물 한 잔 떠 놓고.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무당 구경도 못해.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래.

[백암리 설화 12] 백암T 1뒤2앞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박사문(77, 남) 1995. 11. 11.

적선지가 필유여경

할머니들이 계시는 2층에서 내려와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1층으로 내려왔더니 여덟분 정도의 할아버지가 계셨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니, '조금 있다가 해준다'고 하고는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러다 나중에 오신 박사문 할아버지를 주위에서 부추겨 이야기를 구술하게 만들었다.

얘기가 좀 길텐데.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경사스런 일이 온다고. 옛날 어른들 학자들 저런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

그게 지금 '금시발복 자리, 금시발복 자리' 이러는데, 무한히 욕심 많은 사람들은 저기 지관, 안다는 사람들을 돈을 푹푹 쥐 가며 자기가 잘 되려고 금시발복 자리 찾아 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 그거 안 되요. 그건 자기가 그만큼 금시발복 자리를 얻을 만한 일을 했는 사람이면 자연히 얻게 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저기 하겠는데, 그 옛날 얘기가 길어요.

천안에 옛날에 장동 김씨에 김양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가 할아버지적에 옛날 벼슬 호조판서를 지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다가 그 아들이 먼저 죽는 바람에, 옛날에는 그 누구도 호조판서 아니라 정승판서를 지내더라도 그 아들이 죽으면 다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낙향을 해서 천안에 내려와서 저기한데. 그 판서한 이래 지내는 거 이들은 옛날 벼슬에 정부에서 그 종들을 해주고 재산을 얼마 베풀 주고 그런 일이 있는데.

천안 와서 아들을 잃고는 손자만 하나 데리고 살다가 그 양반이 돌아

가고 그러니까, 옛날 학자는 방안에 앉아 글만 읽었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거든. 세상 물정을 모르니 방안에 앉아서, 있는 재산을 꺾끔 빼먹듯 빼먹고, 종을 인저 몇십 명씩 나라에서 쫓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살려야 그 심부름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라니까 얼마가?

그 재산을 이제 다 탕진하고 손자 김양옥이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자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고, 그 어머니하고 모자 살다가 그래도 양반집이니까 아마 장가는 일찍 들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장가를 들어가지고 하다가 상처를 해서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단지 모자가 살았거든. 그래서 팔아먹다 팔아먹다 하니까, 종들이 인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한두 명도 아니고 옛날 판서 지내면 오육십 명씩 종을 주는건데. 그래서 그네들이 저래 하니까 할머니가 뭐고 하니,

“야, 우리가 너희를 거느리지 못하니까, 문서를 여기서 불사르테니까 너희가 맘대로 가서, 어디 가서 너희 자유대로 살아라.”

그걸 송양(속량)이라고 그래요. 송양을 해 쫓았는데, 그 문서 보따리도 그 문서 보따리를 불사르지 않으면, 그 사람네가 종문서에 있어서 어디 가든지 종노릇을 하게 되요. 그래서 보는 데서 불사르고 맘대로 살라고. 그네들이 집단으로, 이 근처에서는 종이라는게 판에 박혔으니까, 이 근처에서는 아무데 가 살아도 대우를 못 받으니까, 저 아주 그때 저 하도 완도라든가 어디 지금은 거기 완도도 연락이 하니까 사람이 많겠지만, 거기서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네 촌을 이루어 가지고서 잘 살게 되었는데.

이 김양옥이라는 이는 그렇게 할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글만 읽다가, 판서의 손자이고 하니까 글만 읽다가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종들은 다 나가버리고 하니까 땔나무, 옛날에는 나무를 하는데 땔 나무도 없어서 땔 나무 한 움큼씩 갖다 고생 고생해 가며 사는데, 있는 거 죄 팔아먹고. 옛날 대가집에 책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 지금도 학자집 보

면 책이 많잖아요? 그 책까지도 죄 팔아먹어. 결국 팔아먹다 팔아먹다 팔아먹을 게 없어 굶어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니,

“우리가 옛날에 종들을 송양해 줬는데, 얘기 들으니까 저 아래 전라도 완도에 가서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잘 산다고 하더라. 그러니 니가 거기 한 번 찾아가면 아마도 팔세는 안할거다. 다문 얼마라도 얻어오든 우리가 죽지 못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머니 말을 듣고 거기를 찾아 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자기네를 송양을 안해줬으면 문서 보따리를 안태웠으면 맞아 죽고, 찾아갔다 저기 한대요 종들한테. 그런데 송양을 해 줬으니까 자기네 자유활동이 되어서 고맙다고. 옛날 상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기 해다고 하며, 그중에 제일 나이 먹은 이가 저녁에 동네 사람을 모으는데 속사정을 모르는 김양옥이라는 이는,

“아 이거 종들한테 찾아가면 맞아 죽는다더니, 이거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려고 모이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김판서 댁이 예전부터 우리에게 후하게 했었지만 종문서까지 불사르고 속-(속량) 저기 해줬으니까, 그냥 있을 수 없으니 다문 얼마라도 견어가지고 저기 하자.”

그래서 오십여 가구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큼 견어가지고 저기해서 며칠간 묵어가라고 붙잡아서 대접을 잘 받고 떠나는 날. 옛날에는 쌀, 저 돈 엽전도 말에다 싣고 다녔어요. 지금같이 돈도 수표가 아니고. 엽전 알아요? 땡기에 꿰어가지고 겨드랑이에 찬. 그걸 소에다 몇 바리하고 쌀 몇 바리하고, 소가 아니라 동네 자기들이 맥이던 나귀를 몇 바리 내서 실어주거든.

“가지고 가서 살라.”

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오던 낙동강 나루터기에 갔었는데, 전라도서 옛날에는 육로에 걸어들었지. 차가 있고 그래요? 낙동강 나루터기에 저기 했는데, 젊은이가 배를 탈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낙동강을 건널려면 배를 타야 되니까. 어떤 젊은 부인하고 늙수그런 여자하고 서로,
“지가 죽어야지 않된다고. 어머니는 가 살으시라.”

고 이라고. 서로, ‘니가 죽거니, 내가 죽거니,’ 서로 물로 뛰어들어 죽으려고 하는 장면에서 서로 말리고 있는거여. (tape 2앞에 계속. 이하 기록) 서로 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곡절이라서 이러세요?”

나루터에서 기다리는 찰라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려 하니,

“당신은 알 필요 없으니 갈 길 가시오.”

그러거든요.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 일이란 건 모르니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니 얘기를 해 보시오.”

그러니 젊은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가막힌 사정 좀 들어보소. (이상은 기록) 직의 남편이 외아들인데, 지금에 이르면 그 관공청의 회계사여. 옛날 그 벼슬이. 근데 옛날에는 그 각 고을에 이 지방세 곡석을 받아서 거기다 쌓았다가 나라에서,

“언제 올려라.”

그러면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 낙동강 거 뭐여. 무순 군여. 그 거기 사람의 그 회계 참 책임을 맡고 있는 찰라에, 정부에서 아직 곡석 세금 걷어들인 것을 가져오라는 저기 없으니까, 창고에다 쌓아놨는데, 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뭐고 허니,

“야! 곡석 고연이 그냥 쌓아 두느니, 그거를 날 잠깐 빌려주면은, 빌려주면은 이 저 원산 가서드러매, 북어니 뭐어 저기하고 금 이것 많이

나니까, 그걸 해가지고 중국이로 가면 삼곱 사곱 남는더니까. 그 곡석을 몇 달만 빌려주면, 그걸 해 가지고 몇 번 왔다갔다 하면 수천 억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깐 그걸 좀 빌려 달라.”

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고 착하니 솔직히 그걸 빌려주었다. 그런데 아 뭐 몇 한 두 달 후에 가져온다더니 얼굴도 안보이고, 그냥 읊어져. 그런데 인자 나라에서 곡식 바치라는 통지가 오니까, 바칠 날짜는 다가 왔거든. 근데 그 날짜가 인자 내일 오전까지 그걸 확보 못하면 그냥 사형이여, 그냥. 그냥. 외아들 둔 그이가 죽으면 집안도 망하니까, 젊은 여자 하고는 시어머니, 며느리 고비간이여. 근데 거 저기는 ‘니가 젊었으니 살아서 우리 집안을 그래도 꾸려가서 거기 해야지, 난 저 차라리 차마 내일 죽는 사형받는 꼴을 어떻게 보냐?’ 애미한테 죽는다 이려고, 빠져 죽을라고. ‘아니올씨다.’ 그 며느리는 ‘지가 죽어야지.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서 훗일 양자라도 해가지고 끝을 이어야지.’ 물에 빠질라고 하는 걸 서로 잡아당기고 못허는 이런 찰라에 있습니다.

“그래, 대관절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거기서 부르는 액수가, 그 신고 가는 돈하고 쌀바리하고 맞떨어져요. 맞떨어져. 그러니까;

“아, 그럼 그걸 값을 건 되니까 갖다 내고서, 내일 아들을 구출하십시오.”

그 낮이 빛이 모르는 사람이 강가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아 글썄, 내 염려 걱정말고 갖다 바쳐서 아들을 구출하셔야지 어떡합니까.”

저 말 신고 오던 종들하고 돌려 보내고서, 도루 완도로 돌려 보내고 자기 혼자 배를 탈려고 하니까, 그 젊은 여자가 매달림에,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는데, 그럼 어디 사시는 누구이냐고? 성명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고 그러니까,

“그걸 알 필요 없다고. 알아야 그 뭐하겠느냐고? 내가 이런 딱한 사정을 보았음에 잠깐 도와줬을 뿐이지, 그걸 나중에 알아서 뭐하겠느냐? 알 필요 없다.”

영 알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얼굴을 자세히 쳐다봐서 얼굴을 익혀었어. 그 젊은 여자가 얼굴을 자세히 익혀서 저기 했는데, 그리가지고 그 김양옥이 하는 이가, 이제 그 돈을 갖다 바쳤으니 살아나실 것 아니여. 그래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니? 얼마나 얻어가지고 왔니?”

허니까. 그 사정 얘기를 오다 그 딱한 사정을 봐서 주고 왔습니다. 그런 얘길 하니까, 보통 어머니 같으면,

“야, 임마! 니가 당장 굶어 죽을지경에 남 구할 여가가 어딴느냐?”

그리고 뭐할텐데, 등을 툭툭 두드리며,

“정말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산 입에 설마 죽겠느냐?”

하니까. 어떻게 되니 살 도리가 있을거라. 이력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뭐, 정말 뭐 일도 할 줄 모르고 그냥 팔아먹을 것 죄 팔아먹고.

책상을 죄 뒤지다 보니까, 예전 신라시절에 화가 솔거를 배웠으면 알겠지만 솔거라는 거 있잖여. 솔거가 절에다 소나무를 그려 붙이면 문을 열어 놓으면 새들이 정말 산 소나무인 줄 알고 날아와 벽에 와 앉았다 떨어지고 이랬다는 솔거의 족좌가 하나가 있거든. 그래서,

“팔아먹을 건 이제 이것 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 서울 가면 아무리 못받아도 아마 그때 돈 한 150냥은 받을 거다. 그래 이걸 팔아서 우리 돈 남겨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이래서. 그래 그걸 싸가지고 보따리에다 해서 서울 와서 참 저 객지에 다다 물어보니까, 정말 150냥에 누가 사간다고 해서 팔았어요. 그걸. 근데 150냥에다가, [조사자 : 얘기가 길어요?] 150냥을 받고서 팔아가지고, 인저 김양옥이 그가 잔뜩 생각에, ‘그 동구 밖에, 옛날에 물레방아라고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아를, 벼 곡식을 찧어먹는 물레방앗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100냥이면 사니까 그 때 돈에. 가서 이거 150냥이니까, 가서 뛰여 100냥을 주고 그걸 사면 1년에 돈이 들어오는게 50석이야. 50석만 가지면 넉넉히 살거다.’ 나머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예산으로 100냥을 따로 쌓고, 50냥은 저기해서문에, 그러니까 10냥인가 20냥인가 자기 노자로 하고. 어머니도 그래도 노래 저기 하시니까 옛날에 그 저 족좌, 족좌가 아니라 저 뛰여 배잔가, 그 비싼 그걸 20냥을 주고 하나 사고. 그 나머지는 노자돈을 하고 저기해서 130냥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수원 와서라문에 해가 저물어서 걸어오는 거니까. 해가 저물어서 수원 객주집에 들렀는데. 밤중에 어떻게 아우, 아구다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젊은 여자는 들고 울어 제키고, 나이 좀 먹은 지긋한 여자는,

“이놈아! 나를 당장 죽이고 끌어가거라.”

어쩌다 이려고. 설다문에 들 싸우는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터막 베고 가만히 이 생각 저 생각 허고 있다 잠은 안오는 데, 그렇게 하니까 호기심에 또 나가 보았어요. 나가 보니까는 어떻게 됐나 허야문이, 그 젊은 여자를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끌고 갈라고 그러는거요.

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고 수원 별판에 그 갯벌이 있는 데 거길 갔다. 개간을 할 것 같으면 몇 백 석 받을 것 같으니까, 받을 것 같으니까 루 그 중국 사람한테 백 냥 이жат돈을 얻어다가 그걸 개간을 했어요. 개간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 이 노루쟁이가 안되믄 그게 그냥 장마가 쳐가지고 도루 그 씨를 물어버렸네.

그러니까 백 냥을 흘랑 날려 갔지. 그러니까 그 돈 값을 도리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화병으로 죽었지. 근데 그 중국 사람은 그 돈 값을 기한이 지났는데 안 갚으니까 와서,

“돈 갚으라.”니까,

“돈 이렇게 돼서 없으니, 살아가면서 갚으면 안되나?”니까,

“안된다.”

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옛날에,

“그, 저 돈 못갚을 바에야 딸이라도 내놔라.”

그라고 딸을 돈 대신 끌어갈라고 하는 거니까, 그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그 딸을 줘요. 그러니까 ‘그건 안되고 나를 죽이고서 끌어가든지 어떻게 날 죽이라’고 하니까, 뭐 중국 사람도 사람 죽이고 끌어가면 살인 죄에 걸리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만 끌어갈라고 ‘안된다’ 끌어갈라고 ‘된다커니, 안된다커니,’ 싸우고 있어.

그래 그가 그 사정 얘기를 들으니까로, 그럼 중국 사람한테,

“돈이 얼마냐?” 하니,

“100냥 빌려갔는데, 3년 밀렸으니 저기까지 해서는 130냥이다.”

이거여. 거기서 130냥 또 흘랑 떨어줬지. 흘랑 떨어주고.

“돈 나고 사람 났는데, 그 돈 대신 사람을 막 끌어가는게 어땠냐?”

고. 돈 이십냥 자기 보따리에서 끌러 그 130냥을 흘랑 꺼내 줬어요. 그러고서 허니까, 그 이튿날 떠날려고 허니까 그 모녀가 그냥 떠나게 해요?

“좌우간 우리가 쫓아가서 당신의 수발을 꼭꼭히 들여서 몸으로다가 은혜를 갚겠다. 돈은 없구 돈은 없으니까. 우리가 평생 당신네한테 가서 매 수발을 들어가면서 저그를 하겠다.”

고. 이래저래 하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힐 것 아녀. 자기네 모자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두 식구가 쫓아나서면 어떻게 저기 해도 그러니까,

“내 형평이 이러니까 그러질 말고, 그냥 저기 한대로 살라.”

고. 떼어 놓고 올라고 올라고 해도, ‘안된다’고 당장에 뒤에 쫓아나서는 거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왔는데, 와서는 뭘고 하니 참 형평이 그렇게 되니까, 그 색시 어머니는 땡기면 옛날에 너희들은 지금 몰라. 디딜방아품 이런 거죠. 디딜방아 품 땡기매 찰고, 그 저 저기 동네 땡기매. 지금 자방치 옷 사입지만, 옛날엔 돈 있는 사람들은 바느질 잘하는 사람, 바느질 샅 주어서 꺾매다 입고 그래. 그래 그 바느질 샅거리 걷어 들여다 자기 딸은 그거 시키고, 자기는 땡기매 디딜방아 그 노동일 해. 이구 땡기며 불고 이래가지고 그 식구를 호구해 나가는 거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저기 해서 그 김양옥이라는 이가 열병에 걸려 앓게 되는데, 그래 그 이젠 극진히 대접할 수밖에. 자기들 정성있는 대로. 그 색시도, ‘중국 놈한테 끌려가 옥 당하고 저기 할건데 이분 때문에 살은, 은 인이니까’ 그냥 불심초사 하고 병간호를 해서라문에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자연 정이 들 것 아니요. 나이는 틀렸어도.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지. 그 여자 하고.

그래서 살다가 그 어머니가 병환에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게 되실라문에 그때 있는 재산 죄 팔아먹고 산이고 땅이고 없는데, 남의 산이라도 지관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저기 해보니까, 그 동구 밖에 어느 산에 가서 저기 저렇게 돌아 땡기며 보더니 지팡 막대기를 짚고 쫓더니만,

“아, 여기가 금시발복 자리데, 여기다 묘만 삼으면 금시발복이 되겠는데, 이 산이 뉘 산인지 알 수 있느냐고? 이게 남의 산이면 이게 참 어렵겠다. 그래 일단 어디 가서 뉘 산인가 물어보며 번번 말이나 건네보자.”

고. 이래서 동구밖에 동리 가서 찾으니까,

“그 말(산) 임자가 누구냐?”

고 찾으니까. 그 동리에서 제일 기와집이고 그래. 그런 큰 부자니까

저런 산을 소유하고 있겠지. 이려고서 해가 저물어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없겠나?”

고 칭하니까.

“자고 가시라.”

고. 그래서 사랑방에서 하룻저녁을 쉬게 됐는데, 밤이 이속해서 앞문이 포시시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쫓아 들어와서 넙적 엎드려서 울면서,

“아이고! 이제야 은인을 인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고. 그 얘기에, 은인을 인제 만나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어떻게 된 사실이야?”

고 하니까.

“그때 강변에서 돈 내주시고 그냥 오신 분 아니시냐?”고.

“그런 일은 있지만, 나는 그건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은인의 주소를 알고 성함을 알면 직접 찾아가 우리가 도움을 주겠지만, 그 저기 천안 사신다는 것만 얘기하고 가시니까 천안 근처에 와서 객주를 치겠다 이거라. 그래서 지나가는 걸인이건 누구건 지나가는 사람이 자고 가자면 재워주고, 얼굴을 그때 푹푹히 익혀 두었으니까 이웃(옛)을 보는데, 자기 어머니는 칠성단이라는 단을 묶고설라문에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여, 냉수를 떠놓고, ‘꼭 우리 은인을 좀 만나게 해 달라’고. 객주에 과객이 들면, 사랑에 과객이 들어서면 창문을 뚫고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그때 그 얼굴 그 남자를 찾는데, 혹시 아닌가 한테 그날 저녁 뚫고 보니까 분명 그 남자거든. 그러니깐 문을 열고 쫓아들어가서 염치 불구하고 그런 얘기라고. 우릴 살려준 은인 아니냐고 그런다.”

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냐?”

고. 그리고 나서 지기네 지난 얘기를 하는데,

“그 돈 빌려간 사람이 원주로다 북어 금, 은, 인삼 이걸 해서 배에다

신고 중국 가면 삼곱절 사곱절 나니까, 이걸 재미내서 돈 갖다 줘는 기한도 잊어버리고 자꾸 중국으로 장사를 드나들었다. 그래가지고서 말할 수 없는 돈을 불려서 와서, 그래가지고서 와가지고 '이건 내 돈 때문에 그러니까 반씩 나누자'고 그라고 엄청 많은 불은 돈을 반씩 그때 나누어 가지고서. 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고비가 서로 죽을라고 죽을라고 했으니까 둘이 다 죽었을 거야. 남편도 죽었고, 남편은 죄인으로다 사형당했고. 우리 집안이 몰살 당했고. 은인 관계로 우리 오늘날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천안 사신다는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이 근처에 와서 그렇게 하면 만나볼 수 있겠지. 그러곤 거기다 마을을 일구고 돈 나눠준 것 가지고, 그리고 그 근처에 나는 땅이란 땅은 죄 사들었다. 죄 사고 그렇게 되었다."

고. 그리고,

"은인계선 어떻게 여기 오셨냐?"니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서 산소 자리를 구하는데, '동구 밖에 그 산에 산소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덕에 산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 자리 빌릴까 해서 왔노라."고.

"아 그거 산소 뿐이냐고. 그 산 다 차지하시라고. 우리가 은인 때문에 살았으니까 다 차지하시라."

고. 그리고설라문에 그래 주는거라.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 농사짓고 몇 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은 재산을 똑같이 노파설라문에 저기에서 같이 살자."

고. 그래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가 죽을 곤경에 처했어도 자기보다 더한 입장을 구해주면 자기가 복이 들어 온다'는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고 흰문글에 있는데 그런 얘기가 한 토막이 있고.

아, 저기 젊은 세대 각박한 세월 돈을 뺏어가구. 또 돈 때문에 지 아범을 막 죽이고. 이런 세상에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런 적덕을 하니까 그 복이 들

아온거죠.

지가사의 법을 해서라문에 지가사 책을 내는데, 끝에다가 복인(福人)이 복길지(福吉地)라는 얘기를 써놨어요. '복 있는 사람이 길지, 좋은 자리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써 놨는데, 복 있는 사람이 길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이 길지를 얻는 것이여. 복 받을만한 복을 베푸는 적선을 한 사람은 자연히 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여.

[백암리 설화 13] 백암리 2완

백암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완영, 박주영, 현미양 조사
박사문(77, 남) 1995. 11. 11.

지가사의 대명사 손석우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다.

전두환 대통령 처조부 산소가 어디 있는고 하니, 여기에서 얼마가 양지 저 뭐여, 송재군에 살던 저 기억력, 건망증이 떨어져서 추래, 추래. 전대통령 처조부 할아버지가 전대통령, 그래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지가사의 지천명이라고 치는데, 근데 이 저 육관도사라고 저 손석우. 그는 이 땅속을 그냥 유리알 들여다보 듯 다 들여다 봐요. 땅속을. 도를 통한 이라 땅속을.

그럼 어떻게 그걸 아느냐, 각시 문서에서. 이 저 지금 시장 사는데, 가락동 거기 시장 개발되기 전에 거기 산이고 묘가 전술 이렇게 있었는데, 신문기자들이, '이 지가사가 어느 정도 아나 좀 시험해 본다'고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지관 일체 불려서 거기 묘가 많은데 앞에 거기 파게 되어 있거든. 그앞에 개발되니까.

그럼 이게 팔 때 어느 정도 아나 본다고 그 묘에다가 번호를 매겨, 1번서부터말여. 쪽 번호를 매겨 1번 묘에는 어느 지관이 뭐라고 얘기했다. 2번 묘에는 어느 지관이 뭐라고 얘기했다. 이걸 사뭇히 적었어요. 그랬었는데 그 손석우 육관도사가 가서, 그저 저기 하는데 1번서부터 몇 십번 나가도록 저기하는데, 얘기한 건 그 여러 장사 하나도 안 틀렸다는 거지.

“여기는 시체가 삭어서 흔적도 없다. 여기는 물이 고였다. 여기는 시체가 잘도 저기 되었다.”

이런 얘기를 죽 번호를 붙여 신문기자들이 사뭇 적었다는 것이여. 사뭇 적어설라믄에 그 저기해서 야중에, 나중에 개발할 적에 인자 신문기자들이 가서매, 궤 조사를 조사할 것 아녀? 조사 조사하는데 다른 지관들 얘기한 거는 하나도 안마음에 드는게 없고, 그 육관도사 손석우가 한게 그냥 가열히 제 맞았다는 거지. 그래 그게 지금도 저기한데, 땅속을 유리알 보듯 들여다 본다는 거지.

2. 근 창 리

[마을 개관]

근창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1995. 11. 11.

조사자들은 용인읍에서 버스를 타고 양지 가좌월리를 지나 20여 분만에 버스에서 내렸다. 이곳은 백암리로 현대식 건물도 많아 시골을 상상하고 왔던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이곳 백암리에서 20분쯤 걸어서 근창리까지 가는 도중, 근처에 장이 서고 경운기가 다니는 모습은 시골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근창리에는 학교가 있고, 그 주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근창리는 원래 죽산군 근삼면에 속하는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근삼면 신리, 내수곡리 일부와 원삼면 창동 일부를 합하여 근과 창을 따서 근창리라고 하여 용인군 의사면에 편입되었다.

[근창리 제보자 1]

윤희선(83, 남)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1995. 11. 11.

39세 때 북쪽에서 월남하여, 1.4후퇴 때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근창리에 정착하였다. 외모는 매우 건장한 체구인데도 말하는 것이나 풍기는 면모에서 학자다운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이야기는 공

무원으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주관이 분명한 인간이기를 바람을 보여주는 듯 하다.

제공자료 : 설화 1 ~ 2. 11.

[근창리 제보자 2]

신순범(89, 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1995. 11. 11.

경기도 안성군이 고향이며, 17살 때 옥산리로 시집왔다. 당시 영감님은 14살이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백암면에 시집을 온 이후에 이곳에서 살아왔으며, 현재는 많은 연세로 노쇠하게 보였지만, 이야기를 하실 때는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에 임하였다. 제보자는 원래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였을 때 많은 부분을 다르게 구술하자 이야기판에 끼어들어 이야기를 계속 구술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3 ~ 5.

[근창리 제보자 3]

윤복순(76, 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1995. 11. 11.

고향인 이곳 근창리에서 동네 결혼을 하였으며,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한다. 지금은 이곳에 사는 아들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실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셨다. 구비문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많은 것 같다. 즉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바로 구술하기 시작할 정도로 이야기를 좋아 하시는 분 같다. 조사자들이 제보자에게 젊게 보인다고 하자 매우 좋아 하시면서 조사자의 일에 협조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6.

[근장리 제보자 4]

채원만(67, 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1995. 11. 11.

수원 출신인 제보자는 18살 때 이천으로 시집을 갔었다. 뒤에 다시 이곳으로 와서 정착하고 산 것이 40여 년이 넘는다고 한다. 현재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시는데, 외로움 탓인지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7.

[근장리 제보자 5]

이원남(66, 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1995. 11. 11.

좌정에서 태어난 제보자는 22살 때에 이 마을로 시집을 와서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았다. 체구는 작은 키에 둥근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매우 친절한 인상이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주려 하지 않았지만, 조사자가 끈질기게 부탁하자 실제 겪었던 일이라며 한 편의 설화를 구술해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8.

[근장리 제보자 6]

이창순(70, 남)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1995. 11. 11.

이북 사투리를 쓰는 제보자는 평안북도 평온군 노현면에서 20살 때 월남하였다고 한다. 짧은 머리에 보통 체격으로,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은 듯하였다. 잔치집에서 할아버지를 붙잡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처음에는 북한

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다가, <삼천갑자 동방삭> 이야기를 해 주셨다.

제공자료 : 설화 9

[근창리 제보자 7]

정현우(40, 남)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1995. 11. 11.

할아버지 때부터 근창리에서 정착하였다. 따라서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외지에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살고 있다. 작은 키에 마른 체구를 가진 제보자는 재치있는 말투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시작하셨다.

제공자료 : 설화 10.

[근창리 제보자 8]

남의순(82, 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1995. 11. 11.

경상북도 경주가 고향인 제보자는 단정한 용모를 갖고 있었다. 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정착한 이후에 계속 살아왔다고 한다.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 들은 것이라며 해주셨다.

제공자료 : 설화 12 ~ 13.

[근창리 제보자 9]

박삼원(79, 남)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1995. 11. 11.

경북 상주 출신이며, 15년전 쯤에 이곳으로 오셨다고 한다. 이 이야

기는 젊었을 때 고향인 경상도에서 들은 것이라며, 연신 웃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약간 큰 키에 건장한 체구이며 자진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제공자료 : 설화 14.

[근장리 설화 1] 근장리 1왕

근장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윤희선(83, 남) 1995. 11. 11.

청백리 이원익 대감

조사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노인정에 들어서 조사온 목적을 말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는 오늘날 관리들의 부정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청백리에 관해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이조 때 이원익씨야, 이원익씨. 영의정 지낸 그 양반은 얼마나 청백리인지 청백한 분인지. [청취불능] 나서 사흘 안에 나무가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이러거든. 물 부어서 지금은 다.

책 보면 다 있잖어. [조사자 : 책 보면 있어요?] 아냐. 아니여. 그것 보고 그 인제 지금같은 그런 것은 자꾸 볼 수 없데. 요새 분들은 그런 증말 지금은 옳는 거여.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거야.

[근장리 설화 2] 근장리 1왕

근장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윤희선(83, 남) 1995. 11. 11.

스스로 죽음을 택한 오성대감

앞 이야기에 이어 훌륭한 인물로 이항복이 생각이 났는지 계속해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오성대감. [조사자 : 오성대감이 어떤 분이세요?] 이항복. 오성과 한음이라는 책 있잖어. 오성대감이여. [조사자 : 오성대감은 어떻게 했는데요?] 오성대감도 영의정 지내고, [조사자 : 영의정 지내요?] 한음 이 한음이도 그 정승 지낸 분들인데. 임금이 잘못해 가지고 그이들 귀양을 보내 가지고 죽었잖어.

[조사자 : 귀양 어디로 보냈어요?] 저 북청으로 갔어. 북청으로 갔어. [조사자 :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거기 가서. 오성대감이 참 정충신인데, 괜히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리로 귀양을 갔는데 일부로 돌아갈려고 몸에 좋잖은데,

“술을, 술 좀 달라.”

구. 그러니까 한 잔 잡습구. 또 좀 있다.

“한 잔 더 달라.”

그래서 두 잔 쥐.

“두 잔 주는 게 어디 있는냐? 석 잔 달라.”

고 그래. 그래서 일삼오칠구로 술을 잡습구. 그러면 아주 가지, 돌아갈려구. 추한 꼴 안보구 돌아갈려구.

그런 양반들이 오성과 한음에 대한 책이 있어. 그거 보면 아주 뭐 얘기거리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장난도 많이 하구. 아주 유명한 분여, 오성과 한음.

[근창리 설화 3] 근창리 1화

근창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신순범(89. 여) 1995. 11. 11.

수수대가 빨간 이유

고향이 안성인 제보자는 17살 때에 14살짜리 영감한테 옥산리로 시집와서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지금은 많은 연쇠로 노세하게 보였지만, 옛날 이야기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듯 하였다. 원래 이 이야기는 다른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이야기가 잘못 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야기를 넘겨 받아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나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요거로(녹음기를 가르키며) 하느거여.(웃음) 저거여. 옛날에 어딘가 이렇게 어머니가 하두 먹을게 없고 못살았대요. 그렇게 아주. 그렇게 못살았는데, 어디 가서 보리방아를 찧어가지구 설래매 쌀을 그 찧은 품값을 한 되씩 받아가지구 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밥이나 죽을 한 끼씩 하루씩 끓여서, 하루 먹구 하루 먹구. 이렇게 애들을 몇을 뒤 두고서, 엄마가 밤낮 나가 벌구 벌구 이렇게 땡졌대. 고개를 넘어서 그렇게 땡기는데, 하루는 뉘이가 와서라매 말이죠. 그러드래요. 저기.

“애, 애야! 아무개야! 문 열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애들이,

“야유! 우리 어머니 목소리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내가 느이 어머니다.”

[제보자 : 이미 집어 먹고서 그 집으로 온것이로구만.] 예.

“내가 느이 어머니다.”

그러면서,〈 이상은 청중이 구술한 부분임 〉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고, 옛날에 과부가 있는데 그랬대.

“우리 어머니 같으면,”

옛날에 [청중 : (이야기를) 해요.] 과부가 살았대. 과부가 딸을 형제

를 데리고 살았어. 이전에는 이런 옷을 맨들 때 이렇게 날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메고.

그전에 술(?)을 팔러갔어. 술을 팔러 가다 참 팔고서 애들 생각을 하고 집을 찾아 오잖아. 집을 찾아오다, 고개를 넘어오는데 호랑이가 잡아 먹었다 말여. 그 어머니를. 그 엄마를 그냥 호랑이가 잡아 먹었는데, 인제 두 딸이 그 어머니 올 때만 고생고생 하고, 와야 밥도 먹고 허겼으니까 바라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호랑이가,

“양풍아! 장풍아! 문 열어라. 양풍아! 문 열어라.”

그러니까.

“아,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데. 왜 안열어 줄걸.” 그런게.

“그럼, 장풍이가 열어라.”

“아이구!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라구. 아닌데.”

그런게. 이제 문앞에 바짝 다가가서.

“손 좀 내밀어 봐요. 우리 어머니 손 같은가.”

그래, 호랑이가 뭐 불쑥 디밀었거든. 아 보니까 그냥,

“아이구! 어머니 손이 아니라고. 응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손에다 풀칠을 해도 자기도 닦고 보들보들한 손으로 와서 참 문 열고 밥 해 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고 말여. 응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놈의 호랑이들이 담을 뛰어 넘어 와서, 그 애들을, 둘을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디. 그 집안에 이렇게 큰 우물이 있는데, 거기 기(계)수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그렇게 올라가기 좋은 나무가 하나 있거든.

아 이놈의 호랑이가 뛰어 나오니까, 이 애들이 무서우니까 그 그 낭구 꼭대기로 올라갔다 말이여. 꼭대기 올라가서 있으니까 호랑이들이,

“깡깡.”

애들이 웃었지. ‘깡깡’ 웃으니까 속을 들여다 보고 같이 웃었지. [충중 :

그때 우물이 있었지.) 그래 우물이 아니라 무슨 우물이 있었어요? 애들이,
“깎깎깎.”

웃지. 그걸 들여다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물속이니께 들어
가지도 못하고. [청중 : 그러니께 우물이 있었어, 바로 밑에.] 하늘이
넌 애들이여. 개들이.

그 왜 수수깡이, 그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수수깡이 빨갭게, 그 애들,
옛날에 그 수수깡이에 묻은 피야 그게. [조사자 : 호랭이가 떨어져서.]
호랭이 피지 그게. [조사자 : 호랭이, 호랭이가 떨어져서.] 그래. 호랭이
피지. 거기서 그 애들이, 큰 애들이.

“아이구 하느님! 저희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저희들을 죽이시려거든
그냥 죽이시지, 왜 호랭이 밥에 되게 하시시냐?”

구 그러. 그러구 했었어. 그러구 이젠 하느님을 보구 소원을 빌었어.
아 그랬더니 이놈의 호랭이가 이젠 거진거진 다 올라왔거든. 베란간 천
둥 번개가 하더니만은 그냥 수수깡이를 잘라 가갖고, 가더니 끝이 뽕죽
하게 만들어 놔거든.

그래 요즘의 호랑이 한 마리가 올라가서 잡아 먹으려 하여 천둥번개가
허니깐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수수깡이에 똥구렁이 꼬여서 인제 한 놈은
죽었는데, 또 한 놈이 인제 남았단 말여. 그러나 저러나 그제 인제, 그냥
꿈쩍없이 호랭이 밥이 되겠다고. 그리고 뭐 밤중에는 그전에 똥구렁이가
짤러, 똥구렁이가. 수수깡이의 피가 옛날부터 그것 호랭이 피가 그것 수
수깡이 마다 읊는게 읊어. [청중 : 거 빨갭게 있잖아.] 그 벌겍게 되고,
수수깡이의 피이라는게 호랭이 피여. 호랭이 피.

이때까지 그래서 내려오는 과거인데. 그래 그냥 그 양생이 그 호랭이
인저 그 떨어지는데, 둘이 어디로 갔다 온다. 그래서 형제 둘이 남매
들이 근근히 사는데. 그냥 그래 인저 결혼한 신랑이 있었다. 신랑이 있
었는데, 그 신랑 이름은 잊어버렸네.

[근창리 설화 4] 근창리 1앞

근창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신순범(89, 여) 1995. 11. 11.

선관의 도움을 받은 여인

이야기는 앞의 수수대가 빨간 유래에 이어서 계속된 이야기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곳에서는 이를 분리 독립시켰다. 이 부분은 아마도 <구렁덩덩 신선비> 이야기의 남편을 찾아가는 부분의 변형으로 보인다.

색시가 함지에 이렇게 빨래를 빨면서 한탄을 하면서 빨래를 빨지. 왜 선비가 지나가는데, 아이구.(웃음, 친구분이 오셔서 인사를 한 후에 이야기를 다시 시작함.) 빨래를 빠니까, 왜 선비가 말을 타고 지나가거든.

“여보셔! 여기 왜 처녀 처녀 둘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시는 것 보셨습니까?”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 그 처녀 하는 말이,

“어, 예전에 그것 아르켜 들일테니, 나도 왜 애인 있는데, 백제 말을 타고 무신 나라를 가느라고 갔는데 여지까지 소식이 없으니 온데 간데가 없시니, 우리 남편 찾아주면 내가 당신 남편(아내) 찾아 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당신 남편은 지금 서울 아무데, 아무데에서 무슨 일을 잘하고 있구. 그런데 나는,(기침) 여자로는 이렇게 남편을 찾은게.”

이렇게 이렇게 하늘에서 이만한 우박 하나가 푹 떨어지거든. 그 하늘이 난 애들이여. 그러니까, 그 저기 색시 찾아온 선비가,

“아가씨! 아가씨! 두 말 말고 저 바가지 타고 물 속에 들어 가쇼.”

아 그 바가지 타고 풍덩 물에 들어가니, 세상에나 내 세상에, 죽은 남편을 있고, 죽은 아버지 할머니 죄 만나거든. 그래 가지고 잘 살았더라.(임동 웃음) 그러고 인자 그 왜 인자 처녀 찾아온 게 사람이 아니라

선관이며. 그 그 왜 살리려고, 그 기도를 한게. 이걸 우박 하나가 그냥
이제 물에 풍덩 빠진게,

“저거를 타고 물 속에 들어가면, 당신 아주 세상에 없는 남편과 과거
부모와 동기네들을 다 만날 수 있어.”

아 그걸 타고 가서 다 만나서 잘 살았데.”

[근장리 설화 5] 근장리 1화

근장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신순범(89, 여) 1995. 11. 11.

상전을 골려먹은 유기장수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스스로 생각하여 구술하여 주신 것이다.

옛날에, 응 가난하게 못살게 사느러니까, 하루는 아들이 어디 나갔다
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광광 알테레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 어디가 아파서 그러십니까?”

물어 보니까는,

“너는 알아서 뭐하냐? 몰른다.”

그러드래. 그래서,

“그러면, 아휴 아버님! 그래도 가르켜 달라.”

고. 하두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가르켜 주더래. 으 하무데 이러
저러 한데서 그 원이, (친구가 집에 가자 인사를 한 후 이야기를 계속
함.) 그 원이 저기 명석, 동짓 선달에 눈이 허영게 왔는데,

“명석딸기를 따오며는 네가 너를 돈을 얼마 몇 배를 주고, 명석딸기를
못따오며는 너의 삭시를 나를 다오.”

그렇게 언약을 하더래. 그러니까으루 삼진, 동진 선달에 어디 가 명석

딸기를 따, 응. 그러니까, [조사자 : 명석딸기요?] 예, 명석딸기. [조사자 : 아, 명석딸기 뭐예요?] 아유 스 명석딸기라고 있어. 딸기같이 이렇게 줄이 뻗어나면, 옛날에는, 응 먹는 것이. 딸기같이 생겼지. 그런데, [조사자 : 조금해요?] 응. 그런데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원 아버지는 그것 다 가져갈 것 읍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가설라므네 저거 할 때니까, 내가 가가 따다 줄께요.”

그러드래. 아들이, 애. 그래서 아 저 놈이 어떻게 할려고 그러나 하고 있었더니, 거기 가서 코를 찢찢 흘리고 침이 돌아서, 침이 칙칙 침이 생겨니까두루 부르드려요, 거기서. 부르더니,

“야, 이놈아! 너 아버지 명석딸기 따왔냐?”

그러드래.

“우리 아버지, 시방 명석딸기(웃음) 따러 갔다가, 뱀에 물려서 시방 다리가 탕탕히 붙어서 꼼짝 못합니다.”

그러드래. 그리고 나니까는,

“야 이놈아! 시방 말이지 뱀이 어디 있느냐?”

그러드래. 거기서,

“그러면, 시방 명석딸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인제 답을 했거든.(손님이 들어옴) 그래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가만히 원이 생각하면서, 저놈의 자식을 두었다가는 도대체 그 마누라를 뺏았을 수가 없거든. 그 마누라가 일색으로 잘 생겼는데. [조사자 : 그 아들의 떠느리요? 아들의,] 아들이지, 아들. 어머니를 못 데려오지 그러니까. [조사자 : 아 어머니요?] 그럼. 개 어머니지. 그러스레므니 그러면 저 놈을 어떻게, 저놈을 읍애버려야 허겠나 싶어가지고 서는 하루는 그냥,

“야! 너는 내가 허는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고 이젠 했대:

“에! 뭘니까?”

“응. 여기 너, 내가 뒤에다 뭐 써서르미 이렇게 이렇게 붙여 줄테니까, 그것을 붙인 걸 가지고 아무데 아무데로 곧 가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설라므니 인제 그것을 그렇게 붙여주는 걸, 이젠 등에다가 인제 붙이고 그래서설라므니 갔데.

가매, 가다가 인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등에다 써 붙인게, 물론 댁에 죽으래는 그거 것거든. 그래설라므니 그러면은 어디 가서므레 누구보고,
“봐 달라.”

고. 몰래 그러니까, 보니까,

“이놈은 간대로 대번 말이지, 응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읊어버려라. 응, 죽이든지 어떻게든지 읊어버려라.”

그래 써설래므니 거기다 붙여거든. 그래가지고서는 아 고놈애,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등에다가 가는대로 그냥 거기서매 죽이라고 그렇게 써 붙였다.”

그러드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써 붙인 거 그걸 띠고, 그 집이 아 딸도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 아주 잘 살고 그런니까, 그 집또 알거든 인제 이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가는대로 말이지, 딸을 결혼을 해가지구 잘 살라고. 응. 그렇게 좀 써 붙여 여기다 달라.’”

구. 그랬판 말이야. 그래서 이놈이 그저 그렇게 써붙여 주니까, 가지고서 그 집이를 갔어. 가설래미,

“아무데 이러저러한 원이, 원님이 그렇게 써설래른 여기다 붙여주고 ‘가설래미 뵈라’고 해서 그냥 왔으니, 등에다 뭘 써 붙였는지 난 모르겠으니 좀 봐주시오.”

그러니까, 아 보니까는,

“오는 이 사람, 오는대로 말이야, 그냥 댁의 딸을 말이지, 그 집의 딸

을 갖다가 결혼을 해 가지고세레므니 잘 살게 해주라.”

고. 그렇게설래므니 써서 붙였거든. 아 그러고 허니까, 그대로, 이제 그 쓴대로 그렇게 해설래므니 인저, 딸을 해서 결혼해서 살으려니까. 아 내중에 인제 기별이 왔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됐냐?”

그러고. 하니깐으루 그 다음에는 그 그런 거금어 써,

“저놈이 이러저러 하고 이러저러하고, 이러저러 해서서레메 시방 여기 서 이렇게 산다구. 그런 줄 알고 잘 산다.”고

“오 그러면, 저놈을 또 죽여야 할텐데 어떻게 죽이냐?”

또 그러는 거야. 그러구더니 내중에 하는 소리가, 그러면 응 말을 타고 원이 데리고, 말을 타고서 간거야, 어디를. 또 이놈을 죽일라고. 그 래 갔는데 어딘가 가니까두루 응.

“너! 말 여기 붙들고 있어라. 내가 가서라매 뭐 즘심을 먹고 올테니까.”

그러그든. 아 그래설라매,

“그럼, 그러시요.”

그러고. 말을 붙들고 인제 있노라니까, 어뜨런 사람이 설렁설렁 오더니만, 일단 짐심 먹으로 가고. 그랬는데 허는 소리가,

“아! 이 말 팔거냐?”

고 그러드래.

“그래 팝니다.”

그러니까.

“그래 말을 팔되, 고삐는 안 팔고 말만 판다.”

고 그랬데.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고. 그래 인제 말만 팔고설라매 인제 고삐는 저 사람이 쥐고 있지. 아 이놈이 즘심을 먹고 오니까우루 고찌만 배짝 붙들고 업드렸거든. 그래,

“야 이놈아! 말은 어디 가고 꼬삐만 붙들고 업드렸냐?”

그러니까,

“아! 꼬삐를 붙들고 있어야지 붙들고 있지 않으려는, 거 이 세상은 ‘눈 없으면 코 베어 먹는다’고 그래서, 코를 뒤흠이 베어갈까 봐 그래서 업드렸다.”

고 그러거든. 아 그러고 허니까으루 그냥,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또,

“아휴! 저놈을 어떻게 죽이나!”

또 연구를 했어. 연구를 해가지고서는 또 인젠 어디로 또 인제 추방을 해서, 시켜가지구 가설레므니,

“거기 가면 가는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이라.”

고. 그러구 했는데. 아 이놈이 저기 가서래미 또 그 말을 잘 해가지고,

“나를 이래저래고 해설래매, 이 집에 오면 그냥 이집 아들같이 해가지고서 장가 들여서 참 살림을 내고 잘 살라고. 그렇게 했다.”

고. 아 말을 잘 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응 거기서 또 잘 살터래. 그 래 살면스러며 허는 수작이 뭐라고 했냐 하면, 내중에 그랬대요.

“어, 시방 저기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이 요(용)왕 이 땅에서 사는데, 영 빨리 말이지 여기 당신이랑 모두 우리로서, 용왕에 거기 들어가면 아주 잘 살 수가 있다고. 저기 가서 참 뭐하니까으루 그리 들어가게 허자.”

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럼, 그러자.”

구.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부텨, 응 아버지부텨 가마 가마, 가마술 죄 쓰고. 가마를 쓰고서 물에 풍 들어가면,

“꾸르르르!”

하고. 물 들어가 그 물먹는 소리가 들어가거든.

“빨리 들어오랜다고. 그 다음은 어머니 들어가라.”

고. 그래 어머니가 가마를 그루 붙들고 그 물에 쭉 빠지니까, 또,

“끄르르르!”

하고 또 들어가고. 이젠 모도 죄 들어가. 빠져서 죄 죽은거여. 그 물 속에. 그런데 나중에 인제 저허고 삭시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허고 삭시만 남었는데. 삭시만 남았으니까 삭시가 빠져 죽을라니까,

“너는 나카 살지 가긴 어디를 가냐? 못간다.”

[조사자 : 그래 꼭 잡았어요?] 응, 그거구. 싹 붙잡어 가지고 잘 살드래.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신이 안나서 이제는 못허겠어.

[근창리 설화 6] 근창 1앞

근창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윤복순(76, 여) 1995. 11. 11.

나쁜 계모(장화홍련전)

이곳 근창리가 고향인 제보자는 조사자가 '젊어 보인다'고 하자 좋아하시며 이야기를 해주었다. 현재 이곳의 아들집에 산다고 한다. 앞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바로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콩쥐팥쥐가 있는데, 딸 둘인데 딸이여 딸 둘인데, 기(계)모가 들어왔어. 기모가 들어왔는데, 인제 저기가 있구나. 이름이 뭐지. 그 남자 이름이. [조사자 : 잘 생각이 안나세요?] 그 남자 알파요. 그 콩쥐팥쥐에 그 남자 이름이 뭐지. 그 아들 그 저 작은, 첩에 그 서모의 아들이 약간 병신이야.

병신인데, 응 큰마루라들은 딸을 둘을 낳고선 마루라가 죽었거든. 죽었는데 인제 새로 들어온 마누라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보야. 바보데 글썸, 이 그 딸을, 그 딸 음해 잡았어. 음해를 잡아설랑 저기힐

라고 그냥 저기 하는 거야. 큰딸이 있는데, 큰딸 있는데 글썄 큰딸을 음헬 잡느라고 쥐를 잡아 벗겨가지고선 이불 속에다 넣어주는 거야.

“저년! 서방질 해가지구서 낙태했다.”

구 말이여. 이렇게 소문을 내구. 그렇게 해서 그 딸을 죽일려구, 그 팔 푼이더러, 즈이 아들더러.

“어디다 갖다 내비리라.”

는거야. 내비릴라고 그랬는데, 이제 ‘무슨 강 연못에다 갖다 내비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갔는데 호랭이가 그놈의 새끼 다리를 물었어요.

“거기 갖다 웅덩이로 넣으라.”

그랬는데, 그래 웅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은, 또 사람이 돼가지고는 죽어서도 도로 사람이 돼가지고 [조사자 : 다시 태어났어요?] 응.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고.

그 동상이 있는데, 동상은 또 무슨 또 뭇을 해먹여 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배가. 배가 이렇게 불려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음헬 잡는 거야.

“나쁜 사람이라.”

고. 그런데 그 저기 아들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랬는데 음헬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야중에는 나라에서 그걸 알고서 그 에미를 잡아다가 그냥 영 뭐, 뭐 이렇게 트는 거 뭐야? [조사자 : 주리요?] 영. 주리를 틀구 응. 그렇게 전부 다 알았는데, 이렇게 할라니까 안되네. (청중 웃음) [조사자 : 그래 나쁜 작은 엄마가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지. 그럼 벌을 받았지. 갖다가 저기 옛날에는 그 뭐야? 나라에 임금님 데려다가 그냥 주리를 틀구 그냥 저기 했지.

그런데 영화 봤을 적 참 슬펐어, 그냥. [청중 백지장을 하나 놓고 있다가는.] 백지장에다가 [청취불능] 거기다 놓으니까,

“에이 이것도 싫다.”

고. 집어내빼리고선 아파트 사가지고 가서 재미있게 산데. 지금도.

[근창리 설화 7] 근창리 1왕

근창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채원만(67, 여) 1995. 11. 11.

부모에게 한만큼 당한 나쁜 아들

수원 출신인 제보자는 18살에 이천 지방으로 시집을 갔다가 이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었다.

그 며느리가, 인제 아들이 더 나빠가지고 할머니는 따루 탄 방에다 두구 밥을 해서 거기다 목판해서 갖다드리구. 자기네들은 그전에 김을 엄청 귀했거든요. 그 김을 구워서 즈이는 상을 봐가지구 들어가. 문구 녀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은 상을 봐가지구 직 내외는 거기 가서 먹었대요.

“그래 나쁜 놈들이라구. 오래오래 살거든 저것들 좀 보라구. 어떻게 사나?”

그래 인제 할머니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오줌뎡이, 그전에는 오줌뎡이가 있어. 그러고서 확 방에 던진거야, 그냥 이놈을. [조사자 : 그게 뭐예요?] 오줌동이. 그전에 예전에 오줌동이. [조사자 : 요강이요?] 요강이 아니야, 오줌동이 있어.

오줌동이를 방에다 갖다가 확 던진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다. 확 던지니까 오줌벼락을 맞은 거여, 노인네들이.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걸 좀 보라.”

구. 그러더니, 그 노인네 하나가, 아들이 외아들이었거든. 결국은 약 먹구 죽었어. 그렇게 당하더라구 자기가. 그 사람도 그렇게 하더니, 저도 또 외아들을 둔거야. 또 그 외아들한테서 또 돌아오니까 약 먹구 죽었지. 마누라도 그냥 죽었다 해서, 접때 가 보니까 있더라고. [조사자 : 효도를 안해서요?] 앵 그러니까 뿌린 것만큼 받드라구, 그거를.

[근창리 설화 8] 근창T 1뒤

근창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이원남(66, 남) 1995. 11. 11.

비오는 날 나타난 도깨비

지금 내가 예순 여섯이거든. 내가 열 살, 열 한 살 정도에 왜정 때 양학이 있었어. 밤에 양학, [조사자 : 밤에 공부하는 것 야학 아니예요?] 으응. 그 인제 왜정 때. 왜놈의 말을 배우는 거지.

근데, 하루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때 막 도깨비 정말 불이 그냥 푸르스름한게 보이진 않아두, 여기서 저만치 가게 어떻게 무서운지 그 아는 집이 옆에 들어가서 그냥 자는 거여. 그 집이가 인제 남편이 죽고 애들만 조금한 것들 데리고 사는데, 그 집이 인제 그 동생이 그 여동생이 내가 친구라.

(이 단락은 채록한 후 녹음기의 조작 잘못으로 지워짐.) 같이 가 자는데, 밤에 그 집에 도깨비가 들어와 소당(술)을 열었다 닫았다, [조사자 :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적은 있었어. 현재로 인제 그 때 열 한 살이나 열 살이나 그 정도 됐을 거야. [조사자 : 도깨비가 들어와서 막 살림살이를?] 보이진 않는데,

그런데 소두방(술뚜경) 소리가 부엌에서 막 나는 거여. [조사자 : 밤예요?] 어허영, 깜깜해서 비는 막 쏟아지는데, 그래 그집이 인제 남자가 읊으니까 애들만 쪼그랑구.

그런게 인제 그 이튿날이고 언제고 뭐 무서워서, 그 죽은 인제 시아주 버니를 그이를 데려와 자면 또 깜짝 같으대. 아무도 읊은게 괜찮구. 그래 그런 걸 한 번 봤어. 으응.

[근창리 설화 9] 근창T 1뒤

근창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이창순(70, 남) 1995. 11. 11.

삼천갑자 동방삭의 직후

평안북도 평운군 노현면에서 태어나 20살 때 월남하였기 때문에 이북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짧은 머리에 보통 체격으로, 잔치집에 가서 제보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구술한 것이다.

삼천갑자 동방삭이가 옛날에, 마차 우리 마차에 사는 방법을 또한 하나고, 옛날에 그냥 삼천 년 살았데요. [조사자 :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요.](웃음)

갑자(동방삭이)가 삼천 년을 지냈는데, 동방삭이가. 뭐인가 하면 그 즉시로 하느님이, 염라대왕이 허가를 뭐야 저기 해줬어. 거 옛날 얘기가. 거 삼천 년 살았다는 거야.

거 어떻게 됐냐면, 염라대왕이 메라고 그랬라면 그것이 호적 위치로 도장을 두 개 찍어 줬어, 모르고. 아니 두 개 찍어야 하는 것을, 하나만 찍어야 하는 것을 갖다가 한 개 더 찍어 줬어. 그러니까 삼천 년을 살은 거 아니여.

한 개 찍으면 천 년이고, 두 개 찍으면 이천 년이야. [조사자 : 아 그래, 세 개 찍어서 삼천 년 살았어요?] 삼천 년을 살았어, 그 양반이. 그래서 유래가 있어. [조사자 : 유래가 있어요? 그 어떻게 돼요?] 그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삼천 년까지 이 한 기한이 당도했거든.

인자 사자가 잡으려 당기니까, 기한이 다 됐는데 이놈이 눈에 안 띄우니까, 먼저 봤다구, 귀신이니까. 먼저 봤거든. 근데 인자 날짜가 다 당도하니까, 인제 솟을 인제 깎고 앉어 있어. 도랑 이 냇가에서 일 하다 보니까, 야휴 사자가. 사자가. 아 삼천갑자 귀신이니까.

사자, 거 사자가 사람 잡는 사자거든. 영혼을 잡는 사자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잡으려고 했는데, 그놈을 잡으려고 응 사자가 이

년 동안 겐(그이)줄 알고 도장을 찍어 쥐는데, 도장을 하나 거 찍은 찍은 줄 모르고, 이놈 잡으려고 했더니 눈이 멍굴허지.

먼저 봤지. 그래 못잡고 보니까 이제, 잡으래야 못잡으니까, 염라대왕이 잡으라고 했는데 못잡으니까, 아 잊어 버렸네. [조사자 : 아까니 냇가에서 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요?] 하다가 그때는 눈이, 사자가 눈이 띄우니까,

“요놈! 너 여 요기 있었구나!”

[조사자 : 그러구 잡았어요?] 어영. 사자가 잡아가는데, 사자 눈에 띄우고, 그 기한 넘으면 도장 찍은 놈을 못 잡거든. 기한이 되니까 삼천년 다 됐으니까, 인제 사자가 들이 와서 잡아 갔지.

“요놈! 여기 와 있었구나! 너 잡으려니까 여적까지 못잡고 있었다. 나는 이천 년짜리 하나 천 년 더 사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했다는 거여. 그 거 유래가 있어.

[근창리 설화 10] 근창리 1부

근창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정현우(40, 남) 1995. 11. 11.

말빌고개의 유래

3대째 근창리에 정착한 집안에서 태어난 제보자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작은 키에 마른 체구를 가지고 있으며, 재치있는 말투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주겠다고 구술하였다. 이 이야기는 10살 때 들었다고 한다.

전설에 그것이 있는데. 전설에 그개 있는데, 그 고향에 인제 시내하고 조금 떨어졌었어요. 10리 길을 걸어 다녔다고. 학교를.

근데, 지금 인제 거기 인제 그 앞 밑으로 길이 좋게 났는데, 옛날에는

비포장에다가 막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밤에는 못다녔어요. 그런 저긴 데. 옛날에 진짜 길이 안좋아요. 막 뭐 여우같은 게 늑대같은 게 막 흙을 뿌리고 그랬었는데.

옛날 그 전설루다가 그 말빌고개라고 그래요, 그 고개를. [조사자 : 말빌고개요?] 말버루고개. [조사자 : 말보루고개요?] 그런데 옛날에 누가 그 인제 옛날 저기 때 말을 타고 가시다가 거기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말버루고개라고. 그러니까 전설이 나온 것이거든요. 예. 지금 그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예. 정확합니다.

[조사자 : 어떤 장군님이 돌아서 가다가요?] 그런데 어떤 장군님인지는 모르는데, 그 얘길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죠. [조사자 : 말보루고개요? 그개요?] 말 근데 말, 말이 가다가 굴러 떨어졌으니까, 말 굴러 떨어졌으니까 말빌고개라고. [조사자 : 말빌고개예요?] 말버루 고개.

[근창리 설화 11] 근창1루

근창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윤희선(83, 남) 1995. 11. 11.

호랑이 만난 사람

39세 때 월남하여, 1.4후퇴 전후에는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였다. 제보자는 그 후에 근창리에 정착하였으며 건장한 체구의 소유자였다.

사방 치면 한 오백 미터 높이의 산이 있었어. 거기를 말을 끌고 넘어 오자니까, 말이 잘 가더니 뿔 돌아서거든. 응. 그 왜 돌아서나 하고 말을 채찍질 했을 거 아냐.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 말이 돌아서고. 그러니까 포목상 하는 그 분이 얼피 인자 생각한 것이 큰짐승이 있구나. [조사자 : 어떤거요?] 큰 짐승. [조사자 : 큰 짐승이 뭐예요?] 호랭이.

큰 짐승이 있으면 아무리 저기 해도, 호랭이 그렇게 있으면 소나 말이

그냥 맥 못쳐. 그러니까 벌써 숨소리만 듣고 눈빛만 봐도 이놈이 돌아서 거든, 무서워서. 그러는데 그 분이 얼핏 생각해 그 생각을 난겨야. 아하 여기, 거기 자주 땡기는 고개니까.

“여기 뭐가 있구나!”

인제 그이도 겁이 나서, 말고삐를 배짝 쥐고, 말을 이렇게 자갈 물려서 뒤에서 쳐나가는데, 말고삐를 배짝 쥐고서는 뒤에서 때리는거라, 궁둥이를. 말 궁둥이를 때리니깐. 때리니까 이놈이 그래도 안가는 거든.

그러는 걸 죽을 기를 쓰고 끌고 넘어 왔지. 끌고 넘어와서 짐이로 가서 인자 짐을 땅(딱) 자기 짐이 가서, 짐을 땅 길마를 내려서 두고 거기 말을 마구간에 가서 매고서, 말은 드러눕서 자지를 앞에. 서서 자는 거야.

왔다 매놓고 보니까, 말 몸뚱이에 그냥 땀이 물이 그냥 죽 흘러. 호랭이한테 겁이 나가지구. 거길 해가지구. 근데 자기도 들어가서 옷을 보니까 추운 겨울인데 그냥 바지 저고리가 푹 젖었어 그냥.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무서우니까 저길 했어.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인자 간신히 자고, 이튿날 말을 가지고 장사해야 되니까, 그 이튿날 또 가서 그 고개를 또 넘어가야 장사를 하잖아. 지방으로 가잖아.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왜 이말이 여기서 안 갔었나?’ 그걸 알아볼려서 말을 다음에 새벽에 가보니까. 소나무 밑에, 그 소나무 밑에 다 그 잔디가 딱 늘렸어. 딱 늘려 있었어. 밤이 들어눕던 자리여, 그게.

그래가지고서 저기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예 그쪽으로 잘 안 갔어. 그랬다는 애긴데. 설화가 아니라 실환데, 그 분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한 마디 해주는 거야.

[근장리 설화 12] 근장리 1부

근장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남의순(82, 여) 1995. 11. 11.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경주가 고향인 제보자는 단정한 용모였다. 약 30년 전에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 고향인 경주 지방에서 들은 것이라며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애기가 하나 자꾸 울었거든. 애기 우는 소리가, 호랑이가 그 애기,
“문 밖에 주어 낸다. 주어 낸다.”

그러니까, 주어내노른 자기가 옆어갈라고 바로 앞에 있어,
“호랑이가 온다.”

캐도 애가 자꾸 울니,
“꽃감 줄까.”

이러거든. 울으니까 ‘꽃감 줄까’ 그러거든 애가 울음을 딱 그쳐, 호랑
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놈의 꽃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호랑이 온다고 해도 울더니 꽃감
준다고 험게 애 우는 거 보니 아이고 나도 그 놈이 먹일커보다.”

그 호랑이가 달라가뿌렸데.

애 달래 때는 꽃감 묵을 짓을 주니, 애가 그치는데. 호랑이가 듣기는
꽃감이 무서브가 달라갔다.

[근창리 설화 13] 근창리 1뒤

근창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남의순(82, 여) 1995. 11. 11.

호랑이 잡은 소도둑

제보자는 앞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호랑이 이야기를 생각하였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그것도 이래야 그래야 되나. 호랑이가(웃음) 그집 소잡은 것을 마구에 들어가 있으니, 도둑놈이 소도둑놈이 들어와. 호랑이가 소라고 막 끌고 가뺐다고.

그 소 등어리에, 호랑이 등어리에 소라고 딱 타 놓니, 호랑이가 막 산으로 갔었어요. 이것도 옛날 실화로 있었던 애긴데. 산으로 올라가니 사람이 그제서야 호랑인 줄 알고, 큰 고목낭구를 타고 올라갔다. 올라가이 호랑이가 인제 엽어다 났는데, 낭구 올라가이 못잡는단 말이지. 낭구를 물어뜯는다고요.

물어뜯으니 이 나무하러 땡기는 머슴이, 낫을 가지고 낭구를 짝 찍어 뿌이. 그 낫 끝쟁이가 좀 뽕죽했던가 봐. 호랑이가 그걸 물어뜯다가, 그거 입천장이 베져가지고 호랑이가 죽어뿌렸어.

그래 그 사람이 날이 새니, 나무 밑에 내려와가, 마을에 들어가 이 애기를 해가. 그 인제 동네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호랑이를 잡아다가 땅을 많이 사드래요. 소도둑 하러 가가지고 호랑이를 잡았데.

[근창리 설화 14] 근창T 1뒤

근창리, 강현모, 김홍석, 장미옥 조사
박삼원(79, 남) 1995. 11. 11.

사람을 잡아먹다 배탈난 호랑이

15년전 쯤에 이곳에 정착한 제보자는 경상북도 상주 출신이다. 약간 큰 키에 건장한 체구로 연신 웃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자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 젊었을 때 상주 지역에서 들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이상은 기록)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산에 호랑이를 잡으러

갔어. 가니께 호랑이가, 호랭이가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드라 이거라. 자
여러 수십 마리가. 제일 늙은 놈이,

“저 내 밥이야. 그러니께 저놈 내 입에 넣어라.”

하거든. 획 집어 넣어줬어. 집어 넣어버리니께, 이놈을 그만 씹지도
못하고 이가 다 빠져 늙었으니께, 그냥 쪽으로 넘어 갔어. 이 사람이 쪽
에 들어가 보니 영 어리거든(?). 아주 호랭이 안에.

그래 인제 거기다가, 갈비에다가 ‘근대(그네)를 매가지고 뛰드라니께
참, ‘얼렁얼렁’ 그러고 대단히 호사시럽고 좋거든. 그래 한참 있다가 조용
해서 나와서 배를 가리고 나와 보니께, 이놈이 아퍼가지고 줄개를, 줄갱
이를 전부 다 물어 죽여 놔서, 온 산에 호랭이가 마 죽어가지고 있거든.

호랭이 꺾데기를 베껴가지고 부자가 되어, 노태우 매니로 그렇게 부자
가 됐어.(웃음) 그래도 일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다 편안이 살았다 이
말이라.(웃음)

3. 근삼리

[마을 개관]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1995. 6. 11. 11. 11.

근삼리 지역을 조사하기로 하여 조사자는 오전 11시경 현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근삼리는 원래 안성의 죽산군 근삼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시에 영곡리, 양준리와 내수곡리, 외수곡리, 강촌, 가리산리, 가이산리의 일부와 양지군 고안면 백동, 죽동, 봉리의 일부를 합하여 근삼리라 하여 용인군 의사면에 편입시켰다. 가구수는 근 30여 호 안팎의 아담한 마을로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을 위주로 생활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 한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촌락이었다. 마을이 도로쪽에 위치해 있어 길이 잘 다듬어진 편이고 교회도 있어서 개방적인 마을로 여겨졌다. 또 마을 한쪽 어귀에는 약 400여년이나 되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 그 마을을 지켜주는 듯했다. 이 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뒤에 서술하기로 한다.

마을이 작아서인지는 몰라도,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곳이 없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요즘은 인심이 예전 같지 못해서 조사를 부탁하면 거절받기 십상이었다. 게다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5일장이어서, 어르신들이 거의 마을에 계시지 않아 조사에 애로가 많았다. 우선 눈에 띄는 현대적 양옥 주택에 실례를 무

릅쓰고 찾아 조사를 벌였다. 처음하는 조사여서 조사자들 모두 겸연쩍어 얘기를 이끌어 가기가 힘이 들었다. 할머니님 두 분만이 계셔서 자료 조사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이었다. 후에 점심을 대접받은 뒤 이웃마을(양준마을)에서도 구연자를 찾아 판을 벌리려 했으나, 찾지 못하여 이곳 영곡마을에서 재조사를 하여 당산목에 얽힌 설화와 민담을 채록하였다.

[근삼리 제보자 1]

강점순(70, 여)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1995. 11. 11.

영곡마을에서 제일 먼저 찾은 집이 바로 강점순씨 댁이었다. 처음 이곳에는 단지 세 가구만이 마을을 이루며 살았는데, 그때부터 주욱 이곳에 살아왔다고 했다. 강점순씨 댁에 처음 들어서자, 남편과 이웃 할머니인 강남순씨가 계셨다. 할아버님은 귀가 어두우셔서 전혀 이야기를 못해 주셨다. 그래서 강점순 할머니께 이야기를 부탁하자, 특별한 전설이나 설화같은 것은 거의 잊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살아온 생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성격이 매우 억척스럽고 자료 조사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다.

대전 출신인 제보자는 17살에 처음 시집을 와서는 젓가락 하나 꽃을 땅도 없었다. 두 내외분이 열심히 일하고, 시어머님도 도와주셔서 땅도 많아지고, 돼지도 사서 생활이 좀 나아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6.25를 겪어 곤란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아들 딸 9남매를 모두 잘 키웠다고 한다. 자식 뒷 바라지를 위해 13년간 쌀을 몰래 파는 장사를 했다는 할머니는 남편이 귀가 어두워 생활에 불편함을 겪자, 자신이 남자처럼 억세게 살아 오셨다고 한다.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산다면서, 조사자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남 업신여기지 말며 공부 열심히 잘 살라고 덧붙이셨다.

제공자료 : 설화 3. 민요 10.

[근삼리 제보자 2]

강남순(80, 여)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1995. 11. 11.

경기도 안성이 고향이신 제보자는 강점순 할머니 댁에 매일 놀러오신다는 분으로 매우 연로하였다. 50여 년을 홀로 살아온 이분은 귀가 조금 어두워서 처음에 조사자를 보자마자,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며 신신 당부를 하셨다. 그러나 일단 이야기의 물꼬가 트이자, 곧이어 갖가지 민요를 흥겹게 구술해 주셨다. 이야기나 민요가 나올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충성 효도하라는 교훈적인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좀더 시간이 있었다면 더 조사를 많이 할 수 있었으리란 아쉬움이 남았다.

제공자료 : 설화 1 ~ 2. 민요 1 ~ 9.

[근삼리 설화 1] 근삼T 1화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남순(80, 여) 1995. 11. 11.

독장수 순임금

강점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경청한 뒤, 먼저 노래를 요청하자 좀 머뭇거렸다. 도깨비 등 이야기를 끈질기게 부탁하여 겨우 듣게 되었다. 할머니가 매우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라고 하신다.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무척이나 어려웠다.

노래? [조사자 : 옛날 얘지요. 옛날 얘기, 호랑이 나오고요.] 얘기?
[조사자 . 그냥 아시는 얘지요. 호랑이 잡는 얘기라든가, 도깨비 이야기. 도깨비 나오고 허는 그런 얘기 없어요?]

아 옛날에 순임금이 독장사를 해먹었더. [조사자 : 독장사 얘기
요?] 응. 순임금이 독장사를 해먹었더. 응 순임금이 하도 어려워서.

하도 어려워서 하도 어려워서 독을 팔러댕기니까, 영- 독이 안 팔리더려.
안 팔려서 어딜 가서 물으니까, 독이 안팔리고 아 저- 가서 물으니까,

“아니 이게 독은 안팔리고 하도 어려워서, 독은 안팔리고 엿저녁에 꿈
을 꾸니까 서까락을 등어리다 짚어지고 왔더. 서까락.”

[조사자 : 서까락이요?] 서까락! [강점순 . 집짓는 서까래.] 집짓는
서까락! 서까락을 등어리다 짚어지고 왔다고 그러구선,

“며칠 안있으면 임금노릇을 할텐데 가만 있어. 서까락이 임금왕자 아니
야? 시 개, 임금왕자. 며칠 안있으면 임금 노릇을 할텐데 가만 있으라.”

그러더려. 그래서 임금이 됐더.

아 그래 그 눈에 질이 떠느냐고, 땡기는 데 맨 금두 천지, 금두. 그걸
안좃았데어. 자기 앞에 닿지 않는 복이라고. 그것이 길이 거라고 그것
닿잖는 복인데 뭐하러 좃어. 그걸 좃았으면 임금 노릇을 못했지. 안 좃
았더. 아 그래서,

“우말 때 임금노릇을 할테니까, 걱정 말라.”

구. 우말 때 임금노릇을 해러 갔더. 뭘 그러. 그 혁자 그런 소리 돼
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하늘이 다 아는 거지. 하늘이 다 알
아서 다 때가 있는 거, 다. 순임금 독장사 다해, 그거지 뭐요.

[근삼리 설화 2] 근삼T 1화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남순(80, 여) 1995. 11. 11.

소금장수 딸의 지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시더니, 이번에는 구술과 노래가 섞인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옛날에 하던 거지. 지금 잘 몰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려.

아, 약장사 말여, 내 집에 약장사가 왔다고 그랬어. 약장사. 약장사가 왔는데, 그때 한 번 갔었어. 점심 때쯤 갔어. 약장사.

“아, 이 할머니 약장사 왔네.”

그러니까,

“왜 이려?”

“노래 할려구 그러?”

이랬더니,

“내가 노래는 뭘.”

아, 그거 뭐 도마를 쓸어먹는 도마를 하나 줘. 아 무슨 도마를, 아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고 했어.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 사려!”(노랫조로)

아 그래 시집을 갔더니, 옛날엔 시집살이가 뭐 고추 종이 먹네. 고추 잡듯,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장사 사려! 아 시집을 갔는데, 소금장사 딸이라 만날 모두 짜게만 해 오구. 짜게만 한다구. 매느리가. 그냥 밥 건건히 소금도 안넣고 기냥 해다 주는께,

“아휴! 아버님(빠져할 말인 듯) 또 맹건이야 맹건.”

“아휴, 아버님! 소금 안들고 무슨 반찬이 되. 소금 안들곤 반찬을 혀.”

소금. 반찬 중에 소금 반찬이구.

아이, 나 그 약장수 땀에 웃겨 죽었어.

[근삼리 설화 3] 근삼T 29년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도,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점순(70, 여) 1995. 11. 11.

신령스러운 당산목

양촌 마을을 찾았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만난 강점순 할머니께 들은 것으로, 400여 년이나 된 나무에 관한 이야기이다. 마을을 지키는 나무를 베었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낭구가 저쪽에 맞아 섰었걸랑, 저기 마당 있는데, 전보대 있는데.
[조사자 : 두 개 원래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 두 개 있었어.

그 낭구나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빌려고 하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베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어가지고, [조사자 : 비어가지고?] 비어가지고 청년이 저 외딴집 있는데, 낭구 비러 갔다가 두 사람이나 죽었디어. [조사자 : 베다가요?] 그 낭구 비고 난 다음에, 또 판 테로 비러갔다가, 나이 연세 든 사람 하나 죽고, 또 청년 하나 나무 비다 죽고,

[조사자 : 마을에 정기적으로 제 같은 거 아니면 뭐.]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 지금은 철에 따라서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들 믿고, 안믿고 그려. [조사자 : 아까 이지껏 이 나무가 400년 됐어요?] 그렇다나 봐.

[근삼리 수수께끼 1] 근삼리 2앞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 (? , 여) 1995. 11. 11.

영곡 마을을 지나다가 만난 한 아주머니께 들은 얘기이다. 요즘 너무 바쁜 때라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예전에 들어서 다 잊어버렸다며 들려주셨다.

♣ 젊어서는 파란 옷을 입고 늙어서는 벼옷을 입는 것은 뭐여?

[조사자 : 고추여요?] 오이. 오이. 오이고

♣ 젊어서는 파란주머니인데, 늙어서는 빨간주머니 빨간주머니에 노란

동전이 들어있다는 것은?

고추.고추

[근삼리 민요 1] 근삼리 1악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남순(80, 여) 1995. 11. 11.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강남순 할머니께서 <독장수 순임금>를 들려주신 후 계속하여 민요를 불러주셨다.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이야기 대신 놀러갔을 때 불렀던 노래리면서 들려 주셨다.

삼천리 강산에
새 봄이 왔네
풍년이 왔네
봄에는 푸릇푸릇
가을에는 주렁주렁
여름에는 [청불]

나 이런 거 했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 저 달속에
제수(계수) 나무 백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찍어내어
다듬어서
초간 삼칸에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 지고(이상 두줄은 녹음이 안된 기록부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이런 거 하는 거지.

[근삼리 민요 2] 근삼T 1원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남순(80, 여) 1995. 11. 11.

「푸른하늘 은하수」

앞 노래에 이어서 스스로 생각하여 계속 부른 민요이다. 제보자가 부른 노래는 대부분 70년 전에 부른 것이다.

푸른 하늘 은하수·하얀 쪽배에

기(계)수 나무 한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구름나라 지나서 서쪽 나라로

아기도 잘도 가네 서쪽 나라로

그거 나 칠십 년만에 하는 거여. 칠십 년만에 하는 거야.

[근삼리 민요 3] 근삼T 1원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남순(80, 여) 1995. 11. 11.

아주까락 동백아

고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것 저것 이야기를 하였다. 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부탁하
자 노래를 불러 주셨다. 목이 마르셨을 텐데도 계속 부르셨다.

아주까락 동백아 열지 말아라
열라는 콩팥은 아니열고
아주까락 동백은 열렸네
뒷집이 큰 애기 목을 맨다
아주까락 동백아 열지를 마라
열라는 콩팥은 아니열고
아주까락 동백은 열렸네

[근삼리 민요 4] 근삼리 1취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남순(80, 여) 1995. 11. 11.

참새가 적어도

노래가 잠깐 끊긴 사이에 할머님 성함을 여쭙 보았다. 그리고 곧 이어 노래가 다시 사
되었다. 노래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아서 제대로 분간을 하기 힘들었다.

참새가 죽어도(적어도) 알만 낳고
제비가 죽어도 강남가고
동무, 동무, 동무 따러

어머니 팔어 동무 사고

옛날에 옛날에 나 칠십 년 전에. 지금은 안 불러.

[근삼리 민요 5] 근삼T 1취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남순(80, 여) 1995. 11. 11.

꽤지나 칭칭나네

석탄 백탄 타는데
연의 가슴은 영 김도 만나네
뒷 동산에 술방울이 많아
꽤지나 칭칭나네
 시내 강변에 모세(모래)가 많아
꽤지나 칭칭나네
내 집에 오신 손님은
무엇으로 대접할까
국화꽃을 당겨놓고
(은-)은잔 금잔을 놓고
은잔을 저쳐놓고
금잔 은잔을 놓고 (허허..)
대접해여 아니 놀구
아니 놀지 못하니

[근삼리 민요 6] 근삼T 1취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남순(80, 여) 1995. 11. 11.

세월 내월아 가지마라

세월 내월아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이 달아난다
 이쁘기도 앵(은:둥근)달같이 이쁘더니
 정월이라 열나흘날 늘(넝)를 뛰어
 노랑 저고리 분홍 치마
 쟁반같은 머리에다 앵달같은 얼굴에다
 흥갑사를 댕기를 디려놓고
 늘을 띠려고 하는데 참 잘두 띠네
 열나흘날 오곡 잡곡을 먹으면서
 늘을 띠니 이쁘기도 하자마는
 천둥치러 간다구

[근삼리 민요 7] 근삼T 1뒤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남순(80, 여) 1995. 11. 11.

세월 내월 금같은 세상에

할머님께서 마을에서 놀러갔을 때 부르셨다고 하는 노래로, 함께 갔던 마을 분들이 모두 재미있어 하더리면서 또 이어서 불러 주셨다. 이 노래도 70년 전에 불렀던 노래라 한다.

세월 내월 금같은 세상에

세월 내월아 가지마라
 이팔 청춘아 백발보구나 웃지 마라
 우리도 엇그저께 청춘이더니
 벌써 백순을 날렸구나
 이팔 청춘아 백발보구 웃지 말고
 병신 보고나 웃지마라
 내 황소든 사람 내쪽 보고서나 웃지말고
 세월 내월아 가지말고
 어여쁘구도 이쁘지요
 학생들아 학생들아
 세월 내월을 잘가는 세월을
 아무쪼록 공부 열심으로 하고
 빛날려서 빛 날려서
 아무쪼록 공부 열심으로 하고
 소학교 졸업 말어
 중학교 졸업 말어
 고등학교 졸업 말어
 대학교 졸업 말어
 사범학교 졸업 말어
 대치 인제 대통령 노릇을 하며
 하늘에서 내서 대통령 노릇하고
 군인 노릇하고
 나라에도 충신되어
 부모한테 효자되어
 나라한테 충신되니
 동지간에 우애도 되네

짜 째 짜그짜그째
 아니 따리라판 따라라
 짜 째 짜그짜그째

[근삼리 민요 8] 근삼리 1뒤2앞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남순(80, 여) 1995. 11. 11.

나물 캐러 간다고

‘짜. 소금이 짜. 짜야지 먹고 살지. 소금 반찬이 짜잖어. 그 할머니(약장사 할머니)땀에
 웃겨 죽었어. 약장사가.’ 그리고 이어서 다시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나물 캐러 간다고 하신
 늙은 총각 귀백허
 신세타령 한다네~~~네
 나물 캐러 간다고
 호미자루 짚어 매고
 앞집이 총각
 앞집이 처녀는 시집을 가는데
 뒷집이 총각은
 나물 캐러 간다고 목을 맨데내지
 뒷집이 색시는 시집을 가는 데에
 을 같은 풍년에 풍년이 왔네
 앞집이 색시도 시집가고
 뒷집에 총각도 시집가고
 짜짜짜 짜~안

[근삼리 민요 9] 근삼리 2앞

근삼리 영곡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남순(80, 여) 1995. 11. 11.

뒷동산에 할미꽃은

민요 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려 했으나, 할머니께서 연이어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또 실패를 하고 말았다. 노래의 가사가 부분 부분 반복되어 노래의 구분이 힘들었다. 다음 노래도 몇몇 노래가 섞인 듯 했지만 기록하였다. 노래를 할때 강점순 할머니께서 점심을 차려 주신다고 해서 구술이 중단되었다. 노래를 계속 불러 주셨던 강남순 할머니는 댁으로 돌아가셨다. 좀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너무 힘 드실 것 같아서 그만 두었다. 식사를 한 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뒷 동산에 할머니 꽃은
 무슨 꽃이나 못되어서
 세월 내월 금같은 세상
 세월 내월 금같은 세상
 무슨 꽃이나 못되어서
 할머니 꽃이 되었는가
 할미꽃이 꼬부라졌어.
 무슨 꽃이나 못되어서
 할머니 꽃이 되었는지
 젊어서도 할머니꽃
 늙어서도 할머니꽃
 세월 내월아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는다

 아가아가 어이구 애기
 우리 애기 잘도 자네
 금자동아 은자동아

은자동이 금자동이 키워놓고
 이제는 모두 자자
 자자 하고 키워
 은자동이 금자동이
 가르쳐야지, 또.

배워 가르켜
 가나다라를 배워 놓고
 가가거겨 배우고
 모두 배워 가지고
 소학교 졸업 맡어
 중학교 졸업 맡어
 고등학교 졸업 맡어
 대학을 가르켜 배우고

시험에 붙어야지.

대학 땡겨 인자는(이제는)
 대학 졸업을 맞춰서
 사범학교 땡겨 놓고
 대통령이 되어 놓고

아, 군인들, 나라의 군인들

[근삼리 민요 10] 근삼T 2완

근삼리 영국마을, 강현모, 김기웅, 김영동, 김현수 조사
 강점순(80, 여) 1995. 11. 11.

용감하고 빛나는...

이웃 마을에 들렀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만난 강점순 할머니께서 아까 하지 못한 얘기가 있으시라며 들려주신 얘기이다. 일정때 배고프고 가난한 속에서도 낮에는

일하며, 밤에 공부하던 당시 부르시던 노래라며 곡조없이 구술해 주셨다.

용감하고 빛나는 우리 양학생
우리는 남과 같이 핵교를 못가고
배고픈 허리바를 즐라메고 양학을
이성 마성 양학으로 뛰어갑니다.
낮에는 지게지고 부모 질러(도우러) 나갑니다.

[근삼리 민요 11] 근삼리 3앞

근삼리 자택, 강현모, 김경순, 가혜정, 이은주 조사
박정배 부인(79, 여) 1995. 6. 11.

노랫가락

민속 조사를 마치고 옆에 있는 제보자에게 노래를 부탁하자 해 주신 것이다.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은 병들고
오던 친구도 아니오고
나무도 고목이 되면
오던 나비도 아니오고

[근삼리 민요 12] 근삼리 3앞

근삼리 자택, 강현모, 김경순, 가혜정, 이은주 조사
박정배 부인(79, 여) 1995. 6. 11.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앞 노래에 이어서 계속 해 주신 것이다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토백이 노던 달아
저기저기 무슨 낭구 백혔는가
지수(계수)낭구 백혔지
금토끼로 짝어내어
은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지어
양촌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나 죽거들랑 가지밭에 묻어주게
가지 한참 열리거든
우리형제 온줄알게

4. 용 천 리

[마을 개관]

용천리, 박종수, 강현모, 신소영, 이정란, 정희경 조사
1995. 11. 11.

용천리는 원래 죽산군 근일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에 용천상리, 용천중리, 구울리, 평울리 일부와 양지군 근삼면의 강촌과 가이산리 일부를 합하여 용천리라 하여 용인군 외사면에 편입하였다. 용천은 솟을 샘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말 뒤에 있는 산기슭에서 샘물이 많이 솟으므로 솟을샘이라 하고, 이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이 마을은 편의상 상리, 중리, 하리 등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주민들에게 불리어지고 있었다. 이중 상리는 구봉산이라는 산 밑의 마을로 가구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중리와 하리에는 가구와 논밭의 비율이 비슷한 편이었다.

용천리의 대부분의 가구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농사가 발달하였다. 5일마다 정기 시장이 열리고, 가축시장도 열리고 있었다.

주민들의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마을잔치가 거의 매주 열리고 있었으며, 젊은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지 않지만 취학 아동도 몇 명 있었다. 주민들 중에는 용천리에 가족을 둔 채, 서울이나 수원 등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중리에 있는 커다란 교회에 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 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였다.

[용천리 제보자 1]

김영하(70, 여) 박종수, 강현모, 신소영, 이정란, 정희경 조사
1995. 11. 11.

제보자는 용인군 옥산리 - 제보자는 '들산디' 라고 함 - 에서 태어나, 18살에 이 마을로 시집을 와서 집안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애를 보내었다. 제보자는 건강했고, 70의 나이에 도 불구하고 아주 고운 외모를 갖고 있었으며, 성격과 말씨 모두 조용했다. 제보자가 구술하는 설화는 모두 시집오기 전의 마을에서 들은 것으로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은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그리고 설화를 자신있게 구술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생각하여 구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제보자는 구술 도중 웃음을 많이 짓고, '그냥, 저기, 그' 등의 단어를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자료를 제공받게 된 경위는, 조사기간 중 마을 잔치로 인해 마을 어른들이 안계셨는데, 그때 마을에 남아계셨고 설화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마을분의 추천을 받고 찾아가서 이루어진 것이다. 제보자는 슬하에 2남 6녀를 두고 있었는데, 모두 결혼하여 외지로 나가 독립하고 용천리에 남편과 들어 살고 있었다.

제공자료 : 설화 1 ~ 6.

[용천리 설화 1] 용천T 1와

용천리 613, 박종수, 강현모, 신소영, 이정란, 정희경 조사
김영하(70, 여) 1995. 11. 11.

구렁덩덩 신선비

제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아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며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스스로 구연하였다. 이 이야기는 10살 전후의 어릴 때, 고향인 옥산리에서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한 사람이 애기를 낳는데 구렁일 낳데요. 아, 옛날에 노인네들이 애기를 낳도록 낳잖아? 게 구렁일 낳는데, 이웃에 딸 삼 형제 둔 사람이 있는데, 큰 딸이 갔다오구서는,

“아후 엄마! 아무개네 할머니는 구렁일 낳서.”

둘째딸이 가주구서는,

“엄마! 애기를 구렁일 낳서.”

또 그래. 세째딸이 갔다오더니,

“아후! 애기도 이빠라.”

게,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후! 구렁덩덩 서선비를 낳았서.”

그래결랑. 그래구서 갔어. 그리는데 구렁이도 잘 자라고, 그 딸도 잘 자라구 그래. 인자 언니들 둘은 저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시제 딸은 인제 결혼을 안했는데 그제 그집이 부자래. 구렁이 난 사람이 부잔데 인제 그 집에다 자꾸 청혼을 넣는거여. 그 구렁이가,

“그 아무개하고 장가 지어달라.”

고. 그래가꾸설람은 자꾸 청혼을 보내고. [청취 불능] 은 어려워 갔구 그래는데. 부모니까는 구렁이한테 딸을 줄 수가 없잖어. 게 인제 안줄라고 하니까 그 딸이,

“결혼을 해달라.”

고 그래결랑. 그 딸이 자꾸 글루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니까, 부모래도 할 수 없이,

“그래라.”

고 그랬어. 그래가지구서는 인제 날을 잡아가주구 구렁이하고 삭시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밤에 에- 구렁이가 요렇게 칼을 주면서, (손가락

을 머리의 이마부터 가운데 아래로 그으면서)

“나를 요렇게 죽 그으라.”

고. 그랬단 말이야. 거 무서운 거를 신랑이,

“괜찮다.”

고. 시키니까 저 요렇게 그랬더니, 아 허물을 흘랑 벗은게 그냥 진짜 서선비가 나온거야. 구렁덩덩 서선비. 그렇게 이쁜 사람이 나온거야. 게 허물을 푹푹 뭉쳐주면서,

“웃고름에다 이렇게 차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처형들 하나도 보여주지 말라고. 누구든지 보여주지 말라.”

고 그래 걸랑. 그래 인제 고걸 웃고름에다 싸고서는 첫날밤을 치루구서, 아, 그 이튿날 보니까, 신랑이 아 셋은듯한 배추 줄기 같은 신랑이 나왔걸랑. 그러니께 언니들이랑 보모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보는 사람들이 다. 아 그랬는데 그냥 그 언니가 그냥,

“애! 그 허물 벗은 것 좀 보여다구. 허물벗은 것 좀 보여 달라.”

구. 그러니까는 그냥 안보여 줬어. 그러니께 하두 언니들이 나쁜년이지. ‘안된다’는데, ‘왜 자꾸 보자’구 그라.

그래 인제 요거 이렇게, (웃고름 부분을 가리키면서, 옷을 들면서.) 끌러가지고. 푹 뺏어가지고 옛날 화릿불 다 있잖아? 아 쏙 빼서 그 화로에다 처넣어 버렸어. 아 타서 연기 흘랑 날아가 버렸어. 그 신랑이 그 연기하고 흘랑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께 보여주지 말라는건데.

아 그러니께, 그냥 신랑이 잡자기 없어지니까, 그 찾을 도리가 없어 그냥. 그 여자가 몽두남발을 하고 신랑을 찾으러 밖으로 나섰어. 어디쯤 가니까 고개가 있는데, 고깔 넘어가면서,

“여기, 구렁덩덩 서선비 가는 거 봤어?”

그리고 물어보면,

“저 넘어 가 보라.”

구 그러면. 그래 한 고개 넘어가면, 까치가 또 인제 짹짹하고,
“여기, 까치야! 까치야! 여기 구렁덩덩 서선비 가는 거 봤니?”

그러니까 또,

“저 넘어가 물어보라!”

구. 또 거기를 가니까, 웅덩이에서 빨래를 하는 여자가 있는데,

“할머니! 할머니! 여기 구렁덩덩 서선비 가는 거 봤수?”

그러니까루. 그 빨래하는 아줌마가,

“검은 빨래는 검게 해 주고, 흰 빨래는 희게 해주면 가르켜 주지.”

그래서 인제 그거를 거기서 그 빨래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어떤 강아지를 하나 주면서,

“이 강아지를 따라가라”

그러더라. 강아지를 따라가니까,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그냥 요렇게 강에 있는데 골루 풍당 빠져버리더라. 아 그래 외나무 다리를 반쯤 건너다 강아지가 강물로 풍당 빠진게 그냥.

“에잇, 죽으나 사나 나도 빠진다.”

풍당 빠졌잖아. 풍당 빠지니까루 그 속에 용왕이 있는데, 아후! 자기 남편이 고리등 같은 기와집에서 천상 용궁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게 인제 거기서 보니까, 남자도 반가워 하고 여자도 반갑고 그래서 사는데, 거기서 마누랄 얻어갖고 살더라.(일동웃음) [칭중 : 아니 그럼, 그 동안 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남자가 그냥 내기를 시켰어.

“작은 마누라가 이기면 작은 마누라랑 살고, 큰 마누라가 이기면 큰 마누라하고 살고.”

하는 내기를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냐 하면,

“음, 저게 큰 마누라는 옛날 굽, 나무 굽 높은 나무굽을 신고 콩 명석에 물을 지고 물을 엮디리지 말고, 작은 마누라는 물 한 동이를 이고 굽

낮은 나무굽을 신고 팔 멍석 위로 오고 그러라.”

그런게 어떤게 더 어려워? [청중 : 높은게 더 어렵죠.] 높은게. 콩 멍석으로 더군다나. 그런데 큰 마누라는 자주 시골서 일을 해봐서 물을 안 엮디리고 거길 잡고 잘 오고. 또 작은 마누라난 팔 멍석 위로 오난데 그런 일을 안해 봤으니까 물을 쨌끔쨌끔 어피지렀단 말이야. 그러니께 인제 졌잖아?

아 그런데, 그래도 내보기가 아까우니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설람은 내기를 시켰는데,

“큰 마누라는 참새 세 마리를 붙들어 오라고 하고, 작은 마누라도 참새 세(한 마리의 잘못인듯) 마리를 붙들어 오라.”

고. 하고 그러더라. 그 옛날엔 초가집에 보면 그 굴이 새굴이 있어요. 겨울에는, 봄에 거기서 새끼치는.

작은 마누라(내용상 큰 마누라)가 가서 한 굴에 가니까, 아 새가 한 마리 나오걸랑. 그래 또 한 군데 가서 보니까 또 두 마리가 나오거덩. 아 그래 세 마리를 잡았어. 아 작은 마누라는 못잡았어, 그것도. 게 또 졌지? [조사자들 : 네.] 그러니께 어찌할 수가 없어 둘다 다 데리고 사는데,

작은 마누라가 된장찌개를 하면 달짝지근하고 맛있고, 큰 마누라가 된장찌개를 하면 씹쓸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떡히서 다 같은 장으로 한 데서 지끓이는데, 더 맛있고 맛이 없나?”

하고, 인제 작은 마누라가 밥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큰 마누라가 밥할 때 이렇게 보니께, 큰마누라는 손갈하고 그릇하고 아주 와서 된장을 떠가지고 와서 물을 붓고 손갈로 박박박박 저가지고 물을 쌀뜻물 받아붓고 어 인제 찌개를 끓이는데 그냥 지으니까 씹쓰름하고. 작은 마누라가 밥 할 때 또 이렇게 지켜보니까, 된장을 떠 가지고 오

더니 아가리로다 잘강잘강 씹어서 뻘고 잘강잘강 씹어서 뻘고, 그렇게 해서 물을 뿜 갖고 끓이니까 그 침이 섞어서 그게 달짝지근 하더라.

근개, 그때서 작은 마누라가, 큰 마누라를 그냥 데리고 살고 작은 마누라는,

“아구 요년아! 그래서 저기 달구.”

그래서 극금 내빼려(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큰 마누라 하고 그래서 영원히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대요. [청중들(웃음): 너무 재밌다.]

그럼 작은 마누라는, 그러면 거기서 살리. 그 물 속에 살던, 그 뭐지 내쫓았라니께. 바깥에 나와 살았는지 물속에서 살았는지 몰라. 그때 그 더러우니까. 그냥 그 큰마누라는 언제든지 믿을성 있고, 어 주대가 있고 그러니까 조강지처는 버리면 안된다는 뜻이 그래서 나온거야.

[용천리 설화 2] 용천리 19

용천리 613, 박종수, 강현모, 신소영, 이정란, 정희경 조사
김영하(70, 여) 1995. 11. 11.

벗단을 나르는 의좋은 형제

이 설화는 조사자가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구술하였다.

어떤 형제를 낳는데, 다들 키우고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 형하고 동생하고 따로 결혼해서 따로 살림을 내고 사는데. 밤에 인제 벗단이 자꾸만 인제 형네집으로 벗가리가 차고, 또 자고 나면 벗가리가 차고 생기고 그러더라. 그래설라문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휴! 형님이 잘 살아야지.”

그래갖고, 벗가리를 형네다 쳐라 주구, 동상은. 또,
“아휴! 동상이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또 자기에 벗가리를 형네(동생네의 잘못) 벗간에다 갖다 쌓고, 그래가지구서는 그렇게 의좋은 (형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데요. 그 마음씨가 좋으니까 서로 부자도 되고, 서로 잘살고 그렇게 좋았데요.

[용천리 설화 3] 용천리 1화

용천리 613, 박종수, 강현모, 신소영 이정란, 정희경 조사
김영하(70, 여) 1995. 11. 11.

할미꽃의 유래

이 설화는 서로 벗짚을 나른 형제 이야기에 이어 스스로 구연하였다.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사자가 유도했을 때, 서로 벗짚을 나른 형제 이야기를 하고 뒤이어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나 구연한 듯 하다. 이 이야기는 옛날에 전래동화나 명심보감에서 들은 것 같다.

옛날에 할머니가 딸 삼형제를 두고 이제 살다가 늙으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걸랑.

그러니까 이제 큰 딸네 집에 찾아갔더니, 큰 딸이 또 안 받아줘. 또 나와서 둘째 딸네 집에 갔더니, 또 둘째 딸이 또 안 받아줘. [청취 불능]

“셋째 딸네 집이나 가야겠다.”

하고 셋째 딸네 집에 가다가,

“이거 내가 옆드려져서 죽겠다.”

그때 너무 기운이 없어 시간 끝다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뒷동산에 할미꽃이, 그 할머니 죽은 혼이래. 그래서 이렇게,(손목으로 할미꽃을 흉내냄.) 꼬부라졌다.(웃음) [조사자 : 아! 그렇구나!]

그래, 노래가 있잖아.

일만 가지 꽃 중에
무슨 꽃이 못되어
가지도 꼬부라진
할미꽃이 되었나.

그 할미꽃이 할머니 죽은 녀이래.(웃음) [조사자 : 할머니! 그 노래도 아시는,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서, 그것밖에 몰라.(웃음)

꽃이 일만 가지래. 일만 가지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많은 꽃 중에 하필 가지도 꼬부라진 할미꽃이, 그 할머니 죽은 녀이래.

옛날에 전래동화나 그런 명심보감에서 들은 것 같애.(웃음)

[용천리 설화 4] 용천리 1와

용천리 613, 박종수, 강현모, 신소영, 이정란, 정희경 조사
김영하(70, 여) 1995. 11. 11.

나무꾼과 선녀

이 설화도 제보자가 스스로 구술하였다.

옛날에 옛날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어려웠대요. [청취 불능]

이제 남구를 해러갔는데, 저쪽 산모퉁이서 노루가 경중경중 뛰어오드
랴. 이제 노루가 경중경중 뛰어오면서,

“어휴! 나 좀 살려달라구. 나 좀 저기서 체구가 저기 표수가 날 잡으
러 오니까, 나 좀 살려달라.”

구. 그래서 그냥 그 남구 가지 난거 이렇게 들여논 데다가 숲고, 가지를 덮어서,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싸는게. 거기 표수가 와서,

“거기, 노루 지나가는 거 봤어?”

그러니까.

“노루가 절로 잡디다.”

그래, 저쪽으로 가드래. 그러니까 노루가 나와가지고,

“아휴! 살려줘서 고맙다구. 그냥 살려줘서 고맙다.”

구. 그냥, 그랬더니만은, 그래더니만 그 노루가 어

“당신은 사람이니까 형이 되고, 나는 짐승이니까 동상, 동상이 되고. 그래서 의형제를 맺어서 형님 동상하고 친절하게 살자.”

그러드라.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랬다. 그랬더니 그 노루가 하는 말이,

“다음날은 남구를 하러와서 남구를 하든, 거기 저기 어떤 데서 선녀들이 셋이 내려와서 목욕하는 데가 있는데. 그, 먼저 와서 벗어놓걸랑 가만두고, 둘째번에 와서 벗어놓걸랑 가만두고, 셋째번에 와서 내려와서 벗어놓걸랑 그 옷을 얼른 감추시오.”

그러드라. 그래, 이제,

“그래라.”

구. 그래갖구설라든,

“그 옷을 애기, 저기, 애기를 다섯을 낳걸랑 쥐야지. 그 안에는 통 주지 말라.”

구. 그래.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들었다 봐두 얼마나 좋아. 그래서 가만히 가서 수풀에 앉아서 숨어서 봤더니, 참 한 낮이 되니까는 그냥 선녀들이 내려오더니 목욕을 해드라.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옷 벗어논 거를 얼른 갖다 감추구서는 숨어서 보니까는, 세 여자가 재밌게 목욕을 하구 그래더니, 목욕을 다 이제,

“시간 됐다. 애, 그만 올라가자.”

하구 나와서. 아 형들이 옷을 입는데, 아 동생이 나왔는데 옷이 있어

야 입지. 형들이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아 시간 됐다구. 너! 찾아입구 올라와라.”

그러구선, 언니들은 올라가 버리드라. 그러니까 이제 나뭇꾼이 있다가 저기,

“니 옷 여기 있다. 너 이리로 와라.”

하구 옷을 보여주니까.

“아우! 왜 옷을 감춰느냐?”

고. 그냥 쓴살같이 쫓아와, 달래니까 쥐? 안주지. 그래서 그 어떻게, 그 날개옷을 입어야 하늘을 올라가는데, 시간도 지나고 날개옷도 없고. 그러니까 못올라 간거야.

할 수 없이 나 혼자 끌려가 가지구 결혼을 하고 살았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그 저기가, 여자가 애기 하나 낳구,

“애휴! 이제 애기 낳았으니까 이제 날개옷 좀 달라.”구.

“가만 있으라구. 더 있다 준다.”

구. 그러다 보니까 하나 낳구, 두 개 낳구, 세 개 낳는데,

“아휴! 나 날개옷 달라구. 애기를 셋씩 낳는데 어떡하냐구. 그러니까 저기 달라.”

구.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술을 먹구 얼근한게, 그냥 술김에 그냥,

“아, 그래!”

하구 줬어. 그냥 아 싫증나니까 믿졌지. 안 가지. 아 그랬더니 그냥 날개옷을 입고선 양쪽 겨드랑이에다 하난 끼고, 하나는 등에다 업구. 그 래가지고 그냥 공중예를 올라가버리는 거야. 그냥 하늘로.

[청중 : 애들을 다 데려가 버렸네.] 그래, 셋이니까. 그래 다섯을 낳아야지. 저기 하지 말란건데, 그러믄 어떻게 다 갖구 갈 순 없잖아. 어휴, 그래서 그냥 맨날 그 선녀 생각만 하구, 아들 생각만 하구 울고. 그냥 만날 그랬더니, 아 노루가, 아 그 노루가 또 찾아왔드라.

“형님! 내가 그 날개옷을 아이 더 낳걸랑 주지 뭐하러 그렇게 쫓느냐?”

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녀가 그 목욕하던데 가서 저기 있으면, 아무날 그 선녀들이 또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내려와서 목욕을 하더니, 나중에에는 이제 무서우니까는, 동상을 잊어버리니까는 무서우니까는 물을 달아 올려가지고 목욕을 한데.

“첫번에 내려오걸랑 가만 두고, 둘째번에 내려오걸랑 가만 두고, 셋째번에 내려오걸랑 다레박에 물을 얼른 뜨고 형님 올라왔으시오.”

그래더래. 그래서 그냥 시키는대로 했어. 그냥 그랬더니 이제 그 다레박을 타고 올라가니까, 줄을 잡아당기니까 하늘로 쫓아올라가잖아. 한 반쯤 올라가니까,

“언니! 인내가 나.”

“인내가 무슨 인내니?”

“아녀, 언니 말아 봐.”

“아, 어이 달아올려. 무슨 인내가 나! 물을 올리는 데 올려라.”

[조사자 : 인내요?] 인내, 사람. [조사자 : 아, 사람 냄새!] 사람 냄새가 나. 이제 다 따라보니까 자기 남편이잖아. (웃음)

그래 그냥 색시가 남부끄러우니까 그냥 고개를 딱 수그리고 있드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만나서 아들들 하구 거기서 그냥 산거야. 아들들도 크고 그냥 마누라도 해가지고 재밌게 사는데. 그 저기 마누라가 그래더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암탉 수탉인데, 인간의 소리를 못 듣고, 벌을 입어가지고 어 수탉 닭의 탈을 썼으니께, 당신이 인간이니께 당신 말만 들어도 허물을 벗을거라.”

구. 그러면서 그 엄마 아버지 있는데 가서,

“아휴! 쟁인 장모님은 아 그 곁꺼덕 소리 좀 버리면 안 되느냐고. 그

렇게 말을 하라.”

그러더라. 아 그 시키는대로 가가지고설라든 마누라가 가가지고설라든 이런거야.

“아. 그 쟁인 장모님은 그 꺾꺼덕 소리 좀 안 들으면, 안하면 되잖겠느냐!”

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 닭이 재주를 펴떨떨 넘더니 그냥 허물을 흘랑 벗고 사람이 나온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자기가 그거 이제 벌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된건데, 인간이 이 저 그 벌을 벗고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 이저 셋째 사우를 우하는 거야.

그냥 셋째 사우를 그렇게 우하니까, 언니들이 또 질투가 난거야. 그 언니들이 망한가 봐. 아마, 옛날에도 망한가 봐. 그 언니들이 인제 동상 남편 우하는 걸 보고 질투가 나가지고서는 한 번은 그래더라. 제 동생, 동상보고,

“내기 좀 하고 살을래?”

“언니! 내기는 무슨 내기를 해.”

그러니까는,

“내가, 이, 차, 저기, 저, 지하로다가 활을 쏠테니, 이 니 신랑보고 이 활을 찾아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신랑이 저 그 소리를 듣고설라든 어떻게 활 쏜 거, 응, 하나를 지하 가서 찾아. 못 찾지. [청취 불능] 그래서 끽끔 앓으니까는, 끽끔 앓으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그 마누라가,

“왜 이렇게 앓느냐고? 왜 밥을 안 먹느냐?”

고. 자꾸 그러니까는 그래더라. 저기-

“저기 동서들이 날 보고 내기를 하자고 하는데, 내가 지하로다가 활을 쏠테니 활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지하 가서 그 어떻게 찾느냐?”

고 그래더라. 그래설라든 그걸 갖고설라든 그 저기 삭시가 하는 말이,
“아, 당신 이제 밥 잡쉬요. 걱정 말고 밥 잡쉬요.”

그래더라. 그래서 밥을, 이제 마누라 말을 듣고 밥을 먹고. 이제 힘을
내고 그랬는데, 그 내기하는 날짜가 돌아왔어. 부채를 두 벌 주면서,
“하나를 부치면은 지하로 내려가고, 하나를 부치면은 이저 그 색깔이
가 빨강고 뭐 파랑고 그랬대나.”

뭐 이상했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를 부치면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걸루다 부치고서 내려가면은 그 아무데, 그 방방곡에 사람의 행성
사람이 죽어서 행성에 떠날텐데. 행성을 내려오래 가지고 왼쪽에 맞으면
저기 어깨에 화살이 백혀지니겐 그걸 저기 떼갖고 가라.”

그래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설라든, 밥을 먹고서 이제 마누라가
시키는대로 가서 했거든. 행성이 떠나는데,
“아이, 좀 저기 좀 쉬어서 가라.”

고. 얘기를 해가지고선 행성을 내렸는데, 더듬어 보니까 이제 활이 어
깨쭈지 왼쪽에가 맞아가지고 활을 얼른 빼서 감춰어. 갖고선 부채를 부
치고 올라왔어. 그래서 갖, 갖고 와서 올라와가지고 그걸 주니까, 형들
이,

나 이 얘기를 잃어버려서 빼놓고 했네. 처음 시초를 할 적에는 이거
큰일 났네. 여기 녹음되는 건데. [조사자 : 괜찮아요.]

그 어려운 집서 아들을 뒀는데, 옛날엔 머슴살이가 있었잖아. 시방은
직장 생활이지. 그래 쪼그매서부터 머슴살이를 했는데, 새경받은 거를
벽장에다 뉘두고 응, 이저 이렇게 착 막아 두는데.

하루는 쥐가 잠깐만 들어왔고서는 쥐가 들어와 먹고선 그 쌀이 그냥
없어지드라. 그냥. 뒤쳐보니까 쥐가, 그 커다란 쥐가 들어와서 그 쌀을
자꾸만 먹드라. 쥐를 잡았다. 쥐를 붙잡아 가지고서,

“너! 왜 날 죽도록 그렇게 에, 저기 일 해 주고 나 새경 받은건데, 에

아 이거 모아갖고 장가도 들고 살림도 할건데 니가 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할라 그러냐구. 너 다시 안먹는 데면 살려주고, 또 온대면 내 너 죽여버린다.”

구 그냥.

“다시 안 온다.”

구. 이자 자루 속에서 대가리 끄덕끄덕 하드라. 그러니까 이제 그 쥐를 살려줬더니, 놔 줬더니 어디 가서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와서 쌀을 안먹드래.

인제 그 하늘을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활을 잡아다 주니까는, 또,

“내기를 해자.”

그러더라. 내기를 하는데,

“이 저 지하에 내려가서, 지하에 내려가서 뭐- 주전자 뭐래더라, 쥐 나라에 가서, 쥐 나라에 가서 무슨 밥그릇인가 그거를 찾아오라 그래더라. 안찾아오면 죽인다.”

그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먼저 가져갔던 부채를 갖고 이제 쥐 나라를 이렇게 부치면, 어디로 부치면 쥐나라에 간다는데, 쥐나라에는 옛날에는 사람이 가면 죄 잡아먹는다.

그렇게 쥐들이 어떻게, 그래서 쥐나라에 갖는데 똑 떨어지니까.

“아, 인고기 떨어졌다.”

고. 그냥 쥐들이 막 몰려와서, ‘잡아 먹자’고 그러니까, 어떤 쥐가 한 마리가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잡아 먹어도 왕한테 저 고하고서 잡아먹어야지. 그냥 잡아먹으면 혼난다.”

그래서 인제 그 쥐들이 사람을 떠밀고서 그 왕한테로 갔는데, 왕이 보니까 그때 살려준, 그 벽장에서 쌀 몰어다 먹던 쥐, 그제 왕이더라. 거기

쥐나라에서. [조사자 : 아!] 그 자기 살려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마워.

“야! 이놈들! 사람이지 어떻게 고기냐구. 그냥 이놈들 허술히 대접하지 말라.”

고. 막 야단을 치고,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그 이제 구해 오라는데 그게 무슨 밥그릇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저 거기서 이제 쥐나라의 왕이 그걸 구해줘서 그걸 찾아가서 도로 올라왔어.

그랬더니 그냥 그때, 그냥 동서들이 그냥 다 벌을 입어져 가지고서 다 죽어 버리드라. 먼저, 저 동서보다. 배가 아파서 죽일라 그러더니, 벌을 받고 그래. 그 동서가 거기서 하늘에서 식구들 하고 잘 살고. 그 형들은 죽고 망하더라. [조사자 웃음.] 애기 들은 지가 오래서 다 빠쳤나봐.

[조사자 : 나뭇군이요, 사슴(노루)도 살려주고 쥐도 살려주고 그래서 축복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저 애기니까 살려줬지. 실화면은 쌀 먹는 걸 누가 살려줘.(웃음)

[용천리 설화 5] 용천T 1원뒤

용천리 613, 박종수, 강현모, 신소영, 이정란, 정희경 조사
김영하(70, 여) 1995. 11. 11.

상원사 전설

‘선녀와 나뭇군’ 이야기가 끝난 후 조사자와 제보자의 대화에 연이어 이 설화를 구술하였다. 앞과 비슷한 동물 이야기로 짐승을 구제하며 복이 돌아온다면 구술하였다.

[조사자 : 그런다면서요. 옛날에 동물을 살려주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데 사람을 살려주면 안그렇다 그러던대.] 그렇지. 인간 구제는 악이 돌아오고, 짐승 구제는 복이 돌아온다고 그랬어.

그 전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갔는데, 과거를 보러갔는데 그냥 까치

가 막 짓고 야단을 하드래. 그냥.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보니
 칸, 까치 짓는데 그 저 까치집 있는데 그 새끼를 잡아먹을라구 큰 구렁
 이가 낚아 올라 가드라. 그러니까 이제 저 새끼 잡아먹을려고 오니까,
 슷놈 암놈이 막 짓고 야단을 하드라.

그래서 그냥 그 구렁이를 대가리를 찍 쳐서 잡아서, 그냥 선비가, 과
 거 보러 가는 선비가. 그래서 그걸 죽여 놓고설라문, 그러니까 까치 새
 끼들이 살았잖아. 그냥 들어가서 과거를 보러갔어. 과거를 하고서는, 그
 과거를 보러가서는 또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잘라고 그러는데, 어떤 집
 에 들어갔어. 이제 옛날에는 걸어 당기지. 그러니깐 여러 날 걸리지.

이제 어떤 집에 가서 잘라고 그러는데, 움막집이 있는데 불이 뽀짝 뽀
 짱해서 찾아들어갔어. 찾으니까 여자가 하나 나오드래. 그래 그,

“지나가던 과객이 날이 저물어서 하루 정도 유하고 가겠다.”

“아이, 들어오시라구. 들어오시라.”

구. 그래 들어갔더니, 아 그게 재주를 넘더니 구렁이가 되드래. 그러
 더니,

“니가 우리 남편을 죽였으니까, 내가 널 잡아서 원수를 갚겠다.”

고. 그러구 이제 구렁이가 되드라. 그래가지구, 그 구렁이도 그냥, 남
 자가 그냥 죽였버렸대. 그 남자가 그래도 가서 과거해 가지고 잘 살았
 대. 그래서 그렇게 뭐 그런데, 그 남자가 과거를, 그 여자가 붙들어가지
 고 하는 소리가,

“새벽 종 세 번 울리기 전에 내가 널 죽인다.”

그래더랴.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구 이제. 구렁이, 여자 구렁이한테 붙
 들려서 [Tape 뒷면에 계속] 그 종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구렁이한테
 풀려서 갔대.

그랬는데 그 까치가 응, ‘자기 새끼 살려줬다고 고맙다’고 거기 와서
 그냥 대가리다 종을 들이받아서 쳐가지고 까치는 떨어져서 죽고. 대가리

가 깨져가지고. 그 남자를 살려줬대.

그래서 그게 인간 구제는 악이 돌아오고, 짐승 구제는 복이 돌아오는 그 말 뜻이 거기서 나온거래.

[용천리 설화 6] 용천T 1뒤

용천리 613, 박종수, 강현모, 신소영, 이정란, 정희경 조사
김영하(70, 여) 1995. 11. 11.

구박한 며느리를 죽인 개

제보자가 구연한 마지막 설화이다. '인간 구제는 악이 돌아오고 짐승구제는 복이 돌아온다'는 말을 한 후 연상이 된 듯 스스로 구연하였다. 이 이야기는 상사뱀 설화의 변형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의 구술이 끝난 후 조사자가 "부지깽이나 싸리빻자루에 피가 묻으면 도깨비가 된다면서요?" 이야기를 유도 하였지만, 제보자는 피곤한 듯 더 이상 설화를 구술하려 하지 않았다.

또 옛날에 한 사람은 저기 어려운데, 개를 맥이는데 며느리가 그냥 밥을 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게 없고 배가 고프니까 끝찍이를 다 건어먹고 개를 그냥 국물만 뷘 주고 뷘 주고 그랬대.

그래니까는 그 구렁이, 저 개가 그냥 [청취불능] 커설라몬, 그냥 원수를 갚으려구 나갔어. 나가서 며칠 안들어오니까는, 그 시어머니는 그걸 이제 눈치 채웠대. 메느리가 너무 개를 구박을 했으니까 원수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 구렁이가, 개가 구렁이가 되서 그 저 메느리를 원수 갚으랴구 드니까, 메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독에다가 매주를 안쳐놓고 독에다 푹 파묻어 났어. 얹어 났어.

그러니까는 구렁이가 쉬-익 들어서 가더니, 그 향아리를 느릿느릿 돌

아서 감고설라무네 한참 있다가 나가더니, 그냥 그 여자가 쫓짝 녹아버렸데.

그래서 '불과대명은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그런 전설이 있대요. 그러니까 독을 감아서, 또 그 사람의 진을 다 빨아먹고 웬수를 그렇게 갚드래.

5. 장 평 리

[마을개관]

장평리, 강현모, 박지영, 정윤선, 이장희 조사
1995. 11. 11.

용인군 백암면 장평리는 용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버스를 타고 20여분 남짓 들어가야 있는 곳이다. 이 장평리는 원래 죽산군 근일면에 속하는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강정리, 장좌리, 구하리, 평울리, 옥천리, 사천리의 일부를 합치고, 장재와 평울의 이름을 따서 장평리라 하여 용인군 외사면에 편입시켰다. 이 마을은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길가에 집들이 있다. 이곳의 마을은 벼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일을 나가 한적한 편이다. 주로 공장에 다니는데, 특이하게도 할아버지들이 많은 반면에 할머니들과 젊은 여자들이 적었다. 장평리는 뒤쪽에 조비산이 있고, 용천리와 접해 있다. 또 마을 회관과 보건소가 있으며, 가구수는 대략 20여 가구가 되어 보였다.

[장평리 제보자 1]

서순중(71, 여) 강현모, 박지영, 이장희, 정윤선 조사
1995. 11. 11.

조사자들이 장평리 마을회관에 도착하였을 때 4-5명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처음에는 서로 미루는 눈치

였다. 이때 제보자는 옆에서 요것저것 물어보시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보자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옛날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서 하나도 모른다' 면서도, 조사자가 요청하자 호랑이 이야기를 마치고 '아무 것이나 해도 되냐'며 콩쥐팥쥐 등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 ~ 4.

[장평리 제보자 2]

박재원(82, 남) 강현모, 박지영, 이장희, 정윤선 조사
1995. 11. 11.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할머니들에게 조사를 하자, 관심을 없는 듯TV만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할아버지를 이야기판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마을과 관련된 유래같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제보자는 반가워 하면서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 제보자는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사셨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5 ~ 6.

[장평리 제보자 3]

서정순(49, 여) 강현모, 박지영, 이장희, 정윤선 조사
1995. 11. 11.

조사자가 마을회관을 나왔을 때, 그 앞을 제보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제보자를 무조건 붙잡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다 아는 이야기이며 지금 바빠서'라며 얼버무리고 주저주저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강력하게 권하자 마지 못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7 ~ 8.

[장평리 설화 1] 장평리 1화

장평리 마을회관, 강현모, 박지영, 이장희, 정윤선 조사
서순중(71, 여) 1995. 11. 11.

변신한 호랑이 물리친 어머니

옛날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서 하나도 모른다고 해서 조사자가, '호랑이가 둔갑한 이야기 같은 거라도 아시는 거 있으면 해주세요.' 하고 유도하였다. 이때 생각이 난 듯 아래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옛날에, 옛날에. 어느 인자 한 엄마가 딸하고 단 둘이 인자 저기 산골에서 살았어. 산골에서 살았는데, 아이 밤이 인자 깊었는디 예쁜 색시가,

“잠을 하루 저녁 자고 가자?”

고 그래서. 인정간에,

“그러면 그러라.”

고. 인자 딸하고 둘이 자는디, '들어오라'고 해서 인자 '자자'고 그랬는디, 가만히 엄마가 인자 그 색시 하는 것을 본게 에 호랑이드래. 사람이 아니고 호랑이어서.

인자 즈그 자기딸은 호랑인지 모른다. 그말이여. 근데 인자 엄마는 알았는디. 아이 인자 이 딸을 어떻게 해서 인자, 그 호랑이 색시한테 그 딸을 놓치겠다드랴. 그래 인자 딸을 어떻게 잘 품쳐 놓고는 그 색시가 안보이게 인자 품쳤어. 품쳐갖고는 색시가 밤에, 밤에 깊었는데,

“밥을 주라?”

고 그러드래. 밥을 주라고 해서, 밥을 인자 밤에 줌시러도, 밥을 먹는데 본게 혀가 둘이, 혀가 호랑이드래, 분명히. 그래서,

“아! 인자 분명헌 호랑이구나!”

하고. 이 딸을 어떻게 해서 저 호랑이한테 안뺏길까 하고, 인자 밥을

인자 밤새내 밥을 주고 어찌고 허다가, 어찌다 하는 동안에 시간이 가가 주고 인자 새벽이 되어서, 닭이 울고 날이 샌게 그냥 혼나게 산위로 올라가버리드래.

그래갖고 그 막내딸을 겨우 호랑이한테 안팓기고 날이 새서 살았어. 인제 그래갖고 잘 살았어. 딸하고 둘이.

[장평리 설화 2] 장평T 1앞

장평리 마을회관, 강현모, 박지영, 이장희, 정윤선 조사
서순종(71, 여) 1995. 11. 11.

콩쥐팥쥐

· 제보자는 조사자에게 '그냥 아는 아무 이야기나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사자가 '그래도 좋다.'고 하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쥐팥쥐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그런게 또 하나는 댕지. 인제 끝내지 [조사자 : 아니 해주세요?] 그러고 인자 얘기를 한 번 해 보자. 다 잊어버렸어.

인자 옛날에 어느 한 사람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잘 도중에 잘 살았어. 살았는데 사는 도중에 인자 딸 하나 놔놓고, 인자 둘째 낳다가 마누라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딸이 하나가 되었지.

아 인자 이 딸 아버지가, 혼자는 못살것고, 계모 여자를 얻었어. 얻었는데 또 난다고 난 것이 그 어미도 딸을 낳어. 딸을 낳는데 인자 나란히 쌍둥이 말로 예쁘게 크는데, 어찌게 큰 어메가 난 딸은 그냥 그러고.

아버지가 조금 어찌게 하면 질투를 허고 그러고 꼭 그러디. 큰 엄마 딸은 얼마나 착하고 예쁘디. 꼭 그렇게 그 엄마가 꼭 그 딸을 나쁘게 만 한거라. 그래가지고 인자 그 엄마가 난 딸도 많이 키가지고, 같이 예쁘게 크는데. 하루는 즈그 아버지가, 어디가 옛날 뭇 곳이 들어왔다

고,

“굿 보러 가자.”

그런께, 인자 식구들러 ‘가자’ 그런께, 새엄마가 큰 엄매 딸보고는,

“너는 집에서 방아 찧고, 물 질르고 밥 허고 일 허라.”

고. 못허게 하고. 자기가 난 딸하고 인자 영감 할멈허고 그 자기 딸하고만 가고. 냉겨 놓고 오지 마라거든. 그래서 오메, 물이 다 거시기 깨진 시루에다가 물을 하나 채래. 채우고. 나락 옛날 시골, 나락은 을마를 다 찧고 허라 헌디,

“어떻게 해야 쓸까?”

함께. 하늘에서 꺼먼 소가 내려와서,

“어찌고 울고 있니?” 그런께,

“이 방아를 다 나 보고 찧라 하고. 이 밀도 읊는 시루에다가, 밀빠진 시루에다가 물을 하나 채우고 그러란다. 엄마가 그러고 굿보러 갔는디 나는 아 언제 해놓고 갈꺼나 허고.”

그런께. 아주,

오만 새는, “다 오라.”

해갓고 마당에 있는 나락을 다 입으로 까서 방아를 싹 찧어버렸어. 찧고 또 인제 또 울어.

“또 어찌 우냐? 그래도 무엇이 어째서 우냐?” 그런께,

“이 시루에다, 밀도 없는 시루에다 어떻게 물을 질러 부을까냐?”

그런께. 밀을 인자 무엇으로 탁 막커가지고 물을 그냥 한나 질러 부러, 그 소가. 그래서,

“인자는 다 되었다. 되야지.”

그런께. 입고 갈 옷이 읊데.

“굿을 보러 갈란다, 입고 갈 옷이 읊다.”

그런께. 하늘에서 인자 아주 예쁜 신이 나오고, 예쁜 아주 까치 한복

을 싹해서 내려와. 싹가지고, 보에다 싹가지고 갖고 왔드래.

“이놈 입고 가그라.”

강계, 막 그놈을 입고 막 기분이 좋아서 막 가는 거라. 강계 인자 새
엄마 딸이,

“엄마! 막, 내는 못산다.”

고. 막 울어. 짜증을 놓고,

“왜 그러냐.” 닝께.

“언니는 저렇게 좋은 옷에다 신에다 해 주고, 나는 안 해줬다.”

고. 막 ‘아빠는 나쁘다’고 막 울어. 그렇게 막 새엄마가 와서,

“빨리 와 보라.” 해.

“너! 느그 아빠가 이렇게 해서 몰래 해서 줘서 옷 입었지?”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왔니?”

인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아도 다 찢고 물도 다 채우고, 인자 굶보리
갈란다 옷이 읊다 함께, 그 소가, 검정소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방아 다
찢게 해 주고, 물 다 질러 주고, 채우게 해주고. 옷을 옷이 읊다고 항
께, 옷을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옷을 해다 줘서 입고 왔다.”

고 함께는. 막,

“다 벗어서 즈그딸 줘야 한다.”

고. 그렇게 해갖고는 막 새엄마가 막 글허게 닥달을 허고, 막 죽일라
고 허고 그랬어도, 인제 큰 어매가 난 딸은 시집도 잘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작은 엄마가 난 딸은 엄마도 마음씨가 나쁘고 딸도 마음씨가 나빠
서 시집도, 남편도 또 잘못 얻어서 또 더 못살고.

그렇게 사람이 이 좋은 마음을 갖고 살며는 뭐가, 누가 도와주든지 도
와주는 거라. 그래서 얼마나 큰 엄마 딸이 행복허고, 아주 왕비 마누라
가 되가지고 그렇게 잘 살았어. 아버지도 도와주고.(청중 웃음)

[장평리 설화 3] 장평리 1원

장평리 마을회관, 강현모, 박지영, 이장희, 정윤선 조사
서순종(71, 여) 1995. 11. 11.

새가 된 여동생

“아시는 이야기 또 없으세요?” 하는 조사자의 질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다며 이야기 하였다. 이 이야기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시아버지를 구하고 남편따라 죽었다는 이야기의 변형으로 여동생과 마누라로 나타나 오빠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여동생은 억울하여 새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 하래? 응. 옛날에(기침) 인자 시골말로 올케하고 시누하고, 저어 냇가에 구경하러 갔어.

구경하러 갔는데 인자 어떻게 하다가 물이, 냇물에 시누가 시누가 막 떠내려 갔어. 막 인제 자기 오빠를 막 불렀어. 올케가,

“시누 떠내려 간다.”

고. 그러다 본께 또, 마누래도 올케하고 시누하고 같이 떠내려가. 그런데 오빠보러 막 달려와서 쫓아오더니 동생은 떠내려가도 안잡고, 자기 마누래를 잡았어. 그래가꼬 동생이 영원히 떠내려 가서 죽어부렀제.

죽어부러서, 죽어서 인자 혼 혼이, 어 인자 물가에 무슨 새가 되었어. 새가 되어가지고 그 새가 향시,

“골골”

하고 울고 다니고,

“저 새는 어째 저리고, ‘골골’하고 울고 다닐까”

한께. 인자 어째 그런가 하몬, 그 시누 동생이 죽어서 혼이 되어가지고, 새가 되어가지고,

“마누라는 고을 고을마다 있다.”

그말이여.

“동생은 인자 한 번 놓치면 못잡아도, 놓쳐도 마누라는 골골에 있는데, 인자 마누라를 붙들고 동생은 놓치 냐다고 냐다.”

고. 새가 되야가지고, 새가 ‘골골’(새가 나는 모양까지 흉내내며) 향시 울고 다녔어. 끝.(일동 웃음)

[장평리 설화 4] 장평T 1호

장평리 마을회관, 강현모, 박지영, 이장희, 정윤선 조사
서순중(71, 여) 1995. 11. 11.

흥부와 놀부

<흥부 놀부 이야기>를 알고 있다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하라고? 옛날에 흥부 놀부가 살았어. 살았는데 형 놀부는 부모 재산을 톡 갖고 살았는가 아주 부자로 살고. 흥부는 아무 것도 안태주고(상속을 안주고) 형이. 아무 것도 안태줘서 맨몸으로 사는데, 그 중에 또 자식 새끼들만 막 연신 낳서 한 열 개나 열이나 낳어. 그러니까 식구는 많고 돈은 옹고. 먹을 것은 옹고. 헛게 그 이놈의 자식들이 막 큰 아들이,

“엄마, 아빠! 나 장가보내 줘.”

작은 아들이.(웃음)

“장가 보내 줘.”

어린 놈들이,

“엄마, 아빠! 밥 줘.”

허고. 정신을 못차리게 인자 살았지, 한 동안에. 그랬는데 마음씨가 흥부가 고와서 그랬는가, 우연히(헛갈린 듯) 그렇게 참 돈이 붙어서 잘 살게 되 되었지. 그랬는데 인자 마음씨 고와서 우연히 살게 잘 산다고 막 심술을 불려. 그래서 다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녀의 집에서 도둑질 해다 사냐?”

고. 성한테 좋은 말을 하고 해도, 형이 막 짜증을 부리고.

“응. 이놈! 어디서 도둑질 해서 잘 살제. 어서 니가 돈을 나서 사냐?”

고 그랬어. 흥부는 그래도 마음씨 고운대로 두 부부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서, 그 많은 자식들을 다 옷 입히고 가르치고.(웃음) 해 먹여 살여서 내중에는 아주 훌륭한 큰 집을 짓어서 네 귀에다 풍경을 달고, 아주 소리치고 동생이 잘 살지.

그런게 흥부 형이(첫갈린 듯) [조사자 : 큰집 짓고부터 다시.] 응. 흥부가 아주 큰 집을 짓고 네 귀다 풍경 달고, 아주 울렁줄렁하고 산계. 산다는 소문을 듣고 형 놀부가 막 쫓아왔어.

“네 이놈! 어디서 다, 어서 도둑질을 해다가 이렇게 크나큰 집을 짓고 니가 사냐?” 고 한게,

“형! 그것이 아닙니다. 응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자식들 하고 이려고 살고. 살고 본게 참 오늘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막 그대로 고지를 안듣고 막 동생을 막 후려 패고 그래. 그랬는데 다 사람 국민이 알다시피 착실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연히 돌아서서 이렇게. 돈이 붙어서 살았제,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였고. 그래가지고 여러 자식을 다 가르치고 여의고 해갖고, 아주 훌륭하게 흥부가 성공해서 잘 살았어. 됐다.

[장평리 설화 5] 장평T 1앞

장평리 마을회관, 강현모, 박지영, 이장희, 정운선 조사
박재원(82, 남) 1995. 11. 11.

조비산에 있는 천하대지

TV를 보고 계시다가, 조사자가 '이 마을과 관련된 유래 같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때 제보자는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며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조비산. 남양판으로다 저 꼭대기로 올라갈 것 같으면 병풍 돌른 것처럼 돼 있어. 근데 거기가 천하대지 자리라고 해서 말이여, 거기서 아마 신체를 누가 갖다 느껴(넣으면)는 저 황석 부락(부락)이 아주 저 야단법석부리가 난데야.

그래서 인저 거기 올라가서 팔 것 같으면 영락없이 송장이 들었거든. 그래 송장을 꺼내서 옆에다 놔 놓고, '가져 가라' 할 것 같으면 가져가고 그랬는데. 나중엔 아마 이 8.15 해방 무렵이 그때는, 송장을 찾는데 영 - 찾지 못해.

근데 그 돌함이 있어. 그냥 돌에다 그냥 집어 늘 것 같으면 몰르겠끔. 근데 결국은 이 그 돌함 속에다 넣고선 아마 또 흙을 다져 넘어도 몰르게. 근데 황새울 부락에서 개가 거기만 쳐다 보고 짓고 해선, 쫓아올라 가서 파보니깐, 뭐 죄 파고 보니깐 송장이 그 속에가 들었어.

그래, 그때는 하도 수십 명 캐내고 해서, 결국엔 낭떠러지기 수천 길 이 되는 데다가 그냥 집어 던졌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그 시방도 올라가 보면 그 자리가 그냥 있어.. 비어 있어. 움푹하게 패여 있지.

그런 얘기 밖에 못들었어.(웃음)

[장평리 설화 6] 장평리 1호

장평리 마을회관, 강현모, 박지영, 이장희, 정윤선 조사
박재원(82, 남) 1995. 11. 11.

조천사가 있는 조비산

조비산에 있는 '조천사'라는 유명하다는 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다섯 사람이 와서 문힐 자리다.”

이렇게 이야길 하는데, 뭐. 지금은 그런 데다가 갖다가 쓸 사람이 없어. 옛날엔 송장을 응. 걸머지고도 올라댕기며 좋은 자릴 찾았지. [조사자 : 명당자리요?] 응. 시방은 그런데.

근데 가 보면 산꼭대기, 뽕죽한 산꼭대기래두 멍석 가마 이거보던 아마 이거만치 넓을거야, 편편한게. 근데 위루는 잔디밭이거든. 파머는 송장 들어갈 하적이 돌함이 있어. 그래,

“거기다 그렇게 쓰며는 잘 된다.”

고. 해서들 ‘잘 되면, 잘 될까’ 하고선 그냥 갖다 자꾸 집어느니, 자꾸 사고가 나니 만지작동이(?) 사고가 나니까, 와선 파보고 파보고 그러지. 아마 수십 명 파내부렸을 거야.

그 지금은 누가 올르기나 해? 나무가 잔뜩 들어서 올라가지도 못하지.(웃음) 그러구. 거기 절이름도 음, ‘조천사’라 그러지. 이거 ‘조비산’이 아니라 에 ‘탁빌산’이라구두 하지. [조사자 : 탁빌산이요?] 응. 탁빌산. 이 부처모냥 이렇게 뽕죽하다구. 그래 이제 이 절두 ‘조천사’라구 지었는데, 이 절은 쪼그매도 이름있는 절이야 이게.

옛날엔 안성중학교에서 자전, 삼백 명이 자전거 타고 여길 놀러 오구두 그랬는데. 지금은 나무가 꼭차서 꽃도 그냥, 봄에 볼 것 같으면 아주 그냥 꽃대기야, 이산이. 빨강게 그냥 진달래가 그렇게 많이.

그 뭐, 그런 소식 밖에는 몰러.

[장평리 설화 7] 장평T 11

장평리 마을회관, 강현모, 박지영, 이장희, 정윤선 조사
서정순(49, 여) 1995. 11. 11.

수수대가 빨간 이유

지나가시는 분을 붙잡고,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 주세요.'라고 하자, '다 아는 이야기'라며 얼버무리시다가, '그래도 해주세요.'라고 하자 해 주었다.

옛날에 홀어머니가 어린 두 형제를 데리고 홀로 살아가는데. 생활 수단은 인제 남의 집에 가서 일 해주고, 이제 밥도 얻어오고 그리고 해가지고 생활을 꾸려가는데.

이제 하루는 두 형제들을 남겨놓고 고개 너머 먼 동네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두 형제들한테 단단히 이르기를,

"아무도 누가 와서 문 두드리면,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으라."

고. 그리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두 형제들한테 이르고 일을 하러 떠났는데. 떠났는데 인제 어머니가 하루 일을 다 마치고서 거기에서 이제 떡을 얻어갔고, 인제 두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밤늦게 집으로 오는 길에 인제 고개를 넘어서 오는데, 마침 그 고개에서 큰 호랑이가, 배가 고프는 호랑이가 딱 쭈그리고 앉아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인제,

"어-흥!"

그러니까. 인제 호랑이는 그 '어-형' 거리니까, 그 어머니는 겁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바구리에 있는 떡을 주면 안잡아 먹지."

호랑이가 그러니까 인자, 그 자식들을 주기 위해서 갖고온 떡인데도, 그냥 하나를 얼른 주고는 막 바빠 오는데, 또 다음 고개를 또 넘어오니 까 그 호랑이가 또 앉아 있어가지고.

"또, 떡 하나 주면 또 안잡아 먹지."

그래서 또 떡 하나를 딱 줬어. 그래서 인제 떡을 다 털리고는 막 바빠 집에 오는데, 또 그 다음 고개에 또 넘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호랑이가 또 저 지키고 있어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그래서.

“떡이 없다.”

니까. 그러면,

“팔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그래갖고 팔을 하나를 툇 떠었어.(웃음) 거기서 인제 호랑이가 엄마의 팔을 인제 하나 먹고는. 또 그 다음 고개를 또 넘어 오는데, 또 호랑이가 지키고 있다가 어머니 마저 있는 팔까지 떼어, 떼어 먹고는 그냥 어머니의 몸뚱이까지 다 삼켜버리고는. 그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집으로 와가지고 그 형제들까지 다 잡아먹을라고 와가지고, 그 호랑이 특유의 목원 소리로, “얘야! 엄마 왔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럼, 엄마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니까.

“어, 하루 종일 일을 해갖고 너무 피곤해서 목이 쇠서 그런다.”

호랑이가 그렇게 대답을 허니까,

“그러면, 엄마 손 좀 내밀어 봐!”

인제 그 아들이 그랬는데. 그 문틈으로 손을 인제 호랑이 그 털 달린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우리 엄마 손은 이러 안은데, 엄마 손이 왜 이렇게 털이 났어?”

그러니까,

“어, 일을 허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손이 거칠어져서 그랬다.”

그러면서. 그냥 수돗가에 가가지고, 그 그냥 털있는 손을 뽁뽁 문질러 가가지고는 그냥 피가 짹짹나게, 하이튼 털이 옹이 해갖고는 다시 와가지고 손을 쑥 내미니까, 인제 그때 인제 아이들이

“엄마가 일을 해서 고단해서 손에 피가 났나 부다.”

하고는 문을 열어 쫓어.(이야기를 잊어 녹음기를 잠시 켜다가 구술함.)

“그 엄마, 엄마 손을 내밀어 봐.”

했더니. 그 막 털이 송실송실 달린 그런 손을 내미니까,

“아! 인제 우리 엄마 손은 이렇지 않은데. 엄마 손이 이상해!”

그러면서. 인제 두 아이들은 벌써.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니라는 것을 알고 뒷켠에; 집안 뒷켠에 있는 큰 나무 위로, 감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뭐이냐면 저 도끼로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인제 쪼끔씩 쪼끔씩 저 찍어가지고 발을 딛고 올라서. 나무 위에 인제 올라서 딱 숨었는데, 막,

“문을 열라.”

고. 그냥 저 실갱이를 다하던 호랑이가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없어서 온 집안을 막 아이들을 찾느라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뒷켠에 있는 우물물,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을라고 이렇게 우물물, 우물물 속을 들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우물 속에 비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위에를 올려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감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거야. 이 호랑이가,

“너희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라갔니?”

그러니까. 애들이,

“응, 기름 발르고 올라왔지. 인제 참기름 발르고 올라왔지.”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그대로 인제 기름을 발르고 올라갈라하니, 그 미끄러져서 그 올라가져? 막 미끄러지고 막 못 올라가니까 또 다시,

“너희들 어떻게 올라갔니?”

그렇게. 인제 안 알려주는 거야. 그 형은. 그 동생은 막 킁킁 웃고 그러다가, 호랑이가 그 막 올라올라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너무 우스워서, 우스워서 웃다가,

“이 바보! 그렇게 올라온게 아니라, 도치로 똑똑 찍고 올라왔지.”

그 동생이 가르켜 줘버린 거야. 그래서 인제 호랑이는 인제 올라오고, 이 형제들은 나무 꼭대기 위에서 더 갈, 갈데가 없어. 인제 그러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는데, 그 형이 그냥 거기다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하나님!”

기도를 올린거야.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려머는 새 동아줄을 내리고, 내려주시고, 죽일려면 현 동아줄을 내려주시라.”

고. 그냥 간절히 인제 형이 기도를 하는데, 새 동아줄이 탁 올라온 거야, 저기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인제 그 동아줄을 타고 두 형제들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호랑이도 가만히 보니까 줄을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 인제 호랑이도 인제 그 형제들이 한대로 그대로 한단 것이 꺼끌로 얘기를 헛거라고.

“하나님! 저를 살리려거든 현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일려거든 새 새 동, 아니 저 살릴려거든 현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일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소.”

인제 기도를 허니까. 현 동아줄이 탁 내려와 갖고 그리 타고 올라다가,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현 동아줄이 지긋 끊어져서, 끊어져서 툭 떨어지는데 그 호랑이가 떨어지는 그 거기가 어디냐면 수수, 수수밭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수수대에 찢려가지고 호랑이는 거기서 그 현장에서 죽었는데.

그 찢려서 피가 난거가 그 수수밭에 퍼져서 묻어서 수수대가 빨갛게 댘다는 이야기.

[장평리 설화 8] 장평T 1앞

장평리 마을회관, 강현모, 박지영, 이장희, 정윤선 조사
서정순(49, 여) 1995. 11. 11.

제사밥을 얻어먹고 가는 혼

또 '아는 이야기가 없느냐'고 조사자가 요청하였다. '귀신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고 묻고는 다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옛날 어른들이 얘기를 하게 되며는, 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 영혼도 저기 차를 타고, 제삿날에는 멀리 있는 자손들이 고향에 살다가 다 객지로 이사를 가게 되며는 먼 객지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이 귀, 혼들도, 영혼들도 차를 타고 먼 데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사밥을 얻어 먹는다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전라북도 남원 남원에 거기, 거기가 옛날에는 남원이 지리산이 있어가지고 그 지리산 공비들이 많이 출현했기 때문에 남원에 비행장이 있었어. 군, 군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하는 비행장이 있었는데.

어느날 밤 늦게, 자정이 거의 다 되가지고 이 트럭, 트럭 운전사가. 인제 트럭을 몰고 거기를 통과하게 됐는데, 하얀 소복을 한 여자가 손을 들면서 차를 세우드래. 그래서 일단은 멈췄데. 보니까 너무나 고운 여자고 하얀 소복을, 소복을 입었는데,

“좀 태, 차를 태워 달라.”

고 해서. 어 차를 태워 줬는데, 이제 차를 태우고 가는데 뒤예를 보며는 분명히 이렇게 여자 여인이 타고 있는데, 거울 속을 보면 거울이 안 비치드래.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는 참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소름끼치고 그러지만, 그 여자가 인제 간다는 데까지 인제 태워다 어떤 마을 어귀에 인제,

“어귀에 인자 딱이 내려 달라.”

고 해서. 그렇게 내려 내려서, 그 여자가 들어가는 골목, 저 길목을 인자 저 먼 빛으로 이렇게 살금, 아무리 기다려도 또 안나오고. 그래서 먼 빛으로 밤이 너무 늦고 그래서, 먼 빛으로 살살 따라가 봤더니 어떤

집으로 들어가드래. 그래서 인제 같이 그, 그 사람도 인제 그 기사도 같이 인제 그 길을, 그 집을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서 인제 주인장을 찾드니, 뭐이냐면,

“오늘이, 그날이 자기 죽은 딸의 제삿날이라.”

고 하드래. 그래서,

“하고. 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태워갖고 왔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그 주인이 너무 잘 대접을 잘 해 주드래. 그래서 대접을 굉장히 잘 받았다는 그런 전설적인 그러한 이야기.

6. 석 천 리

[마을 개관]

석천리, 박종수, 강현모, 노대식, 변재환 조사
1995. 11. 11.

석천리는 면소재지가 있는 백암리에서 남쪽으로 10km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 중의 하나이다. 이 석천리는 원래 죽산군 근일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황석리와 사천리, 옥천리의 일부를 합하여 황석과 사천에서 뒷자를 따서 석천리라고 하여 용인군 외사면에 편입되었다. 이곳은 마을 앞의 냇물이 비껴 흐른다고 하여 새내라고 하는 가천마을과 옛날에 큰소나무가 있어 황새가 항상 와서 살았다고 하여 황새울이라는 황석마을 등이 있다.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하여 시골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역시 도시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석천리 제보자 1]

유 씨(60대, 남) 박종수, 강현모, 노대식, 변재환 조사
1995. 11. 11.

조사자는 석천리에 갔을 때 길가에서 만난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

하였다. 제보자는 실학자인 유상원(?)의 후손이라며 조상에 대한 일화를 먼저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한 사람이 가자고 말하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간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가문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였는지 차분한 말투에 조리있게 구술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 ~ 2.

[석천리 설화 1] 석천T 1원

석천리, 박종수, 강현모, 노대식, 변재환 조사
유 씨(60대, 남) 1995. 11. 11.

조비산의 유래

조사자는 석천리에 들러 길가에서 만난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제보자는 실학자인 유상원(?)의 후손이라며 조상에 대한 일화를 먼저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야기하며 도중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한 사람이 가자고 하자, 이야기 때문에 나중에 간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가문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게 인제 사적으로 알아들 그 인물이고, 고땀에 저 저것이 조비산이라고 그래 지금. [조사자 : 조비산이요.] 조비산인데. [조사자 : 그게 지금 그 바위 이렇게 있는...] (일제시대에 이곳을 광산으로 개발하려던 사람들의 일화 생략)

그러구 있는데, 저것이 어땠냐면 그이 저 꼭대기서부터 이렇게 쪽 내려와가지구 개인집으로 돼 있어. (이후 개인 이야기 생략)

그게 조비산인데. 그것이 내력이 어떻게 되며는 전설이지 뭐. 옛날에 장수가 저걸 들고서는 서울 삼각산을 맨들려 가져오다가 벌써 딴 사람이

가져왔다 이말이지. 먼저 가서 삼각산을 맨들었던 말이여.

이까 여기는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빙그르르 돌려서. 이제 여기가
앞이고 저 뒤가 뒤. 그래가지구서는,

“저 꽤썸하고 뭐하니깐 나쁘다.”

그래구서는 정부에, 저 조정에 대해서 위치가 뒤쪽으로 해서 불경죄
를 받았어. 방구 끼는 이놈들 중간에서 저깁어. 저쪽에 그래서 그 방구
끼는 거다. 그래서 ‘일명 역적산이다.’ 이렇게 됐다가, 조정을 바라고서.
[조사자 : 역적산이요.]

조정 어른. 그래가지구 인전 그 산이 조비산은 아침은 새가 나는 형이라
구 해서 조비라구 했다가, 인저 그렇게 조정을 배반하고 방구 끼니까 조폐
산이라고도 했다가, 어~ 조정을 폐한거니까 조폐산이 불경죄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게 됐는데, 그게 인저 저~ 절이 또 있어. (이후
개인 얘기 생략) 그래서 그 저기 이~ 조비산이 역적산이라구두 하구,
인저는 일명 조비산이다.

[석천리 설화 2] 석전T 1화

석천리, 박종수, 강현모, 노대식, 변재환 조사

유 씨(60대, 남) 1995. 11. 11.

서울이 못된 용인

앞의 조비산의 유래에 대해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는 조비산에 있는 절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절의 유래라기보다는 절 내부의 갈등을 나타내는 이야기인데다 녹음상태의 불
량으로 수록하지 않았다. 조사자가 옛날에 들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이야기를 하
였다.

· 옛날에 장수가 이곳 이 경계에 서울 맨들려고, [조사자 : 서울 맨들고,

옛날 얘기에요?) 응 옛날 얘기여. 그렇지. 아흔아홉 봉인데, 봉우리가.

백봉만 되면은 여기가 서울이 될 건데 못됐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아흔아홉 봉이여. 그런데 인자 산이 구봉산여. 그리고 인자 저 외사면 백봉리라고 그게 있으면 되는데, [청취불능] 중요한 것이 몰이여. 지금 보면 물이 읊어. 물이 읊어서 전부 다,

그런게 백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설이지.

[석전리 설화 3] 석전T 1뒤

석전리, 박종수, 강현모, 노대식, 변재환 조사
? (60대, 남) 1995. 11. 11.

암장하면 가뭄드는 조비산의 명당

조사자는 제보자에게 조비산에 대해 묻자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이 부분은 녹음의 불량으로 채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70대 노인〉 [조사자 : 여기가 왜 명당이라고 합니까?] 그래 있지. 거기 그전에 꼭대기, 꼭대기 조금 올라가면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죽은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묻으면 그 자손이 잘 된다는 그런 얘기는 그전에 여기 있었지. 그런 것은 그전에 있었던, 그것도 다 미신 같은 얘기여.

〈제보자〉 [조사자 : 저 산이 왜 조비산이요?] 예 이 저 산이 조폐산이라고 그러고, 조비 날비자 조비산이라고 그러고. 그놈은 지판에 따라서 조비산이라고도 그러고, 암반이 되어 있어요.

그 암반 이렇게 뒤에 가면은 이렇게 급경사 되었는데, 완경사가 되어 버렸다고. [조사자 : 이렇게 되었는데, (손짓으로)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응. 그렇게 쪽 내려가빠렸어. 그러니 암반이고 그러니 산소를 쓸만한 곳

이 아무래도 읍어요. 저기도. [청취불능]

[조사자 . 그곳에 얽힌 얘기가 읍습니까?] 그런데 그 저기는, 조비산은 저기 자 봉우리가 셋 있어. 가운데 봉우리에. 예 큰 봉우리와 가운데 봉우리와 이쪽 봉우리다 크게 시, 세 봉우리로 나누어지는데, 가운데 봉우리 이쪽으로 보면, 그늘 그늘진 데가 보이지, 고기에.

고기 명당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몰래 갖다 가묘장을 혀. 암매장을 하는 거여. 거기 암매장만 허면은 한해(旱害)가 와서 가물어서, 비가 안오고.

이쪽이 있는 마을 사람들이 가서는, 그 마을 사람이 명당을 파헤쳐. 그 가물면 꼭 있어요. 그냥 거기다 허기만 하면 고기로 꼭 그래. 그래 정남쪽으로 백허가지고 거기 남향이여. 거기다 명당인게 하기만 하면.

[석천리 설화 4] 석천리 1뒤

석천리, 박종수, 강현모, 노대식, 변재환 조사
? (60대. 남) 1995. 11. 11.

과객이 자고가는 인정많은 덕운리

앞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에게 마을에 대해 묻자 해주신 것이다. 제보자는 옛날에 마을의 유래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는지 만족스러운 듯한 얼굴로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그전에 차로가 읍을 때는, 육로로다 한양으로다 그 서울로다가 인자 과거보러 갔었지. 지금으로 말하면 고시 공부이지. 그 고시 보는 길손이 올라가는 길목이 그 동네이여.

그전에 저 동네가 대대로다가 아주 부자로다가. 부자로다가 살다가 보니 거기서 쌀을 씻으면은 쌀뜨물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여. 그래서 나귀 타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나 와야 그 쌀뜨물을 먹는다.”

고. 허면서 부지런히 왔다는 거여. 여기와서 자고. 그래서 거기서 쌀뜨물 니리고. 그 부자 마을이 있으니까 잠자리는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 와서 밥해 먹으면. 그래서,

“거기보다문 쌀뜨물을 은어 먹으면 좋으니까 여기는 인심이 좋더라.”

그래서 여기가 인자 큰덕자 구름운자 덕운리 마을이여. 그래 과객이 가다가 날이 저물면 여기 와서 잠을 자는데, 낮에들 쌀뜨물을 먹었는데, 거기 가서 저녁을 못은어 먹고, 잠은 여기 와서 잤다는 직접 본거여. 아 그래 자고 나니까,

“과연 인심이 좋구나! 덕이 있는 마을은 이 동네이다.”

고. 덕운리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래 큰덕자 구름운자 덕운리 마을이여, 여기가. 옛날 그저 그랬다고 해서 덕운리 마을.

7. 고 안 리

[마을개관]

고안리 아곡마을,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1995. 6. 10.

고안리는 면소재지인 백암리에서 남동쪽으로 10km 정도 남쪽에 떨어져 있는 마을로, 광혜원으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한 마을이다. 고안리는 고려시대에 양지군에 속한 고안부곡이라 하여 천민들이 주로 거주하였던 특수 마을이었는데, 조선시대 초기에 고안면이 되었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주천과 백동 죽동 중상리의 일부를 통합하여 고안리라고 하여 용인군 외사면에 편입시켰다. 마을은 도로에 따라 발달하였으며, 아곡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관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정자도 있는 이 마을에는 단순하게 농민들이 주로 사는 마을로 보이지 않았다.

[고안리 제보자 1]

조덕원(85, 남)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1995. 6. 10.

제보자는 30년 전에 이 마을에 들어와서 정착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허리가 아파 드러누워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조사자들이 아픈

허리를 주물러 주면서 이야기를 채록하였다.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만나게 된 것은 동네에 들어섰을 때 이야기를 잘 해 주시는 분을 묻자, 마을분들의 소개로 찾게 되었다. 그런데 제보자는 효자 이야기와 국가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나 노래를 주로 해 주셨다. 제보자는 조사자들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매우 협조적이었으며,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는 듯하였다. 하지만 아픈 몸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조사자들이 많은 시간을 고생시킬 수가 없어서 얼마 후에 다른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제공자료 : 설화 1 ~ 4. 민요 1 ~ 2.

[고안리 제보자 2]

김명재(? , 남)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1995. 6. 10.

조사자가 백봉리에 갔다가 다시 고안리 칠전마을을 찾아갔다. 이 마을을 찾아 이야기할 사람을 부탁하자 어느 집을 가르켜 주었다. 그래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세분이 무엇을 만들고 있었다. 제보자는 무업을 하는 사람으로, 잘 맞추기로 이 근동에서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제보자는 농사는 지어보지 않아 노동요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옆에서 부르는 노래를 들었다며 모심기 노래를 하여주었으며, 이야기는 수수께끼를 이야기화 한 이야기를 한편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대부분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나 이들은 서당에서 글을 배웠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5. 민요 3.

[고안리 설화 1] 고안리 1앞

고안리 아곡마을,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조덕원(85, 남) 1995. 6. 10.

여름에 홍시를 구한 효자

제보자는 30년 전에 이곳에 들어와서 정착하였다. 동네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을 묻자 제보자를 소개하여 주어 집으로 찾아가서 체류하였다. 조사자가 찾아가 있을 때 제보자는 허리가 아파 누워 있었다.

[조사자 :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 아무 거나요.] 재미있는 얘기를 해 줘. 여기 효자 얘기를 하나 할까. 효자 얘기 하나 해 줘. [조사자 : 예, 해주세요.]

그전에 한 사람이 사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어. 아버지는 돌아가고. 근데 어머니가 여름이 됐는데 알으셔. 근데 여름에 홍시, 감 빨건게 잘 익은 거 달지. 감 그걸 잡숫고 싶다고 자꾸 그러단 말이야.

그래 이 사람이 효잔데, 감을 그때 여름에 홍시가 있어? 겨울기 저 가을 되어, 가을 되어야 가을이지. 그래 인제 날마다 감나무를 캐러 가지. 감나무 밑에 가야 여름에 퍼런 감이지, 그때는 홍시가 있나. 빨간 감이 없으니까 늦게 들어도 오고. 그러고 며칠을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늦게 돌아오자니까, 인자 밤인데 늦게 돌아오는데, 커다란 짐승이 그냥 길을 막는단 말이야. 그래 이 사람이 인자,

“니가 나를 해할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할라느냐?”

그러니까. 자꾸 등을 이렇게 지끈지끈 하면서 타라는 눈치여. 그래 짐승을 탔지. 그래 탔더니만 그 짐승이 그냥 태워가지고서는,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가는데, 어느 산골짜기로 들어가. 그래 얼마쯤을 가더니 내리라고 그러단 말야.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보니까 그뎨 외딴집이 있단 말야, 산골짜기에.

그래 밤중에, 밤중이 됐는데. 그래 천상 여기 민가는 없고 그 집을 찾아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주인이 나와. 주인이 반가이 맞으면서,
“아유, 어서 오신 손님이나?”

구. 그러니까,

“아! 난 이래저래해서 지나다가 들어 왔는데, 집도 없고 사람이 민가가 없어서 좀 댁에서 쉬어 갈려고 그런다.”

니까. 그런데,

“그럼, 쉬었다 가라.”

고. 방을 하나 내주면서,

“들어 가라.”

고. 앉았는데 얼마쯤 있더니 주인이 밥하고 술하고 과일 뭐 이렇게 차려 상에 나오는데, 그냥 그 자기가 구하던 홍시조차란 말야. 제사를 지냈는데 그날 저녁에. 그래 홍시가 있어.

“아참, 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홍시로구나!”

그래 인제 서로 권하고 어찌구 해서 이제 먹는데, 그 주인이,

“아! 이거 귀한 거니 하나 자셔 보라.”

고. 그런단 말야. 그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생각이 있어서 안 먹는다.”

고 그러니까.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구? 귀한 거니 하나 자셔 보라.”고.

“아이! 아니라.”

고. 그 사람이 말을 안하려다가 우뚝거리,

“우리 어머니가 병중에 계신데, 저 홍시를 말씀하는데 그 홍시가 대령하니까, 있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그래요.”

“아 그러냐구! 내가, 우리 아버지가 홍시를 좋아하셔서 돌아가신 뒤에도 홍시를 해마다 잊지 않고서 땅속에다 어떻게 잘 묻어다 두면, 백 개를 묻으면 한 열 개 정도 그래 한 칠팔 개 이렇게 성해서 놓고서 참 제사를 지냈는데, 올해는 금년지기 백 개, 한 백 개 묻은 것이 한 칠팔십 개 성하고 상한 것이 불과 몇 개 안된다고. 이거 하나님이 그대의 그 효성에

생각하시고 이렇게, 감이 상하지 않은 것 보면 그대의 효성에 의해서 그게 된거니까, 이 감을 내 드릴테니까 가지가 봉양 봉신 하라.”

고. 아 그래 감을 한 웅크리 이렇게 뚝뚝 싸준단 말야.(웃음) 아 그래서 그 감을 얻어 가지구 밥을 실컨 먹고서 송늑 먹고, 얻어가지고 주인하고 인사를 한 뒤에 인저 도로 돌아나오니까, 거 실고 가던 짐승이 기기 도로 있어. 또 고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래 가서는 간다고 그러니까,
“나 갈란다.”

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 또 이렇게 ‘지끈지끈’ 하고 타라는 거여. 아 그래가지고 또 지끈지끈 눌러 앉아서 가게 할려고 그러는데, 그거 뭐 경정정정 살같이 오는데, 뭐 금방 오지 뭐. 가기는 멀리 갔지만. 빨리 와서 자기 어머니를 뵙고,
“약간의 감을 얻어 왔습니다.”

드리고. 그래 그 감을 갖다가 어머니 드리는데, 그 감이 그 하늘이 준 귀한 거니 있을 거여. 효자니까, 그 사람이 효자니까 하늘이 있게 한거지. 그래서 어머니를 감을 갖다드렸다 그런 얘기야.

그건 전설얘기 되지. [조사자 : 예. 효자비 같은 건 없어요?] 효자비 같은 건 없는거지. 아 이건 전설 얘기여. 전설 얘기. (민요를 요청하는 이야기 생략) 적었어 그것. 내가 헛 거시기 그거 호랭이야기, 호랭, 호랭이. 호랭이니까 그런 영물이라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효자를 알아보고 돕는거야.

[고안리 설화 2] 고안리 1화

고안리 아곡마을,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조덕원(85, 남) 1995. 6. 10.

등고자손과 올곡자손이 등돌린 이유

민속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성씨의 옥설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중에 채록한 것이다. 이야기는 성씨에 관계한 것으로 동성동본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그럼 박씨하고 뭐 있고, 그런 얘기 같은 건 없어요?] 아 그런 얘기가 더러 있기가 있지. [조사자 : 해 줘요?] 이씨끼리는 서로 혼인 안한다는 얘기도 있고. [조사자 : 왜 혼인을 안하는 거예요?]

광주이씨 동고 자손하고 저 덕성이씨 울곡 자손하고 안하지. [조사자 : 왜요?] 그게 사연이 있어서. 동고가 임진왜란에, 왜란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이후에 인자 왜란이 일어날테니까, 한국서 방심 방침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울곡 있다가 허는 말이,

“조지장사 기우명(鳥之將死 杞憂鳴)하고 새가 장차 죽을 때 그 우는 소리가 슬프고, 임(인)지장사 기우악(人之將死 杞憂惡)이라고 허더니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소리가 악하다고 허더니 이동고 장군이 죽을 때 그 말이 악하다.”

고. 그래서 동고 이정승이 돌아가신 뒤에, 땅을 헤치고 파내가지고 관을 빼냈어. 그래가지고,

“조상에 대한 원수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고안리 설화 3] 고안리 1앞

고안리 아곡마을,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조덕원(85, 남) 1995. 6. 10.

김해 김씨와 허씨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양천허씨 허쟁이에 대해 간략하게 구술하였다. 또 조사자가

성씨끼리 결혼하지 못하는 관계를 문자 구술해 준 것이다.

[조사자 . 또 같이 결혼 못하는 성 있어요?] 있지. 김해김씨하고 김해허씨하고. [조사자 : 아 본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본이 같은게 아니라, 김해김씨 김수로왕이 아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 허씨가 김해 저 수로왕한테 시집을 와서, 아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 증명을 뺏을 했다고 해서 증명으로 하나 주고.

이 성으로도 하나 가고, 저 성으로도 하나 가고. 그래서 모두 본(성씨의 잘못.)이 바뀌었지. 그래서 그들들은 혼인을 안하지. 김해허씨하고 김해김씨.

[고안리 설화 4] 고안리 19

고안리 아곡마을,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조덕원(85, 남) 1995. 6. 10.

아들 물으려는 효자(손순매아)

김해김씨와 김해허씨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는 좀 길고 서사성이 있는 이야기를 채록하고자 제보자에게 즐랐다. 그래서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는 재미있고 긴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하자 구술해 주신 것이다.

[조사자 : 옛날 얘기 해주세요. 재미있는.] 옛날 얘기, 옛날 얘기 밤낮 그런 얘가지. 뭐, 효자 얘거나 또 하나 할까.

한 사람이 효자인데, 그 사람도 어머니를 피시키고 사는데, 외아들로 사는데 아들을 하나 낳단 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품도 팔고 허고 인자 안에서는 맹(명)도 짜고 그래고 마침 반찬, 한 마리나 사다가 그 어머니를 헤드러려 치면, 그 애가 제일 갖다 먹고 뭐 자기 어머니는 죽게 생겼

거든. 그래 그 사람이 안되겠어서, 하루는 부인을 데리고,

“여보! 우리가 자식을 또 낳으면 자식인데, 저놈이 내가 뭐 애를 써서 뭇 좀 해다드리면 어머니꼴 저렇게 뺏어 먹으니 저걸 어떡하면 좋겠소. 저놈을 오늘 산에 짊어지고 가서 땅을 파 묻읍시다.”

[청중 . 어머니, 산에를?] 산에 갔다가 묻자는 거야. 근데 그 부인이 생각허니까, 괜히 그러다가 산자식을 갖다가 산에다 갖다 묻으면, 그래 도 이 남편을 말리기 어려워서 애를 업고서 산으로 갔어.

산에 가서 인저, 남편되는 사람이 양달에 가서 땅을 파니까, 땅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땅의 들레를 파면서 이렇게 캐봐 보니까 돌이 나오는데, 무슨 둥그란 이상한 돌이 석종이야. 석종. [조사자 : 석종요?] 돌로 맨든 돌종. 근데 이 석종을 꺼내놓고서 애를 거기다 묻자고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소리가,

“여보! 이 애를 묻자고. 내가 이 땅을 파고 이게 나왔는데, 이게 이 괴물이 나왔을 때 애를 여기다 묻지 말라는 거요. 도로 애(아이)와 종을 다 짊어지고 내려 갑시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듯해서 이 사람이 석종을 짊어지고 애를 안고 내려왔어. 내려와서 인자 그 석종을 마당에 보가 있는데, 보에다 이렇게 대고서 저녁에 치고 식전에 치고 석종을 친단 말야. 나무대기로다가. 예전 같으면.

석종이 소리가 여기서 쳤는데, 소리는 저기 전라도 경상도에서부터 나. 그래 종소리가 누가 들어도 이상스럽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나서 여기서 때리니까, 여기서 만나 동네사람들이 들어도 이상스럽고, 그 관청에서 관청에 있는 사람이 들어도 이상스럽고. 그 군에서 군수가 그 소릴 듣고서는, 군수가 들은게 아니라, 그 동네 정승이 있는데 듣고서구나.

“그 소리가 이상스러우니 이게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자.”

“게 아무게네 집에서 나는 소리라.”

구. 그래서 찾아가,

“이런 물건이 어디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아! 이래저래해서 산에서 됐다.”구,

“아 참! 괴물일세. 괴물. 물건이 괴물이 아니라 그 소리가 그 괴물인데, 이게 이거 우리 동네에서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라.”

구. 그 군수한테 가서,

“아, 게 이만저만한 일이 있다.”

구 그러니까. 그래 군수가 와서 사실을 해보니까 정말이거든. 사실이거든. 아 그래 군수가 생각한게 그런 효자가 어디 있나. 당장 나무도 갖다주고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서 그 어머니 봉양을 하게 하고 갔는데, 그럼 군수가 인저 그걸 나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뭘 내가 나만 알고서 이거 몇 가마, 몇 말 들어보내주고 뉘꺼냐!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얘기 해야겠다.”

고. 나가서 대통령한테 자세한 얘길 했던 말야. 군수가.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에(해) 올려라.”

그래 사실에 해서 올리니까, 대저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단 말야.

“아 그런 사람은 촌에서 있게 해선 안된다.”

그 사람을 서울로 끌어올려다가 집을 사주고 양식을 주고 말야 해서 그 어린애 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앙을 샅시키고 하니까, 뭐 금방 부자가 됐지 뭐. 그래서 그 어린애는 글을 가르치고 잘 해가지, 대번 정승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며 잘 살게 되었다 말여.

마음을 바로 잘 쓰면 그렇게 좋은 때가 오는 거야. [조사자 : 마음을 바로 잘 쓰면 좋은 때가 온다.]

[고안리 설화 5] 백봉 3왕

고안리 칠전마을,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김명재(70대, 남) 1995. 6. 10.

수수께끼 설화(계산법)

· 조사자 또다른 수수께끼를 해달라고 하자 모른다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수수께끼라며 해 주었다.

[조사자 :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해주세요.] 계산법과 수수께끼 그런 거 해봐? 옛날 저기로다 따지는 건데, 이게. 일원이야 일원. 일원이라 하면 알겠어요? 그 숫자를?

[조사자 : 일원이에요? 숫자요?] 응. 1원 2원. [조사자 : 예 알아요.] 일원이면 100푼 아니야, 1전 짜리가. 그러니까 1전 짜리지. 그러니까 1전이지. 그때에 10전 20전 30전 이렇게 해서 일원이지. 지금 천원 택이지, 말하자면. 10원으로 1000원, 1000원 짜리로 해도 되는데. 나는 저 1원 짜리가 빨르거든, 계산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1000원 짜리도 되어. [청중 : 몇 학년이여, 대학?] [조사자 : 4학년요.] 1원 짜리데 100푼이야. 결국 1원, 1전 2전 이니까 100푼이 되겠지. 알아 듣겠어? 그 1원을 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내가.

“저기 가게집에 가서 응, 오이는 3개에 1전, 참외를 한 개에 1원(전의 잘못), 수박을 한 개에 25전. 그 3가지를 100개의 숫자를 따져서 사고.”

[조사자 : 100개요?] 응 100개 숫자. 그 1원 이니까 100푼 아니야. 1원 이니까 100가지로, 아니 100가지도, [조사자 : 100개요.] 100개를 사야지, 3가지를 합해서. [조사자 : 오이랑 참외랑 수박이랑 합해서 100개요.] 응. 고것도 3가지가 100개. 1원이니까 100푼이지. 그게 드

러 맞아야 돼요. 1전이 남고 모자르고 그러면 안되는 숫자야.

[조사자1 : 오이가 얼마요?] 세개에 1전. [조사자1 : 참외는요?]
[조사자2 : 1원에 한 개.] 1개 그것을. [조사자1 : 수박은 얼마더라?] 수박은 25전. [조사자1 : 이걸 100푼으로 100개를 사라고요?] 100개를 사야지. 시 개(가지)를.

[조사자1 :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거야. [청중(김수산할머니) : 학생은 참 좋대이, 이 아저씨가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들은 알지도 못해. 참 점도 최고로 잘 봐.] 오이를 30전어치 안사도 30개 아니야. 그러니 그건 안맞는 숫자지. [조사자 : 1원을 가지고 이것을 100개를 사야한다 된다 말이에요?] 시 가지 100개 채우라니깐. 그러니까 수박을 4개 사면 벌써 1원 아니야. 수박만 많이 사가지고는 안되는 거여.

[조사자 : 어떻게 해야 되요?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계산으로 따질텐데, 계산법으로. [조사자 :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참 이런 제기. 그래 오이 72개면 얼마지? [조사자 : 24전.] 그렇지, 맞지. 수박 2개는? [조사자 : 두 개, 50전이요.] 50전. 24전 합해야지. [조사자 : 76전이요.] 또 숫자는. [조사자 : 아니야 74전이요.] 숫자는? [조사자 : 74개.] 그러면 참외 집어 넣어봐. 몇개 들어가나? [조사자 : 26개.] 그럼 돈맞고 숫자 맞잖아.

[고안리 민요 1] 고안리 1앞

고안리 아곡마을,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조덕원(85, 남) 1995. 6. 10.

한 글

조사자들은 제보자에게 민요 중에 노동요를 청하자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경계

가 될 수 있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런데 조사자가 민요를 요청하자,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 한다고 하였다.

[조사자 : 농사지을 때?] 농사지을 때 하는 소리야 뭐 그까짓 소리여. 그까짓 농사짓는, [조사자 : 아니면 다른 소리나 즐겨 부르시는 소리나 아시는 거?] 그래.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내가 올해 칠십 일을 누워 있었다. [조사자 : 많이 아프세요?] 허리가 아파서.

볼수록 아름다운 글자를

긴 역사 오랜 전통 즐기리

그 속에 모든 이치가 들어 있고

거룩한 세종대왕 한글 펴시니

누구나 쉽게 배우며 설친하자

세상 밝혀주는 해가 들었네

세계에 글자 중에 으뜸이로다

한글은 우리나라 문화의 터전

한글은 우리나라 민중의 근본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길러보세

것도 노래 한 마디 한거지. [조사자 : 이게 무슨 노래예요.] 한글 노래지. [조사자 : 한글 노래.] (조사자의 신상에 대한 대화 생략) [조사자 : 저희는 어렸을 때 배울 때 할아버님이 지금 부르신 곡조랑 다르게 배웠어요.] 음. 그렇지.

[고안리 민요 2] 고안리 1번

고안리 아곡마을,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조덕원(85, 남) 1995. 6. 10.

대한민국

여러가지 민요를 요청하자 해주신 것이다. 제보자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노동요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노래는 학교가 아닌 서당에 다닐 때 배웠다고 한다.

[조사자 : 아시는 노래 있으시면 또 하나 해주세요.] 그럼 노래나 한마디 더 불러볼까. 그럼,

동방에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에 옥토낙원
완전 통일 이루어서
영원한 자유평화
태국기 휘날리면서
벽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꽃피는 마을마다
고기 잡는 해변마다
공장에서 탄광에서

생산되는 영업 봉투로
 푸르른 저 거리에는
 작은 유흥노래 소리
 늠름하게 나가면서
 새세대의 위해 꺾어보세

[고안리 민요 3] 백봉리 3앞

고안리 칠전마을,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김명재(70대, 남) 1995. 6. 10.

모심기 노래

백봉리 노인정에서 채록한 뒤에 다시 고안리 칠전 마을에서 채록하였다. 이곳에는 남녀 6명의 청중들이 있는데, 김수산 할머니가 이야기판을 주도하면서 제보자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을 청하였다. 36년 전쯤에 모심을 때 부른 것이라고 한다.

[청중 : 모심을 때 노래하는 거?] [조사자 : 그런 거 아세요?] [청중 : 이 아저씨보고 해달라고 해 줘.] [조사자 : 불러주세요.] 뭐를.

이 논배미 얼른 심고
 아랫논 뱀미로 넘어가자
 여기저기 심다더라도
 방방골골 심어다오

그거 해줘. 허참. 별. [조사자 : 해주세요. 박수쳐야 돼나?] 해 줘?

여기서 하나로구나
 저하 저기도 또 하나.

8. 백 봉 리

[마을 개관]

백봉리,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1995. 11. 11일과 17일

백봉리는 원래 양지군 고안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백동, 죽동, 중상리, 봉리의 일부와 박곡면 청계리 일부를 합쳐, 백동과 봉리의 글자를 합하여 백봉리라고 하여 용인군 외사면에 편입되었다. 면의 소재지인 백암리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 광혜원을 지나가는 국도가 있어 교통이 매우 편한 곳이다. 이곳 백봉리는 논농사를 주 생업으로 하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평화스러워 보이는 평범한 마을이었다.

백봉리에 발을 디딘 조사자들은 먼저 노인회관을 찾았다. 노인회관은 쉽게 찾을 수 있었으나, 방문하는 날이 마침 5일 장이 서는 날(1일, 6일)인데다가 동네 결혼식이 있어서 동네 어른들이 모두 백암리(읍내)에 가시고 안계셨다. 그리하여 동네 가옥을 방문하면서 채록하던 중 노인회 회장님의 손녀를 만나 회장님댁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도 별로 소득을 얻지 못하고 다음 17일 다시 방문하여 설화를 채록하게 되었다.

[백봉리 제보자 1]

백봉리 1호

이규창(72, 남)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1995. 11. 11.

제보자는 인자해 보이고 푸근한 꼭 '전원일기'의 최회장님과 비슷한 인상을 풍겼다. 충남 온양에 선산이 있다는 제보자는 안성군 고산면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고산저수지의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어, 이 백봉리로 이사 와서 약 40여 년간 이 고장에서 생활하셨다고 한다. 백봉, 양계리 노인회 회장님으로서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경로당에 많은 신경도 쓰고 계셨다. 조사 시간이 점심 시간이라 제보자의 집에서 점심도 먹게 되었다. 다음의 설화 4편은 제보자가 마을 친구분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라고 하며 말씀해 주셨다. 내용은 주로 지명유래와 가문에 관한 것이었다.

제공자료 : 설화 1 ~ 4.

[백봉리 제보자 2]

? (? , 여)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1995. 11. 11.

첫 제보자의 태에서 점심까지 얻어먹고, 마을로 장소를 옮겼지만 어른들이 몇 안계셨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중 파를 다듬고 계신 제보자를 발견하였다. 굉장히 숙그러워 하며 빠시다가 우리의 독촉에 못이겨 끝내 노래 한 자락을 하셨다. 이 노래는 할머니께서 17세에 이곳으로 시집오신 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부르던 노래라고 한다.

제공자료 : 민요 1.

[백봉리 제보자 3]

최수협(70, 남)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1995. 11. 11과 17.

제보자를 처음 만난 것은 11일날 할아버님 세 분이 계시다는 노인회관을 찾아갔을 때이다. 노인회관에는 이규창, 최수협, 백선기 할아버지가 계셨다. 백선기 할아버지가 마을 산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자 제보자는 이야기의 근거성을 가지고 한참 구박을 하였다. 그래 제보자에게 부탁하자 '무식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면서도, 실제로 경험하였던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이곳의 분위기가 더 이상 채록하기 어려워 다음을 약속하고 물러나왔다. 17일에 다시 방문하여 노인회관을 찾았지만, 역시 토요일이고 5일장이 열리는 날인데다가 동네 결혼식이 있어 이야기를 할 어른들이 안계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보자를 비롯한 어른들의 협조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5 ~ 6.

[백봉리 제보자 4]

백선기(80, 남)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1995. 11. 11과 17.

제보자를 처음 만난 것은 11일날 할아버님 세 분이 계시다는 노인회관을 찾아가서 었다. 노인회관에는 이규창, 최수협 할아버지와 제보자가 있었다. 첫날에는 이곳의 마을의 제사인 동제(산신제)를 이야기 하고서 최수협 할아버지에게 근거를 들어 반박하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물러났다. 17일에 방문하여 조사자가 이야기를 부탁하자, 앞에서 용 이야기가 나오자 옛날 고향에서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부산이 고향으로, 약 10여 년 전에 백봉리로 이사를 오셨다는데, 아직도 경상도 말투가 많이 남아 있었다. 구술한 이야기들은 고향 근처에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 한다.

제공자료 : 설화 7.

[백봉리 제보자 5]

고담가(? , 남)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1995. 11. 17.

앞 이야기가 끝나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자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담가'라고 자처하며 이야기를 해주셨다. 고담가라고 자처하신 제보자는 이곳 노인정을 자주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나왔다고 한다. 고담가를 자처하는 것만큼 전에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야기도 조리있게 잘 해 주셨다. 그런데 고담가라는 자존심이 강하신지 다른 이야기를 청하자,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거부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8.

[백봉리 제보자 6]

인구태(? , 남)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1995. 11. 17.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부탁하는 도중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제보자가 '명당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 판에 끼어들었다. 제보자는 이야기를 무척 재미있고 자세하며 정성스럽게 구술하여 주셨다. 외모에서도 안경을 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보였다. 알고 계신 이야기가 많다는 중에 세개를 해주었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9 ~ 11.

[백봉리 제보자 7]

제보자1(?, 남)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1995. 11. 17.

조사자들은 노인회관에서 채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려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밖에서 술을 한 잔 드시고 갑자기 들어오신 제보자가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며 우리의 갈 길을 붙잡았다. 얘기하실 때 매우 진지하고 열심히 하여서 우리들의 넋을 잃게 하였다. 하지만 설화의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것이었다.

제공자료 : 설화 12 ~ 15.

[백봉리 제보자 8]

제보자2(60대, 남)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1995. 6. 10.

조사자 일행이 백봉리 노인정에 들렀을 때는 7명의 청중들이 앉아서 담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사 나온 목적을 말하자 이곳에 별 이야기가 없다며 조사자들의 방문을 귀찮아 하는 분들도 있었다. 이때 제보자가 나와 고향인 옥산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판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며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자, 다른 분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채록하였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채록에 실패하고 다른 곳의 이야기꾼에 대한 제보를 받고 떠났다. 제보자가 들은 이야기는 고향인 옥산리에서 들었던 것이라 한다.

제공자료 : 설화 15 ~ 16. 민요 2.

백봉리,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이규창(72, 남) 1995. 11. 11.

웬수골의 유래

옛날에 이곳으로 답사를 온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여 주었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이 마을에 노인들 사이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지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아까 그 산골, 계곡?] 거기가 인저, 거 대덕산(마을에 있는 산)의 웬수골, 웬수진다는 그 웬수지? [조사자 : 아.]

거, 인제 뭐냐면 임진왜란 때, 거기 인저 그 부락민들이, 평민들이 거 가서 그 골짜기 가서 굴을 파고 많이 숨었다던데, 그걸 누가 알려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알려줘가지고선 그거가 아주 몰살을 했걸랑. 그래서 그 웬수골이라.

거 그렇게 지명이, 지금까지도 지명이 유래가 되 왔어요. 나도 그거들은 전설이지, 확실한 거는 내가 증거는 못낸다고.

[백봉리 설화 2] 백봉T 1와

백봉리,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이규창(72, 남) 1995. 11. 11.

아곡마을의 유래

또 다른 이야기가 없느냐고 묻자, 앞의 이야기와 같은 지명 유래를 구술하였다.

여기는 지명이 뭐냐면, 옛날 이조 때 여기가 양지군이었어요. 양지. [조사자 : 양지, 지금 양지군이 있어요?] 양지군이 읍어지고 이제 용인군이 돼, 양지 양지가 내사면이 저기 고속도로 인타체인지에서 이렇게

돌아나오는데, 그 쪼그만 소도시가 있잔, 거기가 양지면 소재지지. 거기 내사면 면이라고 해. 거 지명은 양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양지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고안면이라고 돼 있다고, 이조때.. [조사자 : 지금요? 외사면?] 외사면으로 되어 있지만 고안면이렇게 읍어가지고.

아곡이라는 그 부락이 있는데, 그 '아'자가 뭐냐면 거 옛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면소재지. 그런 데가 있던 데라고 해가지고 아곡이라는 지명이 붙었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서울대 학생이 그 걸, 지명을 죄 적어가지고 왔더라고. 어디서 알았는지. '아곡이라는 데가 어디냐?'고.

[백봉리 설화 3] 백봉T 1월

백봉리,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이규창(72, 남) 1995. 11. 11.

백동마을의 유래

열녀 효자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없다고 하였고, 다시 장군이 태어난 이야기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네의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구술하였다.

[조사자 : 이 백봉이라는 이름도 그냥 지신 것이요 아니면 전설이 있어서 백봉리라고 했어요?] 그래 인저 거 백동(柏洞)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백동. [조사자 : 백동.] 백이 무슨 자냐면 잣나무백자. 나무목변에 흰백한 자 있잖아요? 그게 인제 잣나무백자결랑. 그래, 옛날 잣나무가 많아서 백동이라 백동이라 그랬는데, 그 백자를 따고 인자, 봉우리봉자, 그래 백봉리라 그랬지.

[백봉리 설화 4] 백봉T 1와

백봉리,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이규창(72, 남) 1995. 11. 11.

이성계의 왕위에 오른 묘자리

조사자는 이 마을의 내력과 인구와 가구수를 조사한 다음에, 박문수나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다. 이때 제보자는 온양에 선산에 있다며 시조가 이성계의 형인 천계라고 말씀하면서 아래의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이 이야기를 끝마친 후에도 자신의 집안 내력을 계속하여 이었다.

용변을 보시던 우리 한, 웃대조 할아버지가, 탈상이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저에게 그 자리를 가르쳐 주실 수 없느냐?”

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거 아니라.” 고.

“이 동자승이 저기, 저기를 가르키면서 얘기를 했다.”

고. 그 계속 들어가서 인자,

“좀 아리켜 달라.”

고. 그런게시리,

“저 자리에다 무신 장이로(좌향 :묘자리를) 쓰며는, 몇 대 후에 왕이
날 것이다.”

그래 거기다 갖다가 인자 부랴부랴 옮겼지 다. 그 장군봉이라. 그래,
그 산소가. 거 갖다 모셨는데, 고손에 가서 고조 할아버지가 거기 묻혔
는데, 고손에 가서 이성계가 태어났다고.

인제 우리는 거기 산소까지 가보고, 교통이 그렇게 좋아도, 산소 올라
가는데 한 2킬로를 사뭇 산을 걸어 올라가야 돼.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그렇게 평탄하고 해, 산소는 잘 모셨다고. 현대식으로 모시지 않았어도
옛날 구식으로 모셨어도.

그렇다고 무슨 호화롭게 무슨 뭐 장군석을 해 시웠거나 무궁화석 해 시웠거나 막 이런 것도 하나도 읊고. 상들도 읊어요. 참 봉만 그 남쪽에 막들로 갖다가 이렇게 쌓고. 그래 참 김소하게시리 해서는 했어. 지금 대통령 지위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 있는 것 읊는 거 다 해 시웠을 것인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그냥 호화롭게 산소를 꾸미는데, 옛날에는 내가 정승 벼슬을 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했지, 다른 것은 할 수 읊어질랑. 또 이 저 뭐냐 능이 아닌 쪽은 이 들레석은 못했어요, 능이 아니면. 그런데 지금은 돈만 죄 해 세웠잖아요?

우리는 천계 할아버지가. 둘째분이며, 태조대왕이. 천계 성계 그렇게 들, 우리는 천계여. 형님의 파손여, 우리는. 그런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큰 집이지, 형님이니께.

[백봉리 설화 5] 백봉리 1와

백봉리 노인회관,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최수협(70, 남) 1995. 11. 11.

반만 용이 된 조비산 무덤

백선기 할아버지가 동제에 관해 말씀을 끝내자, 제보자는 말에는 근거성을 가져야 한다고 한참 구박을 하였다. 그러면서 '근거성 있고 마을의 전설이라는 면에서 이렇게 얘기지'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조비산에 대해서?] 조비산이라는 데는, [청중 : 그 장평리지.] 저 장평골인데, 여기서 보여, 산은 보이는데 우리 면내지.

여기 개울 건너 동넨데, 거기는 이제 보면 산이 이렇게 아주 들로된 뽕죽한 산인데. 이 맨 위가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람굴 옆에 이렇게 쪼빏한 바위가 아주 병풍마냥 좌 깔린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생

졌는데, 거기 무슨 그림도 이렇게 있고 그러드라구. 그런데 고 밑에다가, 우리 인저 어려서 인저 고 밑에 학교 땡겼는데, 보면,

“거기다 누가 묘를 쓰면, 죽은 사람 갖다가 묘를 묻으면 백 일 이내에 승천되서 하늘로 올라간다.”

는 거야. 용이 되서. 그런데 백일 전에, (송장을 몰래 묻고 송장이 용이)되기 전에, 그 산에서 보이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개고 닭이고 미쳐서 죄 울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인저 어린애들도 병이 나고 뭐 이래서. [조사자 : 거기다 묘를 쓰면요?] 누가 송장 갖다가 묻었다면 그런 전례가 났어. 우리 학교 땡길 적에는, 나는 인자 학교 다닐 적에는 어려서 그 봤는데. 누가 묘를 갖다 썼다고 난리가 났어. 하여간 많이 파헤쳤어. (청중이 끼어들어 말림) 그런데 그때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고. [청중 : 묘가?] 그래서 가보니께는 ‘그랬다’ 그래서, 우린 그 송장은 못봤는데, 그 거 송장을 파냈는데,

“반은 에 용으로 변했고 반은 안변했다.”

뭐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가. 보진 못했지, 들은 풍여. 그런 풍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말이야. 그런데 그게 예날부터 내려온 풍문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 사실은 가 보면, 그런 거는 역사적인 것이니게. 그런게 잘하면은.

[백봉리 설화 6] 백봉T 1뒤

백봉리 노인회관,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최수협(70, 남) 1995. 11. 17.

조비산의 유래와 그의 명당

전(11일)에 채록한 내용이 너무 미비하여 17일 수업이 끝난 후 내사면 백봉리를 다시 방문하였다. 전에 채록한 장소인 노인회관을 찾아 채록하였지만, 역시 토요일이고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는데다 동네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안계서 애를 먹었다. 이곳에서 태어난 제보자는 앞의 <설화5>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구술하여 주었는데, 차이가 조금씩 있어 수록하기로 한다.

[조사자 : 아까 조금 말씀하신 이야기, 서울까지 쳐 못가서 했다는 얘
기요?] 응 그런게 그 우리는 들은 얘기니까 모르지만.

그 옛날에 인자 대까지 서울이 도읍지로 될 적에, 그게 인자 그 산도
그 도읍지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벌써 이미 자기는 늦었고, 서울에 이제
삼각산이니 무슨 북악산이든지 먼저 도착해가지고 자리잡고. 여기는 가
다가 늦어오니까, 거기는 먼저 도착한 산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채 못가
고 돌아섰다. 그래서 서울을 반대로 해서 저쪽으로 인자 문양 두고 섰
다. 이저 그래.

[조사자 : 그것 주비산이라고 했지요?] 응. 그게 주비산, 그런 산인데
이차 그 산에 그런 유래가. 그런게 옛날에 산소를 쓸적에 좋은 산소가
있잖아. 거기다 쓰며는 뭐 정승도 나오고 무슨 그것도 뭐 나오고. 그런
유래를 가지고 옛날부터 우리는 그런 저기를 주었잖아.

그래서 산자리를 보러 대니는 사람이 많고 현데, 그 거기다 인자 좀
산소를 누구든지, 묘를 갖다 묻기만 하면, 마 백 일만 잘 지내가면 그
뭐냐고 그러나, 뭐 해서 참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 집
안이 잘되고, 뭐 해서 탐내는 자리인데.

인제 거기다가 산소를 쓰기만 하면 거기서 보이는 동네, 그 보이는 동
네는 전부 재난을 입어요. 개가 미쳐서 공, 저기를 파지요. 그냥 아무
때나 떡 국이 미친 사람처럼 울고 인자 동네 애들 전부 병이 나서 저기
를 허고, 재난이 나니까 예 그걸 못쓰게 하는데.

누가 인자 몰래 갖다 썼는데, 그게 그렇게 되니겐 인자 여러 사람들이
쫓아올라 갔거든. 그 이우지 사람들이 전부 쫓아 올라가서 파내고 그랬
다고. 국민학교 대닐 때, 그런걸 판다, 학교 조금 밑에 산 밑에 학교이

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한 십여 리 됐지. 거기가 인제. 그런데 그때는 학교가 거기 밖에 읊었으니까, 그때 걸어 거기 다닐 때, 인자 쪼그만 애들인게 들어.

[청중 : 시상 읊이 바람이 불어도 거기 앉아 있으면 바람이 안불어.]
[조사자 : 아 그 주비산이에요?] 영 묘자리. [청중 : 돌들이 이렇게 막 병풍처럼 서 있고.] 영 서 있고.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조사자 : 새겨져 있어요?] 응.

[백봉리 설화 7] 백봉T 1뒤

백봉리 노인회관,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백선거(80, 남) 1995. 11. 17.

용을 승천시킨 통도사 스님

제보자는 11일에 이곳에서 동제에 관해 구술하여 주었는데, 이번 채록에서도 협조적이었다. 제보자의 고향은 부산으로, 약 10여년 전에 이곳 백봉리로 이사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곳에는 없고, 양산에 있는 용 이야기라면서 해 주신 것으로, 고향 근처에서 자주 들었던 것이라 한다. 제보자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술하였는데, 아래자 전설을 묻자 용에 대한 것이라 이 전설을 구술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 경상도 지방에는 말이지. 이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통도사라고 있어요. 양산 통도사. 거기 전설을 하나 이야기 해 드릴까?

거기는 용 용이 아홉 바리 있었는데, 못이 큰 못이 있었는데 말이지. 그걸 승천시키기 위해서 그래 인자 거 스님이 말이지, 거기서 한 10년 동안을 이래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 용이 눈에 보이더라고.

어 그래서 인자 용이 눈에 보이자, 그 용을 승천시켜서 하늘로 올려갔다. 그게 인자 양산 통도사의 전설인데. 에 그런 것도 괜찮아요?

[백봉리 설화 8] 백봉 1뒤

백봉리 노인회관, 강현모,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고담가(? , 남) 1995. 11. 17.

성계 작대기의 유래

앞 이야기가 끝나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자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담가'라고 자처하며 다음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고담가라고 자처하신 것만큼 전에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야기도 조리있게 잘 해 주셨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벌어먹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이곳 노인정 세 달만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고담가라 자존심이 강하신지 다른 이야기를 청하자,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거부하였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 향교(향교)가 있잖아. 시방 향교, [조사자 : 향교요?] 응. 향교에서 예전에 선비들이 저거 봉 작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계 작대기라고 그래. 성계. 성계 작대기라고. 그러면 왜 성계란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이성계를 말하는 거여. 이성계. 성계 작대기.

옛날에 향교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동네에서 향교에서 큰 돼지를 사가지고 장정 네 명에서 앞뒤로 두 명 세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돼지를 앞발 뒷발을 묶어가지고, 그 긴 작대기로 꿰어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향교, 그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아요.

“요번에 이 향교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큰 돼지를 잡습니다.”

하고, 그 돼지를 메고, 그 작대기를 메가지고 향교 동네를 한 바퀴를 도는데, 그걸 보고 성계 작대기라 그래요. 성계, 이성계 작대기.

이제 왜 그런고 하니, 옛날 이태조가 예-, 그 고려 왕씨들을 아주 학대를 하고, 아주 고려 왕씨들을 아주 불이익을 주고, 오만 언론 탄압, 갖은 탄압을 다하니깐 개성에서 다 뿔뿔히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그 여론이 이제 아주 나쁘게 돌아가요. 이 태종 방언이 하고 같이 되야. 음 그렇게 합작으로 했거든. 왕씨는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서.

그러니까 그저 그 여론이 아주 나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에 그 지금 식으로 여론을 다시 이, 그 자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이때 끝내(까지)는, 고려 왕씨들을 이 이씨 조선이 불이익을 주고 탄압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왕씨를 특별 대우를 하겠다. 에, 앞으로 이제 왕씨들을 절대 탄압을 않고 에 특별 대우를 하겠다.”

그 대신 뭐, 어떻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고 하니,

“왕씨들이 거 개성으로 다 그전과 같이 모이기만 하면은, 뿔뿔히 헤어졌는데 모이기만 하면은 논도 주고,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의복 의복, 음식도 다 준다.”

고. 방을 써 붙였어요. 아 왕씨들이 이성계한테 에 숨어다니고 왕씨 행세 못하는 사람들이,

“아 이제는 이성계가 정신을 차리고, 아 이제 우리 왕씨들을 인간 대접을 해 해주겠다고 이런 정신이다.”

이런 말을 듣고 다시 개성으로 뿔뿔히 모아 들어.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십 호, 삼십 호, 한 이삼백여 호가 다시 개성으로 모여들었던 거야. 이 왕씨들이. 그러니까 개성은 전부 모이게 해놓고는, 하루는 전부 다 나오라고 그래. 집 주고, 밭 주고, 은 주고, 논 주고 험다고 그래. 전부다 나와.

그러더니 전부 개성 앞바다로 데리고 나가요. 개성 앞 바다로 나가가지고 배를 태워. 큰 목선 배에다가 한 삼백 명을 태웠어요. 한 백오십 명에서 삼백 명 태워가지고. [조사자 : 개성 앞바다요?] 응. 개성 앞바다에 태워가지고. 그 왕씨를 개성 앞에 배를 타고 저 황해로, 망망대해 황해로 요렇게 배를 저었고, 지었(저어)고 가요.

그런데 가다가 난데웁이, 그 인술자들이 있잖어. 그 인술자들한테다가 난데웁이 노란띠를 쥐요.

“노란띠를 머리에 두르라.”고 그래.

“그 뭐냐?”

고 물으니까,

“우리 인솔자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게 되 있다.”

고 그러니까. 고려 왕씨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알고, 다 보통 그렇게 알고 무심히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저 황해 앞바다, 망망대해 망망대해 넓은 파도가 넘치는 저기를 가더니, 난데없이 조그마한 배가 저쪽에서 하나 나타나. 에 배가 나타난다 이기야? 아, 그러더니 앞에 잉 산도 안 보이고 넓디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그마한 배가 나타나는데, 난데없이 인솔자들이 거 왕씨 가족이들 타고 온 배를 도끼로 구멍을 내버려. 뭘 말인지 이해가 가지 잉?

도끼로 구멍을 내부려요. 아, 그러니까 아이 기냥 왕씨들이 우왕좌왕 우왕좌왕 해가지고. 그런데 왕씨들이 물이 들어오니까 왕씨들이 전멸하는데, 전멸할 수 밖에. 망망대해 푸른바다가 넘치는, 크 말입니다 거, 거 넓은 바다에서, 왕씨들이 그러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 아낙네들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헤엄쳐 가지고 저쪽에 빈 배로 헤엄쳐 ‘살자’고 가.

그러니까 그쪽 빈배에서는 미리 젊은 청년들이 쇠망치 같은 거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헤엄쳐 오는 사람들을 다 건진게 아니고 머리 머리에 노랑 띠 두른 사람만 끌어올리고, 저 젊은이, 머리에 노랑띠 두른 인솔자만 끌어올리고. 난중에는 망치 가주고 온통 머리를 쳐가지고 다 죽어버려. 뭘, 말인지 이해가 가지? 죽어버려서. 죽어버려서.

이렇게 잔인한 짓을 이씨 조선이, 이태조 이방 태종하고 아들하고, 태종하고 이태조하고 잔인하게 했어요. 이 소문이 전해지니까,

“이태조도 음, 돼지나 같이 앞뒷발 한 발 묶어가지고, 응 돼지와 같이 앞뒷발을 묶어가지고 향교 지낼 적에, 이렇게 말야 돼지를 묶어가지고 돌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나쁘다.”

그래서 향교에서 돼지를 잡을 적에, 앞뒷발 묶어가지고 가운데로 꿰어

가지고, 그 드는 그 작대기를,

“성계 작대기다. [조사자 : 그 유래가 그렇다고요.] 응. 성계 작대기다.”

그렇게 이성계 작대기라는, 여기서 뭘 뜻이지도 몰라. 뭘 말인지 알지? 응 뭘 말인지 알지. 옛날의 군사 문화와 지금의 군사문화는 이렇게 무지무지 탄압을 해도 입도 빙긋 못해. 그래도 이씨 조선이 언론 탄압을 해서, 이것 선대종일 줄 알고 유명한 뼈대 있는 집안으로 알지. 이것 까맣게 몰라요. 까맣게 몰라.

[백봉리 설화 9] 백봉 1뒤

백봉리 노인회관,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인구태(?), 남) 1995. 11. 17.

만인적덕의 명당

다른 제보자를 찾는 중, 옆에서 가만히 보시기만 하던 제보자가 ‘명당 이야기를 아신다’면서 선뜻 이야기에 응해 주셨다. 제보자는 이야기를 무척 재미있고 자세하며 정성스럽게 구술하여 주셨다. 외모에서도 안경을 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보였다. 알고 계신 이야기가 많다는 중에 세 개를 해주었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그러니까, 음- 형제간에 인저 참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아우되는 사람이 아주 지리에 능한 사람이여. 그러기 때문에 인저 자기 부모상을 당해도 인저, 묘자리 걱정을 앓고 있었던 말이여?

아, 그런데 인저 아우가 한 번 출타하게 되면은, 일 년도 좋고 이 년도 좋고 안들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저, 인제 부모상을 갑자기 당했단 말이여. 당했는데, 그 아우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부모가 상을 당하면은, 그냥 갖다 저 산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산에다 그냥 묻는게 아니고, 채비비니 뭐, 구비비니 해가지고서 임시 그 거 산소를 모셨다가, 이렇게 저 움막처럼 해놓고, 거 들 것처럼 해놓고 거기다 올려서 그렇게 모셨다가, 육탈이 다 된 다음에 삼년, 삼년상이 지나면, 그 인저 그 골만 유골만 갖다 모셔놓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인저 그렇게 인저 해놓고선, 삼년, 인저 삼년상 삼년이라는게 옛날에는 일년 이년 밖에는 안돼요. 거 아버지가 돌아가고, 일년이면 소상일 지나고, 이년, 만 이년이 되면 인자 대상으로다 탈상이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인저 부모 인저 상을 지내게 되는데, 아 인저 삼년이 다 되가지고 이 아우가 돌아오지 안해요. 출타해 가지고서, 지관인데.

아, 아무리 인제 돌아오지 않해서, 인저 한 몇 일 남지 않았어요. 인저 부모 탈상일이 몇 일 남지 않았는데, 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 아마 한 삼 월쯤 됐던가 봐요. 봄날인데, 아주 햇볕도 따듯한 그런 봄날인데, 고로 그 근처에 가서, 그 지관이 있는데 거 가서 인제 부모 모실 자리를 잡을라고, 잉 아 거기를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인데, 옛날에 이것 아시나 몰라도 그 방가시라고, 저 상 상옷 입고 방갓 쓰고, 이렇게 삿갓같이 생긴 거 쓰고, 어 다니는 것 봤어요? 그거 쓰고서 인저 가는 중인데, 저 눈을 거 들을 건너가는데, 그때 상당히 날이가물었던 몬냥이야.

가는 중인데, 이 눈이 사뭇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는데, 이게 저 위에 물건 물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패여가지고 웅덩이가 지거든, 그게. 그런데 길 밑이 인저 거 바로 눈이 있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 물이 거즘다 말라가지고, 그냥 가물어 가지고서 논도 말라라고 그런다.

고 웅덩이가 우뚝하게 되 있는데, 거기 인저 거 보니까 새우, 송사리, 이런 것이 참 수 만 마리가 금방내 말라죽게 생겼단 말이야. 아주 불쌍하게 생각해서,

“아, 이거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인저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손으로 떠다가 앵길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에 쓴 방입을, 거 부모 인저 거 거상인데 거 방입을 벗어가지고서 거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서 성 갖다가 인자 물많은 디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물 많은 디다가 갖다 놓고서, 한 번이 못가지고 가고서는, 또 와서 인저 담아서 갈려고 하는 차인데, 그때 마침 그 고을 원님이 어디 가는 도중이었어요. 가다가 아 이걸 보니까 어떤 상제가 고기를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 저놈 잡아오라고. 저 꽤썸한 놈! 저 어디가 있느냐고. 부모 응 거상을 벗어가지고선 저 고기를 잡는다.”

고. 아 그래 잡아다가 풀어놨단 말이여. 앞에 풀어 놓으니까는, (웃음)

“아이, 그런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야키야키 해서...”

그 아 인자 우무 얘기도 전부 다 했어요.

“내일 모래가 인저 탈상인데, 부모님 인저 모실 자리를 지금 잡으러 저 지관한테 가는 중인데, 아 가다 보니까 이 새우, 아무리 인저 말 못 하는 뿔이라지만, 새우 이런 거 송사리 이런 게 수 만 마리가 죽게 생겨서, 곧 죽게 생겨서 이걸 거 인저 물 있는 디에다가 잉겨서 놓는, 살려 줄라고 그런 뿔이라 했습니다.”

그렇단 말이야. 아, 그러다 보니까 잉긴 자리가 있어요. 물이 막 줄줄 흐르고 해서, 조금씩 흘러가지고서.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만인적덕이로구나!”

많은 사람을 구했다는 게 인저 만인적덕이라 그렇게 생각허구선,

“그렇다면은 저기 저 건너, 저 산 밑에 저 덩굴 저 저기 거기 좌향을 어떻게 해서 거기다 써라.”

거, 아마 거 원님도 그 지리에 어느 정도 알던 모양이여? ‘거기다 써라’ 하구선 그냥 인저 갔단 말이여? 그래 인저,

“예, 그렇겠습니다.”

하구선. 집이 돌아와구선, 인저 뭐, ‘원님이 다 쓰라’고 했으니깐, 녀의 산이라고 해도 상관없거든, 옛날에는. 그런데 거기다 쓸 예정을 하고선 있는데, 아 인저 아우가, 내일이 인제 거시기인데 오늘 적(저녁)이 돌아왔어요. 아우가 돌아왔단 말이여. 아 그래 인저,

“아, 니가 인저 돌아오지 않을 줄 알고서, 내가 아무 디나 그냥 잡아 쓸라고 저 어디 저기 어따 정했다. 저기 저 아무디 어디 어디.”

어디라고 하면 알 거 아니예요?

“저기 저 산 고리 어디 어따 고기다 정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거기는 안됩니다.”

이거야.

“왜 그러냐?”

“거기는 만인적덕을 해야 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버님이 나 우리 무슨 만인적덕을 했습니까 이거여. 못했으니까 그거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거야.

“아, 그러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니가 뭐 오지를 앓고 그래서 내가, 아버님야 어디 인제 첫 그저 비에 안젖은 그런 자리라도 쓰기 위해서 그 지관을, 지관한테 쓰도 쓰, 인자 저 알아보러 가다가 이런 일이 약하약 하 한 일이 있어서, 그 원님이 고기다 모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써도 됩니다.”

이것여. 그것도 내내 활인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려준 인명을 구한 거니까. 그래서 그 그 자리에다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조사자 : 그러니까 지관이었는데.] 지관이었는데. [조사자 : 그 민물들을 구해서 만인적

덕을 해갖고 아버님 묘자리를 거기다 구했다.] 앵. 그렇지. 그 자리는 만인적덕을 헌 사람이나 들어가자 아무도 못들어가는 자리여. 나이가 있어서. 그 얘기여.

[백봉리 설화 10] 백봉기 1뒤2앞

백봉리 노인회관,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인구태(? , 남) 1995. 11. 17.

며느리 마음을 고친 재치있는 효자

조사자가 앞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이야기가 없느냐' 묻자 그만하자고 하였다. 그래도 조사자가 조금만 더 해달라고 조르자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난듯이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참 어느 농촌에 아주 참 지내는 정도는 아주 뭐 넉넉하게 잘 사는 집안이야. 한 저 농사도 짓고, 인자 한 백여 석 짓고 하는 집안이니까 아무 걱정없는 집안인데. 인제 부모님 인제 환갑 진갑 다 지난 부모님 모시고, 한 사십대 되는 사람인데. 자녀 간에 한, 옛날에는 낳는대로 다 키웠고 길렀으니까.

한 뭐 오류명 이렇게 인자 길르는 사십대 사람 그런 사람인데. 아 인저; 그 인명이라는 것은 뭐 오래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인저 돌아갔단 말이야. 갑자기 인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돌아가서 장사를 잘 지내고, 인자 지내는데. 아 인자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적에는 뭐 아무 일없이 잘 지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고 보니까 인제 아버님 혼자 남았잖아요?

아, 그런데 인저 그 인자 아버지되는 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이 아니라 한 일 년 쯤 지났는데, 모든 게 며느리가 하는 것이

마누라 있을 때만큼 안좋지 았단 말이야. 뭐, 밥도 제대로 제 때 주지도 았고. 농 물론 농촌이니까 인제 바쁘고 하니까, 일꺼정 하다 보니까 그런 뭐시도 있긴 있을 꺼 아니야? 그런디 아, 인저 그 아버지 생각에는, '아이고 며느리가 너무나 잘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인저 거 들어가고 인저, 또 인저 마누라 또 죽은 물론 저 거시기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저 무시돼가지고서 사람이 약간 좀 걱정이 되는 찰라인데. 아! 며느리도 그렇게 잘못하지. 그렇게 된게, 지금 현실도 그래요.

그런데, 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네, 며느리한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하고 잘못한다.”

고 말이야.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아 인저 며느리가 가만 있을 수가 읍지. 또 자기는 별로 잘못하는 것이 읍는데, 아버님은 자꾸 잘못한다고 막 그냥 걱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 서로 막 주고 받고 막 싸움이 되어. 며느리하고 구비간에 인저. 구비. 인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구비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

구비간에 서로 막, 아 그냥 뭐 하루가 닳게 그냥 뭐, 그냥 하도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읍단 말이야, 아들로서는. 마누라 편들 수도 읍고, 아버님 편들 수 읍고.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거. 그래서 결국 야중에 마누라한테,

“아, 여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인자 아버님이, 어머님이 인자 돌아가시고 지금 마음이 우울하신 판인데, 될 수 있으면 그 뜻을 받들어서 잘 좀 모셔야지 그러면 되느냐?”

고. 인자 그러니까,

“아, 나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읍는데, 자꾸 아버님이 그렇게 그냥 잔소리를 해싸니 당체 도저히 뭐 살 수가 읍다.”

이거여. 아, 그래. 아 그러고 영 안듣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막 매질까지 하게 됐지. 마누라를 그냥. 부모를 어떻게 해야, 아버님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누라는 막 손으로 막 패고 뭐 이런 일을 해도 소용없네. 소용이 없는게 아니라 영 듣 듣지를 않해요. 오히려 더 해요.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왜 이러냐?”

이거야. 큰일 났어. 그래서 이거 그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저히 안되겠어.

“이거 마음을 이걸 돌려야지.”

위협으로다 안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예 옛날에는 인저 여자들은 시장이라는 나가지도 안했었요. 한 지금 한 육칠십 년만 돼도, 육칠십여 년 전만 해도 여자가 시장에 안나갔어요. 전부 남자들이 저, 시장에 나가서 인저 뭐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그랬는데. 아이 시장이 한 이삼십 리 떨어진 디가 인자 시장이 있는데. 인자 농촌이니까.

한 가지 꼭 인자 자기 마음 속으로다 ‘요걸 마음을 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백여 년 전의 얘기하라 그래요. 그것이. 예, 그 시장을 갔다가 인저 고기를 몇 근을 사가지고 왔어요, 고기를. 와서 사가지고 와서,

“왜 고기를 사가지고 오느냐?”고.

“아, 오늘 어디 갔다가 인자 시장에 가보니까 방이 붙었는데, 방이라는 건 광고예요, 광고. 광고가 붙었는데, 아 노인네들을 사가지고 간다.”

는. 저 그전이 그때는 옛날이 그저 그런게 대원군 시절인가, 그때 얘기 같아요. 외국 저 미국서 거 코 큰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고도 안하고,

“코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노인네들을 사간다고 중(重)값을 주고 사간다는 방이 붙었더라. 그런데 아버님을 아 당신도 대꾸 마땅치 안해하고 그러니까, 아버님을 파는 수백에 없다고. 거시디기 거 시장에 갖다 팔아야겠다.”

고 말이야. 며느리가 그러는게 아니고 아들이. 아 마누라한테 그런 얘

기를 하는 거야.

“아, 팔다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아, 당신도 사뭇 뭐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아 당신도 그냥 아버님을 마땅치 안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고. 아, 그러니까 이거 다음 돌아 돌아오는 장날, 시 그전에는 저 5일 5일장이 섰어요. 일주일에 한 번 씩 장 선다구. 그러니까 인저,(기침)

“이 고기나, 어쨌거나 저 아버님은 인제 팔려가실, 만약에 팔려가시게 되면은 뭐 다시는 인자 못보는 거. 그러니까 하야간 잘 좀, 저 고기를 좀, 잘 좀 (해드리라.)”(tape 2앞에 계속)

아 그놈이 시장에다 팔려갈라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다. [조사자 : 고기 사와갖고 인저 잘 먹여서?] 그래서 인자 장날이 딱 됐는데, 그렇지 인자 그날 그렇게 돼닌께, 장날이 딱 되는데, 어쨌든 인저 고기를 고기국도 제대로 잘 끓여서 잘 아침을 잘 대접했ندی. 아 이상하단 말이여. 그전이는 그렇게 안모시었ندی 그 노인 양반 생각에. 그런디 잘 먹고 냐는디. 어쨌든 잘 뭐여 고기국이다 잘 해주니까 잘 자셨을꺼 아니야? 노인네니까.

그러니까 먹었는데,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인자 봄이 되가지 고선 한 인저 저 농사일 시작하려고 한 2월쯤 됐던가 봐, 음력으로다가. 그래 인자 장이 가서 인저 옛날 농촌에는 저 봄 되면은 농구를 전부 수리를 해야 돼요. 호미, 낫, 뭐 이런 거. 소시랑 뭐 이런 것을. 달 달은 것은 다시 베려야 햐. 베려서 또 쓰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인저 그것도 베려야 되고, 또 인저 저 모지라는 것 사고, 인저 농사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런께 인저 그 예상을 하고선 인자 아버님한테.

“아버님! 오늘 시장이 좀 같이 가지지요”

“아, 시장이는 뭐하러 가냐?”

그렇게 되니까, 인자 아들도 미워해요. 인자 미느리가 미워하니까 아

들도 미워하고 손자도 미워하고 그랬는다.

“니나. 갔다 와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버님! 오늘 저 농기구를 전부 수리도 해야 하고, 또 살 거도 있고 하니까 아버님이 가서야 어쨌든 에 좋은 것도 뭐 뭐시하고 그런게 가지사.”

대꾸 인자 그런단 거여. 그런게 그냥 따라 나선거여. 그 뭐여 팔려가는 줄은 모르지, 팔려가는 주는. 따라 가서 인자 갔지. 시장을 갔어. 모시고 가 가지고서는, 가서 인저 연장, 연구 도구 베리서 대장간에다가 맏기고, 뭐 인저 아버님 좋아하는 개장국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요런 거 전부 다 사서 대접하고. 또 인저 배릴 거 다 베리고 다 사고서는 인저, 마누라한테는 팔러 팔러간다고 얘기하고서 나온 거여.

그런데 그래가지고서는 다 저녁 때 인저, 전부 다 해가지고는 뭐 고기도 참 몇 근 사고, 그래가지고서는 인제,

“아버님! 언제 인제 가지죠.”

인저, 아버님을 모시고선, 그래 거짓말을 한거여. 순전히 마누라의 마음을 돌릴라고, 그게 잉.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선 오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마누라는 생각에,

“아이, 오늘은 아버님이 팔려 가시면,”

그때 생각에는 인자 좀 시원하다는 생각을 인저 마누라가 인저 생각을 한거예요. 그 며느리 되는 사람 여자가.

그래고서는 아 기다리고 있는데, 인저 저기 인저 동구 밖에서, 마누라 저 남편이 오는데, 오는 것이 뵈다 이거여. 뵈는데 보니까, 아 아버님도 같이 인자 온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 아버님도 같이 인자 모시고 같이 오는거야. 아버지는 인저 뒤, 앞에 오고, 또 아들 자기 남편은 뒤 따라 이렇게 인제 지게에다 잔뜩 짊어지고선. 인저 뭐 또 사고 인제

모도 거, 그래 저녁은 해놓고 기다리는데, 인저 왔단 말이여. 와서,

“아 여보! 어떻게 된거냐고? 아, 아버님 판, 판다더니 어찌 모시고 왔냐?”

이거여.(웃음)

“인자 나중에 얘기, 이따 저녁 먹고 얘기할께. 얼른 저녁이나 차리라.”

그 말이여. 그래 인저 저녁을 인저 차려서 인저 먹고선 인저, 자기 아버님은 인저 사랑방으로 나가시고, 인저 아내하고 둘이 있는데,

“아이, 글썄 오늘, 글썄 그 사람들이 팔리, 저 코 큰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갔는데, 아 아버님은 당신도 알다시피, 탄 탄집 노인들은 그냥 살이 통통하게 찌가지고선 그냥 잘 팔려가는데 말이야. 아버님은 바싹 말라가지고선 들여다도 안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순전히 거짓말 헛거여.(웃음) 아버님은 바싹 말라가지고 탄 탄집 노인들은 다 인저, 살이 통통하게 찌거 뭐 어따 쓰는지, 몰라도 살이 통통하게 찌서 잘 팔려가는데, 아버님은 바싹 말랐으니, 아 거 말랐단 문낭이지? 말랐으니 어떻게 도저히 뭐 들여다도 안보더라 그거야.

“그래서 모시고 올 수 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데 가을이 또 온다고 하더라. 온다고 하더라.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또 온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당신이 인자, 아버님을 잘 좀 가을까지만 말이야, 잘 좀 거 한 6개월이니까 잘 좀 뵈이 하면 당신 인자 앞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팔려만 가시면. 그래 고기는 내 얼마나 사다 델께. 그러니까 옛날엔 고기만 먹으면 살 찌는 것으로 알았지. 그래 인저 사 델꺼고, 한 가지 약속할 게 있어. 고기 뭐 거저 뭐 저, 그런 거 많이 잘 드린다고 살찌는 거 아니여. 그러니까 오직 아버님 속을 안씩여 드려야 돼. 음 아무리 잘 해드려도 속을 썩이게 되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간에 그저 당신은 아무 소리도 말고 그저 듣기만 하고, ‘아이, 죄가 잘못도 무조건 그저 잘못 했다’고 빌기만 하라”

이거야. 아 그래,

“그거 뭐 약속 못하겠나?”

고. 그러니까,

“아이, 하겠다.”

고 말이야. 아, 그렇게 되니까 둘이, 두내외가 약속을 하고선 디 그때 부터는, 인저 해야간 자부되는 여자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아무리 바쁜 중에도 그냥 때 찾아서 꼭 인저 진지 해드리고, 뭐 고기로 인저 많이 그냥, 뭐 고기를 대주니까, 뭐 어차피 넉넉히 사는 집안이니까.

아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되니까 아 가만히 노인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전과 도저히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인자 그래도 인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자 아무 소리도 안해. 대답을 앓구선 그냥 픽픽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냥,

“제가 잘못했나 봐요. 용서하세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비는데 뭐이, 비는 낮에 참 침 못뺏는다고 말이야.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저 그렇게 되니까 인저 아 어 뭐 뭘 들 해봐야 소용없거든. 이 영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게 인제 조용해지고 인저 그때,

인저 옛날에는 뭐 집안 일이 그렇게 바빠도 하나 거들어 주지 않고, 손자가 뭐 울거나 말거나, 어린 손자가 있어도 울거나 말거나 내버렸는데. 아이 집안 일을 잘 거들어 준단 말이야, 이 노인 양반이. 그렇게 되니까 인저 마음이 돌았지. 돌아가 가지고선 손자 울어도 잘 봐지고 잘 협조를 해준단 말이야. 아, 인제 그렇게 되니까 인저 집안이 조용해져 버렸어, 그냥 응.

그러니까 몇 개월이 되니까 인저 집안이 조용해졌지. 아 그렇게 되니까 농사도 잘 되고 그래가지구선 가을이 됐는데, 인제 추석을 싹 해들여 놓구선 가만히 생각하니, 속으로 인제 아들 생각이, ‘아, 인제 됐다’ 이

러구선.

그래 인저 하루 저녁에, 하루는 참 옛날에 그런게 있어요. 농사 딱 저가지고, 가을에 철문례라고 있어. 철문례, 철문례. 철문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구선 떡하고 술하고 해가지고선 뭐 동네사람들을 다 모셔다가 놓고서는 한 차례 한탕하는 거야. [조사자 : 떡문례요?] 아니 철문례, 철문례. 철문례라고 한탕하는 게 있지.

그래가지고선 모셔다가 놓고 다 동네사람 동네어른들 다 모셔놓고 다 대접하고선. 다 인저 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인저 잠자리에 들어가가지고선,

“지난 주에 가보니까 또 방이 붙었는데, 아버님을 갖다 팔을까 어쩔까?”

그런게,

“여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말이야. 아버님, 아버님 안계시면 하루도 못 살겠다.”

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 인제 됐다.

“당신이 그런다 하면 내가 안판다.”

고 말이야. [조사자 : 아-!] 그렇게 해서 인저 아내의 맘을 돌렸다는 얘기가. 돌려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행복한 얘기지. [조사자 : 남편이 되게 재치가 있었네요?] 재치가 있지. 그게 지혜여.

[백봉리 설화 11] 백봉T 1왕

백봉리 노인회관,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인구태(? , 남) 1995. 11. 17.

아들의 버릇을 고친 며느리의 지혜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제보자는 반대라면서 구술하였다. 이것은 머느리가 불효자를 고쳐 효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앞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였다.

[조사자 : 다음에 무슨 얘지요.] 반대. [조사자 : 반대?] 인자, [조사자2 : 효자?] 효부 얘기. 효자 얘기가 아니고 효부 얘기에. 효부 얘기는 요거 간단해. 효부얘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일찌기 아내를 잃었어요, 일찌기. 아들 하나를 딱 두어서는 아내를, 어려운 형편인데 아내를 잃다보니까 어떡할 거여. 그런게 어려운 살림에 말이야.

그래서 인저 그 아내가 저, 인저, 그 병으로다 몇 년 고생하다 보니까 살림살이들까지, 그 농촌에서 살던 그 살림살이까지, 뭐 그 논 전답 이런 것도 다 팔아올리고선 인저, 아무 것도 없이 됐단 말이야. 그런 판에 인저 마누라가 죽어버리고 아들 하나만 낳았는데. 그러니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다시 재혼도 안되고. 옛날에는 아무 것도 없으면 재혼도 어려웠어요.

재혼도 못하고, 결국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거야. 고용살이라고 인저 머슴살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여간 시골에서도 머슴살이라고 하는 게 읍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에서 50년 전만 해도 머슴이라는 게 있어요. 머슴은 일 년에 열마씩, 인저 쌀 열 가마면 열 가마, 열다섯 가마면 열다섯 가마 주기로 작정을 하고선 인자, 고용을 해가지고선 농사를 짓는 것이요. 그런게 있었어. 옛날에는 많았어. 왜정시대에 만 해도 많고 해방 후에도 있었어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녀의 집에 가서 머슴을 살어. 머슴은 부자집에 가서 머슴을 사는데, 요 아들을 데리고 가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이 읍으니까. 데리고 살게 되는데, 그 좋은 집 만나면 이게 밥을 따로 주고 그러는데 인자, 모난 집 심한 집 만나면은 밥을 한 그릇 밖에 안준데. 그 아이 밥은 안주는 거야.

“아무 것도 못한게 인자 소용 없다.”

고. 그리고 같이 나눠 먹고서, 그렇게 사는 거야. 할 수 없이 녀의 집의 머슴살이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면서 인저 자기가, 이 사람이 상당히 근검 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었나 봐, 아무리 무식해도. 그래가지고 머슴 살은 것을 전부 해야간 어찌거나, 하나 쓰지 않고 그냥 전부 저축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선.

저축을 해가지고선 아들 열댓 살 그렇게 되니까, 아들하고 같이 가서 사는디 아들이 열댓 살쯤 되니까, 아들도 인저 일 좀 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같이 버는 거야, 부자간에. 같이 벌어가서 거기서 한 십여 년, 열댓 살 먹어서 인저 십여 년 하고, 십 년 같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한 스물댓 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모여졌단 말이야 이게. 수 십여 년을 인저 머슴살이를 하고 순전히 모아서 저축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놈을, 전부 뉘시를 해가지고서 논도 사고 집도 사고 해가지고서는 인저, 머슴살이를 그만 두고서 인저 살림을 시작하는 거야, 부자간에. 그렇게 되니까, 인제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옛날에도 돈만 있으면, 아들을 며느리 주겠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청혼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웃음) 인제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시켜가지고서 참 몇 해 동안 잘 지내는 거야.

그런데 아 이 아들이 못됐던가, 그러니까 논도 수 십 마지기 사 가지고서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걱정없이 지내는데, 아이 인저 시골에는 그 농사를 지어놓으면 가을에 그런게 있었어요. 요즘 지금도 그런게 있는데, 노림(놀음) 노림하고, 예 노림하고 뭐 인자 저 뉘시 해가지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선 살림을 탕진하는 예가 많어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선 아 아들이 거기에 쏠려가지고선, 농사를 다 지어놓고선 아 가서는 그냥 흘랑 다 버려 버리는 거야. 노름도 노름이라는 것도 다 기술이 있어

야 하는건데, 기술없는 놈이 하는 것은 결국 잃게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네.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안듣는거야. 아 이놈이 말을 안들어. 저 아버지 말을 안듣는거여. 그래가지고서 아 몇 해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순전히 다 내다버리는 거야. 그래 결국엔 논도 팔아먹겠단 말이야, 빚을 갚아야니까. 노름빚 빚까지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갚아야 하니까 논도 몇 마지기를 팔아 먹게 되었던 말이여. 아 그러니 듣지도, 아들을 아무리 뒤희해도 듣지도 않지. 그러니까,
“아, 이놈! 네 이놈아! 너하고 안산다.”

고 말이야. 아버지가 나갔어요. 그 아들을,
“너희끼리 살으라.”

고. 그러고사는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먼저 살던데 가서, 늙고 했으니까 돈도 못 받아. 그러고서 인자 밥이나 얻어 먹고선 그냥, 거기 가서 청소래도 해준다고. 옛날 살던 집에 가서 부자집이 가서, 거 가 사는 거야. 거기 가 사는 거여.

그런데 그 며느리가 상당히 효부였던가 봐. 며느리가 아무리 그참 말려도 안되고, 그래서는 결국은 인자 그래 자기 시아버지가 따로 나가 살게 됐는데, 인제 그렇게 됐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가져가지고서 아기를 가져가지고선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그 옛날에는 그저 뭐 물론 지금은 전부다 병원에 가서 해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 농촌같은 데는 산파라고 노인네, 노인네 할머니들이 애 잘 받는, 애 잘받는 노인네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이제, 모셔다가 아이를 낳게 되니까는, 모셔다가 아이를 받아서 아들을 봤단 말이야. 아 그래 아주 굉장히 반갑, 반갑고 참 기쁠 거 아니어요? 남편 생각에. 그러니까는,

“나 참 아들을 낳아서 좋다.”

고 말이야. 그러니 아,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나가서 따로 사는 거야. 아 인제 삼 일 되면 어린애 젖을 먹이게 되요. 옛날에야 유모, 요즘은 전부 우유 먹어 길르지? 그렇지만 옛날에는 순전히 유모로다 길렀잖아. 젖 먹여가지고. 그런데 삼 일 되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아 이 자부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젖을, 그 저 옛날에 함질배라고 있어요. 함질배, 함질배라고 함 질머지는, 함 질머지는 거. 그걸 가지고서 젖을 잔뜩 싸매어. 싸맷던 어느절이 쌓는지 몰라도 잔뜩 싸매 놓고 있는 거야. 그래 젖을 안주는 거야, 아기를. 젖을 안줘. 아 그런데 그 산파 할머니가,

“아, 여보! 아기 아버지. 여기 좀 와보라고 말이여. 들어와 보라. 아이 아기 어머니가 지금 아 아기 젖을 줘야지 젖을 안준다 이거여. 그러니 들어와 보라”

고. 그래 들어와 보니까 정말로 젖을 싸매고, 아기가 우는 데도 젖을 안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젖을 안주는거야.

“왜 그러냐?”

고 그러니까.

“아, 당신이 당신 아버지한테 하는 생각하면 뭐하느냐, 이 자식 길러 봐야 당신같은 소용, 당신같은 그런 자식 될텐데 뭐하러 이걸 내 길르냐. 갖다 버리라 이거야. 이러니 갖다 버려라. 절대 젖 안준다 갖다 버려라.”

이거야. 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 그게 내리 사랑이라고 자식은, 부모는 생각하지 안해도 자식은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도 현실이 그래요. 현실도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당신이 만약에 이 자식을 생각한다면, 아버지한테 당장히 쫓아가서 석고대죄 하라.”

고. 옛날에 이 석고대죄란게, 이 방석을 깔아놓고선 [조사자 : 큰절?] 응, 큰 절을 하고서 인자 지가 용서를 비는 거야.

“석고대좌를 해 가지고서 아버님을 모셔오기 전이는, 내가 절대로 이 자식을 젓 안주겠다.”

거 아직, 거 죽이게 생겼단 말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 아무리 그 못된 아들이라도,

“아, 그렇다면 내가 가서 아버님 모시고 올실텐, 온단 말이야.”

고. 저 가서는 고 자식 때문에 말이야, 가서 아버님을 어디께 무슨 수단을 해서든지 해야간 모시고 왔어요. 와 가지고선 참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그 며느리가 남편의 마음을 돌려가지고서 그 시아버지를 잘 공양했다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백봉리 설화 12] 백봉T 2왕

백봉리 노인회관,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제보자1 (? , 남) 1995. 11. 17.

은혜갚은 사슴

채록을 거의 마쳐 집으로 돌아갈려고 채버를 하는데, 갑자기 들어오신 한 할아버님이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붙잡았다. 얘기하실 때 매우 진지하고 열심히 하여서 우리들의 넋을 잃게 하였다. 하지만 설화의 내용이 너무 보편적인 것이라 아쉬움을 가슴에 묻고 서울로 향했다.

옛날에 한 동네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 농부야. 농군은 산에 가서 나무를 했거든. 나무를 꺾어서, 꺾어서 인자 비이(베어)서 묶고 묶고 하는데, 사슴이 한 마리 뛰어오는 거야. 뛰어오더니,

“나 좀 살려 줘. 살려 줘.”

“넌, 뭘 살려 주니?”

이러니까,

“아, 포수가 와서 날 쫓려고 달려(따라)오는 걸, 날 좀 숨겨줘.”

그랬거든 사슴이가.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나무허던 사람인데, 나무에다 이만한 큰 나무에다 들들들 옥맏겨서 탁 아래 굴러버렸거든. [조사자 : 사슴을요?] 응 사슴을. 굴러버렸으니까 그때 포수가 두 마리,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포수가,

“야! 여기 노루가 하나 왔는데, 봤소?”

그러니까,

“난 소경이 되서 잘 보진 못했는데, 노루가 이산 넘어 가더라.”

그래 이제 산 넘어 가더라 이러니까, 그 포수가 산을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서 이 사슴을 굴러놨는데, 사슴을 풀어놔. 풀어 놓으니까 노루(사슴의 잘못)가 자꾸 끄는 거야. 입으로 물고,

“가자. 가자.”

그러는 거야. 그래 딸라 갔지. [조사자 : 구해준 사람한테요?] 영. 구해준 사슴이 따라가니까는, 사슴이가 그때는 땅을 자꾸 파는 거야. 땅을 파니까는, 땅을 한 이만치 한 5cm 파니까, 거기 금이, 금덩이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슴이 살려, 살려준 농, 그 농부가 그 금을 가져갔거든.

그러니까 그 포수가 몇 만 원, 몇 십만 원은 그때 돈인디, 옛날 돈으로 몇 천 원인디 잘 살았다는 거여. 그러니까 사슴같은 짐승을, 짐승도 잘 살려주면 적 은혜는 아는 거야.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절 암만 살려주면 그 사람은 죽어.

[백봉리 설화 13] 백봉리 2살

백봉리 노인회관,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제보자1 (? , 남) 1995. 11. 17.

흑부리 영감

앞 이야기를 끝나치고 곧 이어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농부가 농부가, 농부가 말이야 한 분 살았었는데, 어디 가 날이 저물었거든.

날이 저무는데 한 막에 들어 가니까니, 이 영감 흑이 이만치 달려 있지요. 흑이 이만치 달려 있는데, 그런게 도깨비, 밤에 자다가 열두 시 쯤 넘었는데 사뭇 갑갑할 것 아니여. 갑갑 허니까 거기서 인제 노래를, 노래를, [조사자 : 아 도깨비 집이에요?] 노래를 잘 부르거든. 그래 인제 도깨비들이 와 가지고,

“니!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흑에서 나온다.”

그랬거든. 노래 잘 부르고 인자 민요와 주르막과 잘 허니까니 이 농부, 구신들이 와가지고,

“그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흑에서 나온다.”

그러거든. 그래 흑에서 나온다니 흑을 푹 떼었잖어, 인제. 그러니까 흑을 푹 떼잖어. 돈을 많이, 금과 은과 많이 버리고 갔거든. 버리고 간께니 그 할아버지가 그 금과 은과 인자 죄다 팔아가지고 잘 살게 됐거든.

그래 한 동네에서 할아버지는,

“어째 잘 사는가?”

물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그저 잘 산다.”

하니까. 그 한 또 욕심장이가, 욕심쟁이가 또 거기 또 거기 가서 또

나무하다가 늦어서, 밤에 거기 왔거든. 와가지고 또 노래를 잘 해는 거야. 노래를 잘 허니까는. 그 영감은 욕심쟁이니까니 아 노래허더니만,

“요 몇 일 전에 이 영감탱이 와서 노래해 은과 금을 많이 버리고 갔는데, 아 어그저께 또 와서, 또 와서 그런다.”

그러면서 이 영감이 그 영감이다. 혹을 여기 하나 붙었는데 여기다 하나 더 붙여 줬어. 그래서 그래서 이 영감은 혹이 두 개가 붙었거든. 이전에는 그런 얘기마저 있고. 이전에는 사람도 말했고 짐승도 말했어요.

[백봉리 설화 14] 백봉리 2왕

백봉리 노인회관,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제보자1 (? , 남) 1995. 11. 17.

은혜갚은 잉어

이야기를 마치고 앞에서 구술하였던 동물이 은혜를 갚은 유형의 이야기라 생각하였는자 스스로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이야기는 일반적인 물고기의 은혜담인 것 같다.

이 노인이 물가에 나갔는데, 한 노인이 물가에 또 낚시는데, 얘기인데 판 얘기인데, 잉어를 하나 큰 놈 잡았거든. 이 잉어를 큰 놈 잡았는데, 이 잉어가 눈물을 똑똑 흘리는 거야, 고기가. 그러니까 그걸을 다 판 사람이 잡었는데, 그 영감이 그 그때 돈으로 몇 십, 몇 십 전 쥐가지고 산 거야. 산 걸 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이 잉어를 썩 놔주니까, 짹 가는 거야.

바다 안에 짹 들어가더니 한 반, 한 반 시간 있더니 이 잉어가 도로 온거야. 자꾸 잉어가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자꾸 끄는 거야. 그러더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잉어를 탄거야. 타니까 닥 눈 감고 한 삼십 분 있으니까 딱 용왕에 간거야. 이 바다 깊이 들어간 거야. 가가지고 잉어가 아버지보고,

“이 할아버지가 날 살려줬으니 내가 이제 찾아가서 이리 데리고 왔다.”

직 아버지한테 그 말을 헛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아! 그래 그 할아버지가 참 너를 살려 주셨구나!”

딴 사람에 잡혀갔으면 죽을건데 살려주었거던. 그러니까 이 잉어가 딱 그 다음에 직 아버지한테 가서, 용왕한테로 가가지고 그 말을 허니까,

“야야! 거 그러면 이 신세를 갚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금과 은과 이 한 짐을 짊어가지고 잉어가 자꾸 제발 타래는 거야. 탕지. 타니까 딱 눈감고 한 한 시간에 오는 걸 바라움이 나왔다. 나와서 살아왔거든. 살아왔는데 금과 은과 많으니까 잘 살았다는 그런 말도 있고. 인날(옛날)은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

[백봉리 설화 15] 백봉리 2앞

백봉리 노인회관,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제보자1 (? , 남) 1995. 11. 17.

산삼 동자

앞 이야기를 마치고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조사자에게 ‘다른 얘기 해 줄까’ 하면서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또 다른 얘기 해 줄까. 저 한 한 집이 가족이 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주 이렇게 네 식구가 사는데, 또 네 식구가 사는데 할머니가 병이 났어, 할머니가. 병이 나서 다 죽게 되었거든.

다 죽게 되니까, 아 어디 가서 점 해 본거여. 점을 해보니까,

“할머니는 손주에 간을 먹고 살아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산다.”

이렇게 딱 나온거여. 그러니까 며느리 아들이 있다가, 며느리가 앉아 있다가, 아들이 마누라한테,

“우리 할머니를 살리면 우리 손주를 삶아 먹어야 낫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는가?”하니까.

“손주를 삶아 먹이면, 그전이 손주는 낳으면 되는건데 뭘 그걸 근심하는가?”

그래서 인제 또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맘이 맞은거여. 할마니를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 했는데, 그래 맘이 맞아가지고 하루 인제 손주가 학교에 갔다가 12시에 오는거야. 오는 것을 딱 잡어가지고 계다가 매 딱 넣었어. 가매에 넣어서 삶아서 할마니를 다 대접 헌거여. 그래 할마니가 병이 다 나왔어. 간을 퍅여 버리고.

그래서 할마니가 아 나왔는데, 5시쯤 되었는데, 아들이 또 하나 오는 거여. 그래서 아들이 또 하나 오는다,

“야! 우리 아들이 아니다. 너는! 우리 아들은 벌써 삶아서 우리 할마니 삶아 퍅여서 할마니가 병이 다 나왔다.”

“여, 아버지여! 나를 몰라요? 어머니여! 나를 그렇게 몰라요. 할머니여 내가 손주가 아니예요?” 이런게.

“아니여. 우리 아 우리 손주는 내가 삶아서 내가 다 먹어서 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책거리 해가지고 점심을 안먹고, 학교에서 책거리를 헐 때, 떡 고기 만물을 가지고 와서 잘 먹고 내가 저녁 때 오는데 왜 나를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아 그것도 말을 어려운데, 이 어머니한테 물으니까.

“나는 그렇게 그렇게 조금 늦추어요?”

그런게 또 어머니한테 물은게,

“우리 아들은 삶아서 우리 아버지를 다 퍅여, 우리 할머니를 다 퍅였다!”

그런게. 또 그런 말한게 그것도 옳거든. 그런데 그것도 인삼이 살살살 걸어와 가지고 죄 할머니를 낮게 해주고 그렇게 헛거지. 그 손주는 살아 있지. 그래가지고 거 인삼이, 옛날은 시방이니까 그렇지, 옛날은 소도 말허고 사람도 말허고 짐승도 말을 허는 때 거거든. 지금은 만년 전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에.

[백봉리 설화 16] 백봉T 3완

백봉리 노인정,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제보자2 (60대, 남) 1995. 6. 10.

능말의 유래

오전 11시 35분 용인군 백봉리 노인정에 7명 청중들이 있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채록하였다. 조사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들으셨던 얘기같은 거요?' 말하며 이곳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때 제보자는 고향인 옥산리에서 들었던 자기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다며 구술하였다.

[조사자 : 전설 같은 건 없어요?] 전설은 우리 옥산리 산소에 대한 게 있는데, (청중들과 대화 생략) 용인군 예산면 도안구 옥사리에, 거기 산이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야. 박원형이라고.

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의 그 능자리를 잡는다고 산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거기다가 인자 산소자리를 잡았는데는 이거여. 지관들이 가만히 와가지고 그걸,

“참, 여기가 좋다. 능자리이 잡힌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지관이 얘기하는 말이,

“인저 날달걀을 파묻어 놓고고서 말이지 여기에서 일주일 있다 오면

말이지, 거기에서 병아리가 깨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고. [조사자 : 병아리요?] 응. 병아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인자 초동이 거기 갔다가 몰래 들었던 말이여. 몰래 들어가지고 뭐냐 헐 것 같으며, 거기다 저기 달걀을 꺼내다가 삶아서 가지고 갔다 또 파묻었어. [청중 : 응, 그까지게.] 그래.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7일날 후 와보니, 병아리가 안깨어 났거든. 왜냐면 달걀을 삶아 왔기 때문이란 안 저기 되었던 저기여.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능안이라고 그래요. 능안이라고. [청중 : 그 골짜구니 이름을, 아니 그 산을?] 아니 그 산을 갔다가. [청중 : 그 산은?] 능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후 왜 우리 17대조 할아버지가 인자 돌아가셔서 거기 묻혔단 말이여. 저희들 현재 능안이라고 해요.

[백봉리 설화 17] 백봉리 3완

백봉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제보자2 (60대, 남) 1995. 6. 10.

옥산리 열녀문

[조사자 : 여기에 누각 있어요? 비나 열녀문이나 뭐?] 여기에는 없던데. 저기 옥산리에 열녀문하고 효자문이 있어요. [조사자 : 아, 그럼 내용이 있는 거 아니예요?] 열녀문은 남편이 돌아갔는데, 그날로 자기가 그날로 자결하, 자결했기 때문에 열녀가 됐어요.

[조사자 :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요?] 박인형씨 부인이야.

[조사자 : 언제 정도에 세워 졌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사자 : 대략 어느 때 쯤이에요?] 몇 백 년 전이야. [조사자 : 효자문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병 간호도 하고 수혈도 하다가. 옥산리 가면 알 수 있지.

[백봉리 민요 1] 백봉T 1앞

백봉리 자택, 강현모, 최진성, 진선미 조사
? (?, 여) 1995. 11. 11.

새 타 령

첫 제보자의 집에서 점심까지 얻어 먹은 후 길건너 마을로 장소를 옮겨 채록을 시도했지만, 어른들이 몇 안 계셨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중 파를 다듬고 계신 제보자를 발견하였다. 굉장히 썩그러워 하며 빠시다가 우리의 독촉에 못이겨 끝내 노래 한 자락을 하셨다. 이 노래는 할머니께서 17세에 이곳으로 시집오신 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부르던 노래라고 한다.

새벽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다
너나나나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백봉리 민요 2] 백봉T 3앞

백봉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근희, 이연희 조사
제보자2 (60대, 남) 1995. 6. 10.

김매기 소리

조사자가 '아시는 민요 없으세요? 농사 지으시면서 부르시는 거요?'라고 말하자 '김매 때 하는 소리 말인가?' 하면서 부르는 것을 채록한 것이다. 중간에 옥산리 열녀문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빼내고 앞 뒤의 민요를 합쳐 모아놓은 것이다.

[조사자 : 예, 그런 것도 괜찮아요.] 보통 어헤 들고라고 하지. [조사자 : 조금만 해주세요.]

얼렁얼 상사뒤야, 어헤이 들고.

이렇지? 그래서 자주 이어가는 거야. [조사자 : 이걸 언제하는 거예요?] 이걸 논 땀 때야. [조사자 :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얼렁얼 상사뒤야...

(되소리) 어헤이 들고

서마지기 논땀이기

반달같이 남았네

[조사자 : 저기, 아까 그 노래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녹음이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조사자 : 같이 해주세요.] 우린 잘모르는데. [조사자 : 해주세요. 박수.]

얼렁얼 상사뒤야

여보시오 농부님네

얼렁얼 상사뒤야

서 마지기 논땀미가

반달같이 남았네

9. 박곡리

[마을개관]

박곡리, 박종수, 강현모, 양정민 조사
1995. 6. 10.

박곡리는 면소재지인 백암리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다. 이곳은 원래 양지군 박곡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기안리 청계리의 일부와 죽산군 근사면 협동 외수고리의 일부를 합하여 박곡면에서 박곡리라고 하여 용인군 외사면에 편입시켰다. 이곳은 원대, 협동, 상촌, 박석골, 청계골 5개 마을 300여 가구였으나, 요즘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 200여 가구만 남았을 정도이다. 이곳은 면소재지와 인근 마을이면서도 교통이 불편하며, 주로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박곡리 제보자 1]

윤기현(? , 남) 박종수, 강현모, 양정민 조사
1995. 6. 10.

조사자들은 박곡리 중에서 가장 깊숙히 있는 청계 마을을 찾아갔다. 이장 댁을 찾아갔을 때, 제보자인 이장님이 있어 찾아온 목적을 말하면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자는 이곳에서 행하는 민속에 관한 조사를 하는

도중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제보자는 어려서부터 이 마을에서 살아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왔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1.

[박곡리 제보자 2]

할아버지(90, 남), 박종수, 강현모, 양정민 조사
1995. 6. 10.

조사자는 협동 마을로 자리를 옮겨, 홍종현 할아버지 댁에서 조사를 하다가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을 소개를 받고 찾아가서 민속을 조사하였다. 할아버지는 나이에 도 불구하고 건강하였으며, 청각도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민속과 유래담을 해 주시는 중에 이야기를 채록하게 되었다.

제공자료 : 설화 2 ~ 3. 민요 1.

[박곡리 설화 1] 박곡리 1앞

박곡리 청계 이장택, 박종수, 강현모, 양정민 조사
윤기현(? , 남) 1995. 6. 10.

오방낭골 유래(장자뭇 전설 잔형)

조사자들이 이장택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도중에 마을의 유래에 대해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제보자는 이 전설이 어릴 때부터 들은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실이라 하였다.

[조사자 : 수수께끼 같은 것이 없어요. 옛날에 들은 것이라도?]

옛날에 여기 청계 부락이라는 데가 밝을청자 시내계 썼는데, 그 글자

그대로 개울이 깨끗하고 물, 물 좋다는 거지. 지금도 저 위의 골짜구니로 가면 아직까지, 지금은 시골 가도 가축들을 맥여갓고 개울이나 오염 되는데, 아직까지 개울이나 오염 안된 유일한 그 면에서 한 두 곳 뿐인 계곡 중에 하나이고.

옛날에는 이곳이 청계가 아니고 청계동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청계동. 그래 남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아갓고, 그래 여기가 옛날에는 가구수가 엄청 많았고, 굉장히 큰 마을이었다고 허드라고. 언젠가 전설의 고향에 한 번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오방낭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방낭골.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는 오백 개 절이 있었다고 했어요. 오백개 절이. 지금도 절 흔적같은 게 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절이 오백 개였다 이거지.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을이 좀 크고, 굉장히 장 되었다고 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향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인자 스님이라는 것이 중이 그러지요. 중. 그런데 그 남씨 성을 가진 집에 그 스님께서 시주를 왔는데, 시주를 허러 왔는데, 그 잘 살고 허면 부처님께 공양을 허고 그래야 허는데.

“시주를 허라.”

고. 헐 때 시주를 안하고, 그 남씨 성을 가진 그 마나님이 뭐 물을 끼 언저다거나 스님을 좀 문전박대를 했다나 봐. 그 스님이 돌아서면서, 허면서,

“아이, 저기 이 마을에 굉장히 돈도 잘 벌고 변창할 수 있는데! 하.”

흘리면서 가니까, 그 남씨 성을 가진 아낙네가, 아이 거기에는 귀가 솔깃 해갓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요기 마을에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바위같은 것이 산 밑에 쪼그만하게 있었어요. 그런게 거기 있었는데, 그 스님이,

“어디께 가면 어떻게 어떻게 생긴 바위가 있을 것이다. 그 바위가 이 동네가 굉장히 번창하고 그러는데 장애물이 되니까, 그 바위를 치우면 이 동네가 더 번창하고 그 문중이 더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데나 봐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사람들을 시키거나 해서 그 바위를 딱 다 치웠는데, 거기에서 하얀 비둘기 두 마리가 날아갔다는 것야. [조사자 : 비둘기요?] 응. 그래서 인자 그게 결국은 인제 그 비둘기가 품안에 안고 있어야 되는 건데, 비둘기가 날라감으로써 그 동네가 쇠퇴해지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남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 고런 것 때문에 망해서 지금은 뭐 남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고, 여기는 각성받이에 각성받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 절이 한 오백 개 정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 오백낭골이란 디가. 그리고 그 남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았고. 여기가 굉장히 많이 살았고, 옛날에 청계동여 청계동.

[조사자 : 청계동요?] 예. 그런 식이었다. 응. 지금으로 치면은 읍이였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동네를 지날나면 타지 사람은 고개를 못들고 다녔다는 거여. 그것은 잘 살고, 또 좀 어느 지역 가면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라고 험게, 텃세라고 허는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좀 알고 있어요.

[박곡리 설화 2] 박곡리 1부

박곡리 협동 제보자대, 박종수, 강현모, 양정민 조사
할아버지(90, 남) 1995. 6. 10.

잘못 본 도개비는

협동 마을로 자리를 옮겨, 홍중현 할아버지의 댁에서 민속을 조사하다가 소개로 90세된 할아버지 댁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러가지 민속에 대해 조사하는 도중에 도깨비에 대해 묻자 부정적으로 귀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조사자 : 할아버지 그러면 그때 귀신같은 것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귀신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도 귀신이 사람도 나타나지 않지. [조사자 : 그래서 도깨비나 뭐 같은 나타나는 것 봤어요?] 서기하는 것 봤어. 서기. 무슨 나, 밤이, 밤에 말이지 무슨 목을 환히 비치고 이러는 거, 그러는 것 봤어.

밤에. 무슨 벌거 다 않지만, 보면은 나무같은 것에도 그렇고, 나무같은 데 그렇고. 또 인자 뭐가 그러는지 모르지만 생선 상해도 그 서기를 한다고 그래.

[조사자 : 언제 보셨어요. 그것을?] 그 우리가 한 이십 미만 적에 보았지, 그런 것을. 서기를 하고 불도 쓰고, 흰하니 많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도깨비나 뭐라고 그러지. [조사자 : 서기가 무엇인데요?] 환하게 불빛같이 보이지.

[할머니 : 옛날 도깨비불이 많았지.] [조사자 : 할머니 보셨어요?] [할머니 : 저기 저 퍼런 불이 왔다갔다. 옛날에.]

[박곡리 설화 3] 박곡리 1위

박곡리 협동 제보자댁, 박종수, 강현모, 양정민 조사
할아버지(90, 남) 1995. 6. 10.

외가리 날아간 마을

도깨비 이야기를 마치고 마을 느티나무에 대해 묻자, 그것 보다는 마을의 뒤에 있는 숲에 대해 말씀하였다.

[조사자 : 동네 어귀에 보니까 저기 커다란 느티나무에 그것 봤는데, 저건 언제 적부터 심어진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

그 위로다 저 위로다 또 나무가 보통 크게 아니 있어! 그전에 여기에 그 위에 높프게 또 있었는데, 외가리, [조사자 : 외가리요? 새요?] 응, 새. 저기 왜 테레비도 나오고, 뭐 백로라고도 있고, 외가리라고도 그러고. 외가리가 거기 집을 크게 많이 짓고 있었어. 그때가 요기 이 동네가 살기가 좋았을 때여.

[조사자 :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할아버지 결혼.] 그때가 우리 열다섯이나 됐을 거예요. 그게 다 나가고 읍다고. 나가서 저절로. [조사자 : 그러고부터는 안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나가고, 인자 나가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그것도 그 후의 일이지만서도 불안 일이 있고.

외가리가 거기 있고 그랬을 적에, 거기 참 동네도 뒤에 참나무가 크게 있었는데, 거기도 외가리가 있었는데, 다 어디로 나갔다고 차차차로.

[박곡리 민요 1] 박곡리 1번

박곡리 협동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양정민 조사
할아버지(90, 남) 1995. 6. 10.

모내기 노래

[조사자 : 모심을 때 하는 노래 한 마디만 해주세요?] 노래만 듣고 하지는 않았어.

여기도 하나 꽃고
저기도 하나 꽃고
삼베추리

10. 근곡리

[마을 개관]

근곡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1995. 5. 13.

근곡리는 백암리에서 용인 쪽으로 오던 길을 돌아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원래 죽산군 근삼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노동, 중평리, 석곡동과 양지군 박곡면 신창동의 일부를 합하여 근삼면과 석곡동의 이름을 따서 근곡리라고 하여 용인군 외사면에 편입되었다. 이 마을은 마두, 노동, 중평의 세 마을으로 구성되었는데, 노동에는 이씨와 박씨가 많이 살고, 마두에는 정씨, 이씨, 박씨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노동에만 450여명이 살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앞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어, 그 앞쪽에 큰 냇가가 있다. 광혜원으로 가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은 편하다.

[근곡리 제보자 1]

이석규(60대, 남)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1995. 5. 13.

근곡리가 고향인 제보자는 이곳에서 사시다가 10년 전에 수원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였다. 조사자가 노인

정에 도착하여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서로들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제보자가 선뜻 이야기판을 형성시켜 주었다. 제보자가 마을의 성씨문제와 여러가지 민속에 대해 말씀을 하여주는 동안에 호랑이 관련이야기를 채록하게 되었다. 주위에는 3-4명의 노인들이 함께 있었다.

제공자료 : 설화 1.

[근곡리 제보자 2]

김병준(74, 남)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1995. 5. 13.

이천이 고향인 제보자는 이천에서 조금 살다가 안성으로 이주를 한 뒤에 다시 서울에 가서 조금 살았다. 그리고 서울서 다시 이곳 근곡리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것이 50년이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서당에 다니다가 9살에 국민학교에 들어 갔으며,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제보자는 여러가지 민속 조사를 마치자, 옛날 이야기로 이야기판을 휘어잡고는 재미있고 구성지게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젊어서 한자를 배웠으며, 현재는 회사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2 ~ 9.

[근곡리 제보자 3]

박유순(61, 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1995. 5. 13.

제보자는 마을 이장의 어머니이다. 조사자들이 노인정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이장님 댁에 들러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는 도중에, 이장님의 어머니와 부인을 대상으로 민속과 설화를 조사하였다. 이때 제보자와 며느

리가 서로 이곳의 민속과 이곳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 주시는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나중에 점심을 먹으러 온 남편에게 이야기판을 물려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0 ~ 11.

[근곡리 제보자 4]

양세규(62, 남)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1995. 5. 13.

제보자는 마을 이장의 아버지이다. 댁에서 부인과 며느리를 대상으로 민속과 설화를 채록하는 중에 점심 식사를 먹기 위하여 집에 들어왔다.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시장할 것이라며 식사를 준비하여 오라며 사려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편 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이야기판을 다시 형성하게 되었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용도 이곳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공자료 : 설화 12 ~ 14.

[근곡리 제보자 4]

최기복(62, 남)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1995. 5. 13.

제보자는 이장님 댁에 점심을 먹고 이야기판을 다시 형성하였을 때 오신 분이다. 고향이 강원도 춘성군 남면 광판리인데, 그곳을 떠난지 40년이 되었고, 이 근곡리로 이사온지도 벌써 15-6년이 되었다고 한다. 호가 하서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는 식자층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이며, 또한 이야기도 조리있게 잘 구술하였다. 제보자는 강원도에서 농대를 졸업하시고 식물에 대한 채집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구술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고향이 강원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제공자료 : 설화 15 ~ 22.

[근곡리 설화 1] 근곡리 1화

근곡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이석규(60대, 남) 1995. 5. 13.

제사받지 못하는 호랑이혈

근곡리가 고향인 제보자는 이곳에서 사시다가 10년 전에 수원에 이사를 갔다가 이곳에 다시 와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였다. 이 이야기는 조사자가 호랑이 이야기를 아시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하여 주신 것이다. 주위에는 3-4명의 노인들이 함께 있었다.

[조사자 : 호랑이 얘기, 그러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아세요?]

호랑이 얘기? [조사자 : 아시는 것 있으세요.] 호랑이 얘기 하나 해 줄까?(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새들, 새아들, [조사자 : 어디요?] 그저 회승, 아, 저쪽으로 나가면 새들이라고 있어. [청중 : 새들.] [조사자 : 새들. 새들.] 거기에 묘가 하나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호랑이 혈(血)이래. [청중 : 나 그것 처음 듣는 소리이다.] 말머리 그저 저기 저 큰 시장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묘가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게 호랑이 혈이래거든. 자손들이 거길 오지 못했다는 거여.

[조사자 : 거기 호랑이 뭐가 있다고요?]

호랑이 혈. [조사자 : 혈?] 응. 땅 혈이. 호랑이 혈이래서 자손들이 거길 오지 못했다는 거여. [조사자 : 그 묘지에요?] 그래서 저기 저만치

서, 가서 이렇게 쳐다나 보고 가지. 여기 와서 절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여. [청중 : 거기 와서 절을 한다면 자손이 해롭다는 거지,] 응 해롭다. [조사자 : 동티 난다고요? 절하면.] 응. 그랬는데, 그러더니 어 작년 재작년엔가 그 묘 싹 파갔어. 파서 화장하고 싹 그냥 [조사자 : 결국은 없이 했어요?] 없어졌지. 뭐 그 묘를 없애버렸어. [조사자 : 동티 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 묘가 엄청 그 꽤 오래된 문데.(기침)

[조사자 : 호랑이가 왜 거기 그런 말이 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면은 저 혈은 저건 무슨 혈이고, 뭘 혈이고,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다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호랑이 혈이래. 그래서 자손이 거길 오면 그게 해롭다는 거여.

[조사자 : 호랑이 혈인 곳이. 좋은 혈은 뭔데요?]

그러니까 거것이 지금은 전설이 있지 뭐. 되는 데는 잘 되니까 거기다 썼것지. 근데 그 자손들이 와서, 거기 와서 제대로 제사도 못 해놓고 거길 오질 못한다는 거여. 뭐 그런 얘기가 있지. 노인네들이 그런 말씀을 허드라고. [조사자 : 이런 얘기가 저희들이 찾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더니 자손들이 와서 그걸 파가지고 화장해서 묘를 없애버렸어.

[근곡리 설화 2] 근곡1 앞

근곡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김병준(74, 남) 1995. 5. 13.

무릉도원(신선 바둑두기)

이천이 교향인 제보자는 그곳에 조금 살다가 안성으로 이주를 한 뒤에 다시 서울에 가서 조금 살았다.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이곳 근곡리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것이 50년이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서당에 다니다가 9살에 국민학교에 들어 갔으며,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리고 젊어서 한지를 배웠다고 하고, 현재는 회사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한다. 조사자들이 <호랑이 이야기> <나무허리 갔다가 비뚤두는 것 보기> <옹기장수 이야기> 등 재미있는 이야기를 청하자, 청중이 <조남철 기사되는 얘기>라고 제목으로 말하였을 때,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조사자 : 옹기장수 얘기 아세요? 재미있는 얘기 아무거나 해 주세요?]

[청중 : 아 저 조남철 저 기사가 되는 얘기 하나.] 산에서 신선이 와 가지고. [청중 : 그저 저기도 갔었잖아.] [조사자 :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야에 그 뭐냐 하면은, 그 아는 건데 뭐, 그건 뭐, 뭐. [조사자 : 저희는 몰라요.] 나무꾼이 나무를 허리 갔는데 말이여, 나무를 하러 갔는데 산속이란 말야, 깊은 산속에.

깊은 산속에서 바둑을 둘이 두고 있단 말여. [조사자 : 사람이요?] 그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신선이라 이말이여. [조사자 : 그때는 신선이 있었잖아요?] 응.

두고 있는데, 바둑 두는 것을 자꾸 들여다 보고 있으니까는, 이런 우리 이 사계, 이 세상. 우리 네가 살아가는 시(세)상하고 신선이 사는 시상하고, 예 시간 차이가 있다 이말이야. 그 사람들이 한 시간이면 아마 여기 십년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거여. [조사자 : 신선 한 시간이며 요기는 10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를 앓고서는 자꾸 그거만 들여다 보고, 바둑 두는 것만 들여보고 있으니까, 그 신선이 하는 말이 글을 지었거든, 글을. 뭐냐고 하면,

암화절속 쇠연화하니

낙자성중 세월사라.

막사방인 간구주화라

처기난처 간국이라

는 그런 글을 지었다고.

근데 무슨 말이나 하면, 깊은 산골에 말이지 바위에 꽃이 핀다 말이여. 그러면 깊은 데를 말하는 거야. 암화절속. 그런데 바둑이 신선이,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데, 그러게 이런 세상과 아주 그냥 인연을 끊었다. 쇠연화라는 것은, 연화라는 것은 이 안개 끼고 이런 풍진 세계를 말하는 거야. 이 인간 세계가. 우리네 이 세상 사는 그 시대하고 담을 쌓다 이 말이야, 결국은. 잠글 쇠자에. 저 거 쇠연화라는 그러는 그런데서 그런 산중을 말하는 거란 말여. 그걸 표시하는게 암화절속 쇠연화니.

낙자성중 세월사라는 건, 낙자성중이라는 건 낙자는 바둑을 두는 그 바둑알이 '뽕뽕' 소리가 난다 이말이여. 낙자 그래, [조사자 : 바둑 둘때 먼요?] 응응. 성중 소리나는 가운데, 세월은 흘러가드라 이말이여. 세월은 흘러가드라, 흘러가드라.(일동 웃음)

그러고서는 인제는 저 낙사방인 간구주화라. 그 곁에 있는 사람은 초부. 나무꾼이란 이 말이여. [조사자 . 나무꾼. 초 초 뭐요?] 초부. [조사자 : 초부.] 낙사방인 간구주화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응 거기 두는 것을 오래 보지 말라 이말이야. 우리 신선세계 하고 이 인간세계 하고의 차이가 여기서는 한 시간이 몇 십 년 이상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니 까는 거기 두고 흘러가지 말고.

처기난처 강망기라. 초부, 초부라는 것은 나뭇꾼이란 말여. 도끼자루 썩는 것에, 도끼자루 썩는다고 그러잖아. 도끼자루가, [조사자 : 그런 말 하지요. 어른들이.] 도끼자루, 도끼자루가 썩도록 그걸 당신은 보고 있으니, 집에 돌아가는 것을 잊었느냐 이말이여. 그러니까 일찍 얼른 가라 이말이여, 왜. [조사자 : 그 안가면은 완전히 여기에서 잠깐 보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가 와보니깐, 자기가 살던 집도 읊고, [조사자 : 아! 세월이 다 갔구나!] 그렇지. 몇 십 년이 흘렀다 이말이여. 그러니까 지기 처자들이, 있던 사람들 읊고 그렇다 이말이여. 그랬다는 거여. [조사자 : 그런 얘기구나! 저희는 자세히는 모르고 그런 얘기, 신선 얘기가 있구나, 인자 오 그것 있구나.] 그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여.

[근곡리 설화 3] 근곡리 1앞뒤

근곡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김병준(74, 남) 1995. 5. 13.

지명 유래

· 제보자는 앞 이야기를 마치고 물려서려고 하였다. 조사자들은 '소개시켜 주신 분이 무엇 이든지 물으면 다 대답해 주실 거라고 하던데요'라고 제보자에게 말하면서 지명 유래에 묻자 해 주신 것이다.

1) 마두 유래

[조사자 : 여기 가면은 마 뭐라더라?] 마두. [조사자 : 이름이 왜 마두예요. 거기가?]

마두라는 것은, 이 뭐 산이, 뭐 말 형체로다 생겨서, [조사자 : 산이 말 형체로 생겨서.] 그래서 말 그래서 마두라는 데, 말머리 쪽으로는 동네가 또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말머리쪽으로 있는 동네를 마두라고 그러고, 그게 여 중간에 있는 데는 종평이라고 그런데, 종평이라는 곳은 말허리통을 거기 그거를 상징해서 종평이라고 해. [조사자 : 다 마을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종평?] 고 산이 말미산이라고 그러는 산. [조사자 : 말미산요. 말의 마지막 부분.]

2) 노동의 유래

[조사자 : 노동은?] 노동이란덴, 요게 요 위에 저 노계바위라는 게 있어. 노계바위. [조사자 : 노계바위?] 왜, 왜 저, [조사자 : 정철 그 노계인가?] 아니. 정철은 저기 저 송강이지. [조사자 : 송강 정철, 송강이 정철이고.]

왜 저 예전에 마구, 마귀 할머니라고 그러잖아. 삼신산 거 삼신 할머니

니의 마귀니 뭐니 그러는 건데. 거긴 약을 관장하는 그 저기 노구 할머니가 있어. 그런데 그 바위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저 드러나게 하면 동네 부녀자들이 바람이 나고, 그 좋잖다고 그래서 그거를 덮어 버렸어.

[조사자 : 왜 바람이 나오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풍수지리설로 해서 그런지, 하야튼 그렇게 그런 말이 있다고 여기에. [조사자 : 그래 그 덮어가지고 바람이 없어졌다.] 아 그래서 덮어 놓는거여.

여기 장승도 있던데. (Tape 뒷면에 계속) 아 거기다가 까뭉겨 가지고 해다가 인자, 그래가지고서 확실한 것은 그 뭐 인정 안하는 것이지만서도, 인자 그런 말이 자꾸 불상사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다 이러는 거지. [조사자 : 거기 산세가 이렇게 있으면 그 말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거기를 그 공장을 세운 후로는 말머리에 그, 물이 그 샘물이 잘 났던거여. 잘 났는데 거기 짓고 나서 딱 끊어진 거여.

[조사자 : 그럼 어떻게 살아요. 거기는?] 그렇게 인자 자가 수도를 전수들 물어서 인자, 원 이전부터 내려오던 샘물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그냥 바위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잘 났던 것인데, 그냥 딱 끊어진 거여. [조사자 : 앞 정기를 딱 끊은 거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수액을 갖다가 눌렀는지, 하야튼 어떻게 된 건지 끊어진 거. 다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들 하고 있지.

[근곡리 설화 4] 근곡리 1뒤

근곡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김병준(74, 남) 1995. 5. 13.

날마다 산소에 오가는 안장의 묘자

지명유래에 대해 계속 설명하는 동안에 조사자가 소금장수나 효자 이야기를 해 줄 것을 청하자 지명유래의 계속적인 설명과 함께 효자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옛날에는 할아버지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금장수 이야기니 막 그런거요.] 그전에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다. [조사자 : 그런데 유명한 효자같은 건 없어요. 그런 얘기 모르세요?]

예전에 여 여기 저 안창이라는데, 안창. 내창이라고 해, 지금은. [조사자 : 안창. 내창.] 안창이라는 건 우리네 속언으로 말하는 데고, 원저 한자로는 내창이라는 텐데. 거기 저 박서방네가 효자가 좀 있었다고. [조사자 : 박서방네요?] 그런 말을 하곤 해. 여기서는 거리가 한 오리상 떨어져 있지.

[조사자 : 어떻게 해야 효자란 소리를 들었지요.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시 저 대개 예전에는 효자라면 부모에 대해서, 산소를 쓰면 시묘라고 해서 그 산에 가서 인자 삼 년인지, 공자는 말하데 삼년상 백에 시묘를 살지 말라는 거여. 인자 그게. 그런데 삼년을 꼭 저 시묘를 안살고서는 그냥 집에서 그냥 날마두 그냥 산소에 다녀온다는 거지.

[근곡리 설화 5] 근곡리 1화

근곡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김병준(74, 남) 1995. 5. 13.

인장지덕 목장지애(人長之德 木長之害)

옛날 이야기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요청하자 해 주신 것이다.

[조사자 : 그 나무 말고요. 저기 커다란 나무요. 옛날 막 거기 잘못 건드려가지고 동타 나가치고 누가 막 아프고 그랬다는 얘기 있다던데?

그 분이, 아까.]

아이구 동티. 이거 뭐 대개 숲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지. 건드리면 실제로 참 나무 장녹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뭐, 그건 밤나무 같은 것 많이 하거든. 밤나무에 그거 저 뭐여. 그, 이 가스,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밤나무 비면서 가스 맡으면 그 까딱하면 큰일 난다고. [조사자 : 그게 어떤 건대요?] 밤나무. 원래 큰 나무들은 대개가 그런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면은 좋지 않다는 거야.

그거 뭐 말이 있잖아. 사람은 인장지덕이요, 목장지해.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보고, 나무는 큰 나무는 해를 본다는 거여. [조사자 : 그것 건드리면 안되겠네요?] 그래서 나무가 그런 가스도 있으려니와 그 나무가 크면은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그 인자 지게도, 사람도 가다가 잘못하여 쓸어지는 거고. 다치기도 하고.

[근곡리 설화 6] 근곡리 1투

근곡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김병준(74, 남) 1995. 5. 13.

도깨비의 장난

[조사자 : 도깨비 불이 옛날엔 많았다던데요?]

도깨비 불이, 저 예전 농사지러 가면, 저 들녘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켜져 그 있다가가서는 그 밤에들 물들을 대고. 인제 봄 늦게 물들을 대러 가면 이것이 거기 있다가, 그냥 쭉 이렇게 가네, 그냥.

[조사자 : 그냥 불 그냥 있다가 움직여요?] 나는 못 봤는데, 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물을 인제 밤에 물을 푸는데, 그것이 쭉 와가지고서는, 사람 물 푸는데 옆에 와가지고 있는데, 실지 그냥 확실

하게 이게 나타나 보이지도 않고, 은연 중에 이렇게 사람같긴 한데, 은연 중에 이렇게 있으면서 입으로다 '중얼중얼중얼중얼'하고 그러더라는 거여. [조사자 : 혼자 중얼중얼요. 사람처럼요?] 응. 그랬단 말은 내 들었어.

[조사자 : 그런데 그것 원다리 하면은 힘을 못쓰는 거예요?]

원내지기. 응. 원내지기를 이렇게 원다리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걸 넘어트린다는 거지. 그러면 그놈이. [조사자 : 힘을 못써요?] 힘을 못쓰고 물러간다는 거지.

[근곡리 설화 7] 근곡 1뒤

근곡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김병준(74, 남) 1995. 5. 13.

조래미터의 유래

[조사자 : 아침에 열심히 씨름했는데, 아침에 딱 보면 빗자루 그랬다는데요.] 여기 요 위에 저기 조래미터라는 저 터가 있어. [조사자 : 조래미터요?] 조래미. 예전에 조래미질 하던. [조사자 : 아하 쌀 할 때 조래미.] 그게 인저 집을 짓고 살면은 십 년인가 이십 년 안에 부자가 된다는 거지?

[조사자 : 어떻게요?] 그니까 우연히 잘된다 이말이여. [조사자 : 터가 좋구나! 명당.]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거기서 영영 살고 있으면는 도로 그냥 패가망신 한다는 거. [조사자 : 그래 딱 십 년만. 대체 왜 그렇게 되는거지?] 그니까 조래미는 일단 한 번 거기서 답아졌으면 갖다 쓸게 마련 아냐. [조사자 : 아하 너무 웃긴다. 그렇구나! 맞아!]

근데 거기 집이 전에는 소도방이 이렇게 술이 있는데, 소도방을 이렇게 하면은 그 무슨 소리가 난데요. 그러면 가다보면은 그 소도방 뚜껑이 술보

담 더 크거든, 약간은. 언제든지. 그게 들어가질 않거든, 솔 속으로다가. 근데 그게 솔 속으로 들어 갔단 이말이야. 그러니까 도깨비 장난이라는 거여, 이게.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도깨빈지 뭔지 인정도 안하고.

[조사자2 : 옛날에 도깨비 만나면 어떻게 한데요?] [조사자 : 어떻게 살아 남아요? 막 계속 같은 길을 돌구 그렇게 한다는데] [조사자2 : 쫓아오고 그런다면서요?]

아니. 이렇게 뭐 인제. 그 그러고 인제 또 도깨비한테 흘린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 원래 후미진데 인제 전 저 물 물건 물가 있는데, 그런 데서 그게 많이 나오는데, 어디 저 김량장이라고 용인이라고 여기 있어요, 요기. 여기도 용인 읍내에.

· 외사면인데, 저 가다가 인자 오는데, 저 물개시리 오는데, 아 앞에서 사람이 간다 말이며. 아 사람이 가니까 거기 길인 줄 알고, 뒤에 쫓아오던 사람이 그 사람 가는 길만 쫓아서 또 갔단 말여.

아 밤새도록 헤매고 보니까, 낭중에는 저 덩불 밑, 덩불이란 말여. 뭐 가시덤불. 그 밑에 가서 그냥 누웠다 누웠었다고. 그럼서 그래서 그게, “도깨비에 흘려 가지고서는 그렇게 됐다.”

인제 그래. [조사자 : 도깨비하고 씨름 했다는 얘기는 많던데?] 일반 얘기는 몰라도 그래, 그랬다는 거여. 인제 그래서 그냥 그 가시덤불에 그냥 찢려 가지고 상처도 나고. 이려고서는 드러누워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 인제 구해서 엮어다 인자 놓고 그랬다는 얘기. 여기 인자 근처에 여기서도 이 근처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근곡리 설화 8] 근곡리 1위

근곡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김병준(74. 남) 1995. 5. 13.

어린 신랑 때문에 일어난 일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자가 그렇게 실하고 나이가 많으니까는, 저 남자는 신랑은 적고 쪽그마니 열 세 살 먹었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인저 외지에 있는 방물 장사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머리를 빗서 주는, 빗겨 주어가지고 상투를 트는데, 인저 머리를 빗기니까는,

“아들이냐?”

고. 그러더라는 말이 있잖아. [조사자 : 방물장사가 중매하는 거예요?]

아니. 중매가 아니라, 방물장사라는 것이 노리개 같은 거 뭐, 이런 거 잡화같은 거 인저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여자지. 예전에는 그런 방물 장사가 댕겼거든. 이제 집에 등허리 지고서는 [조사자 : 그때는 가게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보부상이라고 예전에는 말했지.

[조사자 :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어봐가지고 어찌.] 아 들어오니까는 머리를 빗기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냐?”

고. 인제 이렇게 물은 거 아니냐 말야. 차이가 지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조사자 : 그래서 아들이냐고. 아닌데 남편인데.] 그러니까 대답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꼬덕꼬덕 했다가. 그랬는지 나중에는 나중에 그 방물장사가 인제 확 막 냥 호령을 하면서,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어디 있냐?”

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말들이 있다는데.

[근곡리 설화 9] 근곡리 1회

근곡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김병준(74, 남) 1995. 5. 13.

사명당이 스님된 이유

앞의 신랑다루기에 대해서 질문하자 해주신 이야기이다.

[조사자 : 그렇게 해서 증말 죽은 신랑도 있다 하던데?] 그 저기, 그
게 저기가, 인저 사명당, 사명당이 그랬지. 사명당이. [조사자 : 사명
당?]

사명당이. 그가 처음에, 저 그러니까 불가에 입문하기 전에는, 그가
저 유생으로써, 선비로써 그냥 참 에 선비의 집안이었거든. [조사자2 :
선비의 집안요?]

응. 그랬는데, 그 장가 들러 가가지고서는 그냥 그 아들이, 아들이 장
가들다가 그랬는지, 할튼 그런 저기를 당해가지고는,

“에이 이 세상까지, 에이 못 산, 살기 싫다.”

고. 그래가지고 불가에 가 입문했다는. [조사자 : 그렇게 해서 불가에
갔구나! 사명당이.]

[근곡리 설화 10] 근곡리 2왕

근곡리 이장택,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박유순(61, 여) 1995. 5. 13.

도깨비 장난

근곡리 이장님댁을 찾아가자 이장님은 안계시고 어머니와 이장부인이 아이들과 있었다.
조사자들이 온 목적을 말하고 풍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다가 도
깨비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조사자 :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도깨비 불 나왔다는데 정말
이예요?] [청중 . 그전에 저기, 저기서 나왔대.] 그전에 몇 해 전에 나

시집오니까 그런 소리 하더라고.

[조사자 : 도깨비 나올 때 어떻게 흘리는 거예요?] [조사자2 : 도깨비 나올 때 흘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안 겪어 봐서 모르지. 우리 할아버지 있으면 얘기해 줄텐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밤새도록 우물의 물을 퍼내고, 어떻게 하지. 어머니 퍼내고 가면 도로 고여 있다고 했나? 도로 담아 있다고 했지? 도깨비 장난이지.

[근곡리 설화 11] 근곡리 2환

근곡리 이장택,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박유순(61, 여) 1995. 5. 13.

귀신에 놀란 일

이장택에 여러가지 민속과 설화를 채록하는 중에 도깨비처럼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옛날에 실제로 경험하였다며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때 밖에 나갔던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이야기 판에 끼어들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치고 점심을 차려다 줘서 함께 먹고 계속 이야기를 채록하였다.

[조사자 : 할머니 귀신 얘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었요? 어렸을 적에 들은 구신얘기요?] [조사자2 : 무서운 얘기 많잖아요?]

내가 혼난, 한 번은 혼난 적이 있지. [조사자 어머니!] (이때 할아버지께서 집안으로 들어오심.) 아니. 아버지가 논예를, 저 갈(깎)을 깎으러 가셨는데,

“점심을 갖다 드리라.”

고. 그래서 내가 가 가는데, 좀 깊숙하지 뭐여. (할아버지와의 대화 생략) 그래가지고서 인제 논을 도시락 싸서 갔는데, 그 땐에, 그래서 인

저 학생들만할 때지. 아우 그냥 이만한, 그 뭐여 짚레냥구 가서 덤풀이 이만한해. 이만한데 이냥 그 가운데 가서 머리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섰는거여.

[조사자 : 보셨어요?] 응. 그게 난 그때는 귀신인 줄 알아? 그래 그때 거기 맨 처녀귀신 뭐 뭐 그 애총이 많았었다. 그래서 미섬미섬 했는데,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고 해서 인자 갔는데, 이런 덤풀 사이에 이렇게 섰 섰는거여. 여기 머리가 이렇게 산발하고, 이렇게 섰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즐달음질을 한거여. 아버지 찾지도 못했구.(일동 웃음) [청중 : 그건 구신이지.]

난 그냥 하두 섰해서. [조사자 : 여기 도깨비 나왔다면서요?] [청중 : 응.] 봐가지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뛰어와갖고선 동네 앞에선 마음을 놓고, 집으로 왔다구. 나는 그것 밖에 없어.

[근곡리 설화 12] 근곡리 2할

근곡리 이장택,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양세규(62, 남) 1995. 5. 13.

마두의 유래

식사를 마치고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묻자 해주신 것이다.

[조사자 : 저기 가면 말, 산 모양이 말의 형상을 하고 있다면서요?] 말모양. [청중 : 어디?] [조사자 : 그 산요. 그래서 그쪽이 마두, 말머리 마두.]응. 말대가리 마냥 됐다구 말머리. 말 대가리. 말대가리라서 마두라고 하잖아. 그래서 전엔 말도리 말머리 이랬거든. 시방은 마두지만, 이전부터 시방도 말머리 말머리 하거든. 그래 원명에서 마두라고 그

래.(중간에 여러가지 이야기 있음)

[조사자 : 도깨비 얘기, 예를 들면 쇠금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며?]

요렇게 술이 있는데, 술 술두방 있잖아! 소두방을, 소당에다 넣어놨단 말여. 그러니 사람이 끄낼 수가 있어? 못끄내는 거지. [조사자 : 도깨비 가요?] 그래 그냥 놔두면, 그 이 이튿날 저녁에 와서 도로 끄내 놓는다 구. [조사자 : 도깨비들은 해는 안끼치지요? 장난만하고?] 그렇지. [조사자 : 귀신하고 다르지. 귀신은 해를 입히고 그런다는데?] 몰라.

몇 해 전도 요기 예전에도 도깨비가 불이 왔다갔다 했는데, 요즘은 자세히 안봐서 내가. 저녁에 저녁 먹고 요렇게 나오면 어시렁 달밤, 그러니까 구름이 드문드문 이렇게 끼고 그런 달이 환하게 밝고 그림 그리고 할 때. [조사자 : 어스름 할 때?] 응 그때 나타난다구.

요 앞에 저기서 여기꺼정 오는데, 요새는 보지를 안해서 몰라. [청중 : 요새는 읍잖아!] 아니 몇 해 전에도 있었어.

[근곡리 설화 13] 근곡리 2회

근곡리 이장대,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양세규(62, 남) 1995. 5. 13.

동네 여자들 바람나는 노구바우

옛날 이야기를 해달고 하였지만 없다고 하셨다. 부탁을 하며 이곳의 지명을 들어 이야기를 청하자 구술한 것이다.

[조사자 : 노동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노동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여기 노구바우가 있어. [조사자 : 노바위요?] 노구바위. [조사자 : 바위 이름요?] 응. 요기 바로 위에 있어. 집 뒤로. [조사자 : 그런 얘기 있음 해 주세요?]

영. 그래서 그것 땅에다 파묻어 놔거든. 자꾸만 나오면 여자들이 나, 바람이 나가지구 판데로 도망가구 구래서. [조사자 : 그 바위 때문이에요?] 영.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부역이로다 해서 파묻어 가지고 땅속에 들었어. 이 바우가.

이 불끈 솟은 바위데. 요기 바로 있다고. [조사자 : 뭐 그런데 그 바위 나오면 바람난다고 말은 어떻게 내려온 말이에요?] 뺱 돌아나오면 여자들이 나가고 나가고 그랬다고, 붓따리 싸가지고. 나가구 그랬다구. 그전 옛날에두 엄하고 그랬을 때도.

[근곡리 설화 14] 근곡리 2부

근곡리 이장택,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양세규(62, 남) 1995. 5. 13.

삼천갑자를 산 동방석

제보자가 지명전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조사자가 이것 저것을 제시하는 도중에 생각이 나신 듯이 구술한 것이다. 제보자가 구술하는 동안에 전화 연락을 하였던지 한 분이 오셨다. 그분은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만 계셨다.

[조사자 : 처녀귀신 총각귀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응 그런걸 해야 돼? [조사자 : 예! 그런거요.] 가만히 있어. 뭐 있나? 그런데 그전에 왜 정 때는 있었어. 그게 총각귀신 같은데, 땡기꼬리가 치렁치렁하게 뒤꽂무니 닿는데, [청중 :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학생들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조사자 : 그런데 그게 뭔데요?] 그게 귀신이지. 혀 물고 죽은 귀신. [조사자 : 처녀귀신 총각도 막 끌고 간다고 그러던데요?] 땡기 꼬랭이 이렇게 따가지고 이게. [청중 : 쟁기채금 자라나듯이.] (본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 생략.)

그런데 삼십이면 석삼자 하고 열십자 아녀? 그리고 갑자. 응 근데 저기 뭐여 저 염라대왕이니까 사자를 시켜서,

“동방서기를 가 잡아 와라.”

그랬단 말여. 그러니까 그걸 동방서기가 알고는 말야, 사자 온 놈을 (이),

“그 동방서기를 찾으라니, 동방서기가 어딴나?”

그 동방서기한테 물어봤단 말여. 그러니까,

“글쎄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있냐구. 이왕 온김에 술이나 한잔 먹자.”

구 말야. 그래 술을 곧드레가 되가지고 맥여가지구 보냈드래. 그래 염라대왕한테 사자가 혼났을 꺼 아냐? 그래 인자 그렇게 핑계 되다가 나중에 잡혀갔대 그려. 인자. [청중 : 그 한하고.]

잡혀갔는데 보니까 염라대왕이 푹박푹박 즐고 있더라. 그래 그 붓. 있잖아. 붓. 그 떡, 떡갈아 가지고 붓으로 하는 거. 그 열십자 위에다 점을 꼭 찍어 놔거든. 그러니까 일천천자가 됐단 말여. 그래서 삼천갑자가 된거여.

[조사자 : 삼천 갑자 동방삭이?] 삼십 갑자인데. [조사자 2 :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조사자3 : 되게 오래 산 거네요? 삼천 갑자를 살았으면.] 그래 삼십 갑자가. [청중 : 삼십 갑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그래 이놈이 꼬박꼬박 조는 틈을 타가지고 붓으로다가 그 점을 꼭 찍어 놓았던 말여.

[근곡리 설화 15] 근곡리 2부

근곡리 이장택,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 최기복(62. 남) 1995. 5. 13.

찬물에 목욕해도 춥지 않은 제관

제보자는 이장님 댁에서 점심을 먹고 이야기 판을 다시 시작하였을 때 오신 분이다. 고향이 강원도 춘성군 남면 광판리인데 그곳을 떠난지 40년이 되었다. 이 근곡리로 이사온지 벌써 15-6년이 되었다고 한다. 호가 하서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아 이곳의 식자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야기도 조리있게 잘 구술하였다. 마을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관의 행동을 설명하며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저 강원도 홍천, 홍천군 북방면 [조사자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면. 이 북방면 고 안, 안에 들어가면은 동네 들어가자면 숲이, 숲이 아주 우거진 데가 있어. 아주 숲이 큰나무가 우거진데. 우거진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새끼를 왼새끼를 파가지고 이렇게 쪽 붙잡아 매놔거든.

근데 인제 그게 안동네, 그 안동네가 아주 그 산뒀인데, 굉장히 흙해. 그런데 인제 거기 거기는 일년에 그 정월달에, 정월달에 제사를 지낸다구. 그때 그게 숲에다 대고서는 인제 제물을 해서,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를 잡아놓고 그러고서 지내는데.

인제 제수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지내는 사람은 하야튼 상가에는 안갔다 오고 초상난 집도 안갔다 오고, 이 아주 아주 몸을 정갈하게 한 사람, 고런 사람이 제사 지내는 날 아침에, 아침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구. [조사자 : 굉장히 추울 텐데?] 응? [조사자 : 굉장히 추울 텐데?] 가장 추운데.

그래 물을 깨고 얼음에 들어가서 해도 딴 사람들이 보기에 얼음이 여기 어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안 춥다구. 그러니까 그게 신이 실렸다 이렇게 보지. 그러니 목욕을, 목욕을 싹 하고선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이 인자 제사를 지낸다구. 그러니 정성껏 해서 제사를 지내구 나면, 그래 그 해는 아주 태평해. 동네가.

근데 제사를 안지내면 동네에 와서 애를 물어 가, 호랭이가. 호랭이가. [조사자 : 호랑이가요?] 응 거짓말 같지. [조사자 : 호랑이가 거기

신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지. 호랭이가 애를 물어 가니까, 그걸 안지내면 안돼. 안한 해는.

“그까지 것 미신인데, 그까짓 뭐 지내느냐?”

고. 안 지, 안 지냈다고. 근데 애를 물어 갔어. 애를 하나만 물어 간 게 아니라, 한 두 명 물어 갔다고. 그래 고 다음부터는 계속 고기서 제사를 지내지. 아주 정성껏. 그런데 그 보통사람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한 50대 된 사람이, 그런 나이쯤 많이 먹은 사람, 동네에서 덕망이 있다는 사람, 그것 혼자만 하는게 아니라 부부가 다 목욕을 해.

근데 찬물에 들어가서 목욕해도 떨지도 않는다고. [조사자 : 그게 신이 내린 거네요?] 그렇지. 그게 산신령이 봐준다고.

[근곡리 설화 16] 근곡리 2부

근곡리 이장대,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최기복(62, 남) 1995. 5. 13.

돈이 사귀된 도깨비 터

줄다리기 민속을 조사하던 중 귀신에 관련된 상황을 이야기 하다가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것은 제보자의 고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난 강원도, 고향이 강원도거든. 강원돈데 [조사자 : 강원도 어디세요?] 춘천군 남면 광판리 [조사자 : 강원도 춘천군 남면 광판리?] 영. [조사자 : 여기에 언제 오셨어요?] 나? 여기에 온지 꽤 오래 됐어. 오랜데. 거기서 떠난지가 한 40년. [조사자 : 40년이면 굉장히 오래 됐네요?]

근데 거기에 어떤 집이 있었냐면, 아랫 동네에도 큰 집이 하나 있고 꼭대기 동네도 큰 집이 있어. 인제 우리가 살던 집이고, 아래 동네는 인저.

그전에 진 진사 살던 집인데, 그집 앞을 지나가라면, 말을 타고 갔거든. 그전에 무슨 그 지금으로 얘기헐라면 민장이라거든지 군수라든지 그런 사람이 인자 말을 타고 지나가잖아. 그럼 말자귀이 [조사자 : 뭐요?] 그 집 앞에서 가서 못가, 달라붙어. 니려서 가야지. [조사자 : 아- 내려서 가라고?] 니려서 가라고 말자귀이 딱 달라 붙는다고. 그럼 니려서 가거든. 근데 거기 인제 그 집이, 그 집이가 그렇게 되니까, 인제 먼저 살던 사람이 도저히 뭐 무서워서 살 수가 없거든. 그래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아주 싸게 샀어. 그 뭐 아무도 안오니까 싸게 살 수밖에. 그래 사가지구 들어가지구,

“내가 왕이다.”

그래놓구는, 인제 거기 그냥 밤에 나가 돌아다니는 호랭이, 돌아 돌아다니며 큰소리를 치고 저기 했는데. 아이 있다 보니까 솔뚜껑이 속으로 쏙 들어갔네. [조사자 : 그게 원래 안들어가는 거죠?] 안들어가는 거지, 그럼. 솔 솔뚜껑이 솔속으로 쏙 들어갔는데,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래 솔뚜껑이 나, 나와야지 그놈의 게. 그러니까,

“무슨 놈의 고약한 짓이나?”

고 큰소리를 치면서, 아무리 해도 이놈의 솔뚜껑이 나오냐? 그래 그 때까지고 어떻게 저걸 하니깐, 아침에 나가 보니까 솔뚜껑 멀쩡허니 올라 있단 말여. [조사자 : 장난친거네?] 장난친거지. [청중 : 그 도깨비가 장난한거지.] 그래. 그래서 그 도깨비를 예방할려면,

“기둥에다 갖다가 저 나무 말뚝을 해 박으면 된다.”

고. 해가지고 [조사자 : 기둥에다 나무말뚝?] 이렇게 가지친 듯 갈라선대 있잖아. 거기다 인제 말뚝을 박, 해박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래도 안돼 이게. [조사자 : 그것 제법 세네?] 아이 세구 말구.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다 살다 삼 개월만에 이사를 나왔버렸어. 이사를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갈 사람이 없어. 그래 이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혈을 꺼 아냐? 그 다음에 파, 혈으면서 어디를 파 보니까 항아리가 있더라, 항아리. 항아리 속에 이 그전에 돈은 이렇게 둥그란데 구멍이 뚫려거든. 엽전. 엽전. 그게 그냥 항아리 속에 가득 있었어. 아주 그냥.

[조사자 : 돈인데요?] 잉 돈이지 그럼. 그래 그게 요사를 부렸다고 해는 거지. [조사자 : 그게요?] 응 그래. [조사자 : 그 엽전이 말하자면 도깨비 역할을 한 거예요?] 응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지. 오래 묵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집이지. 지금도, [청중 : 몇 백년 된 거지.] 지금들은 아마 그런 것 못 봐. 못봤을 거야. 그래 이 우물이.

[근곡리 설화 17] 근곡리 3월

근곡리 이장택,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최기복(62, 남) 1995. 5. 13.

도깨비 터의 운수

앞의 귀신 퇴치 방법의 구술을 마치고, 이어서 생각난 뜻이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앞의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경험한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그 대개 도깨비터란데 가면 음산하거든, 집들이. 우리가 살던 집이가 도깨비 터야, 그전에. 우리 어릴 때 살던 강원도 집이. [조사자 : 강원도요?] 강원도. 근데 이제 그 도깨비, 도깨비 터는 도깨비하고 잘 사귀면 돈을 잘 벌어, 아주. 도깨비가 주서다 막 갖다 줘. 그냥 막 갖다 준다구.

[조사자 : 귀신하고 다르구나!] 그럼 도깨비하고 다르지. 그런데 도깨비 터는 대개 그 도깨비가 갖다준 재물로 땅을 사야 돼. [조사자 : 땅을요?] 다른 거를 해 놓으면 그냥 가져가버려. 읊어져 버려. [조사자 : 도

깨비가 다시 가져가요?]

도깨비가 읊애는지 하여튼 읊어져 버려 하여튼. [조사자 : 땅을 못 들고 가니까?] 그래 땅을 사야 하거든. 그래 이제 도깨비가, 도깨비가 대개 해주는 것이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십 년 동안은 아주 주인한테 잘 해 줘. 그러니까 십 년이 넘으면 그 다음에 해꼬지 하기 시작해. [조사자 : 딱 십 년?] 응. 십 년이 넘으면 그래.

인자 우리 살던 터가, 애긴데 그래 그런 터인게, 우리 아버지가 그리 이사를 오셨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도깨비랑 잘 사졌어. 해마다 대접을 잘 한거야. 도깨비터엔 어떻게 하나 하면? 개를 길러 가지고 팔아먹으면, 팔아먹잖아. 개를 팔아먹었다고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쓰러져. 사람이 멀쩡이 걸어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저 평전집이지만, 그전에는 마당이 있고 봉당이 있구, 그 다음에 마루가 있고 그러잖아. 멀쩡한 사람이 거기 걸어가다가 쓰러진대구. 그냥 쓸어져. 개같은 거 그냥 팔아먹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 개를 잡아가지고 수수팥떡 있지. 수수팥떡을 해서, 이 그런 집들 보면 대개 저기 나무를 삼각형으로 세우고, 삐(뻐)로 삐를 요그만해. 요그만한 삐를 여러 개를 요렇게 세끼로 요렇게 엮어가지고 그 속에다 메달아 놓고, 그리고 짚을 갖다가 꼭 묶어가지고는 비 안맞게 이렇게 치료를 해 줘. 그게 이제 도깨비야. 도깨비를 위하는 거야, 그게. 그럼 그 앞에다 갖다 놓고선 수수팥떡 놓고, 개를 잡아서 고기다 놓고 고사를 드려. 고사를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나면 집안이 태평해.

근데 그렇게만 안하면 밤에 저들 자느라하면, 예를 들어서 처녀가 자잖아. 그러면 처녀에 애인이 와서 밖에 와 불러. 예를 들어 제일 친한 사람이 밤에, 그래 와 부르니까 나갈 꺼 아냐. 대문 열어 보면 아무 것도 없어. 그럼 들어와서 자느라하면,

“아이 나 여기 있다.”

고. 또 불러. 그래 그 들락날락 하는 거야. [조사자 : 도깨비가요?] 그렇게 사람이 흘러. 그렇게 흘린다고.

그래서 인자 도깨비를 그렇게 위하는대. 그래 우리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느냐면 이십 칠 년을 살았거든, 그때에. 이십 칠 년 동안에 우리가 돈을 많이 굉장히 많이 벌었어. 땅을 많이 굉장히 샀거든. 근데 이십 칠 년, 이십 한 사 년쯤 되니까, 서서히 시작을 해 이게. 도깨비가 장난을 해.

장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 우리 형수가 밥을 퍼가지고, 지금은 여기 입식이지만 그전에는 부엌에서 불을 때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안, 저, 안에 마루가 있고, 이 뒤로 가면 옷방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 또 이 봉당이 있거든. 그래 인저 밥을 퍼가지고 간다고 가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밥을 냅다 던지면서 나가쓰러진다고 그냥. [조사자 : 이렇게 저리고 그냥?] 응. 그럼, 본인 모르지. 그리고, [도깨비가 떠 넘기는거지.] 응. 멀쩡이 있다가 밥을, 밥상을.

“시아버지 잡쉬유!”

그러구서. 나가서 목을 매. [조사자 : 누가요? 며느리가요?] 며느리가. 본인은 몰라. [조사자 : 잘 밥상 갖다 놓고서.] 밥상 갖다 놓고서, 그러고서 목을 매. 우리까지는 고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인저 우리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든. 하여튼 한 이십 한 삼 년 사 년이 되니까, 6.25 사변 전인데, 구렁이 있지, 구렁이. 구렁이가 이 처마 밑으로 슬슬 기어 가. 마루에서 밥을 먹으면 그냥 그 누런 놈의 짐구렁이가 기어 가.

그래 부엌에는 인저 밥을 할려고 그전에는 전부 나무를 때잖아. 그래 나무가 이렇게 잡아댕긴다고 인제 그러면, 그래 형수가 그걸 가져오지. 가져오면 그 나무에 구렁이가 척척 갸겨 와. 뒤 밖에 나가서 이 보리같은 거 타작을 하거든, 봄에. 그래 보릿단을 이렇게 뒤져 보면 그 속에 또 뱀이 있고. 모 심으로 나가면 또 뱀이 있고. [조사자 : 왜 그렇게?] 호박 따러 가면 호; 그 울타리에 또 뱀이 있고. 그게 인제 저 본인하고

그 집터하고 운이 안맞는다는 얘기지. [조사자 : 그 의미예요. 그게?] 그 의미지.

“안맞으니까 느인 가라.”

는 거야. 가라는 거여. 근데 한참 이렇게 그 집에서 살면서 땅 사고 뭐 하고. 잘 될 때는 이사가는 사람이 없어, 욕심이 나니까.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한 사람 죽어 나가, 두 사람 죽어 나가, 죽어 나간다고. 지금 여기도 도깨비 터가 하나 있다구. 요기 이 양반의 집 위에.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집을 6.25사변 후에 그 집을 팔고서 시내로 왔거든. 그래 누구한테 팔았나 하면, 내 작은 형님의 처갓집한테 팔았어 그것을. 처갓집한테나.

팔았는데, 그 작은 형님 자인(장인)되는 분이, 덩치가 무지무지하게 좋고, 키가 크고. 왜정시대에 저 함경도 만주 일본 당기며 씨름하던 분이야. 그래 힘이 무지게 세지 뭐. 그래 이 양반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대문도 판데로 내고, 그 애 썩워서 위하던 거 그것도 읊애 버리고, 집을 아주 개조를 해버렸어. 개조를 하고 났는데, 이 가끔씩 가다 이 노인네가 가서 벌떡 자빠지네. 그래 어디가 물어보니까,

“위 위하던 걸 위하지 않아서 그렇다.”

고. 그래 나중에 다시 해냈다고. 삼 년만에 다 해냈어. 고대로 아주. [조사자 : 다시요.] 그럼 대문도 원래 대문 했던데로 하고, 울타리도 했던데로 고대로 하고, 그냥 다시 다 해냈어, 원래대로. 그래가지고 십 년 동안 매년 땅을 사가지고 해 그냥. 매년 매년 땅을 사가지고서 부자가 됐어. 동서네가. 10년 동안에. 그냥 읊던 집에서 갑자기 뭐 이상하게 그냥 막 생겨 그냥. 오는 사람이 전부 돈을 가지고 와,

“그냥 돈 쓰라.”

고. 근데 십 년이 넘어가지고 십 이 년이 되던 해에, 그해에 며느리끼 괜히 나가서 벌떡 자빠지는 거야 그냥. 그이 밥그릇을 들고 가다가 벌쩍

짜빠져. [조사자 : 또 10년이 됐다 이거지요? 완전히.] 이제 십년이 넘었다 이거지. 이제 그집하고도 안맞는다 이거지. 그니까 아이 병원에 데려갈 수밖에. 그래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진찰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멀쩡해. 하니께 일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 집에 와서 며칠 있다 또 그래.

그래 인제 하루는, 시아버지한테 밥상을 채려놓고, 그러고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네. 그래서 인제 저녁에 안들어오니까, 바로 그 친정이 그 산너머거든. 산 산너머니까, 그거를 인제 거길 가 본거야. 거기도.

“안 왔다.”

고 그러지. 그래 어디가 찾다 찾다 못찾아 가지고 인제, 그 사돈집이 갔다 오다가 보니까 산에 뭔가 허연게 매달렸거든, 허연게. 그래 가보니까 며느리가 목을 매고서, 신을 벗어놓고서 목을 매고서는 있는데, 요 발끝이 땅에 이렇게 닿은거야, 요렇게. 그래 인제 얼른 가서 풀어가지고 보니까, 뭐 완전히 실신되서 모르지, 정신이. 그래 집에다 데려다 놓고서 얼마 지나니까 인자 깨어났어. 인자 시아버지가,

“시집살이가 싫으냐? 아니면 뭐 섭섭한게 있니? 또 고민되는 거 있니? 그러니까 왜 목을 매니?”

그러니까.

“아이, 나 목맨 적 읍어요.”

목 맨적이 읍데. [조사자 : 아주 هول렸네.] 영. 완전히 아주 هول렸지. 모르지 전혀 몰라. 목맨 거를. 그래가지고 그집이가 몇 년만에 나왔는가 하면, 십 삼 년만에 이사를 나왔다고. 그래 이젠 들어가는 사람이 읍어. 들어가는 사람이 읍어가지고 나중에는 헐었거든.

그집은 헐었는데, 옛날에 부자들이 살던 집이는, 대개 보면 그 향아리 라든가 무슨 뭐 그 칼 있잖아. 큰 칼이라던가 이런 걸 감춰는 게 있어요. 대개 보면 빈 속에. 그래 그집을 헐고서 보, 헐어서 보니까 그걸 못

찾았어. 그런건 못찾았는데, 땅속에 뭐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땅을 '땡땡' 울리면, 그 땅속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난다고. 빈 것 모양.

그러니까 그 그집에서 못살구 나와가지고, 지금도 그 집을 뜯고서 그 옆에다 쪼고맻게 집을 하나 짓고서 인자 둘째 아들이 고기서 살거든. 그래서 지금도 잘 살지. 그런데 그 이 얘기는 뭐 국문과에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 소리지.

[근곡리 설화 18] 근곡리 3월

근곡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최기복(62, 남) 1995. 5. 13.

사귀가 된 금

앞의 이야기의 유형이 조사 목적에 합당하다고 여긴 제보자가 한 가지를 더 한다면서 구술한 것이다. 제보자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놀음을 하면은 잘사는 사람이 없거든. 놀음을 하면 맨날 조금 따고 많이 잃고. 놀음을 한 번 손에 딱 잡으면 놓기가 힘들어. 그러니 학생들도 출가를 해도 아주 놀음잡이하고 하면 안돼.' 당부하면서 시작하였다.

근데, 저기 저 황해도 어느 지방인데, 어느 지방에 빈집이 하나 있어. 아주 무서운 집이 하나 있다고, 흥가가. 근데 대문이, 대문이 열 두 대 문이야. 대문이 그렇게 많은데, 집은 아주 좋아. 기가 막히게 좋은데, 고기는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고기서 자고만 나오면, 자기만 자면은 살아만 나오면 부자가 돼. 근데 들어가서 자기만 하면 죽어.

[조사자 :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되지. [조사자 : 살아나오면 부자가 되는데, 안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가 기까짓 것 못살 바에는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서 견뎌 견뎌가지

고는 한 번 저거를 하고서 잘살아 본다.”

고. 들어가는데 밤중쯤 되면은 고연히 무서워지는 거야. 무서워지는 근데 실지가 무서웁게 맨들어져. 한 열 두시 뭐야. 뭐야 한 시, 한시를 자시라고 그러거든. 그래 12시쯤 넘어 자시쯤 되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천장에서 사다리가 툭 내려와. 사다리가.(웃음) 사다리가 툭 내려온다 말이야. 그게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네깐 놈이 내려오라.”

내려오라지. 그냥 그 머리는 그냥 올라가지만, 할 수 없이 참고 있는 거야. 근데 고 다음에 사다리가 툭 내려와 닿더니, 그냥 험상궂게 생긴 그냥 다리도 이렇게 굵고 그런게 꼭대기서 발이 하나 내려 오는다. 발이 이개만 한게 그냥 사다리를 하나 밟고 툭 내려와 있고. 고 다음에 또 기척이 없으니까 또 하나 밟고 내려오고. 고 다음에 밟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허리까지 내려오던데, 내려오더니 거기까지 오면 대개 다 사람이 다 죽는거야. 고기까지만 오면 벌써 사람이 죽어.

[조사자 : 보기만 해도 죽어요?]

응. 놀래 가지구 죽지. 기절을 허는 거지. 그런 그러고는 또 없어져버려.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거기서 죽었거든. 죽었는데, 그 다음에 고기로 혈게 튀어나 하면 그전에는, 지금은 이 놀음허면 잡아가지만, 그전엔 놀음하다가 잡아갔다 하게되면, 그건 백이, 저거 아주 가서 도장같은 거 막 찍히고 죽이고 했거든.

그런데 놀음, 놀음쟁이들이 놀음을 할라니 어디가 혈 디가 있어야지. 혈 디가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헌거라 이게. 그 집에 가서 놀음을 한창 허고 있는데, 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디 잘 때 없느냐?”

고. 그러니까,

“저기 저 좋은 집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자라.”

고. 그래 거진데,

“거기 가서, 당신 하룻 저녁만 자면 아주 벼락부자 된다.”

고 그래. 거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까짓 거지로 지낼 바에는, 한 번 거기 요기 가 하룻밤 자고서, 어디 죽지 않으면 잘 살아 보겠다고. [조사자 : 밑져야 본전이라고.] 응. 그래 인저 가니까 놀음들을 하고 있어 거기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 뽕땅이나 무슨 장땅이다 무슨 서로 볶아대면서 하는데.

열 두 시가 넘어서 한 시쯤 푹 되더니, 뭐이 그냥 ‘콰앙’ 소리가 나는 거야. 아주 벼락치는 소리가 났어 그냥. 그래 그러니까 놀음하다 말고 죽는데니, 죽는데니까 그냥 뭐 질겁을 하고 도망들을 갈겨 아냐, 다. 그 거지는,

“기왕, 까짓것 죽지 않으면 살기라.”

고. 그냥 붙어 앉아 있었어. 아 그리고 보니까 그냥 천장에서 동전이 그냥 한 마지로 쌓이네. 그냥 고기에. 앉아오니 앉아 보니까 그 옛날 동전이거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근데 그것만, 그것만 가지고서, 가지고 나와도 잘 사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도대체 저 위에 뭐 있는데 이놈의 사다리가 니려오고 그러는 거야.”

하고 고 위 올라가 본거야. 거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이게 칸이 맥혀 있는데, 뚜들키니깐 다른 데는 딱딱한데 그긴 물렁하거든. 그래 거기를 쟁기같은 막 저 부셔가지고, 거기를 딱 헐고서 들어가니까 관이 있어. 관. 관이 하나 있는데, 그 관이.

이렇게 보니까 관이 있는데, 들어가서 그 관을 열어 볼려고 한 발짝 딱 들여 놓으니까, 별안간 무어이 나오면서 귀뻥을 후려 매긴다 말이야. 그냥 그냥 뭘 발 한발작 디리 놓고는 얼굴, 들어가자 마자 그냥 귀뻥을 후려 맥여. 그러나 이 사람도,

“이 새끼가 무어냐?”

하고 같이 후려 매긴거야. 그러고 보니까 저 민속촌 같은데 가면, 뭐 밟으면 별떡 일어서는 거 이상하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 [조사자 : 그냥 딱 밟으면 탁 튀겨 나오게!] 그럼 그래 들어오면서 그냥 그것을 밟으면 귀뽕을 후려 매기니까, 웬만한 사람은 거기 기겁을 해서 죽거든. [조사자 : 그래 같이 때렸어요?] 그럼 같이 때렸단 말이여.

그러고 나서 관을 보니까 관이 굉장히 두꺼운데, 어떻게 열어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저거해 가지고 그냥 억지로 열어 보니까, 전부가 금 금이야. 금이야. [청중 · 관속에 금이 들어 있어. 귀신 아니야.] 관속에서 햇볕을 못보면, 오래도록, 그렇게 된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동네에서 왕노릇 하면서 살더라. [조사자 : 부자 됐네.] 살다가 엇그저께 죽었어. [조사자 : 진짜요?] 그(거)지인 사람이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하지. 재산이 나한테, 나한테 태이지 않으면 아무리 내 걸로 맨들려고 해도 안돼. 아무 소용 없어.

[근곡리 설화 19] 근곡리 3왕

근곡리 이장택,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최기복(62, 남) 1995. 5. 13.

주인을 구한 소

제보자는 사귀가 된 금의 이야기를 마친 뒤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동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때 제보자는 조사자에게 '소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하면서 구술하였다.

호랑이고 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어? [조사자 : 호랑이요.] 호랑이가 이길 것 같지. 잘못 알고 있어. [조사자 :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럼. [조사자 : 그것도 얘기 해 주세요.]

시골에 시골에, 지금들이니까 산골에도 집들이 많지만, 그전에 소를 끌고서 우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대개 멀리 가거든. 그 중간에 집이 없다고. 거기 산골자구니로서 고개 넘어서 또-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가거든.

그래 그렇게 가는데,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갑자기, 앞에서 끌고 가는데, 얼른 오데니 다리로 이렇게 사람을 눌러. 주인을. 주인을 이렇게 눌러니까, 권 주인이 소의 다리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그런데 호랭이가 남에 딱 손거야. [조사자 : 아 지켜줄라고?] 응.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딱 신첩해가지고 그 가운데다 끼고선 그 호랑이랑 싸우는 거야. 이리 들어올라고 하면 이리 돌아서서 이 빨로 막고, 저기 하고. 그러니 호랭이, 호랭이가 소한테는 저. 그래 한참 싸우다가 허면 기진맥진 허니까 호랭이 도망을 가버려.

그러니까 소라는 짐승은 사람한테 그렇게 아주, 고기도 먹으라고 주지, 생명도 지켜주지. 아주 좋은 점이 많다고. [조사자 : 소 많이 키우시잖아요?] 아니여. 소가 이기지 이겨. 호랑이 호랭이, 다른 짐승이 소에 못당해, 절대로. [청중 : 소가 안된데.] 아이 안되요. 이 소 있지요. 소가 신이 나가지고 사람을 채 받았다면, 소를(소가) 공중에도 놓고 계속 간다고 계속. (소가 사람을 해치웠다는 일화는 생략)

[근곡리 설화 20] 근곡리 3부

근곡리 이장택,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최기복(62, 남) 1995. 5. 13.

남의 구덩에 세운 채로 묻은 명당

조사자가 '옛날에 잠 안오면 숫자를 거꾸로 세잖아요? 아니면 귀신이 온다고 한다' 등 어릴 때 들은 그런 이야기 없느냐고 묻자 제보자는 생각이 나셨는지 명당에 관한 이야기

를 해 주셨다.

산자리 같은 것이 있지. 묘를 맨들면 지관이 가서 산 산자리를 보잖아.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는데. 저기 효자는 효잔데 아주 못살아. 근게 자리를 지금은 공동묘지가 있지만, 그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밤에 가 묻어. 밤에 갖다가 남에 산에 묻는다고. 근데 남의 산에 가 묻으니 좋은 자리에 묻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갖다 묻긴 묻어야 되는데. 산자리 잘 쓰면 잘 된다는 얘긴 들었거든. 그래 지게에다 짚어지고 가는 거야. 인제 지게에다 짚어지고선 산에 올라가는 데야. 그 남의 산에 갖다 쓰니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되거든.

그래 산에 올라가든,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댁기다 보니까, 돌아댁기다 보니까 구덩이가 하나 파여져 있거든. 그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냐 하면, 노루 노루같은 거 인저 뛰다 빠지면 잡아먹는 함정이었다구. [조사자 : 아! 사냥하는 거.] 응. 그 높은 산에. 높은 산에 그게 있는데. 지고 가다 구덩이가 있으니까,

“웁다. 여기다.”

하고선 꽤 며어진(내려친) 거야 이게. 며어진니까 다리 있는 걸 먼저 며어진니까, 아이 시체가 발딱 스거든. 그대로 시체가 발딱 손다 말이여 그래 그대로 묻었어, 그냥. 묶은 거니깐. 그대로 묻고 왔는데, 묻고 와가지고 한 삼 년 지내니까, 딴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어렵던 사람이 뭘 어디서 도둑질을 해 오는지, 뭐 이상하게 뭘 인자 부자가 되거든. 그 래 인자 물어본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느냐?”

구. 그러니까, 처음엔 말을 안하더니, 허는 얘기가 뭐냐몬. 자기 아버지 갖다 묻은 걸 딴 사람한테 비유를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두 집안이 안되가지고.”

뛰어와 묻는 사람이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이 와서 물을 거 아니야. 시기하는 사람이 물으니까.

“묘를 쓰는데, 쓰는데 ‘구멍이를 파고 머리부터 집어넣으면 아 머리부터 집어넣으면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갖다 묻었더니 내게 먹을게 철철 흐르는 모양이라.”

고. 그러니까 이리(입으로) 오른 자꾸 들어가기만 하지만, 이리 하나 까 자꾸 쏟아지잖아. 그게 자꾸 준다 이거지. 뭘 갖다가 자꾸, 토해 토해서 준다 그거지.

“그래서 그런 모양이라.”

고. 그런 얘기를 해 주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갖다 물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갖다 묻는 날부터 집안이 줄거든.(웃음) 그런 얘기도 있고.

[근곡리 설화 21] 근곡리 3췌

근곡리,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최기복(62, 남) · 1995. 5. 13.

살아 움직이는 평판리 동자삼

조사자가 동자삼에 대해 묻자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것도 고향인 강원도에 있을 때 들은 것이라고 한다.

1) 팔봉산의 유래

{조사자 : 효자 얘기도 있잖아요? 그 아이를 꿰여서 아버지를 드리면 산다고. 그래서 막상 꿰일려고 딱 봤더니, 거기에 산삼이 들어있다고 산삼얘기 그런 것 많잖아요?}

그것 그거는 애가 아니라 삼이지, 본래. [조사자 : 그것 어떻게 하는 그 얘지요.] 그거는 그 동삼이라고 있어. 동삼. 동삼은 뭐냐든 움직이는 삼이야. [조사자 : 어? 아이동이 아니고 움직이는 동이에요?]

아니. 아이동자 동, 동인데. 아이 아이동자 동자인데, 어린애 삼이라고 동삼이 있는데. 인저 지금들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집이 여기 살며는 앞산에서 삼이 있었다고. 삼있는 산에는.

근데 그 삼이 움직여. 그래 어디를 갔다 오는데, 고기는(거기는) 강원도 살아서, 강원도 애긴데, 강원도 그 광판이라고 하는데 고길 가면은, 광판에서 조금 더 가면 팔봉산이 있어. 그 팔봉산이 어떻게 되있냐면? 이쪽에서 보면 팔봉이야. 봉우리가 여덟개야. 아주 깎아지른게 그 밑에 강이 흐르고 아주 관광지 좋지.

근데 저쪽 뒤에서 보면, 또 봉이 아홉 개야. 저쪽에서 보면, 양평 쪽에서 보면 아홉 개고, 이쪽에서 보면 여덟 개야.

2) 임진왜란 때 춘천의 침입을 막은 노인

여덟 갠데, 그게 인저 그전 임진왜란 그때 애긴데. 애긴데 일본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양평까지 왔어. 양평까지 왔는데 춘천을 점령하려고, 춘천을 들어와 점령하려고 물, 노인네한테 물었어. 물으니까 노인네가 무어라고 하나면은,

“어 이 양반! 참 당신이 거기 가겠느냐?”

고. 양평서 춘천까지가 백 리가 안되거든. 그러니 일본 사람이 그냥 쳐들어 가면 금방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병이였는지도 모르지. 노인네데.

“어 이 양반! 참 뭐가 춘천을 가야긴 가야 할 모양인데, 당신을 생전 가도 못간다.”

고. 양평서 조금 오면 고개가 있다고. 한치고개라고. [조사자 : 한치고개요.] 한치고개. 그 한치고개가 그 양평서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높아. 그게 한치라는 거야 그게.

“저 고개가 한치고개인데, 저 한치고개를 넘어서, 넘어서 이 뭔가 넘어서 죽 가다가 팔만봉을 넘어가지고, 또 구만리 별판을 나가서 억만리 고개를 넘어라.”

쳐들어 간단 얘기야.(웃음) 그게 지형이야, 전부가. 인제 한치고개, 그 팔봉리. 저 팔봉산 있는데, 그 팔봉산을 지나서 강을 지나면 구만리야. 고 동네가. [조사자 : 지역명이요. 한치, 팔봉산, 구만리 그 다음은?] 고 다음에, 고 다음에 또 한참 오다보면 고개가 있거든. 그 이름이 이저 덕만이 고개인데, [조사자 : 덕만이.] 응. 덕만리 고개인데, 그 노인네가 일본 사람 못가게 하려고 억만리 고개라고 그랬어. [조사자 : 이름이 약간 비슷하게 억만리요?] 억만리 고개.

“그 억만리 고개를 넘어야 가는데, 어떻게 하겠냐?”

고 하니까. 거기서 회군을 해버렸대. 그래서 고향을 지켰다는 얘기야. [조사자 : 우리가 새로 한 걸거야.] 근데 거기에 그 팔봉산을 지나서 구만리를 지나서 오면 광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3) 동자삼

[조사자 : 광판?] 응. 광판리. 빛광자에 저 판자. 저 광판리가 있는데, 그 광판리 고기에 한 마을 앞에 산이 이렇게 길다란 산이 높은 산이 내려온 산이 있는데. 여기 삼이 있다고, 삼이. 그전에 있지만 지금은 뭐 캐서야 읊지.

삼이 있는데, 이 삼이 어디서 왔냐 하면 팔봉산에서 온거야. 팔봉산에서. [조사자 : 연희 온거예요?] 영. 씨가 날라와는지 어쩐건지. 옛날 애

기로 왔다고 그러지. 근데 이 팔봉산에는 가면 이 암자가 많고 많다고. 약초도 많고.

근데 거기는 가는 날 닭고기나 뱀을, 닭고기를 먹고 가던지 뱀을 잡던지 하면 이쪽에서 산에 올라가다가 굴러 죽진 않아, 피투성이가 되지. 그건 이상하다고 그건 아주. 그건 그날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야. 내가 몇 번 봤으니까.

그래서 팔봉산 중간에 올라가면 그 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거든. 근데 하여튼 닭을 잡아먹고 가던지 그러면은, 그 산에 올라가면 굴러서 다쳐. 죽진 않아. 거 올라가면 언제 산신, 산신제를 봄에 지내거든. 근데 인제 산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팔봉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 사람들이. 임(산의 잘못)삼을 캐려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야 어느 정도 날짜가 되면 선물을 하는데, 고 건너에 버림산이라고 있어.

그 버림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 지리도 많지, 거기 지금. 그 버림산 꼭대기에 연못이 있지, 좋은, 그 꼭대기에. 참 산 위에 물이 있는 것을 보면 참 괴상하다고. 있는데 인삼을 캐, 캐라고 그러면은 그리 가리켜 줘. “그리 거기 가서 캐라.”

고. 근데 말을 하면 안되. 거기서 그런 꿈을 꾸면, 가 가지고 그날 무조건 그 산에 올라가서 그걸 찾아야되. 그러니깐 이런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어도, 그저.

“밥 좀 달라.”

는 그저 시늉만 해가지고 얻어먹고 올라가야 되. 그래 그 산에 가서 삼을 캐 가거든. 근데 그 동자삼이 팔봉산에서 어떻게 해서 쫓겨났데, 삼이. 쫓겨 나가지고 광판리 거기 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인자 씨를 퍼친거야.

씨를 퍼쳤는데, 그 팔봉산에 갔다 오다 보면, 아주 어린애 그 조그만 개 이쁘장한게 말야 광판리까진 같이 오는데, 그 산 앞에 와선 읊어져 버려. 어디로 갔는지 읊어져 버려. 그러니까 인제 같이 오던 사람들이

놀랐을 거 아냐. 그래서 인저 그 다음에 동자삼이 거기 있단 얘길 듣고 그 산을 간거야. 인저 그 산에 거기 가서 동자삼을 자꾸 찾는거지.

인저 찾으니까 뭐 허고 있느냐 허면, 하나 이렇게 아주 잘 생긴 애가 나타나. 나타나 뭐라고 허느냐면,

“에이 할아버지! 여기 와서 삼을 찾으시면 되나요? 저 건너서 저 그 버림산으로 가시죠?”

[조사자 : 버림산요?] 저 버림, 팔봉산 앞에.

“그 산으로 가시지 왜 이리 왔느냐?”고

“그래 거기 가면 삼이 있느냐?”

고. 하니까,

“있다.”고.

“그 어디 쪽에 있느냐?”고.

“거기 가면, 어느 바위 밑에 가면 있다.”

고 말이여. 그래 그 얘길 듣고,

“아이 그럼, 고맙다.”

고. 그러면서 보니까, 그 애가 읊어. 애가 읊어. 삼이, 삼으로 버린거야. 그러니까 인저 고을(품을)려고 하니까, 고을려고 하니까 삼으로 변했다가, 인자 효자가 되가지고, 저 그 삼으로 변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공양하려 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온 얘기 얘기겠지.

동자삼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 누가 아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거지.

[근곡리 설화 22] 근곡리 3위

근곡리 이장택, 강현모, 노연희, 김은정, 서지숙, 양선영 조사
최기복(62. 남) 1995. 5. 13.

진시황 못구한 불로초

산삼동자 이야기를 마치고, 산삼과 같이 효능이 있는 식물에 대해 생각이 나셨는지 이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불로초 없을 것 같애? 있다고. 여기도 지금 많아. 불로초가 많다고. [조사자 : 그것 먹으면 늙지 않아요?] 건강이 아주 좋지. [조사자 : 불로초가 어디 있어요?](웃음) 그걸 가르쳐 주면 되나? 내게 아니여. 나만 아는데. 어디 대전여? 대전 가면, 대전 저기 뭐 어디더라, 대전 저쪽으로 나가다가 벌곡. [조사자 : 연산면 벌곡리.] 그쪽으로 가면 많지.

불로초가 뭐냐허믄, 왜 불로초 얘기가 나왔냐 하면 진시 진시왕이, 진시황이 그렇게 그냥 호화스럽게 놀고, 놀다보니까 죽는게 참 서럽거든. 그래 죽는게 서러운데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얘기 하니까,
“불로초 먹으면 안 죽는다.”

고 그러거든. 급기야 죽지 안낳는다고 허거든.

“불로초, 불로초 캐 오라.”

고. 사람을 풀어서 중국 전체로 내보냈어. 그래 불로초가 어떤 건지 알아야지 찾아 오지. 그 모르잖아. 어떤건지 모르잖아. 그 돌아댕기다 돌아댕기다 못했어. 못했는데 어떤 선비가, 선비가 인제 그 예지를 발휘한 거야.

“불로초는 중국에는 없습니다. 저 동방예외 예의지국에 있다.”

는 거야. 그래,

“한국에만, 한국에 있는 물건이 왜 중국에는 왜 없느냐?”

“그리 옛부터 우리가 아무리 대국이라고 해도 동방예외지국은 조선이 동방예외지국이지, 당은 맨들은 손들이 중국은 이 오랑캐라 그런다. 이 불로초라는 것은 동방예외지국에만 나지 딴 나라엔 안난다.”

하 그러니까.

“가서 캐 오라.”

고 할 수 밖에. 그래 선비가 온거야. 아 불로초가 어디가 있어. 읍지. 뭐 불로초, 불로초라고 이름을 지어다 붙여다 주어야지, 이제. 그래가지고 고들피 비슷한 거 있지? 왜. 고들피같이 생겼는데 이게 키가 크면서 이렇게 딱 꺾으면 속에, 속에 그 저 진득진득한 즙 나오는 거. 씹 싸먹고 하는 거.(상추에 관한 언급 생략.) 고거를 함경도에 와가지고 그거를 캐, 캐가지고 간겨여.

캐가지고 가서 그 데려 왔거든. 데려 주면 굉장히 쓰거든.

“그 쓰다.”

고. 그러니까,

“불로초는 본래 쓴거라.”

고 말이여 이게. 쓰면서 약간 단기가 있어든. 아! 그걸 먹고, 그걸 한 일주일쯤 먹고 나니깐 밥을 한 공기밖에 못먹었는데, 한 그럭씩 막 먹네. 그러니 밝히 불로초이거든. 밥 잘 먹으면 안늙잖아. 그래가지고 그 선비가 진시황을 그걸 갖다 주었어.

[조사자 . 쓴 것 먹으면 밥 잘 먹고 건강해 지니까?] 그럼 밥 잘 먹고 그러면 안늙지. 아편 있지? 아편도 딱 뭐 꺾으면 즙 나오잖아. 그러면 고들피도 짜르면 즙 나오지. 참 행계도 짜르면 즙 나오지. 숙갓도 짜르면 진 나오지? 그래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런 진이 나오는 거는 인체에 해로운 것도 있겠지만, 대개가 몸에 참 다 좋아.

[근곡리 설화 23] 가작 1원

근곡리 노동마을 입구, 박종수, 강현모, 김유미, 허현정 조사
? (60대 중반. 남) 1995. 11. 11.

마을 엮힌 일화

이야기를 들으려고 찾아갔을 때는 아들, 며느리가 다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옛날 이야기나 설화보다는 마을에 있는 물건에 얽혀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바위나 나무 이야기 등)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꽤 신경을 썼으며, 생각이 잘 안날 때는 생각해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중간 중간 아들이 이야기에 끼어들었고, 며느리도 함께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다.

이제 시작하라우.(조사자 웃음) [청중(아들) : 제대로 하세요, 그럼.]

이 동네가 노동, 동네 이름이. 근데 늙을노자하고 고을동자. 그래 이제 늙은 마을인데, 노인네 마을.

근데 이 동네 저 너머 바위가 있는데, 옛날에 그게 노고바위라고 그랬다구. 그래서 이 동네가 노동이다 그랬는데, 옛날서부터 노인네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제 그렇게 전해 내려왔지 뭐.

근데 그 바위에 시방 봄에 보면은 하얀 꽃이 핀다구. 꽃피는 나무가 있다구 그렇구. [청중(아들) : 바위가 나타나면 미친데유, 사람이. 그렇구.] 그래 인제 노인네들이 좀 많이 장수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 장수한 사람들.(제보자 웃음)

그러구 저 위 가보면. 시내 개울이 있구. 곳은 날에는 그냥 저 도깨비불이라구 해가지구. 이게 일루 확- 개울 계로 했다구.

옛날에 거기 이 동네 노인네, 시방은 노인네 물론 뭐 돌아갔다가, 도깨비가 그래 나타나서 도로 쫓겨온 노인네가 시방 생존해 계시니까. 실지가 그런지 아닌지. 시방 과학적으로는 그런게 어디 있냐고 그러지만은 실지는 장정이나 모두 다들 불 쪼다가 쪼겨 들어와서.

11. 가 창 리

[마을 개관]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1995. 6. 10일, 11. 11일과 16일.

가창리는 면소재지인 백암리로부터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교통이 불편한 마을이다. 이 가창리는 원래 죽산군 근삼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가창과 내창리 그리고 양지군 박곡면 일부를 합하여 가창리라 하고 용인군 외사면에 편입시켰다.

이중에서 내창마을은 40여 가구를 이루고 있으며, 예전에 칭하기를 가난하다는 뜻인 녹두발머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못살던 동네였다. 지금도 부자 동네는 아니지만, 백암면 단위에서 특용작물을 재배·생산·출하하는 곳은 이 마을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마을보다 소득이 나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예전에는 토박이들만 살았으나, 개화되면서 외지인도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으며 전체적인 마을 인상은 상당히 조용했다.

[가창리 제보자 1]

이종극(73, 남)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1995. 11. 11일과 16일

농업에 종사하는 제보자는 나이보다 상당히 젊어 보였다. 그리고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 수정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수정산”이라 말하였다. 또 고장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구술한 것으로 보아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듯 하다. 이곳의 토박이로 발음이 정확하고 말씨도 또박또박하게 구술하여 주셨다.

제공자료 : 설화 1 ~ 2. 8 ~ 11.

[가창리 제보자 3]

이흥수(87, 남)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1995. 11. 16.

나이를 많이 드시고, 6.25 때 적군에게 많이 맞아 몸이 아프셔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소일하며 살아가지 있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계속 이곳에서 산 사람이며,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였었다. 말이 없으신 편으로 치아가 많이 없어 발음이 분명치 않고,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화를 구술해 주실 정도로 협조적이셨다.

제공자료 : 설화 3 ~ 7.

[가창리 제보자 3]

이영세(61, 남)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1995. 6. 10., 11. 16.

우리가 처음 방문한 11월 11일의 다음 날에 막내 딸을 시집 보내,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켰다는 안도감에서 행복한 모습이었다. 마을에서 이야기 잘 하시는 분을 찾으시니, 모두 제보자를 지칭할 정도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어릴 때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고, 지관으로도 30여 년간 일

하시면서 이름을 날리셨다는 분이시다. 그래 조리있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으나, 당일 목이 편찮으셔서 이야기를 힘들게 하셨다.

제공자료 : 설화 12 ~ 17.

[가창리 설화 1] 가창리 1화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이종극(73, 남) 1995. 11. 11.

수정산의 지명 유래 1

우리가 처음 들어간 마을은 가창리 중에서도 내창이라는 마을이었는데, 이 제보자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다. 문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이야기를 해 달라는 조사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하였다. 계속 부탁을 하자, '잠깐 앉자'고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2개의 이야기를 구술한 뒤에 '잔치집에 간다'며 이야기 구술을 중단하였다.

우리 수정산은 족보에도 있는 산이고, 저 근화리에서 명산이라고도 저기 하는 산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 골바우가 있어가지고서 허즈기 터라고 해서, 거기서 허즈기가 사람을 구치구서, 저 흥두께를 해서 내밀으면 저 도실 거기 방죽에 가 뜬단 이런 소문이 있고. 또 저 산 위로 올라가 보면 소 바우도 있고. 또 고기서 좀 내려와 보면 더덕 바위도 있고. 또 고기서 옆 쪽으로 내려오면은 책술과 같이 저기 해가지고 채채로 된 책바위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절이 있어가지고서, 절터가 있어서, 여기서 한참 올라가서 저기하고 보면은 부도 바위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창리 내창으로는 쪽 제대로 된 것은 읍어도, 평풍같이 구비구비해가지고서 냇물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산이에요.

그래서 저 도실이래는 데로다가 똑 떨어져 가지구, 거기서덜, 사람들

이 거기서 좀 낮게 나고. 그저 큰 인물들은 없어두, 그저 아침밥 저녁죽은 덜(계속) 흘리고 이려고 사는 것이 이곳 고장이니깐, 그썸들 알고서 그 저기를 하라구요.

[조사자 : 책술이라고 해서?] 아니여. 거기서 이리 내려와서 보문은 바우가 요렇게 커켜로 요렇게 있어가지고서 책바우라는 바우가 있대는 거.

[조사자 : 저기 책바위가 책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 저기 산 밑에로 올라가고 보면은 명석바우라는 바우가 있는데, 명석 깔아논 거마냥 넓다랗게시리 이렇게 저기한 바우가 있고. 그 골짜구니에서 상긔 올라가면은 평풍바우가 있어가지고서, 병풍같이 이렇게 둘러쳐 있는 그런 바우도 있고. 고 아래는 작은 평풍바우라고 조금 작은게 있고. 우엔 크게 있고 그래. 저기가 되고.

저 멩골쪽이로다가 저기가 보면은 바우가 행성(상여)같이 되 가지고서 저기해서 행성바우라는 것도 있고. [조사자 : 행성이면 별 말하는 거예요?] 아니, 행성. 사람 죽어서 저기 하는 그런 바우가 있다는 그 얘기. 그렇지 뭐.

그래서 수정산의 이름을 그래저래 그러진 몰라두, 이게 이 근화리에서는 수정산, 수정산 이게 이름이 난 산이라고 하는 것이니깐 그썸들 알아요.

[가창리 설화 2] 가장 1앞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이종극(73, 남) 1995. 11. 11.

수정산의 팔명당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잔치집에 가야 한다며 이야기를 중단하였다.

이 수정산이란 데는 팔명당 있다고 하는데, 팔명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 벗고개래는데 그리루다 한 자리 떨어져 있고. 저 도실루다 내려 빠져 그쪽으루다가시리 서너 너덧 군데가 있고.

또 저 신창으루다가 동네 복판으로 쪽 내로와서, 그 이씨네 묘이가 이름있는 묘이라고 해서 그렇게 내려가 있고. 모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 수정산은 팔명당이 있다는 거. 그렇게 저기한 것입니다.

[가장리 설화 3] 가장 1화

가장리 내장, 박종수, 강현모, 이웅현, 원용훈 조사
이홍수(87, 남) 1995. 11. 16.

호랑이 쫓은 할아버지

제보자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셨다고 해서 찾아갔다. 집에서 외출하려고 나오실 때,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며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한다.

범이 있었어요. 범이. 범이 있어가지고 이 놈이, 참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냥, 여기 인자 범이 내려와가지고서나 여기 저 학자 여기 계셨거든. 그 분이 밋 만나가지고서는 범하고 서로 말을 하고. 그 결국 결국은 호령을 하고. 일컬으면은 낯직히 그냥 엎퍼리고 있다가, 이냥 어 저저-호령쟁이여.

“여기, 여기서 어디라구 내려와서 저 하느냐?”

그러면. 슬며시 그때 그냥 슬며시 가고. 이런 얘기는 옛날에 들었고. 그런 얘기 다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저희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전해 들었다구.

[가창리 설화 4] 가장 큰 1앞뒤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이홍수(87, 남) 1995. 11. 16.

수정산의 지명 유래 2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동제와 6.25때의 겪었던 일화, 기우제를 마친 후에 전(11일)에 와서 들었던 수정산 지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었다.

[조사자 : 여기 저기 산을 보면, 바위들이 항상 많던데 그런 바위에 대한 전설 읊어요?] 이 동네는 여기 수정산 뿐만 아니라, 여기가 불바위가 있고. [조사자 : 그런 바위에 관한 무슨 얘기 같은 것?] 유래는 읊지만, 거기가 고 위에 소바위가 있고. 요기 이게 수정산이거든. 그리고 고기에 평풍바우라는게 있고. 또 이 여기 저기에 그런 바위가 있다고.

[조사자 : 그런 바위에 관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뭐' 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건 뭐 별반 없지 뭐. 그 거기가 밑구렁에 그 앞에, 거기에 절이, 절이 옛날부터 그건 거 옛날부터 있었어. 그전에 화재가 났었다는데 또 지었다는데. 에 지금 한 그때는 벌써 (tape 뒷면에 계속)

어- 거기에 그냥 실려 가지고서, 그 절이 그냥, 그냥 그 흙에 실려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선 육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제사 지내. 어- 그래서 여자, 여자 둘 죽구, 거기서 남자 서너이 죽구. 어- 그때 세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그 절도 없어지구서 절은 요 아래가 있지.

[조사자 : 그 바위가 범바위, 소바위 그게 모양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 소바위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기고선 끝이탱이고, 끝투랭이가 뿔쪽해요. 그렇게 그런데 이 병풍바위라는 또 그런 이상하게 생기고. 그리고 유산이라고 생겼어. 이래 병풍처럼 병풍처럼 요렇게 퍼놓은 것처럼 생겼어.

[가창리 설화 5] 가창리 1뒤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이홍수(87, 남) 1995. 11. 16.

도깨비 이야기

조사자가 도깨비나 귀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해 주신 것이다.

우리 자랄 때는 도깨비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주 많이 했어도, 그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이여. [조사자 : 도깨비가 도깨비가 어떻게 했다는?]

도깨비가 뭐 술 술뚜껑을 물고 술안으로, 뭐지 술 술뚜껑이 안에 안으로 이래, 뭐 재겨 재켜놓고서 들어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디.

그건 뭐 무슨 전설인지 뭔지. 하여간 그런 이야기는 인제 우리 어려서 그런 얘기는 도깨비 얘기 들었지.

[가창리 설화 6] 가창리 1뒤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이홍수(87, 남) 1995. 11. 16.

호랑이가 도와준 사람

조사자가 앞의 도깨비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별로 없다고 하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 뭐, 저기 저 아까 얘기헌 호랑이 얘기 그것, 여기 저 아까 얘기했던 도실 거기서 우리가 인자 밤에 오면은 뭐, 좀 거기서 범이 나타나가지고선 이 동네 올 때까지 따라와 가지고서는 여기 들어 오면 또 사라지고, 여기 그런 얘기 밖에 들은 거 읊어. 다른 건.

[조사자 : 그런 밖에는, 그런 얘기라도 좀 많이 좀.] 그건 뭐 사실 동네, 야 옛날 뭐 치 있어. 그런데 산골짜기를 이렇게 넘어 오면은 거기서 꼭 그렇게 나선 데가, 나서가지고선 이렇게선 앞, 앞에서 덜렁덜렁 훤히 길 밖히는 거지. 그래 가지고선 '여기만 들어오면은 이놈이 사라진대는 거야.

거기 거기서 떠날 때는, 떠날 때는 이놈이 어서 왔는지 앞에서 어슬렁 어슬렁 대는디. 와가지고서는 이 동네 저만큼 들어 오면은 이놈이 사라지고 읊어 이게. 그게 한 두 번이 아닌 모양이야.

그럴 때는 그저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얘기는.

[가창리 설화 7] 가창리 1뒤2앞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이홍수(61, 남) 1995. 11. 16.

이심이 굴 전설 1

[조사자 : 송사에 동굴 없어요?] 송사에 굴바위라고 그렇지. [조사자 : 굴바위라는 전설, 거기에 관한 것?] 그런게 그건지. 그런데 저 넘어 연못이 있는데, 뭐 거기 굴바우. 굴바위 거기.

들어가면 상당히 좁거든. 거기서 뭘, 그 뭐이 굴루 무슨 돌맹이를 집어던지면 뭐 그 연못에 가서, 막대나 뭘을 갖다 해면 거기 거기서 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거짓말 같아!

[조사자 : 아! 그럼 굴이랑 연못이랑 이어진 거예요?] 그래. 그랬다는 거지. 그래 우리가 암만 쳐다 보면 한참 들어가거든. 저 아래로 한참 내려가는데, 제법 넓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읊는데, 옛날 그런 이야긴 있지.

그짓말 얘기인데. 그짓말 얘기가 아니라, 그게 다른 얘기는 별로 읊어서 뭐. 여기 허적이 터가 있어가지고 여기 저 말하면, 거 지금 거기거

발인데, 그 산가지. 거기 가면은 아니여. 지금 가 보면 기와장이 많이 나와, 죽 나오거든. 깨진 고 뭐 이렇게. 그거 허적이야 거기 살았다는디, 그거 아까 얘기할 적에 뭐 그거, 그게 그게 허적이 굴이니 뭐 그런 얘기가 전해져

[조사자 : 허적이요?] 응 허적이요. 허적. [조사자 : 조사가 허석요?] 응 허적, 적. 허적이란 그 사람이 도적이었던 모양여. 허적이 아니 허적여. 허적여. 허적기가 살았는데. [조사자 : 그 얘기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잘 못알아 들겠어요.] 허적 그런것 같으면 허적이 굴이라고 그래. [조사자 : 허적이 굴이라.] [조사자2 : 허적기가 뭔데요?] [조사자 : 사람 이름.] 사람 이름여, 사람 이름인데. 사람의 이름인데, [중간부분 생략]

[조사자 : 그 사람이 뭇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큰 도적이었던 모양(여). (Tape 2앞면에 계속) 산너머 판판한 거기에 연못에는 있었어, 그 전이. 그 사람이 거기서 뭐를 띄우면은, 거기 가서 거기가, 거기가 떴다는 얘기에. 그런디 글리 통했다는 그 소리여.

그런디 그 그리 가만히, 그래서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 맥혀서 그런지 저런지는 았은지 몰라도 말이여. 그냥 그 들어가서는 맥혔거든. 꽤 들어가요, 들어가긴.

처음에는 일리 넓은데 들어가면 좁아. 에- 그런 저건 있어. 허재기 굴이라고 해. 아까 얘기한 허재기 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재주가 좋다는 얘기지 뭐여, 그 사람이. [조사자 : 허적이란 사람이요?] 응 허적이, 허적이. 그 몇 일가한 사람이 하는데, 전에도 허재기 뭐 어찌고 그러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거 무슨 도둑이 위 옷을 잃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와 졌거든.

근데 그 거기가 띄우면 거기 그 연못에 가서 떴다고, 그것이야. 그런데 글로 통한 것 같지 았어, 보면. 그런 전설은 있었지.

[가창리 설화 8] 가창리 2앞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이종극(73, 남) 1995. 11. 16.

도깨비에 홀린 사람

제보자는 11월 11일에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이다. 이흥수 할아버님 댁에서 설화를 채록하고 나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옛날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부탁하였더니, 앉아 콩을 까시며 이야기를 해 주셨다. 옆에 있던 이흥수 할아버지가 함께 계셨는데, 가끔씩 이야기를 거들어 주셨다.

호랭이 담배 먹을 시절이구. 우리 출상 되가지고서는 도깨비는 몰러두, 그 전에 저기루다 물을 푸러 나가지고서, 밤이 늦었는데, 6·25 난리고 이듬해엔. 밥을 이고 나가가지고서는 물을 얼마나 돌았나 하고 보러 나가니까, 하여간 길 거름에 사람같은 걸, 예- 그냥 꼭 거기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예-

“누구냐고. 누구냐?”

고 그래도. 대답도 안하고. 그래 가지구 그 허깨비를 흘렸다. 옛날에는 못먹고 저기하고, 그래서 도깨비고 허깨비고 있지.

[가창리 설화 8] 가창리 2앞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이종극(73, 남) 1995. 11. 16.

놀이터 수정산

앞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나는지, 이어서 계속 구술하였다.

지금 이 저기에는 워낙이 잘 먹고 저기하기 때문에, [청중 : 도깨비

없어.] 도깨비이래는 그런 소리는 지금은 읊다구.

그러구, 이 수정산 거기에는 워낙이 족보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봄이
든 옛날에는 놀이꾼이 침- 봄철에 하루도 안올라오는 날이 없구. 만날
올라와서들 놀다 내려가구. 농악덜 가지구 와 놀구.

그때에 에- 불놀이 한다구, 솜 방맹이 해서, 해 가지구 해서 이렇게
해마두 그냥 불놀이들을 하구 그랬었어. 그래서 이리 저 잔등이루 생긱
해가지구서는 내려가지고 이렇게 됐었다구. [청중 : 해마두 했어.] 응
해마다. 그래다가 이 참-. 이 해방 이후 침 우리 나라가 저기 된 이후로
는, 아- 그런 것도 다 안하고. [청중 : 지금 할이도 읊어.(청취불능)]

그러구, 산이 지금은 워낙 거해서, 산이 거해서 사람이 여기 들어실
도리 읊이 거하다구. 그래, 그 전에는 그냥 다 벌건 적신이었구. 해여튼
나무 아니면 의지를 못했이니깐, 불 때는데. 에 뭐 별경지 며. 에 저 도
실, 새천이, 뭐 저- 노동, 뭐 저쪽에 뭐 가재울 뭐, 이런 데서도 와가지
고, 개 와서 전부 굶어가기 땀에 이냥, 별가(불어)서 뭘 떡을 하나를 굴
려도 김부레기 하나 묻지 않을 그 정도로다가시리 굶었이니까. 그래 그
때는 나무들 때고.

또, 집이 가옥을 이 저 전부가 슬레트나 기와로다가 저기해 올리고 그
랬기 때문에, 지금은 개축도 안하고. 지금 영 위는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신식 사람들은 그것도 못한다구. 우리네는 뭐 지금도 뭐 그런거 대
들면 하지만은, 뭐 저기한 지금 애들은 그것도 못해요.

[가창리 설화 10] 가창리 2원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웅현, 원용훈 조사
이종극(73, 남) 1995. 11. 16.

이 고장의 짐승들

앞 이야기를 마치고 마을에 얽힌 것이나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며 구술하여 주었다.

가을인데, 저 웃마을을 올라갔더니, 진곳 안개가 자욱하고 그런데.

저- 한 짐이서 돼지를 맥이는데, 돼지 오양을 칠라고 저기를 하니깐, 돼지가 하천쪽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승냉이 두 마리가 앉았다가서리 그 돼지를 물구서 하난 뒤에서 떠번치구, 하나는 그걸 밀고 그래구서 돌창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현지에 보구. 저- 그 깊은 골짜구니로 들어가서 저기 한 거를 우리가 가서. [청중(이홍수) : 그게 여우도 많아가지고서.]

그걸 보구서는 그랬지. [청중 : 가서 뭐 하면 그냥 쫓아가면 아이 하구 도망쳤지 뭐. 지금은 여우도 읍지.] 그렇게 저기가 되구. 그 전에는 여기 배암이 떡꿀이라는 배암이 동네에도 엄청 많았었는데, 지끔 유래로 그런게 없어졌구. [청중 : 있었지. 자아 내는데!] 또, 지금은 저 독사들 잡으려고, 저- 저거 줄을 생- 거 망을 씌워나서, 씌워나서 뭐 배암 그거 잘 쳤기 때문에 뱀이 아주 없어지고 그랬다구. 예-, [청중 : 독사가 읍어.] 그랬어도, 올해 난 독사 두 마리나 봤어.

[가창리 설화 11] 가장리 1뒤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웅현, 원용훈 조사
이종극(73, 남) 1995. 11. 16.

신령스런 수정산

우리 수정산 저 위에는 절도 크게 거기 절터도 있었구. 이 아래 부도 바우도 있구.

근데 옛날에는 그 허저기가 그 굴바우, 그 굴에 허저기 굴이라고 해가

지고서는 사람을 해치우구서는 옷을 거기다가시리 해. 흥두께에다가 해서 내밀면 저- 저 도실 방죽에가 뜬다는 그런 유래의 그런 소리는 더러 난 것 들은 듯하지. 그러구 저 뭐 이마적하게 뭐 짐승도, [청중: 허적이 굴은 거기 그대로 있다고.]

그저 굴은 그저 지금 거 안까지 굴은 지금 그저루 뚫려 있다구. [청중: 지금 거기 들어가면 꼭 맥혀서 거기 뚫으면 몰라도.(웃음)] 우리가 그 굴에를 미서워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바우가 이렇게 짝 벌어져가지구 이렇게 더러 쑥쑥 빠지구, 뭐도 그래가지고서 들어갈래며는, 꺾히고도 들어가구. 또 그 저- 저 서서도 들어가구.

그 안에 물이 멸건 물이 있는데, 고기를 요렇게 파 놓고 보면 암만 가물어도 거기 속에 물은 안떨어져요. 그래 그 물도 좀 먹구. 뭐도 우리가 참 그라고.

[청중: 지금 절이 있는데.] 흠. 만날 거기도 올라뎡기고 그랬는데. 거기 다 절을 한 번 짓구 저기를 하구 있다. 요 땃 해 전에 큰 장마 저가지고서는 그 절, 절터에 그 요소체를 쓱 썰어서 내려밀어가지고서는 중허구 거기 저 고양주하고 거기 불공드리러 온 사람들 모두 몇몇 사람이 침익사한 그런 사건도 있었구. 그러구 그렇다구.

[가장리 설화 12] 가장민 1부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이영세(61, 남) 1995. 11. 16.

이무기를 처치한 허저기 장사

이종극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후, 이영세 할아버지가 옛날에 명지관이셨다는 말씀이 계셔 제보자택을 찾아갔다. 그집에 가니 쥐가 방에 들어와 가구를 들어내고 쥐를 잡고 있었다. 잠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소 소란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영세

할아버지께서는 목이 아프셔서 힘들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

여기에 그 올라가면은 집터가 있어. 허저기 터래야. 허저기가 사람이야. 응? 양천허씨네 허씨 저긴데. 그 워낙 그 사람이 힘이 아마 천하장사였었던 가봐.

그래서, 절에서 에 그 이심이라는 게 뭐냐 허면은, 그전 옛날 노인네들 얘기를 들으면, 에 용, 용이라고 알지! 용? 용이 되어 올라가다가 [조사자 : 이무기요?] 안된 것이. [조사자 : 이무기요.] 이무기가 됐다는 얘기가.

거 인제 거기서 내려오는 말로는, 요 굴바위라는데 고기가 있어요. 요 위에 올라가면 굴, 바위가 암석으로 굴이 돼 있는데, 고 밑구렁으로 내려가면 허저기 굴이라 그래.

그래서, 이늬이 때만 되면 아침 저녁으로 기어나와가지구 말이여, 에 아마 그 괴롭히는 모양이지. 절의 중을.

긴가 밥을 죽을 한 덩이씩 끌여 쫓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인자 지금은 괜찮지만, 그전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늬 맥일 수가 없잖아! 제 능력으로 잡을 수도 없구.

그래가지구서는 이 허저기를 불러냈다는거야, 장사니까. 그래 인자 허저기,

“그 내가 잡아 주지.”

이러면서 그 밥 먹으러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인저 그때 나오니까는, 지금은 무슨 여러가지 결국 무슨 화공약품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약재도 없이니까, 울감지로 해서 아무 인저 놓았다가 그냥 잡은 모양이여. 응. 먹으러 나온 걸 채가지고.

[조사자 : 허저적이가요?] 응. 이무기가. [조사자 : 이무기름요?] 응. 그래서 잡아서 없애가지구. 그리고 인저 그 이후루다가 인제 거 에- 우선 한 식구가 먹을 거, 한 식구가 아니라 거- 이심이 먹을 것을 안주

니까, 인저 그 때부터 결국 끼니를 이어 나갈 수 있겠지?

아-. 인저 그렇다는 그런 유래가 있는데.

아까. 그 낭반도(이종극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더구만. 거기서 요 수정산에서, 이십이 굴이라는데 거기서 빨래 방치를 놓으면 도실 방죽이라고 거기서 한 3km 지점 돼.

“그래 방죽과 거기 연관이 되있다. 이래서, 거기가 방맹이가 뜬다.”

이런 저기 전설이 있어. 내려온 게. 인제 그러구 그 이외에 특유하게 인제 여기는 읍는 거구.

[가창리 설화 13] 가창T 1뒤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이영세(61, 남) 1995. 11. 16.

수정산의 바위 명칭

앞의 허지기 전설을 끝나치고, 이어서 이곳의 대표적인 산인 수정산과 그곳에 있는 바위에 대한 전설을 구술하여 주었다. 이곳 마을에 채록되는 대부분이 수정산과 관련되어 있었다.

거 전설이라는 게, 그 내려온 전설이 하나가 있어.

인제 거 하구. 에- 여기 수정산에는 지금 발굴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봐도 에- 암석이 결국 묘미가 있는 암석이 많어.

그래서, 인저 소바우도 있구. 굴바위 있고, 감라바위, 행성바위, 평풍바위니, 책바위니 벽장바위니. 그 요소요소에 암석 거 형체가 생긴 게 고대로 있으니까. 이제 고거는.

옛날 성인들이 결국 지어 내려온 유래기 땀에, 에- 우리가 그렇구나! 하구서는 지금까지두 인저 그런 명칭을 불르고 있어.

[가창리 설화 14] 가창리 1뒤

가창리 내창, 박종수, 강현모, 이용현, 원용훈 조사
이영세(61, 남) 1995. 11. 16.

소바위와 얽힌 전설

이 수정산이라는 게 옛날에는 명산으로 알려졌어.

그래서, 인제 그전 노인네들은 수정이 났다 이래는데. 지금도 가 보면
뭘 큰 수정은 아니더라도 요것만한 수정이 더러 에- 있고.

여기에 유래라는게 뭐냐하면. 에- 소바위가, 에- 사창 등 마루터기에
있는데. 여기서 먹어가지구 저 석실이라는데 글루가(그곳으로) 뒤편이 되
있거든. 흥문이. 그래서 그전에 내려오는 말로는,

“여기서 먹어가지구, 에- 변으루다 나가기 때문에 거 가서 쌓인다.”

이래가지구서, 이 석실이란 데가 부자였거든. 옛날부터 석실마을이.
게 여기는 간과(가난) 했었지. 에- 그래서 그런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
어. 여기에그래서. 인제 소바위가 이 동네 안창이는 동네에서 먹어가지
구 석실루다가 결국 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부요하다. 이런 유래
가 있어요.

[가창리 설화 15] 가창리 6앞

가창리 두평, 박종수, 강현모, 이경은, 권정임, 배정아, 김남선 조사
이영세(61, 남) 1995. 6. 10.

이심이를 물리친 허지기

조사자들은 마을의 노인정에서 제보자와 3명의 청중과 함께 민속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곳의 지명과 관련된 민담을 채록하였다.

그런데 저 [조사자 : 이름예요?] 그럼 허지기라는 사람이 있었어. 허서방네. [조사자 : 허지기.] 영. [청중 : 무사.] 그 사람이 수정산에 그 저기 저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을 말하여, 절을. 허는데 그 인저 빈대로 망허기는, 빈대로 옛날에 약이 읊어 망했다고 허는데. 그 이십이라고 저 용이 되어올라가다가 못올라 그것이 이십이가 된다. 이십이. 그래가지고 이십이가 말하여. 그 굴이 있어가지고선 그 굴속이서 나와서 아침저녁으로 밥을 달래는데. 그 죽을 한 텡이(동이)씩 쉼, 쉼서 먹었다는 거여. 그 이십이를. 인제 그것이 인제 전설은 그거지.

거기다 이 뭐여, 빨래 방줄을 집어 넣으면 저 도실 방죽에 나온다는, [청중 : 응. 그렇지.] 그만큼 여렇게 질(길)었다는 그렇게 되는데. 이십이가 그러니까 용이 되어 올라가다가 뭐이가 잘못되서나 인저 하여간 못올라간이 이십이라. 인제 그런게 그만큼 큰 짐승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나 인저 죽이고, 쪽(죽) 쉼서 내놓고 허고.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나니.

그런디 그렇게 했다는 그런 전설이 여기도 있어. 하나의 그 책자라도 그저 저 좋은 책자 되었으면. 그것은 지금 젊은 애들이 모르지.

(뒤에 따로 구술한 부분을 옮겨 적음) 그래서 그 이십이를 허지기가. 중이 귀찮잔어, 매일 결국 죽 한 텡이씩 끓여주니까. 그렇잖아도 허지기는 사람이 가 그 잡었데요. 거기. 결국 맹골 허씨네냐 여기 지금 도실 허씨네나라는데. 도실 허씨들이 대학생이 그전에 우리 나이때도 한 30-40명씩 됐었어. 맹골허씨네 측이 못당했어.

[가장리 설화 16] 가장T 6왕

가장리 두평, 박종수, 감현모, 이경은, 권정임, 배정아, 김남선 조사
이영세(61, 남) 1995. 6. 10.

수정산에 얽힌 바위전설

허지기 전설을 마친 뒤 제보자에게 이곳의 바위에 얽힌 전설을 문자 해 주셨다. 그런데 이야기의 채록은 조사자가 하나씩 물으면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술하여 주는 방식이었다.

[조사자 . 그러면 저기 소바위를 녹음 못했는데, 소바위는요?] 소바위라는 거는, 여 꼭대기에 있는데, 원삼하고 저 가창리 하고. 이 동네가 이 지독한 빈촌였어. 요 넘어 석실이라는 곳은 부자였어.

옛날부터 대학생이 1개 마을에 30명씩 그냥, 옛날에 우리 자랄 때 대학교에 30명씩 갔다는 것은 엄청난 마을이었어. 그리고 거기 허서방네 촌인데, 워낙 부자였는데, 말인즉슨 그 전설이 이쪽에서 주둥아리를 이쪽 두었으니 여기 먹어서, 도실이라는데 그로다가 뒤집어서, 거기다가 누우니까로 거기는, 여기는 소비시키는 데고, 이쪽에는. 저쪽에는 결국은 저 소비를 시켜가지고서는 가서 배출물이라도 거기가 썩이는데 아니여. 그러니까 거기는 부자다 이래서 그런 전설이 있어. [조사자 . 아, 그래서 소바위.] 소바위가.

[조사자 . 행성바위는요?] 행성바위는 저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인저 그 옛날 상여 비슷하게 그 굴이 거기 있어. 그런게 그걸 가지고서 상여바위라고 했다고 명칭을 지었어. 여기 바위가 엄청 이 이름이 많았어. [조사자2 : 행성바위가 상여바위라고도 해요?] 상여바위지. 그것 말하자면, 행성바위가 안하지. 그전에 부르던 것은. [조사자 : 상여.]

[조사자 : 굴바위는요?] 굴바위는 굴이 여기서 7-8m나 될까. 그것은 인자 친연적으로 암석으로다가 친연 동굴이지. [조사자 : 친연동굴요?] 여기 7-8m 다 되나 봐. [조사자 : 그럼 거기 출입 금지도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개방되.) 아니 바로 고 절이 있었지. 바로. [조사자 : 절요?] 응. 절이 고기 있다가 폐사되어 가지고 옮겼지.

[조사자 : 명석바위는요?] 명석바위는 이 아래 그냥 편편증하게 있어서 그냥 거기서들 놀기, 놀기도 하고. 옛날 노인네들이 인자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네들이 모여들. 노는디. 편편하니까 그 인저 옛날에 누가 했던지 전해오는 그 전설이지 뭐. 명석바위, 책바위, 평풍바위 뭐 여러가지가 거기 얻었다고, 옛날 할아버지들 속에서. 지봉바위도 있고.

거기 지봉바위가 지금 있을 거, 지봉바위라고 가보면은 그 여름에도 거기 가보면 시원하게. [조사자 : 아, 지봉처럼 생겼나 보지.] 영 그러니까 지봉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석고이야. 그런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은 20명은 들어가서 앉을거여. [조사자 : 어!] 비가 와도.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여, 그냥. 그 뭐 여수바위닌 그 여러가지 있어, 여수.

[조사자 : 여수바위는요?] 여수바위라는 여우들 그냥 그때는 그래가지고 아마 취우니까는 그랬는지, 엄청 크지 그것도. 바위 사이에 그냥 굴이 있어가지고 그 짐승들이 살던 곳이야. 그런게 옛날 사람들이 쓴거여. [조사자 : 그 여우가 많이 모여서 그래요. 여우가 생겨서 그래요?] 아니 여우같이 생긴 것도 아니여. 그냥 천해 암석인데, 여우들이 많이 거기 피여 사니까, 서식하니까 여수바위라고. [조사자 : 아하! 여우집이었구만!] 그려. 말하면 여우들이 사는 곳.

[조사자 : 책바위는요?] 책바위는 이렇게 책마냥 말이여. 돌. [청중 : 자체가.] 자체가 여기 진열해 놓은 것마냥. [조사자 : 오 이렇게 위로, 위

로 쌓아놓은 것처럼.] 응 그렇게 하였지. 그런데 옛날 할아버지들이 그 바위형태를 보고 지은거여, 그게. [청중 : 맨 전설이라는게 다 그렇지 뭐.]

[조사자 : 그 평풍바위.] 평풍바위는 이렇게 저 사람들 평풍 둘러친 것처럼만남. 이냥 커다란 그 바위. [조사자 : 그 병풍요?] 응 이런 집에 방에 치는 평풍. [조사자 : 병풍, 그 평풍.] 평풍. 저 집에 뭐한 집에 가 보면 그 평풍들 쳐놓고 있잖어. [조사자 : 예. 이것요?] [청중 : 좋은 글이야! 그것.] [조사자 : 응. 평풍.]

그런데 지금 바위가 하도 많아서, 지금 산속에 낭구 속에 묻혀 그렇지. 대충 그것 우리가 아는 것만 그거여. [청중 : 몇 년도에 바위가 무너졌지. 여기로.] [조사자 : 굴렀다고요?] 저기 굴바위가 사람, 절이 떠나려 가고. [청중 : 떠나려가고 그냥 벼락치면서 굴러?] 중이. 그냥 여신도 죽고. 절이 떠나려 가서. 그 바위가 내려쳐 가지고. [조사자 : 아! 그 굴바위가 떨어지면서 거기 있는 절까지.] 바로 그 밑창이다 지었으니까. [조사자 : 그 절은 무슨 이름이었어요?] [청중 : 굴바위 그대로 있어.] 아니 인제 굴바위 형태로 있는데, 이게. 암석이 이렇게 저렇게 뭐가, 무슨 고임새 덕분에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 그놈이 떨어진거여.

그러니 베틀바위니 벨게 다 있어. 베틀바위도 있고, 형태대로. [조사자 : 베틀바위요? 베틀바위요?] 베틀 짜는 것, 옛날에 베틀짜는 것. [청중 : 집바위도 있잖어. 집바위.] 집바위라는 것은 큰바위 옆에 큰거. [청중 : 아니 저기.] 그런데 거기를, 거기가. [청중 : 지장굴 옆에 그 행성바위.] 이만큼 떨어졌는데, 아들 못낳는 사람은 거기를 기어올라가면 결국 아들을 난다고 했어. [조사자 : 집바위요?] 응. 그런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사자 : 못올라가니까 그렇구나!] [청중 : 그렇게 허연케 창같이 창같이 이렇게 허연게 되어 있어. 그렇게 색깔이 나 있어. 그래서 먼데서 보

면 이렇게 창틀같이 보여. [조사자 : 아 그래서 집바위구나!] (관광지 개발에 관한 이야기 생략)

[청중 : 그 뭐 무슨 바위인가. 그 부도바위 뭐가?] 부도는 결국은 뭐가 허면은 사람이 맨든거고. 그건 부도바위라는 것은 뭐냐 허면은, [청중 : 거기 장군 사람이 맨들거고. 장군 그 옷을 그 안에, 저기 하면 그 안에 장군 옷이 있다고 했어.] 떠들어 봤는데. [청중 : 떠들어들 보고 그랬지.] 부도는 뭐냐허면 큰 스님들, 절이 있었잖아. 절에서 그 중이 죽어, 스님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그 화장을 해요. 화장을 허면 뭐라고 할까 그 표시물이라고 할까, 표시물로다가 해놓은 그 부도바위라는 맨든 것이여. 그럼 그것 뭐냐허면 화장을 해이면은 그 재를 갖다가 어따 놓는 야 허면 말이야. 사람 맨들어 가지고, 맨들어 가지고서 그안에 넣어 그렇게 해놓은 거여. 탄건 아니여. 그래서 그 큰스님은 그 해면은 죽으면은 부도를 해놓은 거여. 부도바위라는 것은. [청중 : 이렇게 옛날부터 가지고 이 사람이 깎은 것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 깎은 거여. 워낙 깎은거여. [청중 . 사람이 맨든 것 같이. 옛날부터들 에 그렇게, 옛날부터 있는거여. 그게 사람이 맨든거지. 그게 맨든거여.]

[조사자 : 벽장바위는 뭐예요?] 벽장바위는 그게 읊어졌어. 중수(사람 이름)네가 그 집 짓고 나는 바람에 거기 어디 있기는 있을 거여.(다른 조사자와 합류를 위한 통화 내용 생략) [조사자 : 아니 집짓는다고 바위를 없었어요?] 응. [조사자 : 집을 짓는다고 응 바위를 없었어요. 벽장바위를 없었어요?] 응. 별장을 짓느라고. [조사자 : 별장요?] 어디 있을 거여. 거기. [청중 : 거기 있지.]

[조사자 : 가마바위는요?] 가마바위는 인자 그러니, [청중 : 저쪽이

저기 저기여. 저 멩골쪽이여.) 그러. 가마바위 그 형태여. 요렇게 그냥, 요렇게 되어 있지. 가마바위 그 이름대로 그렇게 지은 거여. 그계. [청중 : 옛날에 옛날부터 전설에 그렇게 내려온거여. 우리들 어려서부터 그런저런 얘기.]

[가창리 설화 17] 가창리 6앞

가창리 두평, 박종수, 강형모, 이경은, 권정임, 배정아, 김남선 조사
이영세(61, 남) 1995. 6. 10.

바위에 오줌 싼 장수

바위에 얽힌 전설중 그 바위에 표시되어 있는 형태가 전설화한 장수설화의 잔형을 보여 주고 있다. 때문에 따로 앞과 분리하여 수록하였다.

[조사자 : 아까니 수정산에 장수가,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건 어떻게 된고 하니, 그냥 우리가 어려서도 장수가 오줌 누 자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꽤였어. [조사자 : 바위가?] 응 바위가 꽤여가지고 오줌 흘린 것 같이 허여, 그렇게. [조사자 : 바위, 그 위가?] 응. [조사자 : 어머니!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수정산에 저 뭐 멩석바위도 있고, 그 여러 군데 있었어. [조사자 : 여러 군데 있으면 표시가 있어요?] 영. [조사자 : 장수가 대단한, 어느 장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 몰르지. 인제 그계 전설에 그렇게,

“장수가 오줌 누운 자리다.”

허고서 그렇게 내려온거지.

12. 가 좌 리

[마을개관]

가좌리, 박종수, 강현모, 김유미, 허현정 조사
1995. 11. 11.

가좌리는 면소재지에 북쪽으로 3km 정도 북쪽에 있는 마을로, 용인과 백암간 국도변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이 마을은 원래 죽산군 원삼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근삼면 석고리 일부와 원일면 미평리 일부를 합쳐 가좌리라 하여 용인군 원삼면에 편입하였다가 1973년에 대통령령으로 외사면에 편입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가좌리는 돌이 많기로 유명한 석실, 돌다리 또는 안말이라는 임진왜란 때 생겼다는 태평춘, 그리고 가재가 많은 가재울로 나누어져 있으나, 1983년 가재울이 가좌율리로 독립되어 원삼면에 편입되었다.

[가좌리 제보자 1]

이기순(67, 여) 박종수, 강현모, 김유미, 허현정 조사
1995. 11. 11.

처음에는 이야기를 할 줄 모른다고 하시며 피하셨는데 나중에는 잘 적어가라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절의 범문이라고 하며, 절에 갔을 때

스님이 하셨던 이야기라고 했다. 67세라는 나이에 비해 매우 정정하고 활동적이었다. 장소가 도로변에 위치한 텃밭이여서 다소 시끄러웠지만, 할머니의 발음이 매우 정확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집 앞에 있는 텃밭에 앉아서 조사자들과 함께 무를 다듬으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야기 속도가 느렸다.

제공자료 : 설화 1.

[가작리 제보자 2]

김복화(76, 여) 박종수, 강현모, 김유미, 허현정 조사
1995. 11. 11.

처음에는 여러 노인 분들이 함께 계셨는데 이야기를 해 주실 때는 조사자 외에는 청중이 없었다. '옛날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서 못한다'고 하시다가, 조사자가 '호랑이 이야기 중에서 아는 것이 없으시냐?'고 하니까 해 주신 이야기이다. 7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만큼 정정하셨고 발음도 정확한 편이었다. 그리고 약간씩 흥내도 내면서 이야기 해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2.

[가작리 설화 1] 가작리 1앞

가작리 도로변 텃밭, 박종수, 강현모, 김유미, 허현정 조사
이기순(67, 여) 1995. 11. 11.

백일 정성으로 얻은 거북 아들

이야기를 할 줄 모른다며 피하다가 절에 갔을 때 스님이 하셨던 절의 법문이라고 이야

기를 들려주었다. 67세라는 나이에 비해 매우 정정하였고 활동적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발음이 매우 정확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집 앞에 있는 텃밭에 앉아서 조사자들과 함께 무를 다듬으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야기 속도가 느렸다.

절의 법문을 하나 해줄게. 적어 가지고 가.

옛날에 어떤 저기가 부인하고 저기가 살았는데 그 분이 자녀가 없었어. 사십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하도 고심을 하다가 생각을 하니까약을 먹어도 안되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정성을 드리기로 했어. 저기 절에 가서.

절에 가서 정성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럴 생각으로 갔는데, 그 가자 마침 절에 그 노스님 한 분이 계셨어 그냥. 참 노인네. 그래서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구. 그래서,

“스님이 아무 저기래도, 자식을 낳을 저기면 내가 하겠다.”

구 그래.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해라. 저리 해라구. 백일 동안을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드리구 백일 후에는 가설랑으네 집에 가서 이제 저리를 하라.”

구. 그러니까는 살라구 갔더니, 꿈에 큰 저 거북이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 아들로, 당신 자손으로 탄생하겠다.”

고. 그러니까는, 그냥 노인네가,

“그러라구” 그랬어. 그러니까 그날부터 애기가 있어가지구 애기를 낳는데, 아들을 나서 한참 공부를 잘하고 그러더니, 한 이십이 넘어서 인자 어디쯤으로 취업을 나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배타는 데로 갔어. 뱃사공으로.

그랬는데 그냥 외국으로 갔더니만, 배가 침몰이 되설랑으네, 그냥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인자 부산으로 갔더니 정말 참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고. 인자 그냥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인자 텔레비 같은 것도 없으니까. 신문을 보니까는.

그래서 그냥 아주 부모님들이 환장을 하고 저기 했는데,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죽었는데, 자기가 빠져가지고 보니까는, 웬 들같은 게 이렇게 만치더라. 바다에서. 그래서,

“아, 이게 무언가?”

하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는, 큰 거북이가 태워다가 육지에다 놓고서, 그냥 자기가 그냥 돌아가더라. 아, 그래설랑으네 나중에 또 신문을 보니까는 그 아들이 살았다고.

그래설랑으네 정말 부산을 가니까 그 아들이 살았어.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자손이 나가지고 그 자손이 그렇게 잘 살았대. 그러니까 이건 아주 부산에 살으신다.

그저 그저 이건 아주 실화 얘기여. 저 스님이 내가 그저께 방생을 갔더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 그래서 공을 드려면 그저 덕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해시는 말씀 잘 듣고 공부들 잘해.

[가짜리 설화 2] 가짜리 1화

가짜리 도로변 텃밭 박종수, 강현모, 김유미, 허현정 조사
김복화(76, 여) 1995. 11. 11.

수수대가 빨간 이유

처음에는 여러 노인 분들이 함께 계셨는데 이야기를 해 주실 때는 조사자 외에는 청중이 없었다. ‘옛날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서 못한다’고 하다가, 조사자가 ‘호랑이 이야기 중에서 아는 것이 없으시냐?’고 하니까 해 주신 이야기이다. 7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만큼 정정하셨고 발음도 정확한 편이었다. 그리고 약간씩 흥내도 내면서 이야기 해주었다.

[조사자 : 호랑이 얘기 좀 해주세요.]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는, 거 못 살아서, 애들을 인제 집에다 두고 이 옷집에 가 일을 해주는데.

호랑이가 그 애들을 잡아가려고 와서, 그 태려 갈라고 그러니까는 느티나무로 올라갔다네. 애들이 올라가서 인자 그냥 그렇게 호랑이가 또 잡아 먹을라고 올라오니까는, 하늘한테 빌었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줄이 내려와서 그걸 타고 올라갔대.

그래 호랑이도 인제 또 줄을 내려보냈다는 구만. 근데 썩은 아주 끊어지는 줄을 해서 그냥 툭 떨어져 가지구는, 저런데 저 옥수수 심고 수수 심는 빨건 거 있잖아. 그게 호랑이 피라고 그러구 그랬어.

그전 때 할머니한테 들은 소리는. 그런 거 다 잊어버렸지 뭐.

[가좌리 설화 3] 가좌리 1호

가좌리 마을 어귀, 박종수, 강현모, 김유미, 허현정 조사
 (? (남) 1995. 11. 11.

과거를 본 종의 아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여러 할머니가 계셨다. 조사자가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으나, 할머니들은 이야기를 할 줄 모른다고 하였다. 그때 제보자가 와서는 갑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주위 할머니들 참견으로 이야기가 끊겼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야기책 이야기를 하며 6.25를 탔했다. 처음에 말을 건네려고 했을 때는 무서워 보여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이야기해 주셨다.

종의 아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 가지고.(청중 웃음) [조사자 : 머리가 좋아서요?] 좋으니까 공부를 잘 해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워가지

고 과거 시험을 봐 가지고서.

어깨 너머로 봤는데도 그렇게 참 글방에서 배우는 애들, 거 뭐야 옛날 얘기 부잣집의 재상가들 집의 자식들 그 공부하는데 가서 이렇게 인제 컷구녕으로 들고, 문틈으로 들여다 보고 공부하는 거 배워 가지고 그랬는데도, 그게 과거, 과거 가서 몰래 가서 봤어. 상전 몰래.

그 옛날 얘기 책. 우리 집의 얘기책, 6.25가 다 집어 갔어. 얘기책. 6.25 난리 때 다 불질렀잖아. 그 자식이.

여 백

Ⅲ . 원삼면 설화

1. 고 당 리
2. 문 촌 리
3. 학 일 리
4. 독 성 리
5. 죽 능 리
6. 목 신 리
7. 두 창 리
8. 가작월리
9. 미 평 리
10. 맹 리
11. 작 항 리
12. 사 압 리

여 백

1. 고 당 리

[마을 개관]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1995. 11. 11.

고당리는 원삼면의 소재지이다. 이곳은 용인에서 버스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지만, 백암면에 비하여 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이곳은 원래 죽산군 원일면에 속하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순당리, 내동의 일부와 양지군 목안면 고안곡을 합하여 고안곡의 고와 순당리의 당을 따서 고당리라 칭하여 용인군 원삼면에 편입하게 되었다. 이곳은 제법 큰 관공서의 건물과 농협이 있고 여러 유흥시설까지 되어있는 소규모 도시이다. 고당리의 옛 이름이 숲(순)무지로 마을 안의 상점 상호로도 쓰이고 있는만큼, 잊혀진 이름이 아닌 듯 싶었다. 우리 조사자들은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6시간 동안 조사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내외간이신 김순분 할머니와 김동근할아버님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고당리 제보자 1]

김순분(66, 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1995. 11. 11.

제보자는 원삼면 면사무소 소재지인 이곳에서 태어나 17살에 같은 마을로 시집을 오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계속 살아왔다고 한다. 조사자가 이곳 마을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잘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제보자의 집을 찾았다. 조사자가 이야기를 요청하자 제보자는 이야기 하는 것이 쑥스러워 하셨다. 그래도 조사자들이 계속 조르자 얘기를 해 주셨다. 이 이야기는 15-6살적에 고향에서 친할머니한테 들었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1 ~ 13.

[고당리 제보자 2]

김동근(69, 남)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1995. 11. 11.

제보자는 앞 제보자 김순분씨의 남편으로 원삼면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태어나 20살에 장가를 들게 되었다. 이야기에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옛날에 많은 책을 읽어서 구술능력은 뛰어난 편이다. 제보자는 아침 나절에 노인정에 가서 쉬신 후 점심 때 집에 오셨다가 조사자 일행을 만났다. 그래서 오후 내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면 채록하였는데, 이야기 중에 자상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소탈한 제보자는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좌하고 앉아서 해주셨다.

제공자료 : 설화 14 ~ 23.

[고당리 설화 1] 고당리 1와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도둑을 쫓는 사연

제보자는 원삼면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이곳으로 17살에 시집을 오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계속 살아왔다고 한다. 조사자가 이곳 마을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잘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제보자의 집을 들렀다. 조사자가 이야기를 요청하자 제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쑥스러워 하였다. 이 이야기는 15-6살적에 고향에서 친할머니한테 들었다고 한다.

석화, 원삼면 분철리에 석하지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고 석하지 사이에 바위를, 그 밑에 동네에 우리가 사는 동네여. 그런데 면목바우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면목바위. 그랬는데 왜 그런 면목바우라 이름을 졌느냐?

그 올라가면 바위가 있어. 그래서 바우모탕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명마구리가 속에서 새끼를 쳐서 나갔다고. 그래서 면목바위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 [조사자 : 명마구리가?] 명마구리라고 있대요. [조사자 : 동물이에요?] 동물 이름이지. 새인가 봐. 명마구리가 새끼를 쳤다가서, 바위 모탕이 명목바우라 그랬고.

또 그 위엔 문철리라고 문천리라고 있는데, 거기 말축고개, 말축고개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옛날 거기서 말이, 전쟁 때인가 보지 뭐. 말이 나와서, 말이 나와서 뛰어가서 그 바위에 말발굽 자리가 있대요. 그런게 거기 말축고개라는 그런거지. [조사자 : 처음 들은 건데요?] 그런건 거기 안나오겠지 뭐. 그래 말축고개. 우리 집에 문철리 고개에 말이 말축고개라고 있대요. 그래서 말발자국이 남게, 바위에. 근데 지금은 현재도 바위가 있는지 몰라도 나, [조사자 : 동네, 지금 있어요?] 거기 넘어가 있어요. 어려서 그런 말이 있고.

[고당리 설화 2] 고당리 1화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바보 아내와 남편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쑥스러워 하면서 시작하였지만, 한 번 시작한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이어 계속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도 어릴 때 친정할머니에게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스운 애긴데 옛날에 그 뭐 저기 남자가 부인을 너무너무 애기 같이 사랑해서, 그냥 뭐 옛날에는 이게 석유불 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사랑하면 인제 그랬는데. 뭐 똥을 누러 간다든가 무슨 애기들 있대요들.

“똥 마렵다.”

고 그러니까. 신랑보고 영감님보고.

“아이구! 나 똥 마렵다. 그러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냐?”

고. 그래갖구서 마당에 가서 누는데. 이 여자가 똥을 누면서 하늘을 쳐다보니 반짝반짝해서,

“저거는 뭐야?”

그러니까. 영감님이,

“그거는 별.”(조사자 웃음)

“저거는 뭐야?”

그러니까.

“그거는 달.”

그러니까 도둑놈이 뭘 훔쳐, 훔치러 들어왔다가 하도 그게 우스워서 무엇을 떠때렸네요. 그냥 쾡하고 혼차 그냥 뺏다 떠때려니까,

“아이구! 하나님도 그만한 일에, 그 자기가 별, 달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그만한 일에 벼락칠 게 뭐냐?”

고 그러니까. 영감님이,

“업어. 업어.”

하고 업고 들어갔다고. 뭐 그런 애기해도 돼? [조사자 : 너무 좋은데요.]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그런 애기를 해 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도 노인인데. 엄청 오래 됐지.

[고당리 설화 3] 고당리 1화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빗자루로 변한 도깨비

앞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가지의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다시 면목바위에 대해 간단히 말을 하면서 고당리의 옛 명칭에 대해서 말하다가 조사자가 도깨비 이야기를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곳에서 실제로 보았던 사실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고당리라고 하는데 옛날에 솥무지야. 솥무지라고 불렀다고.

[조사자 : 귀신 도깨비 같은 거 안 보셨어요?] 도깨비 같은 것도 죽 그냥 보았지만서도, 나야 뭐 시방 시골에서.

우리 동네인데, 저 밑에 동네, 저 건너에서 항상 도깨비불이 있대요. 도깨비불. 그래서 저기 할아버지들이 밤에, 그때는 비가 안 와서 눈에 물을 대러 가면은 그 도깨비가 나오네. 그러면은,

“야, 너 이놈아! 어디 가니?”

“야! 나 물 대러 왔다.”

그 할아버지는 내가 현재 들은 이야기를 했을꺼야. 그런데 그래서 같이 도깨비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가고.

한 번은 또 도깨비가 데려가서, 그냥 말 어디까지 끌고 가서 고생시키다가 인자 놓고, 가고 보면 어느 산골에 세웠데. 그 할아버지를.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이 도깨비를 이겨야 짓다.”

고. 그래가지고 이 도깨비를 참나무에 꾀꾀 붙잡아 매 났더라. 매고 들어가서 인제 아침에 나와보니까는 그게 빗자락이, 빗자루를 꾀꾀 묶어 났더라. 그런 소리는 현지 나 어릴 때, 그때만 해도 어린게 아니어. 내가 어쥌 20살 적에 들었어. 도깨비불이 있다고 그러고 뭐. 저기 도깨비

불이 꺼런 불이 유도한.

[고당리 설화 4] 고당리 1화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수수대가 빨간 이유

제보자는 조사자가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친정 올케의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쫓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구술하였다. 그런데 서사성을 가지지 못하여 채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조사자가 오뎁가 해와 달이 된 이야기를 묻자 해주신 것이다. 이것은 옛날에 책에서 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에 친정할머니에게도 들었다고 한다.

애들 남매가, 남매를 두고, 옛날에는 베실리 베 짜는 거 있지. 베를 메러 산고개 넘어 딸네 집이나 이런 집이를 가서 베를 매고서 오는데, 딸네집, 딸네집이 되나 봐. 베를 베 짜는 것 있잖아! 딸이 수수팔떡을 해 주더라.

“갓다가 동생들 주라.”

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산 고개를 넘는데. 호랑이가,

“할멈 할멈! 그거 이고 가는 게 뭐야?”

그런 소리 못들었어. 그런 거 있지. 책에도 있는 것, 아이들 그런 것 있어. 우리는 어려서 들었는데,

“할멈 할멈! 그 이고 가는 게 뭐야?”

“수수팔떡이다.”

“나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일동 웃음)

또 하나 주고. 또 한 고개, 할머니 계속 쫓아오면서 또 그래서, 그때 그거를 집이 오도록 다 줬데요. 다 줬는데, 다 주고서 야중에는 그 잊어

버렸어. 그 할머니까지 잡아먹었는지 이 호랑이가. 할머니까지 잡아먹었는지. 그래서 그 집에 애들이 있는데 와서,

“애들아, 애들아! 인제 내가 왔다.”

고. 그래서 인자,

“우리 엄마 손은, 우리 엄마 아니라고. 엄마 목소리 아니라.”

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손은 저거 베를 때서 손을 영글한데. 손을 들여 보내서 문이 어떻게 있어도 손을 드려보냈대. 그랬는데 엄마 손이 아니라고. 인제 그 애들을 잡아먹을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문을 못 열 어주고, 뒤로 어떻게 나가가지고.

뒤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대, 애들이. 애들이 올라갔는데, 이 호랑이가 인제 애들이 없으니까, 보니까 나무에가 올라가서 호랑이가 인자, 그 애들을 잡아 먹을라고 그냥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하느님! 하느님! 살려 줄래걸랑은 새 동아줄을 내려 보내시고, 그런 죽일래면은 현 동아줄을 내려 보내달라.”

고. 막 애원을 하니까, 새 동아줄을 내려 보냈데요. 그래서 그 남매가 타고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저도,

“하느님! 하느님! 살려 줄래걸랑은 새 동아줄을 내려 보내고, 저거 죽 일래면은 현 동아줄을 내려 달라.”

고. 그래서 현 동아줄을.(웃음) 그래서 그게 올라가다가 끊어져서 떨어져서 넘어져. 넘어져서 죽었는데, 그 밑에 수수밭이 있는데 그 수수밭에 똥구멍을 찔렀대.(일동 웃음) 찔러 피가 묻어서 그 수수밭이, 지금도 그 수수 심으면 수수밭이 빨갳다고. 호랑이 피라고. 맨날.(일동 웃음)

근데 그거는 보니까는, 그전에 보니까는 비슷한게 많이 나와. 그 비슷하게 맹글어 가지고 뭐 거기 책, 애들 국민학교 책에도 나오는 것 같어. [조사자 : 그런게 똥구녕, 호랑이 똥구녕 찔리는 것은 처음이에요?] 수

수댕이, 수수밭에 가 떨어져갔고:

그래가지고 뭐 남자는 달이 되고 여자는 해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올라가서 애들이, 애들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 밤이 되서 무서워 고개 어떻게 넘어 가느냐고 그러고, 그렇다고 할머니 혼자 얘기를 하면은,

“길이 어떻게 가느냐?”

고 그러고. 호랑이 나타나,

“떡 하나 주면 안잡어 먹지.”

이렇게 하였다. 그런 것을 해. [청취불능] 옛날에 많은 얘기 해 줘. 지금도 해 줘.

[고당리 설화 5] 고당T 1화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아버지를 되찾은 아들

조사자들이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내 식구들 흥이니까 내 얘기는 못하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화장실 귀신 이야기를 묻자 모른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첫날밤에 방귀를 끼고 소박을 맞은 이야기'를 묻자 이야기를 해주었다.

[조사자 :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요, 시아버지 앞에 상을 갖고 가다가 이렇게 방귀 뀌가지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그거. 그런 거, 뭐 가지고 들어가다가 방귀를 뀌는데, 방귀 뀌었다고 그 소의 내쫓는 거잖아. [조사자 : 며느리를 내쫓는 거예요?] 응. 내 쫓, 내 쫓았대. 며느리 밥먹는 풍속, 방귀 버릇없이 방귀 뀌었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

그리고 저 시집을 가서 첫날밤에 방구를 찢지 뭐여. 색시가 첫날밤에 방구를 찢는데, 신랑이 첫날밤에 저기, 그리고 하루밤을 잤나 보지. 잤는데 인자 소박을 했어. 그 여자를 내쫓았어. 그 애는 그래서 그 애기를 데리고 났오. 나갔나 봐. 그 애를. 애를 키우고 시집을 안가고 살았는데.

“왜, 난 아버지가 없냐?”

고. 자꾸 엄마보고 ‘아버지가 없느냐’고 그래서. 하도 그걸 감추고 살았는데. 아 아들이 크니까, 자꾸만 그래서, 인저 인저 저기 그 애길 했데요.

“첫날밤에 방구를 찢서 쫓겨났다.”

고. 그러니까는

“그러냐?”

고. 그러더니 아들이 죄 엄마더러,

“콩을 볶아달라.”

고 그러더래. ‘콩을 볶아달라.’ 지 아버지 어디 어디 사는 거는 다 알거 아니야. 그 콩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잤데요. 가서 그 잊어버려서, 길이 저물어서 인자 거기서,

“하루밤 잔다.”

고 했대요. 하루밤 잔다고. 그래서,

“자라.”

고 했는데.

“콩을, 볶은 콩을 잡수시라고. 드린다.”

고. 그러니까,

“달라.”

고 그랬어.

“이 콩은 저기 방구 안꾸는 사람이나 먹는 콩이에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방구 안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에 이놈아! 방구 안꾸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고. 야단을 치드래요. 그래서 그 애가 인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랬나 봐. 그러니까 애가 인자 ‘방귀 안꾸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현 사람이 여자 얻어서 잘 살던가 보지. 인자 그 애가 직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랬나 봐.

“이러저래 해서 어머니가 옛날에 첫날밤에 방구를 꿰서 소박을 맞았는데, 직가 아들이라고. 그래 어머니가 혼자 산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았다는 얘기가 있어.(웃음) [조사자 :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 방귀 안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 들었어.

[고당리 설화 6] 고당리 1뒤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명당자리를 구한 내력

앞 이야기를 마친 후에 6.25 사변과, 또 피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풍수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묻자, 생각이 난듯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하던 것을 들었다고 한다.

[조사자 : 어디가 묘자리 잘못 쓰면 안되지.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잘못 쓰며는 묘소는 안되지. [조사자 : 잘못 써서, 잘못 되어가지고 집안이 망했다는 얘기?] 현재 지위관(지관) 양반이 애길 했는데, 당시도 옛날 얘기가 봐. 현재는 잘 몰라.

왜 그 직원(지관)이 부자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자리가 좋더라. 산소 자리가. 부자로 자리지 인디. 그 자리가 묘자리가 답이 알을 품는 자리래요. 알을 품는 자리다 거기다 써 줬대. 그리고서,

“자기가 집에 가서, 다른 데를 어디 뭘 데 갔다가, 한 삼 년이면 그 많이 ‘와-가’를 이룰 거다.”

한 삼 년 있다가 거기로 찾으니까, 거기 찾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이 무(망)해서 떠났다.”

고 그러더라. 그래서 참 이상하더라. 자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무해서 떠나갔다는 게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산소자리에 가서, 그 이상하네요. 아주 알을 품는 자리는 좋네요? 그래 병아리 까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내주었는데.

그래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뒤에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위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근데 그 바위가 뭐냐하면 팽이바우래, 바위가. [조사자 : 팽이바위. 팽이바위.] [조사자 : 고양이요?] 고양이 바우래.

그러니까 그걸, 그래 그거를 못보고 닭이 알을 품는 자리만 보고서 묘 자리를 해줬는데, 그 바위가. 고양이 바우가. 고양이가 닭을 다 잡아 먹었지 뭐여. 전부 잡아 먹어. 그랬다고 양반이 풍수자리로 그런 얘기도 허드라고. [조사자 : 고양이 하고 닭하고 상극?] 상극이잖아. 고양이가 닭을 다 잡아먹지. 그렇다고 그 산소자리를 봐두 자기는 잘 봐주는데, 왜 그러나도 지위관 그걸을 못봐서 실수를 한거지. 그래서 지위관일수록 어렵게 부자가 안되었지. 그렇다고 그런 소리도 있고.

[고당리 설화 7] 고양이 1뒤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자기 복대로 쓴 명당

앞 이야기를 마친 후에 같은 유형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이 이

야기는 앞과 달리 우연히 얻게 된 명당 이야기라 하겠다.

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앓아서, 그냥 앓아눕게 되었는데 약도 안쓰더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니가 그렇게 어머니가 편찮은데 약이라도 지어다 쓰지. 드리지 왜 약도 안 쓰냐?”

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을 지으러 가니까는 약국쟁이가 건을 썼더라요. 건을. 상재래더라.

“약국쟁이란 놈이 지어머니 못 고치는데, 뭐 남이야!”

고. 그러고는 약을 안쓰드래. 그리고 직원(지관)을 은어서 산소 자리를 안쓰고 그냥, 그냥 왜냐? 그 직원을 데리러 갔더니, 그냥 참 오막살이 집에서 살더라.

“그래, 묘자리 잘 보는 사람이, 잘 보는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어려우냐?”

고. 그래가지고 직 어머니를 업고, 그냥 어려운 사람인데, 직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째어지고 산꼭대기, 산꼭대기에,

“어디가 좋은 자리냐?”

하고 지구 맹여도 좋은 자리가 없더라. 그래서 산꼭대기에다가,

“에라 모르겠다.”

고. 그냥 내려 굴렀대, 직 엄마를.

“엎어지면 제 복이고 뭐, 자빠지면 췌래나.”

뭐 그러면서 엎어질 복이라고 내려치면서 굴렀대. 그랬더니 저 언덕에서 굴러가다가 엎어졌대. ‘엎어졌으면 자기 복이라’고 그러니까,

“엎어졌으니까 어머니 복이다.”

고. 거기다가 직 어머니를 썼대요. 그래서 이냥 부자가 되어갔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까지 암디다 썼는데 그러니까, 그 노인은 명당자리를 구한거지, 굴러가지고.

[고당리 설화 8] 고당리 1뒤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시주 잘 한 모자(김대성 일화)

명당 이야기를 마친 후에 조사자가 장지못 전설에 대해 묻자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주 문제가 나온다는 점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스님이 막 오셔가지고 막 내쫓았다는 것, 그 집이 망했다든지?] [조사자2 : 시주 왔는데 박대해 가지고?] 그런 얘기는 못듣고 이런 얘기는 들었어.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

스님이 시주를 해갖고 왔더니 그 모자가 살더라.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그랬는데 그 바느질 품을 팔아서 논을, 논을 샀대. 어디 논을 하나. 그런데,

“절을 짓는다고. 저기 시주를 하라.”

고. 그러니깐 그 아들이 시주를 했으나 어머니가 했으나, 논을. 그 바느질 품을 팔아 해논 논을, 논을 내 놓았대. 절 지으라고.

“그래, 인자 고맙다.”

고. 그러고 갔는데, 아들이 죽었대요. 아들이. 그래서 그 시주, 아들이 결국 가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시주를 했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뭐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랬대. 어머니가 너무 애통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들이 어디 그 부자집에 태어가지고, 태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왕이 돼 가지고 그 생각을, 그게 생기지. 그게 난디를.

“어디 어디서, 어느 그 할머니가 모제(모자)가 살는데, 그렇게 혼자서 산다.”

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자기 전생 부모를. 아들이 참 크게 잘 되어 가지고 이생, 이생 부모, 전생 부모를 다 모셔서 어머니를 호강시키서,

그런 얘가지. 그러니까 그전이 그런 생각하면 그래. 어디 어느 쉽게 죽으면 머 위로해서 생각하면 그 애통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이심을 원통해서 생각하면 그렇다고. 어른 해탈해서 마음을 먹으면 잠깐이다.

[고당리 설화 9] 고당T 1뒤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고려장 없어진 이유

앞 이야기 마치자 조사자가 고려장에 대해서 물었다. 이는 효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지 반가워 하면서 구술하였다.

[조사자 : 고려장 얘기 아시는 것 없어요? 엄마가 아직 죽지 않았, 안돌아갔는데?] 고리장. (유도과정 생략) 옛날에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산에다 버리는 거 고린장이란, [조사자 : 고린장?] 고린장이라고 그랬잖아. 지금은 죽어야 파 묻지만은.

저기 옛날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몇 살 넘겨 살면은 먹을 거 다 지고 해서 산에다 갖다 파고서 다 넣어 준대잖아. 먹을 것 다 넣어주면, 그럼 그 속에서 그거 다 먹으면 죽는거지. 그렇게 산 매장을 하는거야. 옛날에 고린장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산을 어디를 파면 그런 것이 나오잖아. 산에는 세월이 흐르면 땅 속에서 그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왜 고린장이 없어졌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늙으면 그렇게 해서 지게에다 지고 갔대. 아들하고 같이 가서 파서 묻고 오는데, 지계를 내버리고 온데요, 지계는. 그러니깐은,

“아버지! 지계를 가져 가자고. 지계를 왜 안가져 가냐?”

고. 그러니깐은 저기,
 “지게는 버리자. 지게는 가져가지 말자.”
 “아버지! 지게를 가져가잖아! 아버지를 지고 가잖아요. 아버지도 쳐다
 버려야 하지 않느냐! 그 지게 가지고서 아버지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왔대. 그런 소리는 다 알지? 누구든지
 다 알지.

[고당리 설화 10] 고당리 1회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석수장에게 잘못된 이대장

조사자가 이 마을과 관련된 전설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구술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 마을에서 널리 전승되는 것이라 한다.

문시랭이. 지금 문씨네들이 사는데, 문대장이 문대장인데, 거기 하인을 뒀는데, 하인을 뒀는데, 뭘 일을 하면은 그냥 금방 갔다 온대. 심부름을 시키면. 그 어디 서울이고 어디고 갔다오더라도.

그래가지고서 이상해서 인저 그 대장이 인제, 하인이 이상해서 보니까는, 하도 빨리 갔다 그런 말이 있대. 하도 금방 갔다와서 여기 비껴 보니까, 여 겨드랑이에 털이 있더라. [조사자 : 그 날개처럼?] 털이 났대. 그래가지고,(여기에서 재보자가 잊어버려서 조금 시간을 끔.) 음. 그래 말하자면 인(물)이 하나 난거잖아. [조사자 : 인물이요?] 인물이 난거잖아.

그래서 호차리로 거기를 때렸대. 죽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 [조사자 : 그런 사람 역적인 된다고 하나요?] 그래도 그렇게 뭐든지 자기가 많이 되니까, 잘 되면은 밑에 그런 사람 있으다는 거여, 잘난 사람이.

고 위에 이대장네에 바위가 있는데, 그 잊어버려서 이것 얘기가 안되네. 그런데 옛날에 석수쟁이가, 석수장이지, 그 비석 만들고 그러는데, 상석 만들고 하면 기냥 아무나 데려다가 기냥 돈도 안주고 그냥 보낸대요. 그 세도 세력으로 우격다짐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깐 돼지를 맨글었다나. 맨글어서 글리 아가리를 이렇게 맨글어서 세워놓고 갔대. 그러니까 아니 망해. 그개 돼지래나. 망부석해서 세우는데 그 앞에가. 그래 그냥 돈도 안주니까 앙심 먹어서. [조사자 : 돼지같은 조각해 놓으면 집이 흥하나 보지요?] 돼지가 나쁜 건 아닌데, 입을 동네로 해서 뒀으니까. 뒀으니까. [조사자 : 입을 집으로 두어야 하는데, 동네로 뒀어서?] 동네로 두어서. 그런 전설은 들었어. 망했대.

[고당리 설화 11] 고당리 1부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시아버지를 살린 며느리의 지혜

조사자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유도하였으나 대부분 알지 못한다고 하다가 생각이 나셨는지 구술하여준 것이다. 이어서 3개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주었다.

그런 얘기 자상한 얘기는 책에서 나오데. [조사자 : 나와요?] 영. 사또가 뭐 벼슬 달라고 뭐 자꾸 그래가지고, 그 벼슬에다 그 벼슬을 갈, 벼슬을 해서 가 가지고, 그 마을은 사람이 이냥 죽어서, 죽어서 그 제사를 꼭 지내.

지내 준대잖아, 지사를. 해마다 사람을 하나 갖다가 놓고 지사를 지내야 그 동네가 괜찮지. [조사자 :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잉. 그런 얘기는 다들 알지. [조사자 : 구렁이한테 바치는 거예요?] 아니. [조사자 :

지네한테요?) 지네한테 바치는 거야. [조사자 : 그럼 계속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인제 미우니까 나쁜데로 보낸 거 아니여. 근데 그것은 원님이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고, 이것은 항상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씩, 누구 차례 누구 차례라고 나누잖아. 그러니까 노인네가 가겠지. 노인이 보냈겠지.

그래서 한 집은 그것을 다 알거여. 며느리가 옷에다 독을, 독을 넣어 가지고, 독을 독약을 섞어서 풀을 미겨서, 옷에다 풀을 해갓고 다듬어 갓고 바지저고리를 싹해서 시아버지가 인제 그 갈 차례인데. [조사자 : 시아버지 갈 차례구나!] 응 그래서 옷을 다 입혀서.

그러니까 밤중에, 밤중쯤 되니까 인자 지네가 나와서 잡아먹어야 되잖아. 근께 잡아 먹을라고 해도 독이 들었으니깐 독냄새에 못잡아먹고. 새벽 때에 나와보니까 집채만한 지네가 나서서 죽었어. [조사자 : 그 독 묻은 것을 먹고?] 못먹었지. 이냥 먹지도 못해서 냄새를 활, 옷을 활트고 활고, 그냥 먹을라고 그냥 그랬다가.

그래 노인네 살렸대는 것여. 시아버지를 살렸데요. [조사자 : 며느리가 살렸구나.] 잉 그런 얘기가 다지 뭐.

[고당리 설화 12] 고당리 1뒤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지혜로 얻은 벼슬자리

앞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술한 이야기이다. 이도 앞처럼 지혜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게 벌열 그 상가집이지. 그 마을에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다

가 보낸거지. 인제 그 사또 원님을. 인제 그전에 그런 말이 있지. 이 얘기는 옛날 얘기인데 다 알을 거여.

저기 삼촌이래나 누가 원님인데. 참 벼슬자리를 하나 안준대, 벼슬자리를. 벼슬자리를 안준대. 그래서 그냥 알미워서 이냥 땡비(벌) 있지. 땡비. 땡비를 잡아서, [조사자 : 벌요?] 땡비. 벌. 벌을 잡아서 저기 여기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그래서 갔대, 삼촌한테.

“무엇 가지고 왔냐?”

“이것 변변치 않은건데 두 분이 잡수라.”

고. 인자 두 노인네가 아마 빨가벗고 갔던 모양이지.(웃음) 옷을 벗고 아주 뭐 다는 안벗지는 않았겠지만, 벗고서 이놈의 것을 먹을라고 허니까, 까며는 또 싸였고. 또 싸였고. 그래가지고서 인자 그제 인제 뚜껑을 여니까 땡비가 왕창 나와 다 썼지. 저기 다 썼대.(일동 웃음) 다 썼지 그제.

그래서 꽤심스러워서 가면, 원이 가면 죽는데, 원이 그 가면 죽고 가면 죽고 그런 데를 보냈대유. 그래서 거기 가면 죽으려니 했는데. 그 꿈에 선몽을 하더라요.

“원, 원한을 갚게 해 주십사.”

허고 원한이 [조사자 :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요?] 응, [조사자 : 그 원을 갚아달라고?] 응, 갚아달라고. 그런데 잘 아무거나 끌어다가 이놈이 달라고.

그래서 잊어버렸어. 갚아달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 [조사자 : 갚아달라고. 잘 살았나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갚았대, 불러다가. 아르켜 줘서.

[고당리 설화 13] 고당T 1뒤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순분(66, 여) 1995. 11. 11.

곡소리 안들은 상옷(원님의 지혜)

이 이야기 역시 스스로 생각하여 구술한 것이다. 이는 원님의 이야기였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앞의 것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랬는데 또 이런 얘기 하나 할까. 다 알을텐데.

옛날에는 잉 부모가 돌아가면 산소에 가서 삼 년을 살았다고. 삼 년을. 삼년을 사는데, 저기 신랑 영감, 신랑은 인자 삼 년을 살으니까 고 부인이 혼자서 초행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여. 집이도 못오고.

못오고 집이 지키고 있는데, 그때에 밤에 신랑이 밤중에 그냥 상옷을 입고 밤중에 왔데요. 와가지고, 왔으니까 남편이 왔으니까,

“그냥 어떻게 왔냐고? 남의 눈이 무섭다.”

그래서 밤중에 왔다 일단 자고 갔어, 신랑이. 자고 갔지. 그게 그랬는데, 그게 텔레비도 나왔어. 우리 옛날에도 들었는데. 자고 갔는데, 저기 신랑이 인제 삼 년을 살고 집에 오니, 인자 얘기를 낱드리는 거여. 그게.

“웬 얘기냐?”고.

“아니, 그 당신이 이만저만 와서 왔었는데.”

하 온 일이 없는데 왔다니. 그러니까 친구가 인자 친구, 친구가 딱 그렇게 그놈을 입고서 그렇게 신랑 행세를 했다. 밤에 킁킁현데 있으니까 모르게, 그 모습을. 그러니까는.

“아이, 내가 언제 왔냐고. 잉 어떤 남자를 좋아 했냐?”

며. 물론 저기힐 것 아니여. 그러더니 신랑이 물으니까, 여자가 인자 자살을 했어. 자살을 했지. 그래 그 여자가 원한이 있어서, 그 원님 꿈에, 이 사람인지 몰라도 그것 원님 꿈에,

“그거 원을 갚아달라.”

고. 또 그래서,

“이 고을에 인저 그런 사람이 있나?”

허니까,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저,

“저기 곡소리 안들은 상옷을 가져오면, 배웁. 곡소리 안들은 상옷을 가져오며는 큰 돈을 얼마알마 상을 준다.”

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더라, 곡소리 안들은 상옷이 들어오 드래.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틀림없는 거지. 맹길, 맹길고 부모가 돌아가야 울고 해야 되는데, 이놈이 그냥 맹길어서 그때 입었던 옷인게. 그래서 잡아서 죄인을 잡아서 그 영혼의 원한을 풀어줬대.

그런데 이것은 나 있어. 다 있는 얘기여. 내가 들은 것은 텔레비에도 나왔던가 그런거.

[고당리 설화 14] 고당T 2화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동근(69, 남) 1995. 11. 11.

아기장수를 처지한 이대장

제보자는 김순분 할머니의 배우자로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날 때 쯤 노인정에서 돌아오셨다. 그래서 함께 점심을 들며 구술하는 것을 채록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구술하여 준 할머니가 이야기판에 끼어들어 이야기를 구술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대장 관련 이야기는 앞서서 할머니께서 구술하였지만, 약간 내용이 달라 여기에 실기로 한다.

[청중 : 곱등고개 뭐 얘기허라고.] 아~ 곱등고개? 그 녹음에도 들어가지 안하. 안해.(웃음) 옛날에 양반들이 거 해먹은 거라 하지를 았아.

[청중 : 괜찮아. 그런 거는. 양반들이 뭘 곱등고개에서 무엇 해먹었어.]

곱등고개,

옛날에 이대장 적에, 그 앞에 연못이 있는데 물명당이라구 해가지구, [청중 : 그래 내가 아까,] 전부다 그냥 산을 파다 물명당을 모시(매우) 고 묘를 쓴 자리가 있어. [청중 : 지금 이 서방네가 살어, 이렇게.] 여기 살어. 그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 해여. [청중 : 아니 나는 애기 해주었어. 돼지를 저기 이것 녹음되는 거여?] 그 사람네가 살어. [청중 : 저기 이대장네가 돼지 해가지고 그래 석수쟁이 있잖아. 석수쟁이를 돈도 안주구 그냥 일만 시켜 먹고 보내고 그래서 돼지를 동네 앞으로다가 아가리서 혀서 동네가 동네가 안좋다고.] (이 전설에 관해 구술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 생략.)

그 말직고개 전설은 뭐가 나왔느냐 하며는, 이대장 시절에 거 이대장 그 하인이,

“서울에 갔다 오라.”

고. 한양에 심부름을 시키면은, 아 이 사람이 금방, 그냥 정일 놀다가 한양에 금방 갔다오거든. 금방 갔다 오구 금방 갔다 오구. 그래 가지구 서는 말이지.

“저 놈이 이상하다.”

하구선. 이대장이 부인을 시켜서,

“거 잠잘 적에 뭐가 있나, 좀 달래 보라?”

구. 그래서 인저 보니깐, 잠잘 적에 인저 이렇게 곁여 보니깐, 겨드랑이가 날개가 달려 있어. 거 날라갔다 오거든. 그래가지구선 ‘그렇다’구 얘길하니까,

“그걸 불을 썬아서 날개를 죄 태워라.”

술을 잔뜩 먹고. [청중 : 날개를 태웠대요?] 그래서 날개가 탔어요. 다 술을 잔뜩 먹고 타가지고 죽으니까는, 그 말직고개에서 말이 나와서 [청중 : 말이 나와서.] 그냥 그 근방을 뭐 그냥 막 그냥 헤매고 뛰었다는 거여. [청중 : ‘이것이 날러다녔다는 것여.’] 그게 전설이여.

그렇게 뛰다가 그 다음에 또 바사리라고 있어요. [조사자 : 바사리?] 응. 말직고개 옆탱이 거 바사리라고 있어. 바사리에서는 말이 저 말때는 바가 나왔어요. [청중 : 바. 말끈. 고삐.] 말 갖다 매다놓는 고삐. 바. 소 매면 소 고삐에 바 있잖아. 그런 바가 나와가지고 말이 뛰다가 그 물 멩당이라는 그 연못에 빠져 죽었데요.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그 천하장산데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청중 : 그러니 나 엉터리로 한거지. 그런 얘기는 잊어버리고 그것만 한 거여. 말직고개 말이 나왔다.]

그런게 그래가지구서 그 이대장네가 그때부터 망해 내려온거야. 그냥 그 안동안이 전부 이대장네 견데, 전부 다 인제 망하고 끝어로다가 참봉 하나 났어요. [조사자 : 참봉?] 참봉도 다 그냥 망하고 지금은 인제 아무 것도 없어. [청중 : 지금도 밑에 손들이 잘 되었지.] 그냥.

이대장 묘가 저 곱등고개 올라가는데 중간에 있어. 중간에 있는데 수낭치고개라는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 비석만 크게, 그냥 크게 그냥 이대장 해 먹은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어. 전라도 광주에서 수레에다가, 옛날엔 마차로 사람이 수레로다가 해서 끌어다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비석을 세웠어.

[고당리 설화 15] 고당리 2판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동근(69, 남) 1995. 11. 11.

전국을 감사(監査)한 암행어사

앞의 이대장 관련 이야기를 마친 후에 생각 난 듯 구술하여 준 것이다. 내용은 비슷한 양반에 대한 일화라고 하겠다.

도고지라는 옛날에 양반이며는. 쪼그만 진사만 해먹어도 그 고을에 원

보다는 낫지. 진사가. 이 진사는, 저 원은 현감이 하는 거니까, 진사 위에 현감이거든.

그래 인저 진사만 되도, 그 돈많은 부자들을 죄 붙들어 놓고 돈을 안 가져 오며는 막 그냥 뭐 막걸리도 시키고, 그 뭐 하인을 시켜 패고 돈을 뺐고 다 그랬어. 그리고 인저 원도 그래요. 원도 돈많은 사람이 그 고을에 있으면 전부 죄 붙들어다가 상납을 해야 되여.

상납을 안하면은 그냥 막 그냥, [청중 : 지금 대통령이 돈 받잖아.] 지금 노태우 있잖어? 노태우 굶어 들이듯, 그렇게 굶어 들어논 거여. 옛날엔 양반만 됐다하면 다 굶어 들이는거여. (청중 이야기 생략)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어. [청중 : 똑같어. 그 먹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 [조사자 : 이 대장이 여기 유명한 가봐요?]

옛날이라 하면 그 감사 도의 감사라고 있잖아? 전라도의 감사, 평양 감사니 뭐 감사가 있잖아? 감사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라고. 도 지사가 전부 정권을 잡고서 다 굶어들이는 거야, 그냥. 고을에서 인저 군수든 그때 목사라고 그랬다고.

목사가 인저 시켜가지고, 시키며는 인저 목사가 군에 하나 아녀. 하나가 그 인저 원을 다 시켜가지구,

“다 상납해라.”

이 상납을 받아가지구, 또 인저 도에 인저 감사한테로다가 다 바치고. 감사는 인저 그걸 받아가지구 한양의 그 저 어디야, 원 거기 다 정승이니 판사니 있잖어? 글루 다 바쳐야 한다구. [청중 : 아이구! 그것 얘기 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절이야.

[조사자 : 그런 사람들 옛날에 혼난 얘기, 그런 얘기 없나요? 박문수 같은 암행어사 와서.] 그러. 그러, [조사자 : 혼낸 얘기?] 그 박문수 암행어사란 거는, 세계에서 우리 임금님이 낸 거라. 감사도 소용 없구 전국에 땡기면서 암행어사가 있어요. 그 사람네는 다 응? 도의 저 어디 감사

들. 다 그냥 감사를 하는거여.

[고당리 설화 16] 고당리 2화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동근(69, 남) 1995. 11. 11.

조자룡 유비 구하기(삼국지)

조사자가 이곳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명목바위나 고당리내 여러 일화들을 간략하게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6.25의 피난과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난 듯이 옛날에 책에서 보았다며 이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삼국지를 봤지? [조사자 : 삼국지요? 예.] 삼국지. 상산 조자룡이가 적기를, 저 그저 뭐야 유현덕이, 유비를 이제 진전(적진)에 들어가서 우겨서서 그 천기를 보니까, 진전에 우겨서서 급하거든, 자기 주인이. 그래 내가 첫날을, 주상의 그 그냥 별이 흥미하고, 적군의 별만 창창하고 우겨서서.

“이게 참 주상이 큰일났다. 그래가지구 내가 구하러 가야겠다.”

그래가지구 인저 응 오는데, 아 그냥 이놈들이 그냥 배를 그냥, 사냥수 삼십리 강, 사냥수를 그냥 싹 때려치우고 건널 도리가 있나? 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구 인저 하는 소리가, 조자룡이가 하는 소리가.

“응. 너는 나하구, 나하구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죽자. 주인이 응 죽는데 어찌 내가 살면 뭐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말이 수십 보를 그냥 뒷걸음을 치더래. 그러더니 그냥 뇌성벽력을 치구서는 그냥 거 30리 사냥수를 날라 건넜다는 거야. 그건 다 바람으로다가 지어낸 걸게지. [청중 : 그렇지.] 그래가지구선 그 유비를 구했다는 거여, 그냥.

들어가보니까 그냥, 적군이 그냥, 조조의 군사가 삼지사방을 그냥 장군들이 몰렸는데, 그 속에서 그러시니 살 도리가 있어? 들어가면서 그냥 동에 가 번쩍 서에 가, 번쩍, 장군 다 치고 유비를 살려냈어.

그 산상 조자룡이가 유비보다 더 명장이야. [청중 : 명장이라도 나중에 패했잖아. 유비한테 패해갖고 읊고.] 아 그래 한척 유비가 인자 천자에 올라가지고 15년인가 하고서 늙으니까, 전장만 하다가 죽었지. 죽어, 죽으니까 그때 유비가 아들이, 에 저거 했다고. 그래 급하니까, [청취불능]

그래 인자 게가 거기 천자 올라가지고 을마 못하고 빼앗겼어. 장군들이 다 죽었잖아. 관우 장비 조자룡이 늙어서 다 죽고, 그 인자 밑에 장군들이 못당해 가지고 바로 다 빼앗겼다.

[고당리 설화 17] 고당리 2원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동근(69, 남) 1995. 11. 11.

이유관 장군 일화

조사자는 중국의 삼국지에 나온 장수 이야기를 듣고서, 제보자에게 우리나라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청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도록 이야기 판에 끼어들었다. 이 이야기 속의 무술 과정에서는 지하도적 퇴치담이 변이되어 나타나고 있다.

[조사자 : 우리나라 장수 이야기 그런 거 없었요?] 응? [조사자 : 조조나 유비같은 우리나라 장수 대장?] [조사자2 : 우리나라 장수?] (청중이 조사자의 요구하는 질문을 제보자에게 설명하여줌)

우리나라 장수는, 공 세운 장수, 이조 때 장수 말이지? [청중 : 그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설 나는,) 이조 때 장수는 저 공을 세운 사람들이 벨루 없구. 공을 세우다가 파하구 파하구 그랬어. 왜 그러냐 하며는, 처음에는 이조 때 장군이 시초(시작)로 허먼은 자꾸 길어, 길어져서 안 되는데.

신립 장군이라고 있지? [조사자 : 신립? 신립 장군?] 응. 신립 장군. 그 장군이 공을 세우다가 실패를 했구. 또 이유관 장군, 이유관 장군 알지? [조사자 : 모르겠는데요? 이익관 의관?] 이유관.

이유관 장군이 어렸을 적에, 선비였을 적에 저 어느 대사가 아주 큰 대사가 왔드래요. '시주를 하라'구. 그런데 큰 술박에다가, 그냥 이만한 몰박에다가 쌀 하나 이렇게 떠다가 시주를 하니깐, 그 대사가 뭐라고 하니,

“그 도련님은 뭐가 원입니까?”

물었거덩. 그러니까,

“나는 이 조선에서, 그래 조선이지, 제일 이쁜 아가씨가 원입니다.”

그랬거던. 아 그러니까는,

“아 그럼, 여기서 한 사오십리 산길로 들어가면은 거기 기와집이 쪽 있는데, 그 기와집에서 맨 뒤에 제일 큰 기와집에 참 천하인물이 있으니 거길 찾아가시오.”

그래 인저 참 배낭 보따리를 해 걸머, 짚어지구서는 지아부지 몰래 그냥 서당에서 그냥 도망을 했는데, 갔는데 이유관이 거기 썩 들어가서,

“문 열어라.”

이렇게 하니깐, 참 꽃같은 아가씨가 나와서 문을 열었는데,

“여기는 들어오시면 죽습니다 이거여. 어저께 장군님이 군사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석달 열흘 딱 차면 돌아옵니다 이거여.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죽습니다. 인저 나가시오.”

하니깐,

“아니라구. 이쁜 샅시를 봤으니까 아니라.”

구. 들어가 사정을 하고, 사정을 하고 들어가 썼는데, 인제 삭시가 보
니깐 한국의 명장이거덩, 인물이.

그래 인제 받아들여서 했는데. 야한테 무술을 가르키는 거여. 그 삭시
가. 무술을 가르키는데, 어뜨게 가르키는가 하며는, 에 집이 후원이 어
마어마하게 넓은데, 넓은데 데려가구서는 같이 무술을 하는 가르키는 거
여. 그 삭시가. 가르키구서는 돌이 있어요. 이만한 돌이 큰 돌이 있는데,
“그걸 들으라.”

는 거여. 그걸 땅꿈도 못하지 뭐여. 그래 가지구서는 술을 주는데, 인
삼주를 주는데, 한 사발 밖에 못먹거랑.

“아 우리 장군님은 한 번에 한 덩이(동이)를 마시는데, 한 사발 마시
구 되겠냐?”

구. 자꾸 내거든. 그래서 인제 차차로 그냥 술을 많이 먹구, 그 돌을
들기 시작하구, 무술을 배우고. 그래가지구선 인제.

“그 장군이 그 돌을 던지며는 사흘 한나절이면 꼭 그 자리에 떨어진
데, 올라가서.(일동 웃음) 근데 들어보라.”

는 거야. 첨엔 요렇게 들다, 요렇게 들다 그저 인자 쪼끔 올라갔다 떨
어지구. 한나절 있다가도 떨어지구. 그저 그냥 하루, 차차로 올라가니까
하루 있다가는 떨어지구. 하루 한나절 밤 영, 석달 열흘 있으니까 딱 떨
어지더라.

그러다 인제 무술을 그렇게 많이 석달 배웠으니까, 석달 열흘 배웠으
니까 많이 배웠지. 배웠는데, 하루는 방포 소리가 나가덩.

“아이구! 저거 소리가 뭐냐?”

하니깐. 그 삭시가 하는 소리가,

“장군님이 삼십리 바깥에서 그 총을 쏘는 거다 이거여. 방포 쏘는 거
다. 나 여기 왔다구.”

그러면서 피해 나가라 이거여.

“아! 안 나간다구. 저렇게 꽃같은 아가씨를 두고 여기 응 석달을 살았는데 안 나간다.”

구. 그래 인저 안 나가구 있으니깐, 또 방포 소리가 나니깐,
“이건 십리에서 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군이 천리마를 가지고 있는 거여. 천리마로 금방 닥쳤지 뭐여, 그냥. 그러면서,

“대문 열어라.”

소리를 지르니까, 대문 인자

“아! 우리 집에 어떤 놈팽이놈 왔지?”

하구서, [조사자 : 벌써 아는구나!] 그래 인저,

“어뵈느냐?”구.

“저기 있다.”

구. 가서 인저 칼을 빼들고,

“이걸 목을 딸까 말까.”

그냥 지질어졌지 뭐여. 지질어졌는데,

“딸까 말까. 참 목 따기는 아깝다.”

왜냐? 팔을 붙들고 나오는거여.

“살릴라구. 목따기가 아까우니까.”

그러문서. 그 이튿날은 하는 소리가, 이 장군이,

“우리 여기 있지 말구.”

말을 하나 주면서, 오백리 말을 주면서,

“나가자.”

이거여. 그러문서, 나가면서 여자가 나오니까, 칼을 쓱 주면서 목을 치라는거야, 여자가.

“저거를 두고 가면은 또 올 것이다. 성공을 못하고 또 올 것이다.”

이거여. 그래서 인저 못 치니까는 우물쭈물 하고,

“아이 이 자식아! 사내 대장부가 기껏 지집 목 하나 못치냐?”

고. 썩 뺏더니 목을 탁 쳤드라는 거여. 탁 쳤는데 그게 허수아비여, 그게. 그래서 데리고 갔던거여. 근데 그 도사가, 그 사람이 그냥 거기만 있으면은 큰 인물이 못 되니까, 그 도사가 시켜서 글루 보내구. 장군이 벌써 와서 배웠다는 것 아는 거여. 천기를 보는 장군이니까.

그래 인저 나가서 삼십 리 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서서 보더니 어떤 장군 하나가 그냥 말을 타고 삼십 리 이상 외나무 다리를 건너더라는 거야. 역시 외나무 다리를. 그래 얼추 다 건너니까,

“피하자. 피하자구. 만나믄 적수가 되니까 피하자.”

구. 그래 피해가지구선 저만큼 가 있는데 보여주는 거야, 적수가 아니구. 같은 응, 장군끼린데두 그 사람은 보내주는 거여, 그게. 보여주구선 인자 나가. 지나갔다가 이거여. 데리구 가서는,

“너는 여기 있지 말구, 무과에 가서 급제해 가지구서 장군 벼슬을 하거라.”

이렇게 보내주었다구. 그래 인저 무술을 배웠으니까는 무과에 가서 급방 그냥 급제를 했다구. 그래서 장군해서 조선의 장군이 됐다구.

장군이 됐는데, 이 장군이 어떻게 되고 하나, 중국에서 자꾸 한국을 먹을려구 꺾적거리잖아. 그래가지구선 이 그 ‘형님! 동생!’을 했어요. 그 장군하구.

“형님! 내가 이 힘으로다가 그 중국 하나를 까짓것 못이기겠느냐구. 임금님이 허락만 하시며는, 주상이 허락만 하면 한 번 쳐부수겠다.”

말이여. 그러니까,

“야! 안된다. 너는 한국에서 장군이 둘 반 밖에 읊다. 둘 반.”

“그러면, 아니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지, 반 장군이 어딴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한국에서 반장군 밖에 안되어. 요전에 저기 저 강, 삼십 리 강

외나무다리 건너던 장수 봤지? 그거하고 나하고 둘밖에 장군이 없구. 중국에는 육장군이 있어. 육장군을. 육장군을 둘 반이 어떻게 해치니? 천지에 안된다.”

(청중이 이야기판에 끼어듬) 그러니까 육장군을 못이기거든, 똑같은 장군끼리는. 둘 반이 그렇게 여섯 장군을 어떻게 이겨. 중국에서 산 좋구 인재가 많고. [조사자 : 넓은니까.]

[고당리 설화 18] 고당리 2화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동근(69, 남) 1995. 11. 11.

한국에 인물이 적은 이유

앞의 이유관 장군의 전설을 이야기 하면서 중국보다 인물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이 난듯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이여송이 한국의 산천을 단맥하였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에도 인재가 많이 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성(이여송의 잘못)이 이의백이가 있어. 그 역사 알어? 이유성이 이유백이라는 장군이 중국의 장군인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중국에 가서 나가지구서 장군이 됐어요. 중국에 최고 장군이라구, 이유성 이유백이가.

그래 한국을 보니까, 천기를 보니까 한국이 참 산이 명산이거덩. 명산 이니까, 그 아이들이 꼭 직어머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중국인 사람으로만 생각하다, 있다가, 그래가지구선 이 장군이,

“안되겠다. 중국이 맥히졌다. 그냥 두면 인재가 많이 나니까, 가서 산 허리를 지르다.”

그래가지구선 그냥 저 사뭇 땡기믄서, 나와서 그 장칼로다가 산허리를 다 짚, 짚었다구. 그래가지고 여기 여 쌍향산 밑에, 거기 와서 산허리를 질르니까 피가 나왔다는 거여. 피가, 사흘을 질렀다는 거여. 장군들이 나올 장처 천기가 참 다 없어진거지. 그래 다 질러 내려가다가 지리산 남밖이, 저 지리산 저 아래 있지. 지리산 남밖에 가서 산허리를 질르구서 보니까는, 그 밑에 보니까는 자기 오대 할아버지 산소가 있거덩. 비석에,
“아이구! 내가 진장 한국 사람이다.”

이것 그때선 알구서는, 바위를 저 앞에 바위를 쳐가지구 칼을 분질러 내버리구 형제가 들어갔다는 거여. 그래가지구 아랫녘으로만 지금 인물이 있지, 우에는 인물이 없다는 거여. [조사자 : 아 재미있다.]

그래 장군이 한국에서 낳으믄 한국 장군이 되는 건데, 그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중국에 데리구 가서는 한국이 망한 거여.

[고당리 설화 19] 고당리 23호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동근(69, 남) 1995. 11. 11.

임금의 따귀 치고 장원급제한 이진완

제보자는 권율장군의 사위에 관한 이야기 등 역사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하면서 이를 다 할려면 한나절이 필요하다며 딱 얘기를 해줄까 하면서 이야기를하여 주었다.

옛날에, 옛날에 그것도 이조 때야. 이조 땀데, 이진완이라는 선비가 있었어. (tape 뒷면에 계속) 이 선비가 인저 방을 붙이잖아? 장원. 저 시험을 본다는 방을 붙이거덩. 그래 그 방을 보고서는 저기 저 뭐여, 한 양으로다가 꽤나리 붓짐을 해서 싹 짙어지구, 삭시는 집에다 두고 이렇게 오는거야, 전라도에서.

전라도에서 오는데, 마냥 걸어오는 거지 뭐. 할로 할로 그냥 걸어오다가 부여에 왔어요. 부여엘 왔는데 날이 일모했는데 커다란 집이 있거덩.

“이리 나오너라!”

불르니까. 이런 꽃같은 아가씨가 하나 나오거덩. [조사자 : 꽃같은?] 그래 인자 그 아가씨가 저기 여 그 부자야, 아주 그냥. 부잔데 자기 시집을 적에, 그 어느 이웃의 젊은이가 와서 자기 아부지하고 시비를 하거덩.

“이눔아! 노인하고 시비를 한다.”

고. 어떻게 때리다가 죽었어요. 젊은이가. 그래 가지구선 인저 원이 붙들어다 가웠지 뭐여. 가두구서 있는데, 그냥 몇 년을 두고 그냥 있다가 노인네들은 다 죽고, 이 삭시는 애도 읊이 그냥 혼자 그냥 그 집을 지키고 사는 거여. 사는데 누가 차, 들어와 찾거든.

보니까 선빈데, 인물이 참 그냥 끝잇하고 장래 인물이구 그렇거덩. 그래 가지구선 이 삭시가 저녁상을 해가지구 인저, 먹고 난 후에 술상을 차리구 와서 잘 대접을 하거덩. 그래 먹음면서,

“같이 살자.”

는 거여. 그래 가지구선 인저,

“아 안된다.”

고. 나는 자기 맘에, ‘큰일을 하러 갈 사람이니까. 그 어찌 중간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겠느냐?’ 하구선 이냥 딱 감고 있는데, 뭐 그냥 밤 기울리도록 ‘살자’구 졸라대서 이냥 이불을 팍 뒤집어 쓰고,

“내, 이 부여에 백년 묵은 백여우가 있다더니, 이게 아마 백여우 집엘 들어 왔나 보다.”

구. 그래가지구선 뒤집어 쓰고 옆드려서,

“구둥이서 먹든지 대가리서 먹든지 잡아먹으라.”

고. 그냥 그랬는데, 인저 날이 훤히 밝으면서 밥상을 잘 차려다 주거덩? 차려다 주고, 먹구서는 인저 한양으로 가는데,

“잘 땡겨서 장원급제 해서 오시라.”

구. 그러니까 이 여자, 남자가 뭐라고 그(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 그런 얘기를 해니까,

“이 남편이 며칠 안 있으면 돌아오시니까 행복하게 사시라.”

구 그랬거든. ‘며칠 안 있으면 꼭 돌아오실거라’구. 아 이 그짓말을 하구 갔네. 돌아오지도 못할 감옥에서 죽을 사람인데 살인을 했으니까.

그래 가지구선 인저, 거기 인저 떠나와서 인저 할로 할로 인자 한양으로 갔지 뭐야. 부여에서 한양 갈려면 며칠일을 가야하지. 인자 걸어가는 거니까. 가서 그냥 좋은 집도 못얻고, 그냥 문칸방 허름한 집에 한양 가서 인저 글을 읽는 거여.

그러니까 임금님이 시찰을, 장안 시찰을 신하를 데리고 도시는데, 글 읽는 소리가 참 구성지거덩. 그래서 인저 그 데리고 간 신하를 보고,

“문을 이렇게 침을 발라 문틈을 뚫고 들여다 보라.”

이렇게 보니깐, 초라한 선비가 혼자 앉아서 그냥, 등잔불. 옛날엔 등잔불 있지? 쇠기름. 그 불을 켜 놓고서는 글을 읽거덩.

“어, 우리 저 선비 좀 보구 가자.”

구. 신하더러. 그래서 인자,

“문 좀 열어라.”

하니깐. 문을 열거덩.

“들어가서 좀 얘기 좀 하라.”

구. 돌아가지 않고 그것 이상해 그냥. 그 이튿날이 그 저기여 장원급제 시험보는 날이여. 시험보는 날인데, 정. 안가고 글을 읽어야 할텐데 성가시럽게,

“얘기를 하라.”

고 그러거덩. 글만 배웠으니 얘기가 읊잖아요. 읊으니까 그냥 자꾸,

“얘기 좀 하라.”

고. 그러니까는 인저 함께 있어야지. 오다가 그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아! 젊은놈이, 그 이쁜 꽃같은 샷시를 그냥 두고 왔냐?”

고 그러거덩. 아 그러니까, 그냥 그 먹살을 견어들고 이놈의 따구를
쳤대, 그냥. [조사자 : 아!(놀람)] 그래 그냥 치니까, 신하가 막 난리를
하니깐,

“아! 가만 있으라. 가만히 있어라구 지나가다 왔으니.”

그래 갔지.

“그럼, 글 잘 읽으라.”

고. 그리고 갔다구. 갔는데 방을 붙였는데 보니깐, 임금님이 그 정승
판서들이 방 그 시험문제를 내그덩? 근데 임금님이 직접 냈어요, 그냥.
직접 냈는데, 그 전라도에서 오문서 한 얘기가 고대로 나왔거덩.

“참, 이거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내가 어디가 얘기한 거 읊구. 그 지
나가는 사람한테 얘길 했는데 이게 그 웬일이냐?”

고. 그대로만 써 붙였지 뭐. 거기서 난다긴다 하는 그 선비들이 하나
도 못 썼지 뭐여. 그걸 써 올렸더니, 그 장원급제 임금님이 직접 그냥
받아갖구 장원급제를 시키는 거야. 보시구서는 인저 저기여.

“이진완이로다가 장원급제를 시켜라.”

그래서 장원급제 하면은, 인저 저기를 받으러 임금님한테, 저 지금도
대통령한테 신입장을 받으러 가잖아! 그래 임금님이 인저 판복을 입구선
임금님 앞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절을 하구 문턱에 엎드리잖어. 엎드
려서,

“전라좌도 아무데 이진완이 사흔합니다.”

절을 하니깐. 임금님이,

“이리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그래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와
서 용상을 바라보라.”

아, 바라보니까는 임금님이거덩.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죽으러 온 거지, 살려온 거 아니다.”

임금님 따귀를 때렸으니까. 그래 임금님이 하시는 소리가 무릎을 치면서,
“참 내 어진 신하를 얻었으니, 응 태평성대를 안누릴 것이냐!”

이진완으로다 전라감사를 시켰다 이말이야. 전라감사를 해가지구서 가다가 부여에 그 집에 가서 하룻 저녁을 자고 가니깐, 그냥 두 내우가 나와서 그냥 절을 하구, 그냥. 잘 부잣집이니까 모시구. 그래가지고서 전라도로 내려 가서 전라도를 잘 다스리고 살다 죽었다.

그것도 괜찮지. 그 사람네들이 성공하고 큰 인물들은 저기를 안해요. 남한테 해꼬지를 안해요. 그런 인물이 되야 하는데, 이 농촌 인물이 되어서 안돼어.

[고당리 설화 20] 고당리 2위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동근(69, 남) 1995. 11. 11.

이울곡과 나도 밤나무

앞 이야기를 마치자 생각이 난듯 곧바로 구술해 준 것이다.

이울곡이란 선생은 다 아실꺼지? [조사자 : 이울곡요?] 응. 울곡이 전, 전에 첨부터 내려온 그 시조야 아시나? [조사자 : 모르는데요.] 첨부터 내려오는 시조를 몰러?

울곡선생(울곡선생의 아버지의 잘못)이 조정에서 있다가 저 평양감사로 갔어요. 평양감사를 갔는데 ‘아버지가 편찮다’고 통보가 인자 사람이 차포로 와가지구, 또 한양에 와서 임금님한테,

“아버지가 편찮으니까 가겠다.”

구. 그래 허가를 받아가지구, 허가를 받아가지구 오는 도중에, 몇년 가선 그 평양감사로다가 가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지 뭐야. 평안도를. 그랬는데 그 도중에 오는데, 걸어서 걸어서 오는데 산길을 인저 어 두우니까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한 군대를 보니까는 반짝반짝 하거덩. 그래 거기를 찾아 들어갔지 뭐여. 그래 찾아 들어가서,

“이리 나와라!”

하니까. 거기도 또 그래 그냥. 울곡선생에 또 그냥 꽃같은 아가씨가 그냥 같이 밥을 해다 주고 그러면서,

“같이 살자.”

구. 그냥 밤새도록 인자,

“내가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도중에서 이런 일을 참 하겠느냐?”

그냥 꼭 참구서 기냥 있다가 그냥 갔어요. 갔는데 원부인한테로 가서 울곡이가 나온거야. 울곡선생 아버지가. 울곡이가 나왔는데. 저기여 인자 아버지 병간호 하구서 올라가는데, 또 길이 저물었는데 불이 반짝반짝 하거덩. 그래서 인저 또 길이 저물어서 가보니까 또 그에 삭시더라 이거여. 그래서,

“여기서, 나는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묶은 지넨데. 지넨데. 당신한테서 낳는 인간을,”

그러니까 인저 그 사람이 된거여. 그 지네가. 도섭을 허면은 사람도 되고 지네도 되구 이렇게 헛거여. 천년을 도를 닦아가지구.

“당신한테서 배서 낳으면은 천하 인물을 낳기 때문에 내가 그 요청을 했는데, 그냥 가서 본부인한테로 낳았으니까 그 아이가 여덟살이면 죽는다 이거야. 호산을 갈 테니까, 그 잘 경비를 해야 할텐데, 그래 천에 살릴 도리가 읍다.”

이거야. 인물이.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살리었냐?”

물으니까, 울곡이,

“밤나무를 인저 천 주(그루)를 심고서, 그거를 밤마다 그 애를 여덟살 되는 해, 몇월 몇시에 그때까지 세라 이거여. 하나도 죽이지 말고.”

그래서 그냥 조정에 올라가서 벼슬을 하직하고 내려와서, 그 애를 길들라고 밤나무 천 주를 심고 날마다 물을 주고 그냥 그걸 시(세)는 거야, 그냥. 하나가 죽었나 안 죽었나. 시는데 그날 딱 닥치니까는 대사가 내려와서,

“너! 밤나무 천 주를 다 길렀느냐?”

그러거든. 대사가.

“다 길렀습니다.”

“가 세 보자.”

밤새도록 세는데, 조금만 있으면 닭이 울텐데, 아흔, 구백아흔아홉 주 밖에 안돼, 다 세어 봐도. 그러니까 그냥,

“안되니까, 니 아들을 내가 데려간다.”

그래서 또 시면 그렇구, 또 시면 그렇구. 하나만 빼놓고 싶지 뭐. 옆 댕이에선 인자,

“나도 밤나무가 있어요.”

산에 나두밤나무라는 게 있어. 지금도 저런 산에서 나도밤나무라고, 밤나무 같이 생긴 게 있어. 그놈이 있다 와서는 뭐라고 하시고 하니, 아흔아홉 주 밖에 안되니까,

“아, 나도 밤나무데.”(일동 웃음)

그래가지구 딱 맞았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구나!”

그래가지구 그 아들이 울곡선생이가 그렇게 참 천하인물 아냐? 그냥

울곡선생. 울곡선생. 오죽헌에 그 가면 해농구. 울곡이가 오천원짜리에
도 밝혀 나오잖아. 그런 인물이라구.

[조사자 : 그래 울곡인가? 밤울자 해가지고.] [청중 : 그래.] 응 울곡
선생, 울곡 선생. 밤나무골(栗谷)이라고 해가지고, 밤나무 때문에 살아
나와다 해서 울곡.

[고당리 설화 21] 고당리 2위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동근(69, 남) 1995. 11. 11.

강감찬 장군 일화

앞의 울곡이 이인 결합형이란 측면에서 여우와 결합하여 탄생한 강감찬의 이야기가 생
각난 듯 구술하였다. 제보자는 이야기를 어릴 때 듣기도 하고 어느 책에서 보기도 한 것이
라 한다.

1) 여우의 아들로 태어남

강감찬이 내용은 알아?(일동 웃음) 잘 됐다. 그런 강감찬이만 아는
거야? [조사자 : 이름만 알아요.](청중이 끼어들)

옛날에 강감찬 아버지가 천하 난봉꾼이야 그냥. 몹쓸 사람이야 그냥.
그래가지구서는 이냥 땡기면서 그냥 난봉만 피운 사람이야. 강감찬 아버
지가. 그래가지구서는 뭐 아흔아홉인가 이렇게 샅시를 보고선 백째가문
큰 인물이 난대요.

그래가지구서는 인저 집에를 가는 차인데, 한 고개를 넘어가니까 참
그것두 또 똑같은 거여. 똑같은 건데 그냥 아가씨가 어리헌데서 그냥,
“날이 저물었는데 자고 가라.”

고. 그래가지구 그 아가씨하구, 워낙 난봉쟁이니깐 잤다 이거여. 잤는데

그 이튿날 자구 나니까는 담푸사리 속에서 잤거든 그냥. 그냥 옆에 여우 한 마리 밖에 없어. 여우 한 마리 밖에 읊는데, 그 여우가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난봉을 피다가 아흔아홉하고 백째가른 본부인한테 가 보면 큰 인물이 나서, 내가 나두 백년이 도를 닦아가지구서는 사람이 됐다 짐승이 됐다 하는 그 도술하는 여우여. 그래가지구서는 나도 저 큰 인물 하나 불라구 당신을 그 청해 들인 거다.”

그래가지구선 본부인한테 가선 못낱지 인저. 큰 인물이. 그러믄서, “내가 내년 몇 월 몇 일에 오면은, 여기 당신 아들이 있으니까 데려가시오 이러거덩. 데려다가 잘 길르며는 천하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덩. 그런가보다 하고 집에 가 가지구서는, 그날을 꼭 기억을 해 두었다가 가니까는, 아 덤푸사리 속에 있는 인자 여우가 얘를 하나 앓고 앓았거든.

“그래, 이젠 당신 아들이니 가져가시오. 주거덩 잘 고이 길르라.”

고. 그래 인저 강감찬이(강감찬 아버지의 잘못)가 그렇게 난봉쟁이구, 돈은 많고 할 일 없이 돌아댁기구 그랬으니까 인자 갖다 잘 길렀다 이거여. 그래 서당에 글을 배우라고 보내고 그랬는데, 인저 도련님이 아냐?

“도련님! 도련님!”

그랬대.

2) 염병을 물리친 강감찬

도련님께서서 인자 글을 배우고 그랬는데, 이 하루는 동네에 염병이 들어와가지구는 그냥 전부 그냥 깔 저기거덩. 사람이 그렇게 죽어 나갔거덩. [조사자 : 전염병?] 염병. 전염병. 지금은 염병이란게 읊어. 장질부사라는게 전에 염병인데 약이 읊어서 다 쓸고 그랬어. 지끔 약이 좋아서 장질부사라도 금방 낫더구나. 그랬는데 인저 그러니까는 서당에 가서,

“도련님! 도련님! 참 이 동네 큰일 났습니다.”

“뭘가 큰일 났느냐?”

“아, 그냥 염병이 들어와서 동네가 씨룹니다.”

이거여. 그냥,

“아, 그러?”

아 그래 부적을 2개 써주면서,

“이걸 갖다 저 동구 바깥에, 장승에 가서 척 막빡에 하나씩 붙이고 오너라.”

그래 인저 가서 갖다가 떡 붙이고 왔는데. 그 사람이,

“붙이고 왔습니다.”

해서. 벌써 그 장승이 어척어척 걸어들어 오더구나. 걸어 들어와서는 절을 꾸벅 하그당, 그 강감찬이한테.

“너 이놈! 이 동네서 일 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주는데, 이 동네를 니가 이렇게 불안하게 하니까, 천애 목을 칠 놈이라고 이려. 당장 내가 목을 쳐 죽인다.”

고.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

고. 절을 하거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절을 하고 나가서,

“그럼 도루 가서 거기 섰어라!”

허니까 어척어척 허니깐 자리에 똑같이 섰더라. 그렇게 강감찬이가 요술이 좋은 사람이여.

3) 까마귀 소리 알아들은 강감찬

그래가지구선 인저, 강감찬이가 세월을 낳는데, 또 얼마만에 까마귀가 녹음이 우거지고 삼사월이 됐던가 봐. 그래가지구 인저 저기여 까마귀가

산에서 그냥 ‘까옥까옥’ 짓거덩. 아이 저기 강감찬이가 듣기에,

“저기 소머리가 있으니, 동네분들 갖다가 잡수슈, 그라는 소리라고. 동네분 갖다가 소머리 갖다가 잡수 먹으라.”

고 일러줬거던. 아 도둑놈이, 소를 훔쳐다 죽이구 소머릴 내버린 걸세. 아 그래, 인제 가지러 갔다가 붙들렸네. 그래 인제 원한테 가서 다 불었지 뭐여.

“강감찬이가 갖다 먹으래서 가질러 갔던 거라구. 우린 도둑놈이 아니라.”

구. 그래서 강감찬일 불러가지구서,

“너! 어떻게 까마귀가 짓는데 소머리가 있는 걸 아느냐?”고.

“전 잘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전 짐승의 소리를 잘 압니다.”

그랬거덩. 그랬더니,

“내일 다시 오라.”

이거여. 원님이 제비 새끼를 찾는데 도폭 속에다가, 살며시 대들보에서 끄내서 여기다 넣어요. 제비가 그냥 줄에 앉아서 안날라가고 비비대 거덩. 자거든.

“너! 제비가 뭐라는 소리냐?”

그러니깐,

“원님 소매에 내 새끼가 들었으니 내 주시오. 허는 소립니다.”

“오! 그러냐. 진짜 도둑놈이 아니로구나. 그래 도둑 앞에 잡혀온 사람을 델고 나가거라.”

쇠머리 가지러 온 사람이랑 다 풀어줬다 이거여. 그래가지구 인제 강감찬이가 조정에 들어가서 장군 벼슬을 하고, 강감찬 장군이 수원 요직여. 요기. 저 팔달산 올라가는데.

그 강감찬 장군이 천하명장이여. 짐성의 소릴 잘 알구 천기를 잘 봤

어. [조사자 : 짐승을 어마마로 뒤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여우. 그 여우한테 안나고 본부인한테 낳으면] 응? [조사자 : 본부인한테 낳으면 더 훌륭한 사람 됐겠네요?] 그렇지. 자가 샘이 나서 자가 큰 인물 하나 낳을려고 그랬지.

[고당리 설화 22] 고당리 2위

고당리, 강현모, 김귀영, 백종선, 정효선 조사
김동근(69, 남) 1995. 11. 11.

신라 초기의 박·석·김의 왕 계승

탈해왕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한 후에 경주김씨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중에 채록한 것이다. 이때는 늦은 점심 식사를 얻어 먹으면서 채록하였다.

육가야 알지. 육가야? 박씨시조 나온 건 알아? [조사자 : 박혁거세요?] 박혁거세가 초대왕 된건지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 박씨가 어떻게 나왔는지. ...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낳으면 저기 니 도지사마냥 저기가 나라를 다스리라 저기가 나라를 다스려라. 6형제간. 신라에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응, 군수같이 해 이렇게 먹은거지 뭐 그냥. 했는데 저기 육부춘장지?

경주에 지사를 지내러 가면은 박씨가 먼저 지내고, 첫째 왕이라고. 석씨가 2대왕이라고 해서 2번째, 김씨가 세번째 지내. 저기 육부춘장이 있었는데.

1) 박혁거세

하루는 그 앞에 우물이 있는데, 나귀가 그냥 엉엉 울거든. 그래가지고 서 가 보니까는.

“한 번 가 봐라.”

해보니깐,

“거기 둥그스름한 박이 하나 있는데, 나귀가 울고 있습니다.”

이거늘 그러거덩. 그래 인제 촌장이 가 봤지. 가보니깐 나귀는 간 곳이 없고, 저기여 박같은 향이 하나 있거든. 그걸 그 촌장이, 어느 촌장이 그걸 띠어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들었거든.

그래 옆덩이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다 목관(목욕)을 싹 시켰어요, 그 아기를. 그 우물이름을 뭐라고 이름 지었나 하면 나정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조사자 : 나귀에다 우물이라고?] 응. 나정 우물정자. 그래 나정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 그 우물을 잘 보호하고 애기를 떠다 먹이고 시키고 그랬어. 촌장이니까.

이놈의 애가 하나를 가리치면 열을 알아. 둘을 가리치면 내 스물을 알아. 그렇게 총명하거든 그냥.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쪼금쪼금 커서 장성하니까 천하인물이거든 그냥.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름을 참 빼먹었다. 이름을 뭐라 지었나 하면 동글다고, 둥근 박같이 생겼다고 박가고 혁거세라고. 혁여 혁거세로 이렇게 지었다고. 그래 인자 둥근 박에서 나온 혁거세라고. 박혁거세라고 지었는데, 그렇게 총명하고 잘 알아서, 자기 딸이 있는데 차차로 딸이 같이 크고 같이 배우고 지냈지. 총명하니까 글을 가리치고 그랬는데 보니까 참 인물이고. 그래서 사우를 삼았어요. 그 촌장이.

사우를 삼았는데, 인자 사우를 삼고서 장성하니까, 하루는 6부촌장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 좌석에서 그 촌장이 내기를,

“그 박혁거세가 이 신라의 침(처음) 인물이 크니까, 좀 6부촌장들이 저기를 해가지고 신라 초대왕을 삼았으면은 어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승낙을 해가지고 신라 초대왕으로다가 막후 교제로 촌장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됐다고. 신라의 초대왕이 되었다고.

2) 석탈해

추대를 받아가지고 촌장의 추대가 돼서. 그래서 촌장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 함이 중국에서 함이 내려와서, 그 함을 할머니가 건져가지고서 길르라고.

총명하니까 이 애를 그냥 오뚝하게 낳다 하니까, 박혁거세를(가) 불러서 보니까 참 천하의 인물이거든. 그래 또 사위를 삼았어 그냥. 자기 딸을. 딸을 사위로 삼아가지고 죽을 적에 뭐라고 에 유언을 했냐며는,

“우리 아들들보다 더 인물이 나은 사람을 왕을 세워라.”

그랬어. 그래서 직 그러니깐 처남벌이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보다 우득헤니깐 박혁거세로, 저 참석, 석씨를 왕으로 세웠다. 그 석씨 이름을 내가 봤는데 잊어버렸어.

3) 김알지

그래 왕으로 세워가지고 인자 몇 대를 내려가다. 석씨가 하다가 또 석씨가 보니까 학이 울거든, 서낭당에. 금빛같은 이낭매로 학이 울거든.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가서 어디 가보고 와라.” 하니까,

“금빛 무지개가 섰는데, 학이 내려와서 그 둥, 알같은 거 함을 하나 있고, 거기서 울고 품고 앉아서 읍니다.”

아니여. 학이 품고 앉아서. 그래서 이 가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학이 품고 있었거든, 함을. 둥근 함을. 그냥 인자 그걸 가져왔지. 갖다가서 띠어 보니까, 알이 들었은게 그게 아니고, 알이 아니고 사람 동자가 들어거든. 천하인물이 들었거든.

그냥, 아 인물을 그냥 길렀어요. 길러가지고서는 자기 그냥 또 사위를 삼았어. 그냥 총명해가지고서, 그래서 김알지가 임금을 또 물려준 거야.

그냥 인물 인물이 물려준거야.

그래가지고 김알지가 내려오면서 김가, 김가 많이 퍼진거지. 여왕, 뭐
현덕왕, 무슨 여왕 엄청 많지. 그리 있지 우리집 역사가 있어.

2. 문 촌 리

[마을개관]

문촌리,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1995. 6. 11. 11. 11.

문촌리는 원래 죽산군 원삼면에 속하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석화지를 합하여 용인군 원삼면 지역에 편입시켰다. 이곳에 면소재지인 고당리에서 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서쪽이 산으로 막혀 있어 교통이 불편한 곳이다. 이 문촌리는 크게 고려말에 시랑 벼슬을 한 문씨가 살았다는 문시랭이와 물이 돌아내려 간다고 해서 유래된 들고지(석화지)의 두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원삼면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용인이 원거리에 위치한데다 극동기상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어 건축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한 영향으로 다른 면들이 산업화, 도시화 되어가는 것과 달리 가축과 영농의 복합 영농형태를 나타내며, 더군다나 이 지역은 인구대비 경지 면적이 호당 평균 1.2ha로 군내에서 가장 높다.

[문촌리 제보자 1]

이규남(82, 남)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1995. 6. 11. 11. 11.

조사자들이 문촌리에 도착하여 이장택을 찾아가서 동네에서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을 찾자 제보자를 가르켜 주었다. 제보자는 이곳의 면장을 지낸 학식이 있는 분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찾아 갔다. 제보자는 택으로 찾아갔을 때 방안에 드러누워 계셨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이장님의 소개와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반가워 하시면서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외지에 나가 조금 살다가 마을에 돌아와 사는 제보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노동요를 알지 못한다며 노랫가락을 한 소절 불러주기도 하였다. 나이에 비하여 정정한 편이었고, 마을의 전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것임을 증명하듯이 말씀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 민요 2, 4.

[문촌리 제보자 2]

김옥래(83, 여)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1995. 11. 11.

조사자는 이규남할아버지 택에서 나와 이웃에 사는 제보자의 집을 찾아갔다. 제보자는 나이에 비하여 정정하게 보였으며, 말소리도 차분하게 구술하여 채록하기 편리하였다. 제보자가 구술한 이야기의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적인 것, 증명이 가능한 실제적인 것이나 직접 본 사실만을 이야기하려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제공자료 : 설화 2 ~ 3.

[문촌리 제보자 3]

서정현(72, 남)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1995. 11. 11.

김옥래할머니 집에서 나와 석화마을 길목에서 제보자를 만나게 되었다. 제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논리정연하게 구술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보자는 이야기를 연속으로 구술하였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용을 구분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자료를 분리 수록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그리고 발음도 정확하지 못하여 녹취하는 과정 역시 매우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제보자가 한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수록하지 못하여 이곳에서 전승되는 자료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노력하신 제보자에게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공자료 : 설화 4 ~ 13. 민요 1.

[문촌리 설화 1] 문촌리 1화

문촌리 덕 거실,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이규남(82, 남) 1995. 11. 11.

문촌리의 지명 유래

조사자는 이장님의 소개로 제보자를 찾아갔다. 이장님의 소개와 조사자의 목적을 들은 제보자는 반가이 맞아주면서 마을 유래를 자세하게 구술하여 주었다.

1) 돈곳을 잘못 지은 석화지

우리 동네 이름이 돌석자 꼬, 꽃화자 못지자 석화지여. 그런데 돌꼬지다. 잉 돌꼬지지. 우리 속칭으로는 돌꼬진데, 이 동네 이름을 질 때, 일제 때 말이지, 왜정 치하에 말이야 부락 이름을 잘못 지었어. 우떻게 잘못 지었냐 하믄는 그 돌꼬지라는 건 이 동네 이름하고 말이지 유래가 맞지가 않아.

근데 왜 그렇게 지었냐하믄, 으흠 에 왜정 때, 인제 그 일제 시대에 말이지 각 부락의 이름을 면에서 질 때, 인제 그 가령 이 동네가 돌꼬지 하믄, 그 돌꼬지의 유래를 알아 보고설라무네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그

걸 안알아 보고설라무네 그냥 면 책상 위에 앉아설라무네, 돌꼬지니까 돌석자하고 꽃화자하고 못지자를 써서설라무네 부락명을 만들었거덩?

근데 그걸 그 후에 이 동네에 오래 사시는 노인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동네 이름이 잘못 됐다.”

“원 이름은 뭐냐?”

하르네, 저 학일서 개울이 이 동네를 내려오다가 개울이 이렇게 돌았단 말이여. 그래서 돈 곳이여. 돈 곳. 돈 곳을 에, 돈 곳을 잘못 알고설라무네 돌꽃인지 알고설라무네 이름을 석화지라고 진거여.

그래서 지금 그걸 고쳐야 하는데, 그게 잘 안고쳐져. 수십 년 기냥 내려온 얘기라, 잉. 그래서 돈 곳이여. 돈 곳. 원이름은 응 돈 곳. [조사자 : 원래 이름은 돈곳이요?] 응, 돈 곳이여. 그걸 잘못 알고설라무네 돌꽃으로 돌꼬지로 지은거지.

2) 고초 마을의 유래

그라고 또 보르, 저 학일리 고초라는 곳이 있는데, 마를고자 풀초라. 왜 풀이 말렸느냐? 그 풀이 마른거 아냐? 마를고자 풀초자니까.

그 동네는 이, 저 병자호란때 에, 저 우리나라가 청국한테 기냥 저 그때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에 와설라무네 항복을 하고 그랄 때? 에 그때 기냥 그걸 반대한 사람이 삼학사여. 홍학사, 오학사. 근데 그 오학사 한 분이 만주로 끌려 가서,

“항복을 하라.”

고. 끝까지 이 낭반이 항복을 안했어. 그래 결국은 그렇게설라무네 매를 맞아 죽었는데, 그때 그 낭반이 돌아갈 때 이 고초골 동네 풀이 죄 말라 죽었어.

왜 그렇냐? 그 낭반이 여그서 낳디야. 고초골서. 출생을. 그래서 그 낭반 돌아갈 때 하도 그냥 원통하고 분해서 동네 풀이 죄 말라죽어 버렸

어. 그래서 마를고자 풀초자 고초란 동네를 진거지. 응.

3) 문촌 마을 유래

그라고 또 저 위, 저 위로 문촌리 문촌 부락인데, 글월문자 마을촌자. 우째서 문촌이나? 옛날에 말이지 문씨 중에서 에 신앙 벼슬을 한 사람이 벼슬을 내놓고 그 동네에 와서 살다가 돌아갔거덩? 그래서 문신이라.

그 이름이 그 벼슬 이름으로 문신이다. 문시랭이. 그 문씨가 살던 동네다, 그래서 문촌이라는 거지. 그런 유래가 있어. [조사자 : 그런 거 말고 다른 이야기 좀 또 해주세요.]

저 문촌 동네 가르는 그때 그 언젠가, [조사자 : 잘 대고 말씀해 주세요.] 내 그 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조 말엽에 대장 벼슬을 한 양반이야. 응? 그런 양반이 대장 벼슬은 하구선, 또 그만두고 나와서 여그서 여기 내려와서 살다가 돌아가셨거덩?

그래서 그 양반 산소도 있고. 그 양반 그때 그 뭐뭐한 그 비가 말이지 지금도 서 있어. 저기 유명한 비가. 응, 전주 이쨌데, 그래 그 자손들도 지금 저기 문시랭이. (이하 기록) 살고 있지.

[문촌리 설화 2] 문촌리 1완

문촌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김옥래(83, 여) 1995. 11. 11.

고된 시집살이

이규남할아버지 댁을 나와 이웃에 있는 제보자를 찾아갔다. 그곳에 들려 옛날에 들었거나 겪었던 이야기를 해달고 하자 해 주신 것으로, 사람은 위해줄 때에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삽화이다.

저기 저 시집을 이 동네, 그 동네로 와가지구서, 그냥 참 시어머니 시 아버지가 영남말을 썼어. 사투리를. [조사자 : 영사투리요? 아 영남 사투리요?] 응. 경상도 사투리.

그래 쓰고선 하는데, 이 여자가 참 배운 것도 많고 글도 많고 그런데, 기냥 시집살이가 너무너무, 참 저기 하니까 바보가 되더라구 나중에는. 하도 가지고 식구들이 그냥 욱뵤고 그냥 야단을 치니께,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요기 부엌 위에다가시리 벽을 뚫고서 등잔불을 요렇게 해놓고서는, 부엌에서 뭐 찌개 같은 거 해 놓은 것 맛도 보고 그러잖어? 그러믄, “그런 거 맛본다.”

고. 기냥 야단을 치고 그냥 욱박지르고 그냥 야단을 치니께, 나중에는 병신이 되가지고 기냥 머언니가 됐어. 그렇게 똑똑한 여자가. 머언니가 되가지고는, 그래 그 아들이 삼형젠가 그렇게 낳아가지고 살다가 시어머니 환갑날, 배는 고프고 한께 기냥 그 옷방에 가 앉았다가, 옷방에 아마 음식이 있었나 봐. 그러니께 그걸 집어먹고는 그냥 체해가지고 시어머니 환갑날 저녁에 죽었다구. 그래 가지고 살다가 그 남자도 죽었어. 근데 그 아들들은 시방 서울 가서 잘 된다나 봐. 그거여.

[문촌리 설화 3] 문촌리 19

문촌리 제보자대,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김옥래(83, 여) 1995. 11. 11.

불행한 인연

앞의 이야기와 같이 불행한 사건이란 점에서 생각이 난듯 구술하여 주었다.

열 몇 살 난 처녀하고 박첨지하고, 환진갑 지난 남자하고 그래 가지고

는 애를 낳아가지고서는 그 애를 안고, 그냥 순경이 기냥 머리 꼬맹이를 하고, 이라고 안고 맨날 용인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러더니만. 인저 그 애는 그냥 그 저기해서 어떻게 맥이지를 못하니께 그냥 죽었잖어.

죽고, 그 어머니는 저 광주 산골로다가 시집을 보내더니, 그이도 또 죽었어. 오래 못 살고. [조사자 :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환갑 지난 할아버지 하고. 어머!] 그렇지. 그러니까 저 옛날에는 들에, 다 어른들은 다 들에 가고 인제 처녀 혼자 인제 집에 있으니까, 고 이우제서 사는 박첨지가 요 마누라도 못 얻고 사는데, 동네 소임 노릇을 했어.

[조사자 : 소임요? 그게 뭐예요?] 응. 소임. 시방은 반장이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소임이라고 그랬어. 인제 구장 다음에 소임이라구. 시방은 저기 아녀, 이장 다음에 반장 그렇게 부르잖어. 근데 그 소임 노릇을 했는데. 그렇게 참 만날 먹구서 그냥 동네 일이나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이라다가, 인제 집에 들어가서, 바로 이웃지니께 절구질 하는 것도 거들쳐 주고 자주 이렇게 좋아 지냈단 말이여.

그래 가지고는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기냥 맥이질 잘 안하니께 기냥 죽었지 뭐야. 그래 갖구 그 영감도 죽구 그랬다구. 왜정 때 [조사자 : 그 여자 찾으려고요.] 그러. 그러가지고 나중에 찾아가지고서 애를 안냉겨서 그냥 데리구, 그냥 면으로 땡기구 그냥 용인으로 불러 땡기구 그랬지, 뭐야.

그라다가 그렇게 애도 죽구, 엄마도 그냥 딴 데로 시집 가가지곤 오래 못 살고 그냥 죽었어. 그것도. [조사자 :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 소임은 나이가 많으니까 썩 빼놓고, 그 옆에 총각이 사는데 그 사람을 그냥 넣으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그냥 끌어 넣는데, 그냥 그 사람을 불러가선 그냥 때려도 그냥 불질 앓고,

“나는 죽어도 그런 짓 안했다.”

고 해도. 그냥 들고. [조사자 : 아 박첨지 대신 그 남자를요?] 그래. 그래, 최서방, 최도령을. 그래서는 그냥 억울하게 그냥 을마 못살고 끝

골거리다가 죽었다구. 장가도 못들고. 그래 먼저 죽었어, 그 처녀보단 그랬다구.

[문촌리 설화 4] 문촌리 1화

문촌리 석화마을 길목,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서정현(72, 남) 1995. 11. 11.

개막장을 지낸 오씨 집안

새로운 제보자를 찾기 위하여 마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한쪽 길가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가장 먼저 이곳의 오씨들의 일화부터 구술하여 주었다.

전주 이씨가 요기 산을 보쇼. 인제 나하고 같이, 저기 높은 산이 있구. 요렇게 합해지지. 그래 요긴 집에 가려서 저게네?

그럼 저 이대장, 이대장이라고 인제 그러니까, 그분이 문관 벼실이지. 그러니까 지금 문관 정치도. 그 애 그렇게 하구, 그 이대장의 할아버지가 병조참의 지냈어요. 그러구 여그 전주 이씨가 말하자믄, 그렇게 될러믄 사패지지요. 왜 사패지 뭐냐? 하므는 내 벼실을 했으믄, 저 나를 상감께서,

“그 모를 저기 해라.”

그러믄. 한 골짜기 차지하는 거여. 이? 그래 예전에는 우뚝게 가만히 있어보니까, 산을 많이 차지하믄 모를 잘 쓰면, 왕 저,

“정승이 난다. 아 인물이 난다.”

그래서 차지하는 거여. 그게 엄청 많잖어 영? 저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 여그 저그 인자 밭이다던가 토지다던가 이렇게 갖구, 인자 여기 도여 임씨 저기 뭐야, 저기 벼슬 저 뭐야, 아냐 음 저기 선달, 선달 벼슬도

했, 여기 이 고을에는 전주이씨 다음에는, 선달 벼슬도 하고 그런 사람 밖에는 없어요. 인자 그렇게 됐대.

그러면 저 우리는 내가 갑자생인데, 그 후손으로 와설라무네, 에 한 개떡집이라고, 그 오씨네 개떡집이라고, 그 개떡집은 베실이여. [조사자 : 뭐요?] 어 개떡. 그런 거 부사 벼실이란 거지. 부사. 그러니까 그 부사 벼실 아드님이 개떡집이다. (개인 집안 내력이기 때문에 이후 생략)

[문촌리 설화 5] 문촌T 1앞

문촌리 석화마을 길목,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서정현(72, 남) 1995. 11. 11.

호환 당한 순흥 안씨

호랑이. 여기 뭐여 순흥 안씨라고 저기 고초골에 사는데.

가만 있어라. 그 분이 승자 환자가 승환이, 그 아버지 당숙이라나 봐. 당숙이 말치골 골짜기에 가서 담배를 따다가, 우뚱게 사람이 저 호명(호환)을 잤단 말이야.

호랭이. 영? 호명 잤다는게 뭐여? 호랭이가 그분을 저기했단 그런 전설이 또 나와 있지.

[문촌리 설화 6] 문촌T 1앞

문촌리 석화마을 길목,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서정현(72, 남) 1995. 11. 11.

문촌리의 일화들

앞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 문촌에서 일어난 일화들을 생각 나는대로 구술하여 주었다.

그라고 또 그라고 그 위에 여 고초골에, 이대장 스승님, 스승이 조판 사라고 저 함자는 모르는데, 조 그게 벼슬이 있어 삼십만 움만 가자 함 안 조씨에, 그래 스승이라고 있어. 그래, 저 그 뭐여. 저기 판사라고 판 사집 자손이라고 요그 있어요. 그래 이대장에 스승님이란 말씀이야. 응? 그래 갈켜서 그래 차마 한 자리 봐여 췌어. 고초골이라고 여기 해서는. 그래 몇 십만장이 될거유.

그렇지. 그리고 또 있지? 또 있지만 그게 다 우째 알건데. 저 그 후세 에 내려와설라무네, 그래 저 그러니까 아, 그저 그 후손 자손이, 요그 저 요, 산 보이잖아? 요거 요거. 여기가 집이 여 삭하나 퇴 달았었는데, 그것도 겁나게 바뀌어서 자손들이 좋지 않을 거 같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되박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노인들이 저 우떻게 되냐하든, 에 반상이라는 거는 뭐여, 쌍놈 양반을 따졌을 때,

“야 아무개야! 술 한 잔 먹자.”

그러면 여기 미륵대기 느티나무가 없어졌네. 여기 몇 백년 된건데 우떻게 그거 잘못됐지?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잘못된 거여. 그러면 여기 미륵대기가 있었어. 영? 그러면 저 그 누구 어머니가 거기 와서 이렇게 박흥제로 해는데, 아 만날 저 술 안되면 여기 양조장에서 한 말을 갖다 준 다음에,

“오늘 술을 잘 팔리게 합소서.”

하고. 거 참 천연적으로 그렇게, 참 누가 이렇게 저게 했어. 이렇게 두럭두럭 했는데, 거 미륵에다가 거기다 술 한 잔을 떠다 놓고, 상 바쳐서 인제 절을 하는 거여.(웃음)

그러면 또 개구장이가 있었어. 개구쟁이. 그 정저조라고 그 녀석이 아

주 개구쟁이야. 맨날 핵교 가자고.

“국민핵교 가자.”

고. 여기 국민핵교 온 사람이니까. 그 미룩에 돌을 이렇게, 거 상 받
쳐 놓은 납작한 데다 미룩 위에도다 없어놓네. 거 참 내.

“왜 그랬느냐?”

그러니,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이랬는데,

문시랭이가 어떻게 돼냐 하믄, 여기는 문촌 통틀어서 문촌리다. 지금
은 그러는데. 문시랭이 샘꼴 이편작은 샘꼴, 이 위 가편이 있잖아.

그런데 문시랭이가 원체나 문무왕 때에, 어떻게 되냐 하믄 그 문씨가
신앙 벼실을 했어요. 그러믄 저 전주이씨가 그 외가에 어떻게 되서, 그
지금은 잘못 된거지. 신앙벼슬은 그 저기로 받아가지고설라무네. 참 병
조참신하고 이대장이 나고 그랬는데, 문시랭이가 망했어.

그 영? 저기, 그 저기 그 상석. 상석 상석이란 말은 제사지내고, 지사
를 바치는 상석은, 그 상석은 벼슬의 직함 있어야 할 수 있는거라. 초자
성을 요렇게 여렇게(써 보임) 해 놓고 그랬지만, 그렇게 되서므네 그래,
그래서 문시랭이다. 또 그것도 알고 또 그러믄,(하하) 또 내가 기억이.

[문촌리 설화 7] 문촌리 1화

문촌리 석화마을 길목,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서정현(72, 남) 1995. 11. 11.

빌려온 곡식에 옮겨온 업

이곳 문촌리의 일화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구술한 것으로 업과 관련된 것이기에 따로
독립시켜 수록한 것이다.

음 민선달 가난하니까,

“저 아무개야!”

그래도 그거 저 직함이, 조그만 직함이라도 그래도, 어 지금 먼 저 좌수라든 그거 볼거 없는 거여. 지금 면장 벼슬 밖에 안되는 거.

그런데 그전에는 그 좌수 벼슬은 커요. 엄청 커요. 그래서 그렇고 그전에는 지금 군수, 경찰서장, 그런데 그 전엔 민법 사법 그것이 그 고을의 원이 다 취득해 가지고 했잖어. 어, 그렇지? 배웠을 꺼야. 그건 따로 없고 그 고을의 원이라든 어 죽이진 않았지만,

“이건 극형이다.”

해가지고 사법처리,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처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유래가 또 있는 거는, 그 임선달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직함을 벼슬을 가져야 직함이지. 그런데 가난하자 그래,

“애, 아무개야! 으 나네 아버가 아무데나 가설라무네, 그 종을 보내서 이니 그 벼 한 섬을 쫓아와라.”

그래 쫓아 왔는데, 아이 이 종놈이 이냥 죽을지경이여. 간신히 새,

“마님! 죽겠습니다.”

그래. 그래 헤쳐 보니까, 응 헤쳐보니까 아 그거 지금이나 그때나 잘 못된 거지. 맨 밑에 그냥 썩은 놈의 벼를 쫓단 말이여. 엉? 먹지도 못할 거를.

아 그래 임선달이, 인저 저 저기 종이 같이 와서 보니. 임선달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글로 보니까 구렁이가 앉았더라. 구렁이가 들어 앉았더라. 그러니까 업, 그 인업, 쪽재비업. 인업이 있어. 그래 들여다보니까 아 구렁이가 혀를 내들고 있어. 그런데 이 구렁이가 당신 눈에만 보여. 다른 사람은 구렁이 소리를 안하거든. 그러니까 업이 되지. 그러니까 그 조석을 꿰이면은,

“그래, 아 됐다.”

그래 조석을 꿰이면은 당신 눈에만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구렁이가

할작할작 훑으거든. 그 자리에서 받아 먹고 그런 거. 그런 전설이 그게 있구.

또 있지만 듣기 싫어할 거여. 여기 후손들이. 그러니까 임선달은 내 외가여. 영 저기 풍춘김씨. 이게 그리 아슈.

[문촌리 설화 8] 문촌리 1왕

문촌리 석화마을 길목,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서정현(72, 남) 1995. 11. 11.

숙종대왕 일화(민비와 장희빈)

인현왕후에 대한 이야기로 실제로 전하는 이야기와 제보자가 구술한 내용이 상반되어 있다.

저기 잉 숙종임금 때 어떻게 됐어요. 그거 하 공부들 했을텐데. 에? 그 숙종임금 때. [조사자 : 숙종 임금요? 글썸 기억이.] (웃음) 그 몰리믄 그 안뒤야

그 숙종임금 때 숙종임금 참 많이 이렇게 됐는데, 숙종임금 때 어찌든 민비. 에 그 여흥 민씨가 자꾸 양딸, 양딸을 내가 낳다고 해먹고 그랬는데, 그 숙종 임금이 보니까, 첫째 부인이 영특하고 착하고.

그런데 장희빈이, 장희빈 얘기 알죠. 그 장희빈은 어떻게 됐냐 하믄, 한 그 저기에 대감집의 종이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뇌가 영특하다니께, 그러니까,

“니가 궁녀로 들어가라. 그러믄 네가 후궁이 될 수 있다.”

그러믄 그거 한계가 있잖어. 그러니까 민중전 민비 그 사랑시럽고 영? 그 궁녀가 몇이여 한국에 그전에? [조사자 : 많지요?] 많기는, 150명이 있었어. 그런데 그 뭐 삼천 궁녀라 어찌다는 것은 중국 얘기구.

인자 그런데. 아 인자 그러믄, 그만 종으로 막 하늘과 땅 위의,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뚫고 올라갔으면 그 만족하지 뭐여. 아 그런데 숙종 임금께서 가만히 듣자니까, 대신들이,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그래서 대신들이 그런 겨. 그 예전에는 뭐여, 참쌀가루를 이렇게 해 구, 꿀을 버 버무려, 콩을 볶아서는 거기서 버무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 하믄 맛 있지. 찹쌀하니 맛 있어요.

그 이러니까 애덜더러 하나씩 주며,

“장다리는 한철이야.”

민가는 미, 민가는 미나리 아녀, 따지고 보믄. 장희빈은 장다리 아녀?

“동화 사철 장아리는, 미나리는 한철이면 장다리는 영 한 철이 아니다. 미나리는 사시사철.”

아 그러니까 그 숙종이 가만히,

“고놈들! 그 애들 노래도 거 이상하다. 하, 이거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이 저 월담을 했어. 흑이 그 저기가 보더라도,

“에이 이놈! 나한테 저기 니 목이 도망가지.”

그러니까, 그 어느 지방에,

“아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하, 이 숙종 임금이 상감마마께서, 그런 말귀도 못알아 들으시니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그래 하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요. 그래 밤이면 이 낭만이 가만히 담을 뛰어 넘어서, 그것도 또 들키면은,

“이놈! 이 나의 너의 목이 도망가!”

잉? 도망가지. 그래 가만히, 저 장유정, 저 잣나무골 거기를 가서,

“거기를 가자.”

그 이전엔 피 험한 산골이야. 그런데 이게 불이 번쩍번쩍 기운이 찾던 데 현단 말이야.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절을 하고 있드랴. 절을 허고 참

이렇게 참 사람을 모시고. 그래 물어 봤어. 알았어. 그 여잘 알은 거여.
알았어. 그래 놀래지. 그 하 그래.

“우째 오셨습니까?”

“아! 내가 여기 여 지나가는 객인데, 이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니까
내 들어온니라.”

고.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

고. 하 그러니까,

“아하, 그 무얼 하는 것이냐?”

영 상강대인만큼 이렇게 쫓겨나지. 그래서 드로 받았지 정성을.

“그래 고맙구나! 그거 참 고만 가룩한 일이라.”

그렇지. 그러구 알았어요. 그러나 저러나,

“저 저거, 그 나 여기서 좀 거처를 해야겠다.”

사실 요즘도 남녀의 여자의 뭐 거처하면, 할테이면 뭐가 있을 거 아
녀? 그때에,

“그러시지 마시고 어서 가십시오!”

“너 그런 말을 어디 있냐?”

“아! 상감마마인지 압니다.”

“그 알으믄, 저 너 무슨 일이냐?”

“만약에 상감마마께서 걱 집이서 저한테 거처를 하고 가믄은, 걱 목숨
은 영 걱 목숨은 살지 못합니다”

“그게 뭐시냐? 거 걱정 말고, 잉 나 하루 쉬어, 쉬어 가겠다.”

그래 거 태기가 있어가지고설라무네, 태기가 있어가지고 있네. 그래
장희빈은 후궁이여. 장희빈 아들이 10살인가, [조사자 : 거 알아요.] 거
공부들 했지?(조사자에게 물음) 아 후궁인데, 아 그래 그런데. 정선 그
저기기를 불러다가, 발 그냥 단지로다가 해서 뭐 말할 수가 없지. 어딘

가. 묻었어, 단지를. 그래 가만히 농사이니까 사람들 사이에. 낮은 사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야! 이 대궐은 무수리 없느냐?”

“아, 아무도 없습니다.”

근께, 우선 급하게 장희빈한테 쫓아간 거 아녀. 그렇게 배웠어?(조사자에게 물음) 가만히 가서,

“아! 상감께서 우째 이 평소에 저렇게도 찾으신데, 우째 어떤 일인가?”

아양을 떨 끌어꺼지.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떨었어.

그래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웃고름에, 웃고름에 여 머리보다 이 머리카락을 찢은 거 같이 거기가 피가 묻었거덩. 아 그런데 가만히 둘러 보니까 담뱃에 큰놈므게 그냥 꺼꾸로 이렇게 뒀을 거여. 아 그래,

“아, 왜 그냥 허구 많은 땅에, 왜 저기다 업어 놔느냐?”

“아 그것을 어찌구 저찌구!”

아 그 여우지 여우, 응. 그것도 또 오해하졌네. 여자가 그렇게 무서워. 좌우간 망해요. 그거 알아야 해요. 응? 이걸 배우든 잘 배우는 거여. 큰 물건 배우는 건데. 그래 그러니까,

“가서 제쳐라.”

빨간 몸땡이 다 죽어 있어. 그래 응급처치를 했잖아. 그래 장희빈이 사약을 내렸잖아? 응? 사약. 배웠을 거여. 아마 그것 짚은 알거여. 그러니까,

“내 죽어도 내 자식, 내가 난 자식 좀 저기 해 달라.”

불쌍하단 말이여. 이렇게 임종장 내에, 그때 저기 했으면 그러니, 사람이 인생이 그랬으면 그때 크게 될거여. 후궁일 때에 상감마마이 그 궁녀가, 궁녀가 150명인데, 이거 알아야 해요. 이거 얘기를 어떻게 들으면, 또 저기헌 것 같으면 3000궁녀는 것은 저 중국이 가진 거고, 한국은 150명. 이렇게 따지면 우째다가 상감께서 하루는 잠깐 저기 했다 하

문 후궁이 되고, 상감마마 덕에 후궁마마 되고, 중전마마 되서, 할머니
그게 그겁니다. 그거 알아야 혀.

[문촌리 설화 9] 문촌T 1왕

문촌리 석화마을 길목,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서정현(72, 남) 1995. 11. 11. :

제사에 허배하는 서출

문촌리의 일화 사이에 구술한 이야기이다.

문수봉이 저거, 저거 저 산이 문수봉이여. 문수봉 [조사자: 문수봉
요?] 응 문수봉. 문수봉. 여기 여 보이는데 매방재, 매방재라 그러구.
전설에 내려오는 얘기는 이렇하고.

어 이 고을에 예 그 옛날 얘기를 허문, 여기 이 대장, 이 대장의 서동
생,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의 우편 어머니냐? 축산부사 지냈는데, 그 전
에는 고 제사 참여 했는데,

“넌, 안된다. 서족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맞는 말이지. 한 발은 그러면 문지방에 들이고,
한 발은 내놓고: 내가, 허배라는 절하는 걸 갖다가, 제사 참여할 때는
허배라 그래요. 그런 인자 그런 얘기구.

[문촌리 설화 10] 문촌T 1왕

문촌리 석화마을 길목,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서정현(72, 남) 1995. 11. 11.

아기장사 전설

녹음기를 끄고 여러가지 간략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생각이 난듯 구술하여 주었다.

함자는 내 모르지. [조사자 : 그 사람의 이름요?] 에 그러는데,
“너, 서울 한양의 상감마마한테 이 일이 했는데, 저기 했으니깐 너 갔다 오너라.”

그래니까, 다음날 영, 영(이영)만 쥘거든. 이전에 집에 해이는 것 영만. 딱 이놈이 갔다 오더니,

“아, 저 왜, 대감마님! 지가 저 갔다 왔으니깐 보시오.”

그러는데, 어느저리 이리저리 갔다 와서, 이 이놈이 우찌 됐던가. 아 마 대감이,

“아! 큰일 났다.”

그러서는,

“저를 죽일라면 어, 겨드랑이 밑을 헤치고 보시오.”

날개가 있지 않아, 영.

“그 요기다 성냥불로다 그래야 지가 죽습니다.”

그래 신을 지내는 것, 그것 밖엔 몰라.

[문촌리 설화 11] 문촌리 1화

문촌리 석화마을 길목,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서정현(72, 남) 1995. 11. 11.

힘이 장사인 오근영

역시 이 마을의 일화를 구술하는 중, 이 마을 출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동생에 집이 불이 났는데, [조사자 : 오근영씨요?] 에. 오근영씨로. 뿌리근자 영할영자. 오근영씨가 그 동생네 집에 불이 났는데, 그쪽

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그래 거 명석을 거기다 이렇게 막 텀병 담아서, 일곱넛을 이냥 치트렸다.

“에, 이놈들아! 우리는 집 탄다.”

그런 저 얘기가 줄줄이 나오지 응 그래 인자. 그런데 아 그 천하장사지 뭐여. 아 우리네야 마른 짚도 지붕 꼭대기다 그냥 치트리기 힘든데, 그 낭반은 명석을 그냥 연못에다가 텀병, 그 한참 무거워. 명석 한이매에 반 동이 들어가요, 반 동. 그러믄 짚 한 동이 몇 개냐? 몇 단위냐 하믄, 시무 단위 되오.

그래 열단을 가지고 맨들으면은 물에다 텀벽 적시면은 열매나 무겁겠어? 또 그런 얘기 있구. [조사자 : 그 물에다 해가지구요?] 영. 그래 물에다 담어가지고 지붕에다 쳐들렸다 이겨여. [조사자 : 아 그래 불은 꺼졌어요?]

응. 그래가지고 불을 잡았다. 그 낭반이 없이는 불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전설에서. 그 분이 인자 목사 됐어.(주인공의 다른 일화는 생략)

[문촌리 설화 12] 문촌리 1화

문촌리 석화마을 길목,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서정현(72, 남) 1995. 11. 11.

왕씨가 조상인 전씨

제보자는 이 마을에 관한 이야기는 건전하고 쓸모있는 이야기로 여기고 민담은 시시한 이야기로 구분하였다. 조사자들이 시시한 이야기를 해달고 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시시한 얘기 해줘요.] 우떻게 그 시시한 얘기는 뭐 그냥 조상을 찾았다고 이 사람이, 에 사람이, [조사자 : 예? 뭐라고요?] 응?

조상이란 건 말이여, 그래 어머니 할아버진. 저기 가난하고 그랬었는데 불구하고 우뚱게 사람을 그냥, 예를 들어 사람을 워따 묻었던 말이여. 가족 공동 묘지에 묻었던 말이여. 그래 지가 그렇게 된 분을 찾아야 하잖어?

내 그런 얘기. 그 시시한 것 그런 거지 뭐. [조사자 : 아, 그런 얘기도, 끝을 내주셔야죠.] 응? 그렇게 했는데.

그 여기 무슨 전가니, 온전전자. 온전전(奎)자 전가는 저숙. 저기 그 왕가여. 그래, 저기 해서는 내쫓았는데, 그래 인자 갓을 썼어. 온전전자는 발전에 임금왕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기록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점찍고 임금왕자 아녀? 그러니까 [청취불능]

“너! [청취불능] 철관석 해라..”

그래 내가 발전자가이고. 온전전자는 우뚱게 되야하믄, 에 사람인 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전자가 된 거여. 그 얘기 밖에 더 있나.

[문촌리 민요 1] 문촌리 1악

문촌리 석화마을 길목, 박종수, 강현모, 정영희, 최정미 조사
서정현(72, 남) 1995. 11. 11.

노 동 요

[조사자 : 노래할 줄 아는 거 있으세요?] 나? [조사자 : 민요요] 여긴 그런 거 없지. [조사자 : 여긴 없어도 할아버지 하실 줄 아는 거요. 할아버지!]

아리랑~ 아리랑~

놀이엄쳐 시졌네야

[조사자 :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그거 좋은데요?] 좋아? 여기 경기도,

어허엄처 시것네~.
 두 마지기 한 달미가
 반달같이 남았구나.
 이 엄쳐시켰네야

여기 이렇지. 경기도는 [조사자 : 에이 끝까지 해 주셔야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는 그렇고. 뭐라고. 인자 여기는 조금 남았시믄.

에헤 어허야
 어화 등등 내사랑

뭐, 그렇게들 노래하지. [조사자 : 에이 끝까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할아버지 제대로 해주셔야죠?] 다.

어험 처지 겠녕야
 이히어 허야
 어험 처지졌네야

그렇지 뭐. [조사자 : 끝이에요?] 끝이지 뭐. [조사자 : 또 댜건 없으세요?]

어허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한 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만 남았구나
이히 어허야 어허
농부야 내말 들어라.

그러잖아. 끝이야 끝이지. [조사자 : 잘 하시네요. 또 딴 것도 많이 아
실것 같은데요?] 잘 허긴. 경기도는 거런게 아니고 양반 고을이라 가지고.

[문촌리 민요 2] 문촌리 3앞

문촌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경미, 유미소, 이미경, 임지현 조사
이규남(82, 남) · 1995. 6. 11.

모심기 노래

이곳의 면장을 지냈던 제보자의 집을 찾아갔다. 이장님의 소개로 찾아왔음을 말하며
노래를 해달라고 하자 농사를 짓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도 곡조는 알지
않느냐고 하자 한 소절을 불러 주었다.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문촌리 민요 3] 문촌리 3앞

문촌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경미, 유미소, 이미경, 임지현 조사
이규남 부인(?, 여) 1995. 6. 11.

자장가

자장가를 면장에게 불러 달라고 하자 모른다고 하여, 옆에 있던 제보자에게 요청하였다.

제보자는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노래는 무슨 노래냐고 하여 조사자가 노래를 불러 맞는가 하고 묻자 해 주셨다.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문촌리 민요 4] 문촌리 3악

문촌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경미, 유미소, 이미경, 임지현 조사
이규남(82, 남) 1995. 6. 11.

노랫가락

자장가를 마치고 면장에게 추수하는 노래를 물으니 모른다 하였다. 그래서 놀러 가서 재미있게 부르는 노래를 하나 해달라고 하자 곧바로 불러 주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일생일장 춘몽인데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3. 학 일 리

[마을 개관]

학일리, 박종수, 강현모, 최보인, 김윤희 조사
1995. 6. 10.

학일리는 양지군 목악면에 속하는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에 죽산군 원삼면 고초곡과 문촌리의 일부를 흡수하여 학일리라고 칭하여 용인군 원삼면에 편입되었다. 이 마을은 면소재에서 서쪽으로 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산으로 둘러싸여 교통이 불편한 곳이다. 학일이란 명칭은 학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란 설과 오달재가 탄생한 후에 학일(學日)로 불려졌다는 설이 있다.

이 마을은 55가구로 전원마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옛날부터 물에 대한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어 기우제 같은 민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8월 첫째주 토요일에 축구, 배구, 마라톤, 줄다리기 등 마을에서 대대적인 체육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외지로 나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행사이다. 이는 마을을 떠난 사람들에게 고향을 잊지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학일리 설화 1] 학일T 1와

학일리 잔치집, 박종수, 강현모, 최보인, 김윤희 조사
? (50대, 남) 1995. 6. 10.

오학사 일화(고초골의 유래)

동네에 도착하여 잔치집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여 그 집을 찾아갔다. 잔치집 마당에 남자 어른 6명과 뒤늦게 얘기를 데리고 온 할머니가 있었다. 모인 남자들의 연령은 대개 50대 어른들로 보였다.

그러나 저러나 오학사 임진왜란 때 말하자면 객지에서 살어오는데, 전쟁터에서 객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혼이라도 오랑캐 땅에 안 묻힌다고 그래가지고선 [청중 : 오학사는 그 말이 대답을 안허드라고.] 그래서 말이 오시니까 그야, 말이 오니까 그 말이 읊드라는 거여.

같은 학일린데, 여기를 학이리가 하는데, 학이리 학이리 이리는데, 그런데 학이리 고 자 이 양쪽으로 넘어가야 돼, 이 넘어가며 고촌골이라는 데 있거든, 고추골. 마르고 풀초잔데, 오학사가 돌아가신 바람에 3년 동안 풀이 나오지 않고 말라 죽었어. 그래서 고추골 말들을 마르고 풀추초 풀이 말렸다고 해서 고초골이라고 현대. 유래는 그것 밖에 없어요.

[학일리 설화 2] 학일T 2완

학일리 잔치집, 박종수, 강현모, 최보인, 김윤희 조사
? (50대, 남) 1995. 6. 10.

호랑이 보다 힘이 센 진씨

조사자는 이 마을에 도착하여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있다는 잔치집을 찾아갔다. 대개 50전후로 보이는 어른들이 있었다. 조사자는 민속을 중심으로 조사하던 차에 하루걸이인 며느리고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곳의 침을 잘 놓아주던 진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그중에서 제보자는 그가 힘이 센 장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상한 사람임을 주장하는 듯하였다.

그 양반이 말이여, 그 낭반 장수했디여. 북쪽 끝에서 이제 화전은 일

구는, 산에 가서 밭 일하는 것. 화전을 파는데, 호랑이가 내려 와서 개를 무는데. 호랑이가, 말은 그 양반이 그레데.

“호랑이가 힘을 쓰면 자기가 한 발자국 저기 쫓아가고, 자기가 잡아당기면 호랑이가 한 발자국 다시 오고 그랬다.”

고. 그래서 개가, 저 호랑이가 개를 결국 못잡아, 못끌어가고 놓고 그냥 도망갔다 그런 얘기가. 그렇게 아주 서글서글하고 아주 장사여, 장사.

[학일리 설화 3] 학일리 2면

학일리 잔치집, 박종수, 강현모, 최보인, 김윤희 조사
용식 어머니(70대, 여) 1995. 6. 10.

이들을 얻은 늦수저의 태몽

잔치에 필요한 물건 만드는 것을 도와 주면서 이야기를 채록하였다. 그런데 제보자는 태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다른 일을 하다가 마이크 앞으로 와서 재미있게 구술하였다.

[조사자 : 태몽 얘기 해 주세요?] 내가 지금 큰애가 마흔 여덟이여, 마흔 여덟인데 친정 쪽으로 가니께, [청중 : 마흔 여덟여.] (나이의 설명은 생략.)

우리 친정이 그렇게 앞에 개울이고, 예전에는 막대기 척척 걸쳐놓고 그렇게 다리를 놔걸랑. [청중 : 광천?] 응. 다리를 그렇게 놓았어. 이전에는 막대기 척척 걸쳐놓고.

아 그러길래, 고 밑에 가서 요렇게 그릇을 쓸러고, 물을 요록해 요록해 깨끗하게 헤니까, 손가락이 네모 반듯한게 네 개가 나와. [청중 : 어머니! 뽕 빠졌지.] 응. 손가락이 그 예전 늦순갈. 번쩍번쩍한 게 네 개가 나온단 말이여. 그러길래,

“엄니 엄마! 왜 젓갈, 숟가락을 갖다가 내버리셨어.”

그러구 집으로 가지고 갔는데, 첫번째 시집와서 그게 앤지 뭔지 누가 알
어. [청중 : 처음에야 모르지.] 9월에 시집 왔는데, 개가 3월 초승에 있어
가지고 선달 초승에 낳는데. 미경애비를. [청중 : 꿈을 잘 꾸셨네.] 그러
니까 사내가 생긴거여. 내의 아들 넷이 생긴거여. [조사자 : 숟가락 꿈
요?] 응. 숟가락을 그렇게 넷을 주었는데, 네모 반듯하게 사내 녀석 넷이.
[조사자 : 아들난 넷이요?] 응

[학일리 민요 1] 학일T 1악

학일리 잔치집, 박종수, 강현모, 최보인, 김윤희 조사
할머니(77, 여) 1995. 6. 10.

새로운 희망의 세상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노래를 한 마디 해달라고 하자 해 주셨다. 할머니의
아들 내외는 직장애 다니고 있기 때문에 4-5살 된 손자를 데리고 오셨다가 노래를 한 것
이다.

[조사자: 할머니 노래 좀 해 주세요. 발일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어 둥둥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기린 나라 세상이

만사가 또 다시 꿈같꾸려.

4. 독 성 리

[마을개관]

독성리,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1995. 11. 11.

독성리는 면 소재지인 고당리에서 약 1km정도 남쪽에 인접한 마을이다. 이곳은 원래 죽산군 원삼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독촌리 양광리의 일부와 양지군 목악면 성리를 합하여 독성이라고 칭하고 용인군 원삼면에 편입하였다. 마을은 독촌(웃절이, 옛절이) 잣말의 성리, 양광주 문혔다는 야광 등 3개의 마을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용인에서 고당리를 걸쳐 백암에 이르는 지방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며, 마을은 건물이 도시화되어 있고, 내부의 물건도 도시와 같은 가전제품과 입식 부업으로 별다른 문화시설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한편 아래 수록한 설화 중에 14번의 설화는 녹음 상태의 불량으로 완전하게 채록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독성리 제보자 1]

한봉수(71, 남)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1995. 11. 11.

이곳이 고향인 제보자는 현재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이 노인정에 나오는 것으로 소일하였다.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습합되어 있어, 끝부분이 분명하지 못하였다. 제보자는 발음도 부정확 하였다. 조사자들이 노인정에 들어갔을 때는 노인분들이 화투놀이에 정신이 쏠려 있어 쳐다보지도 않았다.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해 줄 것을 간청하자 '할 이야기가 진짜로 없다' 고도 하였다. 조사자들이 계속 간청하자 그냥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내가 해 줄까?' 하며 꺼낸 이야기이다.

제공자료 : 설화 1 ~ 2.

[독성리 제보자 2]

윤충구(29, 남)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1995. 11. 11.

건설업을 하고 있는 제보자는 집안이 오랫동안 이곳 독성리에서 살았으며 동네에 얽힌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조사자 일행이 독성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용인읍으로 돌아오기 위해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보자의 차였다. 제보자는 용인터미널까지 가는 도중 뿐만 아니라, 용인읍에 도착하여 자신의 사무실에 가서도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매우 깊었으며, 주로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제공설화 : 설화 3 ~ 12.

[독성리 설화 1] 독성T 1앞

독성리 노인정,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한봉수(71, 남) 1995. 11. 11.

적덕한 셋째 딸

조사자들이 노인정에 들어갔을 때는 노인분들이 화투놀이로 정신이 쏠려 있어 쳐다보지도 않았다.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해 줄 것을 간청하자 '할 이야기가 진짜로 없다' 고도 하였다. 조사자들이 계속 간청하자 그냥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내가 해 줄까?' 하며 꺼낸 이야기이다.

옛날에 에 한 정승이 있었어. 이정승. 이정승이 딸을 삼형제를 뒀어. [조사자 : 예?] 딸을 삼형제를 뒀어. 아들은, [조사자 : 딸을, 딸을 삼형제를 뒀다고요?] 아들은 윽고 딸만 삼 형제를 뒀어. 그런데 시골에 한 총각이, 에 거기 가정을 얼마 지고서니 정처없이 떠난거여. 떠나다 보니까 참 거길, 이 정승네 집을 가게 땀어. 거기 가서 인자,

“하루 저녁 쫌 묵어 갑시다?”

이러니까. 아,

“안된다.”

고 그려. 아 또 인저 저 한, 둘째 딸한테 얘기하니까 거기도 안된다고 그라고, 그 시째 딸한테 그 얘기,

“이자, 하루 저녁쫌 자고 가자.”

고. 그라고 하니까.

“아! 들어오라.”

고 그러드래. 들어가서 인자 이튿날, 하, 거기서 자고, 거 이튿날. 옛날로 말하면 저 띠꺼머리 총각인데. 머리 길르고 그러는디. 아 아침에 세수를 하고 인자 그 있으니까, 아주 옷을 인자 그걸, 그지 옷을 죄 벗겨놓고 옷을 잘 입히더래. 그 잘 입히고 머리도 빗겨주고 이제, 이제 그래 했는데, 그 인자 뭐라고 했는가 허면.

“에 너, 너는 우리 집에서는 에 하인으로 있어라.”

그 이름을 마당쇠로 지었어. 그 만날 먹으면 먹고 그냥 마당이나 썰고 이제 그래는거지 뭐.

근데 한날, 저 저녁에 자니께시리 그런 그냥 난데없는 이제 참 희오리 바람이 '휘이' 불더니, 이제 와서 투덜대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총각네 집에서 학, 학이, 학을 막이던지 학이 거길 날라 왔어. [조사자 : 아, 학, 기르던 학이 왔다구요?]

영. 어, 그니까 참 보니까. 그 저 즈그 집에서 막이던 학이 왔는데, 이제 다리를 보니까 뭘 땡기를 움매았거든. 이제 클러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 썼는데, 에 그래 에 써어 그렇게 했는데,

“아무데, 아무데 와 잘 있다.”

고. 이렇게 또 써서 다리다 땡기해서 보냈지. 응? 보내고 나서 이제 마당이나 쓸고 인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 하루는 그 총각이 참 과거를 보러 가는 거야. 과거를 보러가는 건데, 참 아 기냥 뭐 저 인제 그래 말이 오고, 말이 오고 이제 허는데. 말을 타고 과거를 보러 가는데. 아 인자 그 뭐 말타고 이자 앞에서 우뚝 서고 가니까, 아 이자 나중에 보다보다 안 안보이니까, 지붕 올라와서 이제 올라가 보고 그랬데.

[조사자 : 예, 누가요?] 응? 아가씨들이. 거 아가씨들이 인제 재우고 머리 빗겨 주고 이랬으면은, 나갔을 때 인제 정이 들었을 테니까. 그 막내 딸이, 인제 막내 딸이 그 아부, 그 결혼을 했거든. 결혼을 해가지고, (웃음) [청중 : 저거 녹음을 해요. 녹음.] [조사자 : 예. 근데요?] 어찌 됐건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잘 살았대.(일동 웃음)

[조사자 : 할아버지 얘기 중간에 똑 잘라 먹으셨죠?] [청중 : 잘 살아야지.] (이야기에 대한 제보자, 조사자, 청중 사이의 대화를 생략)

[조사자 : 예? 끝이라고요?] 응. 끝이야.

독성리 노인정,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한봉수(71, 남) 1995. 11. 11.

아들의 죽을 운수를 넘겨준 스님

전 이야기를 제대로 끝맺지 못해 또다시 간청하자, '모른다고, 정말 없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다.

아들을 외아들을 뒀어. 김정승이 외아들을 뒀는데, [청중 : 소설 얘기여.]

좀 한날 대사가 와서 좀 뛰더, 팽과리를 뛰더거리고 인제 이려고 있는데, 그 김정승의 아들이 참 가지고 나갔다고. 거 이렇게 보고,

“저 애는 아무 날 아무 시면은 죽는다.”

이래거든. [조사자 :네?] 아무날 아무시면 죽는다. [조사자 : 예. 아무 날 아무 시. 예.] 대사가 인제 보고, ‘아무 날 아무 시면 죽는다.’ 이러니, 아 그러 이 애가 죽는다네니까 참 부자집 외아들이 참 구엽계 길르고 그러는데, 죽는다니깐 이 애가 울고 들어가거든. 그 이제 울고 들어간게 그 저 김정승이 있다가,

“너 어찌, 왜 우느냐?”

그러니까,

“아, 아무 날 아무 시면 죽는데요?”

“아! 그러. 아 애들아!”

이제 불르거든. 종을 불르는 거야.

“거 어디 대사를 가 좀 잡아 오너라!”

그래 종들을 시켰더니, 종들이 인제 저 둥구 밖에 나섰어. 대사를 잡으러 아 가니까 참 대사가 가거든. 그래 가서 붙잡어 가지구.

“저 잡시다.”

“어딜 가냐?”고.

“아! 김정승이 오라는데.”

“그래 가자.”

고. 그래 가서,

“당신! 그래 대사요?”

“그래, 대사라.” 고.

“그러면 죽는 날을 알고 사는 날은 몰르요?”

이러니까.

“애를 살리킬러든 나를 따라 보내야 산다.”

이거야. 그러니 이거 참 구엽계 길르게, 길른 아들을 내 보낼 수도 없고. 안내보내래니 아들이 죽을테고. 아 그러니까 참 그 좋은 옷을 기냥 칭칭이로, 여름 사철 입는 칭칭이를 저 내년에 입히고 후년에 입고 그러르면 커면 넉넉히 해서, 그 많이 해서 보따리에 싸서 지워서 대사를 딸려 보내는 거야. 그 대사가 인자 데리고 인자 가는 거지. 가다가 어느 고개를 참 넘어서 보니까, 그 아래께 반듯르로 하니 기와집이 늘비하게 있거든. 그,

“너는 인제 너 갈 데로 가거라.”

그 거기에 인자, 그 고개에서 인제 데리고 참 잠이 깜박 들었어. 거 애가. 인제 고단하고 따라 가다 고단하고 잠이 깜박 들었는데, 아 보니까 호랭이가 덤벼 들거든. 아 그 깨보니까 꿈이여. 그니까 이제 꿈을 깨니까,

“너는 너 갈 데로 가거라. 넌 살 고비를 넘겼으니께 너 갈 데로 가거라.”

그런데 이 애가 쪽 내려가더니, 기와집이 인자 제일 북판에, 제일 북판에 인제 큰, 큰 기와집을 찾아 들어간거여. 거기 찾아 들어가서,

“해는 넘어가고, 해는 일모한테, 참 이렇게 인간처를 찾아왔으니, 하루 저녁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 들어오리라.”

해서 들어갔어. 그래 들어가서 참 밥을 잘 차려다 주어서 잘 먹고, 그

리고서는 인자 있다가서 이렇게 저렇게 자는 거여. 자구설랑은 그 이튿날,
“인제, 가겠습니다.”

이러거든. 그래 고기서 그 전대, 그 인자 보따리를 질머지고 또 가는
거지. 또 가다가서 또 날이 저물어서 또 어디를 가선 고개를 또 넘어갔
어. 고개를 넘어가서 보니까, 날이 저문데 불이 반짝반짝 허는데,

“아하, 저기가 동네로구나. 거기나 찾아가 보자.”

아 가보니까 외딴집이여. 외딴집이 있는데, 거기서 불이 반짝반짝 났
거든. 그래서 인간을 거쳐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 들어가서 참, 주인
을 찾았지.

“주인 양반아! 주인 양반아!”

찾으니까, 이영 대답이 없어.

“하이 이상하다고. 불이 켜져 있는데, 이 사람은 없으니 이것 참 이상
하다구.”

또 불렀지. 또 불르니까.

“누구시오?”

이러거든. 그래 들어가 보니까, 겁이 없이 참 떡꺼머리 총각이 있드래
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있소.”

그러니까,

“나도 정처없이 맏기는 사람이오.”

그래 돈호행수 헐다 말이여. 돈호행수를 해가지고설라무니, 그 둘이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자고서는 인제 둘이 그래 돌아맏긴다 말이여. 둘이
돌아맏기다가 아 어떻게 그 중을 만나가지고 중이 또 업고 갔네. 업고설
랑은 도망질을 또 치는 거야.(웃음) [청중 : 그것 방송하는 건데.] [조
사자 : 중이 또 업고 갔다고요?] 업고 갔어. 또. [조사자 : 누구, 누구
를요?] [청중 : 그 어린애를.] [조사자 : 누구를, 누구를 업고 가요?]

그게 전부 그것말 이라니까. [조사자 : 네?] 그것말. 그것말.(웃음)

[독성리 설화 3] 특성T 1와

독성리,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윤충구(29, 남) 1995. 11. 11.

절터와 탁발승의 능력(지명 유래)

건설업을 하고 있는 제보자는 집안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았으며 동네에 얽힌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일행은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얻어 탄 차로 용인 터미널에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채록한 이야기이다. 제보자는 주로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용인 지역의 금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산 정상봉에 지금도 돌아, 널따란 바위가 있고 바위에 돌이 이렇게 순(선)게 있어요. 가 보면 이렇게. [조사자 : 직각으로요?] 예, 돌이 방석처럼 있고, 그 위에 병풍처럼 돌이 하나 또 서 있다 이거야. 바위가 딱 꺾인게.

거기에 옛날에 절이 있었어요. 거 스님이, [청중 : 거기 이름이 절터야 절터.] 절터였어. 거기 이름은 모르겠고. [조사자 : 거기에 얽힌 얘기 없어요?] 얽힌 얘기를 허는 거예요, 지금. 탁발승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주를 나가는 승을 탁발승이라고 하는데, 탁발승이 그 건너편에 가면 꼬치골이라는 동네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오면 뽕 사암리라는 동네, [청중 : 안골, 안골.] 안골이라는 동네. [청중 : 왜 안골이나? 골짜기 안에 있는 동네라고 해서 옛날 사람이 안골이라고 지었대.] 원래 이 동네 이름이 사암리 안골이라는 데고, 사암리래는게 모래사자에 바위암자, 사암리.

그리고 고 또 고개 넘어오면서 좌측에 안골. 우측에 용암 그 바깥에 가, 용담이라는 저수지 있는 동네가 용담인데, 용담이라는 동네가 용이

바위를 뚫고 나가면서 그림이 있다 해서 용암. 용담이라는 옛 선조들이, '언제가 후대들이 이 동네에 못이 생길 거다. 못답자, 못이 연못이 생길 것이다.' 해서 용담. [청중 : 아까 보셨지요?]

탁발승이 고초골이라는 동네로 넘어가면은, 그 해에는 안골이라는 사암리쪽에 흥년이 졌고, 탁발승이 다시 사암리라는 동네로 오면은 고초골이라는 동네가 흥년 지고. [조사자 : 아 그럼 탁발승이 오면 풍년인 거예요?] 오케이.(이야기와 상관없는 대화 생략) 그러다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게 한 여인네가 그 절터에 가서 강간을 당한 데가, 어 그 일본군사를 죽이고 자살을 했데요. 그 터에서.

그 옷물이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그 해부터 빈대라는게 많이, 빈대 아십니까? [조사자 : 예, 빈대.] 쪼끄만한 것. 빈대가 무성하게 생기는 바람에 그 절이 흥, 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터만 있다구요.

[독성리 설화 4] 독성T 1화

독성리: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윤충구(29, 남) 1995. 11. 11.

호랑이 물리친 사람

용인 터미널로 오는 차 안에서 앞 이야기에 이어 계속한 이야기이다. 제보자는 할 이야기가 무척 많으며 아무 것이나 해 주겠다고 하였다.

예전 우리 할아버님 외가가 바로 이 동네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기 동네를 저 꽃가마를 타고 넘어가셨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이전에 여기서 살으셨어요.(이야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야기 생략)

우리 할아버님, 이 에 외할아, 외증조부께서 용인 김양장, 김양장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김양장에서 물건을 사시고 오실 때 호랑이가 뒤를 따

라 오더라 이거야.

호랑이가 뒤를 따라 오는데, 걸어 가시다 획 돌아서면 호랑이가 딱 멈추고. 또 따라오고 멈추고. 무서워서 갖고, 옛날 곰방대에 담배를 딱 담뱃불을 계속 물고 가셨데요. 그 담배를. 그 옛날 담배 얼마나 독해요?

그 주머니에 곰방 담배를 곰방대에 다 피우고 나서 안되갖고, 고기 물이 졸, 여기 길을 가시다가 모래가 있는데 가서 모래를 뒤로 막 끼었으니까, 호랑이가 뒷발로 같이 끼었으드래는 거야.(웃음) 기 모르지. 그 밑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 진짜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은 얘기 하는거니까.

뭐- 하다 하다 지루했는데, 물소리가 '줄줄줄' 나드래는 거야. 물소리가 나면 그건 새벽이 다가오는 거야. 한밤중엔 물도 잠을 잡니다. (청중 : 절대 물소리가 안나요, 한밤중에는.) 안 믿기시죠? 시골서 안 자라서.(개인적 이야기 생략) 그 그러다가 시냇물 줄줄 흐르니까, 인제 할아버님이 지칠대로 지친 거지. 새벽부터 싸우실 때,

“에이! 포기하고 잡아 먹을려면 잡아 먹어라!”

해서 딱 앓아 계시는데, 물소리가 줄줄 나갈래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가 가고 없더라고. 옛날 우리나라 호랑이들은 그렇게 현명했고,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 이거야.

[독성리 설화 5] 특색T 1완

독성리,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윤충구(29, 남) 1995. 11. 11.

여우를 물리친 할머니

용인터미널로 오는 차 안에서 앞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한 것이다. 조사자는 제보자가 많은 이야기를 해 주는 덕분에 무척이나 즐거웠다.

아! 마궁골이러는데 마궁골. [조사자 : 마궁골요?] 저수지 있는 동네에서 맞은 편에 있는 동네가 마궁골이라는 덴데, 마궁골 애길 해주께 하나.

우리 동네 할머니, 지금도 옛날에 전화기 처음 들어와서,

“여보시유! 파출소 대 줘유.”

그러던 시절.(일동 웃음) 그때 그 할머니가 수화기 줄이 이렇게 밑에 있었을 때, 전화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전화줄이 위에 달렸고.(수화기를 거꾸로 들고 시늉함.)

“여보쇼! 여보쇼!”

하니 들리나? 수화기를 틀리게 들고 있으니. 그랬던 할머니가 마궁골에서 당한 일. 그 할머니가 당했던 일. 마궁골에다. [청중 : 아니 귀신 얘기도 해줘.] 아 귀신 얘기.

마궁골에 할머니가 나무를 허러 가셨는데, 아 저기 나물을 캐러 가셨는데 해가 뉘엿뉘엿지더니 껌뻌 어두워져 버린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야 겠는데, 여우가 나타난 거라.

여우란 사람을 팔딱팔딱팔딱 뛰어넘어서 어지럽게 한 다음에, 쓰러지면 그때 가서 간을 꺼내 먹는다는 게 이 여우의 수법이라 이거야. 여우가 팔딱팔딱 두 번인가를 뛰어넘기에, 할머니가 겁시 나서, 그 때는 여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 위에다 나무때기를 하나 탁 이렇게 걸 치잖아.

더 키가 크잖아. 갑자기 커져 버렸잖아. 걸리다(그곳에) 배 찢어질까 봐 못뛰어넘는 데는 거야, 여우가.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도망을 왔다는 거야.

[독성리 설화 6] 독성리 1화

독성리,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윤충구(29. 남) 1995. 11. 11.

잡아먹으면 해로운 짐승

용인 터미널로 오는 차안에서 앞 이야기에 이어 계속 진행된 것이다.

예전부터 시골에는 날짐승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노루나 이런 영특한 동물을 잡아먹게 되면 병에 걸린다는 거야. 사람이.

그 우리 동네 한 분이, 산에서 노루도 잡아 잡수고 토끼도 잡아 잡수고 그랬던 분이 병을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르신들 왈, “날짐승을 많이 잡아 먹어서 그랬다.”

[독성리 설화 7] 독성T 1완

독성리,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윤충구(29, 남) 1995. 11. 11.

귀신을 이긴 여자

용인 터미널까지 얻어 탄 차안에서 계속 진행된 것이다. 제보자는 이야기는 많이 남아 있는데 용인 터미널에 다와서 걱정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팀은 제보자의 사무실에서 계속 채록하기로 하였다.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에(조사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분 생략) 저기 우리 동네, 거 지금, 예전에 거 지금 밤동산이라는 동네에 그 저기가 있었어요. [청중 : 문담역이.] 문담역이.

밤동산이란 데에, 거 묘자리를 예전에 6·25 당시 매입시켜 놓고, 어떤 비바람에 의해서 묘자리가 깎이지 않은 상태에서, 불도저를 미는데 관짝이 밀렸던 데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집을 앉혀서 집을 지었던 말이에요. 별장을.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아줌마가, 그 집을 지키는 과수원을 관리하는

아줌마가 잠을 자는데 꿈에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애야! 가자.”

그러드래는 거야.

“어딜 갑니까?”

이래니까.

“같이 가 보면 안다.”

그러길래. 이 아줌마가 욕설을 하면서,

“내가 어딜 가느냐? 내 자식을 놓고 못 간다.”

해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면서 깨고. 그 다음날 왔는데 또 그런 꿈을 꾸는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더 심하게 반항을 했 거예요. 그리고 낮는데, 또 그러고 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머리맡에다 부엌칼을 놓고 잔 거야. 그래 또 꿈을 또 꾸는거야. 이 아줌마가 꿈에서도 부엌칼을 들고 막 그냥 발광을 한거지. 그랬더니 그 귀신, 귀신이지? 한 마디로 뭐 죽음의 사자.

“독한 년!”

딱 그 한 마디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 후로 그 아줌마 그 다음날로 이사 왔어. 안골로 이사 왔어, 안골로. 그런데 열심히 살어, 그 아주머니가.

[독성리 설화 8] 독성T 1완

독성리,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윤충구(29, 남) 1995. 11. 11.

저승사자 물리치고 살아난 여인

용인터미널까지 얻어타고 오는 차 안에서 계속 이어진 이야기이다. 이는 앞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라며 재미있게 구술하였다.

우리 동네 할머니가, 우리 동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이 막 해다보든, 집안내 자식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이제 돌아가시는가 싶으면 와서 밤에 기다리면, 또 일어나시고 또 그래다 또 일어나시고. 근데 그 할머니 왈,
“밤에 자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 자식들이 인제 그 임종을 뵈려고 와 있잖아요? 할머니가 막 몸을 이래서, 막 마을로까지 뛰어나와서 버리고 막 뿌리치고 들어가면 낮고. 또 그래고 낮고 그러드라 이거여.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쭙보니까. 꿈에 사자가 나타난거요. [조사자 : 저승사자요?] 예.
“자기를 쇠사슬로 칭칭, 자기 몸을 묶더라 이거야. 자기는 죽을 때가 아니다.”

반항을 해서, 쇠사슬을 풀어서 바깥에 나와서 버리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일어나셨다 돌아가, 돌아가실려다 일어나셨다.

[독성리 설화 9] 독성T 1뒤

독성리,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윤충구(29, 남) 1995. 11. 11.

관 잘못 다뤄 화를 입은 사람

용인터미널까지 얻어타고 오는 차 안에서 계속 이어진 이야기이다. 이는 앞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이며 자신의 집안 내력에 관련된 이야기라며 재미있게 구술하였다.

(제보자의 집안 내력 부분은 생략) 장례를 치를 때 하관식과 퇴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설명을 해 줄게.

하관은 그 송장과 같이 관을 하고 와서 땅 속에 묻는 걸 하관식이라고, 퇴관식은 송장만 곧두로 묻고 관은 그 자리에서 소각을 시켜버리는

게 퇴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윤씨 가문은 전통적으로 퇴관을 하기로 했고,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하관과 퇴관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그 고증조부 되시는 할아버님이 그 글방 선생, 서당 선생님이셨는데, 아 저희 집안이 원래 그 부호,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다 보니까 그 오동나무 관이 무척 두꺼운, (이게 녹음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척 두꺼운 오동나무 관을 쓰셨었는데, 그 관 아까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관식을 해버린거야.

그럼, 이후에 이 집안을 장손이 죽는데, 장손이, 그 장손이, 장손의 장손이 연령이 어느 정도 되면은 말이지,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바로 저흐 할아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손이 화장실 갔다오시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돌아가신 후에, 그 아버님이 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다가 삼호(삼우)제, 삼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이후 5일 안에 다시 한 번 제사를 지내는게 삼호제라는 거예요. 삼호제를 치루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조사자 : 어떻게?] 우리 아버님이 화장실 갔다 오셔갖고 간경화로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안돌아가시고 투병하시다가근데 그 때만 해도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도 굉장히 건강이 많이 되찾으셨고, 간경화는 이렇게 배가 나오거든. 근데 물이 다 빠지셨고 배가 복작거러셨고, 건강을 거의 되찾으신 상황인데 화장실 갔다오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집안의 내력이지 않나. [청중 : 그러니까 옛 것을 저버리고 현대 것만 바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찬물을 끼얹은 그런 얘기로, 이게.]

[독성리 설화 10] 독성T 1뒤

독성리,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윤종구(29. 남) 1995. 11. 11.

용인지역의 6대 명당자리

조사자 일행은 용인터미널까지 얻어탄 차를 타고 제보자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계속 이야기를 채록하였다. 이는 <생거진천 사거용인> 이야기의 앞부분을 간략하게 하다가 이 지역의 명당에 관한 이야기라며 재미있게 구술하였다.

용인에 6대 명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당이 6대 명당이 있는데, 지금 원삼이라는 그 넘어오는 그 너머에, 오기 전에 양지 골프장이 있고 양지 스키장 있는 산등성이 넘어서 원삼 땅이 있어요. 명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정동성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체육부 장관하시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나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장관하시고 그랬는데. 그 분이 원래 태생이 원삼이셨고, 3살 때까지 원삼 사시다 이천으로 이사가서 여기 용인 이천 여주 이쪽 지구당으로 하나로 묶였을 때 국회의원을 하시던 분인데, 그 양반 선조 묘가 있어요.

그 용인에 그 유명하다는 지판이, 어렵게 어렵게 여동. 그 지도 뭐예요? 난 고등학교 밖에 못나와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동 여지돈가, 무슨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지? 거기 일부되는 그 명당 자리를 표시한, 표기 해논 그 지도를 어렵시레 구입, 구입을 해서 집에 가서 공부를 해서, 6대 명당 자리를 찾아서 5개 명당을 찾았데요.

댕겨 보니, 딱 올라서서 딱 보니 증말 명당인데, 일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다 안치가 돼있을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거지 안치를 할려고, 지금 생존해 계시지만, 돌아가시면 안치를 하려고 찾아다니고 찾아다녔는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찾아 다니셨는데, 5개를 찾았는데 정확하게 다.

근게 원삼이라는 땅을 와서 딱 명당을 올라가서 보니, 증말 명당이라는 거야. 후세에 틀림없이 장관이 날 자리였다 이거야. 그래서 내려와서

산지기한테,

“저 묘가 누구 묘냐?”

“정동성씨 부친의 묘. 그 선조의 묘다.”

그 양반이 다섯번째 묘를 딱 찾고는, 더 이상 찾기를 포기했데는 거야. 더 찾아 봤자 뻔히 또 앉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용인에는 땅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대가 높은 지역이에요.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겠지만 관심있게 보면, 원삼이라는 땅은 그 특히 좀 원삼을 보고 딱 느낀건데, 물이 이렇게 흘러, 대개 땅이.

[조사자 : 원삼이 있으면 양쪽으로요?] 그렇지. 그렇지. 용인이 높은 지역이에요, 고지대. 이렇게 흘러 그래서 날씨가 가장 일찍 추웠고, 일찍 얼음이 얼고 늦게까지 춥고. 용인이라는 데가 봄과 가을이 비교적 짧은 편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독성리 설화 11] 독성리 1화

독성리,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윤충구(29, 남) 1995. 11. 11.

물이 없어 수도가 못된 용인

사무실에서 무병을 알은 친구에 관해 얘기를 듣고, 다시 용인 터미널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계속한 이야기이다.

용인 자연농원 고속도로 뚫을 때 승려 한 분이, 지관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길이 나면은 비상하는 학의 날개 한 쪽을 자르는 격이다. 해서 우회해서 도로를 내 줄 수 없겠느냐?”

라는 부탁을 할 때, 국가사업이 일단 밀어부쳤는데, 그때 당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학이 비상하는 산세(山勢)래요. [조사자 : 용인 그쪽이요?] 이렇게 용인 자연농원 들어가는 쪽에. 아 그래 날개가 짙었다 해서 용인이 발전이 늦어졌다는 얘길 해요.

용인이 수도로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요센대도 불구하고, 용인이 그러다 보니깐 삼군사령부가 용인에 있잖아요. 삼군이 군사적으로 제일 막강한 그런 요지 아닙니까?

삼군이 있을 정도면은 사방이 분지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어떤 다른 공격을 받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요. 그런데도 용인이 수도가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없다는 거. 한 수도를 이루려면 물이 가장 중요한데 물이 없어서 수도가 안됐다는 거야.

[독성리 설화 12] 독성T 1원

독성리, 강현모, 경혜미, 이은경, 정채영 조사
심효순(59, 여) 1995. 11. 11.

좌정고개 귀신 들은 집

제보자는 이곳으로 시집을 왔는데, 시택이 잘 사는 편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다. 그것은 귀신을 잘 모셔서 이기는 바람에 집이 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제보자는 처음에 '아무 얘기도 모른다'고 하다가, 조사자가 자꾸 요구를 하자 '그럼 실제 있던 얘기를 해주겠다'며 이 이야기를 하였다.

좌정리, 거기도 여기 원삼면인데 새로 집을 지었거든. 근데 새로 집을 집을 지었는데, 거기가 저기랴.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가 들어 있었는데. 그거를 짝 밀고, 그냥 그걸 파내지 않고 그냥 집을 지었는데. 거그다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 이

제 들어갔는데, 거그 집이 대개 차 타고 가다보며는 이 문짝은 다 띠어가고 이거만 있어. [조사자 : 벽만, 벽만요?] 예, 그거만 있는데 집이 잘 지었더라구.

잘 지었는데 그 집을 짓고 들어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왔는데 막- 그냥 모래 쏟아붓는 소리를 낸다, 이 마루에. 그리고 막 ‘후당탕’ 거리고 그냥 못산데. 못살어. 저녁마다 그래가지구. 진짜 아? 그래가지구서 이제 그냥 얼루 이사를 간다고, 그러다가 그냥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그냥 판데로 갔어, 이사를.

그 집을 비워두고 이사를 왔는데, 그 동네 사람이 인저, 그 동네로 인저 판 데로 헌 집으로 갔거나 그랬겠지. 예 그 동네 청년들이 다섯 명이.

“우리가 가서 좀 이겨 보자.”

구. 그래구서 인저 밤에 가서 고스톱을 쳤데, 거그서. 쳤는데 한’열 두 시 쯤은 괜찮더라는 거여. 그러더니 한 시가 되니깐 뭐 무서워서 못 견디겠데. 뭐 막- 그냥 모래 쏟아붓는 소리에다 뭐 ‘응응’ 거리면서,

“내집 내봐라! 막 내집 내봐라!”

하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확실히 말하는 소리가.

“내집 내봐라!”

는 소리가 아니라, 괴상하게 그게 이상하게 ‘내집 내봐라’는 소리 그 발음이. [조사자 : 감으로 이렇게 들렸대요?] 응. 그렇게 들리더라. 청년들이 듣는데. 그래서 다섯 청년이 다 쫓겨나온 거여, 그 집에서.

다 쫓겨나와가지고 그 집에, 지금 가다보면 그 고개 넘어 가다보면은, 이 문짝 이런 거 다 띠어가고 이 집 문크렁만 남았어. [조사자 : 그 고개 이름이 뭐라구요?] 그거 좌정고개. [조사자 : 좌정고개?] 여기서 차 타고 가다 보면 좌측에.

여기 원삼에서, 아가씨들 서울에서 온거지? 여그서 문항리로 가는 차

를 타지 말고, 여그서 좌정리로 가는 차를 타.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집이 보여. 이렇게 가다가 좌정고개 넘어스면서 바로 이 좌측으루다가 그 집이 보여.

[조사자 : 그럼, 지금 아무도 안사는 거예요?] 안살지, 그럼. [조사자 : 그럼, 지금도 계속 그런데요? 모래 퍼붓는 소리 들리고?] 그러니깐 사람이 안산데니깐. 이런 문짝은 다 떼가고 이런 집 문크령만 남았으니. [조사자 : 그러면 그게 지금 그 묘땀에 그러는 거잖아요. 속에 묘땀에?] 그래. 그렇지. [조사자 : 그럼, 묘 새로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깐 지붕을 어떻게 만들어 주든가 해야 되는데, 누가 임자도 없는 묘를 지붕을 만들어 주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집을 내버린거지. 지금 가다가 아가씨들 봐, 봐.

[독성리 설화 13] 독성T 1원

독성리 한광수씨댁, 강현모, 경해미, 이은경, 정재영 조사
강점자(41, 여) 1995. 11. 11.

도읍지를 주장한 독성리 장수바위

제보자는 젊은 여자인데도 옛날 이야기에 관해 말을 하기 좋아 하였다. 조사는 이 동네 토박이라는 한광수씨댁 거실에서 진행되었다. 조사자들이 온 줄 알고 놀러온 강점자씨가 '우리 동리 이야기'라며 해 주었다.

판는 뭐 홍수 때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수해라는 게 없더라구. 저번에 홍수 난 건, 근데 난 거길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장마에 저가지구 그렇게 그냥 공사할 때 그 세제산이 엄청 높대. 큰 산야 아주.

근데 거기에 옛날에 말야, 장수바위가 있어. 난 직접 봤다구. 장수바위라는게 크게 있었는데, 그 장수바위가. 왜 장수바위냐 하면 이제 장수

가 좀 힘도 좋구.

[조사자 : 힘센 장수, 장사? 아-!] 근데, 서울을 도를 지금 서울이지? 옛날에 경성. 근데 그 장수가 부하들이 뭐,

“도읍지를 여기다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하들이 알구 보니깐, “장수!”

“그 도읍지를 경성으로 한다.”

그래 이 장수가 화가 나가지고 [이후 청취불능]

5. 죽 능 리

[마을 개관]

죽능리,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1995. 11. 11.

죽능리는 면소재지가 있는 고당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대나무가 많고 능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죽능리는 원래 죽산군 원삼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승죽리, 능촌, 양광리 일부를 합하여 승죽과 능촌에서 글자를 따서 죽릉리라고 칭하며 용인군 원삼면에 편입하였다. 이 마을에는 대조 오씨들이 600년간 대 집성촌을 이루어 왔던 마을로 지금도 오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곳은 능촌, 어현 후평, 승죽, 화포 등 5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죽능리 제보자 1]

오수환(56, 남)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1995. 11. 11.

조사자가 죽능리에 도착하여 이장님 댁에 들려 소개를 받고 찾아간 분이 제보자이다. 집에 있던 제보자는 반갑게 맞아 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제보자는 평시에 이곳 마을의 전설

이나 이곳의 유물 유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분이였다. 그리고 제보자는 이 마을에 있는 거목에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는 듯하였다. 듣기 좋은 목소리로 유창하게 구술한 제보자는 집안에 대한 자랑도 하는 성품이었다.

제공자료 : 설화 1 ~ 4.

[죽능리 제보자 2]

강분년(83, 여)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1995. 11. 11.

오수환씨 댁에서 여러가지 마을의 대해 이야기를 듣고 12시 30분경에 집을 나서게 되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무작정 아무 집이나 들어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점심을 드시고 계셨다. 조사자 일행이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자, '학생들 고생들이오. 점심도 안 먹었을테니 우선 먹고 보자.'며 점심을 한 그릇씩 주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인정이 많은 분이였다. 그리고 아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시작하자 정확하고 매우 길게 구술하여준 점으로 보아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였다.

제공자료 : 설화 5 ~ 6, 10, 14.

[죽능리 제보자 3]

이경순(64, 여)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1995. 11. 11.

14시에 강분년 할머니 댁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옆집을 찾아갔다. 옆집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짚을 엮고 계셨다. 조사자가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할머니께서 먼저 얘기를 구술하기 시작

하였다. 제보자는 시집오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친정할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하였으며 이야기의 내용은 대부분 이 마을 근동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 또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선도하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구술하는 적극성을 가진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웃집에 사는 강분년 할머니가 오셔서 이야기 판의 흥미를 배가시켜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7 ~ 9, 11, 13, 15 ~ 16, 18

[죽능리 제보자 4]

최현철(67, 남)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1995. 11. 11.

제보자는 아내인 이경순 할머니와 놀러온 강분년 할머니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만 계셨다. 여러 이야기를 마친 후에, 조사자가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난듯 이야기를 해 주는 성품이었다. 제보자는 이야기판에 가끔 끼어들기는 하였지만 이야기를 구술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구술한 이야기는 대체로 실제 경험한 이야기나 이 근처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제공자료 : 설화 12, 17.

[죽능리 설화 1] 죽능리 1화

죽능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오수환(56, 남) 1995. 11. 11.

죽능리의 지명 유래

이장의 소개로 제보자의 집을 찾아갔을 때는 마당에서 이삭을 말리기 위하여 펴고 있었

다. 찾아온 목적을 말하며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처음에는 모르다며 경계하는 눈치였다. 일단 찾아왔으니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며 방안에 들어가서 구술하여 주었다.

1) 능말 대능리의 유래

옛날서부터 능골이라고 하는데, 임금님 그 산소 계신 데가 능이라 하잖어. 그런데 여기가 대능이 여기가 있어. 그런데 여기가 왜 능이라 존칭을 하게 됐냐면, 대조 오씨가 여기 400집 살었어. 그 600년 전서부터 쪽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산소를 쓰니까, 여기를 임금님 대우를 스스로 이렇게 한거지. 그 큰대자 그 임금님 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대능리라고 스스로 지은 거지. 산소가 죽 이조판서 지내신 분들, 뭐 다들 있거든. 모셔 놓았으니까, 그래 아주 그냥 존경하는 뜻에서,

“대능! 대능!”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산소를 아주 능으로 해서 여기가 있는 능촌이다. 그런데 얘기허디 마을촌자 이렇게 해서 마을촌자. 이렇게 해서 능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능말이라고 또 쉽게 읽히는 것이고.

2) 죽능리의 유래

[조사자 : 여기 마을 이름이 죽능리잖아요? 어디 대나무같은 것이라도.] 그런게 대나무, 절의 뒤에 대나무가 좀 많았어. 대나무가 많았어. [조사자 . 그래서 그 대나무 죽자허고 옛날에 얘기하시는 능자하구요?] 응, 여기 능자허고.

죽능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오수환(56, 남) 1995. 11. 11.

소원을 이루어 주는 미륵코

앞 이야기를 마치고 오씨 집안의 재산에 관해 구술하였다. 그리고 원산면의 전설을 이야기 한 다음, 이곳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런데 거기 미력님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미력님의 코를 따 먹으면 그 저기 소원을, 소원이(웃음) [조사자 : 소원을 이루어진다.] 응. [조사자 : 미령이?] 미력. 돌로다 돌부처. 이렇게 해 가지고 미력이라고 있어. 미력이라고 옛날에는 많았는데, 거기 있어요. 동네선 위에.

미력님이 계신데, 하야튼 무슨 사람이 살다, 살면 옛날에는 스트레이스가 어따가 풀 디가 읍잖아. 내가 보았을 때는 그런데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코를 이렇게 따 먹으면은, 그 이렇게 되면 자기 소원을 이룬다.”

고. 해가지고 지금 코가 없어.(일동 웃음) 어 그 돌로다 맨든 돌인데. 그게 아마 고려말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애. 상당히 그 오래된 전설인데. 지금까지 이 동네서 위해. 상당히 크게 있어. 인자 서낭당이기도 그 옆에 있고.

인자 옛날이는 이렇게 보면은, 애기 못낳은 분들, 또 흑시 또 이렇게 잘못 해가지고 처녀가 또 애기를 뱌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을 참 고민이란 말이여. 그러면 밤에 몰래 가서 그 코를 따먹는 거여. 애벤 것을 가지고, 그 애를 줌, 못낳는 사람도 그 코를 따먹는 거고. 애기를 뱌는디 이것을 읍애라도 약도 읍고 그런게, 애를 떼야겠는데.(웃음)

그래서 가서 코를 몰래 따 먹고 그랬는데, 그 인자 옛날 돌인데 그 꿍어먹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의학적이냐 뭘로다 이게 이루어질 까닭

이 읍거든.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만 해도 애기를 뺨 양반이, 뭐 그때 나이는 처녀니까 나보다 아래겠지만. 지금은 허면 굉장히 오래된 양반들이지.

그래서 그 몰래, 몰래 그 지금 말하자면 약탕기에다 해서 넣고 썰어 먹었던게지.(웃음) 그런데 먹고 났는데 뭐 저기야. 그냥 천둥 나고 번개가 그냥 별안간 그냥 뭐하며, 하야튼 자기도 몰르게 뭐 해가지고, 인자 놀래가지고, 이자 천둥 소리에 놀래가지고.

[조사자 : (웃음)그래서 애기 떨어졌다.] 그래서 애기 떨어졌다 이런 거여. 이것은 증말 나 그런 애기 어디서 못들어 봤거든. 그래서 효과 읍어.(웃음)

[죽능리 설화 3] 죽능리 앞

죽능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오수환(56, 남) 1995. 11. 11.

수도가 못된 구봉산

마을 앞의 거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 주신 다음에 이곳의 산세에 대해 말하는 도중에 해 주신 것이다.

그러고 인제 여기가 이게 구봉산인데, 아휴 아휴, 수도를 뚫라고 그랬었는데, 서울이 영. 이제 말하자면 서울은 삼각산 아니야. 그러고 여기는 구봉산을 본거여. 그 다음에 계룡산을 본거여.

그런게 세 가지 풍수를 본건데, 개 인자 여기가,

“백 봉만, 열 아흔아홉인데 백 봉만 됐으면 여기가 서울이 됐었다. 될 거다.”

그런데 왜 안되었으나면, 그래서 그 초기에 그 아니 뭐야. 계룡산도 그 수도가 되었잖아. 말하자면 백 백제의 그 정기가 그 저기 아니야. 말하자면 공주 이런, [조사자 : 부여?] 응. 부여. 그러니까로 계룡 갑사가 그래서 유명한 거잖아. 그 성장지거든. 서울은 이태조가 말하자면 삼각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왕산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게 여기가, 여기는 왜 안됐느냐 허면은 한 봉이 떨어져서, 그 외사면 백봉리라고 있어. [조사자 : 아 백 봉리요?] 응, 그게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 이거야. 응 백 봉 중에 그 일백백자 봉우리 봉자야. 외사면 백봉리인데, 거기가 떨어져서 아흔아홉 봉이 돼서 여기가 수도 안됐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백봉리라고 그러는 거야. 한 봉우리가 떨어져서 거기로 나갔다.

그것은 사람이 헨 것이 아니고 신이 했다고 그러드라고. 응 그런게 신이 여기다 한 봉을 더 헐라고 했는데, 다 해 놔는데 말하자면 그 기상이 변이라고 그럴까 아주 그런 거기로 나갔고. 한 봉우리가 떨어져 나가 갖고 말하자면 안됐다.

[죽능리 설화 4] 죽능 1화

죽능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오수환(56, 남) 1995. 11. 11.

지명 유래 ‘뒷벌’

앞 이야기에 이어서 생각이 난듯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데 거기가 이상하게도 그 구봉산 밑 지역이가 뒷벌이야. 뒷벌. [조사자 : 뒷벌요?] 응. 이름이 뒷벌인데, 그 동네가.

지금 그게 내가 맞는다는 거거여. 거 이름. 뒤래는 거는 그 후, 후평이라고도 그러지, 한문이로는.(씨보이며) 이렇게 쓰는 뒤래는 게 후 아니여. 뒷벌. 이래서 뺄, 뺄이면 벌판이래는 거거든, 편편한.

그런게 뒤에, 뒤가 편편한 그 저기인데, 그런데 뒤에 뭐 산만 있었거든. 그런데 왜 뒷벌인지를 몰라. 그런데 골프장이 들어 섰어.(웃음) 그래가지고 벌이 된 거야. 그 벌이 된 거야. 인자 수 년 전에 골프장이 27홀 짜리가 들어섰거든.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 어떻게 알고 그 나중에 후평리라 했던 말이여. 뒤가 들어 된다. 이런 말하자면 편편한 넓은 들이 된다는 뜻인데 그게 조선말로, 국산으로 인제 한국말로 뒷벌이래는데, 우리가 해태기를 지명대로 고대로 됐어, 그래 뒤가 완전히 골프장이 됐으니까.(웃음)

[죽능리 설화 5] 죽능리 1뒤

죽능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강분년(83, 여) 1995. 11. 11.

호환 당한 할머니

마을을 돌아다니가 1시경 무작정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께서 점심을 드시고 계셨다.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자 '학생들 고생들이오. 점심도 안 먹었올테니 우선 먹고 보자.'며 점심을 한 그릇씩 주었다. 그집에서 점심을 얻어 먹고 이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 ○○어머니가 목화 이삭을 주서로 먼디로 갔단 말이여. 목화 이삭을 주서로 갔다가 집이 올라니까, 어떻게 멀리 갔단게 집이 올라니께 저물어.

저물어서는 인자 어떤 오두막집에 불을 켜놓은게 있어서 세 노인네들 들어갔데. 그게 호랭이 집이래. 들어갔더니 아 반가워 허면서,

“들어 오라.”

고. 그러드라.

“그래 식사 어떡 하는가?”

“아이 밥 싸가지고 먹었은게 그냥 잔다고 인체 잠이나 재워달라”

고. 오두막집이서. 그래 잠을 재워달라고 그래서 잠을 잘라고 있으니
 께, 한 밤쯤 되니까, 그 호랭이가 호랭이가 인자 거기서 사람으로 보는
 거지. 도깨비인지 호랭인지. 사람으로 보여가지고서나 가서 밥을 혀다
 준다는게 그냥 머리까락 뭐 손톱 말톱 뭐 지저분헌 거 해다 주드라. 그
 것 ‘밥이라’고 그러드라.

“아 남겨둔 밥 못먹는다.”

그러니까,

“아 이런데는 이런 것 먹고 산다.”

고 그러드래. 그런데 사람 잡아먹은 백다귀 뭐 이런 거 밥을 혀다 주
 드라.

오두막집이니께 그냥 문이라고 사람, 사람 하나 들어가고 여 창문 하
 나 있드라. 아 한밤중쯤 되니까는 두 늙은이가 두 늙은이가 수근수근 해
 더니 물을 솔솔 끓이고, 칼 가는 소리가 나드라.

한 노인네는, 두 노인네 평생 곤하게 자는데, 한 노인네 잠이 안와서,
 잠이 안와서 가만히 들으니께 수상하드라. ‘아무게도 사람을 잡을라고
 하는 게비다.’ 칼가는 소리도 같고, 물 끓이고 그냥 그래서. 그런게 동산
 이 뒤에 막바로 있드라.

그 거기서 나오면 울타리가 있지. 예전에는 담이 아니고 울타리지. 울
 타리를 뚫고서나는, 참 가만히 들으니께 칼을 ‘씩씩’ 같고 물을 끓이고,
 들이 나가서 그러드라. 아 그래서는 밤에 한 노인네가 잠을 안자고 내다
 보니까는, 요만한 창문으로 뚫고서는 내다보니까는, 아이 물을 끓이는데
 거기다 퇴라고 그러는거여. 사람을 잡을라고.

그래 무서워서나 아 두 마누라는 들고 흔들어도 안 안깨더라. 한 마누라는 켜는데, 한 마누라는 흔들어도 안 안깨더라. 한 마누라는 켜는데 한 마누라는 으응 못깨워가지고, 둘만 둘만 빠져 나왔대. 울타리 구녕으로. 울타리 구녕을 나가서 백앗에서 한참 있으니겐,

“아! 사람 죽이라고. 사람 살리라.”

고. 소리소리 질르고 울고 야단이드라.

“아이구!”

가슴이 두근두근 허면서,

“내가 까딱했으면 쥘힐 뻔 했구나!”

싫은 생각이 나서 가만히 보니께, 아 사람을 칼로 쳐가지고서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드라. 그래 뜨건물에 들으니 얼마 뜨거워.

“아이구! 죽는다.”

고. 소리를 질러야 금방 소리를 질렀다 말었지 뭐. 그래서 그 두 놈 마누라는 들고 도망을 쳐서 을마를 목화 이삭을 주스려 멀리 갔으면 집을 저물어서 못와. 아이 집이를 오니까는 그 이우지에 세 늙은이가 사는데,

“아이구! 우리 어머니는 어찌 안오시는지?”

“어머니는 차차 오시겠지.”

바로 못일러 주었데야. 어머니 이러저러 했대서는 몰르지. 일러주지를 못했디야, 놀래까미.

“인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나는 저물어서 어디서 왔는데, 그 마누라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할머니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그래 우리만 왔노라.”

고 말이여. 그래 지대래(기달려)도 안오지. 뭐 집에서 애들이 을마나 지달려. 그러서,

“아이, 으찌 안오신다.”

고 그러니까.

“아이, 그런 일이 있겠는데, 다른 멀리 가갔고 그런 일이 있겠는데, 암
격도 우리도 몰래 빠져 왔은게, 그 집에서 자는 것 보고 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말았디야. 그래 그거여. 그건 나는 안잊어 버렸어. 그
렇게 해서 주스려 댕기고.(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말하는 부분 생략.)

[죽농리 설화 6] 죽농리 2화

죽농리 제보자덕,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강분년(83, 여) · 1995. 11. 11.

도깨비 방망이

앞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도깨비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하자 구술한 것이다.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은 것이라 한다.

[조사자 : 도깨비 방망이 얘기 해주세요.] 옛날에 낭구꾼이 산으로 낭
구를 하러 갔는데, 놀부 얘기, 놀부 얘기 같애요. 낭구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각각 낭구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그 전에 갈퀴로 가랑잎을 긁어서 땃걸랑. 갈퀴를 '복복' 긁
으니까 개감이 쑥 빠지드랴. 개감. 개감 모르지? 개감이라고 산에 개감
낭구가 있어. 개감 낭구가 있는데, 개감이 열으면 바람 불면 그것이 떨
어져. 도토리마냥.

아이 그래 한 사람이 낭구를 복복 긁으면서, 긁은게 개감이 하나 쑥
나오드랴.

“아이구! 이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드려야겠다.”

그러고 주머니에다 주서 넣어. 또 하나, 또 북북 굵은게 하나 나와.

“우리 어머니 드려야겠다.”

그러곤 인제 동상들은 읊는지. 아마 아들허고 어머니들 허고 시시(셋)서 사는데, 한 사람은 낭구를, 그런데 또 하나 굵으니게,

“아이고! 이젠 내 뭉치라구!”

이러고 허고. 끊어서 한 들킵을 해 치웠는데. 한 사람은 낭구를 해 가지고, 저부텀 알아. 낭구를 북북 굵은게 개감이 썩 나온게.

“이젠, 내 목, 내 뭉아치로군!”(일동 웃음)

[조사자 : 욕심쟁이?] 응. 또 하나 북북 갈퀴로 굵은게, 개감이 썩 나온게,

“아이고! 이젠 우리 마누라거로구먼!”

그러고 앉았어. 그래서 나무를 끊으니게 또 갈퀴질 해 굵으니까, 가랑잎을 굵으니게 개감이 하나 썩 나온게,

“이젠, 우리 아버지 드려, 쥐야겠다.”

인자 또 북북 굵으니까 또 개감이 하나 썩 나오니, 웬 개감이 그리 많았던지.(일동 웃음) 옛날 얘기라 그라. 개감이 썩 나온게,

“아이고! 이젠 어미 쥐야겠구나!”

이러구선, 이제 셋이 똑같이 해서, 둘이 똑같이 해서 지고 오는데, 얼마나 낭구하러 멀리 갔던지, 멀리 갔던지 오다오다 못와서는, 그전에는 낭구하러 멀리 땡졌어, 옛날에는. 지금은 낭구가 천지지마는. 멀리 땡겨서 오다오다 잡대야마(?) 오두막집이 있어서 들어가니게 도깨비 집이드랴. 아 도깨비들이 장난을 방망이를 ‘똑닥 똑닥’ 하면서, 뭐 어찌구 지껄이드랴.

“야! 이집에 들어가 좀 쉬어야겠다.”

그런게 가서 들어간게,

“쉬어 가라.”

고 그러드랴.

“그래 어디서 좀 쉬어 갈라나!”

고 그러니께,

“빅역(부엌)다락으로 올라가라.”

그러드라. 다락으로. 그럼 그렇게 한갓지게 잡을라고. 잡을라고 한갓지게 올라갔지. 다락으로 올라가서 수 숨어 두 사람이 있는데 아 그냥 한 밤중쯤 되니께, 도깨비들이 와르르 몰려가면서 ‘똑닥똑닥’ 하면서 도깨비들이 방망이 소리를 똑딱하면 다담이 소리를 그러면서,

“아이, 은 나와라 똑닥. 금 나와라 똑닥.”

그러면 그러드라. ‘금 나와라 똑닥’ 하면 금이 수복이 나오고, ‘은 나와라’ 하고 뚜드리면 은이 수복이 나오고.

“아이 배고파! 밥 나와라.”

그러면 밥이 수복이 나오고. ‘떡이 나오라’(웃으면서) 그러면 떡이 수복이 나오고,

“아이, 인절미가 제일 먹고 싶네. 인절미 나오라.”

고. 그러면 인절미가 누렇게 나오더래. 집안에 빵 돌려 떡이드라. 떡, 밤, 뭐 그냥 먹을게 수복하드라. 아이 벽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거 저 도깨비를 내가 잡아야 할텐데, 어떡하나!”

두, 두 사람이 인자 의논을 했어. 아이 저 도깨비가 저 도깨비를 잡아야 할텐데 잡을 수가 없어. 둘이 공론을 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다간 저 사람한테 잡혀 죽을꺼니께, 어떻게 몰래 빠져 나가자.”

구. 그 사람들 인저 떡 나온 걸 먹으러 간 틈에 어떻게 틈을 타갖고 나갔디야. 울타리 백으로. 울타리가 인저 옛날에는 많이 울타리지 뭐. 울타리 백으로 나가니까는 아이 인자 사람을 잡으러 온거여. 죄희들 저 희끼리 먹고서는. 아 한 사람은 꺼내니께, 보니께 하나도 없지. 또 하나 찾으니까 또 하나도 읍지.

아 울 밖에서 들으니까는, 아 그냥 도깨비들이 그냥 잡을라고 죄돌아 당기니까는, 자꾸 숨어서 낭구로 올라가드라. 아 울타리 밖으로 낭구 밑으로 죄돌아 다니니까는, 낭구 속으로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낭구를 베면 죽겠걸랑. '그래 베지 말고, 베지 않겠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둠들 뒤 인자 사람 찾으려 나가터래요, 백앗에. 우르르 몰려가 그 집 비드라. 가만히 보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놓고 갔드라.

“이놈의 방망이나 주어가지고, 흠쳐가지고 가야겠다.”

고. 나무집은 놔두고 방망이들만 둘이 하나씩 들고 왔드라. (웃음) 둘이 하나씩 인자 방망이를 들고 와서는, 집에 와서 그냥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그러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그러면 은이 나오고, '떡 나와라' 그러면 떡이 나오고, '누런 인절미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아 그래 집에 가서 아 마누라보고 인제,

“나는 어디 갔더니, 이렇게 방망이를 하나 주웠는디 뭐를 할까?”

“아! 당신 마음대로 해야지. 난 뭐를 알겠느냐?”

고. 마누라가 그랬지. 아 '떡 나오라'면 떡 나오지, '밥 나오라'면 밥 나오지, 떡을 걸 수북이 쌓아놓고 살았다. 아 그래 부자가 되고 말았드라. 그래 부자가 됐다. 큰 부자가 되고 잘 사는디,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어디가 도깨비 방망이 노릇을 하고 뭘 좀 흠쳐오려 하는데, 아 어디 가서 말을 헐 줄 알아야 허지.

말을 못허니까는 가서는 그집이 어떤 집이 가서는, 인자 어떤 노인네 혼차 살드래. 그 노인네 좀 어떻게 좀 돈을 뺏어올라고 허는데, 뺏어올 수가 없드라. 아 그냥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무서워서 벌벌 떨더니, 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아! 떡 잡숫구 싶으면 떡 달라 그러시유!”

'떡 나오라'면 떡이 누렇게 나오고, 인절미가. 콩가루 묻힌 인절미가. 아 맛있지. 아 그렇게 노인네가,

“아이 참 인절미 맛있게 먹었네. 아이 청년들 덕분에 맛있게 먹었네.”

인자 이러구 있는데, 아이 그럼 도깨비 방망이를 어떻게 그 사람이 또 놓고 갔드리아.(청중 웃음) 놓고 갔드라. 둘이 갔는데 하나는 놓고 하나는 갖고 갔드리아. 아이 그래 어디 가서, 그 노인네도 어디 가서 어디가, 어디 갔다가 어디 땡기러 갔다가 저물어서 자는데, 그 두 거기도 두 노인네가 살드라.

“아이 어떠한 일로 이렇게 오셨나?”

고 그러니께,

“나는 그런게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땡긴다.”

고 그러드라.

“도깨비 방망이 뭐냐?”

고. 그렇게 안보여 주더리아. 훔쳐 갈께비.

“아이! 무서워서 나는 못산다고. 당신네 여기 살고 난 나갈거라.”

고. 그리고 자는데 울타리 밑에서 가만히 보니께, 아 무서워 죽겠는데 이놈의 떡은 좀 먹고 싶은데, 아 누런 인절미가 먹고 싶은데.(웃음) 그 노인네가,

“나는 인절미가 암만 먹고 싶은데 어떡하느냐?”고.

“아! 나는 제일 무서운게 인절미여. 인절미인데.”

어떤 사람은 남자는, 여자는 그런 소리 안하는데, 남자는 제일 먹고 싶은게 인절미여, 그게.

“인절미 나오라.”

하면 그냥 인절미가 거기서 쏟아져. 누러니.(웃음)

“아! 누러니 무서워! 나는 누런 인절미가 제일 무서워! 나는 누런 인절미가 제일 무서워.”

먹는 건데도 무섭다고 피할라고. 먹을 건데도 인자 나락 피할라고, 숨을라고. ‘누런 인절미가 무섭다’고 그러니께는, 아 그집에다 인절미를 죄

쌓아 놓드리야. 못나오게 할라고.

“나는 인절미가, 누런 인절미가 제일 무섭다.”

고 그러니까,

“인절미 인절미 나오라.”

고 허니까. 뺨둘러 인절미를 쌓아 놓아, 문이 없어 못나갔디야. 아 그
래 그게 하고 끝이었어.(일동 웃음)

[죽능리 설화 7] 죽능리 2화

죽능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이경순(64, 여) 1995. 11. 11.

은혜 깊은 호랑이

14시에 강분년 할머니 덕에서 나와 그 옆집에 갔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서는 비닐 하우스 안에서 짚을 엮고 계셨다. 조사자가 나온 목적을 말하자 할머니께서 먼 저 얘기를 해 주셨다.

옛날에 인자 한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키가 쪼끄만하지 전에는. 옛날 에는 키가 쪼끄만하고 색시는 키가 크고 이런데. 인자 저녁에 장가를 가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라고, 인자 저녁을 먼저 먹고 뒷동산에 가서 앉았은께 호랑이가 물어 가빠렸어, 그 사람을.

호랑이가 물어 갔는데, 그냥 뭐 신랑이 별안간 없은께 찾을 거 아니 여. 찾아도 못 찾아서 나중에는 찾다 찾다 산으로 올라간께, 호랑이가 입을 떡 벌리더니 그 속에 비나(비너)가 꽃혀 있드리여. 사람을 잡아 먹고. 비나가 꽃혀 있는디 그것을,

“뺨 달라.”

고. 새신랑을 붙들여 간거여. 그런께 인자 색시 집에선 야단이 난거지

뛰어. 별안간에 새신랑이 없어졌으니. 막 이리 들고 저리 들고 찾다가는, 그렇게 해가지곤 나중에 신랑이, 호랭이가 또 그 자리에 갖다 비나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람이 지고 왔지, 비나를 지고 와가지고. [청중 : 비나를 빼줬구먼.] 그런게 비나를 빼주고, 호랭이가 다부 그 뚝에다 갖다 놓드리여. 갖다 놔서 인자,

“사실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게,

“이거는 나는 암것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갔지.”

호랭이가 굴로 끌고 가드리여. 굴로 끌고 가드니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본게, 여자를 잡아먹는 중 이 목에 비나가 꽂혀 가지고 빼내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이 사람이 비나를 빼줬대여. 빼줬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인자 신랑을 업어다 놓고 그냥 갔대여. 그래서 인자 비나를. 인자 남자를 보고 호랭이가 자꾸 비나를 가지고 가라고 떠다 밀드리여. 떠다 밀어서 인자 그냥 가지고 왔대여. 가지고 와가지고. 인자 그런 사실 얘기를 한게,

“아! 당신이 살 사람이지 죽을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다. 그런게 당신은 큰 천재.”

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 하드리여, 그렇게. 그렇게 그 호랭이가 밤낮 그 뒷동산에 와도 동네 사람을 해꾸지(해꼬지)를 안하드래. 전에는 해꾸지를 했는데. 거서 비나 빼주고 나서부터 해꾸지를 안하고 그냥 잘 넘어 가드리여. 그게 끝이여.

[죽능력리 설화 8] 죽능력리 2앞

죽능력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이경순(64, 여) 1995. 11. 11.

꼬부랑 할머니

앞 이야기에 이어 비닐 하우스에서 계속 구술하였다.

우리 할머니 얘기가, 그냥 꼬부랑 저기 작대기가 나오더니, 꼬부랑 개가 오길래, 꼬부랑 작대기를 냅다 후려쳤더니,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창중 웃음)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구. 저기 가서 그 얘기 해보라고 그러드라고.

[죽능리 설화 9] 죽능리 2차

죽능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이경순(64, 여) 1995. 11. 11.

십년 먹여 사귀 된 개의 원수갚기

집안에 먹이는 짐승은 오래 먹여서는 안된다면서 앞 이야기에 이어서 해 주었다. 뒤부분은 상사뱀 설화의 끝 부분과 비슷하다.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개를 10년을 미졌는데(먹였는데) 시(세) 마리를 미졌어, 개를. 시 마리를 미졌는데, 그 개가 10년이 된게 한 번은 인제 그집 식구들이 인자 들에를 갔다온게, 개가 구덩이(구덩이)를 파드래여. 그래서,

“이 놈의 개가 왜 구덩이를 파나?”

하고. 그런게 구덩이를 퍽 많이 패 땀드래요. 그 부엌 끝에 장광 앞에 가서. 그랬더니 인자 어떻게 하나 하고서 가만히 보니께는, 인자 그라다가 개를 죽이뿌렸어. 개를 죽이뿌렸더니 이 개가 인수(원수)를 갚는 거여, 그 집에서. 인수를 갚는데 자꾸 이 놈의 개가 꿈에 나타나고 나타나

고 하는데, 한 번은,

“내가 니 인수를 갚을끼게, 꿈작 말고 있으라.”

고. 꿈에 해몽을 하드래요. 그래서 큰일 났지 뭐여. 동네 사람들 다 와도 그 개한테는 못 이기결랑. 그 개가 거석해가지고. 그래 인자 차차로 차차로 있은께, 죽은 개가 한 쌍을 해가지고 들어 오드래여. 인자 개를. 점장이한테, [청중 : 옛날에는 개가 사람이 됐어.] 예.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본께,

“집의 개가 시 마린께, 한 마리는 대문 앞에 붙들어 매놓고, 한 마리는 방문 앞에 붙들어 매라.”

그러드래여. 그래 인자 거기다 붙들어 매고 있은께, 인자 한 열두 시쯤, 옛날에는 시계가 어딴어. 이 하늘의 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애들 몇시 몇시에 낳으 거 알지, 시계가 어딴어, 전에.

그래서 본께 참 그 시가 된께 참,

“어흥!”

거리고 들어오는데, 바깥에 있는 개가 그냥 같이 싸우는데, 그 개가 죽드래여. 살은 개가. 그래 또 방문 앞에 와가지고 또 인자 와서 있드래여. 있는데 또 그 개하고 싸워서 그 개하고 졌는데. 그래서 인자 이 개가 뭐가 됐느냐 하면 죽어가지고 구렁이가 된거여. 구렁이. 구렁이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 큰일 났드리여. 그래서 가서 그 이튿날 낮에 가가지고,

“어떻게 숨어야지. 잘 숨느냐?”

고. 그렇게 똥독에 들어가서 뱀은 똥통에 못 들어오거든, 냄새가 나서. 그래가지고,

“인자 장독애를 가라.”

그러드래여.

“장독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 괜찮다.”

그러드래여. 그래서 인자 개는 두 마리 다 죽고. 그 이튿날 또 올 차

렌데 이 여자가 거석을 했어. 장독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구렁이가 들어가드이 한참 있다. 동네 사람들이 먼 눈길로 본께 한참 있다 나오드래여. 그래서,

“못찾고 나오느냐?”

하고. 인자 가서 장독 항아리를 열은께 빠만 앙상하고 물만 있드래여. 사람을 녹여 가지고. 그래서 개를 오래 미기면(먹이면) 사람 적덕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인수(원수)를 갚는대는 거여.

그래서 언제라도 개는 10년 넘게 미기지 말고, 닭은 3년 넘게 미기지 말라고 한거여. 그래서 옛날 얘기가 그 얘기여. [청중 : 그런게 옛날에 개 오래 먹이면 도슴을 한다고 했잖아!] 에 도슴을 해서. [청중 : 오래 먹이면 못쓴다는 거여.] 그렇게 사람을 해꼬지를 해잖어.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 사람의 인수를 갚고. [청중 : 닭을 오래 먹이면 지네가 돼가지고 해꼬지를 하고.] 너무나 미서워. 옛날에 그렇게 했데요? 그렇게 얘기 들었지, 내가 봤어!(웃음)

[죽능리 설화 10] 국문 2완

죽능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강분년(83, 여) 1995. 11. 11.

도깨비 쫓은 여인

14시 30분경 강분년할머니께서 이 집에 놀러 오셨다가 이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해주셨다.

아 옛날에 어떤 여자가 남자랑(이상은 기록)에서 살았는데, 여자가 얼굴이 누렇게 병이 들드리야.

“이상하다.”

그래서 인자,

“저 사람이랑 산 후로 그렇다.”

고 그러드리야. 도깨비가 사람이 되서 사람으로 보이질랑.

“저 사람, 사람한테 산 이후론 얼굴이 저렇게 노래진다. 그렇다.”

고 그러드리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나! 나는 도깨비랑 자 살아서 그런가보다.”

도깨비가 자꾸 업고 멩기고 그래서 도깨비가 사랑해. 도깨비가 사랑해서 업고 멩기는데, 도깨빈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업혀 멩겼는데, 오래 된게 도깨비하구 오래 사니께 사람이 얼굴이 노래지드리야. 도깨비하고 사니까. 그래서 그 영감쟁이가,

“도깨비가 뭐라고 묻질랑, 저거 나는. 뭐가 무서우냐고 도깨비가 묻거랑 ‘난 누런 인절미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라.”

고 그러드리야. [조사자 : 누런 인절미가?](일동 웃음) [조사자 : 아까 그 얘기, 그 얘긴가?] 그 얘기 맞아. 이젠 또 달라.

“누런 콩가루 묻힌 인절미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 하라.”

고. 영감이 시키드라. ‘누런 인절미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라’고 그러드라. 아 그래더니 도깨비가 한 번 잘라고 허니께니, 그냥 참 인절미를 갖다 놔서 무서워서 들어올 수가 있나? 인절미를 갖다 놔서. 콩가루 묻힌 인절미가 제일 무섭다고 하니께.

“이년! 무서운 거 들어간다. 이년! 무서운 거 들어간다.”

그러면서 울 넘어서 자꾸 던져서 독까장 인절미가 수북하게 쌓였드리야. 그건 좀 달려. 그렇게 짹어. 그래 그래서 도깨비를 띠었대여. 도깨비를 땔 수가 읊어서.

[청중 : 말을 잡아서 피를 끼었으면 도깨비가 절대로 못들어 온대여. [청중2 : 백마! 백마!] 그전에 [청중 : 옛날에 도깨비 있어서 흘린 사람은 그 그것을 말을 잡아서 피를 끼었으면 이 도깨비가 들어오지 못허

고.] 그렇다고 허데. [청중 : 백마, 백] 그렇게 금방 치우드래, 도깨비가. 그냥 요술이 도깨비가 그냥 요술이 좋대. [청중 : 시방 도깨비를 만나면 돈을 좀 버는건데.] 그러.(일동 웃음)

[죽능리 설화 11] 죽능리 2앞

죽능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이경순(64, 여) 1995. 11. 11.

색시 훔쳐간 꿈

앞의 도깨비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판에서는 허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제보자가 동물설화를 구술해 주었다. 그런데 공주 꿈나루 전설과 비슷하다.

시집을 가, 가서 우물에 혼자 물을 뜨러 갔는데, 그냥 꿈이 그냥 여자를 업고 내뺄버렸어. 꿈이. [조사자 : 여자를 업고 내뺄요?] 꿈이 업고 내뺄까치고. [청중2 : 이건 진짜 옛날 얘기여.] 이거는 진짜 옛날 이야기야.

꿈이 인자 여자를 업고 갔는데. 도대체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꿈이 그냥 그 바위 틈사구(틈새)에서 막 그냥 소리만 질르고. 그런데 인자 꿈하고 같이 사는 거여, 몇 달을. 살은 거래. 거기서 살은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남자가 인자 갔는데, 꿈이 어디 간 새에 여자를 빼가지고 그냥 인자 저수지인까, 거기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거석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꿈이 인자 먹을 양식을 해가지고 들어온게 여자가 없잖랑. 궁께 참 인자 꿈이 막 떨거 아니여. 그 여자를 찾으라고.

똥게 이 남자하고, 이 남자는 아주 인자 마련을 꼭 해가지고 갔지. 못하고 망치고. 인자 간게 이 여자를 잡을라니깐 잡을 수가 없드래여. 이 꿈이 막 물을 헤엄을 치고 오드래여. 오는 걸 갔다가, 아무리 자기네

들이 헤엄을 잘 쳐도 꿈만큼 칠 수 있어? 그런데 인자 붙들렸단 말이여.
붙들렸는데 꿈이 인자 좋아서,

“호으으!”

이러고서는 입속을 다 뒤집어 벌린게, 꿈이 그런데 이 남자가 못 하고, 못을 가지고 웃는 입에다 그냥 뱉다 못을 쳐뿌렸대여. 친게 꿈이 인자 ‘퍼더덜 퍼더덜’ 하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죽는데.

그런데 거기서 글썽 그 여자를 데리고 온게 밥을 못 먹드리여. 줄곧 뒤 고기며 비둘기며 그런 거 전부 음식만 먹어서. 몇 달을 가 있다가 밥을 못 먹드래여.(웃음)

그래서 옛날에는 병원이 어딴어? 인제 침 주는 사람이나 탄한방이나 있지. 그래서 거 가서 인자 어떻게 해 가지고 밥 먹고 두 노인네 잘 살다가 죽었대야.

[죽능리 설화 12] 죽능리 2완

죽능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최현철(67, 남) 1995. 11. 11.

산신령을 알아본 겁이 많은 소

지금까지 아내인 이경순씨의 이야기와 놀러오신 강분년씨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만 계셨다. 그래서 조사자가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부탁하자 하나 생각이 난듯 이야기를 해 주셨다.

어떤 할아버지가 땅을 살려고 소를 팔아 갖고(이상은 기록)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냥,

“그것 땅 못산다.”

고 걱정했드리야. [칭중 : 땅 살라고 했는데?] 영. 소를 팔아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판걸 밤에 가서 소값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 땐 눈이

이까지 빠졌시유. [청중 : 겨울이었구나!] 근데 솜바지 그냥 입으면 쪼지. 디룩디룩 빠지지. 아 그래 안성장에 영 못가고 있는데, 해가 넘어가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가 하는 말리, 말씀이,

“아이 못가면 우리 집이서 자고 가거라.”

“아, 예! 그러지유!”

근데 해가 똑 떨어졌는데, 그 그 소가 마음에 있는데 그걸 사들라고 한단 말이여. 돈 삼전 남았어. 참 5전 남았어. [청중 : 그전에 쌀 한 말에 어떡 한거여. 난 쌀값도 몰라, 그전에.] 그땐 3원 5전 했지. [청중 : 3원 5전 그렇게 했지.] 그래가지고 그 소를 사가지고 오는데, 세상 천지에 배 고파서 올 수가 있어야지.

집이 와서 술값이 오고 갔는데, 즘심 못 먹었지. 제일 먼저 술을 먹는데, 술도 못 먹었지. 돈이라고 털어 보니까 인자 술 한 잔 먹고 나니까, 사람이 하도 많아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다오다 주막만 죄 들리지 않았소. 그래서 이번 오니까 여기 태만이 아버지, 덕유 그 양반이 그 양조장 할 때야. 술장사 할 때야. 거기 가 술을 인자 달라니까,

“아! 술이 여기 읍네. 어떡 하나 어떡 하나! 그래 여보! 여보!” 그래.

“거기 술 한 잔 남았거든, 여기 손님 대접해야 할텐데.”

그러니깐,

“하나도 없시유!”

그러니깐 혈 수가 있나. 인자 기어 멩기게 됐어. 어찌게 배 고평지. 그래 인자 그 벼루 올라서니까 소가 안 와. [청중 : 소가 안오지. 소가 어떻게 무서움 탄다고.] 그래 인제 앉아서 담배를 붙일려고 그 때 성냥인가 다 부싷켜는 거지. 부시를 켜서 죽 그어서 담배도 한대 먹고서는

“가자.”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 잣나무밭 있지. [청중 : 거기 무서운데지.] 거기는 더 안와요. [청중 : 잣나무데 거기 무서웠다고.] 영 안와. 담배를

금방 한 대 먹구선 왔는데, 소가 안간단 말이지.

“어 그러냐! 할 수 없구나!”

앞아서 인자 거기 앉아설라무네 담배를 또 다시 담배를 피우면서 무슨 장난이 이렇게 심하게 하여. 한 두번 하면 그만이지. [청중 : 그리고 혼자 앉아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청중 : 소는 가만히 섰고?] 소는 가만 있고. 그래서 인제 우두커니 앉았다가서 인자 담배를 두 까치를 피웠지요?

[청중 : 소가 안와서요?] 응, 눈 오기에 그 위에 앉아서. 그래 인자 거기서 일어나 같이 나오는데, 쪼끔 올라오면 여기 예배당이 있지. 또 거기 채 못와서 인자 또 그러네. 앞에 보여. 그래서 거기서 뒤집어 앉았다가 본게, 담배 또 피우구 났더니. 갓신미룩인가 싶드라 그려. [청중 : 가짓랭이.] 갓신미룩. [청중 : 응, 갓신미룩.] 거기 네 번을 헨겨여, 니번. 인자 그거도 똑 있는데 미서워. 거 거기 오니까 닭이 ‘꼬끼오’ 하고 우네.

[청중 : 밤새도록 왔구나!] 밤새 온거지. 그래 인자 우리는 걸을 수가 있어야지. 시장끼가 걸려서 걸음이 안 걸려. 배 고파서. 그래 우두커니 [청중2 : 소를 타고 오지.] 거기서 있다가 인자 지슴마을 났연네 있을 때여. 거기 가서 부르니까,

“왜 그러느냐?”고 그려.

“아 안성장에 가다오다서니 하두 배 고파서 그 뭇 좀 주시오.” 한께,

“술을 읊을텐데.”

그러더니. 그 마누라를 깨워.

“나이 아까 먹다 남은 게 있는데, 그 먹던 것 드리느냐?”고.

“누구시냐?”고.

“아! 가져오시라!”

고. 그 분이 술을 갖다 주어서 말이지. 죄가 되어서 추우니까. 두리어 밤새도록 죄 아버지 술 먹던 것 남은 것 한 병. 그 왜 반 병 남은거지. 어찌 고마운지 몰라. 그것을 먹는데 술길 인가 돼지 술이지. 그것 반 사

발 쥐서 잘 먹고 끼겏 오니까, 청리말 목 부러진 인자 진곳이여. [청중 : 거기도 무서운 디여. 목 부러진 미륵.] 아니 거기도 또 못가게 허네. [청중2 : 워낙 거기가 제일 무서운 딘데.] [청중 : 소가 미섬 타지.]

[조사자 : 어디요?] [청중 : 요 아래 청리말 아래에 갓신미륵이라고 있어. 지금 파해졌어.] 그 지금 목 부러진 미륵이지. 그래 인저 거기서 당해낼 수가 있나. 그러길래.

“아 그래 건너가 봐. 밥 먹을 때 됐으니!”

정자 때여. 그런게 털벅털벅 가. 그렇게 보여. 그렇게 눈에 보여. 저 그러더니 내 바지를 대 쥐. 그래 배 고평줄 모르는데 대 쥐. 그래 집에 들어오니까 식전이지 뭐. 딱 두 양반 계신 때니까. [청중 : 밤새도록 것이구만!] 그래가지고선 인자 설날 만으로 꽃으로 아버지 일어나시더니,

“너 어디 자꾸 지내온 거냐? 아 내가 현 것과 꼭 같을다.”

아 내가 고상 되게 해 봤네. 어떻게 배고픈지 몰라. [청중 : 아침에 밥 먹고 간 청년이 밤새도록 있었으니 얼마나 배고파!] 아 그러니 어디 해 볼 수가 있어야지. 그냥 도리 읍지. 그래 고상을 내가 다만 꺾어보고. (이후에도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이를 생략함)

[죽능리 설화 13] 죽능리 2화

죽능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이경순(64, 여) 1995. 11. 11.

본분을 중시하는 호랑이

앞의 제보자가 호랑이 만난 이야기를 하자, 호랑이를 만났다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듯 구술하여 주었다.

여러이 갔졌지. 여럿이 갔는데. 호랭이가, 호랭이가 새끼를 쳐가지고

바위 위에다 소복허니 놓고 막 장난을 허드래. 그 이미(어미)하고. 그런 디 이미지를 못봤지, 사람들은. 인자 장난허고 니러가고 니러가는. 우리 할머니만 봤데요. 그래서 본게 어떤 이는,

“아이구! 요놈의 개 참 이쁘다.”

그리고 시루 담었데요.

“요놈의 개 참 이쁘네. 이쁘네!”

이러구. 어떤 사람은 그냥,

“참 이쁘다.”

이런 사람은 괜찮고 그런데. 그래서 인자 그걸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그냥 가다 말고 오는데, 그걸 봤으니 뭐. 전에는 행주초마가 어디 있어. 그냥 다리끼 이것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것 전부 다 내 빌고 왔었데요.

내빌고 왔는데, 그 요것 개새끼지. ‘개새끼가 이쁘다’ 이러던 사람은 그 보고지를 그냥 열기별기 다 잡아뜯어 본거래. 그 호랭이가.

“아이! 이것 이쁘다. 이쁘다.”

그런 사람은 그냥 집집마다, 그 한 일곱 여덟이 잤었데요? 죄 갖다 놓았드래요? 그 보견지를 전부 다. 다 갖다 놓아서 그러고 나서 당채 우리 할머니는 나물 안가셨데요. 그러고 나서.

[죽능력리 설화 14] 죽능력 1왕

죽능력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강분년(83, 여) : 1995. 11. 11.

새끼 이쁘다면 좋아하는 호랑이

앞 제보자가 나물 캐러 가서 호랑이 만난 이야기를 마치자, 같은 유형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바로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 그전에 그런 거 있었어. [청중 : 예, 우리 할머니가 그전에 (칭불)] 시방 요 골프장이 허고 나서는 진짜로 바꿨나 벼. 그 호랭이가 많았던가 벼.

우리 오이(외)할머니가 나물 뜯으러 갔는데. 그전에 나물을 그렇게 잘 땡겼어, 옛날 노인네들은. [청중2 : 아 그전에는 죽을 그걸로 먹었지 뭘로 먹었어요, 우리가?] 나물 뜯으러 갔는데, 배가 고파서, 바위 틈에서 호랭이 새끼를, 양중에는 강아지 새끼 같드라. 그런데 이쁘드라. 두 마누라가 갔는데, 그 두 마누라가 하나는,

“아이 무섭다고. 가자.”

고 자꾸 그러고. 우리 오이할머니는,

“아이구! 너는 어쩜 이렇게 이쁘냐! 너는 어쩜 이렇게 이쁘냐! 아이 너 우리 집에 가 살으면 좋겠다.”

그러구 자꾸 쓰다듬어 주고 그런게. 위에서 호랭이가,

“어-흥!”

허드래. 그래도 안무섭드라. 안무서워 안고 그걸 자꾸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서 무서워서 자꾸 뒷걸음을 치면서도, 무서워서 자꾸 뒷걸음을 치면서도,

“아이구, 어쩜 그렇게 예뻐. 아이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두고 가야지. 애미가 온게 가께.”

그러고 두고 왔대. 그랬더니 나물 보전이 먼저 와, 갖다 놓았드라. 나물 보전이를.

[죽능리 설화 15] 죽능리 2권

죽능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이경순(64, 여) 1995. 11. 11.

원수 갚으러 들어온 고양이

앞의 제보자가 호랑이 이야기를 마치자 동물에 관한 점에서 생각이 났는지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고양이는 인간에 해를 끼치는 동물로 여기는 듯하다.

옛날에는 팽이치고 밥을 나눠 먹었데요. 그래서 밥을 날려 먹어가지고 인제 거숙을 했다는문. [조사자 : 그 팽이가 고양이를 맡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고양이가 인제 밥을 먹었다고 그것 그 주인네가 그냥 때려가지고 눈이 한 짝이 멀어졌데요. 팽이가. [청중 : 밥 죽격으로 때렸디야. 이놈 고양이.] [조사자 : 밥 죽격요?] [청중 : 응.] 때렸는디, 때렸는디, 이 팽이가 나가고 안들어 오드래요. [청중2 : 밥 푸는 주격으로 때렸단 말이어. 밥 푸는데 때렸단 말이어.] 뜨거운 걸로 때렸으니까 한 짝 눈이 멀었지. [조사자 : 팽이가 눈이 멀었다고요?] 예, 눈이. 팽이가 뛰어나가더니 안들어 오드래요' 당체.

안들어 오는데 한 번은 동네 사람이 고 인자 바닷가에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본께 그집 팽이 같은데 눈이 한 짝 멀어가지고 고기를 잡아 먹고 있드랴요. 고기를 잡아먹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이 이집을 그 사람은, 때린 사람은 그것을 짐작을 못했지.

그런 짐작을 못하고 있는데, 팽이가 양갓풀이 허러 들어왔드래요. 그 집으로. 그 집으로 양갓풀이 허러 들어왔는데, 그 뭐 재기가 그런,

“나는 아무 조이(죄)가 없다.”

고. 그러지만은 팽이를 때려가지고 팽이가 들어오는데, 그게 있어. [청중 : 그것 오도가도 (청취불능).] (일동 웃음)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읍어서, 인자 이 사람이 뒷이 개를 시 마리를 매놓고 그냥 뭐 팽이허고 싸우고 싸우고 이렇게. 두 마리가 다 죽었어, 개를. 두 마리를 다 죽이고, 팽이가. 인자 시 마리째 문앞에 밟고 있는 걸, 그걸 혈란게 그 개

가 너무나 세가지고 못서시시 했데요.

그런게 절대 팽이라는 것은 이렇게 죽이라면 아주 죽여뿌리던지, 병신 되서는 내보지 말라 그리고 얘기해 주시더라고. 병신 되서는 절대 내보지 말고, 병신이 되서 못먹일 때가 되면, 내가 아주 죽이래는 거여. 그렇게 얘기를 했지. 전에 노인네들.

[죽능리 설화 16] 죽능리 2뒤

죽능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이경순(64, 여) 1995. 11. 11.

업구렁이 때려 벌받은 사람

고양이가 인간에 해를 끼친다는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요청하자 많이 듣기는 하였지만 다 잊어버렸다고 하였다. 그래서 구렁덩덩신선비 이야기를 요청하자 구렁이에 관련된 아래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장마가 졌는데, 저쪽 건너서 구렁이가 한 마리, 인자 구렁이가 이렇게 오며 그 장마진 눈독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 구렁이 와가지고 이짝이, 이짝으로 건너와 가지고 그 눈뚱에 가가지고 척 걸치고 두러누웠드래요. 그 구렁이가 길게.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냥 구렁이, 그냥 훌씬 때렸대요. 훌씬 때린, [청중 : 그 뚝매기 헐라고 앞드렸거든.] 뚝매기 헐라고 앞드린 걸, 그걸 몰르고 그렇게 때렸지. 그냥 저쪽 가서 또 앞드렸드래요. 그 뚝은 안터지고 이 사람, 구렁이 때린 뚝은 그냥 짝 다 쓸고 나갔대요.

[청중 : 뚝매기 해 줄라고 왔는디.] 뚝매기 해줄라고, 뚝매기 해줄라고. [청중2 : 무너지지 말라고 그런건데, 사람이 죽었으니께.] 무너지지 말고 그런건데 사람이 죽여. 그 사람은 막 삼을 가지고 혹 찍었으니까

피가 나올 거 아니여.

“이놈, 이놈 자식! 너 저거 여기 와서 눈두렁 무널라고 여기 왔다.”

면서 후려 삽으로 때렸데요. 그래 피가 났는데, 그 구렁이가 저쪽 눈이 터질건데, 그 구렁이가 거기 가서 막고 있드래요. 그래 그쪽 눈은 안터지고, 이 사람 구렁이 때린 사람 눈을 싹 다 썰고 나갔데요. 그래 자기가 잘못 그걸 그걸 느끼더래요. 그렇게 험결 자기가 느끼더래요.

[죽능리 설화 17] 죽능리 2뒤

죽능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최현철(67, 남) 1995. 11. 11.

소원을 들어주는 움묵

민속을 조사하는 도중에 '아들 바라기를 바라는 어떤 행위가 없느냐.' 묻자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저기 저 산 장등 중타리 밑구녁에, 거 움묵이 하나 있지. 거기 있는데, (이때 강분년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심) 이전에 거기를 가 정성을 드리면 말이지, 과거시험을 보았어. [조사자 : 거기서요?] 영 과거시험 알아. [조사자 : 예! 예!] 과거시험을 보면은 꼭 합격을 해야, 거기서.

그래서 인자 어디 무당들이 와서 허면은 일년을 가마같은 것은 이십이 아니라 사륵교여. 사륵교 알아. 그 몰를 걸, 사륵교. [조사자 : 사륵교요?] 사륵교. 가매이여, 가매. [청중 : 가매 미고 다니는 이들.] [조사자 : 아!] 가매가 사륵교여. [조사자 : 아, 그러니까 네 명이 이렇게 메고 가는 것.] 그걸 타고 와설라매 그 참 양반집들이지. 그 타고 다니는 것은 양반집이 땡기는 거지, 못땡기는 거여.

거기서, 거기서 정성을 드리면서 과거시험 보고, 애기 못낳는 이가 거

기서 얘기를 낳고. 이전이 거기서 이왕 그렇게 영감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온 전설이 나오는 것이고.

저기서 태자 한 분이, 누구나 같으나면, 이 정 뭐냐. 그 이름을 잊어 버렸네. 정씨란 한 분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서, 삼대 독신인데 손을 봤 으니까 어떻게 해여. 그래 손을 보고 삼대 독신이 아들을 낳았어. 그래 손자를 본거여. 손자를 보고서 그 손자 컷는데 뭐가 되는고 허니 판서가 되었어. 판서가. [조사자 : 판서요?] 판서 벼슬이.

그것 한 가지만 정승 벼슬 전설에 나오는거지. 여기서는 다른 거 읍 어. 여짜이서는 잘되는 것 백에 읍고.

[죽능리 설화 18] 죽능리 2부

죽능리 비닐하우스, 박종수, 강현모, 경혜미, 이덕심 조사
이경순(64, 여) 1995. 11. 11.

움직이다 멈춘 쌍룡산

이곳의 민속을 조사하는 중에 갑자기 저 산이 움직이다가 여자 때문에 합치지 못하여 잘못되었다는 산을 실제로 가르키며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고 옛날에 여 구봉산 이게 이 자락하고 쌍룡산 같이 붙으라고 그러는건데. 여자가 빨래를 허다가 그 방맹이를 이렇게 못건너게, 재기 죽잖아, 산에 치어서.

저 산허고 이산허고 합쳐 뿌려. 봉명산. 저게 구봉산여. 아흔아홉 고개들이. [조사자 : 아!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서로 언제 저 산이 걸어오는건데, 여자가 그 가운데 앉아서 빨래를 했는데요. 빨래를 했는데, 이진 참 옛날 얘가지. 저 산허고 붙으면 백두산이 된다는 거여. 아흔아홉

고개라서. [청중 : 백봉산이여.]

그런디 여자가, 여자가 빨래를 허다가, 빨래를 허다가 그냥, 자기가
인자 가운데 치죽는거지 뭐. 그러니까 방맹이를 이렇게 못오게 무질러데
요. 그 산을. 그래서 저 저산이 그렇게 된 거래요. 저산히고 같이 붙을
건데.

[조사자 : 저산 이름이?] 쌍룡산. [조사자 : 쌍룡산요?] 쌍룡산. 그
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산은 저기 가서 중간에 가서
붙은거여, 저 산이. 이 산이 중간이 붙은거여. 가운데 가서 똑바로 있는
게 저쪽으로 건너가는건데,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못건너 가가지고. 워낙
문제도 여자가 뭐 허면, 저 사(邪)여 사. 여자가 사여. 아주 여자는 몹
쓸 사람여.(일동 웃음)

6. 목 신 리

[마을 개관]

목신 1리와 4리, 강현모, 이상도, 나유식, 현영국 조사
박병철(78, 남) 1995. 11. 11.

우리의 일정은 1995년 11월11일 당일로, 교과목에 대한 답사형식이 었다. 조사자들이 찾아간 곳은 용인군 원산면 목신리였다. 용인과 안성 간 국도변에 위치한 곳으로, 국도를 중심으로 좌우 2개 마을씩 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목신리는 4개의 마을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구성체로 유대관계가 적은 것 같다. 각각의 마을들이 산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간은 논으로 채워져 있어 마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들어 온 듯한 분위기였다. 이 마을은 옛날에 오씨를 중심으로 구성된 동족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성씨가 함께 살고 있었다.

집들은 슬래트 지붕이 많이 보였는데 현대식 집들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는 것 같았다. 집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현대식 시설이 잘 정비되어 도시와 다른 점이 없었다. 자연 환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기가 맑고 깨끗하였으며, 주변의 산들은 아름다웠다. 마을 앞 국도변에 작은 하천이 흐르고, 논농사를 위한 수리시설도 잘되어 있어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에는 추수가 막 끝난 무렵이어서 마을 전체가 대체로 한가해 보였고, 마침 큰잔치에 참석하여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4개로 나누어진 소마을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듣기 위해선 분주히 이동을 하여야 했다. 하지만 마을별로 연결된 도로는 모두 포장되어 있고, 길이 교차되는 곳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상당한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보였다. 이곳저곳 두 시간 정도를 돌아다녀서야 구연자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목신리 제보자 1]

박병철(78, 남) 강현모, 이상도, 나유식, 현영국 조사
1995. 11. 11.

제보자는 목신리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토박이로 72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정하였다. 목신리에서 이야기를 잘 하는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었다. 크지 않은 키에 마른 체격이었지만 강단이 있어 보였고, 성격은 상당히 차분해 보였다. 어릴 때 서당에서 한자를 조금 공부한 적이 있고, 정규교육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 젊었을 때는 결혼을 하고 징용에 갔다 왔는데 6.25 때 본처와 아들 두 명을 모두 잃고 지금은 재혼해서 슬하에 아들과 딸 두 명씩 두고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특별한 직업은 없고 밭에 나가서 소일거리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우리가 서울에서 온 학생이라고 하자 반갑게 맞아주며 이야기도 상당히 친절하고 성의있게 해 주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유도할 때에 구비문학의 소실에 대해서 지적하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연해 주는 것으로 보아 구비문학에 대한 그의 인식은 남달랐다. 그는 중간중간에 시국담을 늘어놓기도 했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의적으로 회상했다. 지금의 부인과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도 아끼지 않았다.

목신리 집에는 부인과 둘이 살고 있고, 큰 아들은 결혼해서 서울에 있고,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딸 둘은 모두 출가해

서 외지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봐서 목신리에서 마을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꽤 두터워 보였다. 제보자의 특징은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가식이 덧붙여진다고 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조사자가 이야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제공자료 : 설화 1 ~ 5.

[목신리 제보자 2]

신영균(75, 남) 강현모, 이상도, 나유식, 현영국 조사
1995. 11. 11.

올해 75세의 나이인 신영균씨는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였다. 박병철씨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해 준 사람이다. 직업은 양봉과 양어장을 하고, 나이에 비해 왕성하게 노동을 할 정도로 정정했다. 제보자는 목신리 중에서도 용인과 안성으로 통하는 도로변의 새터에서 사셨다. 고향은 안성으로 열다섯 살 되던 해에 목신리에서 서당 훈장을 하고 계시던 고모부님 댁으로 와서 지내던 것이 살게된 이유라 한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공부하기를 싫어하였던 제보자에 대한 부모님의 배려였다.

젊었을 때에는 징용에 끌려가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이 자신의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한다. 성격은 고집이 센 편이고 말씨는 특별한 특징이 없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자, 어릴 적 매를 많이 맞았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하면서 요즘의 자식교육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듯 하였으나 구술하려고 하지 않았고,

흥미도 가진 것 같지 않았다. 나중에 몇 개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진지한 모습보다는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막은 것에 대해서 귀찮아 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6.

[목신리 설화 1] 목신T 1와

목신 1리, 강현모, 이상도, 나유식, 현영국 조사
박병철(78, 남) 1995. 11. 11.

잡아서 명당을 얻은 이교리

처음 이야기를 들으려고 갔을 때, 제보자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깐 기꺼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때 청중은 제보자와 조사자 3명이 있었고, 제보자의 부인, 딸, 며느리는 손자 5명과 놀고 있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사랑채에 빨개 벗고 들어가는 걸 보구 가만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저 참는 게 최고여.' 하면서 구술하였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 쯤에 부산에서 사는 사돈과 우연히 술자리를 하다가 '참는 것이 좋다'라는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사돈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그 옛날 얘기 한 마디, 그런 옛날 얘기를 내가 험게. 근데 저 그 옛날에 나도 이제 잊어버렸어, 들은 지가 하도 오래 되서 잊어버렸어, 근디 저 벼슬한 양반이 이쨌데, 지금은 그런 벼슬이 없지. 인제 옛날과 달라서. 이교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조사자 : 누구요?] 이교리. [조사자 : 이교리요?] 교리가 벼슬 이름이여, 성은 이교.

이교리가 서울서 벼슬을 살고 있다가 낙향을 했어. 어딘지는 몰라. 그 저 이젠 그 얘기니까, 어딘지 모르는데. 이 분이 내려와서 낙향을 해가지고 집이 와 살면서 그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사랑이 크-음직한 사랑이라. 그저(기침)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둘러대서라도 앉혀놓고 밥을 해 메겨.(기침) 응. 그래가지고서는 그저 말하자머는 얘기를 시키는

거여.

그래 이 분이 이제 얘기를 듣자고, 물론 인저 베푸는 마음도 있었겠지 만. 그저 만나면 심심하니께 얘기를 하라고 하지 않겠어. 이제 그 그 분이 얘기를 해서 그저 하루저녁 재워 보내고. 하루 저녁 재워 보내고 이 랐단 말이여. 그래 그게 차차차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길가는 사람이 날이 저물면 그리 찾아 들어가. 근데 한날은 바랑진 중인데, 비슷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 들어와서 인사를 허고 한께,

“아이, 그저 지가 가다가 좀 날이 저물어서 들어 왔습니다. 하루밤 좀 재워주세요?” 하니깐.

“아! 그렇구 말구.”

그러고 밥을 해 먹이구 얘기를 하라고 했어. [조사자 : 돈이 참 많았 는가 봐요? 이교리가.] 응. 교리가 저 베슬 이름이거든. 이름이 직함. 그저 베슬이 교리여. 그저 이저 낙향한 거여. 말하자면 저 다 하구서 농 촌으로 도루 제바닥으로 가는 거여. 그랬는데 그 분이 하루저녁 잘 잤는 데 인사를 잘하구 갔어.

그러구 났는데 얼마 후, 한 반년쯤 되니까 이 사람이 또 왔단 말이여. 또 와서는, 2칸 장방인데 주인은 아랫목에서 자구, 그 객은 꼭대기에서 자는 겨. 자는데 가만히 보니께, 이교리가 저놈 암만 해도 마음이 좀 수 상혀.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자는 척 하구서는 있는데 건너왔더라 말 여. 어떤 사람인가 인저 떠보는 거여.

그러면서 이제 이교리가 아 코를 안고는 이교리가 드르렁 드르렁 고는 거여. [조사자 : 일부러요?] 음. 그러니께 이제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 그런데 인저 이렇게 그때는 왜 껌껌했잖아, 왜. 지금처럼 불켜놓고 자는 게 아니구. 이렇게 보니께는 일어나더니 이놈이 빨게 벗거든. 빨게 벗더 니 바랑을 들고 안문으로 들어간다 이거여. 근데 이 사람들이 지품이 없 는 사람 같으면 그 때부터 어떻게 하겠지. 가만 뒀어. 거동을 보느라구.

또 가만히 두구 보니까 서억 나가더니, 그 자기네들 자는 그 안방 아니 안방이 아니라 사랑방 부엌으로 들어가. [조사자 : 부엌으로요?] 응 근데 가만히 뒤를 밟는거여. 이제 그 자취가 읊어요. 뒤를 보고 쫓아가 보는거여. 아 그래서 가만히 인저 보니까는 술을 번쩍 들어. [조사자 : 술을요?] 응. 근데 소리 만나게 사알살 들어요. 그러더니 아 그 짙어지고 다니는 바람 속에서 시체 뼈를 그다 묻는거여.

“아하! 이놈이 이렇구나!”

이런게 아무가 생각을 하더라구. 안방에 인저 자기 머느리 있구, 빨가 벗고 들어 가니까 급한 생각에,

“아! 이놈이 어덜?”

이럴텐데. 참았어요. 그저 사람은 참는게 그렇게 중요한 거여. 그 인저 이놈이 어떻게든 소리 만나게 파구서 묻고선 벌떡 들어오는데, 먼저 들어와선 그 먼저대로 들어누워서 코를 그저 ‘드렁 드렁’ 그저 고는 거여. 인저 자는 거야.

“아하! 이렇구나!”

그러구. 그 이튿날 인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인저 떠났지. [조사자 : 그 사람이요?] 응. 그래가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저 이상한 거여.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이튿날, 바로 그냥 그치는 바로 즉시로 자기내 말림에다가, 그래도 다 좋은 데다가 물어 쫓아. 그러곤 자기내 인자 선대를 바로 그냥 신대를 갖다가 바로 그거다 모셨어.

그러고 났는데, 이것 찾아올 때를 바랐는데 안 와. 이교리가 찾아올 때를 바라는거여. 안 와. 그래서 안온다 말여. 한 10년이 됐는데.

아 이 사람이 그 좋은, 이제 구대 승승지지, 참 삼 판서 날자리에다가 모셨는데, 우째 이영 없어. 틀림없이 그 자린다. 그래서 모시고 가서는 저(구연자의 말버릇) 노를 꼬는 거여. 옛날에는 다 자루를 노로 했어. 시방들 모를 끼여. 노라구. 인제 그 칩을 모르지들? [조사자 : 칩

은 아는 데요.)(웃음) 칩은 알아?(웃음) 칩을 갖다가, 끊어다가 뺏겨서
 그저 새끼를 그저 질긴 거 있어. 시방 나이롱 끈마냥. 그 하냥 거. 그걸
 로 노를 꼬는거여. 노를 꼬아서 자리를 매는데, 시방 돛자리들 알지?
 [조사자 : 예!] 그거 있지. 그것 자리를 매는 거 노를 꼬는디, 아, 어쨌
 든지 하루에 천 발을 꼬는 거. [조사자 : 천 발을요?] 응 아주 읊는 일
 이여. 그렇게 꼬는게 읊는거여.

근데 이상하게 자기 산소를 갖다 쓴 뒤론 발복은 되지 않고, 노를 꼬
 면 노만 잘 빠져. 그렇게 그냥, 그저 하루에 천 발 씩을 노루다가 생계
 를 유지해 나가다가, 10년이 딱 됐는데 하도 이상허니깐 찾아가 봤어.
 거기들. 찾아가 보니까, 행랑채가- 홀렁 벗어놓고서는 묘를 딱 찾았는
 데, 그 자리여.(웃음)

[조사자 : 묘를 썼다구요?] 응. 아잉 그 저 이교리 친장을 갖다 썼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 자리에다가야. 그 사람이 갖다쓴 시체는, 당신네 말림
 좋은데 갖다 써 주고. 바꿔치기를 한거여. [조사자 : 봤는 그 자리에다가
 요?] 응. 그저 쓴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그제 좀 오래 가면 그 승운이 내
 려서 읊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그 이튿날 그날 그 사람이 떠난데 바로 했
 으니까. [조사자 : 바로 했으니까?] 선대의 복이 나가지 않은거여.

[조사자 : 그 자리에 이교리 선친 묘를 썼다구요?] 응. 선대. 선대
 그러니까 이교리가 냅대 그냥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게, 그냥 이교리가
 그냥 커녕 그냥 정승 되었냐 그러. 아 그래 이교리가 그저 가만히 생각
 해 보니까, 그 놈이 몰래는 했지만, 내가(이교리를 말함) 발복받은 건
 그 사람 때문이여. 그래 그 사람네 기다리는 거여. 기다려도 안 온단 말
 여. 10년 닥쳤어.

근데, 이 노끈 꼬아 먹구 사는 사람두 10년이 됐는데. 이상해서 가본
 건데, 아 자기가 그냥 몰래 묻기만 하고 불 노가리 때는 줄만 알았는데.
 아 그냥(웃음) 저 시방만 하면 장관 산소마냥 그냥 '턱'하고, 그냥 아무

리 봐도 구대승승지여. [조사자 : 명당자리였군요?]

“하하! 이거 내가 길을 일러줬구나! 이교리는 그때 잔게 아니구 날 옛을 봤구나!”

이제 그때싸 알은 기여. 응.

“참, 임자는 따로 있구나! 나는 천상 노 천 발 밖에는 못꼬지. 팔자로 구나!”

근데 그렇게 영특한 사람여, 그 사람이. 근데 한날 찾아가서는, 이교리는 묘를 그대루 좋은 자리에다 썼으니까, 사람들한테 봐지도 았고 그대루. 그냥 한 날은 떡 가서 문 열어보니까, 내다보니까 이교리가 내다보니까 그 사람이여. 쫓아가 불렀어. 쫓아가 절을 넘죽히 하고,

“저 아십니까?”

“아! 아다마다요. 아아 어디 가서 뭘하고 사노?”

“아, 저는 그저 배운 재주도 아무 것두 없구. 그냥 그냥 노나 짜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오! 그러. 응 그래.”

이교리가 설파를 했어.

“내가 그대가 그때 하두 가만히 사람이 닳아서 내가 잠을 안 잤었다. 사실로 빨게 벗고 들어 갔더라, 우리 안집으로 앞문을 열구. 그때에 나도 소리를 질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되었 놈이 것이나 그놈의 살펴보았다. 했던 것을 살펴볼 때에, 그러니 딴 데다가 그랬으면 나 안 그랬다. 그저 우리집 고래 구벽에다 묻을라고 했으니까, 어찌 내가 그걸 보구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 내가 바뀌치길 했는데, 자네 묻은지를 모르되 가 보면 알지만, 좋은 자리를 내가 써 줬다.”

“예, 그렇습니까?”

가봐서. 이렇게 보니까 그저 그게 노 천 발 꼬는 자리여.(일동 웃음)
인자 도루목이 되었지. 그래가지구 이 분이 우찌 했던지.

“나는 그대 때문에 이렇게 자손들이 크게 되고 이렇게구. 참 이렇게 사실로 그 우리가 참 베풀 수가 든 집이다. 하니까 고마우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해서 땅을 많이 줘서 같이 잘 살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참는 거.

[목신리 설화 2] 목신T 1화

목신 1리, 강현모, 이상도, 나유식, 현영국 조사
박병철(78, 남) 1995. 11. 11.

덕을 쌓고 복받은 사람

이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끝낸 후 집안 이야기도 하고, 조사자와 몇 분의 할아버지와 담화를 나누었다. 이때 문득 새로운 이야기가 떠올랐는지 ‘하나 더 해준다’며 구연을 시작하였다. 앞의 이야기와 비슷한 교훈적인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어릴 때 들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까? 저 옛날에 한 사람이 아들을 늦게 뒀어요. 딸도 없구. 아들 하나를 아주 참 만덕으루 하나 뒀어. 근데 재산이 부자여.

근데 외아들을 어떻게구 길러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애가 한 대여섯살 되는 해부터는 공부를 가르키는 것두 가르키지마는, 그저 돈을 주어서 돈 쓰는 걸 가르킬려고 했어. 그러니 매일 돈을 주는 거여. 부자니까. 옛날에도 시방같은 부자는 없었지만 부자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돈을 쓸 줄 몰워서 가지고 들어왔어. 그만 아버지가 호령이여.

“이놈아! 그게 니가 누구 어디 가서 사탕 하나 사줘도 사주지. 그래 그걸 쓸 줄 모르느냐?”

그 이튿날 나갔는데, 아 씨 불라 또 쓸 때가 또 읊어. 뭘 알아야지, 어린애가. 또 들어왔어. 이제 야단을 친거야.

“이노무 새끼! 인제 친구도 없느냐?”

이 다음에 가서는, 인제 옛장수가 오며는 옛 사서 제 친구 주구. 그 돈 쓰고 들어왔단 말여

“아, 신통하다.”(웃음)

그래 재산 많아서 그런거지. 그 인제 그렇게 했는데, 아 날마다 들꾸 돈을 쥐요, 돈을. 아들을. 그러니 아들이 인제 돈 쓰는 걸 배웠단 말여. 이제 돈 쓰는 걸 배우면 궁한거여, 사람이. 그렇지? 그것두, 후해야 돈을 쓰거든. 그런데 인제 요런 돈을 써서 후한 걸 가르쳤어.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갔어. 아버지, 어머니 다. 인자 아버지, 어머니도 그냥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날마다 무슨 돈으로 벌어먹여. 옛날 돈으로. 지금 노태우처럼 만콤이나 가지고 있으면 몰라.(일동 웃음) 아 그래서 돌아가면서 부자도 못되구, 겨우 자기네 그저 겨우 지낼만 할 때 돌아갔구. 아버지가 인제 그렇게 하던 걸 알기 때문에, 인제 커서는 가서 술도 먹고 친구들 그저 다 인제 사귀는거여. 그저 다 읊애구서 인제 남은게 읊어.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구.

그래서 인제 훗날 인자 마구 돌아다녔거든. 재산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어. 그저 나다니다 천상 돈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이 자기네 집에서 나가면 얼마 안 저 건너가는 것처럼 됐나 봐. 겨우 저 다리 하나를 건너서, 딴 동네 타동네를 가니까 그냥 울음 바다가 터졌어. 응. 그런데 그 울음바다가 터졌는데. 가서 가만히 뒷전에서 보니까, 시악시 한 열 여덟 살 정도 된 시악시(색시) 하나가 울구 또 그 어머니가 하나가 또 울구. 또 거기 그냥 구경꾼이 닥지닥질 했는데. 또 한 늙은이 한 두엇이 시악시를 뺏어갈라고 하는 거. [조사자 : 나이 많으신 분요?] 응. 이게 어떻게 된고 하니, 그 돈많은 늙은 놈이 그 시악시가 얼굴이 곱고 하니까 그

냥 돈을 달라는대로 자꾸 줬어. 에이 그냥 받을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는 안되니까.

“아! 그렇거든 색시하고 나하구 같이 정실도 할 수 있으니까. 소실 살으면 내 당신 생전 먹여 살릴께, 날 주면.”

아 근데, 인저 시악시가 마다 혀.

“아! 내가 아무리 돈은 없기루. 우리 다 칭칭(충충)이 맞는데루 가야지 할아버지한테를 나는 갈 수 읍소.”

아. 어머니두 그냥,

“딸이 그러니까 안되우.”

이걸루 싸우는 거야 그냥.

“그럼, 돈 내라.”

[조사자 : 이제까지 줬던 돈요?] 응. 돈이 있어야지. 단지 그냥 모년데. 아무 것도 없는 모년데. 그러니까 그냥 눈물바다만 터뜨린 거여. 어떻게 해결이 되야지 이게. 이 사람들은 되려 그걸 결국 끌어갈라구 그러구. 아 그래 뒷전에서 가만히 서서 보니까, 자기 노자돈이 그래도 한 200냥 남아 있었는가 봐. 그래 물었다야.

“돈이 얼마대들 갖구 그러시오?”

그러니까.

“2백 냥이라고.”

그래, 아 많은 돈이거든, 옛날엔. 시방에는 2천만 원이나 될기어. 그게 아마 이백 냥이며는, 옛날. 아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해결지어 줘야겠어. 그런 걸 배운 거, 이 사람은(아들을 말함). 응.

“그래, 염려마시우. 그럼 할아버지! 그럼은 그 돈을 쳐드릴테니 이, 이분들은 놔 주시는거요?” 하니,

“아, 이백 냥만 주면 그렇지.”

“아, 그럼 내가 쳐드릴테니 놔 주슈우.”

아 이백 냥을 주고서 그냥 떠나간 거여. 떠나는데, 어머니하고 시악시하고 누군지는 알기는 해야겠거든. [조사자 : 고마우니까?] 응. 아 시악시가 쫓아가면서 물어보는 거여. 말도 안 하고 그냥 가.

“아, 그런 거 알면 뭐하냐?”

구. 하면서 그냥 내뺐어. 그냥 내빼고 인저 이 사람이 고생을 하다보니까 안 되겠거든. 밥을 누가 줘야지.

“에, 참 절로나 가야겠다고. 그냥 나는 중이나 될 수 밖에 없다.”

고. 절로 올라갔어. 절에 올라가서, 올라가니까 이 대사들이 씨익 사람을 훑어보더니,

“음, 너는 덕을 많이 쌓았다. 너의 모습이. 그러니 너는 도루 지리를 배우거라.”

그래갖구 지리를 가르켜 줬어. [조사자 : 지리요?] 지리, 응. [조사자 : 아, 풍수지리요?] 음. 그런 지리. 인제 그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본거지. 그 사람들은 벌써 알아본 거여. 덕을 많이 쌓았다고 도루 지리를 가르켜 줘가지고, 인저 그래서 거저 10년을 공부한 거여. 응 지리. 뭐 묘자리에는 인저 1등이지 뭐. 응 절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10년 후에 내쫓는 거여. 큰 스님이,

“인제 년,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인저 나가라. 산을 내려가라.”

그런거야. 아 근데 그 사람은 내려가질 않으려고 하는 거여. 그냥 배울라고 하는거지. 근데 또 내려쫓는거지 그냥.

“어여 내려가라고. 나는 인저 니가 시기가 왔어. 그러니까 얼리 내려가라.”

쫓겨내려 온거여. 쫓겨서 내려오다가, 배운게 있으니까 산을 쭈욱 훑어 내려오는거여. 산을 차례로다 그냥 먼산부터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큰 대지(大地)가 그 근처에 하나 있거든. [조사자 : 아! 명당자리가요? 그곳에.] 음. 보니까. 그래서 그놈을 찾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반반한 대지로 내려왔어. 그래 내려와가지고서는 떠억 보니까, 삼판서 구대 구대승승지에 삼판 자리가 뚜렷하거든. 그냥 그래,

“하하! 여기가 있구나!”

그런데, 그 밑에 길이 큰길이 뚫려 있어. 이제 그래서,

“천상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인저 산소나 이리 모셔오는 수박이 없다. 그거 하나만큼은. 인저 돈, 우리 아버지 덕분에 돈 다 내별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저 백골이라도 천대 만대 그저 안전한 데에 모시는 것 밖에는 없구나!”

그러구. 그 생각을 하구서 내려오는 거여, 봐 두구서. 아 내려오다 보니 께, 아 그 밑에 오막살이 집이 바로 있네. [조사자 : 아! 그 좋은 자리 밑에요?] 음. 좋은 자리 밑에. 근데 옛날에는 절대 집 주위에 그렇게 절대 마음대로 묘 못 썼어. 지금은 막 쓰나들? 옛날에는 절대 안되었어. 그래 참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여. 그 암만 참 저 벼슬아치라도 그저 막은 못했어. 옛날에도. 그런데 아 집이 있거든. 탄복을 하는 거여. 이 사람이 그냥,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저가 집이 있으니, 내가 돈이나 많으면 참 저 집에를 어디서 살게 해주구서 그럼 되는데. 돈도 없구.”

그래 한탄을 허구서 그냥 씨억 내려 왔어. 내려와서는 인저, 아 그 집에 들어갔어. 그집에 어떤 사람이 사나 가보니까 주막이여.

술 팔고 있어. 되박술루다. 되박술루다 팔고 있는데 사람이 인물이 좋아. [조사자 : 술파는 사람이요?] 음. 인물이 좋아. [조사자 : 남자여. 술파는 사람이 남자에요?] 여자지. 여자가 술을 팔고 있는 거지. 그래 인저, “술을 한 잔 달라.”

구 허서 먹구. 그러니까, 술 주모가 이상하게 쳐다보거든. 자꾸 쳐다 봐.

“아! 그 왜 그러냐?”

고. 그 인저 이 사람이 물었어.

“어째서 그래, 아주머니는 여기서 혼잔 거 같은데, 어떻게 허서 여기

서 술을 팔고?”

그러니까. 인저 쳐다보고 있는데, 거동을 알고 이를 물었어. 물으니깐,
“그러며는 제가 혼자가 아니었구, 직 어머니가 같이 모시고 있다가 3
년에 돌아가셨고. 나는 사실은 내가 술장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술장사
가 아닙니다.”

“그럼, 왜 아주머니는 술장사를 하고 있으?”

“나는 하두 저 10년 전이 되는데, 하두 고마운 분을 찾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곧 지나가다가 만날까 봐서 이렇게 서서, 술을 앉아서 술을 팔고
있는데, 늘 내가 찾는 분은 오들 앓구.(웃음) 내 3년간 참 혼두 나며서,
나며 살아왔어유.”

그러며는 자꾸 쳐다 보더니,

“그 어서 둘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해설랑 들어오셨수?”

그러니까, 그래 이 분이 애길 헐다아.

“나는 사실 어디어디 살았는데, 참 우리 아버지 재산이 많아서 우리
아버지가 매일 나한테 돈 쓰는 걸 가르쳤다. 그래 가지구 참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 다 그냥 없애도록 하시구는 우리 아버지는 돌아
가셨다. 그런 뒤로 나는 그냥 떠 가지구 저기 저 산중의 절에 가서, 절
에 올라가서 10년 살다가 인저 내려오는 거여.”

“그러면, 그러면 당신을랑은 그때 좋은 일 한 건 생각이 나슈?”

하고 묻더라.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 한게 읍오. 좋은 일 한 거는 읍구, 그제
친구하고 나허고 그냥 술 먹구 그제 그런 건 있었지. 크게 좋은 일 한
거는 읍오.”

“아이, 좋은 일을 하셨지요. 왜?”

그러디 영 생각이 나아지.

“안 했다.”

좋은 일을. 근데 술주모는,

“했다.”

구. 그러더니,

“그러면 그 때에, 그 왜, 그 어디쯤 동네에 가시니까 그 사람 많은 디서 싸움하는 거 구경하셨쥬?”

가만히 생각해니깐 그게 맞거든.

“아! 예 생각이 나는군요.”

“아! 그때 좋은 일 안하셨어유?”

“아! 나 좋은 일 한 일 읍어요.”

잊어버린거여.

“좋은 일 한 건 읍어요?”

“그때 좋은 일 하셨어요.”

그러니깐,

“아! 좋은 일 한게 있어야지요. 좋은 일은 안하구, 그 싸우는 건 구경은 했지요.”

여영 생각은 못하는 거여. 이 사람이 덕 쌓으면 그걸 잊어버리는가며.(웃는다.) 그걸 내가 아무게 덕 쌓는데 덕 받는다 하는거여. 그래서 그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여.

“그쩍에 왜 그 모녀가, 그 노인네들은 뺏어갈려구 하구, 모녀는 안 갈려구 할 때 당신께서 돈 이백 냥 내놓은신 거 생각 안나요?” 하니까,

“아!”

[조사자 : 그때사 생각이 나요?]

“아! 내 그랬다.”

구.(일동 웃음) 일러주는대로 생각을 하는거여.

“그러니 그랬다.”

구. 그러구선,

“그때 그게 바로 나입니다.”

[조사자 : 아, 그 딸이었네요?] 영.

“아! 그러슈. 근데, 왜 술장사를 하유?”

“예! 그러지 마시구 인저, 인저, 인저 알았으니 찾았소, 나는. 그러니까 가 목욕을 하십시다.”

물에 데워서 목욕을 시키더라. 가서 즉시 달려 쫓아 들어가서 때를 닦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아 의옷을 한 벌 해 냈어. 오면, [조사자 : 해줄려구요?] 줄라구. 난 모르겠어. 비단 한 벌 턱 갖다 내주는 거여.

“이거 입으시오. 나는 평생을, 당신은 나를 싫어할런지 좋아할런지 모르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10년 술장사를 했어도 내 몸 한 번 흘리게 안했수. 당신한테 바칠라구. 그러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러졌습시다마는, 당신이 나를 죽여주고, 나를 싫으면 나를 죽여주고 가구, 당신 처분에 달렸으니까. 나는 당신의 몸이 된거여. 아, 그러니 오늘 아주 참 하늘이 정해주신 배필이니까.”

그러구서 인저 밥을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신방을 꾸며 주더라. 그래가지구 얻어가지구 살구.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를 거기다 모셨어. 그래가지구 나니켄두루, 그냥 자손을 나면서 자기도 글을 많이 했지만 자기 텀박 베풀하고. [조사자 : 텀박요?] 담박 그냥. [조사자 : 응, 바로요?] 영. 바로. 자기도 그냥 그 부모님들 그거 모시면서 베풀하고, 자손들도, 그 아래로 구대승승지가 뭔데. 구대승승지, 삼판서면 뭔데. 판서 판서 셋이잖어. 그런 자리도 있는 거여, 우리나라. 시방도 있어요, 읍지 았어. 근데 찾들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덕을 쌓으면 그런 일이 나오는 거야. 그래 저 아까 이 교리도 그저 지나가는 사람 그저 밥 해주고 재우고 보내고, 재워 보내고 한 끝뜨머리에 덕을 쌓은 거 아녀. 그 분도 그 직 아버지가 그게 재산 내버려 뒀어봐. 그냥 자기가 그냥 쓰구 없어지는 거여. 그렇게서 덕을

쌓았기 때문에 자기 좋은 자리 들어가구. 그것도 알아봤던지 그건 몰러. 뭘 알고 헌건지. 가보고 스님이 그리 사람을 알아본 거여.

“너는 덕을 쌓은 사람이다.”

그래 인저 10년을 딱 살고 내보낸 거여. 그거 인저 그렇게 살라구.

“너는 나가야 된다. 산을 내려라.”

아 안갈려고 하니까, 인저 억지로 내보낼려는 거여. 그래서 나가서 나 간디. 자기가 덕을 쌓은 사람이 그와 같이 참 지달리고 있다가, 내 배필 이 정해지구. 그런 일도 있다는 거여. [조사자 : 과연 시대가 조선시대 쯤 돼요?] 암, 조선시대지. [조사자 : 조선시대요?] 그럼.

[목신리 설화 3] 목신T 1뒤

목신 1리, 강현모, 이상도, 나유식, 현영국 조사
박병철(78, 남) 1995. 11. 11.

도깨비는 없다

제보자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기억이 잘 안난다며 거부하였다. 조사자가 다시 도깨비 얘기를 유도하자 마지 못해서 해주었다. 그렇지만 별로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자신있는 목소리로 구연을 하였다. 이 이야기는 목신리에서 전해지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어려서부터 들어왔다고 강조하였다.

도깨비는 요 동네 얘기를 하지. 내 도깨비 얘기를 한번 할께. 이 건너에서 보니까, 저(반대편), (손님이 찾아와서 구연이 잠시 중단되었다.) 거기다 된 거여. 저 건너에 여기서 보니까, 요기 조기 저 동네에 도깨불이 그냥 왔다갔다 하더라. [조사자 : 도깨비불이요?] 응.

그런데 또 옛날 얘기도 아니고 실제 얘기여. 도깨비 불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쪽 동네서들, 아주 짹막해요 여기 이 얘기가. 이쪽에서들 건너

다 보고,

“저기 도깨비가 돌아댕긴다.”

고 그랬단 말여. 하나 둘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구는.

“화야! 저기 도깨비 불 보라고. 많이 돌아 댕긴다.”

그랬단 말여. 근데 인저 도깨비 불을 모르는 사람도 그날 저녁이 도깨비 불을 다 본거여. 그래가지구서 그 이튿날들 인저 그 여럿이 봤으니까 나가서, 그 인저 그 동네 사람들이랑 얘기가 있지 않았겠어?

“도깨비가 여기서 왔다갔다 하더라.”

“언제?”

“엇저녁에!”

“이 미친놈들!(계속 웃음) 무슨 도깨비 불여.”

“아! 우리가 보니까 도깨비가 환하게 불을 키고 이놈이 왔다갔다 하더라.”

하면서 돌아나던데 뭘.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건너 네 몇 집을 그러더라고. 그런게 여기서 지켜봤던 모양이여. 사랑에. 옛날에 사랑이 있었지 왜? 사랑. 아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이,

“그런게 아니라, 영근네 영근아버지가 토사가 나가지고서 저 뒷간에 가시는데, 그냥 밤새도록 돌아 댕졌다더라. 불을 켜 가지구.”

그래서 누구가 뭐라고 그래도, 도깨비는 없는 줄 알구들 살어. [조사자 : 없대구요?] 응, 없어. 이게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인저 그걸 겪은거여.

[목신리 설화 4] 목신T 1취

목신 1리, 강현모, 이상도, 나유식, 현영국 조사
박병철(78, 남) 1995. 11. 11.

‘여자 열보다 나은 남자’의 유래

도깨비 이야기가 끝난 뒤 어머니가 호랑이 눈에서 나는 빛을 보고 도깨비불로 착각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나서, 조사자가 수수깡 이야기로 화제를 유도했으나 '그건 모른다'고 하며 곧이어 꺼낸 이야기이다. 제보자의 개인적 심리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았고, 할머니가 가까이 왔을 때 약간 망설이기도 하는 눈치였다. 잃어버린 기억을 고집어내려 한 동안 생각하는 모습을 하며 이야기를 하였다.

거, 옛날 얘기가 하나 있으면, 거 저기지.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는 이게 있어. 한 사람이 딸을 두었는데 잘 두었어, 딸을. 진실 허게 잘 났는데, 소금장사를 했어. 짬막해 이것두.

소금장사를 했는데. 그전에 소금을 지구 댕겼어, 지게에다가. 근데 인저 소금을 지구서 인저 가는데, (허허) 장동을 하나는 이구 하나는 지구 이렇게 가는데, 장성을 올라가다 보니까는 왜 등짐애비가 장에 갔다 오는게라. 그게 암말두 안하면 그게 무슨 상관인 있는 거여. 그 올라가다가 남자는 그저 꼬득꼬득 올라가구. 여자가 그저 돌아보구,

“여보! 여보!”

“왜유?”

“저기 저 집에 절대로 가지 말우.”

“왜유?”

“저기 가든, 그저 우리 딸 참 아주 나이찬 딸, 좋은 딸이 있수우.(웃음) 거기 들어 가지 말우.”

“아! 예 이루다 뿐입니까. 거기 왜 갑니까?”

이. 인저 가만히 아 그걸 물었어.

“아! 아주머니 뭐허러 가슈우?”

“아, 인저 우린 소금장사를 하기 때문에 소금 팔러 가유.”

“예, 식구는 몇이나 되시유?”

“단지 시 식구지 뭐.”

우치 알겠냐구. 아 그러믄 이 장사놈이 장사허다 말구 그리루 간거여.

그래가선 들어가선, 그래 참 이름까지 물어봤다. 이름까지.

“거 따님 이름이 뭔데요?”

“아 뭐라.”

구. 얘기 했거던. [조사자 : 그 장사치가요?] 응. 들어가. 인저 가서는 그 집이 들어가서는 대문간이 가서는 아,

“아무개야!”

불른단 말여. 아 이상하거던. 누군지 알아.

“너, 몰러 보는구나!”

근데. 얘기 못허건네 이 얘기.(웃음)

“너, 너, 너, 몰러 보는구나! 아, 아무개 사는, 아무개 사는 아자씨다.”

(주위가 할머니를 찾아온 손님들 때문에 소란스러웠지만, 제보자는 개의치 않고 구연을 계속하다가, 워낙 소란스러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니 집안에 당연히 잠을 청하지. 그러니 어머니도 참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것이 옳지. 그러니 딸을 둔, 그런게 여자는 남자에게 적, 그래서 여자허구 남자허구는 적어두 열 명 정도는 된데. 암말두 안했으면 괜찮았지. 근디 인지 아이 내우가 장사를 하구서 집이 들어오니까. 애가,

“엄마!”

“왜?”

“아! 우리 아저씨 다녀 가셨어.”

“우쨌 아저씨가?”

“아, 여 엄마들이 저 어떤 어떤 곳에서 가다가 만나셨다메.”(웃음)

“어!”

저희 아버지는 영통허니께 새겨 들었어. ‘어’ 큰일났어.

“이 그래, 너 그 양반이 너 어떡 하데?”

사실 얘기 했어.

“아이쿠!”

그제사 여자 열 죽어두 남자 하나보다 아깝다. 그제사 마누라 보고 참 어이가 없지. 그냥 아르케 주고선 딸, 옛날이능, 그냥 옛날이는 이런 일 두 있었지.

이런게 저 언덕이 가는 수주깡(수수깡) 얘기 것들에 쫓려서 수수깡이 빨깡다는 건 죄 그짓말여. 그런 건, 그런게 이런 얘기는 참 실지 얘기여. 있던 얘기여. 근데 호랭이나 이런 것 그짓말 저서 허는 얘기구. 그러나 저러나 저 저 이런 얘기는 진짜 얘기여.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 다른 이야기를 유도하려 했으나, 체보자가 결론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잠시 듣고 있었다. 결론 내용 역시 청취불능인 곳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 첨부한다.)

이런 얘기 듣는 거여. [조사자 : 예, 좀 야한 얘기도 듣고요?] 그러니까 언젠나 여자는 못, 믿을 없다는 거. 그래서 여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여. 그때 그 내우에 갈 때 남자처럼 즘잔케 갔으면 괜찮은건데, 그 뭐 하러 돌아서서 일뤄주나.(웃음) 그때 그거 영, 근데 여자 생각은 뭐냐? 들어갈까 봐 단속한 거여 그게. 근데 들어가라구 일러준 게지. 몰르고, 들어가라구 일러준 거 아냐, 근데. 인저 단속한 거란 말여. 응 요렇게 즘 약다 이런 얘기지. [조사자 : 생각하는게 좀 나왔다고요?] 인저 그런 얘기두, 여자두 좀 알아두야 하는디 하는 얘기여.

[목신리 설화 5] 목신리 1뒤

목신 1리, 강현모, 이상도, 나유식, 현영국 조사
박병철(78, 남) 1995. 11. 11.

효부를 밝혀낸 어사 박문수

앞의 얘기가 끝나고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했지만, '제보자가 혹 기억 못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어사에 얽힌 이야기를 혹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있지만, 그 옛날 박문수, 박어사 그런 참 암행어사가 있지. [조사자 : 박문수 어사에 얽힌 간단한 얘기 간단한거라 두.] 옛날에 박문수, 박어사랑 고양 박씨여. 우린 밀양 박씨구.

고양 박씨네. 박문수 박어사가 아주 그냥 유명하였어. 유명하셨는데 인저 다 잊어버렸어. 이거 뭐 서두가 없는데 다 일(잊)어버렸어. [조사자 : 괜찮습니다.] 그 박어사가 하두 참 명확한 양반이라, 좀 말허자든 참 제일 꼽는기여. 그래서 그이가 경상도 여두루, 그러니까 내륙으로 횡돌어다닐 때랴. [조사자 : 경상도 쪽으로요?] 응.

한날 지나가 보니까 소문이 났는데 이거 다 잃어버렸어. 소문이 났는데 아 아무개내는 이는 소문이 났는데, 시아버지는 홀애비구 메느리는 과부구. 그런데 살어. 그런데 부자여. 근데 소문나기를, (왔던 손님들이 가느라 이야기 판이 잠시 소란스러워졌고, 제보자의 이야기도 잠시 중단되었다.) 소문나기가,

“시아버지 하구 친하게 지낸다.”

이래가지구서는 주막거리서, [조사자 : 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과부하고 홀애비니까요.] 친하게 지낸다. [조사자 : 친하게 지낸다구요?] 응. 말하자면 저 서루 인자 살을 통한다는 하는 얘기지, 쉽게. 둘이 친하게 지낸다. 아 이 주막이서 야단이거던. 아 인저 그래, 그냥 뭐 으사지만 그냥 그런, 묻두 았구 그냥 잘 듣기만 허는 거지. 그게,

“내가 의사요.”

허문 탄로가 나 되냐. 그 의사는 지금은 뭐냐 저 응-, 자꾸 인저 얘길 헐라든 앞이 맥혀. 그 뭐야. 시방 저 금사 말구 그 시방 서울서 왜 경찰

이거 하는 제 뭐야 이름이, [조사자 : 경찰일요?] [판사들?] 아 이거 생전. [조사자 : 판사요?] 아냐. 아냐. 그것두 아니구, 저 따루 있지. [조사자 : 장관요?] 장관두 아니구. 저, [조사자 : 비밀경찰요?] 응, 비밀경찰. 저 이복놈덜 잘 잡는 거. 안기부. [조사자 : 아. 예! 안기부.] 지금이루다 안기부지, 그때 암행어사가 그거여. 시찰 땡기면서 잡아 덜 이구.

그 인저 그렇게 소문을 듣구서, 가만히 듣고서 그 집을 찾아갔거든. 가서 인저 가보니까 참 부자여, 과연. 부잔데, 들어가 인사를 톡 하니까 사람이 점잖어, 권이. 거 점잖은데. 어떻게 돼나 인저 근너를 보니까,

밤중쯤 돼니까는 이 저 이 시아버지가 집 순행을 돌아. [조사자 : 집 주위에.] 원래 집이 크니까. (이야기와 상관없는 아이에게 말하는 부분 생략) 집 순행을 도는데, 집 순행을. 그러니까 인저 이 박문수 박어사가 그 뒤를 안보이게 쫓아다니는 거여. 그러니까 저 미느리 방에를 가 보니까, 그러더니 그 주인 그 시아버지가 거기,

“어험!”

하거든. 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손을 이렇게 하니깐(손을 내미는 모양을 하며) 시아버지가 받는다 말여, 뭘. 뭘 손을. 악수하는 것 같이 보인다 말이여. ‘아 과연 그런가 보다’ [조사자 : 소문대로요?] 음. 과연 그런가 보다 그걸 알았어. 그런 뒤에 그 얼른 들어가서 또 인저 숨어 있다가, 또 인저 박문수 어사가 또 나와서 또 도는 거여. 또 도로 바로 거기 가서,

“어험!”

하니깐. 또 문을 부시시 열더니 내 쥐. 보니깐 술이여. 술을 받아 먹는 거여, 시아버지가. 근데 남들이 이걸 볼 때에 이게 몰르고 악수하는 것으로 보았던 말이여.(웃음) 그래서 과연 그거 참 효부구 참 예(禮)스러운 아버지로구나. 그래 들어가서 그집에 상(常)을 태웠단 말여.

[조사자 : 그런데, 왜 며느리가 왜 술을 갖다 줬어요?] 아 인저 도니

까. 시아버지가 목이 킁킁할 거 봐. [조사자 : 아. 그래서 술을 드리는 군요?] 대접으로다가. [조사자 : 진짜 효부네요?] 음. 그럼. 그것 효부지. 그러 효부상을 탄거라네. 저거 박문수 박어사가.

그래 그 양반은 그 박 박어사는 그렇게 땡겨도 남의 여자를 탐내지 않았디야. 그런데 그 궁내에서 물 이구 하는 여자들이 따로 있었다야. [조사자 : 물?] 물 길어 오구, 왜. [조사자 : 궁에서요?] 응. 궁내에. 인자 그러면 그건 생전 남자 구경을 못하지. 그거를 데리고서는 후처를 쫓단 말여. 근게 그게 보통이 아니지. 그러면 그 여자들은 보면 땀을 흘리고 그랬디야. 옛날에는. 거기 있어두.

그러니 맘에 남의 거기 있으면 그냥 깨끗하고 좋은 줄 알아도, 그 옛날 그때에 땀을 흘리고 뉘새도 날 정도로 그랬디야. 그런데 그가 무슨 재주를 가졌나 처녀로 생전 남자를 구경 못할테니까. 그렇게 아꼈던 거야, 박어사가. [조사자 : 그 사람들을 아껴 줬다구요?] 응. 그렇지. 그거지.

책자에 보아도 박문수 박어사가 다 나와. 돌아당기면 그 양반이, 박어사가 일한 것은 수도 읍이 잘 했어. 많이 했디야. 수도 읍이 잘해가지.

[목신리 설화 6] 목신T 1뒤2앞

목신 1리, 강현모, 이상도, 나유식, 현영국 조사
신영균(75, 남) 1995. 11. 11.

‘십죽’이라 말한 어사를 구한 어린이

제보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옛날에 살아온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그런 얘기 말고, 호랑이 얘기나 어사 얘기를 해달라’고 하자 해주었다. 청중은 부인과 4살된 손자가 있었지만, 관심이 없는 듯 하였다. 쉬는 동안 할머니

니께서(부인) 양봉을 해서인지 꿀차를 한 잔씩 마시라며 내주었다. 이것은 어릴 때 서당에서 훈장을 지내시던 고모부님한테 들었다고 한다. (녹음상태의 불량으로 제공한 자료를 기억을 근거하여 정리한 것임.)

학자가 팔도유람을 하고 있었다. 암행어사였는데 유람을 하는 동안 아주 영특한 꼬마를 데리고 다녔다. 이미 그 어사는 꼬마의 영특함을 알고 항상 그 꼬마를 데리고 다녔던 것이다.

하루는 산을 넘다가 날이 저물어서 산속을 헤메고 있었다. 산을 계속 넘자니 날이 저물어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쉬자니 주위에는 인가가 없었다.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보니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볼 수 있었다. 운이 좋았던 셈이다. 그 집 앞으로 가서,

“이리 오너라!”

하니까. 한참 후에 한 여자가 나왔다. 나이도 젊었고 모습도 상당히 아름다웠다. 어사가,

“사정이 이러이러 해서 하루저녁 신세 좀 져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고 했다. 이제 어사와 꼬마 두 사람은 하루 저녁을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집에는 방이 두 칸 있었는데, 아랫방에서는 주인 여자가 자고 윗방에서는 암행어사와 꼬마가 자게 되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어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저녁에 본 그 주인 여자가 너무 예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아랫방에서는 불이 커져 있었다. 그래서 어사는 문구멍을 내고 아랫방을 훑쳐보고 있었다. 문구멍을 내고 가만히 보니까, 그 주인 여자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어사는 그전까지 한 번도 여자를 희롱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여자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문구멍으로 들여다 보며,

“씹 줌! 씹 줌!”

하고 나즈막히 말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여자가 나중에는 계속,

“씹 줌! 씹 줌!”

그러니까 얼굴을 붉혔다. 단지 얼굴만 붉힐 뿐 아무런 반응이 없자, 어사는 그냥 잠을 잤다. 그런데 아침에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서 일어나 보니까, 밖에 키도 크고 덩치가 산만한 한 남자가 그 주인 여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어사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남편이 없는 줄 알고 ‘씹 줌! 씹 줌!’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알게 되면 자기는 이제 죽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가만히 꼬마가 어사의 거동을 살펴보니까 평상시 하고는 달라 보였다. 그래서 어사에게 꼬마가,

“왜 그러냐?”

구. 물어 보니까 어사가,

“이러이러해서 어제 저녁에 주인 여자에게 ‘씹 줌! 씹 줌!’ 했는데, 이제 만약 남편이 알게 되면 나는 이제 죽었다.”

고 하자 꼬마가,

“죽긴 왜 죽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하였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걱정 마세요.”

그랬다. 무조건 자신이 시키는대로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했다. 어사가,

“그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내 이름이, ‘씹 줌!’이라고 하십시오.”

그랬다. 그말이 맞는 말이었다. 이윽고 죽이려고 하자 어사는 꼬마가 시킨대로,

“꼬마 이름이 ‘씹 줌!’이어서 이 꼬마를 부르고 있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주인집 여자 남편이 그 꼬마에게,

“그것이 사실이나?”

“사실이다.”

고 했다. 그러니, 주인집 여자 남편은 더 이상 할말이 없었다. 그 정도로 어사가 데리고 다니던 꼬마가 영특했던 것이다. 그래서 암행어사도 큰 창피를 면할 수 있었다.

7. 두 창 리

[마을 개관]

두창리(杜倉里),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1995. 11. 20.

용인 터미널에서 버스를 잘못 타 백암리에 내린 조사자들은 경찰아저씨의 차를 얻어 타고 1시쯤 지나 두창리에 도착하였다. 이 마을은 원래 죽산군 원삼면 지역이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두촌, 분촌, 가좌리, 창동의 일부를 합쳐 두창리라 하여 용인군 원삼면에 편입되었다. 백암리와 같은 용인군인데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시골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대부분의 집마다 농사를 짓고 있고 주위엔 슈퍼 하나 보이지 않았다. 조그만 공장이 하나 있었고, 언덕 위에 회사 사옥이라는 5층짜리 연립 두 채가 덩그라니 서 있었다.

마침 산보하던 아저씨의 도움으로 용수마을에서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었다. 후로 용기를 얻어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를 청했다. 날이 곧 어두워져서 7시쯤 마을에서 나왔다. 용인터미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 마지막으로 채록을 하였다. 힘들고 고생스런 작업이었지만 나름대로 얻은 것도 있고, 시골 인심의 훈훈함도 오랜만에 느껴볼 수 있었다.

[두창리 제보자 1]

이상운(64, 남) :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1995. 11. 20.

우리는 두창리에 도착하여 노인정을 찾았으나, 농한기가 아니라 이야기해 주실만한 어른이 없었다.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며 낙담하고 있을 때, 어느 할아버지의 추천으로 고개를 넘어 어른이 많이 산다는 용수마을을 찾아갔다. 조사자는 용수마을에 도착하여 경운기를 고치고 계시던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에게 이 마을의 유래를 듣게 되었다. 이때 제보자는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불러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제보자는 입심이 좋으셨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계셨다. 그리고 농민으로 이곳에서 태어나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는 제보자는 두창리의 유래 등 많은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도 추워하지 않고 재미있게 구술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1 ~ 7.

[두창리 제보자 2]

김성식(42, 남) :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1995. 11. 20.

비닐하우스를 나와 마을의 다른 제보자를 찾아 나서던 중, 길에서 만난 중년의 아저씨였다. 조사자들이 조사나온 목적을 말한 뒤에,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이야기 하나만 해 주십사' 하고 청하니, '자신의 군대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반갑게 응해 주었다. 급한 볼 일이 있었는데도 조사자의 부탁을 물리치지 못할 정도로 인정이 있으며, 이야기를 하나밖에 못 해 주시고 갈 때는 우리들에게 미안한 표정까지 지으시며 친절하게 말을 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8.

[두창리 제보자 3]

박운복(68, 남)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1995. 11. 20.

조사자 일행은 다시 마을의 노인정을 찾아갔다. 노인정에는 7-8명의 노인들이 있었는데, 조사자가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 이야기판을 만들어 주었다. 제보자는 이곳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으신 듯 모든 사람들이 추천하였다. 제보자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가 녹음되는 것이 즐거운지 시종 웃으며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면서 조사자들을 친근한 표정으로 대하여 주었다. 또한 이야기를 편하게 하여 주위 사람들의 공감도 얻었다.

제공자료 : 설화 9.

[두창리 제보자 4]

조동선(83, 남)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1995. 11. 20.

조사자들은 노인정에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기 위하여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다. 정류장에는 많은 할아버지들이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마침 버스가 오자 모두 타고 가버리셨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할 수 없이 두창리의 가장 위쪽 마을인 주내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행히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한 아저씨의 차를 얻어 탈 수 있었다. 저수지를 끼고 있는 그 곳은 다른 마을에 비해 굉장히 외지고 몇 가구 살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한참을 헤매다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노인 한 분을 뵈고 이야기를 청했다. 무엇을 해 줄까 망설이다가 훌륭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좋겠다고, 우리를 평상에 앉히고 말씀하셨다. 이제껏 만난 제보자 중 가장 연장자이셨으나, 아주 정정하고 생각이 끊임없어

자연스럽게 구술하셨다. 어린 시절 서당에 다녔다는 제보자는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

제공자료 : 설화 10.

[두창리 제보자 5]

이영한(72, 남)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1995. 11. 20.

노인정에 여러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신 가운데 설화를 채록하고 있었다. 이때 어디서 술을 마시고 온 제보자에게 노래를 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제보자는 웃으면서 노래를 하였다. 정확하게 알아듣기 힘이 들었지만, 연세에 비하여 너무나도 정정하게 보였다. 노래를 시작하자 주위에 있던 할아버지들이 함께 '얼썬'하며 추임새를 넣기도 하며 맛장구를 쳐주었다. 노래를 청하자 바로 시작하여 주는 인정심도 보여주었다.

제공자료 : 민요 1 ~ 2.

[두창리 설화 1] 두창리 1호

두창리 용수마을,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이상운(64, 남) 1995. 11. 20.

용수의 샘과 마을 유래

용인에서 힘겹게 도착한 우리는 노인정을 돌았으나 농한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얘기를 해 주실만한 어른이 안계셨다. 낙담하고 있을 때, 어느 할아버지께서 어른이 많이 살고 있다는 용수 마을을 추천해 주셨다.

용수 마을에서 지긋하게 나이를 먹고 경운기를 고치던 할아버지께 용수 마을의 이름에 관한 유래를 듣던 중, 입심 좋으신 길가던 60대의 할아버지인 제보자에게 아래와 같은 많

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제보지는 농 민으로 두창리의 유래와 같은 사연을 많이 들었으나, 추운 곳에서 이야기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 올해 옛날 7년 대한, 9년 지수가 있다고 안혀. 하도 가물어도 그 기는 물이 안떨어져. 그 저너머 이쪽 사람 세 동네가 와서 먹었대요. 이것을 퍼 퍼갔대요.

[조사자 : 지금은 왜, 어떻게 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설이 왜 되냐면, 저기 사람 이 가래이 형국인데, 그런데 저기 길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왜정 말년, 그전에 사람이 당기면서 쪼끄만 소로길이 있었거든랑.

그런데 해방 전 왜정 때, 그때 마차가 처음 생겨가지고는 마차길 다니냐고 그 맥다 다 끊고, 그냥 저 저기 그냥 도자다 내문지르고 자꾸 이러서나.

그래 그거는 인저 그 첫번에 소로길 날 적에 여기 무슨 투장을 했어요, 요기다가. 저쪽 집 뒤에 가서 사람이 겨우 뒤뚱 누울만 한데, 고기다가 자리를 못잡아가지고 계획자리고 거기다 가다가서나 누가 저 산소를 투장을 했대요. 묘를 갖다가 묘를 썼대요. [조사자 : 몰래 갖다가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놈은 물이 딱 딱 끊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물이 그냥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물이 이렇게 우선 깊지를 얇고는 지질르이 좀 흘러내려 가잖아요. 그래 인자 그 저 그때부터 물이 끊어져가지고 영, 갱 갱갈도 읊어지고, 그냥 전설이 나가지 읊어진 거지. [조사자 : 그럼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 그냥 다 읊애고서 개간 다 헐거지. (그 근처는 현재 개간을 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함.)

장등, 저 저기 저 사람 가랭이, 이 궁둥이 형국마냥 넓적 하잖아. 거기다가 누가 투장을 하고선 여기 물이 끊어졌다고 하잖아. 여기가. [조사자 : 애기 낳는 자궁?] 그렇지. 사람을 따지면 이렇게 가랭이가 있는데, 여기 부살 같이. 여기가 꼭 찌었으니까 그냥 죽은 거지. 거기가. (샘물에 대한 현재의 상황은 청취불능으로 생략)

그 거시가 용왕전에서. 인자 우리 쪼그만 했을 때 보면, 얼지를 안해

요, 겨울에도. 아 그래서 인저 우리 쪼그마 헬 때 보면, 그 옛날에는 조상님 전에 가물어 가지고서는 그냥 이 세 동네가, 물, 물이 여기 계속 나오니까는. 그 미지근 하고 그러니까는, 들어가가지고는, 예전은 향아리채 든채 여기다 모으고. (이후 부분 생략)

용은 한 댓개씩 용이 서서 올라가잖아. 이렇게 빙 돌고 돌아 올라가무시리, [조사자 : 돌아서 올라가요?] 영. 떨어져서 연결하면. 옛날에 용뚫 올라갔다는 소리도 있구. 용이 이렇게 물이 용솟음쳐서 한 댓 개씩 올라가서 떨어지잖아. 용수리 같이 돼가지고 용수, 용수 부락이라고 이렇게 전설이 돼 내려오는 것을 들었지.

[두창리 설화 2] 두창리 1화

두창리 용수마을,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이상운(64, 남) 1995. 11. 20.

궁합원단의 유래

앞의 이야기의 비슷한 마을이 유래이다. 앞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구술한 것이다.

양지서 들어오는데, 미평리의 학교 저기 한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좌전. [조사자 : 아, 예. 거기 좌전이라는데 있어요.] 응, 좌전. 좌전서, 그 좌전이란 데를 한골이라고 왜 했나하면, 여기 궁합원단이 있어요. 지금 저 정부로 들어가는 커브 꺾으는데 거기가 옛날에 여기에 번단이 엄청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 옛날에 말을 많이 맵히고, 군사를 갖다가 이렇게 집결을 많이 시켜서, 옛날에는 인저 칼 가지고 활 가지고 싸울 적에. 그래서 그 궁합원단이라면, 그 궁, 저기 말 같은 걸 막이고 군사들이 많거든. 궁합원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설이 내려와요.

그래서 인자 옛날 전쟁 이야기에, 오랑캐와 여기하고 싸우는데, 그 군사를 거느리고 막 가다가 냅다 그냥 적병이 디미니까, 그냥 오자 정지하라는 데가 정지 고개가 있고, 행군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지 고개에서 정지했다가, 고 행군리라는데 있잖아. 그 다음 나오니까 행군을 해야된다고 해서 염원, 또 행군 해가지고 그 초 뭐라고 허지. 저 북쪽으로 인자 말이야.

[조사자 : 임진왜란 때 말인가요?] 그래. 이 보통 몇 백년 전인가봐요. [조사자 : 임진왜란 때요?] 응. [조사자 : 임진왜란 때 얘기면 한 오백년 이상 됐겠네요.] 500년 아니고, 한 300년 참 전. [조사자 : 그래도 그때 이조 중엽쯤.] 지금 이순신 장군이 한 370-380년 정도 되었나? 그 정도 된거지 뭐. [조사자 : 그럼 그때 고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건 우리 나라끼리 옛날 싸운 것이니까(웃음) 그뎨 뭐.

그뎨 청나라건 저기 뭐 중국 같은데 나라, 당나라가 당태종이가 인저 쳐들어 올적에 뭐, 그때 당시는 뭐 전설로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대만. 군대들을 갖다가 수만 수천 명 거기다 집결시키서 말을 막고, 인저 거기서 전쟁하려고 가다가 인저, [조사자 : 그러니까 여기가 말을 기르고 그러는데군요?] 그렇지 뭐. 군사같은 거 말 집결시키는데, [조사자 : 그런데 거기 마을이 무슨 마을이죠?] 거기가 인저 저기 궁합원단이. 옛날에는 집도 몇 몇개 있지 안되었던 같애, 그 궁합원단이 그 동네라고 해갖고. [조사자 : 궁합원단요?] 궁합원단. 궁합원단 부락이라고도 불르고.

인자 읍지. 지금은 싹 읍지. 집이 몇 집 부서지고서 인제, 지금은 그냥 큰 바다구니가 산처럼 생겼는데, 번다구니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홀랑 그냥 농지 정리 하느라 그냥 논 개간을 해버렸지 뭐. [조사자 : 아, 개간해 버렸어요?] 응. 가다 보면, 여 정부에서 나가다 저기 미평리 가다 보면, 지금 저기 번다구니가 하나 남았다구. 그 누가 사가지고서

몇 천 평 되는데. 거기가 공합 원단이라고 그래. [조사자 : 마을을 갖다가 정부에서 사다가 그 전쟁할 때 쓰게 한 건가요?] 아니. 여기도 지금 따지면 군대가 집결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지 뭐여. 지금 용인군에만 군사 사령부인가 이런 사령부가 있고, 지금은 땡크나 이런 것 같은게 있지만, 옛날에는 말같은 걸 말을 타고 와서 전쟁하고. 그런게 말을 수백 필을 막이고 군사들 있고, 그러니까 공합원단이라는 거 아니여. 그래서 거기서 전쟁 대기하고 있다가 전쟁 나면 올라가고. 오랑캐 쳐올라가고. 이렇게 전쟁을 한 거지 뭐.

[두창리 설화 3] 두창T 1앞

두창리 응수마을,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이상운(64, 남) 1995. 11. 20.

도깨비불을 물리친 사람

조사자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제시하는 중에, 도깨비 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다기에 이야기 해 줄 것을 말하자, '옛날에는 도깨비 불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보았다'며 멀리 보이는 집 한 채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1) 도깨비불

도깨비가 보통 그 집에서 많이 장난을 하느디, 감낭그(감나무)가 있는데 옆쪽에 보면, 저기 저 은행낭그. [조사자 : 은행나무.] 거기가 인차 그 옛날 그 집에 꽤 큰 감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와서 보면, 우리가 저 아래인데, 보면은 도깨비가 거기서 장난을 했다가, 저 대목우리라고 해서 들에 나가서 이따만한 두 불이, [조사자 : 크기가 얼마나 (했)습니까?] 아이 된박만 하지요. 요만한 된

박. [조사자 : 아 된박이요?] 된박. 요만한 바가지만 해. [조사자 : 그게 몇 개나 됩니까?] 2개가 되었다가 그냥 3개가 되었다가 허는 거여. [조사자 : 어떻게 움직이는데요?] 그야 그 근방에 어디 근방에 있다가 눈깜짝할 사이에 여기서 몇 백 리를 가는 거여. [조사자 : 몇 백 리를 가는 거예요.(탄성을 지름.)]

그 들이 엄청이 멀잖아. 거기 가면 큰 웅덩이가 큰놈이 있는데, 아 이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장난하다가도 기냥 번쩍하면 여기로 오는 거여. 그래 번쩍해서 어디로 갔나 해 보면, 여기 여 저기 감낭그에 대롱대롱 달려 있다고, 이 불이. 2개였다 3개였다 이런다구. 그래서 할아버지보구,

“저기 저 불이 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구, 왜 그렇게 크게 있어요?”
하니까.

“어. 어 그거는 도깨비가 날 곳으라고 장난한다.”구.

“아!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니까,

“도깨비가 보이면 니가 아냐?”(일동 웃음)

그거는 전설상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본 것이니까는. 그렇게 인자 본 얘기.

2) 도깨비를 물리친 사람

[조사자 : 그런데요. 혹시 그것 때문에 혹시나 사람 다치고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집이가 뭐냐면 도깨비가 있는 집들은 터가 세요.

그래서 저 황골 할머니라는 양반이, 저기 저 황골이라는 좌전 그 황골. 거기서 옛날에 시집을 왔는데, 그 양반이 좀 키가 적었는데 장담이 세요. 아이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겁이 나니까 못나오는 거여.

소두방을 갖다가 그냥 이 술 속에다 집어넣요. 아 이 도깨비가. 아 뭐 그 나와서 뭐를 하려고 해도, 이놈의 술뚜껑이 술에가 들어가 있으니 뭐 꺼낼 수가 있어야지. 아이 이렇게 그냥, [조사자 : 아 도깨비가 했다는 말씀이시로군요?] 그렇지. 재주로다가. 아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나중에 인자 그 이튿날, 밤 밤새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식전에 보면 도로 갔다 떡 얹어줬 대야. '떨꺼덕' 해놨어.

그러니까 도깨비가 재주로 재주가 좋은 거지. 그래서 인자 그리고 인자 모래를 갖다가 냅다 그냥 끼얹는 거야, 이 문에다가. 또 자갈 갖다 다니면서 그냥 냅다 둥그리고 들어온다문여 그려. 그러면 인저 아무도 없대, 문 열고 보면. 그래 이러면은 겁이 나니까 못나가는 거야. 아들들 딸들은. 그래 이 노인네가 그때 당시는 50대 밖에 안되는데,

“하 이거 밤중에 영 사람 알보고 그런다.”

고. 그냥 뭐 오줌뎡이를 그다 옆에다 놓고서 옛날에는 그래서 오줌뎡이를 냅다 내팽겨치면, 그러면 이 도깨비가 없어진다 구라. 그러면, [조사자 :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 그래가지구 인저 그 집을 갖다가 도깨비 터라 했는데, 그 집이 인저 뭐야. 그 양반이 돌아가고 나서부터 그냥 인저 집안이 자꾸 후리는 거야. [조사자 : 네?] 집안이 후린다고. 못살게 되는 거야.

지금은 인제 뭐 그 사람들 다 떠나고 없지. 뭐 애덜만 집에 살고. [조사자 : 지금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살었는데, 살던데 인제 거 원 주인들은 다 떠나고. 저 지금 저기 막내 아들, 아직 아니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 아들 장모 양반이 아들 하나, 손자 데리고, 외손자지 왼손자. 외손자 하나 데리고 있는데 지금 그 외손자도 서을 갔는지 없나 봐. [조사자 : 지금은 없죠?] 지금은. 그런게 나타나질 않는다구. 우리가 여덟 살 아홉 살 그때 나타났는데.

[두창리 설화 4] 두창리 1앞

두창리 용수마을,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이상운(64, 남) 1995. 11. 20.

마을을 폐허시킨 처녀귀신과 도깨비

마당에 놀던 강아지들이 도망가자, 어미 개가 소란스럽게 짖어대는 바람에 자리를 비닐 하우스로 옮겼다. 밖보다는 좀 따뜻하여 제보자에게 여러가지를 묻자 이야기를 해 주었다.

[조사자 : 그 마을이 어디쯤 되죠?] 그 마을 읍지, 인제 읍어졌지. [조사자 : 어디쯤인데요?] 지금은 여기는 다 밭이여. [조사자 : 얼마나 오래 되었죠?] 오래 된거지 뭐. 그때도 저기 한 200-300 년전 됐나 봐. 그 얘기, 얘기 헛거 보면 거 그때도 전쟁이 나고 그랬던 건데.

인제 거 마을이 있어가지고 사는데, 그냥 참 옛날엔 저기 무슨 혼인 정해 놓았다가 저 시집 못가고 죽는 사람 있잖아. 그 원한이 되어가지고 서는 그것을 말을 할라면, 그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죽는데, 사람이. [조사자 : 마을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저 죽은 귀신이 사람한테라도 말을 할려고, 자다가 자면 꿈에 얘기하잖어. 그 나타난데 꿈에 나타나면은, 거 대꾸를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군 그랴. 죽는데야. 남자가 괜히 사람이 죽는데야.

그래서 벽이다 인자 붙들고 도깨비가 장난을 해고, 아까도 도깨비 얘기했지만 도깨비 와서 막 불을 놓고 그란데 그냥. [조사자 : 아, 도깨비가 불을 놓는다구요?] 그랴. 어, 시방 옛날에는 짚으로다 지붕을 했잖어. 아, 그래서 이냥 못살겠으니까, 사람이 놀래 자빠져 죽고 하니깐, 다 떠나고 읍고 하니까, 지금은 수백년 전이니까 다 폐허 당해서 밭만 있고.

저기 가면 구들장들이 아직도 있다구. 구들장. [조사자 : 지금도요?] 지금도 기왓장이 나오고. [조사자 : 처녀 귀신 때문에?] 도깨비하고 그 처녀귀신 때문에, [조사자 : 그 마을이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 음 읍어진 거지. [조사자 : 마을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읍지, 그러니깐.

인제 파보면 그 속에 구들장이 있다구. 기와 깨진 것도 있구. [조사자

: 무슨 마을이었는데요?) 뭐 모르지. 몇 백 년, 수백 년 전 일이니까는. 다 여기는 용수 부락인데, 거기는 따로 떨어져 있던 거지. 횡대거리라고.

[두창리 설화 5] 두창리 1화

두창리 용수마을,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이상운(64, 남) 1995. 11. 20.

횡대거리

앞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난듯 구술하여 주었다. 이는 마을의 지명유래 전설이다.

왜 횡대거리냐 하면, 도깨비가 이렇게 불을 놔서 횡대같이 불이 잘 난다고 해서 횡대거리라고 불렀대. 불이 잘나고, 옛날에.

그런데 인자 이 놈의 도깨비가 불을 지르면 불이 확 나고, 확 나고 해서. 그래서 횡대불(사람이 죽으면 밤에 놓는 불)같이 일어나서 횡대거리라고 했대요.(일동 웃음)

[조사자 : 그러니까 도깨비가 불을 내서 횡대거리라구요.] 그렇지. 불같이 환해서. 횡대거리라고 한대요.

[두창리 설화 6] 두창리 1화

두창리 용수마을,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이상운(64, 남) 1995. 11. 20.

금으로 만든 베틀(장자뚝 전설)

앞 이야기를 마치고 스스로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어서 계속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장자뚝 전설의 변형으로 보인다.

저기 저 아래 강서방네가 임진왜란 땀가 언젠가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릇, 옛날 그릇 고려자기 깨진 그릇이 엄청 많아요. 기와 깨진 것인데,

인제 고기 또 쪼그만 이 저 논뱀이 하나 있어. 옛날엔 그게 연못이었대요, 연못. 근데 연못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기와집을 짓고 옛날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이런 장관을 지내 먹은 사람인데, 전쟁이 나니까 인제 피난을 나간거지 뭐야.

그래 전장에서 죽어빠지고 오질 못하고. 인자 갈 적에 옛날에 왜 벼들이라고 베짜는 벼들 거 알지. 그거 원래 나무떼기로 만드는 건데. 옛날에 금으로 만들었대요. 원래가 대신 집, 지금 정승 집이니깐. 그런 벼들에다가 금으로다가 벼들을 만들어 베를 짚었대요.

그래 벼들을 금으로다 거기다 올렸어도 순금은 아닐 테지. 그거 다 전설에서 들은 거여. 인제 연못이서 그 전장이 나니까는 그놈의 걸 속이다 집어넣고서 피난을 갔다는구려. 그러니까 피난을 갔다가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다 죽었으니까는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녀, 그냥 그냥 폐허가 되 뻔했지.

우리 쪼그만할 적이는 그냥 거기를 전설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 그 금으로다가 벼들을 만들은 것이면, 지금은 몇 억 수십 억 되는 거지, 뭘. 그 금을 팔면은. 우리 옛날에 쪼그만적이는 쪼그만해서 들을 적에는 그것을 몇 길을 파 보았대요. 아파 보는데, 아 그냥 별안간 뇌성 벼락이 내리치고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그냥 구름이 떠들어와서는, 아 별안간 천둥 번개가. 불이 어디 왔다갔다 하니까, 겁이 나니까 그걸 못한 거지 뭐. 누구든 빈손에 죽는 것은 싫으니깐은.

그래서 그거를 못했다고 도로 때려 매우고 그랬다는 전설이 나왔어요. 그래 밧 번 쪼끔매 와서 들으니까 밧 번, 그 옛날에 사람이 그랬다가 그냥 그걸 못파고서는, 그냥 떼구름이 오고 비가 퍼붓고 불이 왔다갔다 뇌

성번력 치니깐, 겁이 나니까 도로 때려 매우고 거기 얼씬도 못하고.

지금은 거긴 밭이, 그 논이 밭이 되어 버렸어. 헤헤, 난 뭐 이 동네는 이런 전설 밖이 못들었지.

[두창리 설화 7] 두창리 1화

두창리 용수마을,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이상운(64, 남) 1995. 11. 20.

서울되지 못한 두창리

1) 두창리의 유래

거기 황토흙이 많아요. 그래서 황토현이라 그리고.

요기 (물이) 용수를 쳤다고 해서 용수부락이고.

요 넘어 옛날에 부자를 살고, 분악하는 분촌, 분촌이라고 그래요. 요 넘어 분란 분촌.

여기서 뭐 어디가 왜 두창리냐 하면, 저기 저 산 있잖아요. 저기 저 창마루산 뒷산 있어요. 창같이 뽕죽하게 올라온 게. 그게 그 창같이 생겨서 이 동네가 거기는 창마을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두창리라고 불러요.

똑같은 두 자결랑, 그래 창자고. 거기도 창자이고 여기 여기도 창. 두창리 아녀. 그런게 창같이 이렇게 뽕죽히 올라가서, 그 산이. 창마을이라고 부르는 거여. [조사자 : 창같이?] 창 같, 똑 짤라지고 창처럼 오똑히 섰잖어, 창 끄트머리 마냥.

[조사자 : 옛날 전쟁할 때 창 말이죠?] 그렇지. 그렇게 생겼잖어. 산이 이렇게. 산을 따라서 이 부락을, 이 두창리가 7개 부락인데, 두창리

라고 하고 창마을이라고 부르는 거야. [조사자 : 그래서 두창리라고 부르는 것이군요?] 응. 보면 거기 옛날 창마냥 뽕족하게 섰다고.

2) 서울이 되지 못한 구봉산

여기는 다 딱 잘라지고 구봉산이 내려오다가, 이게 인제 아흔아홉 봉이결랑. [청중 : 아흔아홉봉?] 이 산이 구봉산이결랑. 이게 인제 백 봉이 되면, 여기 인제 서울이래는 거는 어느 서울이던지 강을 끼는 것이결랑. 강을 끼야지 수십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지만, 물이 없으면 못살잖아.

여기도 번다구니가 엄청 넓은 거여. 큰 들레를 다 따지면 평지예요, 서울보다. 서울이 산골이라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이런 산만 밀어 놓으면 다 판하지 뭐. 한 30리 거리가 다 딱딱한 데인데. 이 중간만 밀어 놓으면. 이 장산만 빙 둘러 그 아래만 밀어놓으면 엄청 넓은 데라고, 여기가.

그 서울이 될려고 해도 여기가 이 구봉산 나랭이가, 옛날 구봉리가 전설로 내려오는데, 저기어 구봉산이라는 건데, 강을 못껴서 여기가 서울이 안된다는 것이야, 여기가.

[조사자 : 아, 물만 있으면 서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여기 지대가 좋잖어. 여기 뺨들러 그 안에 큰 장산이 읊잖아, 이 안에는. 이따위 평지같은 것은 막 밀오재기면 다 집지는 것이지 뭐. 그 서울, 나도 서울 가서 더러 돌아 당겨보았지만. [조사자 : 산세가 분명히 서울이 될 수 있는 산세인데, 물이 없어서 안되었다고요?] 그렇지. 우리 조건으로 구봉, 인제 아흔아홉 봉이결랑.

근데 저기 저기 가서 백 봉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외사에 백봉리가 있다구. 거기 따로 가서 봉이 어떻게 백봉이라고 부른다구. 여기 한테 붙어서 백 봉이 되면 서울이 되는 건데, 외따로 가서 거기 가서 백봉이

되어 산 대륙이 쪽 내려가다가. [조사자 : 아, 그러니까 아흔아홉 봉이
인자 백 봉만 있어도 서울 되는 건데?] 그렇지. 그게 외따로 떨어져서
그게 생겨서 백봉이라고 부른다.

[조사자 : 붙었으면 서울 되는건데, 하나가 서울이 안된다.] 그런데
서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따져보던지 그리면, 다 나라
보면 신라 백제도 글히고, 다 인저 고려 보면 강을 끼고 있지. 강 안끼
데가 서울이 안된더오. 보며는 신라도 낙동강 끼고, 저기는 공주 백제
서울은 공주, 공주 금강을 끼고 여기 한강물 끼고 다 있잖아. 서울이라
는 것은 인간, 인간다 물을 먹고 인간들이 그 수 못하고, 이렇게 공기하
고 황해지면 나쁜 관계로.(이후 생략)

[두창리 설화 8] 두창리 1뒤

두창리 용수마을,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김성식(42, 남) 1995. 11. 20.

사람을 데려가는 혼령

용수 마을을 지나가던 중, 길에서 중년의 아저씨를 만났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이야
기 하나만 해 주십사' 하고 청하니, '자신의 군대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말씀해
주셨다. 불일이 있어 급히 가 보셔야 한다면, 우리들에게 미안한 표정까지 지으시며 친절하
게 이야기를 하셨다.

훈련 도중에, 한 병사가 오질 안아갔고, 걱정이 되서 찾아보던 중에 그
병사가 혼수 상태에 있어, 아파갔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 병원이 어디 있느냐?"

고. 그랬더니, 그 마을 그 할아버지께서,

"혹시나 그 훈련했던 병사 자리가 어디냐?"

고. 묻디길래, 가 봤더니,
 “혹시나 이 자리가 아니냐?”
 산에 가갔고.
 “아, 그 자리가 맞다.”
 고. 그러니까.

“아, 사실 그 자리가 옛날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참 좀 억울하게 좀 몸이 아프고, 그 좀 죽어 갖고 거기다 묻어 뒀는데, 이상하게 해마다 총각들이 거기서 죽어 나갔데요.”

우리 공수부대 그 하나의 병사도 훈련 도중에, 야간 그 공수부대는 야간 훈련도 많이 하기 때문에 평평하고 묘자리 같, 묘자리도 아니고 평평해서,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잤었는데, 그냥 혼수 상태로 해서 결국 죽었다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병사까지 세 명이나 되는 거라고. [조사자 : 해마다요?] 해마다 죽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두창리 설화 9] 두창리 1뒤

두창리 용수마을,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박윤복(68, 남) 1995. 11. 20.

개똥으로 밥을 지은 며느리

처음에 말해 주신 박윤복 할아버지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았다.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즐거우신지 시중 웃으며,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해 주셨다. 친근한 표정으로 손녀를 대하듯 편하게 이야기 하시고, 주위 사람들의 공감도 얻어 가면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옛날에 참 살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아 진짜 똥구녁이 찌지게 가난하거든. 아 그래 시아버지를 뭐 밥을 해 줄게 있어야지, 당채. 그 저- 산골짜기를 다니면서 개가 똥을 싸며는, 옛날에는 보리 먹으면 도로

일어서 논다고, 봤죠? [청중들 : 예.](웃음) 실제래니까요.

그래 그 놈을 산골짜기에서 전부 주워 모아가지고는, 그 놈을 씻고 또 씻고 골 백 번 또 씻고는, 인자 시아버지 밥을 해 가지고 주는데,

“아, 이거는 이거 퐁을 주워 밥을 해가지고 주니까, 이거는 죄가 되니까로 내가 먼침 맛을 본다.”

그래 며느리가 먼저 맛을 보고, 시아버지는 정성껏 해다가 인자 밥을 해 대접해 드리는데, 그걸로 그냥 매일 그냥 산꼭대기 다니면서, 골짜기 골짜기 그것만 맨날 해다가 시아버지 공경을 허는데, 아, 그렇기 인저 참 수 년간 살아보니, 그래도 그냥 배고파 살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전에 어려서 배고프게 살았어요. 아,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며(조사자 웃음).

아 그런데 인저 한 날은 그냥, 막 그냥 뇌성벽력을 치고 그냥 비가 그냥, 구름이 막 그냥, 아 번개가 번쩍번쩍 난리가 났시유. 동네에서 자만히 보니까 큰일이 났거든 이거.

“누구네 집 벼락을 때려나 보다.”

고. 아. 하필 그 집을 벼락이 때리는 거여. 그냥 이만한 불덩이가 그 집을 덮어 노는데,

“아구! 큰일 났다.”

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에, 뭐 에 어른이고 볼 것 없이,

“저 집이 벼락 맞았다.”

고 말이여. 아 근디 벼락이 어떻게 때렸냐며는, 그 며느리를 불덩이가 안고 갔어요. 아 안고서는 산골짜기로 가서는 벼락을 때리는데, 벼락을 때리는데, 아 그집을 벼락을 때린다고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그 며느리를 그냥 불덩어리가 안고 산골짜기로 올라갔단 말이여.

그냥 첩첩산중에 올라가. 들어가서는 떡 갖다 놓고는, 아 이 여자를 그 인저 아 그니까 효자 효녀지. 시아버지를 그렇게 인저. 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소문이 난기여.

“개똥을 주워다가 시아버지를 암마 배 고파도 그렇게 해주었으니께, 인저 질려서 그 저집이 벼락 맞았다.”

고.(청중들 웃음) 아 그래서 그런데 한 동안 그냥 그 며느리 앞에다가 은금 보화를 갖다 주었던 말이여. 아 그러니까 부자 장자가 되어가지고, 아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짓고, 이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예 그 동네, 그 동네에서 땡땡거리며 얼마나 잘 산단 말이여.

아 그래, 아들 딸 거기서 사는데, 아 얼마나, 아 효녀상을 탄거야. 아 그러더니, 어그저께 그냥 사례를 들더니 죽어번졌지 뭐여. 아 그렇게 죽은지 사흘만에 장사를 지내러 왔어(일동 웃음).

[두창리 설화 10] 두창T 1왕

두창리 주내마을,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조동선(83, 남) 1995. 11. 20.

재치가 많은 이문헌

두창리의 가장 위쪽 마을인 ‘주내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한참을 헤매다가, 우리 쪽으로 걸어 오시는 노인 한 분을 뵈고 이야기를 청했다. 무엇을 해 줄까 망설이시다가 훌륭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좋겠다며, 우리를 평상에 앉히고 말씀하셨다. 이제껏 만난 제보자 중 가장 연장자이셨으나, 아주 정정하시고 생각이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구술하셨다.

아 글썄. 이 죽어도 한 삼백 한 오륙십 년 전에, 가평에 그 저기 조종한이란 데에 연안리 아들이 많이 사는데, 그 저기 월사라 하는 이가 거기 와서 조종대라고 해서 연안리 이가들이 아주 등양하게 살았어.

백다귀 좋고 아주 알맹이라고 하는데, 그때 거기 이문헌이라는 사람이

거기 살았는데, 그 사람이 참, 자기 아버지는 그저 글깨나 배우고 그 저 집안이라고 해서 참 그러는데, 밥 먹고 해서 살긴 어렵지만 그럭저럭해서 살고. 거기 옆에는 누구냐고 하려는 그때 이명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때 참 정말 와서, 문장 과거 급제해서 상당한 지금 장관급에 있는 사람이여. 그런데 시골집이 거기 있어.

근데 이문헌이라는 이가 나이 몇 살 적에, 그런데 자기 집 밤나무 하나 심어 놓은 거 오래된 거 있는데, 아 그 이명보라고 그 자기 숙향이야. 그 집으로(나무의 가지가) 전부 뺏었는데, 그 집 하인들이 다 따먹는단 말야. 근데 자기 어머니가 며칠 빗기면서 허는 말이,

“아, 그댁의 하인들이 다 따먹고 허니. 아 그거 그걸 뺏으면, 우리가 거 제사에도 좀 쓰고 할텐데. 아 근데 밤은 다 그쪽, 그쪽으로 그냥 나무가 넘어가 버리니.”

[조사자 : 나무가 넘어가서요?] 앵. 담 저쪽으로 많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일곱 살 적에.

“아, 그럼 지가 해결하죠.”

그러더니, 그 이문헌이라는 사람이 뭐냐 하려는, 그 이명보가 마침 시골집에 와 있어. 그 장관쯤 된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정승까지 했지만. 아, 거기 가서 그집 사랑에 떡 앉았는데, 뭐 조카뻘 되고 일가는 뭘 뭘 촌수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십여 촌이 넘었지만, 한 집(집안)이지마는. 창문으로 주먹을 하나 냅다 집어 넣드니,

“이 손은 뉘 손이요?”

한단 말야.

“이놈아! 네 손이지.”

“네, 그러면 저거 밤나무가 우리 밤나무 아니요 말이여. 왜 댁에 하인들이 다 따먹고 해서 우린, 아 그것만 가지고도 좀 제사도 쓰고 허고 할

텐데, 아 왜 그럼니까?”

한단 말이야. 아, 이명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똑똑한 놈이란 말이야.

“그래!”

그래서 그날로 못따먹게 해서는 밤을 다 따서는 걸로 보내게 했어. 하도 이거 하니까는,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첩의 아들이 있기는 하지마는 양자로 이 이문헌이라는 것을 데려 갔어. [조사자 : 양자로요?] 양자로.

그랬는데 인제 그 일곱 살 적에 그랬지만, 인제 여덟 살 적에 데려다 다 천자 가르쳐, 뭐 가르키는데, 아 천자고 뭐고 배우더니, 아 그 다음부터 장난만 허고 장난이 심해. 공부를 안해. 아, 그러니까는 그 이명보가 가만히 보니까는,

“양반의 자식이 공부 안해가지고 허면 되겠느냐? 에이, 그 놈을 그냥 파계시켜 보내라고. 직의 집으로.”

그리고 그 자기 청지기인 하인이 업고 가는 거야. 가평을, 인자 가면서 동서소문을 나서서 가면서, 그 일곱 살이든지 여덟 살 때인 때인데,

“그 도련님! 공부 잘 하려는 모든 것 이로우텐데, 왜 공부를 안하십니까?” 그거야.

“여보! 나 공부 안하오 말이여. 아, 집이 저기 저쪽 책장을 보니까 책이 수천 권이 쌓였는데, 아 그놈 다 공부하단 내머리 다 빠질꺼야. 그래서 안 한다.”

고 말이야.

“아, 그럼 공부한 거는 뭐까지 읽었소?” 말이여.

“천자문 읽고, 내가 동문선 밖에 못읽었다.”

“아, 그걸 외라.”

니까. 가는 동안, 그냥 업고 가는 동안 그걸 그냥 뿡뿡 외. 아, 그래서 그걸 와서 또 이명보라는 이한테 그걸 얘기 했어. 얘길 했더니,

“아, 그러냐? 그놈 쓸 놈이라고. 다시 들어오라.”

고. 아 다시 데려다. 그때 장난을 해도 상관없게 글을 가르치고 하는데. 하루는 장판을 아주 잘 맨든 각장 장판이, 옛날에 장판이라면 각장이 라면 하며는 유리를 깔아놓은 거 같애. ‘아 벼룩을 잡는다’고 아 그냥 이렇게 이런 송곳으로 그냥 이것이 장판을 망가뜨려 놨단 말야. 아 갖다가 호령하면서 종아리를 때리면서,

“아, 이놈! 너 이놈. 장난하지 말고 글 배우라니까, 임마! 장판을 망가뜨렸어. 이놈!”

오늘은 좁쌀을 갖다가 한 뒷박쫘 이렇게 주면서,

“이거를 세어 놓으란 그 말야. 오늘 [조사자 : 좁쌀을요?] 숫자를 다 세어 보라는거지. 너 오늘 저녁에 그놈 종아리를 맞을 줄 알고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아, 그 이문헌이라는 사람은,

“예, 그렇죠.”

하고. 아버지한테 대답을 했단 말야. 그때 아마 열 살이나 됐을 꺼야. 그래도 여전히 장난하고 놀아. 아, 그래 하인들 청지기들이,

“아, 도련님 큰일 날라.”

고. 아 그리고 나라에 관청으로 들어갔어, 자기 아버지는,

“아! 그거 그거 세야지.”

그 다음에 한 홉쫘 떡 나누더니, 그걸 갖다가 청지기니 뭐 하인이니 다, “서(세)래.”

서더니, 저울로 달어. 저울로 달어가지고. 한 되를 합하니까는 숫자가 나오잖아. 딱 해놨단 말야. [조사자 : 아, 한 홉만 해 가지고.] 아 그래 한 홉을 썼는데, 인제 십여 명이 세니까, 셀 수가 있지. 아 그래 전부 홉으로 해서 달았단 말야. 그래서 숫자를 뽑아 놨단 말야.

아,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와서 인자 이놈으다 모인 다음에,

“그놈 다 세 봤느냐?”

“다 세 났습니다.” 말이여.

“그 숫자가 얼마, 거 어떻게 세 났냐?”

하니까. 아 그렇게 썼대. 아 그럼 머리 좋은 사람 아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참 출세를 했어. 출세를 했는데, 그때 우리 영조 대왕이라는 이가 참 팔십 몇 살 살고, 참 아들 뭐이다 했지만, 아 그 사람은 익살도 잘하고, 임금 앞에서 막말도 잘하고, 아주 호걸이야. 아 그래 써 주는데, 이문헌이를.

이문헌이란 사람이 그렇게 글은 안배웠어. 글은 그렇게 많이 안배웠어도 유식이 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 뭐 험건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골탕을 못매기는 게 뭐고 하니, 임금이 언젠가, 임금이 뭐 아주 친 구같이 생각하는데, 익살도 잘 부리고 뭐 임금 앞에서 허니깐.

한 번은 종부(사)집에 사는데 인재 축관을 시켰어. 축도 아주 어렵게 쓰게 해가지고선,

“축을 읽어라.”

했단 말이야. 그래 이문헌이가 대뜸 그냥 축을 가지고 그냥 벽력같은 소리로,

“유세차.”

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임금이,

“조용히 하라. 적게 하라.”

아 그러니. 어물어물 하더니 나중에,

“사양.”

하더니 그만이야. 근게, 수완이 있잖아. 그렇고. 그 이문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게 뭐고 하니, 하여간 하영든 결작이야. 그렇게 전에 청나라 사신이 오면는 그 보낼 적에, 뭐 글 잘 하는 놈들이 와서 송별을 허라고 시를 지어서 뭐, 시를 허고 이려고 있는데. 그 이문헌이도 거기서 한몫 대감으로 끼어갔다가, 이렇게 한 번 하더니 나중에 시를 지어서 딱

내왔는데 뭐고 허니, 그때 중국 사신이 서정관이야.

상부사, 서정관아!

영변로 수만리에

거 평안 내 평안하시오.

아, 그 이상 짓는 게 어딴어? 이문헌이가 그랬대는 거고.

이문헌이라는 사람이 전라감사를 가서 갔을 적에, 있을 적에, [조사자 : 전라감사요?] 응, 전라도 전주나 거기 사람이 아주 참 글 잘하고 아주 참 예인이 많아. 아, 그래 이문헌이를 무시했던 말야. 그래가지고 이 아주 했는데, 뭐 그랬것어.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한 번은 그 무슨 소송이 났는데,

“아 우물에다가 ‘풍당 풍당’을 갔다 쓰라.”

는 거야.

“풍당! 풍당!”

아, 그 학자놈들도 못쓰더라. 그 이문헌이가 하는 말이,

“아, 이놈들아! 너희들이 글 잘하는, 임마, 풍당풍당은 우물정자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풍당풍당 아니냐?”

아 그게 풍당풍당 왜 못 쓰느냔 그 말이야. 이문헌이가 그랬다는 거지. [조사자 : 임기응변에도 능하네요?] 아, 임기응변에도 능란하고. 아 임기응변에 유명한 사람이야. 이문헌이가. 그런데 임금 앞에서도 그냥 아주 뭐 우스운 소리 잘 하고 뭐.

[두창리 민요 1] 두창리 1뒤

두창리 용수마을,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이영한(72, 남) 1995. 11. 20.

베 틀 가

앞서 이야기 해 주신 할아버지의 권유로 노래를 해 주셨다. 정확히 알아 듣기가 힘들었지만,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맞장구를 쳐가며 들었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연세에 비해 너무나도 정정하셨다. 노래를 시작하자, 우리들은 주위분들과 함께 '얼썩'하며 추임새를 넣었다. 한 곡 더 청하니, 곧바로 노래를 시작하셨다.

구름에다가 잉아를 걸고
안개속에 구들 삼아
나산을 받아차고
한 길가에 앉은 선녀
양구 이리의 냇이로다.
부채 하나 허리에 두른 양은
양구 이리의 냇이로다.

[두창리 민요 2] 두창리 1뒤

두창리 용수마을, 강현모, 임태현, 문선의 조사
이영한(72, 남) 1995. 11. 20.

정 년 가

앞의 노래에 이어서 계속 불러 주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한 오십이면 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하, 일장춘몽이로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

8. 가 좌 월 리

[마을개관]

가좌월리, 박종수, 강현모, 김용이, 신정연, 전학수 조사
1995. 11. 11.

가좌월리는 면소재지인 고당에서 동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교통이 편한 편이다. 이 마을은 원래 죽산군 원삼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근삼면 석고리의 일부와 원일면 미평리 일부를 합하여 가좌리라 하여 용인군 원삼면에 편입하였다. 뒤에 1973년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외사면(현 백암면)으로 이관하였다가, 1983년에 그중 일부가 가좌월리로 독립하여 원삼면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가재가 많았기 때문에 가재울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조사하기로 한 지역은 원삼면 가좌월리였다. 동네 사람들은 가재월리라고도 불렀다. 약 십여 가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노인들도 일터에 나가 마을에 없었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가좌월리에서 실패한 우리들은 생한리, 미평, 능안리 등으로 전전했다.

[가좌월리 제보자 1]

김정선(72, 여) 박종수, 강현모, 김용이, 신정연, 전학수 조사
1995. 11. 11.

수심에 찌든 얼굴만큼이나 고생을 많이한 분이라 살아온 이야기만을 계속하였다. 두 아들과 딸이 있지만 모두 객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남편도 집을 나가서 혼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얼마 안되는 전답이 있었지만 일을 할 수 없어, 남에게 소작을 주고 거기에서 얻은 곡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제공자료 : 설화 1.

[가작월리 제보자 2]

박종례(69, 여) 박종수, 강현모, 김용이, 신정연, 전학수 조사
1995. 11. 11.

생한리, 미평쪽에는 이미 도시 근교의 원예농업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었다. 생한리에서만 2시간을 헤맨 끝에 장미꽃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새참을 먹는 할머니들을 만났다. 막걸리를 한 잔 먹고 흥에 취해 노래를 부르다가 드디어 박종례할머니가 얘기를 시작했다. 박씨 할머니는 아들 삼형제와 딸 둘이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은 화초 비닐하우스에서 소일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옛날에 들은 것으로 손자들에게 해 주던 이야기라 한다.

제공자료 : 설화 2.

[가작월리 제보자 3]

최효임(65, 여) 박종수, 강현모, 김용이, 신정연, 전학수 조사
1995. 11. 11.

우리 조사자는 능안에서조차 조사하는데 실패를 하였다. 허씨 사당의 설화를 들으러 갔는데, 족보만 있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본가까지 가기에는 무리였다. 나오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제보자를 만나 소바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제공자료 : 설화 3.

[가좌월리 설화 1] 가좌월리 1왕

가좌월리, 박종수, 강현모, 김용이, 신정연, 전학수 조사
김정선(72, 여) 1995. 11. 11.

천사가 된 호랑이

마을에 들어가 아무집이나 들어갔다. 주인인 제보자는 수심에 찌른 얼굴만큼이나 고생을 많이한 분이라 살아온 이야기만을 계속하였다. 두 아들과 딸이 있지만 모두 객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남편도 집을 나가서 혼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얼마 안되는 전답이 있었지만 일을 할 수 없어, 남에게 소작을 주고 거기에서 얻은 곡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거나 보고 호랑이가 무서워서 저기 그냥(이상은 기록) 이리거나 저리거나 호랑이가 무서워서, 뛰여 이리뛰고 저리뛰걸 쫓아가다 보면, 호랑이가 아니고, '이게 호랑인가 보다' 하면 또 호랑이가 아니고.

그래서 인제 하도 그냥 속아가지고선 산꼭대기로 올라가 보니까, 뭐 천사가 있더라나 [조사자 : 천사요?] 응. 그러니깐 인제 하도 속았으니깐, 야중에 인자 천사로 보였다는 거여. 염치가 없으니깐, 혼이. 그래가지곤 인제 가만히 생각해다 보니까는 안되겠어서, 도로 내려와서 하느님께 기도를 했대요.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고. 그랬더니 야중에는

“니가 고생이 아니다. 니가 마음이 착해서 좋은 거만 뵈키는 거다.”

이러드라고 얘기를 하시고, 얘기는 많이 했지만 잊어버렸지.(웃음)

[조사자 : 그럼 처음에 뭐 때문에 호랑이한테 쫓기셨어요?] 그러니 야중에 인제 아무거나 보고 호랑인가 보다 하고 무서워하고, 인제 뺨에 가서 똥을 눌러고 하면서도,

“호랑이가 문다. 뺨밖에 나가지 말라.”

하고 어른들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서 인제 그렇게 말을 안듣지를 않고 말을 들었으니까. 그런 것으로다 그렇게 현 모양이지.

[가작월리 설화 2] 가작월리 1왕

가작월리, 박종수, 강현모, 김용이, 신정연, 전학수 조사
박종례(69, 여) 1995. 11. 11.

신발 벗기는 도깨비

생한리, 미평쪽에는 이미 도시 근교의 원예농업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었다. 생한리에서만 2시간을 헤맨 끝에 장미꽃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새참을 먹는 할머니들을 만났다. 막걸리를 한 잔 먹고 흥에 취해 노래를 부르다가 드디어 박종례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씨 할머니는 아들 삼형제와 딸 둘이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은 화초 비닐하우스에서 소일을 하고 있다. 이야기는 예전에 들은 것으로 손자들에게 해 주던 이야기라 한다.

옛날에 인제 술을 잘 자시는 사람이 있어. 술을 잘 자시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가서 돌아댁기다가 술을 진땀 먹고 집으로 밤중에 오다보니까. 인제 애들을 학상, 촌학생 애들을 만났어. ‘저것이 애들인가 뭇인가!’ 속으로 그러끔 했는데,

“아저씨! 우리랑 같이 갑시다, 나랑.”

“니 무할라꼬 내랑 같이 가노? 나는 우리 집으로 가는데.”

“나도 아저씨 가는데까지 가요.”

게서, 쫓아 쫓아서 왔대여. 왔더니 신발을 훌쩍훌쩍 자꾸 뒤, 뒤에서 한 놈이 쫓아오면서나 놀러서 뺨기드래. 아이저 큰일 났대.

“왜, 남에 신발은 왜 비끼노?”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저씨! 아저씨는 신발 신으면 우리를 따라 못가는기라. 신발을 벗어야 가지.” 그래.

“신발을 벗으마 어째 가노?”

하니까는,

“신발을 벗고도 갈 수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고. 그래서,

“아니, 나는 신발 벗고도 너히 집에 안가고 우리 집에 갈란다.”

하니까는.

“아이, 아저씨는 천상 인제 우리 따라 가야 돼, 별 수 없어.”

그러면서는 그러더래. 그래서 그 아저씨두 속으로 ‘이게 도깨비인가 진짜 도깨비가’ 싶어서 겁시 나가지고. 요놈들을 이걸 한 둘만 되면은 해치겠는데 셋이라. 그래서 왜 화가 났지, 신발을 뺏겨서.

“왜, 남에 신발은 뺏겨 놓느냐?”

고. 확 돌아서면서는 한 방 맥 때리패니깐, 세 놈이나 돼는데 달라붙지도 못하고 쫓게 가메. 무섭다고 막 쫓기가드라다. 그래 그놈을 하나 끄들고 가서 나무떼기 달아매 놓고.

아침에 이것이 뭔가 하고서 나와 보니까 도리깨 장지더래. 그런게 그게 사람을 그렇게 겁을 내고 그런데. 아구 진땀이 쪽 빠져서 집이를 쫓아 가니까, 집안 식구들이 훌레 난리를 치더란다. 그래 그런 적이 있어. 그게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냥 애들한테 들은 소리야.

[가작월리 설화 3] 가작월리 1화

가작월리, 박종수, 강현모, 김용이, 신정연, 전희수 조사
최효임(65, 여) 1995. 11. 11.

돌아왔은 소바위

우리 조사자는 능안에서조차 조사하는데 실패를 하였다. 허씨 사당의 설화를 들으러 갔는데, 족보만 있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본가까지 가기에는 무리였다. 나오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제보자를 만나 소바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저, 저 수정산 소바위가 옛날에는 이렇게 앉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요렇게 됐는데. 십 년 전에 기냥 불난 거마냥 연기가 자욱해 갖고 그냥 아주 굉장 했어요.

이 능안 땅이 안보이고. 그러더니 이렇게 돌아 앉았어요. 이렇게 돌아 앉았는 때는 소바위 쫓지하고 일 왔어요? 이저, 저게 저 보시다시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바위 머리가 가면은 못살고, 쫓지가 오면 잘 산다.”

는데. 지금은 머리가 이리 돌아온 거여. 그래서 이 동네가 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 애기지, 뭔가 애기가 있어요. [청중 : 미평 사람은,] [청중2 : 미평 사람들은 먹은 공을 안대.] [조사자 : 먹는 공요?] [청중 : 먹을 공을 안다고.] [조사자 : 먹는 공을 안다고요?] [청중 : 공 안다고.] [조사자 : 그 애기 자세히 좀 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청중 : 거기서 뭇 일들을 하면 그러드라고, 미평 사람들인가 뭇 먹을 공을 안다.] [조사자 : 소바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중 : 그건 모르지. 별명이 그런게 있드라고.]

소바위가 전설에 저기에도 다 나오고 신문에도 옛날에 있어요. 수정산 소바위라고. 거기 절도 있고...

[가작월리 민요 1] 가작월리 2악

가작월리, 박종수, 강현모, 이승규, 황성진 조사
박점례(86, 여) 1995. 6. 10.

모심기 노래

여러가지 민속을 조사하는 도중에 제보자에게 모를 심으며 부르시던 노래를 부탁하자 해주신 것이다.

[조사자 · 옛날에 농사지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 ‘어~힘 재치것네’ 이렇게. 그거 옛날에는 했지. [조사자 : 어떻게 했어요. 한 번 하시지요?] ‘어~힘 재치것어’ 그렇지 뭐. 거기서 또 선소리질 하는 이는 그 잘 하는데 나는 그런게, 할지도 모르고, [조사자 : 조금해요?] 아주머니, (옆 사람에게) 그 논매는 얘기를 허는데, 이는

어~힘 재치것네

그러면,

뭘 드문드문 심어도
삼별초 자리로 심어다오

이래. 선소리꾼이 그라는 거. 그런 건 했지, 옛날에.

여기저기 심어도
삼별초 자리만 심어주게.

이렇게 모을 심으면 말이여, 모를 이렇게 심으면, ‘여기저기 심더라도 삼별초 자리로만 심어주게’ 이라는 소리는 들었어.(웃음) 그라고 북 뚜 드리고, 북 두드리고 두레도 두드리고 이랬지, 옛날에는. 팽매기 뚜드리고 깃대 가지고 이렇게 댄졌지.

9. 미 평 리

[마을 개관]

미평리, 박종수, 강현모, 이승규, 황성진 조사
1995. 6. 10.

미평리는 면소재지인 고당리에서 동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가좌월리를 지나서에서 있지만, 교통편은 용인 백암을 통과하는 국도변에 위치하여 매우 편리한 편이다. 미평리는 원래 죽산군 원일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내동의 일부를 합하여 미평리라 하고 용인군 원삼면에 편입하였다. 이 마을의 유래는 마을 가운데에 커다란 미륵이 있어서 미륵들, 미륵평이라 부르면서 연유한 것으로, 지금도 약사여래불의 입상인 큰 미륵이 남아 있다. 미평리는 미륵이 있는 미평과 기러기가 날아가는 형국이라는 생안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미평리 제보자]

목적을 말하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성격이 차분하고 손자를 대하듯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

[미평리 설화 1] 미평T 1앞

미평 1리, 박종수, 강현모, 이승규, 황성진 조사
김전(? , 여) 1995. 6. 10.

미륵에 잘못하여 벌받은 일

조사자가 미평지역에서 거의 집으로 돌아오려 할 때 두 분의 할머니를 만났다.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여러가지 민속을 조사하는 도중에 미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조사자 : 옛날 이야기, 귀신 이야기 같은 것 없어요? 있지요?]

미륵으로 해서 서 있잖아요. 거가 들판이었어요. 들판. 밭이 지금은 밭이 되었다가 집을 이렇게 지었지만. 미륵이 하나가 되잖아요? 썼으니까 거기가 다 은절인데(근처인데), 아 그때는, 왜 예전에는 그렇게 아이 들이 많이 죽었시요. 아이들 죽으면 누구 눈에 떨까 봐서 거가 다 갖다 두는거야. 그냥 거기다.

그런게 방죽골에서 내려왔으나 기기설랑은, 늑대가 내려와설랑 그걸 다 봤대유 그냥. [조사자 : 애 죽은 시체, 그 무덤을 파 갖고요?] 그래. [청중 : 무얼을 파빈졌다고?] 응. [청중 : 그래 역사적 파지.] 그래서 그걸 파설랑은 파놓고 보니깐, 사람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내 뺨거야, 날이 셋으니까. 인자 내뺨는데, 그 옆에 큰 모이 하나가 썼었어요. [조사자 : 모이요.] 야. [조사자 : 모이가 뭐예요?] 산소. [청중 : 산소, 모이지.] [조사자 : 산소요?] 응 산소.

모이가 커다랗게 하나 섰었는데, 거가 합징(장)이 되설랑은 그렇게 됐대요. 그 크대요. 그 앞에 큰 바우가 하나 있었으유. 그런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못건드리는 거여. 그 모이하고 미력하고는 동네 사람들이 못건드리는 거여. [조사자 : 왜요. 그 치우면 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응. [조사자 : 어떤?] 그런데 누가, 그 노인네도 돌아갔어. 진호네 어머니라 되는 이가 그 미력님을 위해서 빌었어유. [청중 : 진호 어머니가?] 응.

위했는데 하루는 고 날짜를, 집에서 사람이 애가 죽어 나갔으니까, 인자 미력고사를 그만 둔거여. 그날 꼭 하는데. 그러더니 밤에 잠이 깜빡 들었는데 현몽을 하더래요. 그냥 훗갓을 하고서는 내려와설랑은,

“왜 나를 밥을 안 주느냐고. 밥 좀 달라.”

고. 아 그래서,

“잘못했다구. 그냥 잘못했다.”

고. 그러면서 그냥,

“잘못한 걸 아느냐?”

고. 그래서 이렇게 빌어 올리면설랑은 보리밥을 해설랑, 솥에서 퍼서 딱딱 눌러서 밥만 이렇게 해다가시리 마당에다 놔뒀는데 없데는거유. [청중 : 밥도 읍고 사람도 읍고 그렇대요.] 그랬는데, 그래설랑은 인저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꼭 오늘 저녁에 인자 갈 날인데, 오늘 저녁에 그렇게 일을 당해설랑은 못갔으니까 죄송하다.”

고. 그러면서 가긴 갔지 그래두. 그 할머니 역시. 갔는데, 그 깊은 생각에, 인자 그 깊은 생각이 나설랑은 그 얘기를 허구설랑은 빌었는데, 온데 간데가 없결랑. 그래서 인자,

“내가 꿈인게 이게 생신가?”

이래구설랑 그냥 밖을 나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인저 밥도 읍

고 사람도 읊고 그렇꺼랑 인저. 그래서 그냥 거기서 절을 인자 미력님에 다 대고설랑은 했대요. [청중 : 그 미력님한테다.] 야! 그쪽이다 대구설랑은 절을 해구설랑은 방에 들어가설랑은 잠이 깜빡 이렇게 아 슬며시 들었는데, 어르더래요. 큰 사람이 갓을 쓰고 옷갓을 안고설랑은 들어와 설랑은 방문을 쓱 열고 큰 기침을 해설랑은 들어와서,

“네 년이 그래두 잠을 자느냐?”

고. 아 그래구 해설랑은, 그 할머니가 깜짝 놀래설랑은 그 정말 깨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결랑. 없는데 그래서니 그래설랑은, 들어와설랑은 동굴동굴 하니까, 또 잠이 이렇게 들었는지 말었는지 그러는데, 그 옷갓을 하고 그저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

“너는 니가 잘못해설랑은, 느 자식을 그렇게 해놓고 잠이 오느냐?”

고. 그러고 하시더래요. 그래설랑은,

“아니 우리 자식을 어떻게설랑은, 내가 어떻게 해설랑은 그러느냐?”.

구. 이제 상심마냥 그러니까.

“너! 그 떡쌀을 당구어 놓고설랑은 그것 상을 당했으니가, 이런 상을 땅했으니가, 그 떡쌀을 건져보라.”

구. 건져보니까 이만한 벌러지가 있더래유. 그것 때문에 당귀 놓고 그 바람에. (개인집안의 내력은 생략)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설랑은 명석이 할머니가, 그 갓산이를 해서 그런다는게 그러. [조사자 : 아들,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 아들이 병어리예요. 그럼?] 아. 음. 병어리 [조사자 : 아들 하나는 죽고, 또 하나는 병어리가 되구요?] 병어리가 되고.

다 나셨을 적에 개가 11살 먹어설랑은 이것 가리토시가 났어유. 그래서 그것 그 후에 인저 우리집엘 왔는데, 독사바늘 그걸로다 그어 쫓어유. 시아버지가 그걸로 그으면, 그 가리토시 난데 그으면은 고만이에요. [청중 : 그것 괜찮치.] [조사자 : 독사바늘이 뭐예요?] 독사 이렇게 쏘

잖아유. 독사가요. [조사자 : 독사가 물면?] 물면 쏘지 왜. 그런데 죽은 걸 뺏나봐. [청중 : 그 콩대이를?] 영 [청중 : 독사 콩대이를.] [조사자 : 콩대이를, 살이 있어요?] [청중 : 있어. 있어 바늘마냥.] 양 바늘 끝 모양 있드라고. 그런데 죽은 다음이 인자 그걸 뺏나 봐. 그래설랑은 그것 위해 낫길래.

“그게 뭐냐?”니까.

“너는 구경 안할끼라.”

고 안시켜유. 그랬더니만 지금 말 못하는 애기 11살 됐는데, 데리고 왔는데,

“아이구, 애가 그냥 난데 없이 그냥 가르토시가 나설랑은, 난 것도 읊는데 가르토시나 서서 이러니 어떡하느냐고. 물을 잡아여도 되느냐?”

고. 그러니까,

“디리꼬 오라.”

고, 그래 딜리고 와설랑은 다 빨가 벗겨도 뭐 가만히 있지유. 그래설랑은 이 아저씨가 인저,

“이걸로다가 찢러 놓으면,”

“아프게 찢러유?”

그래유. 그래설랑은,

“아프게 찢르지 않는다.” 고.

[조사자 : 뭘로 찢르는 데요? 독사 바늘요?] 독사바늘로 가래툰이다 가서 찢르는데, [조사자 : 독사바늘로 허벅지 있는데 찢르는 거예요?] 아이 가래토시가 여기 이렇게 접히는데, [조사자 : 가려운데요?] 아니. [청중 : 가르토시라고 허지.] [조사자 : 가래토시가 뭔데요?] [청중 : 나는 데가 있어유. 땀기면 멍울이가 서 가주고 걸음도 못 걷고, 그냥 그러면은 거기다 인자 침을 맞거나, 가래 인자 멍을 샅게끔.] [조사자 : 몸에 몽우리 급하게 솟아오르는거요?] 응. [청중 : 그게 가래토시여.]

[조사자 : 가래토시요? 날 때마다 독사침 갖다가 놓는 거예요?] 야. 놓면 괜찮아. [조사자 : 바늘같은 거예요?] 야. 한 빛쪽은 바늘 같으구, 한빛쪽은 허연게, 전기줄마냥 퍼졌지 뭐. 저런 줄마냥 그렇게 굵어유. 굵은게 이렇게 허연게 있는데, 이렇게 찢어 있다구. 그런데 글로(그쪽으로) 안 찢르고 바늘 같은 것 골로 찢러. [조사자 : 병어리 11살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인저 11살 먹어서도 말을 했어유. 했는데 그래설랑은,

“찢르면 무섭지 않느냐고? 따깝지 않느냐?”

고, 하니까,

“안 따깝다구. 괜찮다.”

구. 인제 그 우리 아저씨가 그래니까, 인저 그걸로 찢러 쫓겨랑. 그건 가래툰은 나왔어 인저. 낮는데 그 이튿날 업고 와서 하는 소리가, 그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인저, 그 병어리 된 애,

“아이구, 이 애는 여기 좀 불기짝이 빨개요. 그렇게 이상스러워요. 이상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열이 그냥 대단히 나더라고. 그래설랑은,

“아유, 그럼 약국엘 데려가 보라구. 무슨 담 같은데, 담을 여기설랑은 무슨 약을 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약국엘 데려가 보라”.

고. 그래 약국엘 가설랑은, 그땐 약국백에 없지유. 병원이 읍으니까. 그래서 한약방에 가설랑은 데리구 갔다오더니, 아유 열이 내렸어. 거기서 그냥 약을 그냥 급해설랑은, 급해설랑은 술에다 그냥 삶아서 먹었다나. 근데 열이 내렸어. 그 당시에는,

“그 담을 고치지.”

그러니까,

“담은 고대로 있구 열만 내렸다.”

고 그라. 그래설랑은 인저 그런가부다 하고설랑은 그냥 있었는데, 고

이튿날, 인제 이틀 되던 날이여. 이틀 되던 날 또 와설랑은 하는 소리가,

“아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단은 안웁어지고 애가 말 목소리가 이상스러워. 인자 아무래도.”

그랴. 그래설랑은,

“왜? 목소리가 이상스러우냐? 일로 데리고 와 보라.”

고. 그래 데려 오니까, 반 병어리 고 그 소리가 바짝 나오는 거여. 그래서 또 ‘데리고 가라’구. 약방엘 또 가서. 인저 또 데리고 갔는데, 가서 급하니까 인저 거기설랑은 약을 달여 먹여설랑은 디리고 왔다는데, 단은 그대로 있고 열도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만 그렇게 해유. 그러더니 병어리가 됐어유.

[조사자 : 병어리 된게 미륵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여. 미륵내 연관은 없어두, 그래서 그 단이 속으로, 열이 속으로 들었대유. 병원, 아니 딱 약국으로 데리구 갔더니,

“열이 속으로 들어설랑 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더라유. 그래설랑은 질래(계속)실제 병어리가 됐어유.

10. 맹 리

[마을 개관]

맹 리,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1995. 11. 11.

맹리 마을은 같이 맹리라고 불리는 행군 마을보다 40분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며, 들어가는 길에 논과 밭이 길 오른쪽에 펼쳐져 있다. 마을에 들어서면 길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으며, 왼쪽 길은 다시 또 두 갈래로 나뉜다. 두 갈래로 나뉘어진 길 중간 입구에 마을 회관이 있고 그 옆에 구판장과 맹리 지석묘가 있다.

이 지석묘는 지하에 석실을 만들고 여러개의 절석 받침 위에 개석이 놓여진 기반석의 전형적인 남방석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돌의 머릿 부분을 비롯한 가장자리에는 성혈 등으로 불리워지는 자방이 나타나는데, 그 지름은 3-12cm, 깊이는 각각 1-7cm 등 모두 27개가 있다. 개석은 오랜 세월이 지나 두 동강이 났다. 이 지석묘를 통해 용인지방에 두 가지 형태의 지석묘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85년 9월 21일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다.

마을은 쌍봉산, 수정산, 건지산 세 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마을 옆 언덕에는 불에 탄 흔적이 시커맴게 남아 있는 백 년 된 느티나무가 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느티나무 등치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서 사람 한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몇 년 전 아이

들이 거기에 들어가 불을 피웠다가 불이 붙어서 탄 흔적이라고 한다.

마을 안에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없어서 마을 노인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이 없어 집집마다 찾아다녀야 했으며,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옆 마을인 좌전마을(좌향리 좌전마을)에 가 계신다고 하였다.

처음 마을에 들어갔을 때 노인분들이 안 계셔서 다시 버스를 타고, 좌향리 좌전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조사한 내용을 좌향리에 신고, 여기 맹리에서는 구술하여 준 이야기만을 신도록 하겠다.

[맹리 제보자 1]

유복남(66, 여)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1995. 11. 11.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집에 가서 하자'며 집으로 안내를 하였다. 집에 갔을 때, 혼자 계시던 할머니께서 점심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는데, 조사자에게 '점심을 먹었냐?'며 라면을 끓여 주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었다. 그리고 제보자는 이용수 할아버지의 부인으로, 맹리 건너편에 있는 삼리에서 태어나 맹리로 시집을 오셨다.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라면을 맛있게 끓여 주신 후 홍시를 주시며 '먹으라고 권하는 인정이 많은 분이였다.

제공자료 : 설화 1.

[맹리 제보자 2]

허석(67, 남)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1995. 11. 11.

'옛날 얘기를 잘 하시고 이장을 하신 분이 논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해서 한참 찾아 헤맸다. 결국 논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장님은 아니셨다. 하지만 조사 취지를 말씀드리자, '잘 찾아 왔다.'면서 막힘없이 이야기를 술술 해주셨다. 맹리에서 오랫동안 사신 유지라고 하시며, 재산 자랑도 하셨고 집에 문화재도 많이 소장하고 계셔 대학 교수 등이 자료 조사차 자주 들린다고 하셨다. '이야기를 제대로 할려면 집에 가서 책을 펴놓고 해야 된다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오늘 어디서 잘 것인지 물어 보았다. 이야기를 하다가 자주 웃었으며, 처음에는 서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논둑에 앉아서 손으로 선산이나 근처를 가르키며 이야기를 해 주셨다. 조사자가 떠날 때 조사자의 주소를 물어보셨고, 할아버지의 주소(맹리 293번지)를 가르쳐 주시며 꼭 연락하라고 하셨다.

제공자료 : 설화 2 ~ 3.

[맹리 설화 1] 맹리T 2앞뒤

맹리 제보자택,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유복남(66, 여) 1995. 11. 11.

신령스런 100년 된 느티나무

마을 어귀에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아응수(남, 74)할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집으로 가자고 하셔서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가, 왜 나무가 타버렸냐고 묻자 이야기를 하였다.

저건너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느티나무가 이쁘게 있지. [조사자 : 예, 느티나무요?] 그거는 비(베)면 못쓰는데. 못쓰는데, [조사자 : 비면은 뭐?] 비면은 동네가 망한데. [조사자 : 동네가 망해요?] 응 그래서 안빈다는 거여.

[조사자 :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라 죽을라고, 나무가?] 나무잎이 떨어

어졌었어. 낙엽이. [조사자 : 그러니까 한쪽이 시커멓게 되가지고 있던 데요?] 그것을 저거 그 안에 굴이 있어. [조사자 : 나무 안에요?] 그래 막 하두 묵(오래)어 가지고.

옛날에 뭐 저기 책에 왜, 나무꾼이 저기 비가 와서, 굴 속에 들어 앉아서 노래를 하니까 그 도깨비가 와서, 그 책에 있잖어. 도깨비가 와서 노래를 했다 소리를.

여기도 이 안에 텅 비었어. 그래 애들이 그냥 굴속에 들어가서 불을 놔가지고 말이여, 세쪽(시간)을 탔어. 그래가지고서 한 쪽이 탄 거여. 타 가지고 또 살아난거여. 저쪽이. 그 안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았을 정도로 이렇게 굴이 뚫렸다고. 그래.(tape 뒷면에 계속)

그 안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니까 도깨비,

“은 나와 똑딱, 금 나와라 똑딱”

그러고 뭐 해서, 그 사라고, 흑달린 할아버지가 소리를 하도 잘 하오니까,

“할아버지 어디서 소리가 잘 나오냐?”

고. 그러니까는, 그 국민학교 책에 있잖어.

“이 흑에서 그렇게 잘 나온다.”

고 그러니까,

“그 흑 하나 띠어, 띠어 달라.”

고 하니까. 띠어 주었다고 하잖어. 그랬더니 흑이 읊어지고 돈도 벌고 그런 것 같다고 부인한테 그러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렇게 굴이 뚫렸는데 애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불을 놔데. 불을 놔가지고 쓰러졌어. [조사자 : 그런데 동네에는 일 없었어요?] 동네 일은 없었어. 태워서 꺼가지고 났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또 불이 나갔고 두 번 났어. [조사자 : 그래서 그거.]

옛날에는 낭구가 귀해잖어. 낭구만 때던 때이까. 저런데 낭구가 어디

있었어. 시골에 낭구 땄 때. 낭구. 시골에 낭구해다 땄 적에는 저런데 산에 낭구 읊었어. 그래가지구 그냥 낭구 이렇게 시골에 키워노면 짤라가만, [청중 : 서울 사람도 낭구 안땄나. 서울 사람도 전부 낭구 땄지.] 그럴 시골 사람들 낭구 허다 짤르면, 그냥 지서에다 갖다가 옆에 동네 사람이 갖다가 지서에다 짤러가지고 말이여, 불드러가고 그랬단 말이여. 그러니까는 이 낭구는 못해 때고. 그냥 그러고 낭구 저건들 그냥, 이 시골도 기름 안 땄지, 연탄 안 땄지, 그냥 나무가 읊어가지고 좃어다가 땄잖어.

나무가지들 태워서 불을 지피면, 그것 갖다가 집에다, 피난 와 6:25 때 피난 와가지구 그걸 갖다 땄더니 미쳤대. [조사자 : 미쳤대요?] 응 미쳤어. 그 낭구로. 그래가지고 그 낭구뿌레기는 만지지도 안잖어. [조사자 : 그게 부러진 것도요?] 응. 통 만지지 앓고 그런거든. 옛날에 미신에 미신.

[맹리 설화 2] 맹리T 399

맹리 논둑에서,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허 석(67, 남) 1995. 11. 11.

허씨 허균의 일화

옛날 맹리 이장님을 찾아갔다가 논에서 만나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 보자는 이곳에서 19대째 살아왔다고 허씨의 집안 내력을 자세하게 말하여 주었다.

허균 남사당이 초당 [조사자 : 여기 여기 출신이셨어요?] 알지? 허균. 왜 있잖아. <홍길동전> 짓고. <홍길동전> 짓고 유명혀. 그 허균의 여동생이 난설현이야. 모든 자리에 옛날에는 문·충을 따졌거든. 글. 도학군자를 따진 거여. 충이, 충이여. 충신. 효. 이렇게 말이여. 문·충·효.

그런데 그 초당의 아버지가 도학군자이고, 에 삼 형제가 죽 있는데,

이조판서, 예조판서, 무슨 판서 죽 지냈어요. 그래 인제 아닌게 아니라, 허균 선생이 이조판서를 지냈으니, 그런게 대단한 집이지. 아버지, 삼 형제, 딸 난설현이 다섯이 한, 한 가정에서 중국서 알아주는 응, 그때는 중국을 무슨 아주 응, 세계로 안거야. 중국서 알아주는 학자라 이거야.

(얘기를 더 해달라고 하자 눈두렁에 앉자고 하시고, 이런 데서 어떻게 하냐고 책이 있으면 펴놓고 가르쳐 줄텐데, 다음에 꼭 찾아오라고 말씀 하셨다. 그래도 계속 얘기해 달라고 졸랐다.)

아 인자 보자, 뭐 저 산에는 허적의 굴이 있고, 허적이라는 역적이 하나 있어.

그 저 허균 선생도 몰랐었어, 역적으로. <홍길동전>도 짓고,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분이 허균 선생이여. 어, 그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여. 그 엄격한 시대에 그런 일 있었지.

그 여 경상 아버지, 초당이 경상 감사를 지내고. 그 뭐 돌아가 가지고 선 산소를 썼는데, 거기가 지금 여기 여여, (손으로 바로 앞의 산을 가리키며) 요 넘어 가서 여 산소여. 그게 아들이 역적으로 몰렸시니까. 비답도 기냥 분질 필요가 없다고 쳐놓고 이랬어요.

아 그런데, 이려고 산소 근처를, 에 쉽게 말하자면 인자 어느 고관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라면 말굽이 짝 달라붙어요.(웃음) 그라고 밤이면 여자 곡성이 나고 말이야. 아 근게 견딜 수가 있나. 응? 말굽이 이냥 짝 달라붙어서 안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밤이면 여자에 울음 소리가 나구. 그 유명한 사람의 인자 비석이 묘이고 다 집어 넣고. 그래서 비가 굉장히 나왔어. 그래서 안되게 해서, 임금이,

“다시 해서 잘 해 주어라.”

그 부러진 것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붙이고, 그 국가에서 한 거여. 여기 좋은 다시 한 거여. 요 넘어 가면 산소가 있어.

[맹리 설화 3] 맹리T 3뒤

맹리 논둑에서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허 석(67, 남) 1995. 11. 11.

허적이 굴 유래

허씨 집안의 여러 내력을 이야기 하는 중에 이 지방의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라며 구술하여 주었다.

그 양반이 참 정부를 칠라고, 뒤엎으라고 했는데. 그 틀렸어. 예, 그 분이 이 넘어가면 굴이 있는데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 이 허적이 참 허적이, 참 우수한 얘기가 아니지만.

그 잡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관군이 저 통재를 해가지고 말이며, 그 허적이 굴이 다 볼 수 있는거여. 저기 저 방죽이 있는데, 거기까지 뚫렸다는 거여.(웃음) 그래서 꼬추, 꼬추를 때우고 그냥 그.연기를, 그래서 그렇게 해 잡았다는 거여. 이완이란 역적이 있다 말여.

그래 역적이 나오면 삼죽을 멸했어요. 외가, 처가. 원낙 공신, 공신 집이니까 그냥 많이 감형해서 그랬지. 그러니 사촌이고 모두 죄 정승이 있지. 그래 못된 놈이 하나 나는 것이 있잖아! [칭취불능] 그때는 그 역적질 하는 거거든. 왕을 치는거지. 사실 치는거로 그게 제일 큰 죄이니까.

11. 좌 항 리

[마을개관]

좌항리, 강현모, 공윤재, 성수진, 송정민 조사
1995. 11. 11.

좌항리는 본래 죽산군 원일면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할 때에 항곡리, 좌찬리, 행군리를 합치고, 좌찬과 황골의 이름을 따서 좌항리라 칭하고 용인군 원삼면에 편입하게 하였다.

좌항리에 속하는 좌전마을은 본래 좌찬현 또(?)는 좌찬역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마을이다. 원삼면에서 내사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좌찬현이라고 불렀는데, 이 좌찬이 좌전으로 변음되었다고 한다. 좌찬현은 조선 초기 좌찬성을 지낸 박포라는 사람에게서 유래되었다. 박포는 정종 때 이방원을 도와 정도전 일파를 무지르는 공을 세웠으나, 논공행상에 늘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래 방원의 형 방간을 충동질하여 방간의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를 하여 이곳에 유배되었다. 이로 인하여 좌찬성 고개라고 불리던 것이, 좌찬현으로 변하고 다시 좌전이 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박포의 유배지는 죽주였고 고려사 역점조에 좌찬역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은 희박하다.

이곳에서 채록한 이야기 중에는 좌항리 사람만이 아닌 맹리의 노인들도 이곳에서 생활을 즐기기도 있다는 점에서, 좌전약국에서 채록한 이야기는 좌항리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맹리의 이야기인지 불분명하다.

[좌향리 제보자 1]

이희귀(64, 여) 강현모, 공윤재, 성수진, 송정민 조사
1995. 11. 11.

노인정에서 어린 손자를 데리고 앉아 계셨다. 처음에는 아는 얘기가 없다며 거절했으나, 조사자가 손자가 예쁘다며 끈질기게 요구하자 슬슬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조사자들이 주위에 둘러앉자 제보자는 고개를 숙인 채 가끔 마이크에 신경을 쓰며 구술하였다. 구술하는 중에는 강하고 길게 강조하는 듯한 음성으로 특이하게 감정을 표현하였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조사자들의 얼굴을 눈치보듯 힐끔힐끔 살피면서 이야기하였다. 손자가 지루한 듯이 '집에 가자'고 졸라 중간중간 이야기가 끊기기도 했다.

제공자료 : 설화 1 ~ 3.

[좌향리 제보자 2]

이원홍(80, 남) 강현모, 공윤재, 성수진, 송정민 조사
1995. 11. 11.

제보자가 운영하는 구멍가게 안 의자에 앉아서 채록한 것이다. 제보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 앉은 조사자들의 요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제보자는 고령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치아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말을 더듬거리는 하였지만 알아듣는 데 별다른 어려운 점이 없었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관계로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 이야기 중에 밖을 응시하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였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구술하다가 이야기의 반전이 있을 때 옆에 있던 지팡이를 들어 옮겨 놓기도 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4.

[좌향리 제보자 3]

이상애(64, 여) 강현모, 공윤재, 성수진, 송정민 조사
1995. 11. 11.

가게의 크기가 작아 제보자는 앉아 있고, 조사자들은 서서 이야기를 들었다. 가게는 노인정 앞에 위치하였는데, 노인정 앞에서 서성이는 조사자들은 보고서 스스럼없이 가게로 불러 친절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제보자는 자신의 고향이 충청도 두메산골이라 어린 시절을 다른 소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서로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낼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제보자의 아들은 포항에서 살고 있고, 친정언니와 함께 이곳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친정언니와 함께 있었는데, 쑥스러운지 먼곳에 시선을 두고 두 손을 꼭 모으고 구술하였다. 나이에 비하여 젊은 편이었고, 사투리도 거의 쓰지 않아 구연한 것을 알아 듣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제보자는 녹음을 의식하여 또박또박 발음을 하며 적당한 속도로 구술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5 ~ 6.

[좌향리 제보자 4]

제보자1(76, 남)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1995. 11. 11.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약국 한쪽에 혼자 앉아 계셨다. 성함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며, '이야기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다가 일단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다지 기억력이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도 본인은 기억을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제공자료 : 설화 7 ~ 11.

[좌항리 제보자 5]

남기만(82, 남)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1995. 11. 11.

〈제보자 1〉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 오셔서 관심을 보이셨는데, 〈제보자 1〉이 ‘야담이나 좀 해보라’고 하자, ‘그럼 몇 가지 있지’라고 하며 이야기를 해 주었다. 아랫이가 거의 빠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매우 정확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셨으며, 긴 이야기인데도 끝까지 기억을 잘 하고 계셨다. 그리고, 어디 가시려다가 기억이 나셨는지 다시 오셔서 짤막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더 듣지 못하는 것이 아까웠다.

제공자료 : 설화 12 ~ 14.

[좌항리 제보자 6]

김세호(84, 남)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1995. 11. 11.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조사자가 가서 ‘야담을 좀 해 달라’고 하자, ‘야담은 잘 모르고 다른 얘기는 잘 안다.’고 하셔서 지명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드렸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뽑아 주셨다.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 종이에다 한자를 쓰면서 설명해 주고, 옛날에 연구를 많이 하였다고 말씀하였다. 나이에 비해 무척 정정하셨으며, 이야기기도 학술적으로 풀어나갔는데, 학문에 근거를 둔 이야기라고 하셨다.

제공자료 : 설화 15 ~ 17.

[좌항리 설화 1] 좌항T 1와

좌항리 좌전마을, 강현모, 공윤재, 성수진, 송정민 조사
이희귀(64, 여) 1995. 11. 11.

곰나투 전설(유인애사)

노인정에서 어린 손자를 데리고 앉아 계셨다. 처음에는 아는 이야기가 없다며 거절했으나, 조사자가 손자가 예쁘다며 끈질기게 요구하자 이야기가 보따리를 풀었다. 손자가 지루한 듯이 '집에 가자'고 졸라 중간중간 이야기가 끊기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처녀 때 보리밭 일을 하다가 동네 어른한테 들었다고 하였다.

옛날에 내외간, 내외간에 살았는데, 하루는 바다가 막 바다를 건너야 밭이 있어. 밭이 있는데 거기서 인자 밭이 겁나게 길어요. 산 밑에. 산 밑에 산밑에 긴데, 밭에, 각시가 산 밑에, 산 밑에서 밭을 매게 되는데, 각시가 신랑한테,

“나는 산 밑이 무서우니까, 당신이 산 밑으로 가라.”

고. 해갓고, 한참 밭을 매고 있는데, 어디서 큰 곰이 나타나가지고 업고, 남자를 업고, 남자를 업고 그냥 한없이 업고 가고. 그 사이에 암만 밭을 매고 나와도 남자가 안오니까, 이게 웬 일이나 싶어가지고 그때는 신발도 던져 내버리고, 호미자루도 던져 내버리고. (가보니)사람 기척은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그 각시는 기냥 배를 타고 건너가고.

그 곰은 한없이 남자를, 그 남자를 응, 남자는. 짊어지고 산으로 산으로 넘어 갔어. 넘어가는데 거기 가다가 갖다 퍽 갖다 내려노니,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몰르고 있는데. 음 거기다 내려놓고는 응, 곰이 큰, 막 독을 막어 놓았던 독을 끄집어 내갓고, 끄집어 내니까 거기가 응 굴여.

그래서는 그 굴속에다가 그 응, 남자를 들여놓고 인제 곰도 들어 오고. 들어 오고. 그런데 방(굴속)이 겁무(?) 크다고. 굴속에. 그러니까 거기서 곰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곰. 그 곰은 산에서 짐승을 빙, 짐승

잡아다가 그 남자 먹이고, 또 바다 가서 바다 건너서 물 가상에 가서 생
고기도 잡아서 먹이고, [조사자 : 꿈이?] 꿈이. [조사자 : 꿈이요?] 응.
그렇게 잡아다 먹였는데, 어느 어느 날은 그 꿈이 암내가 났어.

암내가 나서 그 신랑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아를 뺐어요. 새
끼를. 음 꿈이 새끼를 뺐는데, 새끼를 뺐 후에 인자 뺐 후, 배고 나서는
먹을 걸 많이 갖다가 굴속에 쟁겨 놓고, 쟁여 놓고 그 애를 날려고.

하는데 하루는 막 무엇을 가지고 오는데, 먹을 걸을 장만해 갖고 오더
니만 배를 문질고, 막 막 띠굴띠굴 둥구는데, [조사자 : 누가요?] 꿈이.
[조사자 : 꿈이요?] 응 꿈이. 띠굴띠굴 둥구니까, 꿈이 인자 새끼, 새끼
를 날어요.

넣는다 아래는 사람이고 우는 꿈이고. 여섯 마리를 넣어요. [조사자 :
여섯 마리?] 여섯 마리를 나갖고 그 굴 속에서 키우는데. 인자 몇 며칠
을, 그 안에서 인자 누어 있다가는, 설마 그 남자가 안 도망, 도망 안갈
줄 알고, 도망가지 않을 줄 알고, 음 하루는 그 돌을 구멍을 안 막고 기
냥 갔어요.

가서, 그 틈을 타가지고 그 남자가 도망갈 결심을 하고 맘 먹고 있는
데, 하루를, 한 나절이 다 지나도 안 오, 안들어 오니까 그 까죽, 까죽
벗겨 놓은 거, 그거 전부 까죽 벗겨놓은 것 그것 다하고, 이발도 안하고
저거 하니께 순전 얼굴이고 머리고 털이고 짐승이나 한 가지여. 그라고
그 까죽을,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그 까죽 밑에다 너 났다가 그 놈을
주워 입고, 그라고는 까죽 벗겨 놓은 것을 칼로 벗겨놓은 것을 그놈을
옆구리에다 치차고 발도 양말도 없으니까, 그 까죽으로 해갖고 그 칩녕
쿨 벗겨가지고, 그 놈으로다 창창 감고. 아스라 하고 도망을 가는데, 도
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나왔어. 강가애가 나와 갖고 저기가 나루터.
그 전에는 배, 배, 왔다 갔다 하는 나루터가 있길래, 인자 그 배장수 보
고.

“그 건너다만 건너다만 주시요. 하고 저 건너가야 우리 집을 가고. 지금은 짐승(곰)한테, 곰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빨리 나 좀 실어다 주라고. 실어다 주고 나면은 내가 좋은 것을,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아저씨 돈 될만한 것을 디릴 테니까 가십시다.”

그러. 그러니까 인저 아, 배를 중간쯤 타고 가는 판인데, 그 곰이 어깨다, 어깨다 올려 메고, 여기다가(허리춤을 가리키며) 올려 메고 막 양손에다 잡고. 여섯 마리를 막 바닷가에를 바닷가에를 쫓아 왔어. 바닷가에 쫓아와 가지고는 그 남자는 중간치만큼 가는데, 고개를, 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오-! 오-!”

하면서 하나(새끼)를 빠치고, 또 소리 지르고 하나 빠치고. 또 소리 지르면서 하나를 빠치고. 이렇게 여섯 마리를 다 빠치고는 마지막, 마지막 그 곰도, 곰도 빠져 죽었대야.

죽었는데, 남자는 인자 배가 저 모래 사장으로 갔다 놓고. 음, 옛날에는 가위로도 안깎고 면도칼이라는 칼로 머리 깎는 칼이 있어요. 지금 중들 머리 깎는 칼. 그 놈 갖고 머리 다 훌쩍 깎고, 그러니까 생전 별을 안봐서 얼굴이 휘-니 백사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신발을, 짚세기를 하나 달라고. 배 그 나무배 그 쫓는 사람한테 짚시기를 하나를 달라고 허드래. 짚시기를 신고, 신고 그 가죽을 인제 돈 벌려고 그 가죽 갖고, 장고도 맨들고 북도 맨들고 다 신발도 맨들고 다 했는데, 그 놈을 그 배주인한테 쫓시요.

주고 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 남자는 살던, 살던 집을 찾아 갔어요. 찾아간깐 인자 그 집은 썩대밭이 되어 있고, 각시는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그 동네 사람들 말을 듣자니까,

“이만저만 해서 발매러 가서 남편이 어디로 가고 읍어져서, 일 년을 지내도 안오고 이 년을 지내도 안오니까, ‘아, 이젠 이것은 다 틀렸다.’

그래가지고 아마튼 다 이사를, 이사를 가 가지고 시집을 갔다.”

고 그러네. 그러니까 노심초사가 되가지고, 그러갖고 축대밭 된 그 집을 다 손질을 해 갖고는, 거기서 각시를 하나 얻어 갖고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대야.

[좌항리 설화 2] 좌항리 1앞

좌항리 좌전마을, 강현모, 공윤재, 성수진, 송정민 조사
이희귀(64, 여) 1995. 11. 11.

큰 마누라 문둥병을 고쳐준 작은 마누라

앞의 구술을 마친 제보자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해 주신 것이다. 좀 생각하는 듯 하다가 재미있게 구술하였다.

옛날에 참, 마느래, 두 내외가 사는데, 두 내외 사는데, 두 내외가 살았는데 부자집이여, 집이.

부자집인디 여자가, 여자가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는데, 참 어떻게 농사도 짓고 사는데, 일손이 모자고 할 수 없이 동네 어찌게 해갖고 마느래를 하나 데려 왔어요. 마느래를 하나를 얻어 왔는데, 그런 마느래가 참 효자 효녀여. 참 큰 마나님한테 잘 해 줘요.

큰 마나님, 큰 마느라는 방 하나를, 방을 하나를 딱 아래층에다가 지어 놓고, 지어 놓고는 일상 물을 떠놓고 공을 들여요. 응.

“큰 마나님 병만 낫게 해 달라.”

고. 하루 저녁에는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데 선물을 했어요. 하얀 노인이 나오시더니,

“너무 너무 니가 공상을 하고, 너무 욕을 보고 너무 효녀짓을, 효도를 하고 그러더니, 니한테 복을 주겠다.”

고 말이여.

“응, 내가 지금 응 삼베로, 삼베를 주머니를 맵글어. 맵글어서 가닛대를 지드라니게(길다랗게) 해갖고 몇 시에 시간 몇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허고, 저 장독 뒤의 울타리 밑에다가 딱 걸치게 놔두라.”

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는 이상해서 여걸 어떡하면 좋겠느냐 생각을 하고는 참 잠을 자고 일어나 가지고, 그 하얀 노인네 얘기 허듯기, 애기헌 것같이 그렇게 한겨여.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쯤이 되니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울타리를 실실 기어갖고, [조사자 : 구렁이요?] 응 구렁이. 큰 구렁이가 울타리, 울타리로 해서 슬슬 나오는 놈을 그 삼베 주머니에 슬슬 들어가서, 슬슬 들어가 꼬랑이까지 다 들어간 뒤에 간지뎡이로 저거를 확 잡아 당기니까 주머니가 주머니가 맵글어 졌어요. 안을 들어갔어요.

그놈을 들어다가 딱 가마솥에다 고았어요. 과갖고, 그 과서 그 가마솥에다 곧 그것을 딱 짜가지고는, 불을 막 푹 팬게 뿌옇허니, 아주 그냥 기름이 뚱뚱 뜨고.(웃음) 그래서 이자 일상 그러니 그 큰마느래 얼굴에는 막 터지고 막 핏물이 흐르고, 그냥 또랑같이 흐르고 발짝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불구지(싫어하지) 앓고 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옷도 갈아 입혀 주고. 그 작은 마느래가 그래요.

그래 그 국물을 뜨근뜨근하게 데서 늘, 하루면 3번씩 갖다 바쳐요. 자꾸는 목욕시키는데, 목욕을 시키고 보면은 몸뎡이가 틀려져요. 그러더니 틀려지더니만 그냥 약 써도 약발도 안받고 그러더니, 그것을 먹고 나서는 먹고 나서는 이 몸은 다 나셨어요. 나서서 다 천지가 도와주었다는 걸로 생각하고, 작은 마느래가, 작은 마느래의 신덕으로 공덕으로 그렇게 응, 큰 마느래가 나셨어요.

그러자 인자 작은 마느래가 아가, 아가 있게 되었어요. 아가 있게 되니까, 또 그 시암이 났던가 또 큰 마느래가 아가 있어. 그집이는 그냥

날마다 해마다 부자가 되가요. 부자가 되갖고, 부자가 되갖고 한 집에서, 한 집에서 재밌게 살았대요. [조사자 : 큰 마누라하고 작은 마누라 하고요?] 응.

그렇게 그 문둥병이란 것은 그 뱀이 좋대요. 구렁이가. [조사자 : (웃음)문둥병에는 뱀이 좋아요?] 응, 사람의 말은 사람의 간이 먹어야 인공을 한다고 그래도, 구렁이를 먹어야만 그놈 참 본하는 거여. [조사자 : 아! 문둥병에는 뱀이 좋구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좌항리 설화 3] 좌항T 1앞

좌항리 좌전마을, 강현모, 공운재, 성수진, 송정민 조사
이희귀(64, 여) · 1995. 11. 11.

정승 딸을 데리고 산 머슴

앞의 구술을 마친 제보자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다른 곳에서는 소설적으로 구술해 주는 것이라며 해 주신 것이다.

옛날에 명칭하고 미련한 곰같은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머슴이 있었는데, 점을 치면, 새경(일년 동안 일 해주고 받는 보수)도 못받고, 장가도 못가고 노총각으로 있는데, 하루는 탁 신수보러 간다고 해갖고, 인제 신수를 보러 가는데, 허 산중에 산중인데, 산중에 거가 사주 보는 이가 있다고 그러니께 걸로 찾아 갔어요. 아침에,

“이리 오너라.”

하니께는. 머슴이 나와서는,

“아유, 저 사주 보는 집이나?”

그러니께,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쇼. 해서 쥐인보고 얘기하고 내가 나오

리다. 그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 그럼은 저 건너방이다 모시라.”

그래갖고는 건너방이다 인자 밥 갖다 주어 밥 먹고, 암만해도 사주를 보지도, 봐야주딜 안터랴요. 저녁이 킴킴-헐 쬐이 되니까 머슴 보고,

“야-! 그 아랫방 있는 사람을 뒷동산 저기다가 매달어라.”

그랬어요. 인제 그 뒷동산에다 바로 틈이 가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죽으면, 옛날에는 죽으며는 초백(초분)을 해 놔요. 사흘만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살아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그다 탁 매달아 놓고, 안죽을만치만 매달아 노니까, ‘뛰굴 뛰굴 뛰굴’ 몸부림치게, 뛰굴 뛰굴 허니께 그 바위 틈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정신없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서 울음소리가 나요. 울음소리가 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이러구 정신을 채려고 보니까 불이, 불이 뵈뵈뵈해서 거기를 찾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촛불을 키어 놓고 관을 관은 열어 놓고 있는데, 관은 열어 놓고 있는데. 이상해서 촛불, 촛불 켜 놓은 데를 이렇게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허-연 옷을 입고, 그래갖고,

“나를 일으켜 딸라”

고. 그러니까, 그 그 멍청한 머슴이, 일어나셔서 보드마다가(안아다가) 마당에, 바위 틈에다 앉혀놓고서 이 얘기 저 얘기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어서 어떻게 된 일이나?”

구.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몹쓸 병이 들어갖고 아무개 집에, 아무디 아무 곳의 아무 대감의 딸인데, 대감의 딸인데 몹쓸 병이 들어갖고 내가 잠시 죽었던가 보다.”

고. 그랬더니,

“저승에 들어갔더니, ‘넌 아직 죽을 때가 못됐으니 내려가라’고 그래갖

고 제가 이렇게 살아났어라. 살아났어요.”

그럼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누워서 니미 거기 있어서는 안되겠고.

“우선 등에 업으라.”

고. 해가지고 그 아가씨를 업고 어디만큼 걸어가니까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주막에 가서 인자 주인장을 불러가지고,

“방 하나만 달라.”

허갓고. 갖다가 방에 갖다가 뉘혀 놓고는 날이 새기만 바랬어요. 날이 새기만 바래서 날이 훤히 비치니까, 인자 그 남 머슴이 그 대감집을 찾아가요. 찾아가갓고,

“여보시유! 여보시오!”

그러고 부르니까 머슴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거지같은 것이 왜 이런 대감집에 찾아 왔나?”

면서 막 쫓아내요.

“하야간, 꼭 대감님을 만나서 꼭 입, 말을 드릴게 있어요. 드릴 것이 있으니, 델고만(계속)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고맙겠다.”

고. 그래도 안들여 보내주는 게여요. 안들어 줘서,

“이만저만 해서 며칠 전에 이 집에 아가씨 하나 죽어서 나왔냐?”고.

“그렇다.”

고. 그 머슴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여.

“그런데 그 아가씨가 살아나서 저기다 갖다가 주막에다 모셔다 뵈다.”고.

“아. 그러냐?”

고, 그러면 이제 쫓아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깐,

“얼른 빨리 델고 들어 오라.”

고. 마당에다 꿰어 앉혀놓고는, 인자 이차이차 이러타니 저러타니 얘기를 다 해갓고는, 그러면은 가 데리고 와야 할 것 아녀. 그래가지고 그

오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빠가 마음이 나빠요. 마음씨가 나쁘다고. 오빠 하나하고 여동생 남매가 있는데, 다만 그 아가씨는 죽고 그 오빠만 이제 저저 사는데, 하루는 인자 그날 인자 대감 아버지가 그래요.

“네 얼른 말 타고, 가매에, 가매를 가지고 가서 아무개를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는 데리고 왔는데, 지 아빠, 지 오빠는 말을 타고, 그 사람은 가마 뒤를 따라 가고. 따라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막을 가보니까 지 누이 동생이 있어요. 그라고 가매에 다 태우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은 가마 뒤를 따르고 그래가지고 대감 집예를 왔어요. 와서 디려다 놓고는 저 쓰던 방으로 들어 디려놓고, 이제 그 여자가 그래요.

“저 아저씨를 보내지 마라고. 아래채를 하나 해서, 방을 하나 해서 거처 하라고 말이여. 저 사람은 나를 살려준 은이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두라.”

그래서 거기 두어 있는데. 하루는 오빠, 오빠가 마음씨가 나빠요. 그래 인자 이렇게 되살아서 이렇게 얼굴에 그냥 얼굴에 빛이 난 것도 다 낫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여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직의 친구한테 결혼식 시킬려고. 그런 말을 물어요, 동생한테.

그런게로 그날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물 한 목숨도 안마시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자 옛날에는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 초가집인데 사람만 들어가면 죽어요. 집도 있고 기와집인데, [조사자 :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다고요?] 죽어 나와요. 죽어 나오는데, 인자 즈 아버지랑 즈 엄마랑 인자 또 오빠랑,

“도저히 재가 밥을 안먹으니 피를 내자. 결혼식을 일단 허고 그 남자를 그집으로 들여보내고, 그러고 저녁에 내외간에, 저 각시를 보낸다고 그러고 보내자. 미리 신랑을 보내자.”

그렇게 약조는 해서, 미리 미리 그 집을, 폐쇠된 집을 칠칠하고 다 고쳐갖고, 풀 난 것 다 뽑고 다 멀쩡하게 해 뒀어요. 해뒀는디 그날 인자,

날을 인자 직 엄마가, 직 엄마가 인자 죽을 가지고 갔어요.

“아, 이만저만한 날짜를 받았으니, 날을 받았으니 어찌든지 문열어 보고 부지런히 먹고 기운을 채리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문을 열어 주는거야. 허는디 결혼 날짜가 닥쳤어요. 마당에 채알 쳐 놓고, 다 해놓고 예불(예식)을 다 치르었는데, 한 저녁 때쯤 되니까, 말을 태워가지고 그 집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집을 디려 보냈어요. 그리고 나와갖고 인자 방도 잘 꾸며 놓고 이부자리도 다 해고 그랬는데. 아 잠을 안와서 한 한 시, 열두 시쯤 인자 자게 되니까 뺨에서 막 문구녕을 뚫는 것같고, 문구녕을 뚫고 그만, ‘하하’ 그라고 이제 막,

“인자 왔다고. 오른 주인 만났다. 오른 주인을 만났으니 들어가서 인사를 하자.”

“아, 그러구나.”

수궁수궁수궁 거려요. 그래서 인자 촛불을 키고 요려고 앉았는데. 모두 다 도깨비 빨나고 빨난 도깨비들이 막 쫘그쫘긋 허므시리 들어오면서,

“주인 어른 오셨냐?”

하고 인사를 막 해요. [조사자 : 그 여자한테요?] 아니요, 남자한테. 그 신랑한테. 인자,

“오른 사람이, 오른 사람이 와 오셨다고. 오셨으니, 우린 권 양반이 오셨으니 어떠든지 우리 권 양반 이 집에서 부자 되갖고 살으시라.”

고. 막 그러면서,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되겠느냐 말이여? 이거 뭐냐고? 내가 여기서 살면 되지 않느냐?”

고. 그러니까 그 도깨비들이 방망이 하나를 쫓어요. 도깨비 방망이. ‘똥 나오라’ 하면 똥이 나오고 다 나오라(조사자 웃음) 나오라는 것 주었어요. 그래갖고 앉아서 붙들고 인사하고 갔어요. 가고 난 뒤에,

“주인 어른 오셨나?”

하면. 뭇이 나오고.

“쌀 나와라, 똑딱!”

하면 쌀 나오고. 또 ‘돈 나오라’ 하면 돈 나오고, 에 그러고 돈 나오라 하면 돈 나오고. 금 나오라 하면 금 나오고. 그렇게 나오라고 하면 싹 나오와요. 그래 옷방이다 다 싸놓고. 싸놓고 싸놓고 있는데, 그러고는 인자 날이 샐어요.

흰히 샐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아랫방문으로 옷방이 있는데, 아랫방으로 관이 하나가 쑥 들어와요. 관이. [조사자 : 관이요.] 응, 죽으면 거기다 넣을라고. 관이 쑥 들어오니까 인자 그것을 밀어놓고 문 딱 닫고서 닫았는데,

“아따 잘 됐다. 어따 담을 것도 담을 그릇도 읊었는데, 여기다 불삼으로다 돈으로 다 담자.”

그래갖고 그 관속에다 나 나오라는 것 다 담어놓고, 담아 놓고는 이제 관 들여놓았으니, 인자 송장 칠려고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여. 이제 와서 보니 마당에서 왔다갔다 허거든. 그런데 남자가. 확 다 그냥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갖고, 도망을 가갖고는 그 주인 어른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만 저만 해서 살아 있드라고. 참 어떻게 말 할 수가 읊다.”

말이여. 그러니 그 이튿날 또 저녁에 자는데, 자고 있는데 또 도깨비가 또 나와. 도깨비가 또 나와. 밤에 또 나와 온거여.

“걱정 마시라고. 형님네 새경 못받은 거 쥘 양반 새경 못받은 거 죄 받아서 부자로 살게 해 줄테니 걱정 마시라.”

고 말이여. 그러구 막 금싸라기로, 막 쌀을 쌀을 막 도깨비들이 실어다가 마룻에다가 툭툭 부리고 그런데. 그러구 저러구 그럭저럭 또 다 그 벨 하루를 지냈어요. 아침에 인자 들오니깐 아침엔 인자 일어났는데, 죽었는게비. 또 오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당에 나와서 그 사람

을, 중을 묶으라고 한게, 엄혈려고 한 사람들 마당에다 꿰어앉히고는,
 “니그들 나 죽으면 관속에다 넣으려고 관 갖고 왔지. 하고 니그들 내 마음대로 내말 안들었다가는 니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께, 당장 가서 마누래 달고 오라. 우리 각시 결혼식한 각시 데리고 오라고. 막 싣고 오라.”
 고. 막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허고 가갖고 가마를 태워서 달고 왔어. 그리고 그러자 그 각시네 집도 그지가 되어버렸네. 살림살이가 아무 것도 없어. 다 빼다가 인자 요기다 왔어. 각시는 인자 디러오고. 각시는 참 그 신랑을 생각하고 이틀 저녁, 첫날 저녁이도 못자고 그러니까는 고심을 하고 있는 판인데,

나중에 그래가지고는 그 각시가 가매 가매가 인자 가매타고 들어갖고, 거기서 그냥 부자로. 그래갖고는 그 각시와 신랑은 그집에 와서는, 그 재산을 전부 빼 빼어와서는 그 집에다 대궐같은 새로 해갖고는. 그런게, 그 대궐 집이도 거지가 되고, 머슴 사는 집이도 거지가 되고. 다 거지가 되갓고. 그래 이 사람이 부자가 되갓고 아주 일류 부자가 되갓고 잘 먹고 잘 살았대.

[좌항리 설화 4] 작양 1뒤

좌항리 좌전마을, 강현모, 공윤재, 성수진, 송정민 조사
 이원홍(80, 남) 1995. 11. 11.

기생 집을 얻은 배추장수

제보자가 운영하는 구멍가게 안 의자에 앉아서 채록한 것이다. 제보자는 고령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치아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므로 조사자들의 요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말을 더듬거리는 하였지만 알아듣는 데는 별다른 어려운 점이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 도 중에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구술하다가 이야기의 반전이 있을 때 옆에 있던 지팡이 들어

옮겨 놓았다. 이야기는 30살 전후에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여 뭐 오래된 얘기도 아니여. 한 오 십년 이내 이 안쪽에 된 이야기거든. 여잔데 험게 하도 없어서 말이지, 양공주 노릇을 했어요. 양공주 노릇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

“야, 이만하면 내 나가서 좋은 배필을 하날 얻어가지구서 잘 살겠다.”

하구서는, 와서 배필을 하나 얻었더니 웬 못된 부랑자를 만났단 말야. 나중엔 돈 다 갖다 바치고 몸뚱이 바치고, 결국은 발길로 채이게 됐다 이거여.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분해. 그 아까운 돈을. 그 아깝게 벌어들이는 그놈한테 바치고 나중에 몸뚱이까지 채여져 나오니 얼마나 분하냐 말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결심을 하고는 다시 양공주 노릇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이번엔 내 나가서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 혼자 살아도 내 일생을 잘 살테니까 당채 남자라는 놈은 언질 앓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는 나가 있는데, 아- 이- 종로에다가 한 3층집을 떡 하나 장만해 놓고서는 내다보니까 그 중앙시장에 사람이 그저 구테기 꿇듯 하는데, 그게 전부 남잔데,

“게- 저렇게 많은 중에도 나에게는 남자가 없나!”

하는 생각이 벨안간 나더라 이거여.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니, 연의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벨안간 밑에서,

“배추 사려!”

그랬거든. ‘배추 사려’라 하니까,

“배추 삼시다.”

그래구서는 그냥, 그런게 3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밑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 우습지 뭘.

“배추 삼시다.”

그러니까,

“사시오.”

그래더래.

“아, 그럼 일각문이로 끌고 들어오시오.”

그러더래. 그 니아까에다 끌고 들어갔다 놓으니, 아 이놈의 배추 장사가 가만히 하나까, 이놈의 권이 배출 사지도 안넣고 괜히 잔소리만 하고 있고 큰일 났거든. 오늘 이 한 니아까를 팔아야 또 장사를 할 꺼 아니란 말여. 그래서 이 몸이 달아서 있는데,

“에, 뭘테로 되라. 설마 저 여자가 사, 귀신은 아니고 사람 잡아먹지는 않겠지.”

하구서. 그냥 무작정 있었다 이거여. 그랬더니만 참 뭐 마당 빌어 뭐, 봉당 빌어 뭐, 안방 진다더니만 아 차차차차 하더니만은 ‘말루(마루) 앉으라’구 해서 마루 앉았더니만은,

“당신이 결혼을 했오, 안 했오?”

“나는 유부남입니다.”

이러니까,

“그래 아들이 몇이오?”

“아들이 형제가 있고, 우리 마누라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좋다.”

고. 그러더니, 그 여자가 얘기만 자꾸하고서는 배출 안산다 이거여.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 배추 저 한 니아까를 팔아야 만이 났 장사를 또 할텐데. 아, 이놈의 얘기만 자꾸 때려부시는 바람에 무작정 있단 말이여.

“그럼, 당신이 나허구 살자면 살것오?”

이거여. 그러니까 남자 욕심에 말이지.

“아, 살지요.”

그러더니,

“그럼, 당신 부모한테 허락도 없이 나허구 살아도 되겠나?”

이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뭐라냐.

“당신이 부모한테 가 승낙을 맡아갖구 와야지, 승낙도 없인 당신하구
좋다구만 살 수가 있느냐?”

고 말이여. 그러니까

“안된다”

고 말이야. 그래 그 남자가 가만히 하니까, 그 이치가 여자의 말이 옳
거든. 허기는 그렇지. 부모의 거시기 승낙이라두 있어가지구 와야 저 여
자하구 내가 살겠다하는 생각이 나서,

“그럼, 당신! 이 길루다가 집에 가서 승낙을 맡아가지고 올 수가 있겠
느냐?”

그러길래.

“아, 그건 집에 가봐야 알지. 내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은 못하겄소.”

그러니까.

“그럼, 당신 집엘 갔다 오쇼.”

하더니마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점심을, 이제 그러더니 식모를 시켜서
점심을 해다 맞점상을 해서 안방까지 차려서는 점심을 한 그릇을 잘 먹
었던 말여. 그러나 점심은 잘 먹었으나, 배차(배추)를 한 니아까를 팔아
야지만 널 장사를 하지. 게- 그- 이님(놈)의 속으로 큰 걱정을, 한편씩
으론 걱정이 되고 또 한편씩으론,

“에라, 될대로 돼봐라. 설마 여자가 사람 잡아 먹겠니?”

야, 인제 이 계산을 하고 있구 헌데. 여자가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나하고 곱(같)이 살라면 말이야, 부모한테 가서 승낙을 맡어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야 그렇거든.

“야, 잘 알았다.”

고. 그러므로 에- 밥을, 점심을 한 때를 대접하더니만,

“가 목간을 하구 오라.”

그러더려. 게 목간을 하구 올 동안에, 이 여자는 벌써 그 남자의 벌써 신발이며, 뭐 저 와이샤쓰며, 벌써 목 카라가 몇 짝인지, 몇 칠인데(몇 인치)나 되는지 것까지 알구선. 떡 해서 저 기성복을 떡 사다놓구는, 인저 올 때만 기다리는 거여. 게 목간을 허고 오더라 이거여.

“게- 당신이 좀 입어 보라.”

고. 아, 그러더니 벨안간 신사가 되엇더라 말이여. 아 배추장사 하던 님(눔)이 벨안간 신사복을 입고서는 와이샤쓰에 넥타이껴정 매고서는 딱 보니까, 아 대체 제가 지 얼굴을 지가 쳐다봐도 지가 벨안간 신사가 됐단 말여. 아- 그러면서 나까무리까지 뛰어가지구서는 이렇게 오니까, 아 이걸 뭐 금이 없는 신사 됐지.

“아- 서울에도 나같은눔의 신사가 또 있으라.”

하는 생각이 나구. 이눔의 자부심이 인자 자꾸 생겨진다 이 말이여. 아 그러는 통에 아 인제 이렇게 있었어. 아무게는 동아리들이,

“아무게는 혼절씨(혼자서), 아 벨안간 신사가 되서 어대를 가대. 저녁 때.”

인제 이런 말이 나왔다 말이여. 아 그래서 인제 그 길루다 죄그 고 향예를 간거란 말이여.

“당신 부모가 계시다니까 다만 고기라도 한 근 사가지고 가야, 에 노 부모의 대접이 되고, 처자가 있다 하니까 마누라의 옷이라두 한 벌 해가지구 가야 당신이 되지 않느냐? 애들이 있다니까 과자푸러치라두 사가지구 가야 되지 않느냐?”

구. 아 그 여자가 준빌 다 해주더니만, 돈을 척척 건내 주더니만, 몇 만원을 떡 주더라 이거여. 그러니까, 아 그걸 받아가지고 노자를 해 가

지고서 떡 와서, 저 집엘 대낮에 멀쩡하게 들어갈 수도 없고. 저녁 킁킁
 헐 때를 어둠어둠헐 때를 기다려 가지고서, 그 산잔등에서 기다려 가지
 구는 어둠어둠헐 때를 기다려 가지구는, 저길 저 집엘 찾아들어가는 거
 란 말야. 그러니까 즈 어머니허구 즈 마누라허구 들어서 인제 인상을 딱
 보니까, 그 어머니보구 하는 소리가,

“어머니! 어떤 여자가 날 보구 곁이 살자구 그러는데, 승낙을 맡어가
 지구 오라는데, 가족의 승낙을 맡아가지구 오라는데 우떡하면 승낙을 해
 주시겠소.”

“아 니가 나하고 사니?(일동 웃음) 니 아내하고 살지, 나하고 사니?
 니 아내한테 가서 승낙을 맡아 봐라.”

그러더라구. 게 마누라한테 가 벨안간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밤에
 이제 곁이 인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인제 한 방을 떡 쓰면서 마누라
 를 꺾꺾 찢르면서 하는 말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떠하냐?”고.

“당신이 헐 탓이지, 내가 어떻게 말을 허오말야. 내가 허지 말라면 안
 할 꺼요. 허래면 헐 꺼요.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 먹기에 달렸소 말여.
 만일 그 여자한테 살드래두 정만은 나두 좀 다오.”

이거여. 인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 남자가 사실 통탄을 했거든. 그거
 여자가 그렇게 말할 줄을 참 몰랐단 말여. 그래서, 아 그래서 인자
 승낙을 맡았던 말여.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며칠 인제 묵구서는 인제
 떡 오는데, 이눔이 그 저녁 때쯤 해서 인제 그 집을 찾아간단 말여, 그
 과부집을.

배차, 배차 한 니아꺼는 그냥 건너 집애다 싸놓구서는. 인자 돈두 못
 받고 그냥 못하고 인제 이거 입구. 그래 인자 못벗어 놓구는 그거나 찾
 아 입으라 거식할라 그랬더니만,

“아. 뭐 이거 인제 필요치 않으니까 당신 다 가져가라.”

고 그려. 아- 그러니 가져갈 수가 있나. 어찌가나,

“그래 승낙을 맡아가지구 왔나? 아! 승낙을 맡았으니까 당신은 나하구 인제 베필이 됐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당신은 내 남자가 되고,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됐으니까?”

거식해서 인제 밤에 저들끼리 자다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서로 예를, 예를 갖추고서는 인자 내외가 됐다 이거여. 그래가지구 인제 사는데, 뒤루다가 돈을 자꼬 해서 흥부네 집짓듯 해놔어요. 벨안간 그냥 에 서슬대 문에다가 그냥 안팎을 다 저놓고. 그냥 산골자구니에 전지를 전부 사가지고 터를 맨들어 놔서, 집을 전부 지어놓고 이사했단 말여. 그냥 그 여자가 돈을, 뒤돈을 쥐 대, 대줘서니. 사람을 시켜서는. 그래서 한 대여섯달 살구 하더니만, 남자를 불러 놓고선 막 까임을 허넌거란 말여.

“여보! 당신이 사람이냐구 말이여. 당신허고 나허고 산 지가 그럭저럭 한 오육 개월 되었어. 그러면 당신 부모가 있으면 부모한테 나에, 나를 생면을 시켜주어야지. 당신 마누라도 있대면 나는 작은 마누라 노릇을 할테니까 당신이 생면을 시켜주어야 옳잖느냐 그 말이여. 당신 아들도 있다니까 그 아들들한테 생면을 시켜주어야지. 이 체신 사람 구실을 못 하고 있으니 되냐 말이야?”

이러구서는 자기 영감을 더욱 나무래거든. 아 그러니 할 수 없이, 그냥 쫓는 닭이 되었단 이 말이여. 아 무어라고 할 말이 있어야지. 그 여자 허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참 꼭꼭 들어맞는 말이다 이거여.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갑시다.”

그러구선. 그래 가는데, 그래 그 여자가 인제 차려가지고 가는거라 이거여. 그러니 노부모가 있으니 고기에 그래도 술 한 잔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갈비 한 짹을 사고, 증종 한 병을 사고 이래가지고선 가구. 마누라가, 큰 마누라가 있다니까 큰 마누라의 옷을 한 벌 딱 해 입히고,

애들도 옷을 해 입, 감을 꿰어가지고 이래 가고.

서울서 인제 느지막하게 떠나가지고 거기를 어둑어둑할 때 가는데, 아 골짜구니 가보니까, 아 직 집이 아니란 말여. 웬 그냥 번지르르한 기와 집이 한 채가 있어가지구. 서슬대문에 그냥 안, 안팎으로 종을 뒤편이구는, 그냥 일꾼이 들쭉날쭉 허는 걸 보니까, 아 도무지 자기 집이 아니구. 이젠 내가 꿈속에서 깨났는지 알 수가 없단 말여.

“여기가 아닌가 보다.”구.

“여기라.”

고. 그러면서 마누라는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라’ 덮어놓고,

“여기라고. 들어가 보라.”

고. 아 가, 들어가 보니까, 즈 어머니가 하 그냥 좋은 비단옷을 입고 서는 대청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는데 보니까는, 아 즈그 어머니란 말여. 아 즈그 마누라를 또 보니까, 즈 마누라도 아 그 오리씨같은 버선을 신구선 왔다갔다 하는데 아 천하일색이 됐단 말이며. 아 그 뭐 그까짓 것, 배추 살려고 했던 마누라보다도 인물이 훨씬 낫고 아 그 그렇지. 그 마누라 그 까짓꺼 눈에도 안띄더라 이겨여. 아 그래서는 헐 수 없이 그 마누라 돈을 가지고 갔으니 할 수 있느냐 말여. 헐 수 없이 가서 절을, 직 엄니한테 가가꾸 녀쩍 절을 하구.

“으뜸게 된 겁니까? 이게 도무지.”

“아, 애, 니가 돈을 많이 보내줘서 이렇게 집을 장만하고, 이 터 근처에 텃밭이구, 이거 뭐 산이구, 뭐 이거 다 우리가 산 거다. 다 우리 해(것)이다.”

그래면서 아 좋아하거든. 게 마누라 보고는 인제 잠자리에 들어가서는 인제,

“으뜸게 된거냐?”

하니까,

“아 여보쇼. 당신이 탄 맘을 안먹고 잠 고지직(고지식)한 마음로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우리가 이렇게 베탕 부자가 됐지. 당신한테, 당신의 덕을 갖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고 말이여. 그리고 인저 자기 영감을 칭찬을 안할래라 안할 수가 없잖아. 잉. 그래가지구서는 딱 인제 보니까, 아 인저 저 집을 인저 번드르하게 잘 지어났다 이거여.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되겠어. 그래 인제 배추 살려고 했던 마누래가,

“여보! 내가 당신 작은 마누래가 됐는데, 게 이렇게 돼가지고 왔으면 동네 사람한테 잔치라도 한 번 베풀고 가야지. 그냥 가서야 이거 되겠냐?”

고.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 술에 그냥 고기에 그 뭐 그냥,
“갈비를 드려라. 그저 술을 드려라.”

그래 가지고선 동네 사람, 노인네, 아 노인네 전부 큰 일을 치뤘다. 이거여.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제 기분이. 남자두. 게 그래가지고선 처첩을 거느리고 잘 살드래여. 그런얘기가 있드래.

[조사자 : 그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작은 마누라가 도와 준거지. 그 돈을 드럽게 많이 벌었거든. 양공주 노릇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헐 일을 헐거고, 작은 마누라는 헐 일 헐거여. 좋은 일 헐거여.

[좌항리 설화 5] 작항T 1뒤

좌항리 황골마을, 강현모, 공윤재, 성수진, 송정민 조사
이상준(60, 여) 1995. 11. 11.

백다구 변한 여우

가게의 크기가 작아 제보자는 앉아 있고, 조사자들은 서서 이야기를 들었다. 가게는 노인정 앞에 위치한, 제보자는 노인정 앞에서 서성이는 조사자들은 보고서 스스럼없이 가게로 불러 친절히도 이야기를 꺼냈다. 제보자는 자신의 고향이 충청도 두메산골이' 친정언니와 함께 이곳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쑥스러운지 먼곳에 시선을 두고 두 손을 꼭 모으고 구술하였다. 나이에 비하여 젊은 편이었고, 사투리도 거의 쓰지 않아 구연한 것을 알아 듣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제보자는 녹음을 의식하여 또박또박 발음을 하며 이야기의 속도를 적당하게 구술하였다. 이 이야기는 14살 때 충청도의 산골에서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어떤 한 사람이 에 어디를 가게 뵈어.

길을 가다라니까 길을 실컷 걸어가다랴게 똥이 마려워서,(일동웃음) 인제 슬렁슬렁 봐가지고 한비쪽에 앉아서 똥을 실-컷 누구(싸고). 종이를 안가져갔으니까 인제 뭘 찾아보니까 그 옆에 뺨다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뺨다구를 이렇게 집어다가 인제 밑을 뚫구서나,(웃음) 뚫으니까 뺨다구가, 이렇게 되려다 보니까,

“아, 꾸러!”

이러더랴.(웃음) 그래 되려다 보니까, 그 이상할 꺼 아니야? 그래갖고는 다시 또,

“구리니?”

이러니까.

“구리다.”

그러드랴. ‘구리니? ‘구리다.’ ‘구리니?’ ‘구리다.’ 자꾸 이러다가. 그러다가(도중에 손님이 와 라면을 찾음.) 그러다가 저쪽보고 획 집어내버리고 인제 또, 또 다시 길을 가는데, 아 이 뺨다구가 자꾸 따라오더래.

“뚝뚝뚝뚝”

자꾸 따라와서 인제 겁도 나고, 좀 무섭고 인제 그래서, 그렇게 쫓겨가다시피 자꾸 가도 자꾸 따라오고, 사람이 부지런히 가면 또 뺨다구도 부지런히 가고, 천천히 가면 또 천천히 오고.

몸이 달아서 인저 막 진땀이 나는 판에 인제 고개를 넘는데, 넘고 나
니까 수염이 하얗고 아주 풍신이 (좋은) 할아버지가 거기 이렇게 앉아
계셔서, 겁이 나는 판에 이제 가서 절을 넘쩍 하고서는,

“할아버지! 저 뺨다구가 자꾸 따라오니까,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
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파란 봉지 하나, 까만 봉지 하나, 파란 아- 저-
뒤여, 저 빨간 봉지 하나를 이렇게 세 개를 주면서,

“니가 제일 아주 급할 때는 응, 위기를 처했을 때 이 하나씩을 던져라.”

이래서. 받아들고 인저,

“감사합니다.”

했겠지. 그러구서 인저 다시 가다보니까 뺨다구가 거짐 발꿈치로 따라
와서, 파란 봉지 하나 끌러가지고 팍 던졌더니 온 천지가 인저 물바다가
되가지고 뺨다구가 막 물에 둥둥 막 떠내려오며 헤엄치면서,

“아우-! 같이 가자구. 같이 가자구.(일동 웃음) 빠져 죽는다.”

고. 죽는 소리를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막 부지런히 막 도망을 가는
대여. 아. 그래도 물도 건너서 막 따라 왔더라, 거짐. 그래가지고 인저
가다가 할 수 없어서 뒤돌아다 보니까 거짐 또 붙잡히게 되어서, 또 인
저 감장 봉지를 하나 끌러가지서 뺨다구 있는 쪽에다가 인저 확 던졌더
니, 인저는 온 천지가 까시밭이 되가지고. 천지가 까시밭이 되가지고 막
인자 이놈의 뺨다구는,

“아구, 따가워! 아구 따가워! 아구 따가워! 아구 아이 못가겠다. 아이
구 같이 가자.”

고 그래서. 그래도 막 그래도 죽는 소리 하면서, 그래도 막 오더라.
그래가지구 또 쫓겨 가다, 쫓겨 가다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또 안되겠어
서 빨간 봉지를 끌러가지고 그 다음에 확 집어던졌더니, 이제 불이 인제
확 일어나가지고, 인제 그게 화약 봉지인가.(웃음) 불이 막 일어나가지

구 막 까시밭이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불에 타니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구 뜨거워! 아구 뜨거워!”

그러면서 막 뜨거워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막 도망을 가가지고, 인제 어디서 가서 살다가 어떻게 됐나 하고 와보니까, 여우가 큰 여우가 털도 다 꺼실러서 타가지고 죽, 거기서 죽었더라.(웃음) 그래가지고 인자, 그것이 여우였었다는 얘가지. 백다구가 아니고. 그래서 여우가 살삼 눈에 둔갑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뭐 인저 그래서,

“인제 니가 죽었구나!”

하고.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잘 살았다.(웃음)

[좌향리 설화 6] 좌향T 1완

좌향리 황골마을, 강현모, 공운재, 성수진, 송정민 조사
이상준(60, 여) 1995. 11. 11.

정성 부족한 사람을 혼낸 산신령

앞 구술을 마쳐 조사자가 또다른 이야기를 청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옛날에 저기(이상은 기록)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에, 산골 마을에서, 응 어느 사람의 자손이 자꾸 아프고 인제 이래가지고, 공을 드리는데. 산에다가 산신령께다가 인저 공을 드리고 인저 어,

“우리 애를 건강하게 인저 해 달라.”

고. 빌 빌을라고 인저 점을 했겠지. 물론 그래가지고 인저, 응 어느날 날을 받아가지고,(애들이 들어와서 사탕을 사감) 그 옆집 아주머니 도움을 받아가면서, 인저 한 두 여자가 옷을 하얗게 깨끗이 입고 인저 머리를 감어 빗고. 이래구는 떡을 할라고, 인저 쌀을 뿔아갓구는 준비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인저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아주 하얗게 옷을 입고 이리구 인저, 그걸 뺏아서 이고, 이래서 인저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대. 올라가는 걸 봤는데, 한밤중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사람이 막,
“사람 살리라.”

고. 데굴데굴 굴러 내려와서, 동네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죽는 시늉을 해구 내려 왔길래, 동네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보니까,

“저기 지금 공주 공드리러 올라간 그 사람이 저기 지금 죽게 돼있다.”

고. 그래서 인저 가 보니까는 동네 사람이 전부다 횃불을 켜 들고 가 봤더니,(꼬마가 사탕을 바꿔감.) 가 봤더니, 그 같이 간 사람은 이 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인저 절을 하고 떡시루를 놓고 불을 키고 있었는데. 밑에 있던 사람이 무심코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그림자가 얼씬하는 거 같으더니, 가슴머니 이 여자가 절을 하고 이렇게 하다 말고, 그 뜨거운 떡시루 안에다 자꾸 고개를 짓쪼고, 고개를 거기다 그냥 짓쪼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내려온거지. 인저 그게 그래가지고 가 보니까는, 그 여자는 그냥 떡시루 안에다 피를 그냥 있는대로 토하고. 그래서 그냥 그 여자를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일으내켜 보니까, 모강지가 그냥 푹 부러졌드래.(웃음) 그래가지구 그래서 산신령님이 별을 주느라고 이 모강지를 그냥 싹 베틀은 거래. 거기다 그냥 짓쪼고. 그래가지고 인저 그 가족이 물론 인저 엽구 내려와서 인저 죽었, 그래구 죽었드래, 피를 토하고. 그래서 장사를 치뤘겠지, 뭐.

그래구서는 다른 사람들은 인저 거길 무서워서, 그 다음에는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길 아무도 안가고 그러는데. 그 떡 이런 거는 뭐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인저 나무허러 거길 가 보면은, 까마귀들이 막 떡도 먹고 그냥 다 그 산새가 먹고 치웠는데. 그래도 그 다음 그 제삿날만 되면은 온 동네에 호랑이가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 동네에 그렇게 ‘으흥’거리고 돌아다니대네.

그래서 그집 가족은 별을 줄라구 그랬는지 우짖는지. 그래가지구 그래

가지구 그집 식구들은, 결국은 그 동네서 못살고 멀리 멀리 떠났대.(일
동 웃음)

[좌향리 설화 7] 맹릿 1왕

좌향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제보자1(76, 남) 1995. 11. 11.

도시보다 효자가 많은 산간 벽지

기억력이 흐려서 이야기를 잘 기억 못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야기 잘하는 할아버지가 계
시는데 오늘 안오셨다고 하셨다.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부탁드리니까 예전에 야담꾼들에게
들은 거라고 하시면서 짝막한 이야기들을 몇 개 해 주셨다.

그전에 효자라는 것이 대도시에서 잘 벌어서 규모있게 사는 것보다도,
산간벽지에서 화전 일워가지고서 그것이 봉양해 가지고 효자한다는 것이
그것 효자라는 거여. 그제 얘기하면 딱 길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조사자 : 짧게나마 해 줘요. 화전이 뭐예요?] 화전에서 산간 벽지에
비탈 일워가지고, 밭을 일워가지고 강냉이 심고, 감자 심어서 먹는 것이
그것이 화전이며. 산간 벽지에 산꼭대기의 비탈을 일워가지고 농사지어
먹고 사는게 화전여. 그리고 논이라는 것을 평지에 논을 풀어가지고 쌀
이 만들어 먹는 것이 논이고. 그제고 산간 벽지에 화전 일워가지고 부모
봉양하는, 사람하는 사람들을 효자 이야기가 있고. 또 아무리 안부모가
나이를 먹어도 자식은 나이에 많함에도 장가를 못드려서 그렇게 애절한
얘기가 많았다고.

[조사자 : 그게 무슨 얘기에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가난해서, 가난
해서 부모의 저 산간 벽지에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 받은게 읍고 자수성
가 해가지고, 산간 벽지를 일워서 자기 농사, 저기 화전 농사 지어서 늙

은 안부모를 봉양해서 자기의 일생을 그 산속에서 마친다는 얘기에. 그렇게 그렇게 벽지 얘기가 많았지. 예전에는.

도시보다는 벽지 얘기지. 산간 벽지에 홀로 초가삼간 짓고시리, 늙은 안부모 하나를 거느리고. 아들이 농사 지어서 안부모 봉양을, 효성껏 봉양하고. 그러구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산간 벽지의 얘기들 토막이 길었어.

[좌항리 설화 8] 맹리T 1왕

좌항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제보자1(76, 남) 1995. 11. 11.

순박한 사람이 얻은 횡재(금과 산삼)

앞 이야기를 마치고 바로 생각이 난듯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그래 사람이란게시리 한 동안 산간 벽지에서, 그렇게 화전을 일워 먹구 살아도 어느 때가, 때가 온다 그것이어. 그래가지구시리 그 사람이 횡재를 해서, [조사자 . 횡재요?] 응. 횡재라는 것은 어떤 나무허러 올라갔다가 바우에서 누런 배긴 금덩어리를 발견해가지고시리 그래 횡재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버쩍버쩍해서 안뜰에다가 그걸 떠다가 갖다놓고시리. 또 어느 날은 나물허러 올라갔다가, 봄에는 인제 짝이 오를 때, 낭구를 하러 올라갔다가 삼밭을 발견해가지구, 산(삼)뿌리를 모르고 더덕인 줄만 알구 갖다가 캐다가, 그냥 지붕에서 널어서 말려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무식한 산간 벽지의 한 총각이 있더라 그거야.

그래 도시의 사람이 으트게 산골을 타고 들으가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얼마를 어느 정도를 알던 간에, 지붕 꼭대기를 쳐다보니깐 삼을 갖다가 말리고 있더라 그거야. 그거 삼을 모른다 그거야. 이 산삼이야. 그

라, 홍재를 한다는 거야.

그 얘기 토막이 길었어.

[좌향리 설화 9] 맹리T 1왕

좌향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제보자1(76, 남) 1995. 11. 11.

과거보러 간 선비

말씀을 잘 한다고 말하자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하였다. 즉 '다른 토막도 많지만' 하면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과거보러 올라간다고서는 저 시골 촌에서, 예전에는 저 문경 세재 고개같은 그런 고개를 넘어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데는, 지름길을 올라오른 산을 타야 지름길을 올라온다 그거야. 물고를 타른 길이 멀구. 산간을 허릴 잘르구 타고 올라와야 이수를 얻는다 그거야.

그거 왜 그러냐하면, 예전에는 과거보러 한양을 오면, 한양을 오면, 한양을 올라오려면 예전에는 엽전 가난한 집에서 돈이란걸 못만지고, 자기 어머니가 뭐든지 간에 하여튼 농사를 지어서 팔아서 밀친을 좀 해주든지 간에 엽전 댓냥 가지고 한양을 떠나오면, 그게 그게 노잣돈이 되나. 빌어 먹다시피 하고 그지 딱쟁이가 되선 한양을 700리 길을 올라오니. 그게 뭐 예전에 그 뭐 신는게 벤벤할테야 입는게 벤벤할테야 그렇잖아.

벤벤찮은 그 그래두 몸뚱아린 건강, 산간에서 풀이라도 뜯어먹구 그라 건강한 사람이 돼서, 여간해서 객지에서 못얻어먹구 허기저두 병은 안난다 그말야. 물 좋은 데서 살던 사람이. 그만큼 체격이 좋아서 이 한양을 700리를 한을 잡고 굶으면 얻어 먹으면서 인제 기어 올라왔는데. 과거 날 날짜까지 과거를 볼려면, 그라두 메칠 앞을 두고시리 한양으다 갖다

가 주막집을 정하, 과거날을 볼거 아냐.

그라 저 문 바깥에, 인저 사대문 바깥에 인제 청랑리쯤 어떤 이제 살림, 저 개인집을 들어 어떻게 참 감지어서, 그 사랑방을 하나 은어서 한 보름 말미를 가지고, 거기서 인제, 자기 배운 과거 시험을 불라고 재습을 해야할 거 아니여. 그래 거기서 열심히 재습을 해가지고 과거날 딱 닥쳐서, 어떤 인제, 이를테면 창경궁같은 뜰에다 전부 인제, 과거 과거 생들이 들어올 거 아니여

쭉 들어앉아서 방, 방 나올 때를 기다리다 문자를 잡아서 그거를 푸는데, 과거를 어떻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유식하게 배운 사람은 그날 일수가 좋아서 과거에 알성급제를 하지만, 그것도 또 때를 놓친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과거를 봐도 밤낮 낙방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 집안이 가난한 산간 벽지에서 무신 밀천으로 때마정 과거를 보러오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인제 오늘이 결판이 나는 날이다 그 말이여, 오늘이.

오늘 과거를 봐가지고, 그저 거기 방이 붙었는데, 방을 불러가지고시리 문자를 다 불러줄텐데, 그래 세 번 낙방한 네 번째 와서, 또 과거 보는 그런 도령도 많단 말여.

그래서 산간벽지에서 700리나 800리 산골에서 허구단심하고 한양을 와가지고서리, 밀천없는 과거를 볼래니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졸이냐 그거야. 이번이 답판이 되느냐 합격이 되느냐 그거 아냐. 그래 가지고서리 결국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시리, 그날 다행이 자기 배운 방이 딱 나와가지고시리, 확 풀어서 갖다 바쳤을 것 아냐.

그래 인제 그래 땀 시간 후에, 다 검사가 되어가지고, 아무데 강원도에서 아무 김씨면 김씨, 알성급제 했다고 인제 거기서 호출을 나올 것 아냐.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번째 알성급제가 되가지고서리, 또 한 자리 얻는데 어디로 풀리느냐 하면, 경상감사로 풀린다 그말이여. 평양감사로 안 풀리구.

감사는 평양감사가 제일 좋은 자런디. 경상감사로 풀려서, 남쪽으로 풀리며는 거길 가면 뭘 골치덩어리야. 맨 예전에 응, 죄다 한 자리 하던 벼슬아치가 많아서 기를 못퍼는 데야. 경상감사라는 건, 남쪽에는 맨 과거보고, 맨 나이가 먹어서 그가 자기네 하향해가지고, 자기네 고향에서 놀던 살기 때문에, 맨 대감들이 많아서 이걸 뭐, 저 과거를 봐가주시리 감사, 감사 자리라고 앉아도 그 등살에 못 해먹겠다 그거야. 권세가 권세들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 감사가 1년이구 2년을 해 먹으면 잘 해 먹고 오는데, 감사 나간지 불과 1년도 못되서 쫓겨 올라온다 그말이야.

그 맨 그 벼슬아치들이 저기서 휘방을 놓구. 응 나라에다 다시 상소해서. '아무개, 감사 아무개는 여기서 못 해먹게 자꾸 휘방을 논다.' 그말이여. 그래서 쫓겨오고 쫓겨들 오고 하는 데가 경상감사여. 전라감사 보답도. 전라감사 보답도 평양감사를 헐다 하면, 평양감사는 아주 호강에 누리는 데야. 거긴 평양 기생도 많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감사래면 좀 찢찢매고 숭배한다 그말이여. 그리구 세금도 잘 내고.

그래서 평양감사를 가기를 원했는데 경상감사로 풀려가지고. 한 자리를 해가지구서리. 자기 부모 모셔다가 서울로 모셔다가 공양을 허구서리, 어머니 세상 뜬 다음에 자기 처자식을 누리고서리. 그나마도 인제 한도가 되니, 육칠 년을 벼슬아치 노릇을 하니깐 그것도 자연적 나이가 먹어서 밀려나게 된다 그거야. 그렇잖여. 세상이 세상과 한 가지지 뭐. 관직에 댕기면 나이가 먹으면 나이 오십 넘으면 뒷통시로 돌아왔게 돼 있잖아. 젊은 사람이 과장이니 뭐 부장이니 허니 그거 한 가지여.

그라, 예전에도 그렇게, 그 시절에도 그렇게 사람이 난 사람은 나고 못난 사람은 열 번을 과거를 봐도 낙방이야. 그래도 뭐야 밥죽이나 먹고 권세나 있는 집 자식들은 열 번이 아니라 스무 번이래두 과거를 본다 그말이야. 없는 정말 화전떼기나 일위먹는 사람은 한두 번 했으면 밑천이 읊어서 과거 볼 생각을 기권허는거지 뭐.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마치구 살아나가는데. 이 사람이란게 현실 시절 하고 그 시절하구는, 그때 시절이 아주 완고하고 구시하고. 과거 벼슬하고. 근데 시방은 전부 다 물질로 과거를 보잖여. 자격이 읍어도 물질로 다 전수 죄다 유인해서 합격을 하는 세상하고는 달랐단 말이야.

그때는 하나만 알지 들은 안된다 말이여. 그때는 협작이 있다면, 그때는 그 시험관이구 지랄몽대이구 다 그냥 갖다 얹어놓고, 곤장쳐서 갖다가 모가지 치는 판이야. 그럴 시절에 호랭이 담배먹을 때 얘기하고, 시방 현실 얘기하고 사뭇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거여.

[좌항리 설화 10] 맹리T 1완

좌항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제보자1(76, 남) 1995. 11. 11.

노숙할 때 무덤에서 자는 이유

조사자가 산간벽지 이야기만 하는 제보자에게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해 주신 것이다. 조사자가 요구하였던 것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였다.

산간벽지에 나그네가 질이 저물어 가지고시리, 인가가 읍을 때는 산소를 비고 밤을 새는 데가 있었거든. 산간벽지에 인가가 읍거든. 그래 길손이 질이 어두면은 산간벽지에서 나무, 저 묘지에 가서 거기에다가 머리를 숙이고시리 밤을 새고, 한잠 무진 잠만 자고, 그리구 길을 재촉하던 그런 옛날이 있었단 그말이여.(애길 하자면 한 끝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재촉했다)

[조사자 : 산소를 비고 자면 귀신을 보는 거예요? 많이.] 영. 가서 산소를 비고 의지하고 자면 범이 알아본다는 거여, 호랭이가. 호랭이가 알아본다.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

고. 배가 고파도 잡아먹을 생각을 안하고 뒤돌아보고 간다는 거야. 이제 예전에 인가가 없으면 산소를 의탁하고 하루밤 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나그네 길이라는 게 그렇게 고달팠어.

돈이 아니라 돈 할아버지라두, 산간벽지에 인가가 없으면. 돈 아니라 돈 할아버지라두 배가 고프구. 그러면 그때는 뭘 먹느냐 하면 풀 뜯어 먹구 물 키는 거야. 산에 가서 풀 나무들을, 다 먹는 풀 나무를 알아가지구. 여복하면 사람두 저 동물마냥 풀 뜯어 먹고 그러구시리 배를 채구. 그리고 길손이 길을 떠나는 거야.

[좌향리 설화 11] 맹리T 1화

좌향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제보자1(76, 남) 1995. 11. 11.

대동강에서 자살하는 유곽의 여인들

웬 할아버지가 등장하여 숨을 드셨다. 조사자는 등장한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청했더니 화를 내시며 발길질을 하셨다. 이에 무안해진 제보자는 웃으면서 그 할아버지를 한 대 치며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는 자리를 떠났다.

그 불쌍한 화류계들, 저녁이면 대동강물에 털석털석 빠져 죽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 이전에 [조사자 : 그 얘기도 해 주세요.] 그 예전에 그 유곽촌에 여자들이 밤이머는 그냥, 그 대동강에 그냥 몸을 던지는 여자들이 많았거든.

왜 그러냐? 지 부모를 못만나면 결국은 그렇게 매매가 되가지구시리 험악한 그 화류계 노릇을 하는데, 자기 어느 날은 그 신세타령을 하구. 젊은 나이로 그 안락한 생활을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마치니깐, 그런 유

곽에서도,

“자기는 일생을 이렇게 마치나?”

하고 후회를 해고서는, 결국은 대동강에다 몸을 던지는 일이 많더라 이거야. 밤이면. [조사자 : 대동강요?] 응, 대동강에.

거기 그 대동강 올라가는 대동문 옆에 유곽촌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신세타령 하고시리 대동강에다 몸을 던지는 여자들 많았더라 그거여.

[좌항리 설화 12] 맹리T 1앞뒤

좌항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남기만(82, 남) 1995. 11. 11.

보은단골 유래

조사자들이 앞의 제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셨다. 앞서 이야기를 하시던 할아버지는 제보자에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여줄 것을 청하였다. 조사자도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드렸더니, ‘아담을 몇 개 아는데’ 하시면서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그러면은 허구 할께. 내가 하나를 할께. 그 뭐고 허니 전에 요건너 요 청계천 건너가면 보은단골이라는 데가 있어. 보은단. 보은단, 은혜를 갚는단 보은단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약 450년 전 임진왜란 전에, 홍씨라고 하는 홍순은이라고 하는 이가 사는데. 그 사람은 뭐냐 하면 보통 중간 양반을, 중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인들은 약국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역관, 그 옛날 역관이야. 응. 외국어를 갖다가 어 하는데, 역관에도 일본어하는 역관이 있고, 중국어 하는 사람이 있고. 월남어 몽고(어) 하는 역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하고 교제 하는데.

그 역관을 하는 홍순은이라고 있는데, 그 인제 역관이 이제 한 몇 년

이 되던지, 허구 인제 지금은 특사 모양으로 허는 높은 낭반들 하고 중국을 가게 됐어. 중국이 저 서울이 북경일 적인데, 명나라하고 할 적인데.

갔는데, 그길 가면은 거기는, 이 저 지금은 뭐 구라파는 왔는지 몰라도, 그 때도 저 일본, 인도, 아랍, 저 쪽, 그냥 저 스페인 뭐, 화란까지도 그때 상인이 들오는 거야. 그때. 원나라 적에 들어왔으니까 명나라적에는 뭐헌데. 그럼 거기 좋은 물건이 오구. 그럼 여기 가서, 여기서 돈 냥이나 있구, 재세에 권력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는, 그 뭐 저,

“좋은 물건 있는 거, 뭐 귀중품이든 뭣 좀 사오너라.”

해서 돈을 많이 맡았어. 응, 지금 친다면 몇 억을 맡았어. 그래가지구 인제 보석과 모든 것 구입하고. 인제 갔는데, 중국을 그 특사를 따라 가서, 그래 외국 가는 것을 특사를 따라서 간거지. 역관, 통역관으로.

근데 그 때 어터케 됐느냐 하면은, 그 이조에 우리나라 먼저에 서울 와서 도읍한 이가 이성계라고 태조대왕 아니야. 그 이성계라는 낭반이 이제 정말 함흥양반으로써, 자기 아버지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래가지구 큰 공로를 이뤄서, 나라를 세워서 참 임금이 돼서, 여그 와서 도읍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태조대왕 이성계 아버지가 이자춘이야. 아들자자 이자춘인데. 그 때 고려 말에도 개성에 도읍적에도 모든 그 혁명도 나고 서로 싸움들이 나는 판에, 그 때 이인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세력을 가졌던지, 무슨 아무래도 더 자기 세력으로 여당 싸우다가 몰려서 죽었어. 죽었는데 명나라에서 어떻게 됐냐 하면, 역사에다가 올리기를,

“태조대왕 그 이성계, 그 낭반은 이인임이 아들이다.”

그말이여. 이자춘이 아들인데. 그렇게 역사에 올려놔 있던 말이야.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서,

“그걸 좀 없애라.”

상소하고 모든 거 인제 뭐 갖다 보내는 거 있고, 뭐 연관되어 이제 조

공이라고 하지? 그랬는데, 아 저 그놈의 새끼들이 영 말을 안 들어줘. 그래서 그 때 인제 갔는데, 아 그것이 차일피일 차일피일, 더 완료(완료; 뇌물)도 쓰고 한 셈이지 인제.

했는데 될듯될듯 하고 안되서, 가령 그 날짜가 거그 가서 열흘 묵는 동안에 일보고 올 걸 갖다가, 지금 스무날 쟈 있는데 일은 없어. 근게 슬슬 지금 (돌아)다녀, 저 아마 기생방 있는데들, 기생집 있는 델. 거 중국말, 중국말도 하니까는.

그 역관 몇 사람들이 끼웃끼웃 가니까는, 한 군데는 이쁜 여자 사진을 걸어 놔는데, 여자는 나이는 지금 열 일곱 살이고. 어 헌데, 몸을 지금 팔텐데. 지금으로 치면,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돈을 내고 몸을 사가면, 날 몸을 팔겠다.”

하는 것을 간판을 붙였어. 사진까지. 아주 사진까지 그려서, 얼굴을 그려가지고. 끼웃끼웃 하니까 중국놈들이 건달들이,

“이놈아! 아 우리나라 대국 사람들도 이럴텐데, 네깃놈들 소국 사람들이 뭘 이걸 하나?”

그거야. 그러니까 그 흥순은이라는 사람이,

“뭘야? 소국사람? 예끼, 에이 내가 낸다.”

그래가지구, 지금으로 치면 참 뭘 2억인지 3억 돈을, 큰 돈을 내구선 들어갔느니란 말이야. 그래 잠깐 있다가서니 술상을 내오구 허든이, 얼마 후에 참, 아마 열 여섯 살, 열 일곱 살 된 여잔데, 참 이거 미인이야. 탁 와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해. 근데 절을 갖다가,

“돈을 그렇게 큰 돈을 내 줬으니 저를 동행하십시오.”

허니까. 근게 말을 험 줄 아니까,

“그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거냐?”

하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거기 어떤 지방에 고을살이를 했는데, 나랏돈을 갖다가 어트케 다른 놈이 횡령한 걸 갖다가 뒤집어 썼어. 그래서 옥에 갔는데 그걸 못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제 몸을 사 주지 산 사람이 없더니, 이번에 참여르게서 날 사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 인제 술 한 잔 딱 먹구서 별떡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허는 말이,
“난 그냥 가니, 시집을 잘 가서 잘 사시오.”

한단 말이야. 아 그런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큰 돈을 털이고 저를 갖다가 종을 삼던 일을 허든,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질 살렸으니까 전 이제 됐습니다.”

“아니오. 내가 당신의 의리와 이걸, 효를 보니깐 내 그럴 수는 없소. 허니까는 난 그냥 간다.”

그러니깐은. 그 여자 말이,

“그러면 성씨가, 성함이 뭐니까?” 말이야.

“아, 나는 홍역관이라고 허는데, 내 이름도 알 것 없소.”

그래가지구선 일어났어. 그 와서 인제 여기와 일도 안된게 며칠 후에, 아마 여러날 돼서 서울로 돌아오게 됐으니, 남의 돈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횡령죄로 해서는 자기 집안 재산 다 뺏겨. 그냥 뭐 해가지구선 자기 집안은 저 무학재 서대문 밖에, 저 가난뱅이들이 많이 살았어. 거기루 그냥 옮겨 가구. 자기는 뭐 옥에 들어가 징역을. [조사자 : 홍 역관이요?] 홍 역관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이자춘이라는 으른님의 관계가 그 해결이 영 안됐는데, 그 후 2년이 지났든지 3년이 지난 후에, 선조 대왕이라는 임금 허는 말이,

“이거는 이번에 가서 이걸 해결해야지, 이걸 해결 못하면 말하는 역관놈들이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럼 역관놈들, 이놈들 이번에 못하면 역관놈 모가질 뵈다.”

그말이야. 아 역관놈들이 가만히, 아 그게 한 4, 5년이 지났어. 아 역관놈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번에 그놈의 것이 해결이 될 리도 없구, 여니 몇 해를 끌구서 허던 일이니 해결이 될 리도 없구. 아 이거 큰일 났다 그 말이여. 그 어떡하든 좋으냐?”

그 서로가 안갈려구 하는거지.

“그 별 수 없다. 흥 아무개가 지금 그 돈 얼마가 나머지 뺨에 지금 들어가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아 이 사람 돈만 물어주면 나올 거 아니냐 말이야. 그 사람 보내자.” 말이야.

“아, 그거 좋다.”

여럿이 걸으니까 그까짓 것 뭐. 그까짓 것 문제 없었던 말이야. 아 그래 झा아 줬어. 그랬더니 인제 역관을 시켜서 쫓아가게 된거야. 근데 아 뭐 자기가 지난 지가, 아마 그렇게 된 지가 5, 6, 7년이 났던 모양이야. 아 인제 국경, 메칠만에 뭐 거진 보름을 걸린대. 이 걸어가면 허면은 의주 건너서. 이래가지구 국경 가까이 성 가까이 가니까, 인제 역관을 딱 들리니까는 웬 군인들이 마차를 타고 인자 찾아오더니,

“여기 흥역관이라는 사람 안 왔소?”

그 말이야. 그제 그 흥역관이,

“내가 흥역관이요.”

“아 그래! 아 타시오!”

하더니. 그 흥역관을 아주 높은 자리 모양으로 모셔다 가니까,

“아! 저 사람 큰일 났다.”

고. 인자 야단들을 했는데. 거 흥역관은 어떻게 허니 군인들이 영, 모

셔가지고는, 거 옛날 높은 사람들이 타는 거 마냥 마차에다가 그냥 태서, 하 이래가지고 갔다 말이여.

하여간 어떤 집인지 큰 참 집이야, 아주 그 웅장한 집인데. 떡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아마 저 응접실 모양으로 떡 앉았더니, 얼마 후 조금 기다리더니 어떤 여자들이 참 그 여자 하나를 모셔오더니, 여자가 와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니, 그때 그 이별할 적에,

“자길 이렇게 했으니까, 난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그랬어. 보더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절을 하는 거야.

“그 어떻게 된 일이여. 아이구 나는 모르고.”

자기는 ‘죽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별별 떨고 있는 판인데, ‘아버지!’라고 그러니, 얘길 들어보니,

“어느 때 어느 때, 그 기생에서 일할 적에, 참 몇 천 냥이라는 금과 은을 대서 저를 갖다가 헌 일이 있지 않습니까?” 허니,

“있소!”

“제가 그때 그 여잡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시집을 잘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구해내고 시집을 잘 가지고, 지금 자기 남편이 지금으로 친대면 국방부 장관이야. [조사자 : 남편이요?] 석성이라고, 돌석자 석성이라고.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니, 뭐 떡 오더니 그 사위 된다는 그 국방장관도 와서,

“아 장인! 장인!”

하고 이러니. 그래서 그이한테다가,

“자기 그,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이거 잘못된 거니까는....”

그걸 얘기하니까는,

“아! 그거야 내 천자, 황제 친히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염려 마시오!”

그말이야. 금방 덜커덕 해결이 됐단 말이며. 아 그랬으니 더구나 공로가 버쩍 올라갔잖여. 아, 그 상사로 간 사람들도 잘 된거구.

그 여자가 시집 가지지구선, 그 후 다음에 시집 가서 4, 5년 동안에 비단을 짰어. 비단을 짠 것이 보은단 그계. 그 비단을 짜면서 은혜를 갚는 걸 보은단이라고 해가지구선, 그 살던 데가 보은단골이라고 있어. 그 전에 요 건너 그 보은단이라는 건,

“비단 두 필을 짰는데 이걸 가져가시오.”

돈 많이 주는 것을 일부분을. 이걸 받고 흔히 공로는, 공로를 이루었으니 버쩍 올라왔을 줄 알았어. 딱 들어왔더니 나라에서 임금이 좋아서,

“아 이 사람! 용허다.”

구. 이래가지구서 그계 유명한 얘기인데, 이제 그래가지구서 임진왜란이 나가지구두 우리나라가, (tape 뒷면에 계속) 청병을 하는 데도, 그 그 홍순은이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덕에, [조사자 : 홍순원이요?] 은여 은여. 순할순자 은은이며, 홍순은이를 이를 갖다가 같이 가기 때문에 석성이한테 얘기하니까는,

“아,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의리의 나라, 허니까는 청병을 해야 합니다.”

해가지구.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이호성이니, 뭐니 하는 거 하고 군대가 들어오고, 7년 동안에 중국서 받은거야. 그래서 그 홍순은이를 나중에 당성군이라고, 당나라당자 해서 당성, 저기 남양을 당성이라고 그래. 당성군호까지.

그 사람 살던 곳 골짜구니가 보은단 골이라는 그것이, 몇 백 년 동안 내려온거지. 그래서 나중 왜정 때 없어지고, 그 골짜기 인제 보안단 골도 없고 입정역이니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읍던 얘기, 그것말 없는 얘기야. 그건 야담에 그렇고.

[좌향리 설화 13] 맹리 1뒤

좌향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남기만(82, 남) 1995. 11. 11.

박색의 저를 얻고 잡된 안동 김씨

'또 하나 해줄까'라 하고 '이건 선비의 애긴데, 있던 사람의 얘기야.'라며 기분이 좋게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이야기 후반부는 박씨부인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 하나 혀? [조사자 : 네! 또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하나에, 인제 선비 애긴데, 있던 사람의 얘기여.

안동 김씨라고 하는 이들이, 참 이 여기 근 백 한 사 오십 년 전에는 육십 년 간을 자기들이 세도를 했어. 왕비를 셋을 뒀는데, 그전이 그 집안이 어떻게 해서 출세가 됐느냐?

그 집안이 증말 참 문장도 많이 나고 훌륭한 양반이 많이 났지마는. 그 인제 증조할아버지도 상당한 아주, 그 저 이(말을 순간 잊으셨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적에 아주 훌륭한 양반이 전부 이 집안내 자손인데. 그래 돈을 안벌고 허니까는 그러니까는, 삼사대조 증조할아버지 적에는 이랬지만은 아주 자기가 뭐 일해? 그 양반 농사지을 줄을 모르고 뭐. 서울서는 글씨나 배우고 허니, 그 뭐 이제, 지금 이제 오균동 오기 전에 장동이라고 나중에 장동덕이라 했는데.

장동에 살기 전에는 이 지방에서 살다가 어떻게 서울 올라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된 글 뵈 사람은 베실을 하고, 그 베슬길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그건 농상 아니구서르. 남산골, 남산 저쪽, 저기에서 어떤. 그 장가들 적에도 얘기가 있지. 장가들 적에 어떻게 된기 내가,(중간에 잠시 다른 할아버지와 대화하시다가 다시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 그래서 그 이름이 김, 그래서 이름이 김수항이야. 목숨수(壽)자 이 항이라는 항자야. 김수항이라고 허는 인데. 그러니까 장가들 적에 아

주 신수가 좋아. 근데 자기 아버지도 뭐 참 행세하던 집안에, 정승했던 뭐하고 허니까는 자기 아버지도 그, 그 혼인을 정할 적에 나씨라고 하는 집안 여잔데. 그것도 참 그 나씨라고, 자기 참 글을 같이 배우다시피 했는데, 훌륭한 양반이야 근게.

“내 딸하고, 내 딸하고 혼인을 허자?”

그래 혼인을 정해가지고, 나이 아마 열 예섯인가 될 적에, 아마 혼인 할 부인을 아마 열 일곱 살 쯤 되어가지고 한 살 위였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처갓집에 인제 가서 전화를 드리고서, 인제 첫날밤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는, 아! 마나님 보니까는 꿈보가 엷었고,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진 여자가 하 그냥 뭐 얼굴이 뭐, 그냥 옷도 안벗고 등글어져 있고. 그때가 그랬을텐데,

“앵-!”

하고 일어났어. 영 일어나니깐, 아 여자가 이러구 앉았더니, 두루매길 붙잡는거야.

“아! 왜 붙잡어?”

하니까는,

“다시 가든 못 봅시다 말이여. 죽어서 저승에서라도 생각을 좀 알아 봅시다.”

구.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양반여. 이 이가 또 원체 마음이 대인이라, 음 원체 크게 될 사람이라 주저 앉았어. 그제 부인이 하는 말이,

“물론 박색이라구 뭘 욱하리까. 뭐 처첩을 얻으면 상관 없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친구간인 이러한 처갓집이고 해서 장가를 들어서 왔어. 와가지고 인제 떡 와가지고서리, 그 담부터 부인네가 일도 잘하고, 뭐두 이것이 굉장해서, 이제 그 때부터 글만 배워가지구, 글을 배워서 글을 읽어가지구 하는 판인데,

남산 저 밑에 저기 어느 동네에, 초가집 저 사랑방 하나 있고 방 서너

개 있는 데다가 이렇게 글만 읽구 하는데, 전반은 부인네가 인제 바느질 솜씨와 모든 솜씨가 좋으니까, 영 그래서 사는데. 모든 건 다 괜찮아. 뭐 밥 먹고 살기도 괜찮구. 헌데 그 글만 열심히 해서 과거만 봐서 급제를 하면 되는데.

이 있는데, 그 부인이 그 전에도 웬만큼 행세한다는 사람은 다 조종비라고, 여자 하인 하나 데리고 오구. 뭐 하인이 아주 종모양으로 아주 노예가 있었어. 옛날 이조 말까지도 있었어. 저 갑신정변, 아니 갑오경장 이후만 노예제도, 종문서가 없어졌지. 외국에도 다 있는 거 아냐. 기억나지?

근데 그 종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종여자가 이 오줌누는 요강이라고 있잖아.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부엌이 있구, 그 부엌 입대문으로 수채 구멍에 갖다 버렸는데, 그걸 가져가다가 그냥 부엌 바닥에다가 그만 잘못해다가 부엌바닥에다가 그냥 옆질렀어. 그걸 보고서,

“아이 그게 뭐냐?”

고. 나무라고선, 그 더러운 흙을 긁어서 버릴라고 하는데,

“통! 통! 통!”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 그걸 갖다가 파보니까는, 아 금이, 금이 한 덩이 있고 은이 한 덩이 있어. 그냥 물어버렸어. 물어버리구 자기 남편 더러. 인제 그 때는 그 부인네가 별다시피 했어. 농사일도 부인네가 해서 아들도 그냥 벌써 하나 낳구 했는데. 그래서 부인이 하는 말이,

“이 집을 팝시다 말이지. 이사를 갑시다.”

아! 그때 저 부인의 말만 들은거지. 부인의 말대로 그때 걱정을 해서, 대답을 해서 그때 오균동으로 온거야. 그랬는데 그 후로 참 정말 이사간 뒤, 아마 5, 6년 후에 과거가 대과 급제해서 벼슬이 버쩍버쩍 올라가지고, 참 거기서 이사한 지 십 몇 년 만에 벌써 지금 친다면 시세, 요새 차관급만큼 올라간 셈이지. 김수항이라는 이가.

아들도 6형제나 낳았어. 6형제가. 큰 아들도 정승이야. 김창집이라고

하고. 김창협, 김창흡 아주 아들들이 참 아주 문장이고. 그게 육손집이라고 허는 거여.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그 때는 청국한테 우리나라가 인자 전장을 하는데, 나라가 그 운때가 돼. 그때가 청국서 뭐라고 허니; 청국 정부에서,

“은을 몇 백 냥, 금을 몇 백 냥 해 바쳐라.”

그말이여. 근데 좋은 것을 거여. 이 은이라는 거는 여자 비녀 한 번 모으고, 모으면 모자라면 한데로 되지만은, 아 이 금이 금방 비었던 말이야. 근데 인제 그 지금 진정말로 말하자면, 재무부에 관계되는 차관급으로 있었던지 어떻던지 해서, 인제 대궐에 갔다 그 관청에 갔다 오는데 얼굴이 좋지 않더라. 그 부인이 얼굴이 엷고 인물이 없지만 카- 그렇게 현명해.

“그 왜 그렇게 오늘은 신수가 좋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면서,

“지금 청나라에서 그 뭐 금 얼마, 은 얼마를 해 바치라는데, 절대 금, 은 그건 달리 몇 근이 아니고 몇 십 근이라는 걸 해 바칠 재주가 없어.”

그래요. 그래 이 부인이,

“아, 그래요? 언젠가 남산골 살 적에 그 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나오 말이야!”

“그 집이, 내가 그 때 그, 하녀 그때 아무개가 그 요강을 엮질렀을 때 보니까, 그게 금, 은이 두 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을 가서 다시 그것 그대로 있나 파 보십시오.”

아, 그땐 뭐, 국가 명령이래니까 안할 재주가 있어? 아 그까짓 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냐. 가서 파보니까 그거 그대로 있어. 그래 그걸 해 바쳐가지구서 그 낭반이, 나중에 그 양반이 아주 유명한 정승이 되었어. 그 중국에서 아주 그냥 황제가 벼루들까지 내 주고 비단을 다 상금 내주고.

그리구 아들 6형제가 다 문장을 잘 짓고. 큰 아들은 정승을 했고, 김창흡이라고 유명한 재상이 있었고. 그랬고, 아주 그 자손들이 왕비가 셋

이 나고, 정승이 열 다섯이 났다는 안동 김씨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없고 뭐 못났잖는디, 그 했대래도 언젠가 중국서 인제 황제가 비단과 모든 것을 하사헌 걸 가져왔는데, 그 저기 왜 관복 만드는 것 있잖어. 그런데 정승되면 입는 관복을 만드는데, 자기 남편 관복을 만들고 정승됐을 적에, 그 다음에 큰 아들 관복을 만들고, 사위 관복을 만들고. 아들 6형제가 다 문장인데도 안맨들더래. 그래,

“왜? 안맨들고 왜 그렇게 하나?”니까는.

“남편은 얼마 있으면, 내후년에는 정승될꺼고, 지금의 국무총리. 또 큰 아들은 문제 읍고, 큰 아들은 정승될꺼고. 그 다음에 6형제 가운데서는 정승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위되는 조태사라고 그 사람은 정승이 될 것 입니다.”

그 산소가 어딴냐 하면, 지금 안산시 구정동이라고 있었어. 거기 있었어. 거기 나중에 김정국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또 그 집안에 났었지. 김정국이, 아주 유명한 재상이.

아니, 그것 야담도 되고, 그게 있던 이야기야. 아주 없는 얘기도 아니야 그게.

[좌향리 설화 14] 맹리T 1뒤

좌향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남기만(82, 남) 1995. 11. 11.

욕심 부리다 벌 받은 상인

가려다가 다시 오셔서 '잘막한 얘기를 하나 더 해 주겠다'고 하며 구술하였다.

좋게 하면 그거 복이 들어오고 나쁘게 하면 인이란게 돌아오는데, 인과응보가, 얘기가 뭐가 하면은 그건 잘막한 이야기여.

그때 인제 중국을 땡기는데 통역관 하나가 있었어. 백통사라 하는 백가라는 통사가 있는데, 그놈이 인제 중국을 가서, 북경을 가서 아 뭐가 인제 되어서 며칠 더 묵게 되었으니까, 역관들 되면 말도 하니까 어디 놀러두 땡기고 맞내니까 허는데.

아 그 놈이 가서도 여러날, 일이 뭐 될 것이 잘 교섭이 안되서 여러날 거기 있던 모양이야. 그 동안에 이놈이 노름을 했어. 남의 돈,
“뒤, 뒤 사오라.”

고. 말은 걸 갖다가 노름해서 그만 다 잃었어. 잃었는데 또 어떤 기집년한테, 기생한테 되 쪼구해서 뭐 다 잃었어. 아, 이런 일이 있으니 혈수가 있어야지, 백통사라는 놈이.

“에라! 인제 나라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지가 감옥에 가서 못 풀려날 테구, 세력가의 돈을 먹었으니까.”

에라, 이놈이 생각하다가 목을 매달은 거야. 목을 매다는데, 그러니 그 여관집 주인이 중국인인데, 아 중국놈이 나와가지구. 인제 말도 하니까 술도 좀 몇 번 먹고, 여관 주인놈 하구. 아, 근데 그놈이 와서 아 목을 매단 것을 붙잡고서,

“아! 왜 그러냐?”

구. 그말이야.

“아, 내가 지금 내가 이러이러해서 남의 돈으로 노름을 해서 잃고 이랬으니, 어느 기생하고. 이거 아, 나는 지금 가면 가망 없다.”

“아 그래? 얼마냐?” 말이야.

“아!, 지금 치면 억대쯤 되는데, 해결할꺼냐?”

“그러면 내가 얼마.”

큰 부자였던 모양이야. 얼마 들렸더니,

“너 나라 가지고 가서 남을꺼면 좀 사라. 사구 그거 갖다 갚어라.”

이말이야. 돈을 내준단 말이야. 아 와가지구서 와서, 또 사가지고 와

서 갇구두 아 돈이 남는 걸 보니까는, 한 몇 백 석 살 돈이 남아. 허허.

아, 그래서 이 녀석이 역관 일허게 땡기는 것을, 쫓아댕길 것 읍이, 아 이거 땅 사가지고 여운다고, 땅을 사가지고서는 여운. 그 다음에 자기 '안 간다'구 아주 역관도 내놓고. 으 '경상감사 나 싫으면 그만이다' 마로 역관 자리 내놓고. 그 같은 친구더러, 그 친구더러,

"가거든, 그 놈이 날 물어볼꺼야. 그러니까는 난 죽었다고 혀라." (일동 웃음)

죽었다고 혀라 그 말이야. 아, 그래서 그 친구들도 그 알긴 알지만 말이야, 그거 뭐 도리 어떻게 해 뭐. 아 그래서 인제 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관에 갔더니 그 중국 주인놈이 오더니,

"아! 그 아무개 그 안오느냐?" 말이야.

"아, 그 사람 죽었어. 그 당시에 말이여. 아주 열병이 걸려서 그 식구가 다 죽어버렸어 그만."

"아, 그래!"

아 울더래.

"그렇게 좋던 친구가 죽었다."

고 하더니. 그 다음에 일보고 돌아올 적에, 지금 같으면 돈을 아마 수백만 원을 주면서,

"나는 거기 머니까, 그때 몇 달이 걸리거든. 보름이 걸린다는 거야. 내 대신 그 산소에다가 제사를 지내라."

고. 제사 비용까지 줘가지고. 아, 이 사람들은 양심에 의심할 정도인데, 중국에 갔다 올려면 석달이나 녀달이 걸려. 우리가 한 번 땡겨오자면. 아 그래서 석달 걸려서 와보니까는, 정말 그놈의 식구가 전염병이 걸려서 다 죽었대. 그래서 그걸 임금한테다가 얘길 했어.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 다시 그 돈과 그 재산을 열에 더해서 그 중국사람한테 보내줬다

그거야. 그러니까 인과응보이란 그것 말이 이런 데서 온거야. 이 홍순은 이란 같은 이 그렇게 참 자기가 당하면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것이 국가의 공로이고 자기 집안도 나중에 양반까지 되어가지고 당 당성군이란 연호도 되었지만. 아 이것 지가 본전만 해도, 좀 밑졌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알 것 아니여, 벌써. 이 이놈이 다 떼어먹고, 예라 내 땅 사서라도, 이거로 호강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만 그렇게 되었고 말이여. 응과응보가 있다 그거여.

[좌항리 설화 15] 맹리T 1뒤

좌항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김세호(84, 남) 1995. 11. 11.

어윤중 대감이 죽은 어비율

얘기를 광장히 학술적으로 풀어 나가셨다. 종이예다 한문으로 쓰시며 설명해주셨다.

우리나라 지명은, 그 당나라 당나라 당일행이라는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일행이란 분이 와서 전국을 썩 돌아가며 주역에 맞춰서 땅 이름을 지었던 말이여.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땅 이름이 아니여. 그래서 그 역사부터 말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땅 전체가 주역에 맞춰서 지어진 땅 이름이 너무 많아. 그 한 가지 예로, 한 가지 예로 한일, 한일합방 전, 저, 이조 말엽이지. 이조 말엽에 그때 저 갑신정변 일어나고 할 때 얘기지.

그 당시에 그 정승 중에 어윤중이라는 정승이 있었어. 그 때 그 어윤중이라는 정승이 유달리 인격이 원만했디야. 모질지 않고 하두 둥글둥글 해서 절대로 누구한테도 인심을 잃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개화파에서는 숙청 대상이라 말이지. 개화파에서는

‘그 사람들은 수구파다’ 해서 밀어낼 대상이란 말이지. 그래서 갑신정변이란 연제가 해서 좀 쏘고 어찌고 했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상자로 꼭 지목될 거에라는 디도 그 사람만 하나는 하두 인격이 원만해서 안죽었어.

그런 어윤중이가, 그런 어윤중, 어윤중 대감이 어떻게 해서 여기 양평군. 양평 가 보았어요? 팔당댐 있는 양평 가 보았어요? 양평군에 가다가 아무 이유없이 맞아 죽었느냐 이거여. 사학자들도 아무리 해석을 해도, 조사를 해봐도 이유를 몰러. 그 한일합방 전에 한말인디, 구한말에 죽은, 맞아죽은 어윤중 대감이 어째서 맞아죽었는지,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해두 몰러.

그게, 여기 보라구.(종이에 어비울(魚肥耆)이라고 씌.) 봐요. 어차지, 고기어, 살절비자지, 비만 비료 비만 이건 뭐자요? 울다 울다. 눈물을 흐리고 울잖아. ‘어비울’ 울 울, 운단 말이여.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이고 해서 호텔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누구네 쓰던 방이던지 정해서 하던가, 가다가 주막집 있으면 주막집에서 저녁을 사먹고 거기서 그냥 공짜로 자는 거거든. 그건 여관비 내는 것이 아니라 저녁을 사면 공짜로 그냥 자(재워)주거든.

그런게 어윤중 대감이 인격도 원만했지만은 여러가지가 다 그런 분이니까, 절대로. 무슨 그때는 원 군수 말이야. 고 정도만 되두, 고 정도만 되두 다 뼈까드리하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구 초라하게, 초라하게 이렇게 행색을 차리구서 이제 걸어갔단 말이여. 그땐 또 걸어다닐 때 아니여. 근데 저녁 때가 돼서 인제 날이 저물게 되니까, 지나가는,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그 주막집이 있거든. 그래서 얘기를 해서 방에 들어가면서,

“이 동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이 어비올이다.”

이거여. 이 동네 이름이 어비올이다 이거여, 동네 이름이. 그러니께 직감적으로 한문을 많이 배운 분이니께, 직감적으로 아하, 자기가 어자 거든. 이 살찐비자 큰, 큰 어서방이란 말여. 자긴 지금 요새로 하면 국 무총리, 부총리 그러 지위 아난게베. 그러니께 큰 큰 고기가, 자기가 지금 큰 고기 아녀? 큰 어서방 아녀. ‘운다,’ 직감적으로 한문을 많이 배웠 응께, 직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겨. ‘이 동네가 무슨 동네, 동네 이름 이 뭐냐’ 하니까 ‘어비올입니다’ 그러니께, ‘이걸 모르면서도 그냥, ‘어비올입니다’ 했어도 자기 벌써 이렇게 해석한거여. ‘어비올, 어비올’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거.

“아하! 큰 어서방이, 자기는 벌써 부총리, 국무총리 이런 지위인께, 큰 어서방이거든. 살찐비자 큰 어서방, 어서방이 운다.”

이거여. 그래서 직감적으로 해석하고 일어났어. 일어나서 그 동네를 벗어, 벗어나기 위해서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동네 얼추 벗어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이 몽둥이를 가지고서 뽕 둘러 싸았어, 킁킁한데. 뽕 둘러싸가지고는 어운중이라고 허니께, 그냥 아무 이유없이 물어볼 것도 없이 ‘어운중’이라고 하니까, 확인하고서,

“기다.”

고 하니까, 느닷없이 꽤 죽여버렸어. 그러니께 어비올 맞잖아. ‘큰 어서방이 운다.’ 어비올, 어비올, 운단 말이야. 큰 어서방이 운단 말이야.

그래가지구 그 당일행이가 그 주역에 맞춰서 지은 이름이야.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 세상에. 어비올, 이래가지구선 그 자리에서 맞아죽고 또 최근에 와서, 그 관계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어비올이라는 걸, 참 참 어운중이가 왜 맞아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는데, 최근에 와서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로 그 당파 당파,

요새 식으로 사색 당쟁, 당파 해다가지고 어떻게 허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가 밀려나게 되서 그 동네 와서 숨어 살았다나 봐. 근디 '어윤중이가 지난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시켜서,

“그 놈, 일본놈하고 어떻게 되니, 어떻게 해서는 꽤 죽여라.”

어떻게 해고선. 그래서 꽤 죽인 걸로 최근에 와서, 하여튼 밝혀진 정도지. 그 동안은 아무리 사학자들이 연구해 봐도 이 어윤중이라는 그렇게 원만한 분이, 왜 아무런 이유없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맞아 죽었는지, 이에서 맞아죽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게 있고.

[좌향리 설화 16] 맹리T 1뒤

좌향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김세호(84, 남) 1995. 11. 11.

수구리의 지명 유래

자신은 돈이 없어서 여행을 많이 못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며,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며 여러 지명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나는 많은 여행을 못해 봤어. 못해본 이유가 돈이 안따라 내가. 나는 학자적 그런 뭐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 돈이 안 딸거든. 돈이 안따려요. 나도 연구도 많이 하고, 나도 그런 실적도 있고 현디 돈은 안따려요.

이런디 그 저 소양댐 가 봤나? [조사자 : 소양댐요?] 응. 소양댐에 그냥 가보고 오달 말구, 소양댐을 가면 동네 이름이 뭔가 한 번 확인해 봐.

동네 이름이(종이에 '水口里'라고 씌.) 뭐야? [조사자 : 수구리?] 응. 그렇지. 물수(水)자 입구(口)자 아닌가벼? 그 동네 이름이. 그렇게 이렇

게 해서 그 소양댐이 이 독을 막아서 물이 이렇게 내리 지르잖네벼. 인제 가끔 홍수 때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지. 물이 막 내리지르면 하늘 같은.

그 동네 이름이. 아마 나는 안 가봐서 확인을 안해봐서 확실히 말은 못하지만서도 가서 확인을 해 봐. 동네 이름이 아마 수구리일 거여. 그 옛날 같으면 소양댐이란 거 생각이나 할 때야? 옛날 같으면. 아마 생각 못할 것 아니여. 그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것 뿐인디. 근디 거기서 막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내리지르단 말이지.

수구! 물을 토해내는, 물을 토해내는 동네란 말이여. 거가 가서 확인해 봐. 나는 안가봐서 확인할 길은 읍어. 안가봐서 확인할 길은 읍는데 이렇게 되었을 거여,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렇게 되었을 거야.

[좌항리 설화 17] 맹리T 1뒤

좌항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김세호(84, 남) 1995. 11. 11.

비상리의 지명 유래

그라구 청주, 청주에를 가 봤나? [조사자 : 아니요.] 청주 안가봐. 청주에 가면, 고 시내에서 그 옆의 시가 북일면일 거, 북일면. 북녘북(北)자 옹 한일(一)자 북일면이여, 면. 그 옆에는 북이면(北二面). 북일면 지나면 북이면.

그 북일면에 지금 비행장이 거기 있지! 공군사관학관가 거기는. 거기 있지. 그 동네 이름이, 동네 이름이 비행기라고 날을비(飛)자 비상리(飛上里)일거야. 날라서 올라간다. 거기 가면 날라서 올라간다. 아이, 청주 거기 누가 비행장 안으려니 생각한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읍지. 그러

나 그 동네 이름이 비상일 거야. 날아올라 간다.

그랬더니 중국의 당나라의 당일행이가 와서 우리나라를 빙 돌아가면서, 이 주역에 맞춰서, 주역에 맞춰서 동네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런 나 처럼, 나처럼 이렇게 학문에 근거를 두고 얘기해야 맞지.

[좌항리 설화 18] 맹리T 1뒤

좌항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제보자2(70, 남) 1995. 11. 11.

은혜 값은 노루

술을 먹고 왔는지 이야기를 조금하게 말을 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앞부분은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와 같은데, 뒤부분은 동물 보은담의 형태로 되어있다.

그래가 나무를 허러 가서, 나무. 이 산나무를 해 가지고 오는데 노루 다 한 마리 뛰어오거든. 뛰어오는데 이 노루가 말이여,

“낮(나)를 살려 줘, 어찌고. 포수가 나, 나를 싸 죽일라고 그러는데 나를 살려 줘.”

그러거든, 어 그래 나무, 나무꾼이 나무에다 들들들 말어서 딱 굴렸거든. 그러니깐 포수가 오는 거야. 포수가 뭘 말헌가 허면은,

“낮을, 저기 여기 노루가 한 마리 왔는데 봤소?” 이래.

“저 산 너머에 넘어 가드라.”

이러거든. 산 너머를 가면서 산 너머를 따라가는 거여. 그래 노루가, 그전에 가서 풀어놔 줬거든. 팔을 뚫뚫, 아 나무를 뚫뚫 말아서 아래로 구굴려 내렸거든. 그 다음에 노루를 가서 만나야거든.

노루가 자꾸 이렇게(조사자를 잡아 끌면서) 저허고 같이 가자는 거여.(기침) 저허고 같이 가자니까는, 거어 찾아건, 나무했던 사람이 같이

따라갔지. 그래 땅을 자꾸 캐는거여. 파니까는 그 뭐니 인삼(산삼의 잘못)인삼이 뭐 몇 한참 산 나오드라는 거여. 그래서 인삼을 팔아라고 해서 팔으니까 꽤기 많이 되는데.

거 인삼이 뭐인가 허면, 그러니까 노루는 노루는 그 나무꾼이 살리고, 또 그 인삼 나오는 것은 거 노루가 살린거야. 그래가지고 참 좋은 일을 했거든. 그와같이 시상은 지가 좋은 노래, 내가 좋은 노래이면 그 사람도 좋은 노래고. 그 사람이 나쁜 노래면 내가 나쁜 노래여. 그래서 이게 그런 옛말도 있었고.

[좌항리 설화 19] 맹리T 1뒤

좌항리 좌전약국, 강현모, 김경희, 민정심, 신원영 조사
제보자2(70대, 남) 1995. 11. 11.

효자가 얻은 산삼 동자

은혜깊은 노루 이야기를 마치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관해 짧게 말한 다음에 이것을 구술하였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너무 간략하여 수록하지 않았다. 산삼동자에 관한 것만 여기에 수록하기로 한다.

또 옛날, 옛날 예적에 한, 어 한 가족이 있었거든.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있었는데, 할머니가 죽을 병에 다 걸렸어. 죽을 병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했는데.

아 점을 해 봤어. 점을 해 보니까는,

“손주를 삶아서 먹이면 그 할머니가 낫겠다.”

딱 점 허는 이가 그 그렇게 말 허거든. 이거 어 그런게 아들 딸, 아들 며느리가,

“손주는 또 나면 손주가 되고, 손주 하나 읍어도 뭐 살고.”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실행허것소다.”

했거든. 그러했는데 아들은, 아들이 핵교에 간거여. 학교에 갔는데 열 두시 됐는데 아들이 오거든. 딱 잠어가지고 가서 가매(술)에다가 삶는거여. 가매에다 딱 삶어서 아들한테, 어 할머니 믹여서 할머니 다 나온거여.

그래 저녁때 또, 어느 아들이 또 오는거여.

“너는 어느 아들이냐?”

“나는 아버지 참 어머니? 나를 모르오?”

그랬거든.

“우리 아들은 삶아서, 우리 할머니 다 믹여서 우리 할머니 다 나서서 수분하는데 무슨 아들인가?”

그러니까,

“나는 학교 가가지고, 오늘 책거리를 해가지고 학교에 장 해전 먹고. 또 떡 고기 먹고 내가 오는데, 왜 나보고 아들이 아니라고, 손주가 아니라고 이러는가, 할머니여?”

그래서 이것도 되고 그러니까, 거 할마니, 거 아들딸 며느리가 호(효) 자여. 효자니까 아들 손주를 삶아 믹이지, 누가 삶아 믹여. 그러니까 그것은 인삼(산삼의 잘못) 옛날에 인삼, 인삼이 사람도 되고 구신도 되고. 인삼을 삶아 믹여가지고 저 (이하는 녹음되지 않은 기록부분) 할마니가 나왔다는 얘기여.

12. 사 암 리

[마을개관]

사암리, 강현모,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 조사.
1995. 6. 10.과 11. 11.

이 마을에서 오래 전부터 살았던 한 제보자에 의하면 이 마을은 모래와 바위가 많아서 사암리(沙岩里)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처럼 모래나 바위가 많지 않았다. 조사자들이 예정하였던 미평리는 몇몇 사람들만 만나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사암리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래서 미평리의 한 주민의 차를 얻어 타고 사암리 노인회관을 방문하였다.

노인회관의 길 옆에는 소나무 숲과 그 마을의 식수원인 큰 저수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군데군데 들어서 있다. 도로도 잘 포장되어 있고 차편도 꽤 많은 편이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고 넓은 들에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한적한 마을로, 곳곳에 문화 유적지도 있다. 이곳 주민들은 늘 산과 더불어 생활하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목축, 과수재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시내에 나가 산다고 했으며 이 곳에 남은 사람들은 거의 노년층이었다.

조사자들이 노인회관을 방문하였을 때, 목침을 옆으로 세운 채 베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분, 건너방의 쇼파에 누워 있는 분, 담배를 물고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이 있었다. 노인회관에는 텔레비전이 두 대, 냉장고, 쇼파, 카세트, 진공 청소기도 있었다. 이런 제품들은 아들이 사다 주거나 큰 회사에서 주었다고 한다.

약 12시 30분 경에 노인회관에 도착한 조사자들은 오랫동안 걸어나다 많이 지쳐 있었는데, 할아버지들이 주신 음식으로 허기를 면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란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학교에서 차비는 주었느냐, 점심값은 주었느냐' 등 이것저것을 묻는 자상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3시간 동안 무척 즐거웠고 막상 방을 나올 때 꽤 서운하였다. 할아버지들도 '와 취서 고맙고 즐거웠다'며 나중에 꼭 다시 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사암리 제보자 1]

이정열(80, 남) 강현모,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 조사
1995. 11. 11.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마자 아무 망설임 없이 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보자는 제공해 준 것이며, 조리있고 익숙한 달변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즐겼다. 또한 제보자는 나이에 비해 정정한 편이었으며, 큰 체구지만 어깨가 약간 구부정했다. 말투는 약간 새는 소리여서 간혹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한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는 동안 다른 제보자들에게도 이야기 할 것을 권하며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다른 제보자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자상함까지 보여 주었으며,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몫을 담당한 제보자였다.

제공자료 : 설화 1, 6, 8.

[사암리 제보자 2]

임경택(65, 남) 강현모,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 조사
1995. 11. 11.

이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찾아간 노인회관에서 가장 젊으신 분으로, 노인회관의 총무직을 맡고 계셨다. 이야기를 잘 하실 것 같다며 옛날 이야기나 이 마을에 얽힌 이야기, 전설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런 이야기는 많긴 많은데 얼른 생각이 안난다며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다.

어떤 분이 '아, 가서 술 사 와. 저 사람은 술 먹어야 얘기 해.'라고 말 씀하셔서 정말 술을 사 와야 하나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냐'며 '냉장고 안에도 술이 있으니 사올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먹을 것을 내어 주셨다. 그다지 크지 않은 체격이었으나 정말로 건장해 보였고 말투도 또박또박하여 채록하는데 별 문제도 없었다.

제공자료 : 설화 2, 4 ~ 5, 7.

[사암리 제보자 3]

구지춘(74, 남) 강현모,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 조사
1995. 11. 11.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한다고 계속 거부하더니 조사자들이 도깨비 이야기를 해 달라고 계속 조르자 끝내는 말을 하였다. 노인회관 방의 한 구석에서 다른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다. 음식이 나오니까 조사자들에게 먹으라고 계속 권유하는 인정을 베풀었다. 또 사과와 배를 직접 깎아 주시기까지 하였다. 이빨이 많이 빠져서 새는 소리가 나와 채록하기가 어려웠다.

제공자료 : 설화 3.

[사암리 제보자 4]

박성철(68, 남) 강현모, 윤덕환, 정현재, 신로자 조사
1995. 11. 11.

한창 다른 제보자가 이야기 하는 가운데, 들어오신 분인데 읍내에 나가려다가 차를 놓쳐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 분이 들어오자 다른 청중들은 이야기꾼이 왔다면 얘기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야기 좀 해 달라고 부탁하자 많은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으나 경험하였던 이야기는 채록할 만한 것들은 되지 못하였다. 6·25 당시 입은 상처(총맞은 자국)를 자랑스럽게 보여 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덧니가 참 인상적이었으며 한 쪽 눈이 약간 이상했다. 침이 엄청 튀었으며 새는 소리가 너무 심해 녹취하는데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제공자료 : 설화 9, 11 ~ 12.

[사암리 설화 1] 사암리 1호

사암리 노인회관, 강현모,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 조사
이정열(80, 남) 1995. 11. 11.

아버지를 살린 자식의 지혜

조사자가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배운 게 없어서 할 줄 모른다고 계속 망설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이야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을 이름에 대한 유래를 물어보자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도중에 한 어른이 들어오자 이 제보자는 일일이 소개해 주었다. 녹음한다고 말하자 술술 나오기 시작했다.

예전에 한 사람이, 예전에 한 사람만 있나, 여러 사람이지. 근데 얘기 하자면 한 사람이라 그러는 게야. 거기도 또 놀러? (조사자가 녹음된 것을 확인하려고 카세트를 누르자, 제보자가 묻는다.) [조사자 : 예, 할아버지. 녹음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소리를 녹음해서 기억해야죠, 저희가.]

아, 그럼 서울까정 가겠네? [조사자 : 그럼요.] 큰일났네, 이거. [조사자 : 예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유도함]

김서방, 이참봉이 있었어, 이참봉. [조사자 . 예. 이참봉?] 참봉, 이 참봉이지. 근데 이제 그 배깁(바깥)에 배나무가 하나 셋거덩. [조사자 : 배나무요?] 응, 근데 이쪽(이쪽)은 이참봉네 집이고 이건 김서방네 집이란 말이야. 근데 이 배나무가 이 여기다 울타리 안에다 여기서부터 김서방네 집을, (제보자가 자신의 팔을 뻗어서 가지 모양을 표현했다.) 아, 그런데 까지(가지)가 글루 뻗어 들어갔다고 참봉이 배 판단 말야. [조사자 : 아, 참봉이...] 근데, 그 아들이, 쪼그만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참, 말은 못 하겠고 그 꽤쌌스럽단 말야. [조사자 : 아,아. 꽤쌌하죠.] 그래, 요놈이 적갈이 [칭취불능] 찾아가면서 아, 이제 나이가 들었던 모양이지? 아, 아버지한테,

“배나무가 우리 것인데, 왜 이참봉이네 집이 따도록 하느냐?”

하니까,

“야, 임마! 가만히 있어. 일단 치위(체위)에 눌러서 무어라 하면 임마, 나 잡아다녀 마, 중시하면 마, 뚜드려 맞아, 임마.”

그러거덩.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가 얼마냐고. 사람이 경우대로 사는 거지. 그러거덩. 아, 요놈이 듣자듣자 하니까,

“아 가만히 계시라고. 아버지!”

아, 가. 그놈이 참봉네 집엘 갔어. 이따랏게 장지, 아, 그전엔 장지문 아니야? [조사자 : 아, 장지문?] 장지문에다 이렇게 발라 났는데, 이것도 들어가는 기야? (카세트를 가리키며 녹음 되는지를 묻는다.) [조사자 : 예, 예. 돌아가요.] [칭중1 : 잘 되었다.] [칭중2 : 아무나 한 번 많이 하.] 아, 그러더니 지 손목을 이렇게 쥐었다 가지고 [조사자 : 손목을?] 손목을 건어가지고 말이야. 화악! (몸짓까지 하면서...) 그래, 장지문을 찌르니까 살침이 얼루 들어가? [조사자 : 참봉네 집으로.] 참봉네

사랑방으로 들어가지. [조사자 : 예, 사랑방.]

“거, 누구냐?”

“접니다.”

“아, 요놈아! 그건 무언 방정맞은 것이냐?” 하니까,

“그런게 아니라, 이게 누구 팔뚝입니까?”

물었잖아. [조사자 : 응, 누구 팔뚝이냐구?]

“아, 이놈아! 네 팔뚝이지 누구 팔뚝이냐?”

“아, 그렇디여.(그렇지요.) 아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왜 우리집에 섰는데 가지가 글루 뻘었더라고 댁에서 딸 수 있냐!”

고. 인제 그러면서 [조사자 : 아, 아 그러니까 팔뚝도…….] 아, 팔뚝이 배나무여. 배나무. 아 요놈의 새끼. 말하는 랑이 틀렸거덩. 그래 맞았다 맞았어. 아 그래 꽤섬스럽단 말여. 요놈 하는 게,

“그 네 애비 집에 있지?”

“예!”

“넌 좀 오라 그래라.”

가서 찍인다고. 아 그래 아이 그 예기(욕),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 널 오시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 가서 떼쓰지 말고 대녀 오라 그랬더니, 아 그러지 말라는 거 왜 근드려 가지고서 입마 속을 썩이느냐?”

어, 여 원이 말씀하시기를 그 추운 겨울이지. [조사자 : 음, 겨울.]
눈은 쌓이는데(쌓이는데) 딸기 서 말을 따 오랬다. [조사자 : 딸기요?]
그래, 그 강(간)이 붓덩이(시커먼)여. 그 뭐 할 수 없는 말만 자꾸 험단 말이여. 아 딸기가 어딴어, 겨울에? [조사자 : 그러게요. 딸기가 어딴어?] 인제 왔지. 왔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할 거 같으면,

“딸기를 서 말을 따 오라니까 입마! 딸기가 어딴니, 입마!”

잡아 찍일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 꾀꾀 앓으니까.

“아이 그까짓거 뭘, 내가 알아서 임시변통한다.”

구. 아 그래 그 이튿날 또 부르니까 갔지. 갔는데,

“딸기 따 왔느냐?” 하니까,

“지가 왔습니다. 대리루.(아버지 대신으로)”

“니가 또 왔어, 임마!”

“아 엿저녁에, 어저께 딸기를 따러 갔다가 아버지가 독사를(독사에게) 물려 가지구선 다리가 통통 부어서 꼼짝 못하십니다.”

그 일대가 맞는 얘기 아녀? 겨울에 독사가 어딴어? 아, 그, 저 큰일 났거덩.

“아, 그래, 니 맞았다 맞았어. 네 말이 맞아.”

아 그 원이 한 번 또 불러 가지고선, 그 원이 수탉알을 세 꾸러미만 구해 오랬다. [조사자 : 수탉알?] 니가 알 나? 니도 못 낳지? [조사자 : 알이요?] 수탉이 알을 낳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놈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덩.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와서 또 꾸꾸거리며 앓는 거야.

“아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러느냐?”

고. 물으니까 아,

“수탉알을 세 꾸러미 구해 오라니, 아 수탉이 무슨 알을 낳니?”

기러잖아. 그러니까.

“아유! 그깟 염려 마세유. 저(제가) 가서 임시변통 하면 되요. 아이 거 옛 한 그릇이면, 말 한 마디 하면 꼼짝 못하십니다.”

아이, 이 놈이 난중에 크게 될 놈이여. [조사자 . 아, 그렇구나!] 아 그래 게 그 놈이 또 들어갔지.

“너 이놈아! 왜 또 왔어?”

“이 어떤 녀석이, 오늘 아버지가 해산을 하는데요, 해산을 하는데 아, 그냥 해산 후속기에 통통 부어서 지금 집에서 꼼짝 못하십니다.”

“고것 참, 아 이 이놈아! 사내가 무슨 해산을 해, 임마?”

“그 참봉 어른은 어떻게 수탉알이 어디 있다고 수탉알을 구해 오냐?”

고. [조사자 : 임시 변통을 잘 하네요.] 거 임시변통을 잘 하는 게지. 아, 그거 또 졌지. 그 부자를 자꾸 건드렸다가 나중에 자기들 큰 코 다 치지. 저 아버지를 또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 근너(건너에) 새가 많이 앉았는데, 그거 뗏(뗏) 마리나 되느냐고. 그걸 세 오랬다.”

새가 뗏 마리나 되는지 알아야지. 앉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와서 임시 변통을 못 하니까. 그걸 열 마리라고 할 수가 있어, 스무 마리라고 할 수가 있어. 아, 근데 이 또 갔거덩. 이 꼬까짓 것쯤이야 뭘 다 알아다 주냐고.

“아 너 또 왔어. 임마?”

그놈의 자식, 고거 맹랑한 놈이라구나. 그 놈의 거.

“거 새가 뗏 마리나 돼?”

“아, 아버님이 가서 세어 봤는데 아흔 아홉 마리래요.”

[조사자 : 아흔 아홉 마리?] 응, 아흔 아홉 마리.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백 마리지. 아이 근데 이참봉이 세어 봤어, 뭘 알아야지. 아 그래서 기절하네. [조사자 : 아들이 이겼네요?] 아들이 만세 불렀지.

그러게 자식을 잘 두면 애비가 고생을 덜 하는 법이지. 그게 인제 나중에 큰 놈 되는 거여. 말 한 마디가 꿈쩍 못하게 하는 걸 어떡허. [조사자 : 그러게요.]

[사암리 설화 2] 사암T 1왕

사암리 노인회관, 강현모,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 조사
임경택(65, 남) 1995. 11. 11.

재주 좋은 총각과 처녀

다른 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동안 한참을 혼자서 생각하더니, 결국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아주 옛날에 옛날에 말이지. 한 마을에 재주가 좋은 총각하고 재주가 좋은 처녀가 있었어.

거 얼마나 재주가 좋으나 하면, 총각은 하루 아침에 논에 나가서 모를 떠다가 서 마지기를 심는 그런 재주를 가졌어, 하루 식전에 말이지.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조사자 :우와, 아침에?] 음, 처녀는 하루 식전에 삼밭이라고 있어, 마. [조사자 :마?] 어, 삼밭에 가서 삼을 비어다가 [조사자 :아, 삼밭] 빼껴서 찌 가지구서 베 한 필을 찢다구. 그런 재주를 가두지구 있었어.

그래 인제 사실 그런지 아니지, 인제 실험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그래 시작을 한 거야. 그래 이제 이 총각은 가서 부지런히 모를 인제 심고, 인제 이 처녀는 인제 삼밭에 가서 베를 어? 나, 나라(날라)가지고 찢고.

그래서 인제 밥을 먹는데 어느 그 행인이 돌을 이제 망아지에다 고걸 자루에다가 세 겹 실었어. 세 겹 실구 가다가, 거 좀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말이지, 밥을 먹는 것 보니까 나도 요기를 하고 가자고, 그래 요기를 하고 나더니,

“나도 그럼 재주가 하나 있는데, 잠(잠간) 보라.”

고. 보라고 말이지. 그래 자루를 내려 놓더니, 이 다 벼룩(벼룩)이라 벼룩. [조사자 : 벼룩?] 펄펄 떠(뛰어). 펄펄 뛰는 거 벼룩이란 말이야. 거 스, 저 세 부대가 말이지. 그러니까 고, 고 순간에 이 들에 가면 그리에 피라고 있어요. 질긴 피 있어요. 들에 가면 말이지. 아가씨들은 잘 모를꺼야.(조사자를 보며)

다 기냥 둘레를 저서 잡아메드라. 그 자루가 더 좋거덩. 세 푸대에 있는 벼룩이 그 얼마나 숫자가 많아. [조사자 : 그러게요.] 그 이 처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되겠거덩. 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없고 말이야. 고른 순간에,

“에따, 모르겠다.”

이런 누구 선택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여.

“에이, 나무에 오르겠다. 그러고서 죽기나 한다.”

고 말이지. 그래 나무에 올라가서 인저 떨어져, 떨어질라 그러는 찰라 중이 하나 지나가더니 말이지, 그래 올라가서 보니 처녀가 죽을라고 그러거덩. 그래, 떨어질 찰라 그 중은 샷샷 쓰고 땡기잖어? 샷샷으로 받아가주고서 조, 조, 뭐야, 업혀 가지고서 도망을 가더래.

[조사자 : (웃음)아, 중이?] 응,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말이여. 그런 전설들이 있다고. [조사자 : 아, 그래서 그 처녀가 살았네요?] 그래, 그 중하고 가서 살지. 중이 낚어 채서 잤으니까.

[사암리 설화 3] 사암T 1화

사암리 노인회관, 강현모,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 조사
구자춘(74, 남) 1995. 11. 11.

도깨비 이야기 1

어렸을 적 실제로 보았다면서 자랑투로 도깨비 이야기를 해 주셨다.

도깨비 얘기나 해 줄까? 그 우리 동갑네가, 우리가 어려서 한 칠팔 세 째, 하루 저녁에는 영 잠이 안와. 아 그래서, 그래 영 잠이 안오니까, 기냥 집엘 간다고 개울, 아 그래 반쯤 오니까 여기 팽나무가 있어요. [조사자 : 팽나무요?] 고거 시방 자동차 불 같은게, 게 그렇게 환하게 비치는 거여.

이, 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 부지런히 갔지. 집으루, 집으루 가다가 이제 들판에 가서 이렇게 뻗히 쳐다보니 그대로 자동차 불 모양 이렇게 비치고 있더라구. 그, 그놈을 봤다고. [조사자 :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없어. [조사자 : 어머...] [청중1 : 나도 그저 밤길 석실 그 실선 아버지, 그 낭반이 얘기하는데] [청취불능] 아 학교 오는데 진데루 다니고 이쪽으로 다니고 그러잖아. 그래, 난 거기루 다니니까 (손짓을 하면서).

근데 인제 그날 약주나 거나 하구 오시는데, 뭐 장사같은 놈이 말이지, 나오더니 말이지 뭐 씨름 한 바퀴 잡아다니더라. [조사자 : 어머...] 그래 그 네 아버지가 장단이 썰거든, 다른 낭반보다. 그래 인제 그 씨름을 했다.

하더니 무슨, 무슨 칼이지 뭇지 주머니칼 같은 걸 옛날엔 들고 다녔다고 그래. 그걸로 찔렀대. 푹푹 찔렀대. 그래 씨러지더라요. 이이, 쓰러뜨려 놓곤 집에 와 가지고선 그 이튿날 저녁, 날이 새서 가 보니까 빗자락 있져. 빗자루. [조사자 : 아이구!] 이 쓰는 빗자락 있어요. 수수, 수수로 하는거. 거기에 꽃혀 있어래. [조사자 : 아이구.] 칼이. 그게 도깨비지. 그런 얘기는 나도 들었어요. [조사자 : 그럼 도깨비가 있을 지도 모르네요. 정말루?] 글썄, 지금은 믿어지지 않는 얘가지.

[사암리 설화 4] 사암리 1화

사암리 노인회관, 강현모,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 조사
임경택(65, 남) 1995. 11. 11.

밤나무와 도깨비 불

조사자들이 도깨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밤나무에 얽힌 도깨비불 이야기를 또 해 주었다.

(앞 이야기를 이어서) 그리고, 밤나무 같은게 썩으면, 오래된 게 썩으면은 밤에 그러니까 지금 그 뭐라, 야광이라 그러냐? 야광 시계니 야광 있잖아? [조사자 : 예, 야광.] 도깨비 불로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사실 그래.

밤나무가 원래 썩으면, 썩어서 오래 되면은 파아랗게 그 스(서)기 일어나. 스기라 그래. 스기. [청중2 : 밤나무도 있지. 버드나무도 있지. 그런 스기가 많아.]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구. 그걸 어떻게 잘못 보면, 또 그 불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새 실지로 스기를 잘 들어.

[사암리 설화 5] 사암T 1앞

사암리 노인회관, 강현모,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 조사
임경택(65, 남) 1995. 11. 11.

와우 정사

조사자들이 이 마을이나 근처에 있는 유명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더니 와우정사에 관해 짧게 이야기해 주셨다.

저 위에 와우정사 있지? 누워 있단 말이야. 와우, 와우. [조사자 : 근데 왜 누워 있어요? 부처님이.] 산이, 산이 형제가 터가 누워 있는 것 같다구. 어. [조사자 : 그걸 따서 와우?] 모든지 누워 있던데. 부처님이 누워 계시지?

[사암리 설화 6] 사암T 1앞

사암리 노인회관, 강현모,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 조사
이정열(80, 남) 1995. 11. 11.

소바위

'와우정사'에 이어 이 마을에서 유명한 바위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다.

저기 소바위라고 있어. [청중1 : 소바위도 있구. 행정바위도 있어.]

[조사자 : 소바위 말고 행정바위요? 행정바위는 뭐예요?] 생여. [조사자 : 생여?] 소바위라고 그래. 소바위. 소가 이렇게(손짓을 해 가며) 움추리고 앉아있는 모양이여. [조사자 : 아, 소가 움추리고 있어요?] [청중2 : 몇 년 전에 저기 저 폭우로 인해 가지구 저 굴렸어. 굴러 가지구. 몇 년 전에 구르기 전까지 여기서 바로 보였다고. 그게 맨 정상에 있었거덩. 그치?]

[사암리 설화 7] 사암리 1화

사암리 노인회관, 강현모,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 조사
 임경택(65, 남) 1995. 11. 11.

수정산

수정이 많았다는 수정산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 산 이름이 수정산이라고 하는데. [조사자 : 수정산이요?] 수정. 수정이지. [조사자 : 아, 수정.] 보석, 보석 있지? 거, 수정이 많았다고. [조사자 : 진짜로 있어요?] 그럼 진짜로 있지. 거 속에 들어서 안보인다고. 예전에는 많았지. 나 국민학교 때만 해도 그냥 곁에 노출되어 있어. <이 뒤로 테이프 이상이 있어 잠시 중단됨>

[사암리 설화 8] 사암리 1화

사암리 노인회관, 강현모, 박은경, 박혜순, 신로자 조사
 이정열(80, 남) 1995. 11. 11.

도깨비 이야기 2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다. 조사자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던 그 제보자는 약간 기분이 나빠하는 듯 하였으나 그 제보자가 하는 이야기는 실상, 채록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였다.

달밤에, [청중1 : 체조하다가.] 체조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어린애를, 뭘 뭘, 까부를라고(까부느라고) 에, 자꾸 보채니깐 시아버지 보고 어린애를 보라거덩, 달밤에.

그래 이렇게 안고 두웅둥 이렇게 껴안는데, 벨안간(별안간) 휘파람 소리가 나더니 어린애를 툭 채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 보니깐 한 가지 조건을, 여, 거, 여기 있는 대안골, 대안골 같은 데가 있는 모양이야. [조사자 : 대안골요?] 대안골, 거가 호랭이 굴이야. 어린이를 지나(데려)갔을 텐데, 참 우뚜게(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며느리, 매느리가 오늘은 외출을 하니깐, 아, 저기 가서 인제 재웠다. 근데 깨갈려면(깨워 가려면) 내 데루 간다. 일어났지. 그냥, 뭐 뭐가, 착할 딱하니('착' 소리를 내니) 잡어.

그러니깐 이 긴 창을 가지고선 개가 일루 움직인다. 그래 게(거기에) 기어 올라간거야, 며느리가. 근데 이놈우 호랑이가 어린애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뉘어 놓고는 새끼들이 그걸 물고 놀리느라고.

[조사자 : 호랑이 새끼들이요?] 기냥 잡어서,(청중이 차시간을 물으려 끼어듬) 양쪽 팔을 짱대같이 이렇게 뻗치고, 창을 가지고 있어. 툭 그냥 죽일라고. 근데 호랑이란 놈이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는 기야. 냄새를 킁킁 물고 맡아가지고 사람 입김 냄새가 나면은 이 쫄지를 이렇게 쭉 둘러봐. 둘러보는데 그 쫄에 사람이 있는거야. [청중1 : 저 할아버지가 거 쫄하네.] 거, 가만 있어. [청중1 : 내가 뭘 가만 있어, 뭘.] 인제 내가 죽어도 죽는다 하고선, 이렇게 다리를 양쪽으로 거기다 뻗치고선 이놈이 나가, 인제 내뻗려고 지랄을 하잖어?

그러니까 똥구녕을 딱 찢러버렸어. 그래가주거선 썩 내미니깐 그냥 인

제 그 밑에 물이여. 거기다 폭 빠지거던. [청중2 : 창으로, 창으로?]
 음. 창으로. 근데 그놈이 그 기둥 밑창이 들어가니깐 베길 수가 있어?
 [청중2 : 그렇죠.] 그러니깐[청취불능] 그래가주고선 어린애를 꺼내가주
 고선,

“야, 메누라!”

“예!”

“참으로 잘했구나. 그래 내 안아가주고 온다.”

그 엄청나는 일이지. 그래 이렇게 간단간단 하게 해야지. (청중1 보고
 길게 한다고 나무란다.)

[사암리 설화 9] 사암리 23호

사암리 노인정, 강현모, 윤덕환, 정현재 조사
 박성철(68, 남) 1995. 6. 10.

아버지를 살린 지혜로운 아들

조사자들이 사암리에 도착하여 노인정을 먼저 찾았다. 노인정에 들렀을 때는 여러 노인이
 앉아서 담소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서로 미루고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제보자가 선뜻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 예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만 있나 두 사람도 있지.(웃
 음) 내가 나오면 한 90분 정도는 얘기해야 돼, 내가. 그러나 예(여기에)
 넣는 거야.(녹음을 하는 것인지 물음.)

예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김씨 이참봉이 있어. 그런데 김씨 그 사람
 은 참봉도 못하고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인데, 이참봉한테 밀려가지고 꿈
 짝을 못하겠거든.

그런게 이 비가; 배나무가. 그 이참봉네 집으로 이놈이 이렇게 번어나

갔어. 그런데 허는 얘기가 이놈의 것, 이참봉가 흘랑 다 따거든. 그러니까 이 김씨라는 이는 권리(권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았다가 내비두었는데, 그 아들이 삼작을 달으면서, 그래 인자,

“배나무 울이 이렇게 뺏었는데, 그 이참봉이 다 따가느냐?”

허느니까.

“너 이놈아! 끼어들지 마라. 나 혼난다 자식아!”

그러니까, {조사자 : 세력이 밀리니까?} 응. 그리고 저기 하는데, 아 이놈이 다짜고짜, 그런데 이놈이 따라가면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아 이놈이 이참봉네 집으로 갔다.

아 그전에 장지문을 아니여. 장지문. 창호지를 바른 것. 거기다 주먹을 펴서 이렇게 디밀었거든. 펴 디밀으니까,

“누구나?”

“접니다.”

“너 이놈! 왜 문지를 디밀느냐?”

“이 팔뚝이 누구의 팔뚝입니까?”

“네 팔뚝이지, 누구 팔뚝이야!”

그러니까.

“제 팔뚝은, 제 팔뚝이 분명하지요?”

“네!”

“그런데 왜 배나무는 우리 집에 섰는데, 왜 이곳에서 따느냐?”

하는 얘기에. 그러니까, 경우에 똑 맞는 얘기거든.

“야! 니가 앞으로는 니가 따라!”

아이 이러구 했는데, 아 그놈이 하는데 꽤심스럽거든. 그래 직 아버지, 맛맛(만만)한 직 아버지 잡아들이는 거여.

“그래 너의 아버지. 내일 오라고 그래라.”

그래 갔지. 갔더니,

“너! 이놈의 걸, 문짝을 맨들리라.”

고. 이참봉이, 참 저 원이 얘기로 하는데,

“딸기 서 말만, 둥짓달 따오라.”

하니, 그 딸 수가 있나! 읍지. 그러니까 아이 이 애 허는 얘기가, 왜 아이 이놈이 편잔을 댄다고,

“아버지! 왜 그러시오?”

“아 임마! 니가 임마! 충고를 대가지고 죽계를 되었으니 어떡 허니?”

“아이 염려 마시오. 내가 가서 얘기를 헐테니께.”

마루장을 광 올리니까,

“누구냐?”

“접니다.”

“니가 또 왜 왔냐!”

하니 김씨의 아들이,

“그 아버지님 딸기를 따러 가셨는데, 겨울에 무슨 눈이 산덩이처럼 쌓였는데, 아 가서 독사를 물렸어요. 아 그래, 꼼짝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망할 자식 봐! 마 딸기는 임마, 독사가 어딴어. 독사!”

(일동 웃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는 얘기가,

“아! 겨울기에 독사가 없다고 하지만, 딸기는 있습니까?”

허니께. 꼼짝없이 질러거든.

“아 그럼, 맞았다. 내가 또 졌다.”

아 지니까 그만두는 것 아니여. 아 그런더니,

“내일은 또 니아버지 또 오라고 해라.”

그래 또 불렀어. 그래 그 이튿날 또 갔어. 갔더니 원이 얘기를 하는데,

“수닭 알을 세 꾸러미를 구해오라.”

이 말이여. 수닭 알. [청중 : 숫닭 알.] 응 그래, 숫닭이 알을 낳아. 그래 읍는 것만 자꾸 치는거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 아버지! 알을 구해오라는데 어떻게 하실테요?”

“자식아! 그랬��니까 왜 자꾸 그걸 건드려 커 나왔으니, 사람만 죽게 만들어 마! 나 못간다.”

“아! 지가 갈테니 염려마세요.”

아 그래서, 아들이 또 거기를 갔어. 이참봉네 집이. 가서 딱 문 여니까,
“너! 또 왜 왔어? 이 고약한 놈아!”

“아이 아버님이! 몇저녁에 해산을 하였어요.”

해산한 것 알아. 어린애를 낳다 이거여. 그런데,

“아, 이런 망할 놈 보아라. 아버지 숫놈이 무슨 해산을 해야?”

“그래 수답이 알 낳는 거 보았느냐?”

허는 얘기여. 꼼짝 못하거든. 그래 크게 될 놈은 그래. 그런데 무조건
두 번는 졌는데, 세번째 안은 냈는데,

“저기가 둥구나무가 있는데, 지금 몇 마리 가랑 되는지 그걸 세워 오
라.”

는 거여. 그것 몇 마리 앉았는지 알아? 그런데 이 이놈이, 뱃장이 크
거든. 그런게 이놈이 또 갔지. 가니까,

“그래 몇 마리인지 시웠냐?”

그러니까,

“아흔 아홉 마리입니다.”

그게 뭐 그 원이 시워 봤냐? 그것 마 이 자식한테 졌어. 그래가지고
그 뺏았겠다는 거여. 그래서 그놈이 낭중에는 크게 될 놈인데, 이걸 잘
못했다가 그놈을 건드렸다는 자기가 목숨을 도망갈 판여. 그래서 졌다는
거여.

그래 알았어. 그래 죄우간 꼼짝 못하게 하니까 그 영락 없지. 뭐 그
래.

[사암리 설화 10] 사암T 2뒤

사암리 노인정, 강현모, 윤덕환, 정현재 조사
 제보자2(60대, 남) 1995. 6. 10.

뱀조카를 알아본 허미수(허지기 전설)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한 분이 오셨다. 그래 그분에게 이곳의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하자 해 주신 것이다. 이 마을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분으로 자신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말하는 편이다.

이 마을에는 허지기 전설이 있어.(이상은 기록) 허지기란 분이, 장씨 허씨네 집안인데, 허씨네 집안이 역사에 나오잖아. 그런데 이 신귀이란 허미수 정승까지 지냈어도, 그 그래, 학교에는 위패가 모셔 있지를 안혀, 응. 그분이 정승으로 있을 때, 허미수가 조카를 보았는데, 조카를 보았는데, "집안에 경사가 났으니 내려오라."

그때 조카를 불러 내렸어. 허미수. 허미수가 내려와 조카를 보니까, 사내는 사넨데, 남자는, 조카가. 상이 사람이 아니여. 그 허미수가 관상을 보니까 이상스러워스래무네, 방바닥에서 뿔뿔 기어가는 놈(조카)을 방뎡이를 이렇게 눌러서(옆사람을 누르는 시늬) 누르니까 꼬랑지가 나와. 그게 뱀여, 뱀. 그래가지고, 그래 그 임신이 될 때, 이시미를 잡았던 말이여. 그 태어난 거여, 뱀이.

그래 수정산에 시방 우리 전설에 내려오는 게 있지 않은가? 응, 수정산에 뭐야. 그 저 [청중 : 허지기 굴이라고 허잖아!] 허지기. 허지기가 태어나설라무네 그게 도로 된거여. 그래가지고 그 놈을 죽였지 않은가. 죽인 뒤에 태어났어. 그게 재차.

그래 그걸 살려 뿔으면 허씨네가 멸종했다는 거여. 역적이 나왔다는 거여. [청중 : 이래서 죽였다는 거여?] 응. 그래서 허가가 시방 재고 있는 거여. 그래 허미수의 직손이 시방 잡, 양평 살아, 양평. [청중 : 허

지기 굴이란게?) 생기긴 허민수 생긴 굴에서 생겼는데, [청중 : 그런데 거기 사람들 그 둘에다 돌, 홍두깨를 던지면 돌이 그 방죽에 와서 뜬다고 허던데?] 그건 아니지. 그 허미수 얘기가 나온 걸 보면 말이여.

그 허지기 굴이란 데 시방 [청취불능] 있지만. 두짐 방죽에 가 뜬다는 게, 그 허지기가 저 진상 올라가는 놈을, 뭐던지 진상이 먼저 서울로 올라가거든. 그것을 먼저 그걸 탈취를 해. [청중 : 가지고 가는 것?] 그래. 그래서 묶음을 오려 보내면 말이여. 저기서 집어 없앤다는 거여. 그 허지기.

그 허지기를 없앨 때, 그 허민수가 정승이 된 후에, 허미수는 대, 중국사서라무네 정승이 되어온 사람이여. 한국서 정승이 된 사람이 아니여. 그렇게 높은 사람이. 그랬어도 그 노론소론 때문에, 이 사방 행교에는 위패가 안모셔져 있어.

[사암리 설화 11] 사암리 2뒤

사암리 노인정, 강현모, 윤덕환, 정현재 조사
박성철(68, 남) 1995. 6. 10.

똥을 먹은 오성대감

앞 제보자가 허지기 전설의 구술을 거의 끝마칠 때 약간의 술을 대접 하였다. 그때 몇 사람들은 노인정을 떠났다. 그런데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제보자는 '한음이하고 오성이지'라고 하면서 이야기판을 이었다.

그런데 한음이 허고 오성이지. [청중 1(설화 2 제보자) :오성이 한음, 그때 죄다.] 그 얘기가 한음이 오성이가 있는데, 한음이가, 오성이가 장난이 심했대야. 장난이 심한데 오성이 한음이가 꼭이 떨어지거든.

“아 담 넘어로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니 마루라 봤다. 목간적에 보았다.”

“그래 어떻게 봤냐?”

“마, 등허리 까막 점이 배겼어, 인마. 다 봤어.”

그러니까 오성이가. 오성이가 그러니까 한음이가.

“이런 자식! [청중1 : 이걸 그게 아니여.] 그거 나쁜 놈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송편을 해 놓을 테이니 한 번 오라.”

고. 그래 모이라고 해서 다 모였거든. 모이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꼭대기에다가 송편, 꼭대기에다 똥을 넣었어. 똥을 넣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먹게 할라고. [청중1 : 그걸 괜한 한음이 허고 오성이 허고 장난이 심했던 모양이여.]

그 한음이는 이 밑에 것을 쪽 빼 먹으면, 그 놈은 꼭대기를,

“이 꼭대기 것을 안 먹고 밑에 걸 빼나!”

그 놈을 먹었거든. 그런데 냄새가 냄새가 몹시 나거든. 똥을 넣었으니까. [청중2 : 그렇지.] 아이, 그런데 한음이 대개 하는 얘기가,

“아가리 벌리고 잘못하는 놈은 아가리 똥이 들어가야 된다.”(웃음).

그래거든. 그래서 그 놈을 버릇을 고쳐 놓았다네. [청중2 : 보지 않고 그것말을 그렇게 잘 해야!] [청중1 : 그 당시 장난이 심했어. 장난이]

** 이하는 [설화 13] 뒤에 비슷한 내용을 구술하여 이곳에 부기함.

그 오성이가,

“니 마누라 등어(허)리, 내 등어리 봤다.”

“뭘 봤냐?”

“등어리 점 붙은 것을 보았다.”

그러게 빨가벗은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한음이가,

“그러.”

아 그것, 빨가 벗었으니까 등어리 점 백힌 것을 보지 어떻게 보아. 한음이 허는 얘기가, 마누라보고 얘기 했어.

“그 참말로 만부당 얘기라고. 담 넘어로 넘겨다 보았다서니, 내가 점

백인 적도 웃고, 그 어디서 그렇게 보았느냐?” 그런데,

“아 그럼, 가서 그 사람들 다 모이게 하라.”

고. 그래서 다 모였어. 모였는데 싱(송)편을 맨들는데, [청중 : 그까
놈의 얘기 아깐 험겨여.] 꼭대기, 꼭대기에 인자 똥을 넣어서 두었거든.
그래 그 놈을 날름 집어 먹었어. 먹었는데,

“이이구 구려! 아이구, 똥을 넣.”

“잘못하는 놈은 아가리 똥을 들어가야 된다. 이체가 맞는 말이지 이
마. 어디서 그짓말 그렇게 허느냐?”

그래가지고 그 오성이를 버릇을 가르쳐 놓았다는 거여. 한음이 대부분
이. 여자가 꺾가 더 무서워요.

[사암리 설화 12] 사암리 2부

사암리 노인정, 강현모, 윤덕환, 정현재 조사
박성철(68,남) 1995. 6. 10.

마마로 죽은 시신 속에 누웠던 오성

앞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하여 준 것으로 오성과 한음이 장난이 심하였던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성이. 오성이가 그 장난이 심하고, 장가마마라고 죄 두려누우니까,
복판에 가서 두려누웠어.

드러누웠는데, 어떤 놈이 장구마마로써 두려누웠는지 알 수가 있간.
그래가주고 죄 염을 할라고 들어갔더니, 오성이가 발딱 일어나며,

“나도 염을 하나, 이놈아!”(웃음)

[청중 : 그말 오성이 하고 한음 허고 장난한 얘기 같아!] 예전 얘기가
지:

[사암리 설화 13] 사암리 2뒤

사암리 노인정, 강현모, 윤덕환, 정현재 조사
 제보자2(60대, 남) 1995. 6. 10.

오입한 한음을 구한 오성대감

허지기 전설을 이야기 해 주신 제보자는 앞의 제보자가 오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생 각이 난듯 오성대감의 일화를 말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오성의 재치를 나타낸 것으로, 청중과 제보자 사이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오성하고 한음하고 순행을 도는데, 그런데 서기를 했어. 그래서,
 “서기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런게. 줄이, 친구간. 그러니깐,
 “너 들어가 봐라. 어떻게 된건지?”

허니까 말이여, 한음이 오성 보고,
 “이 이놈의 자식, 들어가 보지 뭘 못들어가 보니. 내가 들어갈 터.”

들어가 보니까, 청춘 과부가, 정승의 며느리인데, [청중1(앞 제보자)
 :그 뱃장 켜.] 응 들어가 보니까, 참 네 활개 벌리고 두러누웠는데, 숨
 쉬는 소리가 화기를 허드라는 거여.

그러니까 한음이 그걸 보고설라무네, 남자로서 그냥 나올 수가 없어.
 {청중1 : 너 같으지 이놈!} 에이 빌어먹을 놈.(청중들 웃음) 그러니까 한
 음이 그냥 덮어 눌른거야. 아 그러니까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가 있다.

아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시아버지가 집안을 순행을 도는데, 미(며)니
 리가 그 어떻게 해서 두러누운 걸 보니까. 췌스럽거든. 그러니까 뒤땀
 이 덮어 두었던 말이. 덮어두니까 이놈의 걸 폭 찢어버렸네. 아 눈을 펴
 떡 뜨고 보니까 시아버지여. [청중1 : 비(보)기 싫으니까 덮어놓은 거
 여?] 응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임시 덮어 놓아 주는 거여. [청중1 :
 아이 그 댜배불을 거기다 떨어뜨렸다는 거여. 댜배불을 들고 가니까.]

아니, 그게 집안의 책피가 생겼지 않은가. 그러니까 인제 소문이 난 거여. 국가 나라에서. 아 인제 그래, [청중1 : 아 인제 말문이 열리는 거여.] 그러나 정승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심판을 허는 거여.

“응.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

아 그런데, [청중2 : 아 죄는 무슨 죄야!] 한음은 쟁혀들어가서 그래 간혀 있는데, 그 죄를 해서. 한음이 그런 것을 밝혀 냈거든. 그 사람(아마도 시아버지인 듯)을 빼낼라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여. 그러니까 그냥 내버리두었다가는 한음이 그냥 죽겠거든.

“이건 자진해서 내가 가서 발뺌을 하게 해야겠다.”

만조백관이 모여, 지금 판결을 할라고 모여 있는데, 아이 이 오성이 생각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죽겠거든.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기(한음)가 험 짓이다.”

자기가 했다는 것을 발표한다고 자진해 들어갔단 말여. 그러니 들어가니까,

“시간이 늦었다고. 왜 인제 오느냐?”

“아! 나 오다가 질에설라무네 이상스러운 것을 보았다.”

고. 응 오성 말이. [청중2 : 그 핑계대는 거지.] 응 핑계대는 거지. 그런게 발뺌여.

“그래 무얼 봤소?” 말여.

“신은 뭘 보셨소.?”

그러니까.

“아이, 길을 오다 보니까 등에 한 마리허고 진드기 한 마리 허고 돌이 다투드라.”

그거여. [청중1 : 진드기?] 진드기. [청중1 : 또 하나는 뭐여?] 등에. [청중1 : 등에.] 등에가 설다리라고 그러거든. [청중1 : 등에가 소 등에 있고 그러거든.] 응, 등에.

“등애더러 진드기가, ‘나의 똥구녕즘 뚫어 주오?’ 말이여.(웃음) 응 진드기란 놈이. 그러니까 등애가 허는 ‘한음은 시방 뚫어진 구멍을 뚫고도 옥애가 시방 갇혀 있는데,(칭중들 웃음) 새구녕을 댄 뚫어 달라고 허느냐?’ 아 그런 그런(칭중 기침) 보고 와습니다.”

말이여. 판관이 말이여. 한음 빼내는 얘기란 말이여. 그래구서 친구 구했단 얘기여. [칭중1 : 진드기는 똥구녕이 읊어요. 그래 똥을 안누고.] 뚫어진 구녕, 뚫어진 구녕 했다고. 진정할 것 죄구녕 찢러다고 진장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다 갖다 놓고서 ‘죽인다 살린다’ 하는 만조백관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그러니 판결이 어렵다 말이여. 그러니

“진드기가 구녕 뚫어 달라.”

고 하니까,

“생구녕을 왜 뚫어 달라고 허느냐?”

허드랴.(일동 웃음) 죄 구녕을 뚫는 것도 죄가 됐는데, [칭중1 : 그 옳은 얘기여.] 응. 그게 그런게 그 장난꾼인게, 그런 장난이 많았다고.

[칭중1 : 오성이는 음창 장난이 심한거여. 그 장지마를, 죽은 놈의 걸, 거기 가서 자빠졌으니, 그래 얼마나 뻘뻘이 큰 놈여.] 오성 장난 엄청 심했다는 거여. 그 오성이 하고 한음하고 비등비등 해. 장난하는 것 보면. [칭중1 : 한음이는 말도 안하고 조용해여. 그런데 오성이한테 잡혀 떨어져.]

[사암리 민요 1] 사암리 2악

사암리 노인정, 강현모, 윤덕환, 정현재 조사
이진열(60대, 남) 1995. 6. 10.

장부타령

조사자가 술을 한 잔 대접을 하자 청중들이 제보자를 지칭하며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곳에서 전해오는 민요는 오래되어 모두 잊어버렸다고 하며, 옛날부터

즐거 부르시던 창부타령을 한 소절 들려주셨다.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일자나 이짜나 꿈이로구나
 모두다 이짜로구나
 당신을 싣고 떠난 나를 나가고
 나를 박차고 가신 님아 (기침)
 일자 아리랑 푸른물은
 당신을 연엘 열것마는
 어리석이 미련이 들면
 그래 못잊어가는이
 얼시구나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 못하리라.

떠나신 너나도
 나를 싫어 떠나갔다.
 요놈의 팔자 기박하여서
 일부중사를 왜 히것다고
 밤이면은 낮을 삼고요
 낮이면은 밤을 삼아
 너의 가장을 내 입을 삼고
 주야장천

왜 고개를 끄떡끄떡 해?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겠네
 사랑 사랑 사랑 하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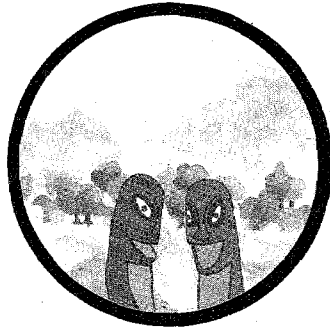
사랑이란게 무엇이나
 한다라두나 모를 사랑은
 있다가도 속은 사랑
 오목 조목이 알뜰한 사랑
 알각 달각 싸운 사랑
 흥선 여울 달 밝은데
 이거 거닐던 그린 사랑
 남의 정만 다 빼어 가고
 줄주 모르고 알미운 사랑
 이 사랑 저 사랑 다 그만두고
 아무도 몰래 단 둘이 만나.
 소근 소근이 은근 사랑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니라.

널리리 - 리- 리-
 아니놀지 못하리라
 강실강실 강도령이
 한실재거 옆에두고
 요즈번하고 길모퉁이
 비틀베틀이나 돌아가네
 요즈번하고도 빅사리건
 들장난에 문이 달아 반만 달고
 저기 가는 저 여자여
 앞쪽으로서라도 안보히고
 뒤로 살아 뒤매를 보고

언제나 던지매나 가던 길
큰애기나 방으로 들어를 가
유격답산에 급사를 두고
요강대야 장단을 치며
공공단여 입으로나 정

龍仁文化院 郷土文化資料叢書

- 1983. 내고장 民謠 (李仁寧, 洪順錫)
- 1984. 내고장 龍仁 (李仁寧)
- 1984. 내고장의 얼·人物編 (洪順錫)
- 1985. 내고장 옛이야기 (李仁寧, 洪順錫)
- 1986. 내고장의 얼·遺物遺蹟編 (李仁寧)
- 1987. 내고장 民俗 (河周成)
- 1989. 내고장 龍仁·義兵抗爭 및 獨立運動史 (李仁寧)
- 1991. 내고장 龍仁 地誌總覽 (李仁寧)
- 1994. 龍仁郡 時事年表 (李仁寧)
- 1995. 내고장 龍仁·人物總覽 (共編)
- 1996. 내고장 용인·동부지역의 구비전승(박종수, 강현모, 이응준)



龍仁文化院 郷土文化資料叢書

1983. 내고장 民謠 (李仁寧, 洪順錫)
1984. 내고장 龍仁 (李仁寧)
1984. 내고장의 얼·人物編 (洪順錫)
1985. 내고장 옛이야기 (李仁寧, 洪順錫)
1986. 내고장의 얼·遺物遺蹟編 (李仁寧)
1987. 내고장 民俗 (河周成)
1989. 내고장 龍仁·義兵抗爭 및 獨立運動史 (李仁寧)
1991. 내고장 龍仁 地誌總覽 (李仁寧)
1994. 龍仁郡 時事年表 (李仁寧)
1995. 내고장 龍仁·人物總覽 (共編)
1996. 내고장 용인·동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강현모, 이응준)

저자 약력

박 중 수(朴鍾洙)

- 공주사대 국문과 졸업
- 문학박사(단국대학교 대학원)
- 현재 용인대학교 국문학 교수
- 주요논저
「대학한문」 「문학과 인생」
“조선조 기류 문학의 연구”(학위논문)
“충남 지방의 설화연구” 등 다수의 논저

강 연 모(姜賢模)

- 한남대학교 국문과 졸업
- 문학박사(한양대학교 대학원)
- 현재 한양대, 한남대, 용인대 강사
- 주요논저
《부여지방의 구비전설》(보경문화사)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학위논문)
“이몽학 설화의 연구” 등 다수의 논문

이 응 준(李應駿)

- 서울농대 졸업
-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및 용인향토문화연구소 소장
- 주요논저
향토문화 활성화 방안 소고
전통문화와 효사상 연구 등 다수의 업적이 있음

향토문화자료 11

내고장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

1996년 5월 25일 인쇄

1996년 5월 30일 발행

엮은곳 :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지은이 : 박종수 · 강현모 · 이응준

발행인 : 송 재 권

인쇄처 : 보 경 문 화 사

발행처 : 용 인 문 화 원

(우) 449-800 경기도 용인시 중앙동 133-61

전화 : (0335) 35-2033 FAX : 33-3318

ISBN 89-358-0091-0 03810 (비매품)

